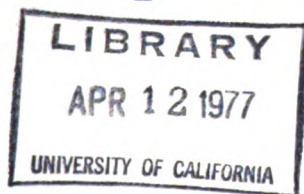




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4451
1248
1977

cont.

purch.

차 례

신 년 사.....김 일 성 (2)

영광의 새해를 더욱 큰 승리로 빛내이자.....(9)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15)

항일무장투쟁시기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김좌혁 (23)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로선 관철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손병찬 (29)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35)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조정근 (41)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담보.....오재원 (47)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선.....김운상 (53)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분렬을 막고 투쟁으로
통일을 앞당기자.....전금진 (59)

신년사

김 일 성

동지들 !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투쟁과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7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썸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조국애와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60만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하면서 간고한 투쟁과 뜻깊은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1976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수행한 역사적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붉은 기반을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6개년계획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6개년계획의 가장 어려운 고지의 하나였던 강철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야금기지건설자들과 강철전사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압연분공장건설을 완공하고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야금공장들의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함으로써 강철고지우에 승리

의 기발을 휘날렸습니다.

세멘트고지도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전제기지건설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대적설비를 갖춘 300만톤 능력의 순천세멘트공장이 조업할수 있게 되었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세멘트생산능력은 800만톤이상에 이르게 되었으며 6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로 남아있던 세멘트고지도 드디어 정복되었습니다.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부문의 생산토대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과제를 훨씬 넘쳐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특히 기본건설부문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야금기지건설과 전제기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건설공사들을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용감한 건설전사들은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서두수2호발전소, 청년화학종합공장과 여러 기계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의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안주와 남청진 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일떠세웠습니다. 기본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업의 부문내부구조가 한층 완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으며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게 변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우리의 근면한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농업생산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농사가 잘 안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전체 인민이 뿔쳐나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발판개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많은 다락밭이 새로 생겨났으며 농경지들을 큰물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영웅적투쟁을 벌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인민들의 힘찬 혁명투쟁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출로를 찾으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의 포드행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계획적

으로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였습니다. 포드행정부는 남조선에 있는 모든 침략무력에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남조선일대에 현대적군사장비들과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그 무슨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포드행정부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위급한 시각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것을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당과 인민은 적들의 위협공갈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대인들, 붉은청년근위대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적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저지시키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사건》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널리 서위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민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갈 때 그 어떤 원쑤도 때려부실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으로 가득차 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당과 대중의 강철같은 통일단결과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기세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적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새해 1977년을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새 전당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완충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최근년간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이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에 일시적으로 긴장성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에서는 생산의 빠른 장성에 수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채취공업이 가공공업을 확고히 앞서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가공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더 빨리 높일수 있는것을 높이지 못하고있으며 기본건설에서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입니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원료와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날라주어야 이미 건설해놓은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고 새로운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전선에서는 철도운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육운과 해운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는 한편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60톤짜리 화차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유조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특수화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10톤짜리와 25톤짜리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화물자동차들을 많이 만들며 1만톤짜리이상의 큰 짐배를 많이 무어 자동차와 배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며 운수부문에서 혁명적인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취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그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특히 최근년간에 야금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여러가지 광물과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미 건설된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은을 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채취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연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탄광들에서 박토와 기본굴진을 앞세우고 기술혁신을 일으켜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각 부문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확장하여 야금공장들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조성하여

야 합니다. 부산광산, 덕현광산, 은돌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전망성있는 광산들의 확장공사를 다그치며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야금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2개월이상 앞세우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유색금속광산들을 더욱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색금속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제련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련소들을 보강하여 그 생산능력을 높이며 단천제련소 건설을 다그쳐 올해안으로 조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마그네사크링카생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질 좋은 마그네사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전력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의 동력구성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생산과 건설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반면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생산이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전력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모든 발전기를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로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위원발전소, 회전2호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서두수3호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장들을 잘 돌리며 식료가공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조건에서 농업전선은 올해에도 여전히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알곡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해와 마완가지로 전당, 전군, 전민이 뭉쳐나서 농업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토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군중적운동으로 발판개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다락발전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강하천정리 사업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년간에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해양조건은 수산업발전에 매우 유라하게 변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수산전선에 큰 힘을 넣어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가공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물고기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현대적인 어구들과 고기배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소들을 확장하고 배생산능력을 높여 1만톤짜리이상의 대형가공모선과 3,750톤짜리 설머뜨탈선을 많이 만들며 450톤짜리 배를 비롯한 중소형고기배들도 많이 무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증산,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살림살이를 잔지게 하여 연료와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토력으로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계획보다 2%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전력량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전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전체 인민들은 적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적경각성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의 초소를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지 못한채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이것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은 피퇴로치배들의 과소적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60만 재인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남조선피퇴로당의 반민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였습니다.

새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과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제3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세계각지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 쿤름보에서 진행된 제5차콜럼비아담국가수뇌자회의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3세계나라들과 일본, 프랑스, 벨지끄,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조직되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전보적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운동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응해나서도록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과업입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우리는 올해의 혁명투쟁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영광의 새해를 더욱 큰 승리로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쌓아올린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보다 큰 전진과 승리로 빛날 영광의 새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보람찬 투쟁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은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밝아온 새해는 민족최대의 경사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다섯돛을 맞는 가장 뜻깊은 영광의 해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신년사에 접하여 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민족최대의 경사를 맞는 이해를 충성의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갈 드높은 결의와 승리의 신심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이룩한 지난해의 자랑스런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심오히 총화하시고 영광의 새해에 우리 인민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는 주체시대의 년대기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그것은 또한 전체 인민을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치는 장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지난해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6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수행한 역사적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완전히 수행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불같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임으로써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하고 6개년계획의 가장 어려운 고지의 하나였던 강철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압연분공장건설이 완공되고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중요야금공장들의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산광산을 비롯한 쇠돌생산기지들이 새롭게 개진확장되고 현대적기술로 더욱 훌륭히 장비됨으로써 우리 나라 강철공업은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전 재기지건설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고지도 성과적으로 점령되었다. 세멘트생산을 크게 늘일 수 있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300만톤 능력의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세멘트공장들이 완공 또는 개건확장되어 우리 나라의 세멘트생산능력은 800만톤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력, 화학, 기계 공업부문의 생산토대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과제들을 훨씬 넘쳐수행하였다.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동화, 현대화된 청년화학종합공장과 대동강, 서두수, 청천강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 그리고 여러 기계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의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새 도시들이 일떠섰다.

우리의 기계전사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와 기술로 수많은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과 특수정밀기계를 만들어내고 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훌륭히 생산보장함으로써 기계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한계дан 더 높이 끌어올리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6개년계획이 전반적으로 빛나게 완수되어 주체공업의 1부문내부구조가 더한층 완비되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지난해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서 일찌기 없었던 자랑스러운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농사가 잘 안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에 끝없이 충실

한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지난해에 조선땅이 생겨나서 처음보는 흐뭇한 대풍을 이룩하여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세계를 휩쓴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 모든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에서 류폐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여 알곡 800만톤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한것은 우리 인민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대승리로 된다. 이 력사적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업체제와 주체농법이 가져다준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 거창한 투쟁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승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것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승리는 결코 순탄한 환경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긴장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재능들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망상하면서 계획적으로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당장 전

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미친듯한 전쟁도발소동으로써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친 우리 인민을 결코 놀래울수 없었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과 단호한 혁명적립장앞에서 농들은 다시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았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자연의 후심한 영향도 원수들의 도발책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난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가져다준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헤아리시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투쟁방침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 인민을 대혁신, 대비약으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기 위하여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과 농촌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혁명의 전위, 3대혁명소조들이 우리 근로자들과 일군들을

도와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정해주시고 전국농업열성자회의를 비롯한 중요한 회의들을 마련하시여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혁명적인 방침과 구체적방도들을 다 밝혀주시었으며 몸소 농촌사업전반을 틀어쥐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 일으키시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한랭전선의 후심한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한편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당조직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비상이 높이 발양되었다.

실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것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또다시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해 1977년을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새 전망 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완충의 해로 정하시고 올해 사회주의건설의 중심 방향과 목표, 투쟁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
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
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
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
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
이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사업입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를 완충의 해
로 규정하신것은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
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보장
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필수적
요구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실
태 그리고 그 발전전망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한것은 6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에 조
성된 긴장성을 풀며 웅대한 10대전망계
획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
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
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
히 다져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
비약,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이며 우리의 전군속도를 더욱 높여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
로 점령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진공적
인 방침이다.

올해 우리가 큰 힘을 넣어 결정적으
로 추켜세워야 할 부문은 수송전선과
채취공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
이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
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
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
한 과업이다.

우리는 올해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
는 해로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물
기본으로 하면서 육운과 해운을 다같이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전반적수송능력
을 더욱 높이며 화물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
는 한편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60톤
짜리 화차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철
도수송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10톤짜
리와 25톤짜리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화물자동차들을 많이 만들며 1만톤짜리
이상의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 자동차
와 배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
계화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며 운수에서
혁명적인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
워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전선을 추켜세우
는것과 함께 채취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
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
이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
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박도와 굴진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일으켜 석탄생산
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광산들을 대대적
으로 개발확장하여 야금공장들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조성하고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광업부문에서는 야금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2개월이상 앞세우며 특히 유색
금속생산을 늘이는대 큰 힘을 넣으며
마그네사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완충의 해인 올해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전력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
라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가 더
욱 높아지는 반면에 한랭전선의 영향으

로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전력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잘 관리하며 모든 발전기들에 만부하를 걸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며 그 질을 한계дан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의 량과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장들을 잘 돌리며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조건에서 농업전선을 올해에도 여전히 주공업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농업생산투쟁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농업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알곡생산에서 대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올해에도 전당, 전군, 전민이 밀쳐나서 농업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며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1,000만톤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업전에 더 큰 힘을 넣어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해양조건은 수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변화되고있다.

수산업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가공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고기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현대화함으로써 물고기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올해 경제사업분야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증산,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산잠재력이 비한바없이 크며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있는 우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하여 연료와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원가를 계획보다 2%이상 낮출데 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부문에서 전력량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전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공산주의적대진군운동이며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집령할 수 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아버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와 합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행정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내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하여 맡겨진 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이것은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신다.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조선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모두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

올해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다섯돌이 되는 영광의 해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걸어온 승리의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위에 민족적 대번영과 통성의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진하여왔기에 지난날 일체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인간이하의 멸시와 착취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오늘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정녕 경애하는 수령님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도,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과 보다 휘황한 래일도,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드팀없는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한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그것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과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는 그 어떤 벼슬이나 개인의 공명과 출세를 바라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20페이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혁명적신념으로,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그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개척되고 실현되는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며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위업인것으로 하여 필승불패이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참된 길이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에 충실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원래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근본문제이며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창시하고 혁명투쟁의 최종목표와 당면한 투쟁임무, 혁명의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며 혁명투쟁의 전반적행정을 직접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령도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다.

수령은 혁명의 매 력사적단계와 혁명

발전과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구체적방도들을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령도하여 기창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리론적으로뿐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엄연한 진리이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나갈 때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인 맑스주의를 창시함으로써 국제로동계급은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를 받아안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일떠섰으며 국제로동운동은 뚜렷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레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수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를 창시하고 그것으로 로씨야로동계급을 무장시키고 혁명을 능숙하게 령도함으로써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은 승리할수 있었으며 따라서 10월의 산아인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세상에 나올수 있었다.

한편 력사는 어려운 시기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대두하여 수령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말살하는데로 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엄청난 손실을 준 실패를 알고있다.

이처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외없이 혁명의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전락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역사적경험도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령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기 이전시기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거의 기치를 추켜들고 반일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그때마다 희생만을 남기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수령의 올바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고 그 상층부에 들어앉은 사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파벌싸움으로 하여 모진 전횡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시련속에서 모태기던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혁명의 역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게 됨으로써 비로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면 반드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의 령도와 그의 위업에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수령을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다.

존엄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투쟁의사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영광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교수하고 완수하라는 것은 우리 인민의 드물지 않는 혁명적

신념이며 철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오는 행정에서 심장속깊이 뿌리를 내리고 역세여길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딴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하여 자기의 충성의 열정을 다 쏟아부고있다.

그들은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단길로 이끄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가장 숭고한 높이로 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모시며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융성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도 드린수 없는 법으로 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순기로운 인민으로 되고있으며 혁명과 진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영웅적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

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귀중
히 여길뿐아니라 동지적의리도 잘 지킵
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6페이지)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고상한 도덕과
혁명적의리를 지닌 사람들이다.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특히
수령에 대한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지니
고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
신적특질을 이룬다.

공산주의자들이 수령에 대한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지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성장
하고 발전하기때문이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
을 안겨주는 정치적생명의 아버지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부모는 육체적생명을 주지만 수령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
여나가도록 보살피주며 사람들을 보람
찬 혁명투쟁의 길로 이끌어준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
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듯이 우리 당원
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
상을 사상정신적양식으로 삼고 수령님
의 끊임없는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 속
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으
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
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
시고 삶의 참다운 보람을 누릴수 있
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
없이 경모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
가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는것은 수령님
에 의하여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참다

운 삶의 보람을 누리고있는 당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된다.

바로 이러한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지
니고있음으로 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자
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지조
와 절개를 지킴으로써 가장 깨끗한 마
음으로 수령을 따르며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간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를 놓고볼 때
진정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언제나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자기를 키
워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
쳐 투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
큰 혁명적사랑의 숭고한 모범으로 수놓
아진 항일혁명투쟁의 전력사는 혁명
적의리가 가장 높이 발현된 력사였으
며 사상의지적으로, 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힘에 의거하여 승리를 이룩하여온
영광에 찬 투쟁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
기 말 그대로 혈로를 헤쳐나가는 간고
한 조건에서도 혁명전사들을 자애로운
아버이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피시고 이
끌어주시였으며 진정한 혁명가로 키워
주시였다. 한편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
들은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
였으며 더는 헤여날수 없다고 생각되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일편
단심 오직 수령님만을 따랐으며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꿋꿋이 지키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갔다.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인
민적품성을 지니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전사들과 인민
들을 보살피주시고 이끌어주시던 그 은
혜로운 손길로 해방후 우리 근로자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키워주시었으
며 그들모두에게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
게 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한 생활과 더 큰 행복을 마련

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시며 수령님의 은덕과 배려로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값높은 삶의 보람을 안겨주시고 그들모두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은덕과 사랑보다 더 크고 고귀한것은 없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에게 혁명하는 인민의 영예와 행복을 주신 정치적생명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우러러경모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들의 드릴수 없는 혁명적본분으로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당우에 실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길우에 있으며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야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역사적위업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아버지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건걸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받들며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며 우리 조국의 끝없는 등성과 번영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끝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또 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정신을 지니

고 그것을 한치의 드린도 없이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심리를 단어드리고 그에게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태도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의 척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찰에서 표현된다.

모든 당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근 범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끝까지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를 단어드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려겠는가 하는 충성의 갈마음을 안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나라살림살이를 주신나을 힘장과 태도를 가지고 일관하시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진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비할바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 혁명과학부이다.

우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그 어떤 비람이 붙어도 우주의 중요성이 그보다 높아서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에

전인 빛내여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신했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고귀한 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이 온 나라에 힘있게 나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며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강제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 가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9페이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길을 개척하는 역사적시기에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조직을 내오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간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기만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신대 풍산주의운동은 선행한 모든 사회혁신운동과는 달리 교도로 조직화된운동이며 따라서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

가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건설되
며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중국
혁명을 이룩할수 있다.

반일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
긋는 이색적인 사상요소나 종파와 분
파 현용된다면 그 틈을 리용하여 나
쁜들이 작간하고 혁명을 파괴하는 엄
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며 수령이 창
건한당이 변질되고 수령에 의하여 이
룩된 혁명업적을 말아먹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
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
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체제
에 기초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단
계를 이룩했으며 그것은 가장 공고하고
견고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
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
수하고 더욱 강화하는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
성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조선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
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
을 더욱 강화하는데 언제나 쫓겨가는
주목을 돌리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
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
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
될수 있다. 우리는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타격을 주어 철저히 극복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간교
한 시련속에서도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
과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획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획하
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영광
스러운 우리 당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
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
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단결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이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령
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
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
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수령님께서 계획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다
는 건정직담보이다.

우리 당의 의사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수령님
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끝
없이 충실하여야 주체사상체제와 전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수령님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신대로 바
뀌는대로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떠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
는 문제도, 주체의 사상체제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도
그리고 수령님께서 계획하신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문제에
대하여지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내
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히 실행하여야
하며 당의 유일적지도와 이룩하는 그 어
떤 사소한 결사항 요소는 당의 유일적지도

용화목과하지 말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율을 전당에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내세운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위업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몸바치투쟁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실히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 사함과의 사업을 실속있고 깊이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식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당사업은 오직 정치사업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과 간부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실히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상사업은 실속있게 해나갈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금물이다. 당조직들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사상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대진군운동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더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간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

김 작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당안에 혁명적당생활기풍이 철저히 세워지고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이 높아졌으며 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품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당생활기풍의 계승이며 그 빛나는 구현이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 항일무장투쟁시기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혁명적당생활기풍의 빛나는 전통을 그대로 본받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조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 우리는 당조직생

활을 통하여 자신을 일상적으로 수양하며 단련해야 한다.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당원들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당건설에서 당원들의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당생활기풍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매한 혁명정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허용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진공적이며 전투적인 혁명정신 등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당생활기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이런 혁명적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생활기풍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당원들의 중요한 의무였으며 생활원칙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발현

된 혁명적당생활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것이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토록 빛내이기 위한 정치활동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활동이다.

이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신봉하는 주체주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정치적신념에 기초한 혁명가적기풍의 발현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사업을 떠나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떠난 당활동, 당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은 혁명적당생활기중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요구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것을 다없는 영애와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인민단심 충성다하였다. 그들은 이런 이경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며 그의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관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800여섬의 식량을 기어이 마련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린 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적들의 《포벌》이 집중된 속에서 강냉이 한포대를 놓고도 결사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어려운 투쟁을 이기내고 한두섬도 아닌 800여섬의 식량을 마련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 오직 한마음, 충성의 열정을 안고 비판치는 탄우속을 뚫고 불길을 헤치며 만기전 혁명임무를 관치의 드림도 없이 제기일만에 기어이 수행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인간군단》을 만들어내고 수백배에 달하는 인제를 상대로 혁명의 근거지를 4~5년간이나 지켜낸 혁명투사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들을 유인하여 사령부의 안전과 혁명을 사수한 당원들,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한 영웅전사들, 삼엄한 적들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 지하정치공작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당원들과 유격대원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안고 항일의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난관앞에서 주저앉거나 물러설수 없으며 지어 죽을 권리조차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란것, 바로 이것이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의 당생활기중에서 발휘된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의 혁명적당생활기중은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당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킨데

서도 높이 발현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과거에 뺏긴 산 할 때에는 당 사업이 항상 당원들의 자원성과 의식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269페이지)

혁명가들은 원래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 한평생 싸울 높은 혁명적작조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며 혁명조직의 한 성원으로 된다. 때문에 혁명가들은 그 누구의 자식나장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조직생활에 참가하게 된다.

혁명가들은 조직생활에 성실하 참가하여야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업에 끝없이 충실할수 있고 따라서 혁명대오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우리 항일무장투쟁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할것을 더욱 진실히 요구하였다.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적들로부터 사면방방으로 포위된 조건에서 무기와 식량 등 군사정치활동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간고한 투쟁을 벌려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은 오직 그 참가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당건설의 본질적요구와 항일무장투쟁의 특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당원들로 하여금 당생활에서 높은 자각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중대당지부회의에 참가하시여 조직생활을 강화할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으며 언제나 대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었다.

1940년 어느날 사령부직속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일부러 수령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당원회의회를 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 모인 당원들에게 당원이 리유없이 자기가 속한 당단체 생활이나 회의에 제외될수 없다고 엄하게 타일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원들속에서는 자각적인 당조직생활기풍이 언제나 높이 발양되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발현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무엇보다도 당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당회의와 당학습회, 당생활총화회의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킨데서 나타났다.

당회의와 당학습회, 당생활총화회의 등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누구나 당회의와 집체적모임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강한 조직성을 키울수 있으며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에게는 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맡겨져있었으며 때로는 조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전투를 벌리면서도 지정된 장소에 제날자에 꼭꼭 찾아와 당회의와 당학습회, 당생활총화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문제토의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것은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때에도 당회의를 제정된 날자에 모든 당원들의 참가밑에 꼭꼭 진행한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그들이 얼마나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또한 당조직의 위임분공과 당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조건이나 구실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무조건 접수하고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당원들은 당조직의 위임분공에 대하여 경중을 따지거나 때와 장소를 가린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학습과 선전활동, 신입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신연락 등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업들이 수없이 맡겨졌으나 그들은 당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믿음의 표시로 당원의 본분을 다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고 서슴없이 맡아 어김없이 수행하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당조직에 보고하였으며 또다시 새로운 분공을 자진하여 맡아 집행하였다. 이와 함께 당원들은 당회의규률을 철저히 지키고 당적분공집행에, 성실하였을뿐만 아니라 군사정찰활동과 개인생활에서 제기되는 조그마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철저히 의지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조직에는 2중 규률이 없었으며 당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하나의 규률만이 있으며 당을 이루는 모든 당원들이 이 하나의 규률속에서 생활하여야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정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다. 때문에 당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혁명적당생활기풍의 본질적요구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당조직안에 세워진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에 따라 한사람같이 움직이였으며 간부들과 지휘원들은 당조직규률을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지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의 당조직규률에 복종하였으며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당원들은 조직생활에 주인답게 성실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당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로동계

급의 혁명적당의 생활기풍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었다.

당적원칙에 기초한 엄격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를 옹계 세워나간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간산들은 숭고한 동지애와 함께 엄격한 비판정신과 규률 속에서 살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42페이지)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온갖 낡은 사상경향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만 당조직이 전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잘해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가일층 촉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통속에서 교양육성된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자신의 사상수양과 혁명화를 위한 힘있는 무기로 삼고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 강한 투쟁을 벌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진행된 비판과 자기비판은 상하의 구별이 없었으며 원칙적이며 동지적인것이였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같이 싸우는 혁명전우들 사이에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혁명동지를 진저주며 결함을 시정시키주기 위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당원들은 비판의 무기를 들고 사상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사상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여나갔다. 그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를 옹계 세워나갔으며 언제나 당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혁명발전에 지장을 주는 온갖 무규률적이고 비원칙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융화무과함이 없이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한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을 강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사업과 생활에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내두산을 향하여 행군할 때 한 신입대원이 권총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오를 감추려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사상적병집에 대하여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그가 자기의 결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제때에 고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이처럼 혁명동지들의 결함을 묵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며 동지들의 결함을 제때에 타일러주고 고쳐주는것을 당생활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였다.

혁명동지들의 결함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늘 스스로 돌이켜보고 총화하면서 자기의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간것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자기 결함에 대하여 감추려 하지 않았으며 동지들앞에 솔직히 비판하고 대담하게 고쳐나갔다. 그들은 결함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든지간에 그 결함이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결함을 범하게 된 사상적근원과 그 후과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 자로 하여 심각히 분석하고 자기비판을 사상적으로 깊이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원칙적으로 생활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이 지니였던 고귀한 품성이였으며 당생활에서 발현된 혁명적기풍의 하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의 혁명적당 생활기풍은 또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생활한데서도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빨찌산들은 헤아릴수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싸웠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혁명적락관주의로 가득차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원수들의 겹겹으로 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비판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3페이지)

안일과 해이, 침체와 담보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하는것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마땅히 지녀야 할 생활기풍이다.

혁명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으로서 혁명의 앞길에는 예상치 않았던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일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은 방대한 폭압기구와 최신무기로 장비한 수백만의 정규군을 가진 가장 포악한 일제를 상대로 한 혁명투쟁으로서 그 어느 혁명투쟁에서도 볼수 없었던 가장 잔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었다.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준엄한 투쟁속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당원들은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백두밀림에서 풍찬로숙하면서 위대한 주체의 길을 따라 혈전의 수습만리,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모르고 굴함없이 싸웠다.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 홀로 남아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도 단 한번도 비굴한 생각을 한적이 없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혁명이 잔고하고 투쟁이 곤난할수록 혁명가의 본분을 되새기며 백절불굴의 투지로 불사조와도 같이 더욱 의세게 싸워나갔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은 단성한

성과에 지만하거나 단 한순간의 안일한 생각을 한적이 없었다. 그들은 적들의 철강속에서도 뜨뜻한 온돌이나 고향의 부모처자들보다 먼저 혁명을 생각했으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의 비밀을 지켜 자기의 혀를 끓고 남들의 고문에 두눈을 잃으면서도 혁명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교양받으며 혁명의 의지를 굳세게 키워온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은 백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철같은 투지를 가지고 간고한 투쟁의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조국광복의 그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이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몸소 따르하여주시신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은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혁명적당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힘있고 생활력있는 당생활기풍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적당생활기풍의 고귀한 전통은 오늘 우리 당사업에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재부이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귀감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당생활기풍을 깊이 연구체득

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본받아 당안에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3대혁명불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시고있다.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심장이며 추동력인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당생활기풍을 본받아 당안에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로선 관철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손 병 찬

은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역사적전진길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품모가 새로워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나라의 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체도가 선 다음 로동제국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1973년 2월에 몸소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를 부여하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신 다음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우리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혁명운동이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 위대한 운동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당의 로선 관철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대, 근위대들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중앙에서 파견되어온 사람들이 다르다, 정말 당중앙의 전위대, 근위대답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하겠다고 말할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전집》, 제6권, 445페이지)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가장 뜨거운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지니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훌륭히 추진시켜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그 적극적인 실천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혁명적의무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혁명적인 세계관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유일한 신념으로,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인제 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온몸에 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상에

호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앞장에 서서 적극 옹호하고 선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빛내어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무조건적인 관철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품모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 새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역세게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의 건대성, 무조건성,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고있는 철석같은 의지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내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생활하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온갖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훌륭히 관철되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해나가는 투

쟁의 기수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전진할수 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다.

특히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끌어버리는 심각한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것해민감하고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력이 강한 당의 친위전사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전의 무기를 들어쥐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산재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과 사업태도,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에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적의정을 지니고 당의 로선 관철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혁명의 전위투사,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원들을 발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3대혁명소조의 구성과 규모, 이 운동의 목적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3대혁명소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성과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혁명적 본질과 목적에 맞게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새세대의 청년인테리들을 망라시켜 큰 규모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히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을 3대혁명소조에 망라시키도록 하신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은 주체교육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인 새세대들이다. 그들은 또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 새것을 좋아하고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력과 혁명성이 매우 강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나라 청년인테리들의 특성과 몸소 창조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그들을 대담하게 3대혁명소조에 망라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편 3대혁명소조를 큰 규모로 조직하시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래단위에까지 깊이 들어가 실태를 전면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우며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기에 있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3대혁명소조들이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간부들을 잘 도와주고 배워줄데 대한 가르치심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간부들의 수준을 빨리 따라세우는데서 강력적지침으로 된다.

우리의 오랜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어 나라의 경제규모가 매우 커졌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현대과학기술을 요구하는 현실은 간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배워주어야 할 요구를 절박하게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들이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어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지난 기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워온것처럼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쥐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 참다운 일군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3대혁명소조들의 투쟁대상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들이 옳은 활동방법을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는 일군들이 가지고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투쟁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꼭꼭히 가르쳐주시음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옳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대로 일하며 생활해야 한다는것을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은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접촉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혁명적의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대중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선작적을 3대혁명소조원들의 행동준칙으로 밝혀주시고 그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소박하게 생활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음으로써 3대혁명소조원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지고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을뿐만 아니라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정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실 때마다 해당단위에서 활동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물어주시었으며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치하하시면서 크나큰 고무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전국의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인민들의 회의들에서 3대혁명소조사업정형을 정취하시고 중간총화를 하여주시었으며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더욱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당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이 운동에 대한 당지도도문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당중앙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의 방침과 의도를 정성적으로 알려주었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우수한 경험과 성과들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전행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끊임없이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은 힘있게 발전하여왔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3대혁명방침이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적극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라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은 모든 부문에서 당조직과 합심하여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길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행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더욱 철저히 되고 당의

기층조직들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과정도 더욱 촉진되었다.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에 의하여 당조직들이 더욱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품모가 달라지게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쟁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해내는 혁명적기풍이 적극 발휘되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투쟁의 기수가 되어 낡은 사상잔재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이 현저히 극복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듯 3대혁명소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의 사상체제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게 되었으며 온 사회에는 드높은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기백으로 차넘치게 되었다.

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극 밀고나간 결과 일군들속에서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이 극복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구상은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대혁

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함께 대담한 기술혁신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전도는 더욱 밝아졌으며 일부 일군들속에 남아있던 기술신비주의는 산산이 깨여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화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더한층 공고발전되게 되었으며 나라의 경제도내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위력한 추진력이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관없이 충실한 당중앙의 친위대, 군위대들이며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역사적진군길을 다그쳐나가는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니고있는 책임과 임무는 크고도 무겁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나가는 친위

대, 근위대이며 혁명의 전위투사타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싸워나아가감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들끓고 힘차게 전진할 때 전국이 들끓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며 3대혁명소조원들이 투쟁의 기수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 역세게 달려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더 큰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음으로써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들이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온 사회에 보다 생기 반발하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언제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

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합심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에 더 관심을 돌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진인민적, 진사회적 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조직들과 함께 이 운동의 앞장에 서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능숙하게 지휘해나갈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진사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의 성과는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중앙이 의도하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하며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온갖 충성을 다 바쳐 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힘찬 전군을 다그치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쳤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반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알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된바람을 일으킨 때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드림없이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다.

당중앙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 밑에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킬 뿐아니라 학습에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전투적으로 배우는 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이란 학습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여기고 행군과 전투의 나날에도 학습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으며 끼니는 전날 지언정 학습을 전는적이 없이 모두가 정열가, 독학가가 되어 학습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한것이다.

우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전투적으로 배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학습태도, 이러한 학습기풍을 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학습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여기고 언제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항일유격대식 학습 방법과 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해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기풍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임무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간것을 요구하고있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

이다.

혁명적으로 학습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게 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강제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3페이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진심으로 받들고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지닌 혁명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며 항상 혁명가로서의 높은 사각과 투쟁기풍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누구든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 그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학습을 강화해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고 어버이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셔나갈수 있다.

만일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을 세운리 한다면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없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는 참된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는 부단한 학습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끊임없이 섭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것을 깊이 사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실대로 더럽히지 않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참담게 살며 싸워나가게 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해야 하는 것만큼 죽는 순간까지 학습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담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학습이야말로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증보를 확고히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가며 일생을 충성의 한길로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

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이지)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그 누구도 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이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위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는 헤아릴수 없는 많은 난관과 대로에 부딪칠수 있으며 이 사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며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위업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어떤 중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갈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야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갈수 있다.

이러한 혁명적세계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관한 사상과 이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정하기 위한 부단한 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고화된다. 혁명의 전진을 배우는 학습을 떠나서는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없고 목적의식적인 혁명실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

을 주는 사상정신적양식은 한시대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부단히 학습하여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혁명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씩없이 학습하고 꾸준히 배울때 그 어떤 복잡한 시련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추호의 등요없이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이처럼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혁명적신념과 투지, 용맹을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이며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양성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양식을 주는 위력한 무기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정치사상수준뿐만아니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알아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06페이지)

매 시기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에 맞게 살며 일해나가자면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매 시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것을 제대로 깊이 알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 아버지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당정책을 모르고 혁명투쟁의 과녁을 모르고서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싸워나갈수 없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기술실무수준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풍부히 가질 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부문과 단위들간의 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인민경제는 새로운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있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경제관리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발전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이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선진적인 경제관리방법과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없다.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예비는 사람들의 머리수가 아니라 그들의 자질을 높여 더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당에 만족을 주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학습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면서 경제지식, 과학기술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소유하며 맡은 사업에 정통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기풍을 세우며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한 투쟁은 당기관, 인민정권기관, 학교, 공장, 기업소, 농촌, 인민군대 할것없이 그 어느 부문에서나 다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학습기풍을 세우며 모든 사람이 매일 2~3시간씩 책읽는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64페이지)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어떠한 관심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가 하는것은 학습에서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학습을 잘하는것이 곧 혁명을 위한것이며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은 학습에 더욱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게 되며 학습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건 학습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학습을 조직사상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수립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는 문답식학습방법과 론쟁의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다.

문답식학습방법과 론쟁의 방법은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이 학습방법은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실증되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문답식학습방법과 론쟁의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누구나 학습에 높은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며 대중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중속에서 형식주의적학습태도를 극복하고 학습을 폭넓고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강연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과 떨어져서 문구나 외우는 식으로 당정책을 공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는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수 없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찾아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권, 262~263페이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지 않으면 혁명의 진리를 옳게 체득할수 없고 모든 사업을 창조적

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배운 지식을 혁명실전에 옳게 써먹을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마스고 학습을 깊이있게 하고 하나를 알아도 푹푹히 알고 넘어가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때야 혁명의 진리를 심오히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을수 있다. 또한 학습에서 문제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깨닫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체사상학습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알아야 실천활동에 더 잘 구현할수 있으며 적아를 푹푹히 식별하고 혁명적원칙과 계급적립장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의 매 구절구절을 새겨가면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 로작의 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를 심오히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심장의 붉은 피가 동맥을 통하여 전신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혈맥을 통하여 온몸에 퍼져나가 뼈와 살로, 신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자면 또한 지도일군들이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발전하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겸비한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전개해나가자면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몇배, 몇십배 노력해야 한다. 일군들이 머리가 비고 자질이 높지 못하면 자연히 관료주의와 경험주의, 요령주의에 빠지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비해 볼 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이 아직 뒤떨

어저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학습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누구보다도 학습을 더 많이 하고 모범을 보여야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혁명적으로 벌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시간이 바쁘다는 구실 밑에 학습을 게을리 한다면 당이 준 혁명 임무를 완만히 수행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아래일군들의 학습생활에 주는 영향도 나쁘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열렬한 독학가, 정일가가 되며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갈 때는 배낭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모작을 비롯한 학습자료들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학습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강연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의 경우에는 학습을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자면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기풍은 자각성과 함께 당조직들의 지도통제가 안받침될 때 더욱 철저히 설수 있다.

원래 학습은 자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결코 자각성에만 맡겨둘수 없다.

당조직들은 모두가 높은 자각성 밑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 하는 혁명적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며 정상적으로 학습과제도 제시해주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학습을 잘 하지 않거나 학습규율을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학습강사들과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을 지도해나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다는 그런 사상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학습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습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와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가 못일으키는가 하는것은 학습에 대한 사상관점과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정력적으로 달라붙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으로 학습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학습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해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조 정 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벌리고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은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며 이 땅위에 하루 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영예로운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고리의 하나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더욱 성심성의로 일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고계신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행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적품모의 기본특징을 이룬다.

자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확고히 지녀야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다.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누구나 다 지녀야 하지만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은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중요초소를 맡고있는 지휘성원이며 대중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인민의 총복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질신에 배잠뱅이를 걸치고 모진 천대와 멸시속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을 모두 한물에 안으시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간부로, 인민의 총복으로 될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떠나서는 우리 일군들의 오늘의 행복과 영예를 생각할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잡있는 존재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의 최대의 영예, 신성한 의무로 되며 혁명가로서의 가장 숭고한 의리로 된다.

아버이수령님께 충성하는 길에서만 우리 일군들은 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다는것은 곧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분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과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었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로고를 떨어드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실로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이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은 관료배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꾼, 인민의 총복이다. 우리 일군들은 모두가 인민들속에서 태여났으며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고 당원이 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간부가 되고 생활이 풍족해졌다고

하여 지난날의 눈물겹던 생활과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오늘의 사명을 조금도 잊어버리서는 안되며 관료화를 반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만일 일군들이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간부가 되고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것을 그 무슨 벼슬자리나 타고난 판자처럼 여기면서 지난날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관료배들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실로 커다란 후파를 미치게 된다. 일군들이 관료화되어 대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며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당과 정권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당으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게 되며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관료화를 반대하고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힘쓰는것은 개인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일군들모두가 관료화를 반대하고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설 때 진정으로 인민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과 로동계급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이렇듯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출발점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며 진정으로 인민의 총복으로 되자면 실천투쟁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천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이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로서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근본이익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없으며 우리 일군들이 자신의 혁명직분분을 다할수 없다.

일군들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지 못하고 당정책집행에서 무책임한 현상이 발로되는것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결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없는것과 관련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그 어느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시되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또한 진실로 인민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나타난다.

인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돌볼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은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직선임에 보답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해당단위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모든 일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혁명적으로 밀고나갈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당정책관철에 옮겨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더 잘 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써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설고 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리사적위업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설고있다. 당면하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보람찬,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며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우리앞에 나설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

본고리는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살며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는 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어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이 비상이 커졌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매우 높은 조건에서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일해나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혁명과업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 사람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매 사람이 자기 맡은 부문의 일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04페이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구체적표현 형태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야 평범한 대중을 용계 조직동원하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잘지키고 관철할 수 있으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용계 세워졌다 하더라도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책임성이 없으면 사업에서 웅당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일군들이 매 초소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비록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은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나라의 주인, 혁명의 지휘성원된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무슨 일이나 중도에서 꺾버리지 말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잘지키 수행하여야 하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가를 늘 재보아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어머니다운 심정에서 그들의 생활을 늘 세심히 보살피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62페이지)

혁명과 건설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피주어야만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 수 있다. 또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자신의 혁명화를 다그칠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인민의 총복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다.

근로자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 주며 그들의 생활을 늘 세심히 보살펴주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지휘관들에게 항상 아리사람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몸소 그 모범을 보여 주시였으며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고난도 시련도 그들과 함께 이겨나가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이 위대한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 늘 아랫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가르칠뿐아니라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워야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특히 근로자들의 살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으면 가슴아파하면서 그것을 줄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가 근로자들에 적 더 잘, 더 빨리 가당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오직 자기말은 혁명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당세포회의와 조급당회의들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끊임없이 검열되고 단련되어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28페이지)

당조직생활은 일군들의 혁명적수양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

한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끝없이 충성다하는 숭고한 사상과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우게 되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집행하는 실천과정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하며 항상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마칠 굳은 각오를 가지고 혁명가답게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째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전을 탄있게 벌리는것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현상은 다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째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어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로동계급의 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문화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은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맡겨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나가도록 하여야 한

다.

넓은 사상잔재를 뿌리내기 위한 사상투쟁은 사상전의 중요형식이며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사상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현상들과 그 원인을 똑똑히 알게 되고 당과 혁명의 이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길을 더 잘 깨닫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데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공명출세주의 등 온갖 《잡귀신》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진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이 더는 배겨날 수 없게 몰살시켜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혁명전사로,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참된 인민의 충복으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이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전심으로 충성다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넓은 사상잔재를 뿌리내기 위한 사상전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한평생을 오로지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리와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 하는것은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담보

오 재 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사상에 기초하시
여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는 전민무장화방침을 내놓으
시였다.

전민무장화방침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자체의 힘으
로 튼튼히 다져나가는 혁명적방침이다.
전민무장화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어느곳마다에는 혁명적인 민간군사
조직이 무어지고 적과 싸울수 있는 모
든 사람들이 총을 잡고 군사를 성실히
태움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고있다.

우리의 로농직위대는 위대한 자위사
상을 구현한 전민무장화방침을 관철하
는 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로농직위대를 비롯하여 민
간무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굳건히 세워지
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이 마련되게 되
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
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
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자랑찬 성과
이다.

경험은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을 철저
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튼
튼히 다져나갈 때 원수들의 도발책들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믿음
직하게 보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전민무장화방침의 혁명적본질
과 우월성을 더 뚜렷히 알고 그것을 더
욱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나라
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할것
이다.

탁월한 군사리론가이시며 천재적군사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덩장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
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군사
분야에서 자위사상, 자위의 혁명적원칙
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자위사상은 군사분야에 주체사상이 구
현된것으로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를 보위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의 혁
명적본질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과 혁
명무력이 자기 혁명의 주인이라는 확고
한 입장을 가지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
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
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혁명위업
의 수행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자위사상은 남에 대
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힘을 믿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
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
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
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위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시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
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으며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우리자신의 힘

으로 격파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64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책동을 분쇄하고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자신의 힘으로 격파할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은 국방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노선을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이 발현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국방건설에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국방건설은 전광적, 전인민적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국방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 기초위에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혁명적민간무력을 조직하고 적과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주고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가르쳐주어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면서 생사파괴를 다그치도록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나라의 방위력을 다져나가도록 함으로써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인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 적들이 그 어디로도 기어들수 없게 하며 어떤 형태의 무력침공도 자신의 힘으로 적저히 대리부실수 있게 한다.

전민무장화방침은 무엇보다도 혁명무력건설과 혁명전쟁수행 그리고 방위력강화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철저히 보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는것은 우리의 특징이며 우리의 무궁무진한 군사력의 원천입니다.》(《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228페이지)

인민대중은 혁명무력건설과 혁명전쟁수행에서 결정적요인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온게 조직동원하여야 혁명무력도 강화할수 있고 혁명전쟁의 승리도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조국보위임무수행에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야 정규무력을 보충확대하는데 필요한 예비력량을 믿음직하게 마련할수 있다. 그리하여 일단유사시에 새로운 사단들을 한꺼번에 수없이 편성할뿐아니라 그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그리고 전쟁 진행정에 걸쳐 강한 새로운 예비대로써 전선을 끊임없이 보충하여 적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계속 증대할수 있다.

혁명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이 원수를 반대하는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전쟁은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무장을 들고 원수를 반대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전쟁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민대중에게 무기를 주고 그들이 전쟁에 언제나 참가할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적과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주고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배워줌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이 전투원이 되며 일단유사시에는 그들모두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전민무장화는 혁명전쟁

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게 한다.

전체 인민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대중적힘으로 훌륭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기와 투쟁수단, 군사기술기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무기와 전투기술기재가 없이는 군대를 현대화할수 없고 전민을 무장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요새화를 실현할수 없다.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은 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군사기술기재에 대한 높은 지식을 주는것은 무기와 투쟁수단을 훌륭히 만들어내기 위한 첫째가는 조건이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에게 군사를 성실히 배워줌으로써 전민을 적과 싸우는 전투원으로 되게 할 뿐아니라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의 훌륭한 생산자로도 만든다. 또한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을 들고 생산전설을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간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그 어떤 침략자들의 도발채동과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도 자체의 힘으로 철저히 막아내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게 한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또한 현대전의 요구에 철저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최신무기로 무장한 그 어떤 적들도 자체의 힘으로 철저히 격파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의 전쟁은 많은 인원과 복잡한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립체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입니다.**》
(《김일성군사전집》, 제1권, 466페이지)

현대의 전쟁은 정규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싸우는 전면전쟁이며 전선과 후방의 차이가 없고 전투행

동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이다. 또한 현대전은 최신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여러가지 군종, 병종이 참가하는 고도로 현대화된 기계화전이며 과학전이다. 현대전쟁의 이러한 특성들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들로 하여금 그에 맞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것을 요구한다.

싸우는 사람이 따로 없고 전투마당이 따로 없는 현대전쟁에서는 전체 인민이다 전투원이 되며 언제나 적과 맞서 싸울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사람이 적과 아무때나 싸울수 있게 되자면 그들모두가 무기를 가져야 하며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고 현대전쟁의 전법들을 배워줌으로써 그들모두가 전투원이 되며 적들이 땅으로 밀려오진, 바다로 기여들진, 하늘로 날아들진 관계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릴수 있게 한다.

전반적무장이 기계화, 자동화되고 전투조직과 전투행정이 고도로 조직화된 현대전쟁은 군대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그에 철저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한다. 전체 인민이 기계화전, 과학전에도 튼튼히 준비되어있어야 기동력이 빠르고 타격력이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인원과 무기를 철저히 보호할수 있다. 또한 전체 인민이 군대와 함께 대규모의 작전과 큰 전투들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전민무장화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 지형조건의 특성에 맞게 전체 인민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들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게 하며 적들의 불의의 타격으로부터도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피해를 철저히 막아낼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인민들속에서 군대와 같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배양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즉

시에 인민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시체제로 제빨리 개편하고 전체 인민이 조국보위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시생산을 다그치게 한다.

이와 같이 전체 인민에 대한 무장화를 실현하는것은 현대전의 요구에 대처하여 전면적인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타격도 철저히 짓부시고 최신무기와 강력한 타격수단이 동원되는 현대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게 한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 전민무장화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나라에 축성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해서만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으며 전민을 나라의 방위체계에 망라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민, 전군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 나라의 모든 군사적력량을 하나로 결속시킬수 있는 결정적조건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에 마련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제때에 전민무장화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조직하심으로써 인민군대의 대렬을 보충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생산직특성과 군중의 계층별 특성에 맞게 민간무력의 조직형태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전체 인민이 다 군사를 성실히 배울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도처에 민간군사조직이 무어지고 여기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직과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을 지휘성원으로 보내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와 국방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로농적위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로농적위대 구분대들을 수 많이 찾으시고 적위대원들의 전투훈련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로농적위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모든 로농적위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근위대, 걸사대로 튼튼히 준비되었다. 또한 로농적위대원들은 현대적 전투기술기재와 여러가지 무기를 능숙히 다루며 높은 사격술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훌륭한 전투방법을 소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민무장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어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일단유사시에 전민이 총을 들고 그 어떤 침략자도 즉시에 자체의 힘으로 때려부실수 있게 되었다.

*

*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고 침략자들의 새로운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도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피뢰도당은 수많은 살인무기를 분제선가까이에 배치하여놓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더욱더 격화되고있다.

적들이 지금 우리를 먹자고 침략의 무기를 버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조금도 나라의 방위력을 약화시킬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全民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2페이지)

全民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우리당이 견지하고있는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결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全民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튼

튼 준비될 때 그들은 한손에는 마치의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긴장된 토력투쟁을 전개하며 유사시에는 생산도 계속할수 있고 전투도 잘할수 있도록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조국보위에 대한 영예로운 임무와 투쟁목적을 깊이 자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생명이 청춘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 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위의 혁명적기치밑에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나 원썩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는것은 매우-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이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살게 하며 최대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썩들이 덤벼들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정치사상적준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철저히 견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올바른 전쟁관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갖 계급적위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적들과 전격히 싸우게 하며 특히 침략자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군대와 인민이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 어떤 정황에서도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용감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 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72페이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직위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사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여 군사를 적극 배워야 하며 자신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사격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여러가지 저격무기에 정통하며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전투훈련에도 성실히 참가하여 현대전과 유격전에 필요한 군사기술과 군사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전쟁의 그 어떤 환경과 정황에도 능숙히 대처할수 있도록 자신들의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로농직위대 지휘성원들의 전투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질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농직위대의 모든 지휘성원들은 현대전과 유격전 특히 우리 나라 지형

조건에 맞는 전투지휘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그 어떤 전투정황에서도 부대와 구분대들을 능숙히 지휘할수 있게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 마치고 낫을 들고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는것은 전민무장화방침의 본질적요구이다.

우리는 군사를 배운다고 하면서 생산에 무관심하거나 생산이 바쁘다고 하여 군사훈련에 불성실한 현상을 다같이 경계해야 하며 조국보위의 임무와 생산건설의 과업을 모두다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사훈련에서는 일당백의 철사가 되고 생산에서는 참다운 로력혁신자가 될 때 전민무장화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무슨 일이든지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그 날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의 역활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로농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로농직위대의 전투준비를 보다 더 완성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며 모든 로농직위대구분대들이 설정된 임무에 따르는 군사행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해야 할것이다.

수산업전선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선

김 윤 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지난해 11월에 있는 동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교시에서 수산업전선에 큰 힘을 넣어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력사적인 교시들에서 급속히 발전된 우리 나라 수산업의 현실태와 변화되는 유리한 해양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함으로써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수산업전선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승리로 추동하는 힘있는 고무로 된다.

수산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고 휴식도 주무심도 잊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그 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식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이자면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늘이고 고기,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는 한편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야만 인민들에게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이 많은 부식물을 넉넉히 공급하여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할수 있다.

또한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만 축산업, 가공업에 필요한 사료와 식료가 공공업, 화학공업, 제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원료들 원만히 보장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 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것은 특히 최근년간 농업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 알곡, 남새, 기름 문제가 풀린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설것이다.

최근년간 온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심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

*

*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지원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해마다 대풍이 들었으며 지난해에는 벼, 강냉이, 감자 등 모든 곡종에 걸쳐 조식이 생겨난 이래 최고의 수확을 거두는 력사적인 대승리가 이룩되었다.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뿐아니라 남새대풍이 들어 남새문제가 풀리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선 곡산공장들에서 강냉이를 대량적으로 가공하여 기름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먹는 문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게 되었으며 모두가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알곡, 남새, 기름 문제가 풀린 조건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반찬거리를 넉넉히 해결하는것이다.

인민들의 반찬거리를 해결하는때는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것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해양조진도 물고기잡이에 더욱 유리하게 변화되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수산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는것은 밀천을 적게 들고고도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반찬거리를 훌륭히 해결하여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되며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수산업발전이 가지는 의의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심으

로써 우리의 수산업을 튼튼한 물질기술적으로대우에 올려세워주시었으며 주체적인 어로방법을 확립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도록 수산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지난해에 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와 동해지구수산부담열성자회의에서 이미 마련된 수산업의 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며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수산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사업을 개선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또다시 수산전선에 큰 힘을 넣어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이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물고기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현실적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앞으로 물고기잡이에서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지름길을 밝혀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오늘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수산부문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 있다.

지금 있는 고기배들을 만능화하여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고기배들을 많이 무어 수산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여야만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물고기잡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보다 높은 물고기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수산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여나갈 때 날로 빨리 늘어나는 물고기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대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또한 해양조건과 물고기회유상태의 그 어떤 변화에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의 수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공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물고기잡이는 넓은 바다에서 늘 움직이는 물고기떼를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대자연과의 투쟁이다. 해양조건과 기상기후조건이 변하는데 따라 물고기회유상태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며 수산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나아가야만 가까운 바다로부터 멀고 깊은 바다에 이르는 넓은 어장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물고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해양조건과 물고기회유상태의 변화를 제때에 포착하고 물고기잡이전투를 기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수산업발전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수산부문에서 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수산부문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은 수산부문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위煌한 설계도를 따라 모든 배들을 현대화, 동력화하고 수산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나아가야만 물고기잡이에 남아있는 어렵고 힘든 노동을 완전히 없앨수 있

으며 우리의 어로공들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즐겁게 일하게 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으며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그 언제나 틈틈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그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전체 수산전사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수산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물고기잡이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

*

수산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해서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월새없이 물고기를 잡아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월새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427페이지)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대형어업과 중소어업, 연안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천해양식사업을 널리 발전시켜야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수산물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수산업의 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 수산업의 생산토대는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현대적인 어선단들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 튼튼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모든 배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는것은 계절과 해양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많이 잡아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산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바로 여기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배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방침대로 300일 이상의 출어일수를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있는 배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기 위한 방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15일배수리체제를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수산부문의 지도일꾼들은 배수리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예비기관과 철장재, 목재 등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넉넉히 대주며 배수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배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15일안으로 수리하여 내보내는 철저한 체제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어구 및 기자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그물과 쇠바줄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제때에 만들어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새로운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조성하여야만 우리의 수산업을 보다 높은 물질적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물고기생산을 계속 늘어나갈수 있다.

배건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된 고기배들을 더 많이 무어낼때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1만톤짜리이상의 대형가공모선과 3,750톤짜리 선미프랄선을 많이 만들며 450톤짜리 배를 비롯한 중소형고기배들도 많이 무어야 한다. 또한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고기배들을 많이 무어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여야 한다.

고기배들을 새로 못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배들을 만능화하는것은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금 한가지 어업에만 쓸수 있게만 들어져있는 고기배들을 개조하여 모든 배들이 전착도 하고 프탈도 하고 자망도 할수 있게 만능화한다면 여기에서만도 커다란 생산예비를 얻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수산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행정을 통하여 이 커다란 생산예비를 찾아내시고 수산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고기배들을 만능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우셨다.

수산부문일꾼들은 지금 있는 고기배들을 만능화, 동력화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배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카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배들을 동력화, 만능화하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늘어나는 물고기잡이능력에 맞게 물고기가공능력을 더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제공업부문과 수산부문 일꾼들은 현대적인 가공모선들을 빨리 무어내는 한편 배들에 랭동기와 비늘얼음만드는

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주며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도 자그마한 행동창고들을 갖추어주어 잡은 고기를 하나도 허실없이 가공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 다양화하는것은 물고기잡이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의 기술적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업을 높은 과학적태도에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435페이지)

해양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물고기의 서식상태와 회유상태도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낚은 경험과 수공업적기술에만 매달려가지고는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화한 물고기잡이를 기계화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하는것을 말한다.

수산부문일군들은 배들을 동력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며 고기를 따는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수산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어로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현대과학과 우리 나라의 경험을 옮겨 결부시켜 배를 알고 기계를 알고 해양을 알고 물고기생활규칙을 알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하여야만 수산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최근시기 해양조건의 변화에 따라 물고기회유상태가 급격히 달라지고있는 조건에서 과학적인 어로체제를 세우는 문제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과학적인 어로체제를 세우는데서 가

장 중요한것은 물고기탐색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변화되는 해양조건에 맞게 어로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조직에 앞서 물고기에 대한 탐색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산부문에 어군탐색용 비행기와 어군탐색선, 어군탐지기와 무전기 등을 충분히 갖추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탐색선들의 기술장비를 더욱 현대화하여 해류와 해양의 변화를 정확히 장악한 기초우에서 물고기떼들의 움직임을 제때에 알아내는 한편 모든 배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탐색전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어로공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꾸준히 배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어구와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도록 함으로써 사철 물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산업을 높은 과학적태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수산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수산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나라 동서태의 독특한 해양상태와 기후상태, 어족들의 회유상태 그리고 그에 맞는 어구와 어로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회유성어족이 많은 동해에서 오는 고기, 나가는 고기들을 다 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산대학을 비롯한 수산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우리 나라의 해양상태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어로법, 양식법, 선박과 기술기계, 현대적인 어구들에 정통한 쓸모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워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부문에서는 생산현장에

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강습을 주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업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현대적 설비와 기술수단이 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있는 오늘 수산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수산업의 생산공정은 공업보다도 힘들고 농업보다도 힘들다. 광산에서는 쇠돌을 오늘 캐지 못하면 래일 캘수도 있지만 물고기때는 오늘 나타났다가도 래일에는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물고기를 잘 잡자면 계절과 시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업을 더욱 주도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산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수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강력한 생산지도체계, 지휘참모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해양법칙, 물고기유동법칙, 기상기후조건 등을 일상적으로 파악한 기초우에서 모든 작전을 군대에서처럼 짜고들며 어로전투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원칙에 팀각한 세부계획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생산의 모든 공정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그 실행을 세밀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산업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전국이 수산전선을 힘있게 지원 하는것이다.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수산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며 당면하게는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동해지구의 기계공장들에서는 수산부문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한가

지이상씩 맡아서 생산해주며 기관생산을 책임진 기계공장들에서는 배수리와 동력화에 필요한 예비기관과 예비부속품을 제때에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수산부문의 모든 정치기관들과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해지구수산부문일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 침투시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매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수산부문의 정치기관들과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일군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며 특히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전투의 앞장에 서며 항상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어로공들과 같이 고무앞치마를 입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려일으켜 수산전선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임무이다.

수산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자.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분렬을 막고 투쟁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전 금 진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더욱더 절절한 열망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통일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승리의 그날을 그리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가장 절박한 투쟁 과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은 이미 30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족적 고통과 재난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커가고 있다. 이 비극적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의 절반땅이 강점당하고 민족적 자주권이 짓밟히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이 무한히 지연되는 것을 앓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민족분열 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더욱 앞당겨나

야 한다.

*

*

현시기 남북조선 각계각층 인민이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벌리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민족적 위업이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과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전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통일위업을 전진시킬 수도 성취할 수도 없다. 오직 단결하고 투쟁하여야만 분렬을 막고 통일을 주동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원래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 변혁을 위한 투쟁이나 온갖 형태의 정치운동에서 인민대중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계급해방과 민족해방,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치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인민대중은 불가피하게 인민을 억압착취

하고 민족을 노예화하려는 침략자,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남북조선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투쟁하는데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적단합은 통일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할 때야만 자기 운명의 개척자, 역사의 창조자로서의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문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사활적인 리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은 어느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의 리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다. 그것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이 자주적립장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당사자도 바로 북과 남의 인민대중이다.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고 통일된 조국을 선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오직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주인인 우리 인민이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조국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지향,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또한 투쟁이 없이 저

절로 성취될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분열주의자들과는 어떠한 라협도 할 수 없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9페이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 수 없으며 오직 인민들은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단진한 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민족이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길뿐이다.

이것은 력사가 증명해주고있는 명백한 진리이다.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림으로써 마침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인민이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오랜 침략력사에서 패전을 모른다던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최초의 항복서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수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력사는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은 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도 지난 30여년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남조선의 력대피퇴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리승만피퇴정권을 투쟁으로 꺼꾸러뜨리고 말았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통치 밑에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분렬로 인한 고통을 체험할대로 체험하였으며 농들을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는것만이 민주주의적자유와 해방, 통일의 길이라는것을 충분히 깨달았다.

간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자주와 예속,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렬의 첨예한 대결이며 남북의 애국력량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온 민족의 주체적인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매국세력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구국투쟁을 벌려야만 성취될수 있다.

미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횡포한 교살자이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수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30년이상이나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억압과 학살을 일삼아온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그 어느 때에 가셔도 달라지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타협도 환상도 있을수 없다.

오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여야만 우리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할수 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쇼통치를 매장시킬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민족주체적력량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게 된다.

혁명운동의 경험은 원수들을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인민대중은

평상시보다 몇배나 빨리 작성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때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각성단련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더불어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요인은 더욱 성숙될것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오래전부터 《두개 조선》정책에 매달려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년간 아세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얻어맞고 쫓겨난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조선만은 《고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과 분렬주의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놈들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가장 정당한 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새 전쟁 도발책들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 위협》의 기만적주호밑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었으며 미일군사적결락을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피뢰들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 있다.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추종하여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를 중단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민족분렬을 고정화하고 제놈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까지 갖은 비털하고 추잡한 매국배족

행위를 일삼고있다. 놈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고 영구분렬을 정책화하였으며 군비확장과 전쟁준비, 파쇼체제를 강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더욱더 애걸해나서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반공》의 구호밑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무리로 처형함으로써 남조선을 정치적암흑지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산물로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감행되고있다.

현실은 조선에서 과연 누가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피하며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눌러있는 한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험은 가시질수 없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한 문제로 일정에 오르고있다.

분렬이나, 통일이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조선의 북과 남 그 어느 지역에 살든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사태발전을 무심히 대할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분렬을 막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단결과 투쟁만이 통일의 길이며 애국의 길이다.

*

*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인민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사대매국세력을 반대

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북과 남이 단합된 투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3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방침은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거족적인 통일력량편성방침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어떻게 떨쳐나설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해답을 주는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을 기본으로 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연합을 실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통일의 새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거족적사업으로서 오직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남북조선인민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민족주체적역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며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통일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이루는 데서 유일한 기준은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지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 있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는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비록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 살고 사상과 리념에서 차이가 있으나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지난날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함께 투쟁을 벌여왔으며 오늘날도 분열된 조국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다같이 우려하며 자주통일을 절절히 념원하고 있다.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념원은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확고한 기초로 된다. 문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을 합쳐 떨쳐나서는가 나서지 않는가 하는 데 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없애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은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다. 조선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치고 민족의 영구분열이나, 통일이나 하는 엄중한 사태를 보고만 있는다면 무슨 민족적량심과 참된 삶의 보람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투쟁의 마당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감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조국통일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온갖 형태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오늘 통일운동을 즐기며 밀고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87페이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으로 될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요인이며 장애물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직접 억압받고 무고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땅에서 놈들을 철거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것은 바로 남조선인민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전쟁정책과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야 하며 멸망의 위기에서 최후박약하고있는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리간것을 주장하고있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도전하지 말고 유엔의 결정대로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평화협

정을 맺을때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강점 미제
침략군의 철거가 국제적요구로 침예하
게 제기되고 여론화되자 더욱 안달아
날뛰고있으며 그 무슨 《힘의 균형》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언을 공공연
히 쫓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일치한
투쟁으로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군사
적침략을 합리화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기도를 단호히 꺾어버려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전제는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의 의사가 충분히
발양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단결의 분
위기가 조성되고 투쟁조건이 마련될수
있다.

남조선사회에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쇼
폭압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
민들의 자유와 권리, 전민족적 화목과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과 매

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사이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온 남조선땅에는
파쇼폭압과 분열책동에 미쳐날뛰는놈
들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가득차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쇼폭압
에 굴함없이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하며 미제의 식민
지통치의 악랄한 집행자이며 군사특무
테로집단인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과
파쇼독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투쟁에서 분산성
을 극복하고 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반
파쇼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인
주력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한 대중적투
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광범한 혁명적군중이 침략자, 억압자
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서
서 건결히 싸운다면 원쑤들의 그 어떤
아성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
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가
로막을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영구
분열을 막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더욱 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근로자 1977년 제1호(무제 41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7년 1월 3일 발행 • 1977년 1월 5일

7-6551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8100

451
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MAY 6 1977
UNIVERSITY OF CALIFORNIA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근로자

제 2 호(41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조이다.....(2)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강석송(10)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위업.....리찬선(18)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담보.....강현수(26)

우리 당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
방법의 빛나는 구현.....문성술(34)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최문선(40)

자주적인간의 전형올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최철웅(48)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김형원(56)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조선 혁명의 진군길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참으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잃었던 조국을 되찾고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워놓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끝없는 민족적번영과 통성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로정에서 쌓인 로고도 마다하지않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위황찬란한 태일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크나큰 영예이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이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확고한 의지로, 혁명적신조로 삼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의 역사적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아록하신 고귀한 혁명업적들이 확고히 옹호고수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튼튼히 이어져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지고있는 자랑스런 현실은 우리 인민을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보다 위황찬란한 태일의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게 해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과 마음 다 바쳐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는 한다.

*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온갖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역사적사명으로 하고있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전취한후 순차적으로 제기되

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 계속혁명과정이며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장구한 역사적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걸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간다.

수령이 개척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여러 세대에 걸치는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경험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수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혁명의 전취물들이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통락당하고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중도반단되게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거창한 역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여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여놓

았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며 우리는 아직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해야 하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차게 이끌어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혁명적신조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는것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무엇을 명맥으로 하여 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가, 무엇을 사상정신적바탕으로 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곧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의 위업에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여긴

다. 따라서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지해야 할 확고부동한 혁명적원칙이다.

우리 당중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혁명의 피줄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려는 우리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에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한결같은 념원이 반영되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민족수난의 역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진저보려고 모대기였으나 탁월한 수령, 영명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함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되찾을수 있었으며 착취와 무권리,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는 창조와 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지난날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오늘 끝없는 통성과 번영기에 처하여있으며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조국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승리하며 전진해오는 과정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크나큰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온갖 충성을 다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혁명적지향과 불타는 충성심을 더욱 높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우리 당 사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는 승리로 향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이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여오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당중앙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여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들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는가를 가르쳐주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도덕적 증고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온 사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차넘치고있다. 그리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되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해나가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대중을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속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은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새롭게 개선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혁명적인 당사업체제가 서게 되었으며 당사업방법에서 낡은 틀, 재래식방법이 마사지고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명실공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고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장으로,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으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이처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나라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어놓으신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따라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이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우리 인민은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와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를 달려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의 역사적진군길을 더 빨리 다그쳐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일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시대와 혁명의 요구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

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가장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중앙의 혁명지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을 더욱 다그치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이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정확한 지도사상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 다시말하여 혁명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 놓고 공산주의운동의 근본초석을 닦아 놓은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이 사상은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대를 이어가면서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싸워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딪치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없이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끝바른 승리의 길로 나갈수 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계승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가장 선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

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바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하며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끝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가장 빠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언제나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사상을 건결히 옹호하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그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조류와의 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모든것을 제어 보고 그와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

도 중요없이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7페이지)

혁명이 전진하고 발전하며 승리하는 과정은 장구한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의 역사적뿌리,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보위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나무의 뿌리를 튼튼히 보호하여야 가지가 잘 뻗고 무성하게 자라듯이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혁명의 대가 바뀌어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필승불패의 혁명적무기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떠나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과거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

할수 없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이 어떠한 사나운 풍파에도 추호의 중요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전철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더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온갖 원썩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철히 벌려야 한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언제나 혁명전통을 거세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한다. 그들은 혁명을 포기하는 저들의 반혁명적립장을 가리우기 위하여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헐뜯는 비열한 책동을 감행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경험은 혁명전통을 무시하거나 유린말살하려는 수정주의적경향이 허용되고 그것이 자라나면 피로써 생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게 되고 혁명은 전진을 멈추게 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투쟁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훼손시키거나 거세말살하려는 조그마한 경향과도 단호히 투쟁하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우와 같은 책, 510페이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대오를 꾸리며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킨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만일 당과 혁명대오 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다른 사상요소나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당은 변질되고 혁명대오의 전투력이 약화되어 수령의 혁명위업을 제대로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혁명의 앞길이 간고하고 안팎의 원수들이 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어떻게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제에 기

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시였으며 그것은 오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굳게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통일단결만이 전정하고 공고하며 힘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초로 하여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은 강한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좁먹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경향과 그 사소한 요소들도 우리 대렬내에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어떤 광풍에도 드눌지 않는 강철의 혁명대오, 충성의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

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사회의 심장인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맑은 피가 온 사회에 세차게 맥박치게 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혁명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정책과 방침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전체 당원들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의 방침과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나가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모든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당의 혁명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우리 당이 내놓은 정책과 방침, 당의 령도를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가지고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야 한다.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를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의지를 지니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이 영예롭고 보람찬 위업실현으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계와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위업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끊임없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전투에서 제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적라관에 넘쳐있으며 앞날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투쟁과 승리로 충성의 나날을 아로새기면서 우리 혁명의 역사적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는 이 영예롭고 보람찬 역사적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

강 석 승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수천년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변영과 룡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류의 비상인 공산주의의 높은 언덕으로 힘차게 치달아오고있다.

반세기전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오직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조선혁명을 역세게 떠받들고있는 력사적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참으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계승하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며 영예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간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억센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의 위대성과 그 계승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다시금 독창적으로 밝히고 혁명전통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으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건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인 방침에

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확고부동한 신념이 체현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태도와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며 공고화된다.

혁명전통에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혁명수행의 근본 방향과 방도들이 담겨지며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이 집대성된다.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이러한 혁명적재부들은 당과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명맥으로 된다.

혁명전통을 교수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곧 이 고귀한 혁명의 뿌리를 굳건히 이어가며 또 거기에 담겨져있는 혁명적재부들을 밀천으로 삼아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전통에 튼튼히 의거하여야만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끄떡함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장구한 력사적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창시한 혁명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결국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그만두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혁명전통을 확고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억년 드높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규정하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먼저 우리 혁명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시하신 위대한 혁명전통이라는 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레없이 간고하고 괴어진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장기적이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류사상상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지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 투쟁과정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전통이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밖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지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승리한 영광찬란한 력사이며 가장 걸출한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탁월한 령도예술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담고있는 전통이기에 가장 높은 사상적수준에 있는 위대한 전통이다.

우리 혁명의 위업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승리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위업이 그 어떤 퇴색벽력에도 드높지 않게 하는 주춧돌이며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주체시대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되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된다.

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력사적뿌리를 이루며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승리는 오직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또한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억년 드눌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이 참시되고 발전품부화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6페이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기본핵을 이루며 그 사상리론적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이룩되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전통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이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찬란한 공산주의미래를 마련해 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위대한 구상이 담겨져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중국적승리로 이끌어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들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한 혁명의 기치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충실히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은 바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혁명전통을 튼튼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

써만 조선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지도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인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억년 드눌지 않는 역사적뿌리로 되며 세기를 두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만년초석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또한 혁명전통이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되는 풍부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투쟁경험들을 담고 있는데 있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풍부하고도 고귀한 재부들과 경험들에 토대하여 발전하며 승리해나간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창조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정신적재부들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어있다. 혁명전통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비롯하여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본보기로 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이 모든 재부들은 높은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그리고 위대성으로 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전력사적과정에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우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는 모든 사상정신적원천들과 그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특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보여주신 조국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고 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으로 된다.

혁명전통에는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으로부터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건설과 혁명무력건설, 사회경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개조하는데서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원칙들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따라서 여기에 담겨져있는 비상히 심오하고 풍부하며 다방면적인 모든 내용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본보기로 되며 우리 혁명이 승리하게 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이러한 원형들을 사회개조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심화발전되고 그 종국적승리가 이루어지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전 과정에서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밀천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혁명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에 의하여 억세며 떠돌아다니고있기때문에 준엄하고 험난한 풍파를 뚫고 언제나 승리하여왔으며 또 승리해나가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

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혁명정권과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피수로 한 16개국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으며 전후에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할수 있었다.

실로 해방후 30여년간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자랑스런 력사이며 이 땅위에 이루어진 모든 기적과 혁명적변혁들은 혁명전통의 뿌리에서 솟아난 고귀한 열매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된다는 정식화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가 력력히 반영되어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93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하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하며 더 나아가서 삼천리강토우에 공산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가는 과정은 곧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 때에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지 않고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수행과 그 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이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에서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것은 항일의 혁명정신과 투쟁 경험, 방법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풍찬로숙하면서 그 어떤 간난신고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이긴 항일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일한다면 어떤 난관과 시련도 박차고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간고한 투쟁일뿐 아니라 한두세대에 끝날수 없는 장구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벌써 반세기가 지나갔으며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지도 30년 세월이 흘러갔다. 혁명이 전진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방후 새로 자라난 세세대들이 혁명의 담당자로, 골간부대로 자라났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세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고있다.

혁명투쟁의 시련을 깊어보지 못하고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한 세세대들을 항일의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고결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준비시켜야 그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우리 혁명위업을 곳곳이 이어나갈수 있다.

더우기 우리앞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업으로 나서고 국내외의 정세가 날로 긴장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절실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혁명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투쟁에 대한 태도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투쟁전반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혁명의 전반적리익의 건지에 서는가 서지않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루지와 혁명적력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이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못하는 그들을 혁명전통에 구현되어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없으며 혁명전통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울수도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시원과 뿌리를 똑똑히 알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 빛내어나갈수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로 하여금 가장 심오하고 다방면적이며 백과전서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가진 궁지와 자부심을 더 가슴깊이 새기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나갈수 있으며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갈수도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 명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구현인것만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은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며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만 력사의 새시대를 개척한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이 어떻게 창시되고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깊이 알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어떤 난관이 가로막아도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

...

우리가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오가잡탕을 다 계승할수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72페이지)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전

통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이 있으며 그밖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지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하나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어있으며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와 분과도 허용하지 않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는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만이 있을뿐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적재부들로만 일관되어있다.

만일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인연이 없는 오가잡탕이 조금이라도 끼여들게 된다면 당의 지도사상이 흐리게 되며 그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될수 없고 분과가 생기게 되며 이렇게 되면 벌써 당의 혁명적성격은 거세되고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게 되며 혁명의 명맥은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여야만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혈맥으로 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으며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말살하려는 혁명의 배신자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은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말살하며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끌어내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명심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거세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말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진 모든 혁명적재부들을 그대로 계승하며 그와 인연이 없는 이색적인 요소가 조금도 끼여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항일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 요구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목적은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혁명적재부들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혁명전통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하여야만 혁명전통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혁명전통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떠나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전통을 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항일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적재부들이 빛나게 이어지게 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이 완성되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가면서 가장 순결하고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혁명적지도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원칙과 방향,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며 우리 당과 인민을 그 관철으로 힘있게 이끈다. 당중앙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말살하려는 온갖 원수들의 악랄한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전결히 옹호보위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혁명전통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모진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당중앙이 새롭게 내놓은 방침들과 방도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만년초석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위업

리 찬 선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방침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적방침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아버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그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변함없이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임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으로 밝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이지)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투쟁강령이다.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하여 공산주의운동을 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많은 '로동계급의 당들이 투쟁강령을 제기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력사는 아직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투쟁강령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는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위대한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만이 내놓을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완수해나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전당과 전민을 확고히 이끌어나가는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의 모든 방침과 활동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닮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수하려는데 돌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이 모든 로선과 방침을 세우는 데서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는 데서도 확고한 원칙으로 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을 당의 투쟁강령으로,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위업으로 내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다름아닌 수령의 위업이며 이 위업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수된다는데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그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은 수령의 혁명사상이 구현되는 과정으로 되며 이것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폭과 심도가 넓어지고 심화되는것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혁명대오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며 혁명과 건설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구현되는 폭과 심도가 넓어지고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된다. 이

것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시와 그 심화발전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전투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백두의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전군길을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역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성과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투쟁이다. 다시 말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 바로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건설하려는 공산주의사회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뚜렷한 설계도를 가지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옳게 계승하여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수령이 개척한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적 위업이다. 그러므로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올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수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대를 이어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탁월한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립장과 태도 문제는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이 근본문제가 옳게 해결되어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셔나갈 수 있고 그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만일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그릇된 립장과 태도라도 나타날 때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갈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혁명의 명맥이 끊어지고 혁명을 중도에서 말아먹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실증해주는 진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수령의 위업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며 토동계급의 당들과 혁명가들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또 한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는데로부터 수령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리러모시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도록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토동계급의 당과 혁명가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야 할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충실한 립장과 태도를 밝혀줌으로써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게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모셔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우리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끊임없이 앞당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또한 수령이 이룩하여놓은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참답게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한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마련하여놓은 혁명전통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수령이 창조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수령이 창조한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만이 혁명위업수행의 참다운 본보기로, 귀중한 정신적재부로 되게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참다운 본보기로, 귀감으로 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이 충실한 태도를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숭고한

력사적과업으로, 가장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때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중단함이 없이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4페이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영원토록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을 중단함이 없이 끝까지 계속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요구를 옹계 반영하여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게 한다. 그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모든 혁명투쟁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이며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다. 이 혁명

사업은 위대한 정치적사업방법, 심각한 계급투쟁을 요구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다. 온 사회가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져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한결같이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을 받들고 아무런 동요없이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숭고한 품모와 자질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함으로써 온 사회가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충성의 대오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려지게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뿌리뽑고 오직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온 사회에 흐르게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만큼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이 혁명과업들을 수행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경제실무적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와 문화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일대 혁명으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적사업으로 힘있게 추진한다. 그리하여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가장 철저히 수행되게 된다.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

로 개조해나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가장 철저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 문화와 인민생활을 최대한으로 발전향상시킨다. 그리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적욕망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을 통하여 가장 빨리 실현되게 된다.

이와 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주의하에서 계속혁명의 요구를 옹호해결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끊임없이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특히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달성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따라서 민족의 분열을 막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사업은 전국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추진하는데서 주체사상의 요구가 옹호 관철되어야 이 땅에서 침략자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조국을 통일하고 어버이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전체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실로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고수하고 발전시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이 땅에 공산주의략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가장 숭고한 역사적위업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았을뿐아니라 그 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들을 밝혀주고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으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당중앙의 혁명적방침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혁명위업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역사적전군을 다그치게 되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곧바른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전군의 개시,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다.

오늘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역사적과업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당의 유일사상화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3페이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다. 따라서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인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형의 피, 주체의 영양소들은 사회에 힘있게 불어줄수 있으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전당을 유일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대렬이 계급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명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자기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1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상과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옮겨 이끌어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서 광범한 대중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요구한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을 위하여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게 하고 이 혁명과업들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갈 때 3대혁명로선을 가장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위업의 실현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전인민적운동이다.

당중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열쇠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운동을 힘있게 이끌어주고 있다.

당의 지도밑에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새로운 역사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을 당사업과 밀착시켜 힘있게 이끌어주고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대중지도사업방법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재조할 때

한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적지도를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형태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명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당의 전위투사들이다. 그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3대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요구를 제때에 깊이 침투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3대혁명과업수행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가 제때에 정확히 쪽쪽 내려가게 되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된다.

또한 3대혁명소조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을 비상이 촉진시켜나간다. 3대혁명소조는 특히 당위원회와 합심하여 3대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써 3대혁명수행을 위한 아래단위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명도밑에 오늘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벌어짐으로써 모든 단위,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어가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사업과 3대혁명소조활동이 밀착되어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세차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경제, 문화, 국방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상혁명, 사상전의 혁명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되었으며 온 사회가 주체형의 피란이

차넘치는 순결한 혁명적대가정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가장 보람차고 빛나고있다. 사람들의 심장이 충성심으로 불타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하나의 화목한 대집단으로 단결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대풍모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변화된 결과 사회주의전선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바치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사회주의전선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충성의 돌격전, 속도전의 열풍으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속도전, 사상전의 새찬 불길속에서 생산과 전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주의전선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문화전선의 모든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실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실천투쟁경험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안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 지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해야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보다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전선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강 현 수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고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을 그 성격에 맞게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수령님께서 재촉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감에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 나가야 한다.

*

*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혁명의 전투부대로 꾸리는것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전설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당의 부리가 마련되었고 당의 창건도 수령님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그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년에 즈음하여》, 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귀중한 역사적부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당을 강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키워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

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강철의 당으로, 불패의 힘을 지닌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파만이 끓여냄치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당 자체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당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당 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토대하고있으며 우리 당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당안에 그 어떤 잡사상도 없고 전당에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는 매우 높은 요구와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사업이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당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투쟁로정은 우리 당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온 과정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을 뚫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실현해나가는 필승불패의 강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되었다.

이처럼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이 수행하여온 당의 주체사상화과정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전면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오르게 되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당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전환으로 될뿐아니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성과적완성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과 내일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때 대하여》, 2~3페이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당을 영원히 지배하게 하며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되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전면적으로 완성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끝까지 혁명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로동제급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정확한 지도사상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이 사상은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대를 이어가면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그를 대를 이어 실현해나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이처럼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혈맥을 순결하게 고수하는가 안하는가,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가 못이끄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가는것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는 근본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고귀한 혁명전통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함께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과 그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이어나가는것은 로동제급의 혁명적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과정이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과 그 업적을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전통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멸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업적을 떠나서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며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문제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멸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그것을 끝없이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의 선결조건으로, 기본

열쇠로 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이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임무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 사업의 총적임무이며 당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투쟁은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줌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노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판연되어있다.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힘있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은 온 사회에 혁명의

정치사상적량식인 수령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뿜어주어야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서뿐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뿐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 인류의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조치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그들이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적방법에 의해서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더구나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는 긴장된 환경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우리를 반대하여 공공연히 전쟁도발소동을 벌리고있으며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일삼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내부에는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의연히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복잡한 투쟁과정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사람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폭넓고 심각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심각하고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은 오직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그 정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참으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교수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으며 그 정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이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쾌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3페이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때 대한 혁명적방향이 힘있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쾌기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 당 대렬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따르는 충성의 열정이 온 사회에 더욱 차넘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것을 혁명전사의 숭고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당대렬이 주체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은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데 있으며 장기간의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숨쉬고 그 어떤 잡사상도 배겨낼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남으로써 전당에 혁명적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이 더욱 철저히 수립되었다.

고질적인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낡은 사업방법이 마사지고 당사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맞게 더욱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세련된 령도력과 광성한 혁명적 열정과 기백을 지닌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되었다.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결과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빨리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당앞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때 대하여》, 2페이지)

우리는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이 땅위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이 무겁고도 거창한 사업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안에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당대열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

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건설하고 활동하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 당이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 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높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도 드릴수 없는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율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10페이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당의 의사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수령님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 지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하는 모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대렬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당의 간부화는 본질에 있어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한 급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것이다. 이 방침은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며 우리 당을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하고 더욱 힘있는 당으로 되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조직생활과 학습을 강화하고 혁명실천에 투신하여 자신의 정치사상수준과 자질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당 간부화방침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우리 당을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맞게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하여야 하며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이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1페이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적인 과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 사상체제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언제나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그를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 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언제나 당의 사상의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낯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전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당의 전투적기능과 정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앞에 나선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의 정도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

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도적역할과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 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사업에 결정적으로 낯을 돌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당적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옹계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주호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우리 당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빛나는 구현

문 성 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 서 혁명적인 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무기이며 빛나게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재부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것을 전당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우리 당 건설과 혁명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며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들의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의무이며 여기에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혁명적령도리론,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

상에서 과학적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반세기여 걸쳐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독창적인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시여 혁명적인 령도방법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사업방법문제는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 달려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4페이지)

당이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옹호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사업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만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에 옹호 사업방법이 따라서지 못하면 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을뿐아니라 그들이 당으로부터 이탈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품 문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일떠세워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고 이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의 령도방법이며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 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완전히 독창적인 령도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창조하시였으며 류폐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혁명적인 사업방법은 우리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원형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모든 혁명단계를 거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구현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념원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지하시여 모든 난국을 뚫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체화하시고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청산리에 나가시여 보름씩이나 묵으시면서 그곳 일군들과 인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지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대중령도원칙에 관한 사상과 모든 혁명적사업방법들의 전면적인 집대성일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전완성시킨것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전당과 국가,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일반화되었으며 혁명적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이미 뚜렷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현지에 내려가시여 몸소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고 구체적타산에 기초하시여 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시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다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그 사상적기초를 두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만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할 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정도방법이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식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혁명적인 정도방법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도방법까지 전면적으로 갖춘 혁명사상으로 더욱 발전 풍부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정도방법을 창조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며 썩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정도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가들에게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정도방법, 사업방법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기에 걸쳐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혁명력량을 굳게 결속하고 그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될 수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

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이 오늘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새로운 주체형의 당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확신성있게 전진할 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사상, 이론과 함께 그이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정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을 자기 활동에 빛나게 구현한 결과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당이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은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빛나게 정식화하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할데 대한 원칙을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 모든 일꾼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 제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데 대한 방침, 사상검, 대론쟁의 방법으로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방침

등 혁명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준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에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중앙의 철석같은 의지가 구현되어 있으며 전체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반영되어 있다.

당중앙의 혁명적방침과 정력적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전당에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우리 당사업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제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쾌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3페이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절된 문제를 풀어주는 사업이 생활화되고 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군들의 혁명화과정이 촉진되고있으며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행정에서

그들의 지도수준이 더 높아지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보다 세련되고 토속해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정연한 사업체제가 수립되었으며 전투적이며 생기발랄한 사업기풍이 전당을 지배하고 있다. 새로운 당사업체제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까지 제때에 정확히 침투되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숨결따라 숨쉬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있다.

또한 당사업에서 하부지도체계가 큰 틀히 서게 됨으로써 지난날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직접 아래에 내려가 하부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통제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체제가 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이 행정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방법과 같은 낡은 재래식방법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수립되고 있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철히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기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 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사회주의대전투장들에서는 세인을 놀라우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혁명적지도 밑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발동되고 그들의 창조적열정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와 문화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역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어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그 요구대로 일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에 수록되어있는 대중령도리론과 사업방법, 사업작풍과 관련된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철저한 체현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의 가장 힘있는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령도원칙과 사업방법의 모든 요구들과 그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면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체득하고 구현해나가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밖에 그 어떤 다른 사업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며 그를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조성된 정황과 실정에 맞게 일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하며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찾고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속도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빈구호만 부르지 말고 실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랫에 내려가 군중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산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며 아래사람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심히 돌보아주어야 하며 아래단위에서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 어떤 정황에서도 대중을 아량있게 대하고 모든 사업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라면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말고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아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참된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으며 군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는 원칙성이 강하고 투쟁력이 있으면서도 작품에서는 편협하거나 응졸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소탈하며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낯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밀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업 방법과 작풍은 일군들의 단순한 사업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며 낯은 사업방법은 낯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따라서 낯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는 문제는 한두번의 사상투쟁으로써 해결될수 없

으며 고쳐질 때까지 근기있게 추적전을 벌려야만 완전히 뿌리뽑아버릴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으며 충성심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낯은 사업 방법과 작풍의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혁명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되고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소유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낯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그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형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을 진지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위업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중요한 혁명초소들을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라는 높은 긍지와 책임성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심으로 당을 따르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과업수행에 주인답게 밀쳐나서게 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더욱 다그쳐질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수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최 문 선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모두가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민족적대변영과 통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결심밑에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당적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제시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근본원칙으로서 당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요구를 구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갈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관철하는 여기에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이지)

당의 령도는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에서나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이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질박한 요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가는 당적지도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간다는것은 당조직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늘 알아보고 그것을 풀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세우며 만사를 제쳐

놓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근본목적과 총적방향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당일군들의 립장과 태도, 자세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 우리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몸소 이끌어나가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튼튼한 력사적뿌리에서 태여났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필승불패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념원이며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뜻은 바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구상은 당정책으로 구현되며 대중속에 침투되고 접수되며 당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실천투쟁속에서 빛나게 실현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최대의 임무이며 더없는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실현하여나갈 때 우리 당은 수령님의 사상

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려려 경모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려려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며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전철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자면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의 혁명적본분이며 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참된 삶의 보람과 더없는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은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있다.

우리는 한평생을 오로지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며 싸워나가는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일을 잘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더없는 영예이며 철석같은 신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작오와 열정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고귀한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당의령도를 실현해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 발양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실

현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9~20페이지)

사회주의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에 힘을 집중하여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나라의 전반적형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힘을 집중하여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그와 련결된 다른 문제들도 옹계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은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그것을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반영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무한한 헌신성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중하와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의무로 여기고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해서만 제시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나아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더욱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그것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조직들이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일군들의 높은 충실성에 의거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높은 정치적자각,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끄는 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방침은 행정경제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주선으로 끌고가면서 당적지도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으로 철저히 전환되게 되었다.

당적지도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정치적지도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며 그에 확고히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여 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 방침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철저히 구현될수 있게 하며 수령의 령도를 강화함으로써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교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이로 더욱 발전동부화하였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다그치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방침이다.

*

*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일군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깊이 알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스럽게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부터 제때에 풀어나가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표현이며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모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것을 풀어나가는것이 곧 당사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난 당사업, 당조직사업이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당조직사업도 결국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전반사업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면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수행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흥

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 집행에서 오직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이 있을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악하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 길이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 발벗고 나서게 되며 항상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된다. 또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사업태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비대한 혁명적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은 이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당적지도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제때에 옹제 파악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자면 당일군들이 높은 정치적각오와 옹은 태도와 립장을 가지는것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제때에 옹제 파악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문제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사회주의건설의 실태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옳게 세워나갈 수 있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어리면 시야가 좁고 모든 문제를 옳게 분석판단하지 못하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발로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혁명하는 사람에겐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아버지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를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학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품을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 수 있다.

당일군들은 또한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워 모든 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12페이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성과적건설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을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든 대원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높은 기술기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투신하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

경제선동은 군중을 당경제정책집행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 방법이다.

당조직들은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방송선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며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현시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3대혁명소조와 합심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당일군들과 혁명적세대대로 된성된 혁명의 정수분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영광스러운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들이다. 3대혁명소조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을 비상이 추진시키나간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3대혁명소조들과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때 아버지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의 기치밑에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모든 인적물적력량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

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로력과 설비, 자재를 총집중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입니다.》(《신년사》, 1977년 1월 1일, 7페이지)

우리앞에 나 서고있는 올해의 중심과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경제건설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예비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잘하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완충의 해인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을 위한 사업을 직접 들어 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며 총화하고 제포치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정형을 늘 로해장악하고 일군들의 활동을 철저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조직들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제때에 옳바로 이끌어주고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주며 늘 검열하고 총화하고 제포치하여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고리를 사상전에서 찾고 사상전의 방법으로 사업을 지도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뿌리째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당정책관철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잡귀신》들을 제때에 뿌리째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실현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양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직정치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당사업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 밑에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들과 격식이 없이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로해장악하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아내며 정치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며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일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며 아버지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전사,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모두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자.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

최 철 응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사람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세계최고봉의 예술》,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는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고 그것이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당이 내놓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전형의 본질을 새롭게 밝히고 그 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이 나옴으로써 전형성에 관한 토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은 전면적으로 완성체계화되었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는 명백한 방도가 해명되었다.

그리하여 인류문학예술이 그렇게도 갈망해오던 인간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참다운 인간학창조의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

*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어떠한 인간을 중심에 내세우고 무슨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가 하는것은 문예리론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로서 그 문학예술의 본질과 사명을 규정한다.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형상적형식을 통하여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그 중심에 언제나 인간이 서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어떠한 인간의 전형을 중심에 내세울것인가 하는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것은 응당한 일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적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힘으로써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문예학적 기초로 하여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

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의 중심에는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주적인 인간이 서있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밝힌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인간학이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9페이지)

우리 시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이며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원래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과 착취, 천대와 멸시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자주성을 유린당한채 력사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왔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와서 지난날 착취와 압박 밑에 있던 인민대중은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그리하

여 인민대중을 봉건과 자본의 울가미에 얽어매놓았던 낡은 반동적질서가 부서지고있었으며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여겨오던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하고있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을뿐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변혁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그 어느때보다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으며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고있다.

이처럼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주적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적 현실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중심에 자주적인 인간을 내세우고 그의 전형적성격을 빛나게 창조할것을 중대한 력사적과업으로 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현시대와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인 공산주의 미래의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러므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작품의 중심에 내세워야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시대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그들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인간학임으로 하여 자주적인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를 근본요구로 하는것이다.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이 인간학이 우리 시대앞에 '지니

고있는 사명과 관련되어있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었으며 산 인간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를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키우는데 복무해야 할 전투적 사명과 기능, 그것을 달성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가 담겨져있다.

문학예술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인 형상을 통하여 해답을 주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문학예술은 논리적인 추상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의 독자성이 있다. 예술성이 없이는 예술 그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줄데 대한 당의 요구는 문학예술로 하여금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도록 하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80페이지)

혁명적문학예술은 오직 산 인간의 생활을 보여주어야 교양적기능을 강화할수 있다. 생활의 진실한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때 문학예술은 혁명적교양의 기능을 실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존엄과 사회정치적생명에 관한것으로서 우리 시대앞에 나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품모는 자주 의식과 자주성을 찾기 위한 투쟁속에서 가장 높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근로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형상하고 역사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힘과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옳바로 천명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면 마땅히 우리 시대 자주적인간의 본보기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창작의 믿음직한 담보이며 중심고리로 된다.

*

*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사상에는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가 근본요구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그 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도 심오하게 해명되어있다.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적인간이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들 깊이있게 밝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이지)

문학예술이 참다운 인간, 자주적인간

의 전형을 창조하려면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옮겨 풀어야 한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푸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그것은 정치적생명이 자주적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이며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가 인간문제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정치적생명은 사회적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적인 표징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옹호되고 빛나게 된다. 정치적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공격에 참가할수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될수 있다.

인간을 그리며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할 문학예술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데까지 들어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제기하고 풀어야 할 인간문제의 핵이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밝히는것은 또한 인간생활을 본질적으로 묘사하며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나선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심오하게 밝힐 때라야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사회적문제를 의의있게 밝히는 심오한 인간학으로, 시대와 인민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원래 문학예술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반영은 인간의 형상과 결합되어있다. 그런데 인간들의 모든 활동, 인간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인간의 정치적생명을 중심으로 하여 얹혀져 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혁명투쟁도 사람들의 사회정

치적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진행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다 사람들이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그것을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자주성의 견지에서 가장 진실하게 그릴수 있으며 모든 사회적문제들을 정치적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힐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문학예술작품은 그것이 어떤 종자인지 거기에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가 깔리도록 하여야 하며 묘사되는 모든 형상들이 다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힌 자주적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옮겨 풀데 대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을 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바들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잘 보여주는것이 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옮겨 밝힐수 있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에서 핵으로 되기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만이 안겨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며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자주적인간이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에

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투쟁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높은 혁명적의의이며 본분이다. 수령에 대한 이와같은 끝없는 충실성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주적인간의 기본품성이며 기본표징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높은 혁명적의리로서 그들의 모든 정신도덕적품모를 규정하는 근원으로, 영웅성과 용감성,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을 그리는것은 정치적생명문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며 자주적인간의 전형울 옹계 창조하는 기본분야로 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을 생동한 예술적화목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참된 길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속에서 창조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보여주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 강연옥의 형상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서는 죽음도 영생하는 삶의 길이라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어린 연옥의 작은 가슴에 벅차게 안겨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은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면서 가장 깨끗하고 참된 삶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참으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밝힘으로써만 문학예술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인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당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있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필봉을 들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4페이지)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현실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형상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은 그 어떤 체외적인 사람인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며 그들의 아들딸들이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거쳐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며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계급적 및 민족적 원썬들을 반대하며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사람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가는 과정, 혁명적실천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잘 그려냄으로써만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할때 대한 공산주의 새인간학의 근본요구를 실현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은 단번에 되거나 단순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축적이 있어야 하며 이 축적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 과정

을 지쳐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며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적 성격풍모를 다 갖추게 될 때 혁명적세계관이 서게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은 혁명적세계관형성과 그 공고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해명에 기초하여 자주적인간의 성격발전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의 형상화에서 의거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아무런 축적 없이 단번에 되는것으로,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단순하게 되는것으로 형상하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문학예술은 복잡하고 우여곡절에 찬 혁명투쟁속에서 인간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생활 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자주적인간의 무궁무진한 힘과 위대성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의식의 힘과 위대성에 있다. 따라서 성격발전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자주적인간의 무궁무진한 힘과 위대성,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예술적으로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활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각이하며 개성이 다른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몸바쳐나서는 과정을 심오히 밝히는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상주체적과제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문학예술에는 계급의식에서나 민족자주의식에서 그 수준이 서로 다른 인간들의 성격발전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의 묘사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힘과 그 위대성,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히고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준 작품들이

많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과 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시련에 찬 인간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가 하는것을 심오하게 보여주는 고전적본보기로 되고있다. 명작의 주인공들은 혁명이란 말조차 모르던 순박한 인간들도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혁명적세계관이 서게 되면 깃발힌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되찾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그 어떤 계급적원썹도 때려부실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결국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묘사는 근로자들에게 혁명이란 무엇이며 왜 혁명을 해야 하며 혁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자주적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자주적인간으로서의 풍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묘사는 철저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과정,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형상의 핵으로 하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끝까지 순결하게 빛내여나가는 성격발전과정으로 그려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해발을 받아안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사랑 속에서 살아나가도록 형상되여야 참다운 의미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데서 전투하는 장면은 좀 적게 넣고 유격대원들의 다양한 생활을 실감있게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61페이지)

문학이란 인간학이다. 산 인간들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이 곧 문학이다. 생활의 합법칙성을 떠난 산 인간의 형상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예술에서 생활을 떠난 성격은 메마르고 추상적인 성격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그러한 성격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생활을 깊이 파야만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줄수 있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생활은 투쟁으로 충만되어있으며 그들의 존엄과 자주성은 오직 투쟁속에서만 쟁취되고 보장된다.

자주적인간들의 생활에서 본질적내용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주적인간의 정치적생명은 사회정치생활, 혁명투쟁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사회정치생활을 위주로 하여 그려야 하며 생활속에 투쟁이 있고 투쟁속에 생활이 있는것으로 그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에서의 생활묘사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

금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생활을 외표으로가 아니라 여러모로 풍부하게 그리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깊이있게,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으며 주인공의 성격은 사상의 지적인 측면뿐아니라 윤리도덕적인 측면 등 여러모로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자주적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는것은 사실주의적묘사의 원칙적요구이며 주인공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은 끝없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더우기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생활은 그 내용에서 지난날의 어떤 인간의 생활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하며 깊다.

자주적인 인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속과 착취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낡은 사상잔재와 요소들을 뿌리빼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누구보다 인간과 그 생활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주적인간들의 생활과 성격은 그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의 련관속에서 폭넓게 그려져야 한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과 생활을 옹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되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된다고 가르치면서 인간관계를 심화시켜나가지 않으면 형상에서 그 어떠한 문제도 깊이있게 해명해낼수 없다고

밝혀주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를 심화시키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게 하는 실천적방도로 된다.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 호상간의 인간관계속에 있으며 인간관계를 떠난 인간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는 사회제급관계의 예술적반영으로서 그것은 등장인물들 호상간의 극적관계이며 이 인간관계의 기초에는 각이한 인간성격과 그들의 생활이 놓여있다.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인간관계에 의하여 작품에 묘사되는 사건은 극적으로 얹혀지고 심화되며 선택된 종자가 예술적으로 꽃피어나게 한다.

인간관계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생활을 옮겨 그릴수도 없으며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할수도 없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에 따르는 생활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보여줌으로써만 자주적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그려낼수 있고 작품에 묘사된 당대의 시대상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생활을 논리적으로 엮어나가며 극구성과 감정 조직을 잘하는것은 자주적 인간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성격은 순차적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발전하여야 하며 생활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생활이 일관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엮여져야 그것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모든 세부형상들도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성격들이 인간관계에 의하여 서로 맞물리고 생활이 논리성있게 풀리지 않으면 전일적인 형상체계를 갖춘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형상적화폭을 창조할수 없다.

성격장성의 논리, 생활의 논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생활을 넣어 놓지 말고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드는것이다. 이렇게 되여야 생활묘사의 립체성을 보장하고 주인공의 성격이 뚜렷한 작품, 사람들이 깊이 공감할수 있는 기품진 화폭을 창조할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자주적 인간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힘으로써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리론실천적인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참다운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받아래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창조의 길을 따라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자주적인간의 본보기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보다 많이, 보다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힘있게 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김 형 원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적지도로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혁명적기치밑에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창조와 건설의 뜨거운 혁명적열풍으로 끓어번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더욱 강화되고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역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영웅적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 그리고 전체 인민의 출기찬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우리 혁명이 오늘과 같은 일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도 오늘의 보람찬 현실도 말할수 없으며 보다 휘황한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 이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불굴의 투지와 세련된 령도예술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완성해나가는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의 가장 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당의 혁명적지도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

1

현대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뚫고 승승장구해온 우리 인민의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이것은 전체 인민이 온갖 착취와 압박, 예측과 구축을 모르고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이다. 이 영광스러운 위업은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실현해나감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류레없이 심각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의 과정인 공산주의건설위업은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과정이다. 그것은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듯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으며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완강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당의 세련된 령도예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적지도가 보장되어야만 난관과 시련을 뚫고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의 화불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그 전투에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강도 일제를 비롯한 온갖 원수들의 반항과 종파오물들의 책동으로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몸소 타개하시고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백두밀림에서 시작되여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주체의 혁명위업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그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빛나게 완성되어가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협은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

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525페이지)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지도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이다.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령님의 령도는 당의 혁명적지도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당중앙의 의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이 내놓는 모든 방침들은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활동과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따라서 당중앙의 혁명적지도가 철저히 보장될 때에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고수하고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움직여 인민대중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집중시킬수 있으며 혁명을 가장 끝바른 길을 따라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의 혁명적지도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의 기본출발점이다. 당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며 그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어있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그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당안에서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0페이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투쟁의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영원히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주체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당인 우리 당에 있어서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영원히 계승해나감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변함없이 간직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 방법대로 진행하여나갈수 있게 된다.

또한 당의 혁명적지도는 유일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당안에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게 하며 그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합과 함께 중앙집권적규률에 기초한 조직적통일이 안받침될 때 더욱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모든 사업을 집중시키고 유일적으로 처리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게 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며 승리해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역센 뿌리이며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 진행정에서 일관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을 밝혀주는 귀중한 재부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초석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합의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고있으며 그것을 초석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간다. 당중앙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상체계와 고귀한 투쟁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완성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해놓은 모든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할데 대한 높은 요구와 목표들 내세우고있는 숭고한 역사적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집령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뿐만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완전히 집령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 영예로운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탁월한 령도예술과 령도방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것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의 모범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주며 정확한 투쟁목표와 투쟁구호,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탁월한 조직력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령도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어 철저히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실로 당의 혁명적지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탁월한 공산주의건설리론이며 당건설리론이다. 이 위대한 사상과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땅위에 공산주의
 락원을 펼쳐가려는 절절한 소원을 더욱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2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인민
 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
 한 충실성을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
 야 할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그
 기본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불타
 는 충성심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관한 사상이 밝혀
 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 혁명
 가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품모와 혁
 명정신, 사업과 생활의 근본준칙을 옳
 게 파악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
 고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들어주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절대적인 신뢰는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깊이 간직
 된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영원히 드물
 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다. 이
 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
 요한 정신도덕적요인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중
 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빛내여가는것이다. 우리 시
 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영광스러운 당중앙
 에 의하여 빛나게 고수되고 계승발
 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
 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7페이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인 체계로 고전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
 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로동계
 급의 전일적인 혁명리론으로 정식화한
 것은 우리 당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
 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님
 의 혁명사상의 본질과 근본원리, 구성
 체계와 내용, 그 역사적지위와 혁명적
 사명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사상리론적지침을 가
 지게 되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곧바른 길로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
 이 제시됨으로써 공산주의건설위업에서
 로동계급과 그의 혁명적당이 들어쥐고
 나가야 할 총적방향과 최종목표, 투쟁
 방침이 역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지
 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
 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
 뚫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
 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연과 사회를 개조
 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
 어났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
 업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혁명의 정
 수분자로 준비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
 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끌어올렸다.

당의 혁명적지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짙어차게 되고 당사업, 당활동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작령도체제와 당의 혁명적지도가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섰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기백이 차넘치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대오로, 온 사회에 넘쳐나 주체형의 맑은 피를 흘려주며 세차게 맥박치는 사회의 역센 심장으로, 토속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되었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전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완전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고 우리 사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대집단으로 꾸려지고있다. 그리하여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강력한 사회정치적력량이 마련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세련된 령도예술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구상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구현해나가고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 지도이론과 함께 옅은 령도예술, 령도방법으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몸소 문제해결의 구체적방도를 밝혀주시며 한점을 뚫고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를 당, 국가 사업전반에 일반화하시는 공산주의적령도방법과 참다운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령도리론, 령도방법은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현실에 구현되어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우리 당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끌어올렸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낡은 사업체제와 재래식사업방법이 뿌리빠지고 우리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제가 튼튼히 섰을뿐아니라 전통적인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참신한 사업방법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령도방법,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아래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세련된 령도예술, 참신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선봉을 불리일으켰다.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지상의 의무,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섰으며 온나라는 혁명의 세찬 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향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자신의 구호로 접수됨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천리마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올렸다. 온 나라에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전투대오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났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졌다. 실로 이 땅위에 일떠선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모든 혁신적성과들, 우리 나라 농업력사에서 전례없는 대풍작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지도로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혁명적지도로 높이 받들어나갈 때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사회주의대건설사업도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3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이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당의 혁명적지도로 더욱 철저히 실현해나간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이지)

당은 우리의 심장이며 의지이며 미래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하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

러러모시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바로 여기에 당의 혁명적지도로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당중앙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어떤 동파와 사련 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까지 충성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당의 혁명적지도와 어긋나는 온갖 형태의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절대화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갈수 있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중앙의 모든 방침들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질서와 제도를 세워야 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율을 세워야 한다.

장기성을 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혁명의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다. 혁명투쟁에서 그 과정은 달라지지 않아도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후대들이 다. 진전하게 자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공산주의위업은 체계성과 일관성을 띠고 함있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후대들

을 당의 혁명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친위대, 돌격대라는 혁명적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가는 참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세대가 바뀌고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다.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혁명이 진전하며 승리하는 과정은 혁명의 뿌리를 고수하고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위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그 어떤 동파도 뚫고 진전할수 있고 승리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그 어떤 동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담보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전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관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당면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 주신 전투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

휘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완충의 해인 올해 전투적과업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빛나게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드팀없이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품모를 남김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민앞에는 보다 위대한 래일이 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충성의 열도로 높이 우러르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근로자 1977년 제2호(무제 418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7년 2월 1일 발행 • 1977년 2월 5일

7-751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 1 3 2 0 6 호)

810 2

From: 2 10 17

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JUN 16 1977
UNIVERSITY OF CALIFORNIA

3 호

평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2)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자(9)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15)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지창익(22)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국민회.....김용원(29)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리오송(34)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요구.....김철식(40)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강성산(47)

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리봉원(53)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
사회의 부패성.....장기천(59)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

오늘 우리 인민은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전 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가 비상히 높이 발휘되고 사회주의대전설장마다에서는 영웅적위훈이 려리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정확히 결합시키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양양과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할것이다.

*

*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을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제시하시

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밝히주시였다.

당중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가고있는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강조하고있다. -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그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경제건설에 당적력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할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과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들어쥐고 당의 모든 활동을 경제과업수행에 복종시키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에서 나타나게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에 결정적으로 낮을 돌리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그 투쟁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근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두가지 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당규약에도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하였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이 투쟁하는것이며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전투적기능

을 높이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이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급의 진위부대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이다.

당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인민대중을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넓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것이 곧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활동이며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임무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 사업과 활동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돌리고있으며 바로 이 숭고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것이 우리 당과 전체 당원들이 지닌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성과적으로 집령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영

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인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옹계 결합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당사업자체의 본질적요구이다.

강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20페이지)

당사업이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결국 당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당의 활동을 말한다.

당사업은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두 측면을 이룬다. 여기에서 당내부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잘 움직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사상사업 즉 당자체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당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사업의 주요구성부분의 하나이며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에서 항상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

적지도를 옮겨 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사회주의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행정경제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주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적위훈으로 힘있게 불려 일으키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당대렬을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당내부사업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고 그것을 적극 보장하고 힘있게 뒷받쳐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당내부사업도 구경은 당앞에 나서는 혁명업무로 성과적으로 안받침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사업과 동떨어진 순수한 당내부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러한 당사업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당내부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사업의 결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사업이 잘되어야 당내부사업이 잘된다고 말할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특히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우리 당앞에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 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끊임없이 나치나가야 한다.

우리는 민족지상의 다짐인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다그치므로써 근로대중이 모른것의 주인이며 모른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반영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

한 물질문화적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때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군속에서 사는 그나큰 영예와 행복, 수령님과 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일세계 투쟁하게 된다.

당면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올해 완충의 해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올해를 완충의 해로 규정하시고 그 중심과업으로서 수송건설을 추켜세우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6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빨리 나가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진당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는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이미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경제로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과 양양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 새 진당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진공적인 방침이다.

이처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결정적으로 나팔을 불리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당이 지닌 승고한 사명과 우리 혁명발전의 전방한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은 보다 앞당겨완성될것이다.

*

*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밀접히 결합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사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것은 당사업 자체의 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정치적지도기관이며 참모부이다. 경제사업에서의 성과여부도 전적으로 각급 당위원회들이 주인노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은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진실로 당사업이 잘되는 경우 경제사업이 안되는 일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에 대한 평가기준도 해당 부문과 단위 앞에 나선 경제사업을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경제사업을 주적세우기 위해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되며 생산과 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게 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이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는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적지도가 옹계 보장되어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줄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사회주의건설을 갈해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체계를 참신하게 세워 책임일군들이 전적으로 경제사업을 틀어쥐고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이 잘되도록 중심무표를 옹계 설정하고 작전적설계를 바로하며 사업의 선후차를 옹계 정하고 주되는 문제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면서도 전반직교리를 다 틀어쥐고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애 선자적주목을 돌리며 중요한 생산부문들과 결리고있는 문제들을 매일 장악하고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현실태와 발전전망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진요하고 결박한 문제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심교리이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자면 당조직들이 수령님께서 매 시기 주시는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 모를 막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 수송건설

과 채취공업을 추켜세우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루는것을 비롯하여 완충의 해인 올해의 중심과업에 힘을 집중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교시에 대한 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고 티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주관주의와 독단을 없애고 행정경제일군들을 당위원회의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집체적힘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이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우고 당적으로 믿어주어 행정경제사업이 날이 서게 하며 일군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언제나 진반을 장악한 기초우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아래에 내려가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재포치하며 제때에 총화를 잘하여 당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상대로부터 원료와 자재, 설비의 보장정형과 과학기술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깊이 파악하여야만 문제해결의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고 정확한 지도를 줄수 있다. 실정을 알아야 발언권이 있고 지도할 권리가 있다. 실정을 료해장악하지 않고 내려먹이거나 행정경제사업의 뒤꼬리를 따르는것은 당적지도와 인연이 없다. 일을 알속있게 한 대신 정확한 파악도 없이 제기된 문제를 기천게 처리하는것은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늘 구체

적인 실태와 생산정형을 알아보고 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드팀없이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적지도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손금보듯이 낱알이 꿰들고 당의 의도대로 경제건설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오늘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며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간의 생산적연계가 더욱 복잡해진 오늘 경제조직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고 우리 인민경제에 방대한 생산적잠재력이 마련되어있는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기만 하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조직사업이란 계획을 잘 맞물려주고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는것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오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바로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고도의 치밀성을 가지고 계획을 바로세우며 모든 생산조건들을 예견성있게 앞세우면서 빈틈없이 맞물려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이와 함께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에서 자기의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며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지규를 지키도록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의 위력한 무기를 튼튼히 들어쥐고나가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생산과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낡고 불건전한 모든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 온갖 <잡귀신>들을 철저히 쏘어버린다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전집》, 제5권, 제2판, 66페이지)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전의 방침을 들어쥐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요령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과 주인답지 못한 일본새를 반대하는데 사상투쟁의 기본화살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온 사회가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패기로 차넘치게 하며 창조와 건설의 전투적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할뿐아니라 당내부사업 자체도 어디까지나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경제사업을 잘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강연회나 학습회를 하나 조직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당사상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잡고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요진통을 찔러야 그들을 생산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본으로 삼고 들어쥐고나가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충을 잘 쓰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던것처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조건에서는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투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충실한 사람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지도하며 평가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할데 대한 요구를 더 잘 관찰해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의 혁명과업수행과정이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 한몫씩 단단히 해나간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훨씬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의 교양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들이 채심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깨우쳐주어 말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며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혁명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수 없고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다.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당조직들은 원리교양을 강화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잘 깨우쳐주어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실지로 깊이 자각하고 주인답게 일해나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당일군들 자신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모든 문제를 당직전지에서 옳게 판단하고 경제 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교양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혁명적으로 학습하는 된바람을 일으켜 모든 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에 정통하고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기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방침이 정확하고 일군들의 열의가 높다 하여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작전이 없이는 조성된 정황에 맞게 일을 진공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방법론을 바로세우고 일해야 낫은 틀을 마스고 행정식방법,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모가 나게 일을 해제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원들과 군중이 살며 일

하는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진실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교양개조하는 산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어머니가 되어 높은 당성, 토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어야 하며 아래단위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맡겨진 책임은 대단히 크며 임무는 무겁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켜 모든 사업을 혁신하고 우리 인민의 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일으키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교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일대 진공전투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올해 완충의 해의 중심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수송건설과 채취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을 더욱 추켜세우며 《알곡 850만톤교지를 점령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 전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라는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자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원리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 당은 전반적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한 일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학습의 목적은 진리를 알아가지고 혁명활동의 지침으로 삼자는것이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식은 행동의 지침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방해물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의 본질, 원리, 근본을 알아야 하며 비록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원리교양은 모든 사회현상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의 바탕에 놓여있는 원리와 리치를 깨우쳐주는 사상교양사업으로서 사람들을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소유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원리교양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추

진되어나가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완성되어나갈수 있다는 혁명의 원리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 하는 원리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가 하는 합법칙성으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적지조를 꺾이지 않으면서 건철하게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원리교양은 또한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건설되게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와 혁명을 위하여 스스로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어 몸바쳐일해나가게 한다.

실로 원리교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의 원리와 리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깨닫게 한다. 따라서 원리교양은 사상사업의 높은 실효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며 그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로 된다.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주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현상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끝없이 증오하며 그것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적관점으로 무장하며 그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졌을 때 확고히 세워지게 된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이 어떻게 개척되고 승리하여나가는가 하는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착취와 착취를 본성으로 하는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위업이 오직 로동계급의 이익의 최고체현자인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하고 완성된다는 합법칙성을 잘 알아야만 사람들은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건걸히 싸우려는 입장과 관점을 가질수 있다.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이 발전하고 승리할수 있다는 원리를 잘 알아야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정세하에서도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보고 혁명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혁명적 원칙과 지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드림없이 걸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혁명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참가할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없다.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관점과 입장,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기본방식으로, 피와 살로 되는 혁명의 원리는 중

요하게 원리교양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리교양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알게 하고 그것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어느 것이나 다 주체사상의 원리와 혁명투쟁의 법칙, 현실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제시된것이다.

당정책의 근처에 놓여있는 이러한 원리와 객관적기초를 깊이 아는것은 당정책의 전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게 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해야만 3대혁명에 대한 우리 당의 전략로선의 본질과 위대성을 잘 알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사상론의 원리를 깊이 알아야 언제나 대중이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여 당정책관철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양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또한 집단의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속도전의 원리를 똑똑히 알아야 사회주의건설을 혁명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실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잘 알 때 그 정당성을 심장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여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게 되며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적극성,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된다.

사람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투쟁이 어렵고 장기성을 띠 때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한 사람은 권태
증을 느끼며 동요할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
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관, 490페이지)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온갖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투쟁의 연속
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안팎의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되
며 자원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치게 된다.

이 간고한 투쟁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전진시키나
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그 어떤 준
엄한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지
니게 하여야 하며 그때자면 그들을 혁
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의 길에 아무리 간고하고 만다 하
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반
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전리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 처하여도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가지고 혁명의 진도를
타고나면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나 혁명투쟁의 원리를 잘 모르면
혁명이 시련에 부딪칠 때 신심을 가지
지 못하고 동요할수 있고 지어 혁명의
길에서 멀어지나갈수도 있게 된다.

지난날 항일의 불사조들이 형인할수
없는 혹한과 굶주림과 피의 격전으로
이어진 준엄한 시련을 15성상이나 이기
내면서 혁명의 길을 추호도 리단함이
없이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의 원
리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있었기때
문이었다.

나라가 간라지었고 미제와 직접 맞서
서 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아직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
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의
법칙과 원리로 무장시키는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
리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굳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
명선언문처럼 비록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강의한 의지와 백질불굴의 투쟁정
신, 드물지 않는 혁명승리의 신념을 가
지고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
까지 역세게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참으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
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투쟁하는 계
급의 전위투사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
명사상과 당정책을 견대적으로 신봉하
고 그것을 전철히 옹호관철하여나가는
혁명적 정수분자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
을 힘있게 다그치나가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인군들은 원리교양
이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기초
적이며 관건적인 사업으로 되며 전반적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나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원리교양을 강화함에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
멸의 주체사상의 원리, 혁명의 수령에
 의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
리의 합법최성, 계급투쟁의 원리 등
모든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킴으
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
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을 충성으로 받들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게 하여야 한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
업부분안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사람들을 혁명의 원리로 교양하는데
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
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기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일관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이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원리, 주체사상의 원리는 우리 시대 혁명의 원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떠한 복잡한 현상도 그것을 자로 하여 재어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여나갈수 있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바닷한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 전략전술과 명도방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함으로써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 리론, 방침들을 깊이 체득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전철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원리교양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성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명도밑에 완성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수령의 명도를 떠나서는 의식화, 조직화될수 없고 하나로 뭉칠수 없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사회와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올바른 투쟁방향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대중을 묶어세워 끊임없이 승리로 이끌어나가는것은 혁명의 수령이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하며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수령에 의하여 기록된 혁명전통과 모든 업적을 대를 이어 전철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만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확증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혁명의 보람찬 새시대를 맞이하였고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이 혁명승리의 결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명도밑에서만 혁명투쟁이 발전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진리는 가장 귀중한 혁명의 근본원리로 된다.

사람들은 혁명의 이 근본원리를 깊이 알아야만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려는 드린없는 간념을 가지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복속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는 당의 명도밑에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의 원리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급투쟁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혁명투쟁은 곧 계급투쟁이며 혁명투쟁의 원리는 중요하게 계급투쟁의 원리

이다.

계급투쟁의 원리를 알아야만 높은 계급의식과 계급적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벗과 원수를 똑바로 가려볼수 있고 원수에 대해서는 추호의 환상도 모르고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만을 아는 진결한 혁명투사로 준비할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지난날의 착취받고 압박받으며 어렵게 살던 사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착취계급에게는 《천당》으로, 근로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되는 리치와 계급적원수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원리를 대중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떤 형태의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혁명위업의 성공적승리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어떻게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더 잘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는 불피코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원리를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반쯤까지 무장한 일제원수들이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고 치장성세하던 그때에 벌써 농민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혁명승리의 원리로 항일유격대원들을 무장시키시던것처럼 오늘도 민족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시고계신다. 우리는 혁명의 원리로 사람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모두가 필승의 신념을 안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원리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이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살며 일하게 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에 따라 살며 일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이 가장 높이 발휘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하고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의 몫도 늘어나게 되며 나라의 일이자 곧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되고 공장과 농장의 재산이자 곧 자기의 재산으로 된다. 따라서 이 사회를 움직여나가려면 누구나 자신이 사회와 집단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을 착실히 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자기의것처럼 간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저히 체득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사회와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모든 재부를 극력 아끼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원리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원리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인민이 리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정의와 진리를 대중 속에 잘 선전하고 해설하기에 힘 써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98페이지)

복잡한 사회현상과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과 리치를 알려주는 원리교양은 심오한 리론을 가르쳐주는 사립인것만큼 알기 쉽게 풀이를 잘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어려운 술어나 쓰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라렬하는것으로써는 혁명의 진리를 옳게 인식시킬수 없다.

우리는 혁명의 원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해 주어야 하며 그리자면 일군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알기 쉽고 더 깊이있게 풀이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써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거나 사상사업을 하는데서 언제나 대상

의 수준과 준비 정도에 맞게 구체적인 처방을 가지고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대중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데서 늘 기초적인 원리로부터 하나하나 깊이있게 해설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문답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토론과 논쟁을 활발히 벌려 언제나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과 근본, 리치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원리교양을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의 산 현실과 생동한 자료,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여 이룩하신 우리의 찬란한 현실은 혁명의 진리, 주체의 원리가 가득차있는 풍부한 혁명의 보물고이며 혁명승리의 끝마른 길을 밝혀주는 참다운 교과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명한 명도 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와 우리나라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혁명의 원리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만 승리와 영광, 끝없는 행복이 있고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리러모시고 당과 혁명을 굳건히 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원리교양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누구보다도 일군

들의 정치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정치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참다운 교양자로 될수 없고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옹호관철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일군들은 진당, 진군, 진민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당정책을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며 자신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아군타군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원리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충성의 대오로 다지고 우리 혁명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원리는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화불이며 이 진리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역센 전진은 그 어떤 힘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원리교양을 한층 더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다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요구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생소한 길을 헤치며 심각한 혁명투쟁과 거창한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큰길음을 내딛던 주체위업의 력사적전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을 전진시키고 공산주의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확고한 혁명적신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의 공세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게 할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

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탁월한 수령과 그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승리할수 있는 위대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종전의 모든 혁명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장기적이고도 가장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변혁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그들 자신뿐아니라 전체 피압박, 피착취 근로대중을 해방하며 인류를 해방하는 위대한 사업으로서 력사상 류례없는 규모로 광범한 대중이 인입되며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에 더 광범히,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할수록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되는 력사적투쟁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연 발생적으로는 절대로 이룩될수 없으며 그 위업 수행의 전기간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그 사상에 의하여 조직화되고 의식화되는데 기초해서만 이룩될수 있는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사상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된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은 선행한 모든 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일반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에 도달하게 된다. 로동계급이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수령의 혁명사상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세세계를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자기 계급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으며 자기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사상조류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발전하며 승리하는 역사적위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맑스-레닌주의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승리하여왔습니다. 역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그 반영으로서 로동운동내에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3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어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제국주의의 압박과 계급적 원수들의 파괴압해책동을 면할 수 없으

며 적대적사상조류의 항거에 부딪치게 된다. 전복된 착취계급들은 언제나 빼앗긴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은 무력침공과 정치사상적·해책동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어용나팔수들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한다.

한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공세가 강화되고 혁명이 장기성을 띠게 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온갖 기회주의사상이 나타나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도전해나서며 그 진수를 거세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파괴하려고 획책한다. 역사적경험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안에 나타났던 기회주의자들이 레외없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악랄하게 공격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자체를 말아먹으려고 꾀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사상조류와의 투쟁을 벌려야 하는것은 불가피하며 오직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함으로써만 자기의 역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과 그 당이 수령의 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이고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생겨나게 되며 혁명대오안에서는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당과 혁명대오 안에서 중파와 분파가 허용되게 되고 수령이 창건한 당이 변질되게 되며 나아가서는 피의 대가로서 이루어놓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말아먹게 된다.

이렇듯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함으로써 혁명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역사적임무를 다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7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체제이며 우리 시대의 과학적공산주의혁명이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의 요구를 체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의 향도적기치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영광에 찬 지난 반세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업적에 대하여 말한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공산주의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나게 옹호관철해나가야 자기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전로정,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역사적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7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현대문명에서 그처럼 멀리 뒤떨어졌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있었으며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남들이 수백년동안 길러서 하였다는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완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파괴압해 책동을 물리치며 온갖 기회주의의 사상조류와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발전하고 승리하여

왔다.

조선혁명은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 길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파쑈적폭압과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혁명이 더욱 간고해짐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기회주의사상조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혁명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 종파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온갖 기회주의의 허망한 꾀변들을 들고나와 조선혁명의 앞길에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건철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우리 인민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의 전로정은 참으로 형언한수 없이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온 간고한 투쟁로정이었으며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건철히 옹호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

는 승리를 이룩해온 자랑스런 투쟁로정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더욱 순결하게 고수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판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건철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온 자랑스런 투쟁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경험은 수령의 사상을 건철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건철히 고수하고 옹호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영원히 승리하고 발전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의 수십만리, 혈전만리를 헤치며 시작한 조선혁명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합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위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낙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위에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르고있다.

우리 당의 지상의 혁명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길이다. 우리는 인구의 수적우세로써가 아니라 사상적우세로써 적들을 압도하여야 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와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路線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을 신봉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세워주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이지)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가 되려면 누구나 다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혁명을 위하여 견결하게 싸워나가는 립장과 태도,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지녀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근본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새기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다. 혁명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혁명적신념과 세계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혁명실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혁명의 원리를 밝혀주고 혁명적세계관을 주는 사상적량식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동요하거나 번질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 그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혁명적학풍을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끊임없이 학습하여야만 주체의 혁명권은 세울수 있으며 매 시기 혁명의 과녁은 무엇이고 당면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향과 방도를 확히 깨들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끼니는 건들지언정 학습은 건는적이 없으며 전투의 여가나 행군을 하면서, 우등불가에서 쉬없이 학습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학습을 첫자리에 놓고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학습은 어떤 문제든지 그의 본질과 원리, 기본을 알며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깨달을수 있도록 학습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실천활동에 써먹을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없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받아들여 학습이 참으로 혁명적양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본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기자신을 튼튼히 무장할뿐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전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전수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투쟁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의 무조건성, 이것은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중요한 기풍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해서는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철하는 길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투쟁정신과 완강한 기백이 있어야 우리앞에 나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치열한 재급투쟁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한순간이라도 지체시키려는것은 주체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이 과업이 밀어지면 저 일을 그만두고 저 과업이 나서면 이 일을 끊어버리며 사소한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고 동요하이시는 어렵고 복잡하며 멀리어 새 과업이 나서는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어느 한 문제도 똑똑하게 풀어나갈수 없다.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의세계 내밀고 본때있게 해제끼는 사람만이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높은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는 참다운 일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요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티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아버지 수령님께서 양적수선 속에서도 연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이는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내치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결렬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앞길이 간고하고 특히 안팎의 원수들이 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어떻게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만일 당과 혁명대오 안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한시라도 늦춘다면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사상적《삼귀신》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배신자들과 분파적요소가 생겨나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계승하지 못하고 변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와의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불멸의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영원히 내부에서 싹트지 못하고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올수 없게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율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0페이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고수발전시키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의사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의 유일적지도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전당과 온 사회에 순결하게 맥박치게 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건결히 옹호관철하며 당의 유일적지도와 어긋나는 그 어떤 사소한 현상과 요소들에 대해서도 용화무과하지 말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건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불굴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은혜로운 당을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영예이며 더없는 행복이고 자랑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과 의도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

지 창 의

우리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당중앙의 영명한 지도 밑에 온 사회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시대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이끌어오신 성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전진길에 들어서고있는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성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온 그 자랑스런 나날들을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행복과 영예,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기나긴 반세기에 걸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어버이사랑,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수놓아진 력사였다.

시대와 혁명의 거창한 흐름을 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런 인민으로, 혁명가의 고결한 도덕적풍모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혁명적인민으로 되었다. 온 세상을 전감시킨 주체조선의 위대한 비약과 세기적인 변혁들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이루어질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언제나 높이 맥박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혁명적의리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없이 맑고 깨끗한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고유한 도덕적풍모이다.

지난날 시대의 밀창에 깔려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과 혁명가로서의 삶과 보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오직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며 싸우고있는 우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1

공산주의혁명가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닌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동지적의리도 잘 지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6페이지)

가장 고상한 혁명적의리, 이것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고유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하는것은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이다. 사람이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려면 집단과 집단의 매개

성원들사이 그리고 매개 사람들사이에서 일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사람들사이에서 스스로 리행되는 도덕적의무로서의 의리는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에 기초함으로써만 가장 고상한것으로 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부르조아지들도 《의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들의 의리는 본질상 개인 리기주의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것으로서 반동적이며 추악한것이다. 철저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조아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참다운 인정과 의리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 대중속에서는 건전한 의리가 있지만 그것은 가장 고상한 의리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한것이고 개별적인 사람들사이의 단순한 인정적인 의리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들사이의 의리가 하나의 사상, 숭고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참다운 인간관계에 기초하지 못하고있는 사정과 중요하게 판연되어있다.

오직 가장 고상한 의리, 혁명적의리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사상과 목적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사람들이다.

혁명적의리는 이러한 숭고한 사상과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관계,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맺어진것이기때문에 더없이 고상하고 원칙적인것이며 력사상 그 어느 사회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의리로 되는것이다.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자들에만 고유한 의리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누구도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혁

명적의리는 수령을 모시는데서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된다.

운명을 같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에서 수령은 전체를 대표하며 집단의 매개 성원들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다.

전체의 리해관계와 의지를 체현하고있는 수령은 집단의 매개 성원들을 자신의 한혈육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보살피며 매개 성원들은 집단의 자주성과 생명을 대표하는 수령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면서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을 첫째가는 도덕적의무로, 가장 영광스러운 본분으로 여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함없이 경모하고 우리러받들어나가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생명의 은인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73페이지)

정치적생명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혁명에 충실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며 혁명가의 일생에 끝없는 혁명적 생기와 활력을 부여주는 영원한 샘이다. 사람은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정치적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것처럼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량식으로 하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어버이손길로 하여 얻어지고 키워지고 빛나게 된다.

사람이 부모가 없이 육체적생명을 생각할수 없는것과 같이 수령을 떠나서는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상 그 어느 세대도,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가장 값있고 깨끗하고 가장 고상한 정치적생명을 확고히 지니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혁명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전투에 서시여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 모욕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던 우리 인민을 혁명의 길로 힘있게 이끄시여 영웅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불굴의 혁명투사로 자래워주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완전히 책임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힘으로 당당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더불어 기나긴 반세기에 걸친 투쟁행정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유일한 혁명적량식으로서 심장깊이 아로새겨지고 혈맥을 통하여 온몸에 퍼지나가 뼈와 살이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직 혁명을 위하여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살줄 아는 혁명적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 위대한 포용력과 감화력으로 우리 인민 매 사람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으며 혁명의 길에서 일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재생의 길로 따돌이 이끌어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을 해온 우리 인민의 전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정치적생명을 얻고 키우고 빛내여온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였다. 지난날 정치적생명이 없는것으로 하여 눈서리에 파묻혀 천신만고

괴롭받던 우리 인민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그때로부터 비토소 양춘을 만나 활짝 꽃피나는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가장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지닌 영웅적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우리의 온 사회는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넘치며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기백이 약동하는 하나의 산유기체로 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들모두에게 혁명가로서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생명의 은인이실뿐 아니라 참된 삶의 보람과 끝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언제나 인민의 자유와 해방, 그들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심려, 정력적인 활동은 오로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행복은 수령님의 최대의 기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곧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높은 뜻은 곧 인민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이 중심에 놓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원한의 피바다에 잠겨있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건져내시고 힘껏고 굶주리던 인민에게 참된 삶과 행복의 새봄을 찾아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삶과 행복,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는것도,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마음껏 공부하고있는것도, 그 어느 하나도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언제나 위험이 뒤따르는 삼엄한 지하혁명투쟁과 탄우속 수십만리 항일의 혈전에 이어 현대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때려눕히고 제대미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아버지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력사는 수령님께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인민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으로 수놓아져있다.

지난날 불행과 수난밖에 모르던 우리 인민이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으로 오늘은 행복만을 알고 그 무엇도 더 바랄것이 없게 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순을 넘으신 오늘에도 비오는 아침이나 눈오는 밤도 마다하지않으시고 이슬찬 농장별과 불꽃튀는 건설장을 찾으시여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계신다.

정녕 우리 인민은 오늘의 참된 삶과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삶으로써 하여 아직 그 누구도 지너본적이 없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게 되었으며 혁명가로서의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과 최대의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오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다하는것을 마땅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그 첫날부터 마음속에 피어나 반세기의 오랜 혁명투쟁과정과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무르익어온 확고한 사상감정이며 도덕적품모이다.

이리한 혁명적의리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아버지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용감히 뚫고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는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아버지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수령님께 충성다해나갈것이다.

2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 우러러받들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가 높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오직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이다.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는 우리 인민에게는 아버지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못해낸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가는 충성의 한길,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길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진심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22페이지)

수령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과정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마음속으로부터 신봉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해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해나가는 투쟁이 곧 수령에 대한 충성의 혁명적의리를 다하는 길이며 바로 여기에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깊이 체득하지 않으며 그 사상의 요구대로 사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서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오직 주체사상만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굽힘없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투쟁할수도, 전진할수도, 살수도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

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철석같은 신념이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그 어떤 잡귀신도 배겨낼수 없게 되고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도 침습할수 없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과 어긋나고 혁명가답지 못한 온갖 낡은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낡은 일본새를 전면적으로 불살라버리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전투적인 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확립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밖에는 그 어떤 길도 모르고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는 건실한 인민이며 전당과 온 사회는 그야말로 오직 한가지, 주체형의 피만이 힘있게 맥박치는 혼연일체의 순결체이다.

우리 인민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이 땅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것처럼 건결히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사상적순결성이 이루어진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다함없이 흠모하고 높이 우러러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혁명적의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본분으로 뿐아니라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철저히 실현해나가는데서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수령을 진심으로

영원히 우리러반들어나가기 위한 근본 요구이다.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수령을 높이 우리러반들어나가는 혁명적의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직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의 높은 권위를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도덕적인 의무로 여기고 그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만이 수령에 대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킬줄 아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철저히 보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길에서는 비록 목숨은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되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혁명선렬들이 우리의 길을 떠난지 오래나 그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는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충성다했기때문이다.

지난날 우리의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도덕적의무로 간주하고있었기에 비록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쉽게 여긴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더 충직하게 싸우지 못한것을 가슴 아파하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며 장렬한 최후를 마쳐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그대로 이어지고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한가지 생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옵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아버지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릴 불타는 마음으로 일해나가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또 한 누가 알아주든말든, 누가 보든말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일편단심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집적표현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여나가는 실천투쟁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녔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은 오늘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아버지수령님께 더 큰 기쁨만을 드리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높은 혁명적의의와 창발성을 내어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단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드팀없이 관철되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한생은 티없이 순결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이어지는 충성의 나날들이다. 이 행정에서 지금 우리의 혁명대오는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것이라던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못해내는 일이 없는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영원한 충성의 대오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역세계 싸워나갈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자기의 충성심에 모자라는 점이 있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사업하고 생활하며 수령님에 대한 의리를 세계관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혁명적의리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을 경계하며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불을 질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혁명적의리와 어긋나는 온갖 <잡귀신>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가 짝 들어차게 할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할 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더 잘, 더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곧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며 혁명적의리를 철저히 지켜가는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깊이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앞에는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광휘로운 빛발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세계에서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국민회

김 용 원

오늘 우리 인민은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3대혁명불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강임한 환경속에서 조선국민회창건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선생님의 열렬한 애국사상과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 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것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긴길히 투쟁하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며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굽힐줄 모르는 투지와 끊어넘치는 열정으로 싸우신 강의한 혁명투사이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의 창건은 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조국광복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당시 일제의 포악성과 우리 나라 반일운동의 제찬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중학교 제학당시에 벌써 반일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시여 학생들을 투쟁으로 조직동원하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려는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시여 표면상 교원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청년학생들을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반일독립운동자들과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독립을 위하여 생사운명을 같이한 동지들을 묶어 세우시여 장차 강력한 반일혁명조직을 결성할 터전을 튼튼히 마련하시었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격사적인 평양회의가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야 한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시고 오래동안 무르익혀오시고 몸소 작성하신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조선국민회는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후 평양과 강동, 압록강연안 일대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동지규합과 조선국민회 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양성, 무기구입과 무장투쟁준비, 광범한 군중속에서의 반일애국사상의 선전 등 수많은 사업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비합법적지

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와 합법적조직인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 등을 조직하시어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일제의 과소적폭압과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인민대중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었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정확한 투쟁목적과 투쟁방침을 가지시고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심으로써 그 조직은 국내 각지는 물론 멀리 해외에까지 널리 확대되어갔으며 그 주위에 반일애국력량을 급속히 묶어세울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그 이전시기에 있었던 반일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반일지하혁명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를 포괄한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서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건결히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제기한 철저한 반제자주적인 혁명조직이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건설하심으로써 당시 질식상태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비로소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으며 분산되어있던 반일혁명력량의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켜든 반일지하혁명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는 우선 민족해방투쟁에서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해방할데 대한 투쟁목표를 내놓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의 투

쟁목적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한걸같이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조선국민회 조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선독립의 시기를 동양에 밀친 구미세력과 일본이 패권을 다투는 때를 절호의 기회로 보시고 이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은 당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였다.

조선국민회가 창건되던 1910년대 후반기는 일제의 국악무도한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르고 조선인민이 일제에 겪어보지 못한 민족지식압과 착취에서 신음하던 일대 수난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레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락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2페이지)

일제침략자들은 조선민족의 모든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야될수 없는 고통과 노예적굴종만을 강요하였으며 애국적인민들을 다치는대로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앉아서 영원히 일제의 노예가 되는가 아니면 사생결단하고 일어나 일제와 싸워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전도

를 근심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독립운동자들은 투쟁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서 간악한 일제 침략자들을 쳐부실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진행된 반일운동의 본질적 약점은 그것이 명확한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하였고 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일제를 반대하여 한때 무장을 들고 기세충천하던 의병들도 이 시기에 와서는 뿔뿔이 흩어졌고 《애국가》로, 《우국지사》로 자처하던 사람들도 농민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국외로 망명하거나 종교의 외피를 쓰고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조선강점후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투쟁강령과 투쟁방도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매번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조선민족해방운동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있던 독립운동자들과 모든 애국력량을 한데 묶어세우고 정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우며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시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시고 지도하신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은 철두철미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한 반제적인 투쟁강령으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투쟁의 기치였다.

조선국민회는 무엇보다먼저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인민대중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광범한 민중속에 선진사상을 널리 보급하여 그들을 각성시켜야 하며 무산대중을 조국광복의 성전에 힘있게 일떠세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진로요, 이 길만이 도탄속에서 허덕이는 2천만 겨레를 구제할 유일무이한 방략입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누가 인민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조직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자기의 두리에 묶어세우지 못한 혁명조직은 제아무리 훌륭한 투쟁구호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특히 민족해방운동의 상층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민족자주정신이 없는데로부터 큰 나라를 사대하고있음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교양사업이 없이는 그들에게 반일애국감정과 민족자주의식을 뿌리깊이 심어줄수 없었으며 그들을 반일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킬수 없었다.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하도록 계몽사업과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국민회성원들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곳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민족자주정신으로 자각된 인민들로 그 대렬이 늘어갔다. 또한 인민대중을 민족개량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떼내어 조직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대중적지반을 더욱 확대하여갔다.

그리하여 부지와 봉매 속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버림을 받던 로동자, 농

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계급적으로 점차 각성되고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 밀쳐나서게 되었다. 조선국민회의 적극적인 환동에 의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살인만행과 폭압에 겁을 집어먹고 반일운동을 포기했던 기쁨들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또 다시 반일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지어 완고한 종교인들까지도 반일투쟁에 일떠서게 되었다.

조선국민회는 또한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모든 반일운동자들을 묶어세웠으며 분파행동에 타격을 가하고 민족단합을 실현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선 독립운동단체들의 분렬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합은 힘이며 분렬은 파멸입니다.

우선 단합시켜 그 력량을 보존하며 부단히 교양하여 그들을 점차 무산혁명을 지향해나서도록 확고히 돌려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급선무는 그들을 반일의 기치아래 단합시키는것입니다.》

은 민족이 반일의 기치밑에 굳게 통일단결하는것은 직들을 교립약화시키고 반일민족해방투쟁력량이 결정적우세를 이룩하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특히 반일운동대렬이 사분오렬되어있던 당시의 형편에서 대오의 통일단결은 민족해방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조선국민회는 《합심단결은 조선독립달성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절절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반일력량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그릇된 길로 나아가던 군소독립운동단체들과 독립운동자들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점차 옳은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독립운동자들의 반일적요소를 적극 지지해주는 한편 힘을 합쳐 일제와 싸울 대신 독립운

동단체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던 분파적경향을 바로잡아주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도록 인내성있게 이끌어주시었다. 선생님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아량있는 포용력 앞에 탄복되어 한때 직위와 권세만을 앞세우고 서로 물고뜯던 독립운동단체들의 《두렁》들까지도 머리를 수그리고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였으며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워나갔다. 그리하여 자기의 존재자체를 마치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 와해상태에 처하여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수습되었고 조선국민회가 높이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아래에 하나로 뭉쳐갔다.

조선국민회는 이처럼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광범한 반일운동자들속에서 단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점차 통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으며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우리 민족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나갔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는 또한 무장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으로써 민족해방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3.1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냉혹하게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적수공권으로 조선독립을 요구한 우리 백의동포들에게 일제는 무엇으로 대답하였습니까.

일제는 총과 칼로 우리 동포들을 대하였습니다....

무기를 가진 원수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합니다.

조선독립달성의 총요원은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싸워나가는것입니다.》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적들의 류혈적탄압에 적수공전으로 대항한다는것은 실패와 죽음을 가져올뿐이다. 무장한 반혁명력량에 대하여서는 혁명적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무장투쟁에 관한 김형직선생님의 방침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었으며 조국광복의 올바른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었다. 조선독립달성의 근본요인이 무기를 잡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밝히신 선생님의 사상에는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자주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어있으며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로동자, 농민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혁명사상이 반영되어있었다.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장투쟁의 방침을 받들고 장차 대규모적인 무장활동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조직에서 선발된 우수한 청년들로 무장대오를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군사간부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해결하는 등 무장투쟁준비를 적극적으로 벌리었다.

조선국민회 성원들과 무장대원들은 초기에 일제의 주구나 처단하고 사무기관이나 습격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점차 일제통치기관과 경찰기관들을 대담하게 기습하여 일제놈들과 악질관리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빼앗아냈다. 무장대의 적극적인 활동은 광범한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조직지도하시는 전기간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능숙하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언제나 주도권을牢牢히 틀어쥐고 혁명운동을 부단히 확대발전시켜나가지였다.

이렇듯 조선국민회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우리 나라에 새 력사의 리명을 앞당겨왔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

*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은 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지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아버님의 원대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출발점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은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마침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생을 바치시고 '바라시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고있으며 찬란한 열매를 맺고있다.

조선국민회창건 60돐을 맞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일렬한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따라 배우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리 오 송

혁명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고 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투쟁을 중단없이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교양사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원썹들의 간악하고 음흉한 정체를 폭로하여 그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계급적원썹들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게 하며 근로자들에게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혁명투쟁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자기 계급과 자기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건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을 계속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계급적원썹들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건결한 투쟁정신과 자기 계급과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강毅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아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러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근본문제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혁명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전과정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과 관련되어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각성하여 지주, 자본가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구축하는 온갖 반동적이며 뒤떨어진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 혁명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시기에는 물론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오래동안 계속된다.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외부로부터 반혁명세력의

파괴적 영향이 들어오며 내부에서 착취 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준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혁명적 행동을 진압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하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결코 계급투쟁은 없어질수 없다.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계급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은 그 멸망이 촉진되면 될수록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행동하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조금도 약화시킬수 없다.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척됨에 따라 계급투쟁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의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그들속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생길수 있으며 나아가서 동요분자, 이색분자가 나와 당과 혁명을 쏙먹는 데까지 이룰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업을 강화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계급적립장을 저버리고 안일하여지며 계급적원쑤도 증오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싸우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을 전진시키기는 고사하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적들에게 빼앗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당원들과 근로자

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우리 혁명의 간고성, 복잡성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 간고하고 장기성을 띠수록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조국보위의 임무를 맡고있는 인민군대장병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6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복잡하다.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있으며 나라의 절반땅을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는 세계반동의 두목이며 원흉이다. 미제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놈들은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새로운 침략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썸적폭압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화국복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어 발광하고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으며 조국의 절반땅에 지주, 자본가들의 반동통치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원쑤들의 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의 무기, 계급투쟁의 무기를 더욱 억세

들어주고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지주, 자본가, 반동통치배들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로서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는 다 같이 오랜 기간의 투쟁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이 간고하고 장기성을 띠도록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원수들이 침략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버리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의 무기, 계급투쟁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는 잘못하면 혁명의 원수를 잃어버리고 안일해이하여 질수 있는 조건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보람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록 사람들은 지난날 착취계급에게 억압받고 천대받던 과거처지를 잊어버릴수 있다.

착취계급이 정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속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려는 비혁명적인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지어 지난날 원수들과 피흘리면서 싸워온 사람들속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강毅한 투지를 잃고 그저 편안하게 살려는 그릇된 현상이 나올수 있다.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시기에는 사람들이 압박과 착취를 직접 당하기때문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놈들을 반대하여 전격히 싸우게 된다. 지난날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갖은 압박과 멸시를 받았으며 지주, 자본가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조선의 애국적인 청년들과 인민들은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

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으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날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온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복반부에는 우리를 민족적으로 멸시하며 억압하는 제국주의자도 없고 근로인민을 착취하는 지주와 자본가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들속에서 혁명하기를 싫어하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계급적원수를 잊어버리고 혁명적으로 살기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적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활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사람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의하여 백두의령봉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날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역사적위업이다. 이 역사적위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어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훌륭히 개

조해나갈수 있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온갖 반당적 및 반혁명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사람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온갖 적대적사상요소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확신있게 나아갈수 있다.

특히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역사적과업인것만큼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이루어놓은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업적을 계승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숭고한 역사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관, 104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전적으로 새세대들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세대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줄곧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지주,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악독한

지를 모르며 집신, 토스레웃, 머슴군이 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혁명의 담당자들은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세대들로 바뀌어지고있지만 혁명의 적, 혁명의 파벌은 변하지 않고있다.

만일 우리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여 곤난을 무릅쓰고 계급적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끝까지 반대하여 싸울 투지를 잃어버릴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것을 바라면서 투쟁하기를 싫어한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뿐아니라 우리가 항일무장투쟁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계급적자각이 높고 혁명적각오가 튼튼해야 그들은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세대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잠시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당이 언제나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일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참다운 역군으로 키우는에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5페이지)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계급적원수들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참다운 혁명가로서 타날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어떤 시련에 부닥쳐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우리 시대의 노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노동계급의 립장과 관점에서 모든것을 판단하고 처리하게 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급적원수들과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의지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역세계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 때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놈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며 원수들을 종국적으로 멸망시킬 때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과 함께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 혁명승리의 필연성 등을 원리적으로 잘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함께 혁명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역사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폭로하며 놈들이 오늘 우리 인민에게 감행하고있는 온갖 죄행을 날날이 발가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극악한 매국노인 박정희피뢰도당을 끝없이 증오하고 남조선의 반동통치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박정희피뢰도당이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행과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판료배들이 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약탈 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는데 대하여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온갖 원수들을 영영 쓸어버릴 때까지 견결히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

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재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9페이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자기 계급, 자기 인민, 자기 재도에 대한 사랑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적을 증오할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건결히 싸울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궁지를 키워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보람찬 혁명사업에 참가하는 궁지를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응당한 자부심을 안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민족적궁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혁

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이 사회주의제도의 강화와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의 침습을 철저히 막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도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의연히 책동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과 속에 남은 사상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조건에서 외부에서 침습하는 온갖 반동사상이 우리 내부에 퍼질수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며 부르조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본질과 표현형태, 반동성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온갖 나쁜 사상이 우리 내부에서 싹트지 못하게 하며 밖으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여세를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요구

김 철 식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 제5차 대회가 제정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한 승리자의 긍지높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내놓으신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편승하고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수송전선, 채취공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박약, 대혁신이 이룩되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급속히 장성하고있다.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당과 혁명 앞에 나서는 무거운 임무는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높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급속히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문제를 옹계 풀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옹계 실현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제무기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발전속도와 균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완충의 해인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를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새로운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완충의 해로 정하시였으며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최근년간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긴장성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성을 지체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더 앞세울것은 앞세우고 보강할것은 보강하여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로대가 자기의 은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으며 있을수 있는 불균형을 미리 막고 인민경제의 전반적범위에서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이 1977년을 완충의 해로 설정한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 일부 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개별적으로 빈틈이 있는 부문들을 보강하여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를 완충의 해로 규정하신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의 구체적실태와 그 발전전망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인민경제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

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입니다.》(《신년사》, 1977년 1월 1일, 7페이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옹계 해결하여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가 이룩될수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생산이 전진과 퇴보, 상승과 하강의 곡절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상승일로를 밟으면서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생산증대를 위한 예비가 계속 무진장하게 생기게 되므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발전단계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생산장성을 위한 예비의 성격과 형태, 동원방도가 다를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유희자재와 유희로력과 같은 비교적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생산장성의 예비는 경제발전의 낮은 단계나 복구기에 보통 많이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한 예비는 경제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고 관리가 제일수록 얼마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많은 로력과 정력을 기울일수록 무진장하게 동원할수 있는 항구적인 예비가 있다.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 사업을 잘하고 관리운동을 개선하는것,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는것과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비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있는 항구적인 예비이다. 생산장성의 이러한 예비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속 무진장하게 확대되는 예비로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지어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할뿐만아니라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될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그것들이 통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높은 속도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되거나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발전과정으로 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을 옹계 리용하여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지도를 강화한다면 경제발전

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하여야 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완충의 해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면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완충의 해인 올해에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게 되는것은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옳은 균형을 보장하면서 경제를 더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을 푸는 사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이며 앞서나가는 부분들의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일부 긴장한 부분들과 고리들의 발전속도를 여기에 따라세워 옳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앞서나가는 부분들을 쉬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긴장한 부분들을 여기에 따라세우는것은 인민경제에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동원하여 옳은 균형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데 강력한 작용을 주게 된다.

올해 완충의 해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부 개별적인 부분들의 발전속도는 조절될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서는 계속 높은 속도가 보장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올해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개별적부분들의 긴장성을 푸는것과 함께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대건설사업을 예견하고있다. 그런것만큼 그 준비를 갖추는 사업도 역시 매우 방대하며 따라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나아가야 하는것이다.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높은 속도가 이룩된다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가능성에 엄격히 서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비상히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성을 유지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속도를 늦출수는 없는것입니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전집》, 제3권, 제2판, 99페이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은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의하여 생산과 분배, 유통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환절들과 경제부문, 단위들사이의 련계가 구체적으로 맞물리지면서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며 일시적으로 개별적부문에서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은 늦어지지 않을수 없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기본요구인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데 복무한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은 재생산과정에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호상관계에서 어디까지나 경제발전의 속도가 위주이고 목적이며 균형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비상이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 없는 혁신과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에서 인민경제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적극성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물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속도를 늦출수는 없는것이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가능성에 엄격히 의거하고있기때문에 균형이 옳게 유지될수 있다.

경제발전의 비상이 높은 속도를 이룩하도록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자면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며 동원적이고 종합적인 균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안하고 앉아몽개면서 균형만 유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가 아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동원적인 균형이라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법칙을 구현한 균형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서 균형만을 절대화하고 속도를 차요시하는것은 기본적이고 주되는것을 보지 않는것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기초하여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한다.

이와 함께 객관적현실과 주체적력량에 대한 과학적타산이 없는 주관적욕망으로서 높은 생산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없다.

정확한 균형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자면 프로

테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특히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생산관계가 공고발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때 대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축적과 소비, 공업과 농업,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부문들사이 그리고 매개 생산단위들과 지역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설정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동을 절약하면서 경제를 끊임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한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촉진되어 나라의 자연부원을 더 잘 개발리용할수 있게 하며 생산력발전에 따르는 분업과 협동생산을 더 잘 조직할수 있게 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의 규모를 더욱더 크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면 될수록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테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가가 모든 경제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고리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사회주의경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프로테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경제법칙과 변천되는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북

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경제는 끊임없는 상승일로를 따라 발전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국가의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기초가 더욱 공고화되게 되며 그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게 된다. 또한 경제관리에 대한 일군들의 실천적경험이 풍부해지고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특히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이 높아지게 된다.

이 모든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높아지고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가 강화되며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진행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이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와 조성된 사회경제형편,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시어 정확한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 관철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진행정에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상이 높은 속도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1957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사회주의적공업화기간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함으로써 1970년에는 그것이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빨리 늘어났다.

사실상 우리는 국내외정세가 매우 어렵고 복잡했던 조건에서도 자본주의나라들이 웅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과업을 1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고

1970년에 공업화의 완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던것이다.

공업화의 과업을 완수한 다음 세계적으로 원료난, 연료난, 식량난이 휩쓸고 경제적과동이 극심했으며 안팎의 정세가 매우 긴장되었던 최근년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높은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공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은 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상 앞당겨 성과적으로 완수되었다. 6개년계획을 수행하던 4년 8개월사이에 공업생산의 년평균 장성속도는 원래 예견하였던 14%를 훨씬 넘어서 18.4%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빨리 늘어났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진행정에 이룩된 공업생산의 이러한 비상이 높은 장성속도는 매우 놀란만한 속도이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그 어느 시기에 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매우 높은 속도인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행정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비상이 높은 속도는 일부 경제부문의 일면적인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경제의 동시적인 급속한 발전,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7년—1970년의 공업화기간에 생산수단생산은 13.3배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면서도 소비재생산이 또한 9.3배로 빨리 늘어났으며 농업생산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

1975년 8월말현재로 생산수단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2.3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거의 같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농업생산도 빨리 장성하여 알곡생산고지는 6개년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1974년에 성과적으로 집령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의 중요생산부문들이 매우 빨리 장성하면서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였다는것

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빨리 발전시켜 그 발전속도를 주도적부문인 중공업의 장성속도에 접근시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토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에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이 모든것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경제건설리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데 대한 리론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둔 이 모든 자랑스런 성과들은 과거사회로부터 매우 탁후한 경제를 넘겨받았고 그것마저 두차페나 후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압해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이룩된것이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

*

현시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쏟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입니다.》(《신년사》, 1977년 1월 1일, 7페이지)

우리는 올해에 반드시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생긴 긴장성을 풀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고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수 있다.

올해에 수송전선에서는 철도전기화를 다그치며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큰 화차생산을 늘이고 대형화물자동차와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 철도, 자동차, 배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박토와 기본굴진을 앞세우고 광산들을 개발확장하며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침으로써 연료, 광물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올해에 전력공업과 경공업, 농업, 수산 부문에서도 계속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전력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잘 관리하고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모든 발전기에 만부하를 걸며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요과업은 온갖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며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며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제를 세우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 가공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은 올해에도 여전히 주공전

선의 하나이다. 우리는 올해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반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또다시 대비약을 일으키며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때 우리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유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수 있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방대하고 여러 부문들사이의 력계가 밀접해지고있으며 높은 과학기술적대우에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생산을 훨씬 더 늘이고 그에 수송을 따라세우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 등 위대한 수행년께서 것처럼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조직사업이란 계획을 잘 맞물려주고 자재를 제때에 잘 보장하여주는 것과 같은 사업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재를 앞세워 공급해주고 직장과 직장사이, 공장과 공장사이의 협동생산을 잘 맞물려주며 걸린 고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줄 때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

적양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훌륭히 관철하고 완충의 해인 올해의 중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 특히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높은 당적책임성을 발양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며 생산과 기술, 계획사업을 틀어쥐고 실속있는 지도를 하여야 한다. 원료와 연료,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요령주의, 본위주의, 무책임성, 판료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올해 완충의 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적대진군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완충의 해인 올해의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

강 성 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복구 건설의 첫삽을 들었고 원썬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긴장한 본위기속에서 간고한 투쟁을 하면서도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고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아버지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끝없이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를 비롯한 최근시기의 여러 교시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대전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활동을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투쟁에 몰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꿀고루 다 잘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페이지)

인민생활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궁극적목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승리와 성과들도 결국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서 나타난다.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를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느낄수록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하며 모든 활동을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복중

시켜야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의 옹호자이며 대표자인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정치적생명뿐 아니라 물질문화생활과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을 믿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의무, 우리 인민의 념원으로 부터 출발하시어 일세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것이다. 따라서 모든 투쟁은 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복종될 때에만 참다운 의의를 가진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모든 활동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최고원칙으로,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쥔 다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생활에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릴 때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더욱더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게 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을데 대한 방침은 또한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강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세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돌보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시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전기간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험벗고 굶주리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가능한 모든 조건을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자신께서 지니신 이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구현하시어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울 때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전망적요구와 인민들의 당면한 생활상 수요를 응계 결합시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대규모중앙공업공장들을 물론히 우리는 한편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심으로써 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튼튼한 경공업기지를 꾸릴수 있게 하시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여러가지 식료가공품과 일용품수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난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 자리를 찾아 헤메거나 류랑실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덕을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탈론과 갈섬유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현대적인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들이 수없이 건설됨으로써 입는 문제도 풀렸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저의 무로나 다름없이 국가로부터 식량과 살림집을 보장받고있으며 가장 높은 형태의 전반적 무로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살고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하기 위하여 끝없이 심려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웅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동소 가장 우월한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었으며 잔이술내면

새벽길도, 바람사나운 한밤중도 마다하지않으시고 온 나라의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여 주체농법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심으로 하여 우리는 온 세계를 휩쓸고있는 흑심한 한랭전선의 영향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조선이 생겨난이래 최고의 수확인 800만톤이상의 알곡요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도처에 고기, 알, 기름, 남새 생산기지들을 마련 해주시고 매개 도마다에 현대적인 곡산공장들을 일떠세워주시었으며 지난해말에는 동해바다가의 포구들을 몸소 찾으시고 변화되는 유리한 해양조건을 리용하여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다 세워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도에 의하여 알곡, 남새, 기름 문제가 풀리고 안주와 남청진지구, 오국리와 룡림리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봉사망들이 웅장하게 일떠섬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더욱 충겹해 되었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재, 당의 명도자이실뿐아니라 친부모도 미치지 못한 사랑으로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며 고난도 시련도 오로지 인민들과 함께 뚫고나가는 민족의 태양,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리부모시고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정애하는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진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대전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높여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계속 전진하고있으며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이러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표시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려일으켜 대전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인민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흥겹게 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몸소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침과 방도가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자립적인 현대적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가 꾸려지고 농업과 수산업에서 새로운 양양이 일어남으로써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밑천도 튼튼히 마련되어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일꾼들은 무엇보다먼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꾼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꾼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천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천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중요한 품성이다. 일꾼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에 참담제이바지할수 있으며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일꾼들은 자신이 배부르고 더울 때에도 아래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울수도 있다는것을 잊지 말고 항상 아래사람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6개년계획을 완전히 수행한 오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사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모든 일꾼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일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아버지수령님의 배려가 전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칠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써야 한다.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가지 과업을 주시면 열가지, 스무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말고 백번 넘어서

면 땀땀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런 기백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관료화를 반대하고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하며 사상전을 통하여 형식주의, 요령주의, 공명출세주의, 무책임성과 같은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사소한 생활상 불편이라도 가슴아파하고 책임적으로 풀어주는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우리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한다면…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수 있으며 그 질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94페이지)

근로자들의 생활상 수요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높아지며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여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부문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도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시기에 하신 교시들에서 일군들이 사업을 짜고들어 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닭기르기와 기름생산을 널리 조직하며 공급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으며 중앙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 창발성을 적극 발

양시키는 방향에서 필요한 대책과 방도까지 다 취하여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단 하루, 한시각도 헛되이 보냄이 없이 경제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불리한 조건도 유리하게 전변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봉사활동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된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항상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깊이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역량편성을 잘하며 기술경제적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중앙정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매개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각종 농부산물과 유휴자재에 대한 수매사업을 강화하며 가내작업반과 편의협동조합들을 옹제 운영함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지방적인 수요는 지방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장들을 잘 꾸리고 식료가공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있는 오늘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교리는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는데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연료,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대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자재를 아래에 내려다 주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만부하를 결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과 봉사부문일군들은 생활필수품직장을 잘 꾸리고 기본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쓸모있는 폐설물을 모조리 리용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계획규률을 어김없이 지기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지방들에서는 일원화 계획체제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인 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고도로 치밀하게 세우며 생산기술공정들을 빈틈없이 맞물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품생산에서 계획규률, 협동생산규률, 물자공급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소비품공급과 봉사활동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관고루 몫이 차폐지도록 할대 대한 원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경영사업에서도 계획화수준과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봉사사업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의 확고한 담보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 당사업이란 있을 수 없으며 당사업의 성과여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나타난다.

각급 당조직들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파업수행을 힘있게 떠밀어줌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의도하는대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들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하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거치른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 제때에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은 오로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 나가자.

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리 봉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지구 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주지구 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 문제에 심오한 리론실천적인 해명을 준 강령적인 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문헌에서 일군들의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리론실천적인 해명을 주시으로써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일군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계속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로작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에서 심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큐 기초하시여 일군들이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가질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기풍, 생활기풍이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의 종합적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우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적기풍의 첫째가는 특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0~26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혁명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해나가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의 모든 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김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아버지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뿐만 아니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조선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모든 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이 준 혁명임무집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객관적조건을 앞세우면서 당정책관철을 중도반단하는것은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태도이며 우리 혁명가들의 투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당에서 주는 혁명과업에 대해서

는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 쉬운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는 사업기풍, 바로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쟁쟁한 품성이며 생활기풍이다.

군중속에 늘 들어가며 현실에 깊이 침투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6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발양시키지 않고서는 도대체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도, 말할수도 없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기본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옹기 구현해나가는것은 그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늘 군중속에,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독단과 주관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되며 결국 당과 대중을 리탈시킬 수 있다.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야 대중의 사업과 생활, 생산과 건설에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알고 대중과 함께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근본태도이며 혁명적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풍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또한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치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서 나타납니다.》(우와 같은 책, 26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교시에서 밝히신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와 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다.

당과 대중을 어떻게 편결시키며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우리 지도일군들이 근로대중의 열의를 어떻게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은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 것과 함께 실지행동으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도일군들이 실지행동을 통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야만 광범한 대중은 그것을 본받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

만일 지도일군들이 명령하고 지시하는데 그치고 군중속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지 않게 되면 그는 대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지휘성원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며 따라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없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옮겨 조직동원할 수 없다. 일군들은 언제나 들판의 새벽이슬도 먼저 차고 공장의 구내길도 선참으로 걸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일에 어깨를 먼저 들이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참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이신작치하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자신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또한 난관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용감하게 싸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71페이지)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실망과 비관을 모르며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요불굴의 투지로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야만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으며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혁명을 중도반단하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무르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은 투쟁으로부터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은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전진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소극과 보수, 퇴색과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적진, 계속전진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본성에 맞는 일본새이며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자기 사업을 늘 검토총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75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생신한 사업기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우리 일군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사업을 따라세우자면 늘 자신이 해온 일을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한다. 자기 사업을 늘 검토하고 총화하는 사람만이 언제 어떤

서나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원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늘 자기 사업을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보고 총화하는 품성, 결함을 주관에서 찾고 우점을 객관에서 찾는 혁명적인 품성의 소유자들이다. 이러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기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따라세울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임무도 자책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늘 자기 사업을 검토총화하는 기풍은 우선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투쟁과 전진 도상에는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되는 동시에 부족점도 발로될수 있다. 문제는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 일군들이 늘 자기 사업을 검토총화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질 때 결함을 정확히 찾고 그것을 제때에 극복해나갈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업과 생활을 검토하고 총화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일군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이다. 낡은 사상잔재로 하여 우리 일군들은 요령주의와 무책임성,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본위주의 등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은 일군들이 늘 자기 사업을 검토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질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늘 검토총화하는 기풍을 가져야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

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작에서 이와 같이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모든 문제들은 당정책관철에 대한 립장과 태도, 군중속에 들어가서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문제, 생신한 사업기풍으로 혁명과 진실을 끊임없이 다그칠데 대한 요구 등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가장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가적기풍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정확히 관철해나갈 때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토작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는 우리 일군들속에서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며 혁명과 진실을 힘있게 진전시키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토작이 발표되던 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혁명임무는 낡은 재래식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뿌리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의 사업수준은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었으며 그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작풍, 사업에서 무책임성, 보수주의, 경험주의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진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새로운 환경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하여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심으로써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토작은 또한 일군들이 자신의 혁명화, 토동계급화를 다그쳐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하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참다운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함께 토작은 혁명적사업기풍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 함으로써 토동계급의 당이 일군들속에서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워 혁명과 진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하였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의 정신도덕적품모와 사업방법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이룩되고 혁명과 진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자신의 확고한 신조로, 생활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일하고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고 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시대의 혁명하는 우리 일군들의 정신세계이며 생활원칙이다.

혁명가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또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

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배낭을 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절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어떻게 하면 광범한 군중속에 더 잘, 더 빨리 침투시키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기대 옆에서, 발머리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준비정도,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알기 쉽고 실속있게 진행하는 우리 일군들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광범한 군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 관철제로 힘있게 펼쳐나서게 하는 위력한 힘으로 되고있다.

또한 일군들속에서 언제나 불꽃튀는 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전투적기풍이 튼튼히 서가고있다.

일군들속에서는 로쇠와 침체를 배격하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대담하게 벌리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참다운 혁명적생활기풍이 튼튼히 서가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약동하는 현실과 군중에게서 배우고 자신의 혁명적수양을 부단히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은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새로운 당 생활총화제도에 따라 언제나 조직의 통제와 지도 밑에서 생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활동방식,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오늘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청춘

의 기백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길에 있으며 우리가 갈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과 생활을 더욱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 우리의 혁명적전군을 계속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보다 큰 양상을 일으키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침체와 담보도 허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로작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

장 기 천

오늘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은 30년 이상이나 우리 조국 절반땅을 강점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시켰으며 온갖 반동적인 사상문화독소를 퍼뜨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고 식민지통치의 사상적지반을 구축하며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로 더욱 튼튼히 얹어매놓으려 하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아름다운 우리의 민족문화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현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를 고수할수 있고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해외침략의 중요한 수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8페이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과 약탈을 본

업으로,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종래와 같은 공공연한 방법으로는 더이상 식민주의를 지탱할수 없게 된 새로운 역사적조건에서 보다 음흉하고 악랄한 신식민주의정책에 매달리게 되였으며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식민주의《제왕》으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좌지우지하던 때에는 주로 군사적 위협, 폭갈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것을 해외침략에서 주되는 수법으로 써왔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독립을 쟁취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반제투쟁의 불길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오늘 늑들은 종전과 같이 군사적침략 하나만으로는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였다.

특히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대내외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찾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제패하려는 끝없는 야망밑에 침략과 전쟁책동을 격화시키고 《평화》의 간판밑에 가장 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침략을 감행하는테로 나갔다.

이리하여 오늘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는 군사적 및 사상문화적 침략을 강화하면서 신식민주의수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은폐된 침략행위로서 토굴적인 무력간섭에 못지않게 위험하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침략의 길을 터놓고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 작은 나라 할것없이 그 어디에나 미제의 침략위협과 변동적인 사상문화적독소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그것은 농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라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458페이지)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며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가리우며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고 그들을 저들의 온순한 노예로 만들려 하고있다. 또한 농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한다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다른 메로 돌리고 아세아에서 마지막지탱점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며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반동적인 사상문화독소를 침투시키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를 유린말살하고있다.

민족문화는 한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케 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민족문화를 고수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그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지켜낼수 있다. 만일 민족문화가 외래침략자, 압제자들에 의하여 말살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되는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자기의 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고 세계문화사에 찬연한 빛을 뿌린 재능있는 인민이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도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튼튼히 지켜온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적기개에 길잡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저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중심을 우리 민족문화를 유린말살하는데 두었다.

교활한 미제는 이른바 구미문화예술의 《한국화》라는 간판밑에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침투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농들은 각종 사상문화침략기구들과 《협정》들을 조작하고 그들 통하여 퇴폐적인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미제는 제놈들의 소굴에 해외문화침략을 전문적으로 맡아하고있는 《교육문화사무국》을 비롯하여 《미평화봉사단》, 《미중앙공보원》 등 수많은 기구들을 조작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정책》을 작성하여 산하기관들과 해외주재 《대사관》들에 보내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고있다. 농들은 남조선에서 《주한미대사관》의 《문정과》를 중심으로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교육위원단》 등 현지기구들을 설치해놓고 사상문화적침투를 본격화하고있으며 교육기관, 각종 출판물, 방송, 영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국식생활양식을 이른바 《현대인》의 생활양식으로 미화분식하면서 조선민족고유의 풍습과 문화에 대하여 그 무슨 《후진성》을 요란스럽게 떠벌이제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기의 민족문화에 대한 허무주의와 서양문화에 대한 숭배사상을 고취하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양속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예술작품들은 서양화되고있으며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민족고전들은 완전히 외곽모독되고있으며 진보적인 영화예술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또한 무대예술과 미술도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와 특징이 흔적마저 사라지고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한심한 지경에 굴러떨어지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제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박정희괴뢰악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민족문화는 일관된 정책도 방향도 없이 주인없는 꽃밭처럼 <잡초문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의복,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고유한 미풍양속이 심히 어지럽혀지고있으며 특히 민족의 자랑이며 긍지인 아름다운 조선말이 짓밟히고있다.

양풍과 왜풍이 깊이 스며들고있는 남조선을 찾은 한 외국인은 《서울명동거리에 나붙은 간판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와 일본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족적인것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고 조소하고있다. 이렇게 조선땅에서 조선어가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으며 영어와 일본말로 뒤범벅이 된 국적을 분간할수 없는 외국말이 판을 치고있다.

미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은 문화유산을 무참히 파괴유린하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놈들은 병영, 군용비행장, 군용도로 등 군사시설의 확장에 미쳐날뛰면서 남조선에 있는 수많은 국보적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리는 한편 여러가지 강도적수법으로 귀중한 문화재들을 빼앗아가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심히 파괴되었거나 미국놈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일뿐아니라 온갖 전횡과 만행으로 민족문화를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는 극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있다.

민족자주의식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주체적힘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수호하며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하여 완강히 싸워나가는 사상의식이다. 민족자주의식이 없이는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재할수 없으며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건결히 수호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데 온갖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수단들을 집중시키고있다.

놈들은 무엇보다먼저 반동적인 종교를 미국에 대한 노예적굴종과 숭배사상을 고취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종교선전을 통하여 미국사람에 대한 노예적굴종과 미국에 대한 숭배사상을 고취합니다.》(《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10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는 일종의 마약이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종교정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미제는 오늘도 그것을 남조선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실현의 직접적인 도구의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제놈들의 종교단체들과 수많은 선교사놈들을 놓아미는 한

편 여타가지 종교기구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종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미 저 멀리 난 《강대성》과 《우월성》을 떠벌이고있으며 제놈들의 《원조》의 침략적본질을 가리우고있다. 이렇게 놈들은 종교를 통하여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와 노예직굴종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반공》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반공》은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측, 식민지적착취를 감행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구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반공》을 방패로 하여 대내적으로는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사회정치생활의 파쇼화를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며 그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반공》선전은 놈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의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극악한 파쇼적폭압을 동반하고있다. 《반공》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놈들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적인 죄행을 가리우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반공》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며 북과 남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며 침략과 전쟁책동을 은폐하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출판물과 방송, 텔레비죤, 영화를 비롯한 온갖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비방중상하고있으며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 공

산주의의 거대한 건인력을 《극북》에모려고 어리석게 채동하고있다. 특히 1975년 10월에는 지난 조선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미육군 인쇄출판센터》를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모략선전물들을 조작해내는 한편 정보활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미제가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반공》선전을 더욱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에 각종 《반공》단체들을 조작하고 그들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의식을 고취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피뢰악당은 《행동적인 반공》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강연회》요, 《반공옹변대회》요, 《반공전시회》요하는 따위의 놀음을 도처에서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놈들은 이러한 《반공》소동을 련일 벌리는것과 함께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지난해 11월에 청년학생들속에 《반공》의식을 불어넣기 위하여 113만 5천원에 달하는 《반공》만화책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들에 대대적으로 배포하였으며 지어 금년정초에 들어서 자바람으로 《반공문학》상에 대한 시상금이라는것을 대폭 끌어올리는 망동까지 벌리었다.

동시에 미제와 박정희피뢰악당은 제놈들이 벌리는 모든 책동을 잊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반공》에 귀착시키는 한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반공화》를 다그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반공》소동은 공산주의의 거대한 건인력과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나온것이며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를 구원

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선전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반공》선전을 요란스럽게 벌리고있으나 농들은 결코 그 무엇으로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 미치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을 막아낼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각종 부르조아사조들을 광범히 류포시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제의 어용철학인 실용주의를 비롯하여 실존주의, 신실증주의, 신토마스주의, 인격주의, 《생의 철학》, 《현대의 철학》 등 오만가지 반동사회학조류들이 범람하고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조류들은 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인 사람들을 그 어떤 자립적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설교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을 제농들의 착취와 착탈, 억압 밑에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타락의 길에 굴러떨어지게 만들고있다. 이것은 본질상 남조선인민들이 반미, 반피퇴 투쟁과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기만 술책이다.

미제는 퇴폐한 미국식생활양식을 광범히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부화타락케 만들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극도로 부패하고 퇴폐한 미국반동지배층농들의 생활양식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광란적인 색정과 부화방탕, 야수성과 인간증오 등을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농들은 이러한 저들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공보원》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피퇴정권의 《문화공보부》에는 새로운 기구들을 수많은 설치해놓았다. 농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의 기구인 《사회문화센터》를 서울

에 설치하고 《회원국》들의 《문화교류》라는 명목밑에 미국식생활양식을 끌어들이고있다.

이와 함께 농들은 《깡》, 폭력, 색정을 내용으로 한 출판물과 영화의 비물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키고있으며 《인사교류》, 《류학》, 《기생관광》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미국식생활양식의 침투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사회에는 극단한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과 사기와 협잡, 패물과 패덕, 사회적무질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가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은 더욱 심해지고 박정희매국역적농의 국제퇴물행위를 비롯하여 사기협잡과 부정부패, 강탈과 살인, 인신매매 등이 거리낌없이 횡행하고있으며 남을 속여야 살수 있다는 미제의 강도적론리가 사회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고있다. 농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남조선에는 직업적인 사기협잡배가 33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외국출판물들도 남조선사회전반이 사기와 협잡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는 박정희피퇴악당농이 미국농과 일본농의 개라는것을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가짜이라고 폭로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제침책동을 촉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하여 《창가학회》, 《천리교》 등 종교아닌 종교와 온갖 반동문화를 침투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전전한 사회물리도 덕관계가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가 끼친 후과는 이처럼 엄중하며 그로 인한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사회가 오늘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유린탈살되고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는 썩고병든 사회로 굴러떨어진것은 3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사대매국역적 박정희피뢰악당의 침략과 매국배족적책동의 결과이다.

박정희피뢰악당은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제놈의 일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매국역적이며 파쇼폭압과 테로, 학살에 이골이난 군사불한당이며 동물적인 색정과 부화방당을 업으로 삼고있는 인간쓰레기이다. 박정희역적놈은 미일상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친미친일사대매국노로서 제국주의사상문화를 끌어들이는테서도 제놈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이 역적놈은 미제의 비호밑에 종간로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미일상전과 한짝이 되어 각종 침략기구들과 《형정》들을 조작하고 남조선사회의 《양키화》, 《돼새화》에 광분하여왔다.

박정희피뢰악당이 이렇게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로 나서게 된것은 제놈자신이 매국역적의 피를 받은 사대매국노이며 온갖 부정부패의 원흉이기때문이다.

박정희피뢰악당이 갖은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부정축재하고있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퇴물사건의 두목도 다름아닌 이 역적놈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피뢰악당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다 못해 지어 녀성들까지 팔아먹고있으며 그 대가를 제놈의 장기집권과 부화방탕한 생활에 당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사들과 박정희피뢰악당놈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

수이며 모든 범죄의 장본인이다. 놈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과탄시켜야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킬수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침략과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결결히 싸우는것은 오늘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사상문화분야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박정희피뢰악당의 군사파쇼통치와 그에 의지하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썩고병든 남조선사회를 구원할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도 확립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강요하고있는 《반공》, 숭미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야 하며 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미국식생활양식의 침습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의 현군사파쇼통치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모든 물질문화적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될수 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절기시키며 북과 남사이 방대한 군사력의 대치상태와 긴장상태를 해소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근로자 1977년 제3호(부제 419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 • 1977년 3월 1일

인쇄소 • 평양동합인쇄공장
발행 • 1977년 3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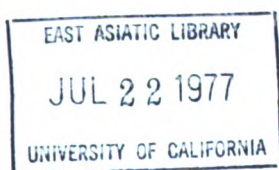
7-753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50편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1932. 12. 15

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근로자

제 4 호 (42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2)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김 월(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박 성 철(1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오 진 우(3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
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림 춘 추(4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다.....양 형 섭(5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다.....서 철(6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매한 공산
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전 문 섭(7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다.....정 준 기(87)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반제
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김 영 남(100)

아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한다.

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싸우는 남녘의 형제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 민들이 또한 이날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19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은 조선인민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위업을 위하여 가장 의의깊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전투에 나서심으로써 위대한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은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은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는 열 네 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넌습니다. 그 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 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 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11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면서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었으며 조국청사와 노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찬란하고 위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길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역사이며,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썬들과의 간교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피어린 투쟁의 역사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하고 영광찬란한 역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로정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그 기간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적시기를 포괄하는 혁명의 걸출한 수령의 빛나는 투쟁로정이며 혁명의 간고성에 있어서 류레없이 준엄하고 시련에 찬 난관들을 한몸으로 막으신 혁명의 세련된 명도자의 불굴의 투쟁로정이며 조국과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에 있어서 가장 폭넓고 위대하며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 혁명의 영재의 성스러운 투쟁로정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진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머리위에 망국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온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밝히시였으며 광범한 혁명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이 억년 드눌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고 역센 역사적뿌리인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후 새 사회,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끊임없는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단결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와 근로단체들을 세우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우리 당을 항도적력량으로 하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제적인 군사 전략과 전술, 탁월한 령군술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심대한 정치군사적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열어놓으시고 짧은 역사적기간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황폐화되였던 이 땅우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인민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번혁과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역사의 후진대렬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세상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주체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로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온 3천리강토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기고계시며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을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혁명운동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동방일각에 위력한 사회주의보루를 일떠세우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인류의 리상을 확신성있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력

사의 지름길을 밝히시었다.

일찌기 류태없이 간고하고 처절한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도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과 신흥세력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승리의 길로 힘차게 고무하고계신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혁명발전의 인정찬 단계만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는 전력사적 과정에 걸치는 비상히 폭넓고 풍부한 혁명업적이며 우리 시대 역사발전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킨 두한히 광휘로운 혁명업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고 빛나는것은 그것이 수령님의 천재적인 사상과 이론,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는 탁월한 령도력과 찬없이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상히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실천에 의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검증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불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밝게 비치고있으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로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비상한 조직력과 혁명적전진력, 강결의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지니시고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을 끝바른 승리로 끝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언제나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나라의 그 어디를 가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사적이 깃들어있지 않는곳이 없으며 우리 인민들 그 누구의 생활에나 수령님의 높이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가 뜨겁게 미치지 않은데란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녘땅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뜨거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계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을 크나큰 한몸에 안으시여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 모두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대양의 파사로움에도 하늘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조국의 품이며 혁명의 품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오늘 이처럼 온누리에 땀땀이 자랑떨치는 영광을 지닐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 그것은 곧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이신 권위이며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의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리리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세 다지고있다.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높이 우리리받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최대의 영광, 최상의 행복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전격히 옹호하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조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족의 붉은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의전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켜 완충의 해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과 후대들의 장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혁명의 한길을 굳세게 걸어온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남조선 혁명가들과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 모든 해외조선동포들의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자리잡고있는 절친한 소망이며 일치한 의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가 있으며 주체조선의 끝없는 융성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따르는 전세계 혁명가들과 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소원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노동제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위하며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지통일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김 일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평도력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공산주의운동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기여하신 가장 귀중하고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다져진 강철의 당, 오랜 혁명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로숙한 당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적 통성과 변영의 시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각별한 감회에 휩싸여 수령님께서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빛나는 투쟁로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수령님께 끝없는 영광과 최대

의 감사를 드리면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이시다.

로동계급의 전투적전위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있어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위대한 10월사회주의혁명의 영향밑에 1920년대 전반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자체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처음부터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였으며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의연히 인민대중과 떨어져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종파행위만 일삼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 자라난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섰던 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전투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을 깊이 통찰하시였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시고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앞길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1권, 6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당을 창건하기에 앞서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는것은 당을 처음부터 공고한 토대우에서 창건하게 하고 창건된 당이 첫날부터 혁명을 옴은 길로 이끌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만일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가 없이 당을 창건하게 되면 그러한 당은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뿐아니라 지어는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역사적교훈은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적책심대오, 당창건의 조직적결단을 튼튼히 마련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공고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한 기초우에서 창건될 때 자기의 전투력과 영도적역할을 높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할데 대한 방침은 당창건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주체적인 방침이며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문제를 가장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힌 탁월하고 현명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닦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안팎의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힘에 의존하여 당을 창건하려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당창건을 대신하려는 것과 같은 중과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은 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아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새로운 획기적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었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5페이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를 받은 참다운 혁명조직이었던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자주적인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에서는 그 어떤 잡사상에도 물들지 않는 참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세대들이 자라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역센 뿌리를 내리게 하고 조선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닦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어나가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직건대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린 위대한 혁명투쟁이었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집결되고 단련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참다운 공산주의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당창건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고 그 과정에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축성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당창건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벌리신 투쟁은 실로 그 심도가 매우 깊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였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실체상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많은 당조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이 나오고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었으며 당원들의 정상적인 당조직생활이 진행되고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지도가 훌륭히 실현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 축성과정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의 기본원칙들이 확립되고 당사업의 풍부하고 귀중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창조된 행정이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20여성상에 걸치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 의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것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도 체제에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깊고 역센 력사적뿌리에 토대하시어 1940년대 중엽에 이르러 마침내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다.

우리 당의 창건은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철저한 조직사상적준비과정들을 거쳐 실현되었으며 여기에 우리 당 창건의 특성과 그 불패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주체형의 당,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이었다.

우리 당은 그 창건의 력사적과정으로 보나 그가 계승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보나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그 지도사상과 투쟁목적으로 보아 철두철미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당이며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온 대오가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형의 당,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자기의 참다운 혁명적전위부대를 가지려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념원은 빛나게 성취되었으며 우리 나라 전체 근로대중은 어떤 풍파도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의 위력한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짧은 기간내에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방침은 해방후 나라의 분렬로 하여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대결이 보다 첨예화된 조건에서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력량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 탁월한 방침이였다.

로동당의 창립은 우리 당 건설과 조선 혁명 발전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중적당을 건설할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된 기초우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로동당을 창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강력한 전투적선봉부대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되었으며 당의 두리에 혁명력량을 보다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었다.

로동당의 창립은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 역사와 조선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과 대중적당으로의 강화발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귀중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혁명적당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서 귀중한 기여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교 빛나게 관철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어떠한 풍파도 뚫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위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4~25페이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은 로

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이다.

당이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하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사람의 몸에는 오직 한가지형의 피가 흘러야 하듯이 하나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쳐야 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사상의지적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색적인 사상이 허용되고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안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 수 없고 혁명과 전설에 대한 통일적인 정도를 실현할 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움으로써만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철저히 실현해나갈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의 조직, 사상,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당을 참말로 불패의 힘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차게 추진시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따라 나아감으로써 혁명도상에 가로놓였던 온갖 난국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자기 대오를 주체

사상체제에 기초한 불패의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난 기간 우리 당 건설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복잡하였다.

공산주의대렬을 분렬과괴하려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분자들의 분렬과괴행위가 우심하였으며 우리 당 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 당대렬의 구성도 복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실 때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면서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통일단결을 념원하시며 아직 검열되지 못하였지만 국내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 여러 갈래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고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시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반쯤을 꾸면서 당의 분렬과 파괴를 일삼아왔으며 혁명과 전설이 심화되고 당과 혁명 앞에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당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이자들은 배외없이 다 혁명의 배신자들이였으며 정치적투기분자들이였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지어는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책동까지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세련된 명도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앞에 시련이 부닥칠 때마다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리고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으며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파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과 그 여독을

뿌리배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당적, 전국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던 종파주의를 비롯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당적 및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것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이지)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과 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며 전대오가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하나의 규율에 의하여 움직이며 하나의 목표와 지향에 따라 일치하게 행동하는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모두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영예, 보람찬 삶을 안겨주신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통일단결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완전한 실현,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관한 당건설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다.

전당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충성의 대오로 힘차게 나가는 것은 백전백승하는 주체형의 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의 상징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총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위적대오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임무이며 주되는 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3권, 644페이지)

당대렬을 준비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정수부대로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대오를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모든 당원들을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도 추호의 동요없이 용감히 헤쳐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낼수 있고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짧은 기간에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강화발전된 우리 당에 있어서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공산주의운동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부대로 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령도로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당대렬의 공고성, 질적수준은 중요하게 당의 불간인 간부대렬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되며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일치이다.

실질적경험은 간부대렬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며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일군들로 꾸리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간부사업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온 몸에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줄 아는 일군들로 자기의 간부대렬을 꾸리고 부단히 확대하여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야 한다는 혁명적인 방침을 밝히시고 항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건설의 기초로,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된다는 천제적사상을 밝히시고 우리 당 건설의 전기간 당원들의 당생활의 기점인 시도를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생활지도방침이 관철됨에 따라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당대렬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원들의 당생활에 기초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진투적조직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시는것과 함께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세우시고 당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과 공산주의도덕교양 등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전공적으로 꾸준히 벌리게 하심으로써 그들모두가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혁명을 다그치는데서 군중과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또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해야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어떠한 원쑤도 능히 타승하고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군중을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당자체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과 조성된 혁명정세, 당앞에 나선 혁명인구는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

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주민구성과 혁명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지작선집》, 제5권, 제2판, 51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현명한 방침이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고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힌 탁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을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고 당의 계급적지반과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칭송하며 자기들의 운명을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권위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군중사업방침이 가지는 자랑스런 결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오랜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의 파풍우속에서 불패의 대오로 다져졌으며 인민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현연적뉴대를 맺

은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투적 선봉대로 자라나게 되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당을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지도해나가는 전투적참모부로 키우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을 창건하고 혁명대오를 꾸리면서 동시에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여야 하였던 우리 당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승패와 그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3권, 644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당의 령도적역할을 계속 높일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으로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은 당앞에 더욱더 복잡하고 웅대한 과업을 제기한다. 그리고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민대중이 조직화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 큰 힘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여 혁명적 변혁과 개조가 심각하면 할수록,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 당이 경제문화건설

과 사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안에서의 향도적력량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적지도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마련하고 이끄는 수령의 유일적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행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투쟁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움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곧 정치적지도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방도를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을 힘있게 이끄시었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사회주의건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이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고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령도체계를 내오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의 통제를 강화한다는것은 당이 행정사업을 가로막아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당원대중의 통제와 당위원회들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2권, 645페이지)

대안의 사업체제에서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집체적령도체제는 각급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당의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조직들과 당원들 그리고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며 결정된 문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늘 지도하고 통제하는 혁명적인 령도체제이다.

이 령도체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당의 위치와 역할, 당과 인민대중의 호상관계,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할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

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옹호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도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당조직정치사업이 경제사업을 안받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합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당의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 목적도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구경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정치사업은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당적지도의 기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침을 구현함으로써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그 집행행위를 장악하고 당적으로 통제하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들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도록 당이 그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국가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진밭을 책임지고있으며 당정책집행을 담당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옹호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각급 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들의 자립적 역할과 책임성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책모부로서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옹호정치적정도부터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행정경제사업을 대할것이지 아니라 각급 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뒤에서 적극 안받침하고 밀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량도적역할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자립성, 책임성과 창발성을 다같이 높여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주권기관들의 주권적지도와 법적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의 외곽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이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지도하고 적극 도와줌으로써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대중운동을 벌려 당의 경제과업수행을 한몫 단단히 맡아 수행하는 위력한 조직으로 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정치적지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안의 매개 고리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당사업의 기본을 어디에 두며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전반적인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천체적인 정식화를 내리시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확고히 건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말한다.

당은 사람들이 뭉친 선봉적정치조직이며 당의 임무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불러일으켜 혁명을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의 사업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들어쥐고나 가야만 당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있고 인민대중을 굳게 묶

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도, 당정책의 요구를 깊이 깨닫게 하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반혁명과 생사결단하는 어렵고 간고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희생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지 않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할 때 당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충분히 수행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불러일으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 사업 이론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사업의 대상과 그 본질적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이 새롭게 천명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필수적수단인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주체형의 당의 본성에 맞게 옳바로 세워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당사업을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오늘 우리 당에는 당내부사업도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방법으로 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며 모두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그야말로 전당이 사람을 깨우치며 움직이며 이끌어나

는 사업체계가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내 부사업이 강화되고 아래를 장악통제하며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철저히 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하루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정확히 내려가고 아래의 실정이 제때에 우에 반영되어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한결같이 움직이며 '사업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당을 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26페이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옳은 사업방법, 대중령도방법을 가지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는 데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대중령도를 참담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옳바른 사업방법, 령도방법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활동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에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항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해방후 창건된 첫날부터 정권을 령도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지난날에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하여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계기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군중의 사업과 생활, 모든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며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화신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공산주의적 대중령도사상이며 대중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조직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불리일으키는데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혁명적 립장과 관점,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

과적으로 끝나갈수 있는 대중령도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우리앞에 무거운 임무가 나설수록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창산리정신, 창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당에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창산리정신, 창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이 극복되어가고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군중을 가르치고 도와주며 실속있는 정치사업을 벌려 군중의 정치적각성과 힘을 발동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이 사계 되었다. 또한 일꾼들속에서 인민의 참다운 충복답게 일하는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의 애로와 요구를 해결해주며 대중의 앞장에서 실천투쟁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이신작칙의 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둘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기에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그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당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

*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하여왔으며 조선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지금 우리 인민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전위부대인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전투적기능과 명도적역할을 계속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리러모시고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토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있고 끝없이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보람찬 생활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셔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인민의 더욱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신심과 희망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박 성 철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혁명의 앞길을 밝게 비치시며 우리 인민을 끝바른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시여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 인류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이 땅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하고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빛내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탄생과 그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투쟁의 토정과 하나로 직접 잇닿아있다.

하기에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기여하신 불멸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통성번영하는 자유와 독립의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동제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국가건설의 참다운 지도적지침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통성,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토동제급과 근로대중은 국가건설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자기 조국땅위에 끝없이 통성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의 압제밑에서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자기의 진정한 국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조국의 독립

을 수호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건설의 정확한 로선을 틀어쥐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실로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혁명과 우리 민족 앞에 나섰던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장차 우리 조국땅위에 부강하고 룡성번영하는 인민의 참다운 국가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꾸미시었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이끄시여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를 내쫓고 인민의 참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그 길고 역센 역사적부리를 마련하여놓은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에 의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조국광복의 휘황한 앞길이 밝혀졌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후 전국의 위대한 로선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시하신 전국로선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지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

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권, 540페이지)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 분야에 구현한 위대한 로선이다.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체적립강에 튼튼히 서서 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자기 나라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켜야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성과적으로 뚫고 혁명의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시고 자주적인 전권을 세워 정치적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정치에서 자주는 국가가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지도원칙이며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매개 민족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 나라의 정치적지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정권이 있고 나라의 정치적지반이 튼튼할 때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위적혁명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었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정치적자주와 군사적자위의 물질적기초이다. 튼튼한 경제적기초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완전한 정치적자주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며 국방에서의 자위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경제에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도 경제관계를 맺을수 있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인것처럼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지야 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튼튼한 자위적방위력을 가져야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이렇듯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튼튼히 키워 빠른 기간에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주체적혁명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로선이다.

정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은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국가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7페이지)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세시대이다. 지난날 력사함에 서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주적 기반을 높이 들고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고있으며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이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에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

들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다음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는 길이 바로 사회주의의 길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길이다.

자본주의의 길, 외세의존의 길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과 암흑으로 굴러떨어지는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 세기적락후와 빈궁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보람찬 길이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길,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나갈 때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철저히 가셔낼수 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의 번영과 나라의 통성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은 세계혁명승리의 합법칙적과정에 비추어볼 때에도 정당한것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이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사회주의진지를 강화하고 그 힘을 백방으로 증대시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세계혁명의 공동위업에 기여하는 기본방도로 되며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호상간의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력

사적공헌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확한 국가건설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위력한 자위력을 가진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통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에 의하여 완전자주독립국가의 징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가 뚜렷이 밝혀졌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가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가일층 발전공부화되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현당하게 이끄시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적아세아로 불리우던 동방일각에 위백하고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우리 나라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매우 낙후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자체의 민족공업의 토대가 없었고 농촌경리는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속에서 원시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에게는 국가건설의 경험도 없었고 그를 담당할만한 민족간부도 없었다.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암흑통치는 우리 나라를 력사의 후진대렬에 속하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 속에 몰아넣었다.

나라가 해방된후에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은 가로막히고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

들이 겹쌓이게 되었다.

실로 해방직후의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새 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은 온 민족의 관심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초기의 이 준엄한 때에 추호의 동요없이 모든 난국을 주동적으로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 조국 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주적인 정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은 새 사회건설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해결하여야 하였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4페이지)

자주적인 정권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다음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자기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새형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일찌기 조국해방투쟁당시에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새형의 인민정권인 인민혁명정부에 관한 천체적사상을 밝히시였으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인민정권건설의 이 영광스러운 전통에 토대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위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망라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

새형의 혁명정권을 건설하는 투쟁으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였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청산하여 버린 기초우에서 창설된 새형의 민주주의정권이었다. 이 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자주적인 정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의 계속 이행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시고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수립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남북조선의 통일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이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던 시기에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정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자주적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력사에서 처음으로 존엄있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물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진출할수 있게 되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데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혁명수행으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전후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게 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짐으로써 착취와 압박의 근원은 영원히 청산되었으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고 우리 국가의 정치적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또한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질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로동에 의거하여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자립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39~140페이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기초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과거사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밀착도 물려받은것이 없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혹심한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 세기적락후성을 떠고있었으며 그것마저 일제가 패망하여 도망칠 때 모조리 파괴하여버렸

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적기초를 쌓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건국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되었으며 민족의 번영과 융성발전을 위한 사활적요구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적기초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해방직후부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후시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후 빈터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향상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해결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3년 8월에 력사적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이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해본적이 없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빨리 강화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기술장비수준은 다같이 빨리 높아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

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의 혁명적인 길을 밝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이끄심이 있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부강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인 농촌문제해결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이 돌려지게 되고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우리의 농촌경리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체계의 강력한 구성부분으로서 어떠한 침체와 담보도 모르고 날을 따라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그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수행하여야 할 기술혁명의 총직방향으로 규정하시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경제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전설진투가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생산과 건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주의국가의 무력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또한 몸소 전투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자위적혁명무력건설로선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육성하신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시고 그들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키우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은 사회주의하에서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군사로선이다. 이 로선에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 현대전의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위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지켜낼수 있는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혁명무력으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미래의 격화되는 집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로정은 우리 혁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시키기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 잇닿아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나라가 처한 지

리적환경과 력사발전의 특수성,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지난 기간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앞에 나섰던 매우 심각한 문제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각 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있었으며 그것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투쟁하여왔습니다.》(《외국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52페이지)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남의 것을 통채로 삼키며 기계적으로 모방하는데 습관된 완고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매 력사적단계에서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각방으로 반대하였으며 나중에는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고 우리 당과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혁명적책동을 꾸미는데까지 이르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지 않고서는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어느 하나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며 인민대중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확립문제에 가장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이 투쟁을 몸소 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뽑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던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주체확립문제를 더욱 전면적으로 제시하시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

같이 떨쳐나 당의 정당한 로선과 방침을 반대하여나선 종파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고조가 일어났으며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전후시기의 모든 난관과 애로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보다 철저히 관철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차게 이끄시면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94페이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확고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창반적의견을 종합하신데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밝혀주고계신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에로 확신성있게 나가게 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을 사

회주의전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고리로 규정하시고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주체사상교양,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는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전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도 군중로선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전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를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모든 과업들을 또한 전인민적운동으로, 광범한 대중의 힘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예술은 사회주의전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위대한 천리마운동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맡기하신 천리마운동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경제,

문화 전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전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남이 한걸음을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면서 충천한 기세로 사회주의전설의 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서 사회주의전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대전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과 비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전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창조와 전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주성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 당은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

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길과 사람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우리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면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확고한 정치적 자주성을 행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대외활동분야에서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나신 높은 권위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 지지자들을 가지고있으며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들에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를 건설하여놓은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필요한 모든 부문들을 다 갖추고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조화롭게 발전하며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제발로 걸어나가는 힘있는 자립적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에서 필요한 금속, 화학 제품들과 전제품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완비된 중공업으로 되었으며 3대기술혁명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여러가지 대형기계설비들과 특수정밀기계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개별적기계설비들뿐 아니라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지난해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처지에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모든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된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중공업이 또한 빨리 발전하여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고 있다.

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촉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도입됨으로써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하는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농촌해방의 휘황한 빛날아래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은 세계를 휩쓸고있는 흑심한 한랭진진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면서 해마다 대풍작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조식이 생겨난 이래 최고의 수확인 800만 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집령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우리의 경제는 또한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주체가 철저히 선 경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

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한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난 결과 우리는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며 훌륭히 지도관리하고있다. 이와 함께 자체의 튼튼한 원로기지를 꾸려 공업원로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냄으로써 안전한 토대우에서 경제를 끊임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가 완성되어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공업생산이 대대 13.4%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끝내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나라에 건설된 자립경제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놓은 것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하나의 위대한 성과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었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는 더욱 믿음직하게 다져지고있다.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에로의 역사적전변,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한결 같이 바라는 세기적숙망의 빛나는 실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우변이다.

우리 나라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힘있는 사회주의국가

로 전변됨으로써 우리 혁명기지는 더욱 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었다. 우리는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있음으로 하여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통성번영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킴으로써 세계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데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어 그 위력이 날로 장성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은 그만큼 더 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지난날 우리 나라와 같이 뒤떨어진 처지에 있던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불면불휴의 정력적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의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끝없는 통성과 번영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심으로 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쇠사슬에 얽매어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어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던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영원히 억세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조국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있다.

우리는 아직도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전투에 서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서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우리 혁명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킴으로써 완충의 해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새로운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국가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한층 높이며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들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

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주인다운 태도를 깊이 간직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켜야 한다.

나라의 분열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었다.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입니다

오 진 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께서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조국과 인류 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천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 혁명무력 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수행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을 명철하게 분석판단하시고 혁명무력건설문제를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혁명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밀에 참다운 로동계급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주체의 힘에 의거하여 강대하고 포악한 두 제국주의, 일제와 미제의 침략을 무찌르는 혁명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의 혁명군대를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영광에 찬 업적은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력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

하는 위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년대기우에 아로새겨져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다.

혁명무력건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무장력은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85페이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반혁명세력의 반항을 물리치는 치열한 투쟁속에서 발전하며 승리한다.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인류력사는 아직 그 어떤 통치계급도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혁명적군사력을 동원하여 피압박인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류현적으로 탄압하며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은 인민들을 또다시 노예화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무력으로써 반혁명무력을 격파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혁

명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불민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어떤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무력을 창건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위업의 승패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한 혁명무력창건이 이처럼 위대하고 찬란한 일매를 맺을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수행되었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은 오직 자기 계급의 이익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음으로써만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어렵고 복잡한 위업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비판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것을 구현하시여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력사가 체험하지 못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시면서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였던 가장 정확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군사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자위사상과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군사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은 인류해방투쟁력사와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의 군사사상의 역사적인 창시를 의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혁명적군

사사상, 혁명무력건설사상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혁명무력건설사업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기초하여 정확한 길을 따라 곧바로 진전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무력창건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자주성의 원칙에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무력을 조직하는 일은 원수들과 생산결단의 판가리싸움을 벌려야 할 무장조직을 결성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더우기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단계에서 혁명무력건설의 길을 밝혀주는 리론이나 경험을 알지 못하고 민족해방투쟁사상 가장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던 우리 혁명의 역사적조건에서 혁명무력을 조직하는 일은 그야말로 파감한 용단과 창조적인 사색, 독자적인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이 요구되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화불로 험난한 투쟁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혁명무력창건의 거창한 위업을 몸소 한몸에 안으시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건군의 길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것은 무장대오를 어떻게 편성하며 그 핵심적골간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 문제였다.

군대란 무장한 군중조직인것만큼 건군사업에서 기본은 무장력의 기본요소인 사람, 무장대오를 편성하는 일이다.

특히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시기나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이후시기에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하는것은 생소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범한 근로대중이 작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시여 주체적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무장대오를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길을 선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승패는 자체의 혁명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준비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군사선집》, 1권, 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새세대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시여 무장대오의 핵심적골간을 꾸리시였고 엄혹한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무장대오에 묶어세우시였다.

또한 상비적유격대를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간부화된 무장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정규군대의 핵심적골간으로 하고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무장대오를 편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이 길은 무장대오를 민족주체적력량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길이였을뿐 아니라 혁명무력의 계급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갖추어 줄수 있게 한 가장 철저한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의 하나는 민족해방혁명시기 상비적인민유격대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리는 행정에서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고 그에 기초하여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것이다.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시기에 비정규적혁명무력이 창건되고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이후에 정규군대가 조직되는것은 혁명군대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혁명무력건설의 이 합법칙적과정에서

직접적계승관계가 혁명전통에 의하여 옹계 이루어져야 혁명군대가 자체의 깊고도 역센 뿌리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강화발전할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온갖 원썩들이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전통계승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진군위업에서 나시는 중요한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무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할일무장투쟁시기 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 발현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그 어떤 간난신고도 이겨내고 제힘으로 일떠서는 혁명정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 혁명적동지애와 인민적사업작품, 자각적인 군사규율과 혁명적생활질서 등을 계승하여 그 정신으로 새로 창건될 혁명군대를 교양육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기치밑에 상비적혁명무력을 창건하시였고 강도일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던 그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가장 생활력있고 감화력이 큰 혁명적유산들을 손수 마련하시였으며 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정규군대가 고스란히 이어받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정규적혁명무력은 우리 혁명과 혁명무력의 만년초석인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선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군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무력의 조직형태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무력창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군대의 조직형태에 관한 문제는 반혁명무력과의 싸움을 승리적으로 진행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이다.

혁명군대가 혁명발전의 요구와 혁명전쟁, 현대전쟁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형식으로 조직되어야 반혁명무력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존경험이나 기성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동한 현실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무력의 조직형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비적유격대형태로 혁명무력을 창건하신것은 일제침략무력을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끈 중요요인의 하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전쟁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긴 위대한 업적이다.

직업적인 혁명가들로 조직되는 상비적인민유격대는 국가적후방을 가지지 못하고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정규무력과 장기적으로 맞서싸우게 되는 조건에서 자체의 역량을 보존확대하고 적의 역량을 끊임없이 소멸약화시키면서 무장투쟁을 지속성있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혁명무력조직형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과 국가적후방이 없는 조건에서는 유격대형식의 상비무력을 조직하는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지만 주권과 국가적후방이 있는 조건에서는 그를 지체없이 정규화하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밝히시고 해방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상비무력의 조직형태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시는 한편 상비무력에 비상비적민간무력을 결합시켜 전반적혁명무력의 체제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상비무력에 비상비적민간무력을 결합시킬데 대한 건군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무력건설에 구현한것으로서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적군사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주체적인 무력건설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유격근거지의안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반군사조직들을 내오도록 하심으로써 상비무력과 비상비무력을 배합하는 력사적경험을 이룩하시였으며 이 귀중한 혁명무력건설경험에 토대하시여 로동제급이 주권을 잡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현대전쟁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비상비적민간무력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민간무력을 창설하심으로써 우리의 혁명무력은 상비적정규무력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비상비적민간무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일적인 체제를 이루게 되였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자체의 힘으로 물리칠수 있는 자위적군사력으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그 공고발전을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일관하게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

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최고사령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을 어떻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무력을 튼튼히 꾸려 불패의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여야만 제국주의침략자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이 짙어찬 불패의 무장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1 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인민군대를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참다운 혁명의 군대로 되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 주체의 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워 모든 군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무장대오를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꾸릴 때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방침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무력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의 군대,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로 되게 하는 길을 밝힌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사상체제, 주체의 사상체제가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군대로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언제나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군인들을 혁명적조직생활과 군사과업수행의 실천투쟁 속에서 강철의 혁명전사로 단련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여기시고 군대안에 정연한 당적령도체제와 조직정치생활체제를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경험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는 첫시기부터 문화부를 조직하시였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군대안에 전반적으로 당단체와 정치기관들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대안의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조직생활이 강화됨으로써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당원들과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지휘관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투적대오로 꾸리시는 한편 군사사

업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무장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기초우에서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은 혁명무력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사업,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성의 원칙을 확고히 전지하시였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무장투쟁은 매개 나라의 서로 다른 구체적조건에서 진행되며 무장의 위력은 그것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고 군인대중에 의하여 옮겨 비출될 때만이 높이 발양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방침을 제시하시교 모든 군인들이 주체적인 군사학에 기초하여 전투훈련을 벌림으로써 주체진법, 기묘하고 명활한 전술을 습득하고 무쇠같은 체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며 특히 지휘성원들이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일상적인 부대관리수준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당의 군사과학사상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강화하며 각 군종, 병종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도록 깊은 배려를 돌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

를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로 무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전쟁, 현대전쟁의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상비적혁명무력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므로써 나라의 전반적혁명무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를 마련할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만에 이루어진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는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자위적방위체제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방위체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대중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혁명무력강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군인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무력건설의 주인인 군인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단합된 힘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주기관적요구를 정확히 통찰하시교 모범종대창조운동, 붉은기종대운동을 벌리도록 하시므로써 인민군대안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대안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붉은기종대운동과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므로써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뜨거운 동지애, 강철의 규율로 굳게 뭉친 그리고 인민들과 현연적으로 연결된 불패의

대오로, 자위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피주신 3대혁명 불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 밑에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무력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일당백의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힘있는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지난날 자기의 군대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쓰라린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 강대한 혁명무력을 가진 존엄있는 인민으로, 그 누구도 감히 전드릴수 없는 당당한 자주적주권국가의 힘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무력강화를 위한 정확한 방침은 그 내용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과 견인력으로 하여 오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침략자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최고사령관이시다.

로동계급은 타월한 사상과 천재적인 군사지략을 지니고 전쟁의 합법칙성에 맞는 과학적인 군사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것을 능숙히 실현할수 있는 결출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강대하고 포악한 두 제국주의반동세력인 일제와 미제의 침략을 격퇴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수 있는것은 오직 단고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선행한 모든 전쟁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시대 혁명전쟁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군사전략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한 자주적인 해방투쟁, 혁명전쟁 승리의 올바른 길을 밝히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군사전략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군사전략사상이다.

주체의 군사전략사상은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는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에 일관하고있는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준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신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1권, 57페이지)

전쟁은 적들과의 힘의 대결이며 정치사상적우세는 전쟁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

하여 목숨바쳐싸우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군사규율, 인민들과의 혈연적연계와 같은 고상한 기풍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혁명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혁명군대는 바로 이러한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비록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도 얼마든지 싸워이길수 있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전쟁, 현대전쟁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게 하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 어떤 원썬도 타승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고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항상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세로 타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전사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에 한목숨 기꺼이 바칠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전투마당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백절불굴의 투지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군대와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출제 봉쳐 원썬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사전략사상을 구현한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적용하시여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전략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떠한 원썬와도 싸워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능란한 전술을 쓸줄 알아야 하며 전투에서 민활히 동작할줄 알아야 합니다. 군대는 능란한 전술을 써서 적은 힘으로 많은 적을 쳐이길줄 알

아야 합니다.》(《김일성군사선집》, 1권, 332페이지)

전쟁은 적들과의 사상적대결인 동시에 군사 전략전술, 전법의 대결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람, 군인대중으로 하여금 전투행동에서 높은 창발성과 기발한 전술적지혜를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혁명군대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맞게 그 형식과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오직 혁명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혁명적인 군사 전략전술, 전법을 능란하게 적용하여 적을 전략전술적으로 압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작전과 전투들에서 훌륭히 구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은 사람, 군인대중의 높은 사상의식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의거하고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전쟁, 현대전쟁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전법이다.

주체전법은 로동계급의 군사예술사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명군술로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훌륭히 적용하시여 언제나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전쟁시기에 그 어떤 전쟁경험이나 군사교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전법과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술을 능숙히 활용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쥐락펴락하시며 전투의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해보겠다고 《위공작전》, 《요점배치》, 《지구방어》, 《참빛전술》, 《장거리추격전》 등 별의별 전술을 다 쓰면서 달려들었던 일제의 백만대군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전법앞에서는 맥을 주지 못하고 녹아나
고 말았다.

탁월하고 천재적인 유격 전술과 전법
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물리치시고 조
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
해방전쟁시기에도 항일무장투쟁을 승리
예로 이끄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군사행동지대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현대혁명전쟁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군사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훌륭히 적용하시
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
대를 굴복시켜보려고 막대한 병력을 투
입하여 《하기공세》와 《추기공세》, 《신
공세》와 《공중압력작전》 등 수많은 《공
세》와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모두 주
체전법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
하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침략자들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예
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은 그이께서 독
창적으로 창시하신 탁월한 군사전략사
상과 주체전법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업적이다. 그것은 피압박, 피착취 인민
대중을 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침략자
를 반대하는 혁명전쟁, 현대전쟁 승
리의 정확한 길을 밝혀준 세기적인 업
적이며 혁명적군사예술의 정수를 이루
어놓고 로동계급의 군사예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사에 영원히
빛날 전설적영웅》, 《인류가 낳은 천재
적군사전략가》, 《반제투쟁전선의 최고
사령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진정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
의 혁명적기치밀에 역사상 가장 야수직
이고 포악한 두 제국주의침략자를 타승
하시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세계사적
위훈을 세우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만고의 전설적령장이시다.

*

*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령도
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인민이며 군대
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수령님의 령도따
라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
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의 혁명무
력을 창건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영광스러운 로정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인 동시에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구현되어 위대한
결실을 맺은 진정한 인민의 수령,
인민적사령관의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군전
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모두에게
끝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
고 보람찬 혁명대오에서 그것을 빛내여
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교계
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군전사
들에게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은 인류사
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
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
신적자양분으로 하고 가장 존엄있고 권
위있는 주체의 혁명조직에서 가꾸어지
고 빛내여지는 더없이 고귀한 정치적
생명이다.

태양이 있어 세상만물이 빛을 받아
자라나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전사들
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빛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는 다
른 어느 집단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제
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당의 혁명사
상과 혁명리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누
구보다도 견결히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적극적으로야 한다고 뜨거운 정치적신임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더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당중앙위원회를 전격히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혁명의 한길에서 같이 싸울것을 맹세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라는 끝없는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에게 《천금만량》을 안겨주어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보시며 끝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오직 혁명과 인민을 위하시는 한마음으로 항일의 20여성상 조국광복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몸소 헤치시면서 싸우는 전사들을 찾으시고 보살피시던 그 길을 이으시며 오늘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위하여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고 계신다.

한평생을 오직 인민과 혁명전사들을 위해 바쳐오시며 끝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혁명무력의 전력사를 찬란히 수놓아오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예와 행복은 끝이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그이의 한없이 인자하신 성품과 드넓은 도량이 하나로 합쳐 이루어지고 고결한 혁명적

의리로 결합된 가장 숭고한 사랑이며 우리 혁명전사들에게 필승불패의 주체의 신념과 용기를 주고 끝없는 행복과 보람을 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전격히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가 될 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무력의 정치사상 직통일과 도덕의리적인 단결을 전격히 수호함으로써 영원히 수령님의 군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어나갈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전선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혁명적양을 일으키며 당의 군사로선과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5대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혁명 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림 춘 추

1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더욱 가슴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펼쳐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어 그 위용을 찬란히 빛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간 한결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으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여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어간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최성과 시대의 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혁명 사상과 이론을 창시하며 인민들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기전까지 조선혁명은 참으로 곡절많은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헤매고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대중을 떠나서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종파행위만 일삼아왔다.

새로운 혁명직공조에 편승하여 공산주의대렬에 끼여든 소부르조아출세주의자들과 행세식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더러운 장차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분과행위에 매여달림으로써 혁명대오를 사분오열시키고 혁명을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뜨려넣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전개되어왔으나 피의 교훈만을 남겼을뿐 참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혁명을 과연 어느길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조선혁명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막마르게 기다리고있던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전투에 나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모태기던 조선혁명의 앞길에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시고 민족주의운동자물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인민대중이며 자기 문제는 오직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새로운 혁명투쟁의 길, 주체의 길을 밝히시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우리 혁명이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확고히 전진해나가게 한 참다운 길이었으며 파란폭전을 겪던 조선혁명에 활기를 주고 기울어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

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1926년 10월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어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었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으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 혁명조직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로 결성된 혁명조직이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혁명의 전위적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적립장, 주체적로선,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주체의 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조선혁명을 담당수행할 참신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키우시었으며 그들 이끄시어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전군길을 열어나가지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며 민족의 무궁한 통성번영을 이룩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을 쫓던 온갖 악폐를 가시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름으로 높이 우리러모시고 주체의 기치따라 자주의 길로 힘차게 싸워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부름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개척하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하며 전진해올 수 있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부름이며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족해방투쟁이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4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총검밑에 짓밟혔던 조국과 기울어진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무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한 민족해방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확고한 지도적중심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무장투쟁과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정치투쟁이 밀접히 결합되게 되었으며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 전반적조선혁명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류체가 드문 가장 간고하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혁명전쟁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15성상의 오랜 기간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방대한 폭압기구를 가진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상대로 하여 싸웠던만큼 처음부터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혁명전쟁으로서 유격전쟁의 그 어떤 기성 이론과 경험도 없었으며 군사정치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새롭게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가장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실제적인 유격전법

들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항일무장대오와 광범한 혁명군중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한몸으로 헤쳐나가시면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오직 위대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 불요불굴의 투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천재적인 예지와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 의해서만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직전개된 여기에 항일무장투쟁이 종래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다.

종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중주국로동계급의 지원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는것으로 알려졌으며 더구나 일제의 압제밑에서 뜯겨우고 찢겨 빈주먹밖에 없는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무장장비에 있어서나 수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강도 일제를 다스릴수 있다고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해줄수 없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소박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매 발전단계마다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그것을 관철해나가도록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력사적인 카툰회의에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

시였으며 1932년 4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적인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투쟁의 총적임무와 당면과업들을 정확히 결합시키시고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맞게 유격근거지의 창설과 그 공고발전, 군사활동지대의 선정과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그리고 유격대오의 확대강화 등 주체적인 전략전술들을 창조하시고 훌륭히 구현하심으로써 그처럼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언제나 전투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과 새세대의 생신한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여 항일무장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가시였으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워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36년 5월에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의 혁명력량편성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필승불패의것으로 꾸리시으로써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된 혁명대오의 불패의 힘에 의하여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대렬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이었다.

이 역사적교훈을 통절히 느끼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은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었다. 하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것을 민족최대의 영광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었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온갖 충성을 다 바쳐 싸워나갔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일편단심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삼고 싸우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받지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지방침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것을 평생의 혁명임무로 여긴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일쭉들의 질창속에서도 그리고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마지막순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긍지로 하여 가슴 높뛰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불사조와 같이 여세를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옹성같이 뭉친 이 강철같은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은 준엄한 시련과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역웅곡으로 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의 로정인 동시에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로

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귀중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귀중한 밑천이며 그 어떤 폭풍에도 드눌지 않는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수립되었다.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투쟁경험이 이룩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로 힘있게 고무하는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

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며 류레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이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가장 위대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전통으로 되논것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이룩되었으며 거기에는 혁명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 귀중한 경험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 과학적인 혁명 전략과 전술들을 작성하시고 그들 실천에 구현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시였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워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창조된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마련된 이러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영원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비상히 폭넓고 다방면적이며 풍

부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투쟁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하려는 과업에 있어서, 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있어서 혁명운동사상 실로 위대한 혁명투쟁이었다.

항일혁명투쟁은 단순히 일제를 반대하는 군사활동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며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인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성스러운 혁명투쟁과정에 혁명의 근본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매개 혁명전사들의 혁명적수양에 이르기까지의 혁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0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새형의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시고 당사업경험과 혁명정권건설경험, 상비적인 혁명무력건설과 각종 형태의 군사활동경험, 독창적인 대중단체건설과 통일전선운동 경험, 혁명근거지창설과 그 방위 경험, 자주성의 원칙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실현한 경험 등 수많은 귀중한 혁명적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고귀한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이 위대한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이렇듯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혁명업적과 경험들을 담고있는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이와 함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과 곤난을 이겨내며 장기간에 걸쳐 싸우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말할수 없이 어렵고, 시련에 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가 높이 발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항일의 나날 언제나 혁명전사들을 굳게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으며 혁명전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르고 그이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은 더는 해어나올수 없는것으로 생각되는 역경속에서도 일관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켜 곳곳이 싸워나갔으며 강 의한 의지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간고한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갔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된 이 고결한 혁명정신은 사람들을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에로 이끌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당의 혁명전통이 이처럼 위대하고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바로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덕성이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되어있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정신도덕적품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해주신것은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할 업적으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깊고 역센 역사적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뿌리는 우리 혁명이 오직 한줄기, 주체의 현통을 힘차게 이어나가게 하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져도 그리고 간고한 혁명투쟁과 복잡한 정세하에서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없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며 그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수령의 위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과 그 계승의 합법칙성, 혁명전통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원들과 근로

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십시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 나가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데서 필요한 사상과 이론,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 혁명투쟁의 귀중한 경험과 방법들을 생동한 역사적사실, 전형적인 모범에 기초하여 체득시키는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를 더욱 뚜렷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공산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혁명전통을 실천활동에 옹계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정연한 혁명전통교양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심도 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 없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안팎의 원수들

의 온갖 침해로부터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진행하시었다.

혁명의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은 당과 혁명을 반대하는데서 언제나 혁명전통을 거세하고 말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그들은 혁명을 포기하는 저들의 반혁명적립장을 가리우기 위하여 혁명의 역사적뿌리이며 혁명승리의 귀중한 밑천인 혁명전통을 헐뜯으며 혁명전통을 오가잡당과 뒤섞으려는 비렬한 책동을 감행한다.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수정주의, 종파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고 당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통을 헐뜯고 그 계승발전을 거부하는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혁명전통을 반대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종파분자들이 끼친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외원수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튼튼히 지켜내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나간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혁명적로정은 항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온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영광의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기에 해방후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적위업을 지체없이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었으며 여러 단계에 건치는 거창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이 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전후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백들 한장 없는 폐허우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일떠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려는 당원들의 열의도 높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면 지난날 혁명선열들이 어떻게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는가를 회상하고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오늘 모든 당원들은 괴로써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한 항일빨찌산들의 사상과 작풍과 도덕적 풍모를 거울삼아 자기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10~511페이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우리의 혁명태도가 불패의 전투태도로 더욱 튼튼히 꾸러지게 되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 주체의 사상체제가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끝없이 높아졌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그리했던것처럼 실제 어디에서나 오직 찬마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가슴을 타우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충성을 다해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식구호밑에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충성을 다 바치나가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생활양식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진환이 일어난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이 당우에 더욱 찬란히 꽃피고 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제가 튼튼히 서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게 되었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진전하는 불패의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싸우는 남조선혁명가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투쟁과 승리

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커다란 전인력을 가지고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하여 《이러한 고귀한 혁명전통은 전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귀한 혁명전통이 자기들에게 끝없이 귀중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그 보편적 진리로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혁명의 횃불로, 힘의 원천으로 되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와 위대한 승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떠나서 승리와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과거에 대해서 말할수 없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을 떠나서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보람찬 오늘과 보다 위창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자랑스런 업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고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오직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

시켜나갈 때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를 달려온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하신 항일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는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를 거쳐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인 진군길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역사적진군,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입장과 결심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백전백승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의 깊고도 억센 역사적뿌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더욱 출기차게 이어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다

양 형 섭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민족의 역사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없는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반제민족해방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가장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적재부를 창조하시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인류사상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불멸의 진리로, 혁명적신념으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류해방위업을 승리로 향도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빛나는 투쟁로정은 그이께서 가장 심원

하고도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밝히시고 불면불휴의 창조적탐구와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신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의 력사이며 가장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완성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를 창조하시며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혁명적결의로 충만되어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변혁과 창조의 과정인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전략전술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며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사상,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들 깊이 통찰하고 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창시하고 완성함으로써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온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역사적시대와 조선혁명이 제기하는 과제들을 한몸에 지니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전일적으로 체제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는 전세계적범위에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승리하여온 혁명적사변들로 충만된 역사적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파키스탄회교 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15페이지)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이다.

그 전시기와는 비할바없이 폭넓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생활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문제로 나섰다.

새로운 혁명실천은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의 혁명직개조에서 커다란 변혁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감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주는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의 창시를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은 그 첫날부터 새로운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요구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리 인민은 반일의 구호를 들고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운동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과 떨어져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였으며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만 쳐다보면서 심한 과열싸움에만 몰두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옳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한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수난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었다.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진통을 겪으며 모태기던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와 옳은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해서만 밝은 앞길을 개척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 혁명은 또한 식민지예속과 봉건적착취관계로 복잡하게 엉켜져있는 사회적모순을 해결하며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그리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이였다. 우리에게서는 이미 마련된 처방이나 세력을단한 경험도 없었다.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이 요구하는 이력사적과업은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창조적사색을 지니시고 주체적인 안목으로 세계를 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이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역사적과제를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주체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은 무엇보다도 근로대중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시고 끌어나가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그속에서 혁명의 객관적요구를 예리하게 포착하시며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리익에 맞게 끌어나가지신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상리론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대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것을 세심히 알아보시며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시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신다.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 지향을 철저히 반영하는것은 사상과 리론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는 언제나 시대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가 반영되어있다. 력사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새것을 지향하며 모든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대표한다. 그들은 자주성을 옹호 실현할것을 요구하며 새것의 승리를 열망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지향하고 념원하는것은 언제나 정당하며 객관적진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를 이어 나라

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자라시면서 어리실적부터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의 고통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의 민족적 비운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통절히 체험하시였으며 나라와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가장 귀중하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참다운 혁명의 길이라는 불멸의 진리를 발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불멸의 진리를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으며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구현하시여 자주성에 관한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상리론활동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시고 실천투쟁속에서 새로운 혁명리론을 창시하여나가지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리론은 그 어느 것이나 다 혁명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 리론은 우리의 구체적인 혁명 실천과 결합되어야만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실천은 반드시 혁명 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131페이지)

혁명실천은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의 기초이며 그 진리성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실천에 확고히 의거하고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리론의 생명력과 과학성을 보장하며 모든

혁명리론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혁명적 개조의 힘있는 무기로 되기 위한 근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조선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며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검증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하시켜나간다. 그이께서는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들끓는 실천투쟁속에서 고귀한 진리를 포착하시고 대중의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혁명의 리론을 창시하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리론들은 다 류체없이 험난하고 복잡하였던 항일혁명투쟁과정과 해방후 새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행정에서 창시되고 그 진리성이 검증된 불멸의 혁명적학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들을 무르익히시고 몸소 작성하시였으며 일제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주체적인 유격 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적방침들,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위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놓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실천적 요구를 통찰하시고 작성하신것이며 고귀한 투쟁경험을 천재적으로 일반화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제와 3대기술혁명 등 혁명과 건설에 관한 모든 리론들과 방침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시여 내놓으신것이며 전국 방방곡곡의 도시와 농

촌을 찾으시여 진행하신 현지지도행정에서 발견하시고 무르익히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혁명리론과 방침들은 그것이 제시되자 곧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리론들은 공허한 추리에서 나온 리론들과는 달리 혁명실천의 역사적경험,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나온 산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주체의 철학적 원리와 방법론에 기초하시여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것을 사상리론활동의 철칙으로 삼고제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사상리론활동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 사상리론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리론활동에서 새로운 철학적 원리와 방법론에 확고히 의거하시여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물현상과 과정들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전일적인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문제를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혁명의 리익

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새롭게 해결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사대주의적태도와 틀에 박힌 교조주의적사고방식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것을 사상리론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집필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발표하신 역사적로작들과 모든 사상리론적업적들은 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비로소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 원리와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게 되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사상과 리론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은 또 한 비상히 폭넓고 풍부하며 심오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은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모든 활동에 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행정에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당의 역사적 문헌들을 비롯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들을 창조하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인류사상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에는 혁명의 모든 단계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과학, 교육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 국가 및 근로단체 건설, 주권을 잡기전의 혁명투쟁과 주권을 잡은 다음의 혁명투쟁, 비합법적투쟁과 합법적투쟁, 각종 대중운동, 유격전과 현대전쟁, 국

제생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분열된 나라들에서의 혁명문제 등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수령님의 창조적사색과 심려가 미치는 모든곳에서는 새로운 사상리론문제들이 천재적으로 해명된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로, 백과전서적인 혁명 사상과 리론의 창시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의 근저에는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통찰력,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창조적사색과 독창성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시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심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독창적인 사색과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시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시고계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를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며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인류사상사발전에 세계사적공헌을 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이지)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어떤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의 과학성과 진리성, 혁명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새롭고 완성된 이해를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우선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람은 세계의 모든것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자주직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가장 심오히 해명해주고있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외부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창조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밝히심으로써 비로소 현실세계의 가장 보편적이며 기초적인 관계를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로 보고 세계를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일체로, 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조되는 대상으로 보는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 관점과 견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과학적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가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들에게 투쟁의 지침을 주는 혁명적인 참다운 세계관의 창시를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의하여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기본으로 하여 세계를 보며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인류의 철학적사유의 위대한 진취물이며 우리 시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의 근본문제, 출발적문제를 새롭게 해명해준 위대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우와 같은 책, 7페이지)

세계관의 기본사명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견해를 주며 그들에게 세계를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적무기를 안겨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

제관의 기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를 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며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견해를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까닭에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에게 복무해야 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사람을 위주로, 근로대중의 이익을 척도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평가하는 관점과 태도로서 객관세계의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세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이해를 준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개조변혁되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이 높아질수록 현실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이며 더욱 촉진된다. 인류역사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끊임없이 개조되고 인간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이해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면모를 고찰하며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해석하는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줄뿐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그 철학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물현상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보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시킬것을 요구함으로써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찾을수 있게 하며

인식개조활동에서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의 원칙적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며 사회발전의 근본 동인과 방향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간직하게 하며 자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혁명적 신심과 신념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밀쳐나설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이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립장과 방법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기때문에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과 노동계급

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다.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모든것을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경쟁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사람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근본방법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식과 실천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었으며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하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다.》(《김일성저작전집》, 제4권, 제2판, 22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견지해야 할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이 지도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에서 온갖 불평등과 예측을 없애고 공산주의운동의 종국적목적인 인류해방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사람들속에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기 신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의 지도원칙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정치에서 자주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대내외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정치적지도원칙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나라의 경제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 축성의 내용과 방향, 방도를 밝혀주는 경제건설의 지도원칙으로서 그것은 정치적자주와 군사적자위를 위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제국주의와 맞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의 지도원칙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매개 나라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실로 불멸의 주체사상은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사론적내용과 그 혁명적성격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백전백

승의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인륜사상사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70페이지)

주체의 혁명리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다. 그리고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진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때 대한 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체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무엇보다도 혁명의 본질과 성격, 혁명의 동인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 등 사회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혁명의 본질과 성격, 그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또한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 나선 때로부터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할 때까지의 전력사적기간에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8페이지)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업무와 성격,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류형의 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요 이 혁명의 성격을 반제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으로써 민족식민지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을 더욱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투쟁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고 유격전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들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혁명력량편성을 위한 구체적 방침과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혁명리론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

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 발전되게 되는 객관적합법칙성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할지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결실히 요구하며 또한 그것을 말아할만한 혁명리량이 준비되었을 때에는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선진적생산관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공업화와 기술개조를 빨리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와 형태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개조를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와 혁명적로정,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밝히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과업들을 친제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시고 이 두 요새 점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투쟁목표로 규정하시였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밝혀준 과학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에 기초하시

여 3대혁명에 관한 리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리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리론 등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주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뒤희한 길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리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리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리론을 담고있으며 독재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키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견지하며 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전략전술적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특히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혁명적로정과 공산주의사회의 사회관계와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와 활동방식까지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통일문제를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 규정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과 구체적인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반제반미

투쟁전략, 자주성에 기초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체계정연한 이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혁명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져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교육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적인 투쟁 전략과 방침이 주어져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보편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발전완성되게 되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된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리론적총화인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인류의 해방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 사상이며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혁명의 방법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이 혁명과 건설의 올바른 지도사상으로 되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줄 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전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야 하며 근로대중의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제시된다 하여도 그 실현에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묘술과 방법론이 서지 않으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방법론은 근로대중의 주인된 자각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가장 올바른 방도를 제시해준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임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런데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된 자각과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적극성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양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에 대한 올바른 혁명적령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정연한 령도체제를 세우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아야 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직된 전위부대인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당이 혁명의 지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의 최고비수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보장되어야 당과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사상의지적단결과 행동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 힘차게 일떠세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의 유열작업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요구로 나서며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역할을 높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혁명의 방법론은 혁명적령도방법을 그 필수적구성부분으로 삼고있다.

혁명적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고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발휘케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방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은 지도와 대중, 당과 군중과의 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혁명적령도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군중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8페이지)

혁명적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전취하며 그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조직동원하는 대중령도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을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

저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며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오늘의 변천된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시여 대중지도방법의 본보기로 되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대중령도의 위력한 방법이다.

혁명의 방법론은 이처럼 혁명투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부터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위력한 혁명의 방법론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적세계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완성된 혁명적학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는 불멸의 혁명적학설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며 조선혁명의 완성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 해방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혁명 사상과 이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셔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수행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숭고한 위업이며 그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드물지 않는 세계판으로 만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합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빛나게 완수해나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입니다

서 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온 겨레의 전진한 념원과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길같은 소원을 담아 아버지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영생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김쌍인 난판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위에 끝없는 융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행복은 진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정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실뿐 아니라 세련된 령도로 현대력사를 찬란히

수놓아가시는 탁월한 령도예술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은 비상이 폭넓고 다방면적인것으로 하여 모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위대한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참된 길이 있다.

1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 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것은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전개력,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요구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령도예술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위대한 사상과 함께 탁월한 령도예술이 보장될 때만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지도적지침이라면 탁월한 령도예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실천활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에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

를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이지)

혁명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의하여 나아가갈 방향이 밝혀진 다음에도 세련된 령도예술이 보장되어야 사나운 풍랑을 헤치고 우여곡절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대중에 대한 령도는 혁명적 개조와 변혁이 심각하면 할수록,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력사상 가장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하나의 목표실현으로 이끌어나가는 고도의 과학성과 원숙성을 가진 탁월한 령도예술에 의해서만이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다.

국제혁명운동이 전진해오는 행정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와 찬란한 승리들에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안반침되어 있다.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우리 혁명은 제국주의강적을 대상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겪어야 하였으며 나라가 분열된 어려운 처지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작은 나라 인민의 힘으로 세계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뒤밀어졌던 식민지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자광찬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승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장 과학적이며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던

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당과 인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이 풍만한 결실을 안아온 빛나는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시는 행정에서 대중령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 참다운 령도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예술은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철저한 혁명적 관념과 입장에 기초하고있는 령도예술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 주체의 령도예술이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령도예술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예술은 여러 단계의 각이한 혁명투쟁을 이끄시는 행정에서 창조되고 그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민주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 단계의 혁명을 승리로 조지령도하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깨우쳐주고 묶어세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옹바로 풀어나가는 참다운 령도예술을 창조하시였다.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을 정확히 이끌어 나가는 비상히 폭넓고 다방면적인 백과전서적령도예술이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의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주체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창시, 이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인류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세계사적공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혁명적령도예술의 귀감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면서 언제나 주체적인 입장에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맞는 옹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탁월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제시하는것은 대중령도의 선결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인민대중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행동의 지침이다. 인민대중은 정확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가질 때 혁명투쟁의 뚜렷한 목표와 옹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떨쳐나설수

있다.

그러므로 옹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키는 대중령도의 출발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옹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혁명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확고한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에게만 의존하는것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모방하는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며 어디까지나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원칙성과 일관성이 확고히 보장되어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편향없이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다그쳐올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새로운 유형의 혁명으로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변혁을 이룩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위대한 기적과

찬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고있는것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가장 과학적인 로선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주객관적조건,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제때에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의를 혁명투쟁에 힘있게 불리일으키신다.

일제의 파쇼적폭압밑에 온 나라가 피바다에 잠기고 인민들의 비분이 절정에 이르러 혁명의 화약고에 불을 다는것이 되는 미룰수 없는 요구로 나섰던 바로 그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여 온 기세를 일제를 반대하는 성전으로 굳게 묶어세우시었다.

일제의 학정밑에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고 모든것을 원쑤들에게 빼앗겨 빈주먹밖에 없었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폭압에 항거하여나시고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국동적진출에서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제때에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심으로써 투쟁의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반일의 기치, 조국광복의 기치 아래 힘차게 밀쳐나서 마침내 일제를 패망시키고 민족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해방직후 것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가 제때에 수습되고 우리 혁명이 올바른 길로 나아간수 있는것도 바로 인민대중의 요구를 옹गे 반영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불패의 생활력을 그대로 보

여준다.

해방을 맞이한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높았고 인민대중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간망하였으나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어중이떠중이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느니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정세를 혼란시켰으며 인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광범한 대중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로 힘차게 불리일으키시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의 혼란된 정세는 제때에 가시치고 새 사회, 새 조국 건설의 힘찬 전군이 시작될수 있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적민주기지로 튼튼히 다지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백년동안 걸려서 한 공업화의 과업을 14년의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투쟁의 진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다 혁명의 성숙된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옹गे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제시되자마자 곧 대중자신의것으로 파악되어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진면되었으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는 천리혜안의 과학적예견성으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로 이끌어 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들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구현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안광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당면목적과 함께 중국적목적을 뚜렷이 밝혀주시어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을 실현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 나아갈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었다.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선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을 어떻게 추진시키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가 남조선에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 복잡성을 띠게 되며 일정한 시기까지 남북이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이미 해방된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 북반부를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기지로 꾸릴데 대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제2차대전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지어 미제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있던 시기에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미제의 침략적야망과 조성된 정세, 우리 혁명의 만전전망을 예리하게 꿰어보시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

써 조국이 랑단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주지없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천리혜안의 과학적예견성으로 먼 장래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가장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수행하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 일반적인 방향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줌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온갖 적극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로선으로부터 당과 국가, 근로단체, 무력 건설 그리고 공업과 농업, 과학과 교육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분의 사업에서 나서는 일반적원칙뿐만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와 활동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장구한 혁명투쟁로정을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로 아로새겨왔으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링마루에 올라서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에

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결코 순조롭게만 전진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국제로동계급의 혁명력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혁명의 길에서는 험난한 가시덤불과 사나운 풍랑도 맞닥뜨리게 된다. 오직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길에 가로놓여있는 무수한 난관과 준임한 시련을 이겨나갈 때만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단 정책을 세운 다음에는 그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당은 이로부터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불굴의 강인성을 가지고 내세운 정책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강의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시고 모든것을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끌어다가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신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인민의 위험을 마다하지않으시고 반일부대와 의 공동전선을 실현하시여 참다운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원칙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진로정에서 언제나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으로 혁명의 리익을 확고히 고수해오시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전후시기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이 추호도 동요없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올수 있는것은 강

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련속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오직 한순간도 멈춰섬이 없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해나갈 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다음단계의 사업을 준비하시며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상한 혁명적전진력으로 우리 인민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새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지판간을 육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으며 해방직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사회주의혁명의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도 벌써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짜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조직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리해안의 과학적예견성으로 대중을 6개년 계획고지도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끄시면서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편취주시여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안기주시였으며 그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힘있게 불리일으켜나가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시고 거기에 리량을 집중하시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나서는 혁명과업들은 하나의 련쇄를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작용하면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른 고리들의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중심고리를 옮겨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넣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대중의 힘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기된 혁명과업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제때에 중심고리를 찾아내시고 그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 앞에 나선 전반적인 과업을 다같이 능숙하게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반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신다.

오늘 온 나라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내려져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청산리에서 창조하신 모범이 일반화되어 맺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제와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나라일에 이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청산리에 나가시여 혁명적사업방법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훌륭한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청산리에서 몸소 창조하신 위대한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청산리가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당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거대한 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 과 숙천군에서 창조하신 모범이 일반화되어 이룩된 빛나는 연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르는곳마다에서 전형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일반화하시여 하나의 모범이 수천수만의 모범을 낳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이 일어나게 하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은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없이 우리 혁명이 언제나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광범한 대중적운동을 통하여 풀어나가시는 혁명적령도에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이 성과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광범한 대중을 어떻게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대중운동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투쟁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중요

한 수단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운동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5페이지)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내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 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할 때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시여 전군중적운동으로 끌어내가신다.

우리 나라에서 자연을 변혁하고 사람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창하고 어려운 사업은 모두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운동을 비롯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며 치산치수를 하는 등 경제건설사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서야 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몇해안에 해제

끼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선 지방산업공장들과 그물처럼 뒤덮인 판매수로, 도시와 농촌들에 준비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 그리고 세상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주체의 예술, 이 모든것은 전인민적운동으로 대중을 발동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이 가져온 자랑스런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제적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맞는 대중운동형태를 발견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이끌어내가신다.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할 과업이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에서 민주주의자, 주독립국가건설의 기본열쇠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데서 찾으시고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운동인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은 새 조국 건설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된 전군중적애국운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나라에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정신도덕생활에서 일체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급속히 가시고 광범한 대중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전군길로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여 온 자랑스런 력사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거

대한 위력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들어선 시기 안팎의 정세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밖으로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번들으며 안으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나섰고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참으로 이 복잡한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아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와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의 힘을 천백배로 불러 일으키시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시였으며 몸소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피주심으로써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일대 양항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와 자랑찬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이야말로 인민대중의 혁명지연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극대함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튼튼히 들어쥐고나아가야 할 가장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시여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받기하시고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으로써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달리온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를 늦추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로 이끌어나가신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이 거세찬 전인민적대

진군운동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혁명사업은 더욱더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받기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대중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과 인간개조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것을 다같이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대중운동은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뿐아니라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대중운동을 벌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품모가 물라보게 단라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운동은 그처럼 위력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운동의 독창성이 있으며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의 지나간 세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을 이끄시면서 현지도의 빛나는 모범을 일관하게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도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지녀야 할 령도방법과 령도품모가 집대성되어있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군중과 같이 살고 그

들과 같이 싸워야 하며 군중과 같이 숨쉬면서 현실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군중의 힘을 찾아낼수 있고 현실을 깊이 료해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을 옹계 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질수 있습니다. 군중속에 들어가고 현실에 접근하여야만 모든 문제를 제때에 알수 있으며 또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지작선집〉, 제3권, 제2판, 26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언제나 인민대중이 살고 일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벌어지고있는 현지에서 대중을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도도를 통하여 수령과 인민대중의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결합, 수령과 대중의 현연적관계의 귀감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을 무한히 신뢰하시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며 그들의 힘을 백배, 천배로 불러일으키시여 모든 혁명과업을 훌륭히 풀어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속에서 대중과 상론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며 그것을 다시금 대중속에 깊이 해설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워나가신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광범한 대중의 지향과 리익, 혁명의 성숙된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그것은 제시되자마자 대중자신의 것으로 접수되어 거대한 힘을 나타내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찾으시여 걸으시는 현지도도의 길은 곧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시고 혁명의 요구를 분석총화하시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과 농촌을

현지도하시는데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도 넓으신 안광으로 주의깊게 보시며 로동자, 농민들의 소박한 말속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생활의 요구를 알아내시여 제때에 올바른 대책과 방도를 세워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대중과 함께 계심으로 하여 대중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확고히 보장하시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해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현지도방법은 이렇듯 수령님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의지로 편결되게 하고 대중속에서 당의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게 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힘있는 령도방법이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 현지도방법의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지녀야 할 인민적품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에 내려가시면 로동자, 농민들의 가정과 합숙, 식당과 상점부터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쫓아 보살펴주시며 그들과 사소한 간격도 두지 않고 나라일을 허물없이 의논하시며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와 대책을 세워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적성품으로 하여 인민들은 수령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언제나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 혁

명이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와 더불어 시작된 현지도도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의 전로정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초기혁명활동시기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농민대중을 찾으시여 그들을 깨우치시고 조직에 묶어세우시면서 현지도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행정에서 유격근거지대의 혁명조직들과 인민들 그리고 대원들이 생활하는 련대와 중대, 멀리 후방병원과 출판소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투쟁과 승리로 고무하시였다.

력사적인 강선로동계급에 대한 현지도도로부터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30여년간 공장과 농촌으로 현지도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전두에서 이끄시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창조와 혁신,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통성과 번영의 새 역사를 아로새겨나가시였다.

우리의 대야금기치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로부터 이튿없는 광산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파도사나운 포구와 가파로운 두메산골의 그 어디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자욱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공장과 학교의 터전으로부터 인민들의 부엌살림과 지어 아이들의 놀이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에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란 없다.

최근년간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도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지원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낮에 밤을 이으시여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몸소 농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가 달라붙어 농촌을 지원하고 주체농법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도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년의 자랑찬 열매를 안아올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조선이 생긴 이래 처음보는 대풍을 이룩하게 되었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만년대계의 설계도를 짚어가시며 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의 나날들은 실로 우리 인민에게 무적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안겨주시고 우리 인민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이끌어오신 영광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수백수천만리의 현지도도의 길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광의 길이며 바로 이 길우에서 우리 나라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방법은 실로 대중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령도풍모가 집대성되어있는 가장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이론과 실천을 완벽하게 겸비하시고 한평생을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현지도도의 거룩한 자욱을 이어가시면서 창조와 변혁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빛내여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탁월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독창적인 령도예술은 반세기 전에 건치는 우리 혁명의 실천적행정에서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령도예술이며 인민의 수령이

지녀야 할 참다운 령도예술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에 끝없이 감탄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을 승리와 행복에로 이끄시는 세계의 위대한 영웅》,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힌 위대한 태양》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찬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참으로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것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의 천재이실뿐아니라 령도의 천재이시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령도예술은 오직 그이의 존귀하신 성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위대한 령도예술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은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었으며 그것은 토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언제나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

*

조선혁명이 걸어온 반세기의 역사적으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예술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자랑스러운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의 위대한 결실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완성된 령도예술을 완전무결하게 검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개척하시고 빛내이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탁월한 령도예술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크나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나라의 존엄과 위력,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보다 휘황찬란한 태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 것처럼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만이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귀중한 총화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의지,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며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혁명적락관과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으며 앞날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 바쳐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전 문 섭

•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으면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실천가이실뿐아니라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구하고 피어린 투쟁로정에서 언제나 인민들에게 더없이 따스롭고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보람찬 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인 동시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수놓아진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그 숭고한 높이, 더없이 큰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대를 두고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고매한 공

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 령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위에 천지개벽의 역사를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덕성, 그것은 인민대중을 참담게 사랑하고 뜨겁게 포옹하는 가장 고결한 덕성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인민적품성의 위대한 전형으로, 귀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임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

을 위한 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이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함에 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의 지위와 가치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한다. 이 불멸의 사상에는 또한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흘러넘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모든것을 바치려는 숭고한 혁명적 관점과 입장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고의 높이에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차넘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모든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기에 그이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덕성은 비할바없이 가장 숭고하며 위대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며 모든 문제를 그들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신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감피감피에는 우리 인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와 사랑이 그대로 깃들여있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가장 숭고한 인민적성품의 최고표현이며 그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세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인 가정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장기간의 피어린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고화되고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었다.

대대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은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덕성이 움트고 자라날수 있는 터전이었다.

만경대의 혁명적가정은 조선인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의 슬기, 근로인민대중이 간직하고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민적성품을 그대로 체현한 가정이다.

가장 소박하고 평범하며 덕망이 높았던 만경대의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참답고 고결한 인민적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으시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성품을 지니시고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자제분들을 키우시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조선의 어머니로서 무한히 인자한 인품을 지니시고 가정과 이웃간에 화목을 이룩하시였으며 언제나 천대와 교역에 시달리는 인민들을 위하여 몸바치싸우시는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시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근로대중이 지니고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민적성품을 한몸에 체현하신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의 한없이 고결한 정신도덕적품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덕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벌써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도량이 넓으시고 인품이

높으시였으며 뛰어나고 활달하고 웅심 깊은 성품 등 인민의 지도자의 탁월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대의 거치른 사회에서의 심각한 체험, 초기혁명 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대중이 겪는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그 누구보다 통절히 느끼시였으며 짓밟힌 인민대중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싸우시려는 숭엄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평도하시면서 소박한 근로인민대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며 그들에게 의거하여 투쟁할 때 승리하지 못할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였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의 감정을 굳게 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덕성은 특히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으며 그 감화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반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는 류데없이 간고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예술과 전법뿐아니라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힘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은 항일혁명대오를 백전백승의 힘을 가진 철의 대오로 굳게 묶어세우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게 한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덕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과학적세계관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위대한 혁명적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가장 간고하고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공고발전한것으로 하여 비할바없이 숭고하며 위대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오늘 혁명과 건설의 벽찬 투쟁에서 인민대중에게 무비의 힘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고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워주신 은인이시며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수놓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예측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가장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시고 투쟁하여오시였다. 이 숭고한 목적에는 인민대중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구현되어있다.

사람이 온갖 착취와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참된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세워주시고 근로인민을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쥐지 못한탓으로 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고 나라의 재부를 만들어내면서도 온갖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왔다.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은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낯설은 이국만리로 흩어져갔고 상가집계만도 못한 망국노의 처지를 통탄하면서 피눈물로 살아야 했다.

자기의 정권을 가지고 가장 존엄있게 살아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뿌리박힌 세기적인 념원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일제침략자들을 소탕하고 마침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버림받던 노동자, 농민들이 더 많이 인민의 대표로 각급 주권기관에 선출되어 주권을 행사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경제를 관리하고 문화를 건설해나가는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어제날의 막로동자와 머슴꾼, 그들의 아들딸들이 당 및 국가, 경제, 문화기관의 유능한 일군으로,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가로 자라났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주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존엄과 삶의 보람을 누리도록 살뜰히 보살피주신다.

정치적생명, 그것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값높고 귀중하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정치적으로 버림받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계급의 눈을 띄워주시고 혁명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으며 그들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위력한 근로단체들의 성원으로 키워주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그이께서 마련하신 혁명조직들의 성원으로 되는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는것이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삶의 참다운 보람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르며 생명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을뿐 아니라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와 같이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 해주시려고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오 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 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 그것은 우리 인민을 남보다 더 잘먹이고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휴식도 주무심도 잊으시고 모든 사색과 정력을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 바치시면서 나라의 자연부인과 재부가 오직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우리 당이 실현한 도지혁명과 중요산업국유화, 농업협동화와 사회주의공업화는다 근로인민이 착취와 착취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교배한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거연히 일떠선 그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만년대제의 기념비적전설물들, 조밀한 관개망과 기름진 전야, 백과주렁진 과일동산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아무런 근심걱정과 불만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범한 우리 근로자들의 가정을 몸소 찾으시여 불이 잘 드는가,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오는가, 방이 좁지 않은가 등 친부모도 미치지 못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일일이 알아보시고 그들

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다 풀어주시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력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인민적인 시책, 공산주의적시책들을 베풀어주시었다. 세금제도의 폐지, 어린이보육교양제도, 11년제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정휴양제 등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적시책들에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뜨거운 은정이 흘러넘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을 문화생활분야에서도 그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이 당우에 《세계최고봉의 예술》, 주체적인 문학과 예술이 전면적으로 활짝 꽃피어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그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극진한 배려와 사랑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주시려는 그 깊은 심려에도 그대로 남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종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에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벗어나게 하시려는 숭고한 아버지사랑과 배려가 력력히 깃들어있다. 이 숭고한 사랑, 높은 은덕으로 하여 지하막장과 고일로앞에서 힘들게 일 하던 우리 로동자들이 원각조종체제와 산업엘레비존을 도입하여 험하고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오랜 세월 고된 로동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꽃피워나갈수 있도록 그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 기량과 소질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므로써 그들을 세계에 이름떨치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체육가로 키워주고계신다.

참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 파묻혀있던 인민들의 모든 재능과 지혜, 참다운 개성적풍모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없이 넓은 포용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끝까지 혁명의 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몇 사람만 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서 그들 끼리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중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새 생활을 건설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1965년판, 523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에 리해판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나.

인민대중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포용력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혁명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기려는 숭고한 사랑이 흘러넘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걸어온 과거보다도 그들의 장래운명과 진도를 더 넘려하시며 혁명의 리익이라는 높은 전지에서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모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품, 사회주의의 품에 안아주시였으며 그들이 끝까지 혁명의 길에서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시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만나시여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는 인테리들을 다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월남자가족들을 만나시여서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 꾸리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며 남반부출신일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반부에 나가서 군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크나큰 민음을 안기주시고 귀국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고 하시며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한결같이 고귀한 사랑, 두터운 신임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렇게 대대같은 넓으신 품으로 우리 인민을 따듯이 포용해주심으로 하여 그 누구의 얼굴에도 그늘진데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혁명적리관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통성변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속에서 짓밟히우고 뜰기우는 남조선인민들과 원수들의 철창속에서 신음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광명한 빛을 안기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실 때에는 물론 하나의 공장을 짓고 생산지표를 설정하실 때에도 통일된 조국의 태일을 생각하시여 그들의 몫까지 헤아려주시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갇은 모욕과 학대, 부권리와 굶주림에 시달리오던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모든 해외동포들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을 따듯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못잊어하는 어버이집정 그대로 제일동포들의 신상을 걱정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실로 분별의 장벽이 가로막고있는 남녘땅에도 바다 건너 먼 이국땅에도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을 비쳐주시며 겨레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정이 차넘치고 민족의 혈맥이 세차게 흐르도록 하여주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렇듯 고매한 인품과 넓은 포용력은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모든 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슬기를 안겨주며 남녘형제들과 해외동포들에게는 참된 삶과 민족의 존엄을 안겨주고 그들모두를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온 세상 만물을 따듯이 덥혀주는 해빛보다 더 따사로운 한없이 은혜로운 품이며 모든 인민들을 끝까지 혁명의 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는 영원한 사랑의 품이다.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을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는 길고 뜨거운 사랑이며 모든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주는 한없이 넓고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한 인민적성품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인민들속에서 나오시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한히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성품을 지니고계신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수령님께서 지니신 겸손하시고 소탈하신 성품에 대하여 탄복하여마지않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민을 언제나 허물없이 소탈하게 대해주신다.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에 가시면 노동자들의 기쁨물은 손을 허물없이 잡으시고 나이는 몇살인가, 가족은 몇인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 몸은 건강한가를 다정히 알아보시며 협동농장을 찾으시여서는 농민들과 온돌방에 마주앉으시여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그들의 소박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이처럼 인민들을 다정하고 소탈하게 대하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사람들은 그이의 앞에서 스스로없이 자기의 생각을 죄다 털어놓으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외람된 청을 드리기까지 하는것이다.

무한히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과 꼭같이 겸박하게 지내시는것을 즐기신다. 수령님께서서는 산골에 가시면 산촌인심 그대로의 소박한 대접에 만족하시며 그 어디에 가시나 그 고장사람들의 꾸밈없는 생활풍습을 즐기신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하신 품성은 인민적품성의 가장 빛나는 전형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처럼 겸손하고 소박하신 성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언제나 가슴속에 뜨겁게 되새기면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혁명투쟁로정을 혁명전사들에 대한 동지적 사랑과 배려로 수놓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는 위대한 정도자의 고매한 덕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토동계급의 수령은 올바른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벌어나가기 위하여 뜻과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혁명전사들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운다.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대오안에서 수령은 대오의 매개 성원들을 자신의 혈육처럼 따듯이 사랑하고 보살피며 매 혁명전사들은 수령을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우러러받들면서 끝없이 따르고 충성을 다한다.

바로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이러한 진실한 혁명적동지관계에 의해서만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이룩될수 있으며 부다치는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투쟁의 기나긴 로정을 헤쳐오시면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었다.

《인간관계에서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하다는것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50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동지애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숭고한것으로 보시고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그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변함없이 지녀오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은 가장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사이에 굵을래야

굵을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결합을 이룩한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찍이 초기혁명활동시기 원수들의 탄압선봉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환경에서 참다운 혁명동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통절히 느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보통때에는 《애국자》로, 《지사》로 자처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일단 정세가 험악해지자 자신의 한몸만을 돌보면서 지난날의 인정과 의리마저 저버리는것을 목격하시였으며 그때마다 참다운 혁명동지의 귀중함을 절실히 체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참다운 혁명적동지관계는 한갓 인정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의해서만 굳게 맺어질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신의 고비를 넘으시며 혁명동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그들을 조선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떠메고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물간으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류테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언제나 혁명전사들을 친혈육과 같이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주체형의 강요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싸워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오안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에 가장 진실하고 숭고한 혁명적사랑의 빛나는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들을 믿고 사랑하시며 전사들은 수령님을 끝없이 따르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사랑의 혈맥으로 이어졌기에 항일혁명대오는 불패의 힘을 지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사랑에 의하여 강의를 혁명가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은 천리수립속에 홀로 남는 경우에도 결코 외로움을 모르고 수령님을 우리와 힘과 용기를 같이 끝까지 싸웠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기주신 위대한 사랑의 힘에 의하여 혁명전사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곤란과 시련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일관단심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승리의 한길을 걸어 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돌려주시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이 혁명의 길에서 한발자국도 헛디딤이 없이 끝바로 걸어 나갈수 있도록 온갖 온정과 배려를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민생단》의 투명을 쓰고 혁명대오에서 버림받던 유격대원들의 《죄행》의 《문서》보따리를 몸소 불살라버리시고 그들모두를 대담하게 포섭하시여 정치적생명을 소생시켜주신 뜨거운 그 사랑으로 해방후에는 한 인배리출신일군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정치적생명을 위협당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 일군을 부르시여 누가 무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으라, 당이 있는 한 누구도 동무를 못다친다고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한생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을 진실로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서 나이 들고 버리게 된사람이 내린 오랜 혁명전사들을 만나시면 몸은 비록 늙더라도 정신만은 늙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라이르시기도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기때 일부 일군들이 범한 사소한 파오도 스쳐보내지 않으시고 제때에 타일러주시며 때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엄한 비판의 말씀도 하여주신다.

우리의 모든 혁명전사들이 누리고있는 정치적생명은 이렇게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있기에 혁명의 거센 풍랑속에서도 더욱 순결하고 의세여질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모든 혁명전사들에게 혁명가로서의 영생하는 삶,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키워주시고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며 보호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명뿐아니라 친부모도 다르지 못한 다사롭고 세심한 손길로 그들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돌봐주신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것처럼 간고한 나날에도 밀림속에 병원을 마련하도록 하시여 혁명전사들의 건강을 돌봐주시였으며 자신께서 쓰시던 단 한장의 모포마저 앓는 대원에게 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전사들의 건강에 대하여 이처럼 넘버하시교 키다란 배려를 돌려주고계시기에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다 전강한 몸으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가장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의 길을 함께 걸어온 혁명전사들의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보살펴주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동지적의리도 잘 지킵니다.》(우와 같은 책, 506페이지)

혁명적의리는 혁명동지들이 다하지 못한것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고결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적의리, 공산주의적의리는 혁명적동지애와 함께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이 계획한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가게 하는 정신도덕적힘의 원천이다.

혁명적의리는 수령과 혁명전사사이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서 동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피주시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시며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심려하시고 온갖 온정을 다 베풀어주신다.

장기간의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혁명전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을 사랑하고 보살피시던 그 심정 그대로 그들의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친혈육과 같이 아끼시고 극진히 보살피주요계신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희생된 한 혁명전사의 어머니를 찾으시여서는 이제부터 친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하시며 모처럼 마련된 휴식의 한순간마저 혁명전사가족들의 병문안에 바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귀한 약제와 보약을 손수 보내주시기도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오늘 모든 혁명가유가족들과 그 자녀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의리는 혁명동지가 남겨놓은 혁명의 피줄, 혁명전사의 자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강래까지 돌보아주시는 가장 자애로운 의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으로부터 혁명의 피줄기를 잇는 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다 찾으시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주요계신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와 같은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한길에서 손잡고 싸우다가 쓰러진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찾으시여 사랑의 품속에 감싸주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후 선참으로 이역땅에 흩어져있는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모두 찾아내여 데려오게 하시었다.

옛 혁명전사들의 유자녀들을 당중앙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친히 부르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너희들을 공부시켜서 내 평생소원을 풀겠다고 하시며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모두다 공부시키시여 당 및 국가 기관, 군대, 근로단체 등 여러 분야의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주시었다.

수십년 세월이 흘렀어도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심려는 끝이 없으시여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희생된 혁명전사의 자녀도 끝내 아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앞으로 당에도 들고 공부도 더 해서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혁명의 뜻을 대를 이어 빛내이라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

혁명전사들의 피줄기를 끝까지 찾아내시여 지금까지 못다준 사랑을 뜨겁게 안겨주시며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그들의 삶의 요람이며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다.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피워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공산주의적의리는 모든 혁명전사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며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청춘도 생명도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
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싸워나
가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 혁명전사
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의리를 한몸
에 지니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이다.

참으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
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수령님
의 고매한 덕성은 근로하는 인민을 무
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인민적성품의 최고표
현이며 동지적인 사랑과 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공산주의적덕
성의 빛나는 귀감이다.

그러기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 덕성만 보아도
세계지도자들의 모범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 《숭고한 덕성으로 진보와 변영
에로의 로정을 빛내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한결같이 칭송하면서
아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을 표시하고있다.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공산주의적덕
성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자애로
운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
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끝없는 영광
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
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우리의 모
든 승리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 연민들
이 대를 두고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귀
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자애로
운 아버지로 모시고 수령님께서 지니
신 고매한 덕성을 불멸의 귀감으로 삼음
으로써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불패의 힘을 키워
왔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사
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
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수령님을 중심으
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 순결성을 확
고히 고수할수 있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
자애로운 아버지품을 떠나서는 우리 인
민의 모든 승리와 행복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우리모두의 삶의 보람과 회
망찬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
으로서의 삶의 보람을 안겨주신 경애
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
을 따라배워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해
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충성다하
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그
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을 자
기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는 우리
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불멸의 귀감으로 삼고 그대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오직 수령님의 존
귀한 성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영원히 대를
이어 순결하게 빛내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다

정 준 기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 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존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이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지금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실 더욱더 절절한 념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왔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이것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선년사》, 1977년 1월 1일, 13페이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은 관심을 돌리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한편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이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 나라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의 전투에 서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투쟁과 승리의 길을 헤쳐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투쟁이 이처럼 복잡하고 간고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날을 따라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3천리강토에 통일독립된 인민의 탁원을 건설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시는 질세의 애

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대양이다.

돌이켜볼 때 지난 36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시기는 참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강토가 침략자들의 반말에 짓밟히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되었던 가장 참담한 시기였다. 해와 달도 어둡던 이 민족수난의 시기에 전민족의 갈망을 안으시고 구국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며 3천리강토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건설할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간고한 반일성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마침내 우리 조국을 광복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로 이루어진 조국의 해방은 우리 인민과 민족 앞에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이라는 새로운 재난을 겪게 되었다.

국토의 양단과 민족의 분열은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군사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한세기도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추구하여온 미제의 조선침략정책의 산물로서 그것은 새력사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매우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어려운 역사적과제가 새롭게 나서게 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첫날부터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조선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과 식민주의간의 첨예한 대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반제전선으

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역사적환경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는 조국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주체적인 과학적 로선과 전략을 가지느냐 못가지느냐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복잡하게 얽힌 혁명의 전로를 얻어갈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을 수립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천재적인 예지와 지략, 탁월한 령도력을 겸비하시고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의 대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승리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전인미답의 길을 쉬임없이 개척하시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환경과 조국통일문제가 산생된 역사적경위와 그 전도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이 사활적인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통일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었다.

수천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이어오면서 민족의 슬기와 자량을 펼쳐왔고 영광스러운 항일의 혈전으로 외세의 침략과 사대주의에 의하여 빚어진 망국의 치욕을 벗어던진 우리 인민이 결코 자기 민족의 운명을 남의 손에 내맡길수는 없었던것이다.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민족사앞에 제기된 최대의 당면과업인 조국통일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창시하시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명시하심으로써 그 위업달성의 가장 곧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해명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게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8페이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관한 이 과학적해명은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위한 투쟁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빛나는 모범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권은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닐수 없는것처럼 민족이 자주권을 가지지 못하면 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지닐수 없게 된다. 그러기에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민족으로 살기를 원하는것이다. 민족은 자주권을 가질 때만이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자주권은 령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령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진 조건에서만 보장되는것이며 령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혀있는 한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바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령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위업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국토와 민족을 완전해방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인민은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는것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또한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수 있고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곧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위업으로 되며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조국땅위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울것을 구상하시고 투쟁하여오신 위업의 한 부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라는것을 밝혀주시음으로써 통일위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바로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풀어나가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전술을 정확히 세우고 구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에 대한 근본 립장과 방법을 옳게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문제의 성격과 그 전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음으로써 이 절실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우리 당의 일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과 평화적방법을 통일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자주적원칙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의 우리 당의 근본립장을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양시킴으로써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도 그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조선인민만이 그것을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또 능히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발양시키며 그 힘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민주주의적원칙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정확히 담보하며 규제해주는 원칙으로서 통일문제해결의 실제적담당자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을 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며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사업으로 되고 그들의 의사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다.

평화적방법은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를 밝혀주는것으로서 통일문제를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남북조선거나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것이다.

오랜 역사를 두고 한강로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되찾고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

한 자기의 민족문제를 놓고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으로서 그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그 위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또한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침으로서 조국통일의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력량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통일의 기본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탁월한 혁명력량편성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미제와 같은 간악한 적을 작접 대상으로 하고있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자체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점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것이요,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요,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3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력량강화의 전략적방침은 갈라진 조

국의 두 지역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며 주체적력량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다같이 잘 준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모든 혁명운동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혁명세력을 압도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력량을 어떻게 편성하며 준비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전략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나선다.

3대혁명력량강화의 방침은 조국통일의 과제와 그 성격, 조국통일위업의 주객관적인 조건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3대혁명력량강화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조국의 분렬로 말미암아 하나의 조선혁명이 환경이 다른 북과 남의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있는 객관적현실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사회혁명론은 보통 하나의 판도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그 주체적혁명력량은 단일한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조선인민의 하나의 통일적인 과업이지만 그것이 국토와 민족이 갈라진 조건에서 산생된 문제인것만큼 그 주체적력량이 북과 남의 두 지역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북반부의 혁명력량과 남반부의 혁명력량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은 조국통일의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량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대신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의 튼튼한 준비와 그의 주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그가운데서도 보다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그런것만큼 민족주체적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데서는 언제나 공화국북

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공동의 원수이며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주되는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인민의 반제반미투쟁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그와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고립약화시키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세계반제투쟁전선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력량강화의 전략적방침은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주체적립장과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방침이며 민족의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에 대한 로선과 방침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통일도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것으로서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으로,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기본로선과 전략적방침이 전일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난관이 중첩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통일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며 전진하여 올수 있었으며 통일위업을 힘차게 앞당겨나가고있다.

2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이론,路線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혁명기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30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조국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우리 혁명의 2대과업으로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모든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한두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 불패의 혁명기지를 마련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전국적판도에서 역량호상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시면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먼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점으로 삼고 주체적립장, 자주성의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전체 인민이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높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통일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에 대하여 높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 외세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단호히 배격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자주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나라의 통일을 넘원하는 전체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 하나의 역량으로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였다.

그리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굳게 뭉칠 때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인민자신의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조선혁명과 민족의 장래를 그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시며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모든 애국력량을 구국통일의 길로 이끄시었으며 탁월한 전략전술과 불굴의 투지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며 정세발전을 촉진시키나가지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1948년 4월에 소집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구국통일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의 대단합을 실현한 역사적사변이 있으며 수령님의 고결한 성품과 넓은 아량의 위대한 발전이었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좌익, 우익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일생을 두고 《반공》을 하던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정치적식견과 고매한 덕성,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동되어 지난날의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산주의자들과 혼연히 손잡고 구국투쟁의 길에 뿔치나서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유엔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감행한 단독《선거》들은 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사실상 파탄되었다.

참으로 민족분열의 임종한 위기에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그들을 구국투쟁에 적극 떨치나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온 민족의 질대적인 존경과 신임을 받고 계시며 헤물수 없는 높이신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우리 나라를 한사코 분열시키며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략전쟁을 감행해나섰을 때에도 미제의 오만한 교대를 꺾어놓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패전을 모른다면 놈들로부터 최초의 항복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계시었기 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진결히 싸울 때 그 힘은 불패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민족재통일문제도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상응하게 원칙적인 투쟁방침과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어 통일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무한히 고무되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진행되는 데서 용기와 힘을 얻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반미구국투쟁의 길에 뿔치나섰으며 마침내 영웅적 4월인민봉기를 일으켜 리승만피뢰정권을 무너뜨리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엎아놓았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커다란 승리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었으며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그것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남북련방제와 서신거래, 인사래왕, 경제문화교류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불리워오신 고무적기치로,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

4월인민봉기후 새롭게 양양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

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직접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군사장패를 부추겨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반혁명적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천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체 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투쟁속에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이 과정에 애국적인 《한일 회담》과 《한일 협정》을 반대배격하며 괴뢰들의 협잡선거늘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중적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더욱더 고립되고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어갔다.

조성된 정세는 그에 대처한 투쟁 구호와 방침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급변하는 정세를 과학적으로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역사적연설에서 폭넓고 아량있는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이 방침은 미제의 교활한 민족분열책동과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남북의 장벽을 무너드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제길수 있게 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였다. 그것은 또한 북과 남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오해와 불신을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협상방침은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그를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자 지금까지 문을 닫아매고 북과 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도 한사코 거부해오던 남조선괴뢰도당도 하는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은 발표되자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속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온 남녘땅은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으로 끓어번졌다.

남조선의 한 반동출판물까지도 그때의 서울거리 모습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신문사게시판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못박게 하고 《백두산런봉이 지호지간에서 손저어부르는것만 같은 벼락같은 환희》가 모든 남녘겨레들의 혈관을 질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썼던것이다.

또한 괴뢰들이 조직한 《남북공동성명 해설강연》장소에 모인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 빨리 정권을 넘겨라》라는 웨침소리가 터져나오고 내거리 한복판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국통일방침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얼마나 역세게 들어잡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변천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통일의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을 다같이 주동적으로 성숙시켜나간데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었다.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주체적요인을 어

떻게 성숙시키는가 하는것이다. 주체적요인을 성숙시켜야만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성과있게 짓부셔나갈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흥미의 정과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던 애초의 어리석은 망상이 깨여지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탄복하게 유린하고 자주대신에 외세의 존의 길로, 평화통일대신에 전쟁의 길로, 민족적대단결대신에 분렬의 길로 출달음쳤다. 늑들은 드디어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른바 《특별성명》을 통하여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정책》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통일이냐 분렬의 영구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는것은 매우 절박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언제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정세발전을 환히 내다보시고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사태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명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는 즉석에서 된서리를 맞게 되었으며 늑들의 이른바 《성명》이 민족분렬선언이며 대화포기선언이라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분쇄되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44페이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 탁월한 구국강령이며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통일강령으로서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는 반제민족해방위업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그 승리를 위한 국제적요인을 빨리 성숙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세차게 불리일으키시고 조국통일위업의 국제적환경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근 30년동안이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좌지우지하며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다루어오던 유엔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미제의 악랄한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완전히 해체하며 조선의 통일이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한 결의가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우리측 결의안을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안팎으로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조성된 정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계속 수세에 몰아넣으면서 놈들의 《반공》과 쏘속압과 전쟁책동,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요구하였다.

민족의 대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평화협정체결, 남북련방제의 실시와 함께 특히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맞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단결과 합작을 기본으로 하는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방침은 거족적인 통일력량편성방도를 밝힌것으로서 그의 본질적요구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주체적인 애국력량을 총집결하는것이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은 한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열된 조건에서 국토와 민족의 재통합을 위하여 제기된 나라의 두 지역사이의 특수한 형태의 통일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항일혁명투

쟁시기부터 이룩하신 통일전선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북과 남의 애국력량을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에 한사코 도전해나서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은 호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부추김밑에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열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민족의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마련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지난 1월에 있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제기한 4개항목의 구국방안은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오늘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정세발전의 추이를 명석하게 꿰뚫어보시고 중중첩첩한 난관속에서도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구현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는 중세기적암흑속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며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가 깃들어있다.

남녘땅에 차고넘치는 인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언제나 깊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하나의 공장을 일떠세우시고 생산을 늘이는것으로부터 해외동포들을 만나시고 대외정책을 세

우시는것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심에 있어서 언제나 남 녀겨레들을 깊이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정녕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손길을 떠나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서 이룩된 세기적 변혁을 말할수 없고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과 번영,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생각할수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그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3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고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오늘 조국통일의 민족주체적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으며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결정적담보인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당의 유일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 나라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

령인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되고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됨으로써 인부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단매에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적인 주인사들은 괴뢰통치배들의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민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였습니다.》(《신년사》, 1977년 1월 1일, 13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하고있는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은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원천으로,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끝없이 우러리참모하면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기치따라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고있다.

혁명직당의 지도밑에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탄압이 살판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의 향토사상》,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굳게 신봉하면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위

황한 길을 따라 짓밟힌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수많은 대중조직들을 뭉고 그 지도밑에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지난 1월 남조선인민들이 반파쇼민주연합조직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폭력정치를 타도할 민주혁명을 지향하여 결성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전국민이 립장을 초월하여 단결>한것을 호소한것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이 이미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는것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더욱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당의 영향하에 정치적으로 각성되고있는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의 <유신>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그들은 <유신헌법철폐>, <독재타도>, 체포구금된 민주인사, 청년학생들의 무조건 석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반독재반박정희투쟁을 벌리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주민족통일의 기반을 높이 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에 고무된 민주인사들도 박정희피뢰도당의 <유신>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파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미제와 일본반동, 박정희피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파쇼폭압과 전쟁책동을 견결히 반대규탄해나서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의 해발따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민주주의운동과 혁명력량은 구국통일의 봄을 더욱 앞당겨가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에 대한 그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은 화산의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과학적인 대외정책과 수령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의 우리 인민의 친선협조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발전되었으며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하나의 전투적뉴대로 튼튼히 결합시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으며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파쇼폭압, 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 불리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조선통일 지지연대성위원회들이 결성되어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해무기를 비롯한 온갖 살인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길어가 지고 물러간것을 요구하고 파쇼독재를 반대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 있다. 세계적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연대성운동은 오늘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지난해 제5차팔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얼마전 브뤼셀에

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에서는 50여개 나라에서 온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대표들과 국회의원, 저명한 민주인사들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총결의와 각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분렬되어 30년이 넘는 오늘까지 우리 조국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하며 그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통일지향에 도전해나서면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으며 민족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1년 투쟁해서 안되면 2년 투쟁하고 2년 투쟁해서 안되면 3년 투쟁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투쟁해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371페이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끝까지 저지파탄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문제는 남조선에 있는 모든 핵무기, 살인무기와 함께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더이상 갈라져살수 없으며 우리 인민자신이 자기 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예측과 억압이 없고 분렬의 고통이 없는 통일조선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힘있는 추진력으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와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운동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통일의 길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을 멈춰세울 힘은 없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3천리조국강토위에 통일독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조선을 반드시 건설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 들의 반제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김 영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통감하시고 어리신 나이에 걸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를 온갖 예측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진보적사상과 노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에 고귀한 기여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혁명의 대상과 주타격방향을 옳게 규정하시고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통일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한없이 거창하고 폭넓고 심각한 혁명실천활동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고 인민대중의 역사적운동을 자주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 그것은 세기의 력명을 안아오신 시대의 탁월한 령도자의 빛나는 력사이며 진보적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마련하여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찬란한 력사이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면서

끓어넘치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며 수령님께서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바쳐오신 영광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1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이론과 반제투쟁의 전략전술을 새롭게 제시하시으로써 반제혁명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오계신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혁명투쟁의 규모와 내용, 폭과 심도에 있어서 선행한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해방투쟁의 전지에서 볼 때 현 시기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종국적으로 무너지고 자주, 자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력사전환의 시대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70페이지)

우리 시대는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지난날 역사박에서 역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오던 인민대중이 역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인류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하고 전진시키는 그러한 시대로 되었다.

세계인민들이 온갖 예측을 반대하고 자주적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 시대에는 각이한 사회력사발전조건을 가진 민족국가들 단위로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이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속에서 나라마다에 선행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자주적인 민족부대와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러졌다.

우리 시대의 성격과 특징, 임무와 요구는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수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첨예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풍부한 투쟁경험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가 제기한 이 절박한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류사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현시대 반제혁명투쟁의 근본문제를 푸는데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주체사상은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 침략과 예측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전결히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에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준다.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와 제국주의를 완전히 쫓아버리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의 전기간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반제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근본요구들이 해명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모든 반제혁명투쟁이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라는 혁명투쟁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반제혁명위업의 근본목적이 새롭게 해명되었다.

반제혁명투쟁의 근본원리를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는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은 제국주의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적지향과 념원,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반제투쟁의 불멸의 화불이며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며 반제혁명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사건이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반혁명적책동, 그의 부패성과 취약성을 옹계 밝혀고 과학적인 반제투쟁로선을 세우는것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가장 절박한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지난 반세기동안 제국주의는 피로 얼룩진 침략의 역사를 거쳐 많은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침략과 약탈의 피바다속에서 태어난 지난날의 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의 피거름을 빨아먹으면서 전례없이 비대해진 현대제국주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제국주의가

폐퇴물락하고있으며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현시대의 새로운 역사적조건에 맞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천재적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제국주의에 관한 이론발견에 불멸의 역사적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경제기초인 독점의 지배가 강화되고 최대한의 고물리율을 추구하는 현대제국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하며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극도로 격화된 사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창조적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45~246페이지)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현대제국주의체제는 자기 나라 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약탈과 억압,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측의 체제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현대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고무한다.

제국주의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현대제국주의의 새로운 특징에 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적본성은 국가독점자본의 지배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현대제국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것을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발전의 기본추세를 과학적으로 해명

하신 기초우에서 현대제국주의의 새로운 특징의 하나가 그것이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 침략과 전쟁을 치부의 수단으로, 심각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로 삼고있는 가장 반동적이며 악랄한 독점의 체제라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현대제국주의의 조건에서 전쟁정책의 강화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심각화는 제국주의의 경제적으로대뿐아니라 정치적상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된 결과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파시즘을 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해외팽창과 전쟁정책을 뒤받침하여줄 후방을 위하여 국내체제를 파쇼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정치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지난날에는 파시즘이 가장 포악하고 로골적인 폭력적지배형태를 띠고 일부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만 나타났다면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부르쵸아민주주의의 위선적외피를 쓰고 모든 제국주의국가들에서 보편적현상으로, 기본적인 정치지배형식으로 나타나고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정치의 파쇼화가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특징의 하나라는 과학적인 규정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주의에 관한 리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관한 사상을 더욱 풍부화하시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구식민지체제가 붕괴되는 길에 들어선 새로운 역사적변화와 관련하여 현대제국주의의 식민지문제는 해답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식민주의가 현대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주되는 형식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신식민주의는 많은 나라들에서 빈번한 군사정변에 의하여 피퇴점권을

조작하며 정치적부대조건이 있는 경제 《원조》정책,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상문화적침투,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밑에 군사빨력정책을 쓰는 등 교활하고 음흉한 수법에 매달린다는 것을 밝히시었다.

신식민주의는 종전과 같이 직접적인 정치적지배에 기초하여 공공연한 침략의 방법으로 식민주의를 지탱할수 없게 된 새로운 조건에서 형식상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은폐된 방법으로 실제적인 식민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제국주의의 흉악한 식민주의정책이다.

신식민주의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실로 현대제국주의의 식민지문제에 심오한 과학적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현대제국주의의 식민주의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 오늘에 와서 식민주의제도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연히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갖은 범죄를 다 저지르고있다는것과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여 지구상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제도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철저히 벌려야 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제국주의시기에 그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법칙이 작용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되는 사정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역량대비와 세력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제국주의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결과 어느 제국주의국가도 단독으로는 강력한 세계혁명력량에 대항할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호상모순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혁명을 진압하고 심각한 곤경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막대한 전시리운을 얻어 비대해지고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들어진 미제국주의를 지주로 하는 종속적인 동맹을 형성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의 주요모순들과 이 모순들의 호상관계의 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대제국주의는 미제국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체제로 재편성된 제국주의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본성과 특성을 완벽하게 밝히심과 함께 현대제국주의의 역사적지위를 새롭게 천명하시었다.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고 최후단계이며 기생적이고 부패하며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역량외의 장성에 의하여 그리고 국제로동계급의 투쟁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의 타격에 의하여 더욱더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로 되었다.

현대제국주의의 쇠퇴물락과정은 자체의 고유한 모순의 격화로 말미암아서도 더욱더 촉진되며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돌려세울수 없다.

제국주의의 종국적이며 완전한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신 현대제국주의의 역사적지위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이론은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를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자본주의발전추세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경험의 과학적일반화로서 제국주의이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세계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옳게 규정하고 역량편성계획과 투쟁방도를 비롯한 세계혁명의 모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이론을 내놓으시고 세계혁명의 기본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현대제국주의체제전반의 멸망과정을 다그치기 위한 반제투쟁방

침을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반제투쟁로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미제에 주타격방향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현대제국주의체제에서 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역할, 세계혁명발전에 미치는 그의 부정적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현명한 전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종속적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 국제적인 광범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 등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판철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방침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반제투쟁전략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투쟁전략이 제시됨으로써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실천적으로 검증된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시대의 발전행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2대반제혁명력량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

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20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민족해방투쟁의 기세찬 조류속에서 력사무대에 등장한 신흥세력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라고 규정하시었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반제투쟁의 동력들과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노는 역할이 정확히 밝혀지고 세계혁명의 력량편성문제를 옹결해결하며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통일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어나갈수 있는 과학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경제구조와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나라들에서의 당면한 혁명의 성격과 이 혁명의 주타격방향, 동력편성문제 그리고 이 혁명에서의 주권문제와 제국주의예측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경제적강령 등 민족해방혁명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현시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력량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력량이라고 규정하시이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해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강화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동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제도수립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

의 건설의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방침 등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경제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뒤떨어졌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곧바른 길을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이론실천적문제들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발전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실천적임무로 나선 세계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켜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의 로정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련대성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별적나라들에서 이룩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가 세계의 대다수나라들에 확대되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을 가르쳐주는 세계혁명승리의 과학적리정표를 제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이 명확한 목표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는 지름길을 밝혀주시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합된 힘은 매개 나라의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전세계로동계급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들고 단결의 힘에 의지하여 허다한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국제자본의 진지를 끊임없이 공격하였으

며 원쑤들과의 결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국제혁명력량의 구성에서 일어난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제국해방뿐 아니라 민족해방, 인류해방을 완수하기까지의 전력사적단계에서 일관하게 들고나가야 할 위력한 단결의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는 구호 밑에 먼저 승리한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이미 승리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전취물을 보위할데 대한 위대한 전략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더욱 촉진해나갈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반제혁명이론은 반제혁명위업에 관한 전면적인 새로운 문제제기로 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일정에 올린 반제투쟁문제에 대한 해답의 심오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더 튼튼히 들어잡고있으며 그들을 성스러운 반제혁명투쟁으로 힘차게 고무해주고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실천활동과 비범한 령도로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은 가장 완고하고 보수적이며 음흉하고 파렴치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종국적으로 때려부시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과 불평등에서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모든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그가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과업의 내용에 있어서나 혁명적변혁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며 그것은 오직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함께 세련되고 정확한 정도가 보장될 때만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강대한 혁명적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풍부한 투쟁경험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국제혁명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방인민들이 세기적잠에서 깨어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운동을 벌리기 시작하던 역사적시기에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조선, 특수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가장 착잡하게 얽히고 서리였던 조선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식민지해방혁명에 관한 리론과 공산주의운동의 전략전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반제투쟁과 민족해방운동, 공산주의운동이 자주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식민지나라인민들이 무장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최초의 위대한 승리로서 세계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을 반제반식민주의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되며 민족해방뿐 아니라 계급적해방의 과업을 동시에 내걸고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승리

한 혁명전쟁으로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2차세계대전후에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에 상응하게 국제혁명운동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려일으키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제2차대전후 미제국주의는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 침략적야망으로부터 《원자탄외교정책》, 《딸라외교정책》, 《트루먼주의》 등 각종 술책을 다 쓰면서 대대적인 반동공세로 넘어갔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거지를 확보하며 자기들이 겪고있는 과국적인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드디어 저들의 세계체제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군사전략과 현명한 정도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내티막길에 들어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운명을 전져보려고 세계의 이트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미제는 1962년에 쿠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카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에 도전하여나섰고 웬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여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하고 남부웬남에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캄보자,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세아와 극동 및 그밖의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을 자기들의 원자 및 로켓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주둔 미군과 피퇴군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혁명력량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가장 첨예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전략적구호를 내놓으시었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라는 구호는 세계혁명의 근본요구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옮겨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억만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들을 성스러운 반제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들을 발표하시여 3대륙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벌리며 광범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반제투쟁방침을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과 국제민주단체들의 산하에 있는 많은 군중을 하나의 조직된 반제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정부들사이, 직업단체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공동투쟁기구들 조직하며 그것을 통하여 서로 투쟁경험을 교환하고 공동투쟁방침을 세우며 호상 지지와

협조를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수 있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전반적반제투쟁을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시면서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었다.

최근 수십년간의 력사발전행정에서 아세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 피압박민족과 제국주의사이, 제국주의독점체들 호상간의 대립과 모순이 뒤엉킨곳으로 되었다. 참말로 이 지대는 제국주의전선의 연쇄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리였으며 세계정치투쟁의 결전장이었다.

지난 시기의 력대미행정부는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성장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 지역의 혁명하는 나라들을 직접적인 무력침공으로 각개격파하려 하는 한편 아세아의 피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반공》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에서 아세아가 차지하는 위치와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투쟁정형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가 캄보자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개시함으로써 월남전쟁을 동남아세아전역으로 확대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자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반제통일전선과 반제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세아에서의 반제혁명투쟁을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벌리신 고귀한 투쟁은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세력을

약화시키며 인민들의 해방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고 책동하여왔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피하여왔다.

이리하여 미일간에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반동적공모결탁이 이루어졌고 세계평화와 아세아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은 날로 커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과 해외팽창책동, 미일간의 종속적동맹관계와 미일결탁의 본질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침략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진행하여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60년에 미일간의 신《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 더욱 촉진되었으며 1965년에 《한일협정》이 조작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가 로골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해외침략책동을 저지과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때에 밝혀주시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똑똑히 깨닫고 그를 반대하여 더욱 원칙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일본반동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가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열이 날로 확대강

화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힘을 합쳐 반제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짓부셔버릴 때 현대제국주의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되게 된다.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승리에 의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은 제국주의식민지체제는 2차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의하여 계속 심대한 타격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악랄하게 교살하고 잃어버린 옛전지를 되찾으며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현실은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계속 견결히 벌릴것을 요구하였다.

식민지인민들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엄숙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자》는 전투적구호로 식민지나라인민들의 성스러운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국주의적서방세계가 3대륙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없다는 견해를 천명하시고 제국주의와의 《협조》를 통하여 식민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립장도 단호히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제국주의가 폭력으로 약소민족을 탄압하려 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라고 인정하시고 무장투쟁을 포함하여 식민지인민들이 벌리는 모든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언제나 피압박민족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 왔으며 그들과 손을 맞잡고 제국주의와 친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워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0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되어있고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동남아세아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며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회복하며 빼앗긴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나라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건결히 지지성원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언제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결을 위한 아프리카나라인민들과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외부의 지원에 의거하여 독립을 달성해보려는 사대주의적립장을 극복하며 피압박인민들이 주체적립장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군인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투쟁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신흥세력의 출현은 국제혁명력량을 현저히 강화하고 제국주의세력범위를 심히 축소시킴으로써 우리 시대발전의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과 빨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와 몰락에로 몰아넣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과 빨럭불가담나라들의 혁명적진출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을 계속 저들의 통제와 지배 밑에 얽매어두려고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위협공갈과 매수, 회유기만과 파괴전복활동을 비롯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강화하여왔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 독립한 나라인민들은 자기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다시금 엄중히 위협당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제3세계나라들과 빨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건지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괴압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참다운 민족적 해방과 독립, 번영과 행복을 이룩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건지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1페이지)

자주성을 철저히 건지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괴압해책동에 대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이 참다운 민족적해방과 독립, 번영과 행복을 이룩해나가는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경험은 오직 자주의

기치를 억세게 들어쥐고나가는것이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근본열쇠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자랑찬 승리에 고무되면서 새생활창조에 힘차게 떨쳐나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들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신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건인력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은 더욱더 조선에 쏠리게 되었으며 많은 나라 인민들은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방문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거창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매우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신흥세력나라들의 각종 대표단들, 국제 각종 인사들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오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소탈하고 겸허하신 품성으로 외국의 벗들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대해주시며 그들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도 함께 탐구하시면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쏟아부으시었다.

하가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모습, 평범하고 소탈하신 품성, 위대하고 현명하신 말씀, 참으로 수령님에 대한 경탄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였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혁명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수령님의 해야될수 없는 로고에 깊은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

고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빨리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며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그들을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고무해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비상히 각성되고 그들의 대렬이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집어먹고 신흥세력나라들과 빨리불가담나라 대렬을 와해시키기 위한 악랄하고 교활한 분렬리간책동에 매달리었다. 그들은 3대륙에서의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 지역 나라들사이의 정치적신념과 신앙, 종족적차이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썩기를 박고 불화를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려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헤안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의 반혁명적본질과 위험성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저지과탄시키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것을 호소하시였으며 몹소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무대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새로운 역사적환경에 맞게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막고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합리한 국제기구들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기구로 전면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량과 무기와 돈을 가지고 뽕간질하면서 일부 나라들을 저

들에게 끌어당기여 반제자주의 입장을 지키는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대로 부추기고있으며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부원을 약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유무상통하면서 매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공업화를 추진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주권평등, 민족자결, 영토불가침, 영토완정, 호상협조에 기초한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흥세력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빨럭불가담운동이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단합시키고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 나라의 부원을 되찾기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하고있는 시기에 력사적인 아프리카 및 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여 빨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고무하시요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남김없이 시위하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전도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력량이 난관에 부닥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주체사상과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원칙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형제당, 형제나

라들과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교양하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요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 전체를 옹호하며 공동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강화발전시키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고귀한 노력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반제투쟁에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강의한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인류의 현대력사를 끊임없는 혁명적사변들로 아로새겨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하시요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사변들을 깊이 헤아리시여 반제혁명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요 다방면적이고도 쉬임없는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민주인사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으로 힘차게 고무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투쟁, 모든 혁명조류들을 자주주의 기치, 반제반식민주의 기치,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과 번영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심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불

멸의 역사적공헌을 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와 세계혁명 앞에 세우신 영생불멸할 위대한 리론실천적공적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시고 그들의 두려운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사상을 대변하시는분이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화불이시며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이시며 명철한 혜안과 통찰력으로 공산주의미래를 밝혀주시는 인류의 영재》이시며 《세계인민들에게 리론을 주시고 사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탁월하고 세련된 리

론과 실천의 대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흥미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온 세상 인민들이 것처럼 우러러따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며 크나큰 자랑이며 끝없는 행복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받들고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여나갈 불같이 뜨거운 길의에 충만되어있다.

사상과 령도의 천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주성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4호(무게 42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7년 4월 1일 발행 • 1977년 4월 5일

7-7576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 206호)

from:

交流圖書公司
HIAO LIU PUB. SERVICE

Vol.

61. ✓

4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JUL 26 1977
UNIVERSITY OF CALIFORNIA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하신 담화.....(2)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9)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17)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봉천 불패의 혁명대오.....백학림(26)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숙있게 하여야 한다.....김성현(32)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조근설(38)

수송전선을 추켜세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박용석(44)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심형일(49)

남북협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김수천(55)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김 용(6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하신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월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담화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보내준 좋은 축하편지와 귀중한 선물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하여주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 한덕수의장으로부터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오면 잘 대접해달라는 소개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총련의 사업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을 벌써 만났어야 했었는데 지방에 출장갔다가 어제 평양에 돌아오다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당신들을 만날수 있었지만 당신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려면 몇시간 담화를 해야 될것 같고 또 당신들은 우리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 평양에서 토요일을 이용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좀 늦게 만나게 되었는데 망해하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들을 위하여 시간을 넉넉만큼 사양하고 이야기할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처음 만나지만 오랜 벗들을 만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들이 내가 생일날에도 지방에 나가 사업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랐다고 하는데 원래 나는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이번 생일날에도 경축행사를 조직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청년들이 듣지 않고 저희들끼리 모여 행사를 좀 한것 같습니다. 나의 생일 60돛때에는 시하누크가 와서 불붙고 뇌주지 않기때문에 《포토》가 되어 할수없이 평양에서 지냈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다 축하하자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일날에 친구들 몇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성대하게 쇠는것은 반대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들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국가가 맡아서 키우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

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며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510만명이나 됩니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모두 합하면 800만이 훨씬 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가 맡아서 키우며 공부시키고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을 국가에서 맡아키우며 공부시키려고 하니 부담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견뎌지고 곤란을 이겨내면서 새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해나가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세대들이 없으면 나라의 앞날도 없으며 사회의 진보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을 잘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천대받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앞으로 압박과 천대를 받지 않고 잘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명랑하고 씩씩하게 키워야 하며 깊은 지식과 전장한 체력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대교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연하였는데 몇십년동안 해보니 그것도 할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에 대한 판단은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는동안 이 분야를 많이 보면 그에 대하여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잡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 앞으로 전진도상에 여러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우리는 능히 우리 나라를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립적민족경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 토대우에서 우리 나라는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매운 예속경제가 아니기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우리자체의 결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전설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5년 8월에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개 고지를 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강철고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멘트고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채 점령하지 못하였던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마쳐 점령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나가 료해하여보니 새로 건설한 세멘트공장이 잘 돌아가고있으며 올해에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할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

강철생산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한것은 한해동안 새 전망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수송이 좀 긴장합니다. 6개년 계획기간에 새로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는데 거기에 수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수송사업을 추켜세우는 해로 정하고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철도의 전기화를 더욱 다그치고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대형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자동차수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해부터 새로운 인민경제발전계획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다음해부터 수행하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은 제2차7개년 계획으로 될것입니다. 지난 기간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계획기간을 4년이나 5년으로 하는것보다 6~7년으로 하는것이 적당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있는 제2차7개년 계획기간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차7개년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전망계획을 세우는중이기때문에 구체적지표들을 다 말할수는 없지만 제2차7개년 계획기간에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이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강철, 전력, 세멘트, 석탄입니다. 이것이 공업에서 기본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몇해전에 1,200만톤의 강철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망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번 7개년 계획기간에는 연간 강철생산량을 700만~8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7,000만~8,000만톤, 전력은 600억키로와트시, 세멘트는 1,200만~1,3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새 7개년 계획 기간에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대체로 지금보다 2배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목표들을 1984년까지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7개년 계획수행에서 중요한것은 다른 나라의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은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기본은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가며 다른 나라의 자본은 받아들이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필요한것을 생산보장하는데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카터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카터정권에 대하여 말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들에게 카터정권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며 인권

을 유린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몇개 나라에 대하여 려행제한조치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선거공약때 한 말과 그후 집행하고있는것과 차이가 있는데 있습니다.

물론 카터가 집권한지 몇달 되지 않기때문에 그가 선거공약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것은 더 두고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와 관련하여 말하는것을 보면 카터의 선거공약과 어긋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점차적으로 철거하는데 그 기간이 4~5년 걸릴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임기가 4년인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4~5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지 않으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공군은 남겨놓겠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거시키겠다고 한 카터의 선거공약과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입니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정부의 동의밑에서, 충분한 리해속에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미군철거를 반대하고있으며 일본정부도 대체로 그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정부의 동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미군을 철거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할수 없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카터가 직접 발언한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부대통령 몬테일을 비롯하여 카터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것입니다. 카터아래사람들이 이리쿵저리쿵 말을 많이 하였는데 그것이 카터정권의 립장이라면 그것은 선거공약과 위반되는것이며 만약 그것이 카터의 의사가 아니고 아래사람들의 의견이라면 카터정권에 대하여 더 연구하여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아직 카터정권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적인 말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카터정권에 대하여서는 좀더 두고보아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카터가 집권한지 아직 석달밖에 안되며 선거공약을 전개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터정권이 한가지 문제에서는 명백히 선거공약과 모순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카터정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위협공갈하고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서는 계속 군사원조를 주고있으며 군사연습도 같이하고있습니다.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이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올해 봄에 들어와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미공군 《비52》전략폭격기가 오끼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

여서는 당신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폭격연습장이 이르는곳마다에 있는데 그들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놀래우려는것보다 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것이며 남조선반동통치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하도록 조장하여주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카터의 선거공약과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카터가 한 선거공약을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있지만 그가 자기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리행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카터정권에 대하여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대화문제까지 포함한 조선의 통일문제의 전망이 낙관적인가 아니면 절망적인가고 물었는데 조선의 통일문제는 절망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이라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절망적이라면 우리는 살아갈수 없습니다. 다. 우리 인민은 모두다 나라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조선문제의 해결은 조선사람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여 들고일어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다 말살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의 파쇼적탄압과 폭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에는 남조선민주인사들이 파쇼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또 올해에는 청년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어 남조선의 종교인들까지 <기도회>를 벌려놓고 파쇼<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요구가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통치배들은 극도의 파쇼통치를 실시하고있지만 그러한 파쇼적탄압으로써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력사적경험을 놓고보아도 폭군이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폭군이 오래간 실세는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도 없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없습니다. 지난날 봉건사회의 왕조나 자본주의사회의 통치자들이 폭압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구경은 다 인민대중의 반항에 의하여 멸망하고말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능히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이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기본원칙을 떠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파쇼적탄압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는 그들과 대화를 할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구호를 버리고 남조선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취소하며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그만두고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 붙들어두는 정책을 포기하며 남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공화당과도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미 여러번 말하였으며 얼마전에 있는 제정당, 사회단체면석회의에서도 또다시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튜동하든지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세계인민들이 조선에 대한 부당한 분렬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면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최근 미국, 중국, 일본에서 지도자들이 교체된것이 조선과 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카터정권에 대해서는 우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화국봉동지가 당주석으로 되었는데 중국은 우리 나라의 림방이고 형제나라이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오랜 전우이기때문에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일본의 후쿠다내각에 대해서는 아직 리해가 깊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후쿠다내각에 대하여서는 더 두고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는 현일본정부가 자주적인 길을 걷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추종하는가 하는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전에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큰 전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일본정부는 미국에 추종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여왔습니다. 만약 일본의 새 정부가 자주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새 정부도 남조선반통치배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전진이 있으리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기전에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지금이상 더 발전시키기 힘들리라고 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국이 조선에 대한 령해제한조치를 취소한다고 한 조건에서 일본정부도 그에 따라 우리 나라와 인사래왕과 문화교류나 좀더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을 자유훈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일본정부에 이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을 자주 하면 일본인민들이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리해하고 우리 인민들이 일본인민들을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깊이 리해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우리와만 관계를 가지고 남조선당국자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여도 실현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면 일본정부로서는 난처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바라고싶은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만 실시하여도 전일보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다는것은 남조선반동들과 같이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영구히 주둔할것을 요구하지 말며 남조선에서의 인권탄압채동을 동조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의 배불 불리는 일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조선의 통일에 커다란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만 하여도 우리에게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이런 정도의 낮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어업협정을 맺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그것을 동의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무서워하기때문에 그 압력을 박차고나올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동의하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어업협정을 맺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일본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여러번 천명한바 있습니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였고 일조우호친선어업대표단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파우리신문사가 우리 나라와 문화교류를 폭넓게 진행할것을 희망하고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교류를 확대하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완전히 맞는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사가 일본인민들에게 조선을 더 잘 알려주고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발기하여나선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일본인민을 위하여서도 좋고 조선인민을 위하여서도 좋으며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서도 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적극 호응하여나설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의 해당부문인군들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을 만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담화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천재적 사상과 리론이 당건설실천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한 불패의 대오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자랑스런 승리에로 이끄는 불패의 대오로 강화된것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불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그 위대성과 혁명성,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총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전투적기치로, 우리 당 건설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당건설의 기본로선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당건설의 기본로선에 관한 문제는 당의 창건과 공고발전 그리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방침과 방도로, 총적방향으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관철됨으로써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들이 다 해결될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하고 원칙적인 문제는 오직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심오한 혁명리론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지니시였고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탁월한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수령과 수령의 혁명사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결정적역할로부터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대적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사람의 몸에는 오직 한가지 형의 교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의 맑스-레닌주의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은 철저히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우리 당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의 근본원칙, 기본로선으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이다. 혁명투쟁의 무기인 당안에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당이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루하고 진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무기에는 각각 거기에 맞는 한 가지 포탄이나 탄알만 쓸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안에는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무기인 로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자기의 혁명적 본성과 사명에 맞게 건설되고 활동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형의 당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주체의 혈통을 가진 우리 당안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주체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조류는 우리 당안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으며 당의 건설과 활동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나서는 당건설의 근본원칙, 기본로선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의 조직사상적강화발전을 위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들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년에 즈음하여》, 10~11페이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따라서 그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로 나서게 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도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 온갖 기회주의당들과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강철같은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워야만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될수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은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제가 튼튼히 설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당안에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워야만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로, 주체의 사상체제에 기초한 참말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로 되게 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안에 철저한 중앙집권적규율과 혁명적질서를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확고히 세우게 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강화와 그 불패

의 위력은 강철같은 조직규율에 의해서만 철저히 담보될수 있다.

당안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제, 중앙집권적규율의 확립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올바른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성과적실현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율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당대렬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불패의 전투력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각오가 되어있는 로동계급의 선각자들, 근로인민의 가장 우수한 핵심분자들로 조직된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이다.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철같은 전투적대오로 되게 하자면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모든 당원들을 온몸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만들수 있고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밀

움직이게 보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인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혁명적인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비롯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들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이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 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 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수령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되고 이룩되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그것은 일정한 역사적시기나 어느 한 단계의 혁명과업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계승발전되어야만 중국적으로 실현되는 장기적인 역사적위업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종도반단합이 없이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자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전철하고 수하고 당을 변함없이 수령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그가 존재하는 전기간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밑에 처음으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는 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사회의 심장이며 추진력인 당의 유일사상화를 더욱 다그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을 빨리 앞당겨나갈 수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은 우리 당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 때에만 대를 이어 계승되고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항구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 때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적지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 때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중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

의 전투적기치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 건설 사상과 이론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건걸고 고수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진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 이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체계화되고 전면적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은 당건설의 사상이론적기초와 총적방향에 대한 문제로부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적인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준 위력찬 이론 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변질시키려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진정한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수정주의자, 부르조아분자들이 당과 혁명을 파괴하고 수십년동안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말아먹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당안에 이색분자들이 나타날수 없게 할수 있으며 당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두리에 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 어떤 조직사상적혼란도 없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가장 생활력있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혁명이론 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 건설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들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혁명발전에 해독을 끼쳐온 온갖 반당적 및 반혁명적 기회주의사상조류를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쳐있는 통일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었고 주체의 현통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수

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 있다.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의 완전한 실현, 더욱 강화된 당의 전투력과 대중적지반의 강화, 인민대중속에서 비상히 높아진 당의 권위와 위신,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의 확립, 이 모든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참으로 우리 당 건설과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모든 자랑스런 승리와 고귀한 업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하여 나갈 때만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어 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찬란한 미래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

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4~25페이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당사업의 중심과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투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결국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만드는데 귀착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당사업의 기본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신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교상하고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높은 발현형태로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확고한 정치사상적신념을 가지고 일

편단심 오직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 모두가 자기들에게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며 충성으로 높이 우러받들어나가는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과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주체의 혁명관, 혁명의 방법론을 소유할뿐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신심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전철히 옹호하며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하나의 통일적과정을 이루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성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전철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것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요구이며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전철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나가는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전철히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과 전설의 심화발전은 사상교양사업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사업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보다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실속있게 전개되어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는 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제와 강한 중앙집권적규율과 혁명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성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해결에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돌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만 불라는 열정,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발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 이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끄는 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3대혁명붉은 기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영예로운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는 대중과의 련계형식, 령도예술에 관한 문제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마땅히 수령님식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안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혁명의 능숙한 지휘성원으로 되여야 당을 강화하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 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탁월한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권위와 존엄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완성되고야말것이다.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조직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그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경제조직사업을 떠나서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옮겨 움직여나갈수 없으며 또 대체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이미 확립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칠수 있는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변천되는 환경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온 일관한 방침이며 경제 지도와 관리운영에서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변혁과 생산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정은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는 장엄한 현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

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들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1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다음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를 옮겨 관리운영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환경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나라의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은 생산자대중이 경제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맞물려주고 연료와 원료, 자재 등 필요한 생산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며 생산의 진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생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정상화와 노동생산능률의 장성은 노동자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는 생산조건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사업에 달려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5~236페이지)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경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특징이며 자본주의경제에 비한 결정적우월성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과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생산의 맹목성과 분산성, 침체와 퇴보를 면할수 없다. 현대제국주의의 어용나팔수들이 이른바 《계획적자본주의론》을 떠벌이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분식하기 위한 하나의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이 통일적인 경제체제에 망라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으며 여기에서 주인은 국가이며 근로인민대중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이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한 국가계획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며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려주는 경제조직사업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타나게 되는 주되는 이유가 있다.

경제조직사업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법의 하나

이며 정치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운영에서 첫째가는 사업은 정치사업이다. 정치사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경제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정치사업 하나만으로는 다 해결될수 없다. 정치사업은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정치사업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인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이라면 경제조직사업은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제기술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대중을 옮겨 조직동원하며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자면 반드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거기에 경제조직사업을 옮겨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에 경제조직사업을 적극 따라세워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령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근로자들이 힘껏 일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노동제급의 당과 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 등 사회주의적화대재생산과정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고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

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 적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그러한 예비란 어떤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노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사업을 잘하고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0페이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미 마련된 경제도태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인부원을 비롯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며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일반직인 강조나 호소만으로는 나라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옹게 동원리용할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모든 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요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하며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 때 광범한 생산자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방도를 가지고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에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중

요하게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며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국가지, 전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며 경제발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사업으로 나선다. 오직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 빈틈없이 짜고들어야만 인민경제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균형을 옹게 보장할수 있으며 적극적인 균형에 의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전투적으로 짜고들어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실로 사회주의와 조직사업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무겁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한데 뒤이어 웅대한 6개년계획을 완전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도태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의 사회경제체도는 비상히 공고화되고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경공업기지,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제는 실로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에

서 이미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지금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완충의 해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작전을 면밀히 하고 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할 때 언제나 승리할수 있는것처럼 나라의 경제로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열의가 높은 오늘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기만 하면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보다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도, 있는 밀천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문제도,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문제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을 유지하고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며 경제건설분야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2

사회주의건설과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과정이며 경제조직사업은 당의 경제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에서 기본은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며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맞물려주는데 있다.

아래의 실태를 깊이 료해장악한데 기

초하여 옳은 작전과 계획을 세우는것은 경제조직사업에서 첫공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모든 물자와 자원이 계획적으로 리용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에 의하여 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설비능력, 나라의 자원과 자재, 자금, 로력과 같은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70페이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려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발전된 분업과 현대적인 기계기술 그리고 근로자들의 공동로동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와 기업소들사이, 생산단위와 공장들사이에 긴밀하고 복잡한 생산기술적인 련계가 맺어지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려주는 계획화사업이 없이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자재보장과 기술보장, 생산 조직과 지휘 등 경제조직사업에서 나서는 이여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계획작성사업을 치밀하게 하여야 로력과 설비, 생산면적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고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도 계획적으로 요긴하게 쓰면서 그 소비기준을 낮추고 생산을 늘이는 등 경제기술적 보장사업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수 있으며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통제할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을 옳게 맞물리는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며 그것을 떠나서는 경제조직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획작성에서 중요한것은 로력과 설

비,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맞물리는 것이다.

국가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간진 일본새로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광범한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작성에서 과학성, 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경제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통제자료에 기초하여 농산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세우고' 매 시기 모든 영농사업을 빈틈없이 맞물리면서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경제조직사업의 중심적인 내용의 하나로서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기술적보장사업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수단과 로력,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며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생산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보장사업을 예견성있게 앞세워야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자재공급사업은 경제조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공급은 계획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지도에서 조직사업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사업은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페이지)

생산과정은 곧 원료, 자재의 소비과정이다.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물질적으로 안받침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기계설비의 가공능력에 원료, 자재의 보장사업이 안받침되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연계가 원만히 보장될 때 사회적으로동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어느 한 개별적부문에서가 아니라 전반적경제발전에서 끊임 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과 공업의 가공능력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원료, 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원료와 자재, 설비 원천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능력과 조직사업 여하에 달려있다.

경제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위에서 책임지고 생산현장까지 계획적으로 내리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숨은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구체적정황에 맞게 자재를 기동적으로 조절공급하며 그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같은 원료와 자재, 설비를 가지고도 열가지, 백가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수 있도록 일을 간지개 조직하여야 한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경제조직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은 현대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과학기술공정이며 모든 제품은 다 기술공정을 거쳐서 생산된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의 기술적요구가 현저히 높아진 오늘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기술발전, 기술적진보가 없이는 사회주의경제를 더 전진시킬수 없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 기술적보장 사업을 잘하여야만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오늘 종업원 한

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는 문제와 설비비용을 높여 더 많이 생산하며 자재를 절약하고 그 소비기준을 낮추는 문제도 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기술적보장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도 현대적기술과 결합되어야 생산과 건설을 추동하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될수 있다. 이처럼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바로 생산에 대한 기술적보장과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기술적보장 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제품의 질과 설비비용율, 원단위소비기준, 노동정량 등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기술력량을 옹게 편성하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통제하며 기술관리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이다.

경제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은 기술을 출시하는 관점과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경제조직사업에서 생산과 기술적보장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험은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할 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수 있고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노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모든 부문, 기업소들사이의 호상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생산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생산지휘를 원만히 하여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걸린 고리들을 기동적으로 풀어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생산지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아래단위들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생산계획수행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참모부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의 전행정을 치차와 같이 맞물리게 하고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조직을 기동적으로 함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치밀한 계획작성과 경제기술적조건의 보장, 기동적인 생산지휘는 서로 떼어놓을수 없는 통일적과정으로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의 지도와 관리운영에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작성, 생산보장, 생산지휘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당면한 생산과 경제의 전망적발전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부분들사이의 옹은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조직사업에 대한 탁월한 방침이 제시되고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다는 온갖 꾀변을 짓부시고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문제를 옹게 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 같이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군들이 계획화와 기자재공급, 예산과 원가 등 경제적공간들을 옹게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되었다.

경제조직사업,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해놓은 사회주의적자립적 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어떤 과동에도 끄떡없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끈지게 짜고들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건설이 거창한 규모로 벌어지고있는 오늘 국가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앞에는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이지)

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 나라살림살이와 근로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경제사업전반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있으며 그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이 주인노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제조직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나라살림살이를 완전히 책임지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

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계획작성, 경제기술적조건보장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짜고들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려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되며 경제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나라의 주인된 립장에서 경제사업을 짜고들며 어떠한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경제사업에서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는것이다.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사업에서 국가가 제정한 제도와 질서, 행동 규칙과 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빨리 다그치나갈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활동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원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활동은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율을 견제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국가를 옳게 운영할수 없고 사회주의건설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모든 부문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강한 혁명적규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규율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근로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이며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종시켜나가는 혁명적인 규율이다. 그 누구를 물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

된 규율과 질서를 어긴 권리가 없으며 오직 철저히 지키야 할 의무만이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경제관리질서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반양시킬수 있으며 국가가 의도하는대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제사업에서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계획규율, 협동생산규율, 제정규율, 노동규율을 비롯한 모든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경제사업과 관련된 규율과 질서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것이란 따로 없으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본질적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소한 편향도 없이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주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걸린 고리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반성을 발휘하여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경제조직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언제나 목적지향성있게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정확히 알도록 하며 그들이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어떠한 애로와 난관 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는 사실상 아래단위의 사업에 도움이 될수 없다. 현실은 복잡하며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한다.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실태를 손금보듯이 확실히 료해강악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이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당의 참된 일군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옹결 결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4페이지)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대규모생산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경제관리 체계이며 방법이라는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계획작성, 경제기술적보장 사업, 생산조직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신속정확히 함으로써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요구는 정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정치사업을 실시하고 경제기술사업에만 매달리거나 정치사업일면에만 치우치고 경제기술사업을 잘하지 않는 현상들을 다같이 경계하고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으며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옹게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과 경제일군들이 서로 합심하는것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당일군들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은 당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행정적으로, 경제실무적으로 제기된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경제사업에서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긴밀히 합심해나가는 기본방식이며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옹게 결합시키고 경제사업을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장의 주인, 기술의 주인,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장과 공장, 직장과 직장,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에 서로 맞물려주며 생산지도와 기술보장, 자재보장, 후방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부문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당의 조직사상사업은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당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안받침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학습하는 된바람을 일으켜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전문분야의 경제기술지식을 널리 소유하고 경제를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과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제때에 벌림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며 혁명화를 끊임없이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의 간고한 나날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알뜰하고 간진 살림살이본세를 본받아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 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조선인민혁명군은 승고한 혁명적 의리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

백 학 립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단탄하고 화목한 대가 정속에서 행복하게 살며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이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가장 승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활짝 꽃피워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지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가장 승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 필승불패의 혁명대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빨치산들은 시종일관 인민을 위하여 싸웠으며 상하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었으며 동지적의리와 혁명적우의로 굳게 뭉쳐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42페이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혁명대오가 수령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어야 그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참말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그것은 도덕의리적단합으로 안받침된 때에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혼연일체의 완전한 통일체로 될수 있다.

항일유격대가 류백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헤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승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데 있었다.

항일유격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망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뜨거운 충성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승고한 의리였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의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맺어지는 의리로서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의리만이 가장 높은 혁명적자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참다운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승고하고 혁명적인 의리로 될수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

의리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고상한 사상감정으로부터 출발한 의리였다.

항일유격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이 사랑과 뜨거운 손길 밑에서 혁명의 전리를 체득하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였다.

하기에 항일유격대의 전대오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광복의 구성이시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육친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피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이로 높이 우리러모시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시름없이 바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차넘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호상간의 관계를 맺고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의리는 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바로 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의리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의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또한 위대한 사상과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숭고한 의리였다.

혁명적의리는 혈연적관계나 친분관계에 기초한 단순한 인정적의리가 아니라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의리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의리가 얼마나 숭고하고 공고한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과 목적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사상과 목적에 기초한 의리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

하는 혁명적의리로 될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고상한 인간관계를 반영한 공고하고 참다운 의리로 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직전개된 혁명투쟁이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차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었다. 항일유격대에서의 의리는 이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혁명위업수행에 전적으로 이바지하며 인민대중에게 적극 복무하는 혁명적의리로 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에서 발휘된 의리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인간관계를 반영하고 동지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극진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고상한 의리로 될수 있었다. 또한 주체사상을 기초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에서 발휘된 의리는 혁명적세계관에 의하여 안받침된 공고한 의리로 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혁명전쟁력사상 류레없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의리였다.

혁명적의리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것만큼 혁명적의리의 공고성과 숭고성의 높이는 혁명투쟁의 간고성과도 관련된다. 혁명투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그것을 헤쳐나가는 투쟁속에서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진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혁명동지들사이의 의리는 더욱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

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었습니 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6 페이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항일유격대는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모든것을 자체로 그것도 많은 경우 적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항일유격대는 장기간에 걸쳐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적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생사를 판가리하는 간고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겹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역사에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었다.

항일유격대에서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되고 공고화된것으로 하여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이 굳세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장 혁명적인 의리로 될수 있었다. 이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혁명동지들을 굳게 믿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영웅서사시로 아로새겨나갈수 있었다.

이렇듯 항일유격대에서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의리이며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의리였다.

항일유격대에서의 혁명적의리가 것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의리로 될수 있었던것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지고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의리의 위대한 모범을 귀감으로 하여 이루어진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떠맡고나간 항일유격대원들을 높은 정치도덕적품모를 갖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적단합을 굳게 다지시기 위하여 대원들을 언제나 공산주의적도덕과 혁명적의리로 교양하시면서 몸소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혁명전사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시고 혁명가로서 보람있게 살며 싸워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그들의 생활을 육친의 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지난날 천대와 굴욕을 강요당하던 머슴군과 고역에 시달리던 노동자, 농민들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비로소 제 나라글을 배우고 혁명의 진리를 배워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혁명가로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혁명의 보람찬 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이 움트고 꽃피어나는 터전이였으며 그를 보호해주는 아버지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간고한 혁명의 한길에서 같이 싸우는 혁명동지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둘러진 한층의 미시가루에도,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대원들의 신발에도, 혁명전사들을 위한 선개의 가루봉지에도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톡톡히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탄이 우박치는 전투마당에서도 자신의 위험보다도 대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몸소 전투에서 위험을 마다하지않으시고 혈로를 헤쳐나가시었다.

혁명전사들을 천금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서 용감히 전사한 혁명전사들의 희생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온밤을 지새우시며 몸소 추도문을 쓰시었으며 희생된 혁명전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 뜨거운 심장 그대로 그 자녀들을 육친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피시며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시었다.

혁명전사들을 혁명가로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시며 극진히 보살피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참으로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이 높고 깊은것이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의리는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신 혁명적의리의 위대한 모범은 항일유격대에서 혁명적의리의 참다운 귀감으로 되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전대오에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에서 발휘된 혁명적의리는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신 교대한 공산주의적인간성과 뜨거운 사랑,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그대로 받아안은것으로 하여 가장 아름답고 공고한 의리로 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는 이 숭고하고 공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단합되였기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대오, 불패의 혁명대오로 역세제 싸워나갈수 있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전력사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찬란히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이다.

항일유격대에서 혁명적의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편단심 충성다하는것을 자기들의 혁명적본분으로,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데서 높이 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해

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건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절령을 위하여》, 12페이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의 손길 밑에서 참된 혁명가로 자란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갈수 있었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었다. 그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를 빛내어나가도록 언제나 세심히 보살피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끝없이 흠모하고 충성으로 우러러모시는것을 어길수 없는 도덕적의무로 여기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억년 드눌지 않게 뿌리내린 철석같은 신념으로, 확고한 의지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수령님께서 돌려주시신 크나큰 은덕과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였다.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사람만이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의리를 꺾듯이 지거나갈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길을 떠나 병치료를 받거나 대오에서 멀리 떨어져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원썬들의

철창속에서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며 홀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리 난관과 시련이 겹치고 생명이 마지막 운명에 놓일 때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떠나지 않았으며 번심을 모르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의리는 이처럼 더는 헤여날수 없는 역경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데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성의 의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데서 발현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것을 조선혁명의 지상의 요구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여기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수령님의 신변과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의 기관총탄을 한몸으로 막아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였으며 사령부를 모해하려고 기여드는 적주구들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제때에 적발처단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령부로 쏘이는 적들을 유인하여 죽치고 전투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철저히 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손길따라 싸워나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성의 의리는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발현되었다.

혁명가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해나갈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와 행군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 행군의 짧은 쉬잠에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지어는 행군이나 전투사이에도 아버지수령님의 로작을 학습하고 또 학습하였으며 끼니는 건너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은 단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유일한 자로 하여 생활하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었다.

혁명가는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실현해나가며 수령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수령의 참된 전사로서의 의리를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속에서 참된 혁명가로 자란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 수령님께서 주시는 명령지시라면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

철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령지시를 주실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제나 스스로 어려운 임무를 맡아수행하였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이 아버지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극진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바친 충성의 의리는 혁명적의리의 최고표현이며 빛나는 전형이다.

항일유격대에서 혁명적의리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투쟁하는 혁명동지들을 굳게 믿고 존경하며 동지들과 삶과 죽음도, 기쁨과 슬픔도 같이하는데서 높이 발현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항일유격대는 상하가 참다운 혁명적의리로 완전히 일치단결되어있었습니다. 항일유격대에서 지휘원들은 대원들을 혁명동지로, 진정한 전우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대원들은 지휘원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항일유격대가 이와 같이 상하간에 철석같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있었기때문에 15성상이란 긴 세월을 일제와 맞서 싸워 이길수 있었습니다.》(《김일성군사선집》, 제1권, 179~180페이지)

항일유격대에서 지휘원들은 대원들을 친자식, 친동생처럼 보살피고 일깨워주었으며 대원들은 지휘원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랐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동지로서 서로 배워주고 결합을 고치도록 진심으로 일깨워주었으며 혁명동지들이 피로와하고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풀어주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몸을 가늘하기조차 어려울때에도 동지들을 위하여 문뿌리를 캐고 가재를 잡았으며 어찌다 얻게 되는 밋알의 낱알도 동지들에게 돌려주었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의 희생적투쟁으로 직의 포위를 뚫고 혁명동지들을 구원하였으며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억척같은 일념으로 혁명동지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였다.

혁명동지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항일유격대원들은 모진 위험이 눈앞에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에서 온갖 고초를 같이 겪어온 혁명동지들을 저버린적이 없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혁명선원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존경하며 그들이 바라던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 억세게 투쟁하였다.

이렇듯 항일무장투쟁의 진과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의리로 서로 굳게 단합되어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본받아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혁명대오의 참다운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빛나는 귀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에게 혁명가로서의 삶의 보람과 오늘의 이 행복을 안기주시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극진한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야 할것이다.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

김 성 현

오늘 우리 당은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진다는것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자기 아돌딸을 사랑하고 돌보는 심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따듯이 보살펴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그들의 오늘의 사업과 생활뿐만아니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품성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성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혁명적립장에 기초한것으로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특성으로 부리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며 당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당이며 어머니당인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22페이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끝까지 빛내어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품이 있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게 된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은 어머니가 젖줄기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육체적생명의 자양분을 부어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넣어주어 그들의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준다.

우리 당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어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상 그 어느 세대도 지녀본적이 없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된것은 진직으로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끝까지 빛내어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조자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끝까지

빛내어나가도록 다뜻이 이끌어줄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듯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근로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워지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다 전적으로 돌리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정치적생명뿐 아니라 물질문화생활과 후대들의 장래운명까지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을 믿고 혁명과 건설을 려나가고있다.

이렇듯 당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의 보호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어나가도록 다뜻이 이끌어주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당일군들의 응당한 의무이며 사람과의 사업에서 확고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립장으로 된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줄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가 그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어머니당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로 굳게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과 대중과의 관계는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일군들을 거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알게 되고 당의 숨길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곧 당의 권위를 높이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는 문제와 련결되어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뜨거운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자기들 진실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 없듯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게 된다.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데 있다. 우리당이 것처럼 간고하고 준엄한 목공우를 헤치고 안팎의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당적, 반혁명적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련의 순결성과 사상의적통일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는것도 바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만일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를 그 무슨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대중에게 호령하고 옥설하며 관료주의적으로 일한다면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 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리단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오직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는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 것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공산주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3페이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길정적요인은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심장이 충성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불날 때 그들속에서 지친줄 모르는 청춘의 기백과 부궁무선한 힘과 지혜가 솟구쳐오르게 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단숨에 해제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

적적극성은 저절로 발양될 수 없으며 오직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임으로써만이 높이 발양될 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실속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일할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져야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인내성있게 꾸준히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번려 그들의 요건들을 쫓고 심금을 울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이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굳게 다지고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

*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 것은 오늘 일군들 앞에 나선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만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품성을 확고히 갖추어나감으로써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총복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민의 총복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교배한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교대한 공산주의적품성과 혁명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직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할 때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인민들이 있는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시여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몸소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며 근로자들을 극진히 아끼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대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귀감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닌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좋은 판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은 인민의 행복이며 인민들의 심부름군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47페이지)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인민의 행복이며 심부름군들이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심부름군이라는 좋은 림장과 판점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러심하게 배우며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행복으로, 공산주의적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군중에게 호령하고 전횡을 부리며 물을 차리는것은 낡은 사회의 반동관료배들의 반인민적통치방법으로서 우리 당

일군들의 품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을 아랑있게 대하며 그들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인민의 행복으로서의 우리 일군들의 어머니다운 품성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돌보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거나 아래사람들을 잘 돌볼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참다운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인민생활이 항상 되면 될수록 그들의 생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애지중지 자식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늘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으면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할줄 알며 그것을 재빠르게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쉬운 일과 힘든 일을 가리지 말고 언제나 주인다운 림장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간성과 문화성, 겸손성과 소박한 품성을 지니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레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6페이지)

인간성과 문화성, 겸손성과 소박성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며 어머니다운 품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일군들이 인간성과 문화성, 겸손성과 소박한 품성을 가지지 못하면 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딱딱해지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도 없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수도 없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과 함께 고상한 인간성과 문화성을 가져야 집단과 동지를 무한히 사랑하고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대중과 사상의지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되어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함께 고상한 인간성과 문화성을 지니고 조직과 혁명동지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과 같이 여기고 풀어주어야 하며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교양있고 레절바르며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적도덕규범과 혁명적의리를 잘 지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다루는 우리 당일군들은 또한 언제나 행동에서는 겸손해야 하며 특히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줄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게 생활하고 인민대중이 행동하는대로 평범하게 행동하여야 대중과 한덩어리로 될수 있고 군중관점을 옳게 가질수 있으며 사람들이 늘 찾아와서 사업상 문제뿐만 아니라 개체생활에서 제기되는 조그마한 문제들도 다 털어놓고 의논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면서도 그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할줄 알아야 한다.

인민대중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하는 데서 겸손하라는것은 결코 원칙을 양보하거나 부정과의 투쟁을 하지 말라는것

이 아니다.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원칙적인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 제때에 강한 비판을 주고 그들의 결함을 진실로 고쳐주는 일군만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자식의 잘못을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면서 엄하게 꾸짖고 타이르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결함에 대해서도 외면하거나 융화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타일러주어 다시는 그런 결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들과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편향에 대하여 추호도 융화하지 말고 원칙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신작칙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고 어깨를 돌이밀어 돌과구를 열어제끼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야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사회주의적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혁명적 도덕규범과 의리를 지키는 등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29페이지)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가지며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온갖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철저히 뿌리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식에 관한 문제로서 일군들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판점과 태도를 가질 때 그들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으로 일하게 되며 반대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지 못할 때에는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할 대신 관료주의적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바로잡으며 그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의 잔재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머리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통일적과정속에서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혁명적으로 개조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의 근원인 낡은 사상잔재들을 철저히 뿌리빼고 주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제

문화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일군들을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다같이 겸비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준비시키는것은 그들속에서 거칠고 형식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당정책을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알려줄수 있고 무슨 일이 제기되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야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대중속에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도를 하나하나 친절히 가르쳐줄수 있을뿐 아니라 그들과 합심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때문에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계속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총복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조 근 설

오늘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밑에 농업전선에서 다시한번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총성의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역센 투쟁에 의하여 모든 농산작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영농공정들이 훨씬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조건에서 농업전선은 올해에도 여전히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선년사》, 1977년 1월 1일, 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여전히 주공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알곡 850만톤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는것, 이것은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에서 올해 우리 인민이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이며 농촌경리부문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자!》는 당의 구호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사물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다.

위대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영농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은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일찌기 없었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는 반면에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주체적인 립장에서 영농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촌경리물 현대적인 기술수단들로 튼튼히 장비하며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뿐아니라 변화되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농업생산의 구체적특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농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영농방법을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과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치음으로써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영농방법이다.

주체농법에는 직지적작과 적기적작, 밀식과 포기농사,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경종체계,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방도를 비롯하여 과학농사를 짓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은 무엇보다 농업생산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영농방법이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농업생산이 아무리 현대적기술수단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도 농업과는 달리 그것은 생물학적재생산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을 옹게 리용하는 한편 선진적인 영농대책을 세워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씨불임과 모내기, 김집이, 거름주기, 가을걷이 등 모든 농업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자면 재래식 영농방법과 농기구들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오직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트랙토르,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기술수단들과 비료, 살초제, 살충제 등 화학화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야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농작물의 생리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은 일반적인 타산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 공정과 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다수확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주체농법은 또한 현대적인 농기계와 화학비료, 농약들을 옹게 리용하여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일을 할하게 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

체농법은 트랙토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의 리용에서 그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며 선진적인 재배기술에 기초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움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경리들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게 됨으로써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나갈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주체농법은 농작물의 생물학적법칙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옹게 리용하며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을 널리 도입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은 또한 농업의 집약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영농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1페이지)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의 생산을 높이는 기본고리는 집약적농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집약화는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현대농업에서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커다란 예비는 농업생산의 시초원료인 종자를 적극 개량하는데 있다. 종자개량을 떠나서 집약화나 밀식재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품종은 그것이 단순한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 막후한 영농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질수 없다. 오직 주체적인 농업과

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품종을 부단히 개량하여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주체농법은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어 소출이 낮은 품종을 다수확품종으로 만들며 농작물의 생육과정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선진적인 경종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며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리치에 맞게 비료를 치게 함으로써 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다.

이렇듯 종자개량과 적지적작, 적기적작, 합리적인 경종체계,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비롯한 주체농법이 밝혀주는 모든 영농방법들은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토지의 자연적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은 또한 한랭전선의 영향을 가장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은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길박한 문제이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앞으로 오랫동안 미치게 될것이 예견되는것만큼 그것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여야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주체농법이 밝혀주고있는 모든 영농방법들은 변화하는 자연기후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종자를 개량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을 배치하며 과학적인 영농공정과 재배방법을 밝혀줌으로써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높은 소출을 거둘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자면 농업생산의 자연환경을 적극 개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판개와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등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밀식농사를 할수 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아낼수 있다.

밀식과 포기농사, 과학적인 시비체계, 살초제에 의한 김잡이 등 주체농법이 밝혀주는 모든 영농방법들은 농작물의 자연환경을 성과적으로 개조할 때만 커다란 은을 낼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하여나갈 때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단축하고 그 성숙기일을 앞당기게 함으로써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이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방법,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된것은 농업부문에서의 대혁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8~9페이지)

주체농법이 확립되고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일대 혁명적전환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지난 시기 략후한 기술로 자연기후조건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였던 재래식영농방법을 극복하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해마다 급속히 늘어났으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도 더욱 멀리 높아졌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법칙을 더 잘 알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적인 기술수

단들의 작용원리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능숙히 다룰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우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주체농법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 철저히 관철될수 있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나가는 행정에서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농업전선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게 되었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사일을 힘껏 도와주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사이의 직접적생산관계를 더욱 밀접해지고 협동경리의 기업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농촌경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었다.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영농방법인 주체농법의 확립, 이것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농업전선을 끝바른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 세심한 보살피심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빈방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문소 찾으시여 전국 각지의 농업상태와 재배경험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현대농업과학의 연구성과와 전국 도처에서 문소 시험하신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농경지와 자연기후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며 육종 및 채종 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적

전제들을 충분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농사를 짓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마다 당 및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과 농촌현지지도를 통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영농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친히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농업기술지식보급실을 꾸리고 잘 운영하며 기술학습과 영농강습을 강화하여 모두가 다 주체농법에 정통하고 그 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농업생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것을 다 보장해주시였으며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과학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농기계와 화학비료, 농약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제철에 끝내자면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지원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농법을 마련하시고 그 관철으로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해마다 대풍을 이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조선이 생겨나서 처음보는 만풍년을 이룩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필수적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우

원한 영농방법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올해에 알곡 850만톤 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알곡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선년사〉, 1977년 1월 1일, 11페이지)

올해 농업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주체농법이 밝혀주는 모든 영농 방침들과 대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농업전선을 책임진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본질과 요구, 그 관철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가지 농사일을 하여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뜰하고 간지게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 자신이 주체농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농업생산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반양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농업생산을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지도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으며 그 구체적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농촌지도일군들은 영농기술공정을 빈

틈없이 맞물리며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생산계획과 비료공급계획, 수송계획, 로력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며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제때에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그리고 주체농법을 반복해설침투시키며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서 주체농법관철으로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전투적과업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그 구체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가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침대로 흐르는 강물을 퍼올려쓰는것과 함께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우물을 파고 줄장을 박아 지하수를 퍼올려쓰는것은 자재와 자금, 로력을 얼마 들이지 않고 도중손실이 없이 현지의 물을 끌어올려 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이미 오래전에 제기하고 실천적경험을 쌓은 지하수리용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하수혁명을 일으키는 여기에 가물피해를 미리막을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가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하여서는 또한 있는 물을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식물대기방법을 없애고 논물대기에서 인수로체계에 의한 담수식물대기방법으로 전환하는것이 중요하

다. 이와 함께 급수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물건들에서 가시기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물이 새는 구간이 없도록 잘 보수정비함으로써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하지 말고 농사에 효과있게 써야 한다.

가물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물을 잡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 흐르는 물을 피울터 모든 저수지와 물주머니들에 물을 가득 채우며 보막이와 논판지수를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저수지공사를 다그쳐 저수능력을 더욱 확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생육기일이 줄어들고 적산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며 소출이 높은 올종자를 많이 심어야 한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는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약화란 포기농사를 의미한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평당 강냉이 한포기, 벼 한포기 비우면 전국적으로 수십만톤의 강냉이와 벼를 잃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제정된 농작물의 평당포기수를 어김없이 보장하며 포기수를 적게 넣거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비료를 과학적으로 치는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풍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비료를 리치에 맞게 잘 준데 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에 맞게 제때에 잘 주며 살초제와 살충제도 과학적리치에 맞게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논두렁, 밭외둑, 하천부지 등 모든 빈땅에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다그치는것이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트랙토르와 자동차, 런걸농기계,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를 잘 수리정비하고 그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모내기과 운반작업, 가을걷이 등 힘든 일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트랙토르, 자동차의 런걸차를 많이 생산리용하여 늘어나는 농촌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업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트랙토르, 자동차, 모내는기계, 벼가을하는 기계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와 농기구를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여러가지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 비닐박막, 강재류 등 영농자재를 책임적으로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철에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할 때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두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기어이 집령하자.

수송전선을 추켜세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박 용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와 교통운수사업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들과 그 관철을 위한 전투적과업들은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교통운수를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이 승리적으로 점령됨으로써 수많은 현대적인 금속공업기지들과 동력, 화학, 기계제작, 전채 공업기지들이 새로이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되었으며 농촌경리의 공업화, 현대화 과정도 비상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상이 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수송전선을 급속히 추켜

세우는것이다.

철도를 비롯한 수송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공업과 운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혈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22~23페이지)

철도운수는 우리 나라 교통운수망의 골간을 이루고있는 부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나라의 전반적지역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실현하는 철도운수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공장, 기업소들에 원료,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를 원만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

업소들을 일떠세우고 많은 공업생산능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며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다그쳐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와 철도운수발전의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철도운수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68년 11월에 있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철도운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도 철도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비상히 빠른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을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도운수를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끌어내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인민경제 개별적부문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

을 풀며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통운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공업과 수송사이의 옳은 균형을 유지하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 도시와 농촌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강화하여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철도운수를 급속히 발전시켜 그 수송능력을 빨리 높여야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예견된 강철, 전력, 세멘트, 석탄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철도운수를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교통운수부문사업을 언제나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철도운수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하시고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며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을 올해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떠서 교통운수부문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세워주시였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전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이 밝혀져있을뿐아니라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의 철도전기화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기본간선들에서 철도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새로운 철도

전기화구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연장거리를 가지는 새로운 철도가 부설되고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물건기재를 생산해낼수 있는 튼튼한 운수기계생산기지가 꾸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철도운수를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공업토대가 마련되어있으며 수송혁명의 불길 드높이 철도운수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온 투쟁경험이 있다.

수송의 긴장성을 성과적으로 풀며 전반적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문제는 결국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역세제 싸워나가는데 달려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송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수송조직을 개편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와 그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빨리 풀고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오늘 수송조직을 개편하여 수송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철도에서 당의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집중수송체계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중화물역을 비롯한 철도화물역들을 잘 꾸리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까.》(3대혁명을 힘있게 벌

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집중수송방침은 광석, 석탄, 강재, 세멘트와 같은 물동량이 많은 화물들을 전문열차 또는 순환열차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송함으로써 이미 있는 수송수단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게 하는 우월한 화물수송방침이다.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다량화물에 대한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집중수송체계를 세워야 사회주의건설이 전진됨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다량화물에 대한 수송수요를 제때에 기동적으로 풀어줄수 있으며 화물수송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철도에서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집중화물역들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철도운수부문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집중화물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집중화물역들에 기중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상하차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짐을 싣고부리는 시간을 극력 줄이고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집중수송구간의 역구내를 개조하고 선로혁명을 일으켜 집중수송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수송혁명을 다그치 수송의 긴장성을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집합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집합수송방침은 사회적으로들을 전락하고 긴장한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세멘트와 화학비료, 정광과 랑곡을 비롯한 화물수송에 집합수송방법을 받

아들이면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힘든 로동을 없애고 짐차의 머무름시간을 결정적으로 줄일수 있다. 또한 짐을 포장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고 수송과정에 생길수 있는 제품의 손상과 류실을 막을수 있으며 수송의 문화성을 훨씬 높일수 있다.

철도운수부문과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는 집합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그에 필요한 자재를 어김없이 보장하여 만능집합과 여러가지 종류의 집합들을 더 많이 만들어 리용해야 한다.

철도수송과 자동차운수, 수상운수의 현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현대수송은 철도와 함께 다른 모든 운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기동적으로 보장하고 수송의 효과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철도수송과 자동차운수, 수상운수의 현대수송을 강화해야만 철도의 긴장한 부하를 결정적으로 덜어줄수 있으며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현대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방침대로 자동차와 련결차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자동차에 의한 먼거리수송과 가까운 거리수송을 옹계 배합하며 도로정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배에 의한 화물수송량을 끊임없이 늘여야 하며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판수송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오늘 집중수송, 집합수송, 현대수송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송 조직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철도운수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맞물리고 운행표를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세워 불

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또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군대와 같은 강철같은 규율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철도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할수 있으며 수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켜 늘어나는 사회주의건설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일사령지휘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철도통신수단들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수송지휘에서 기동성과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수송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철도의 수송능력은 운수수단들의 장비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운수수단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야만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의 빠른 발전에 수송을 확고히 앞세울수 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철도전기화구간을 늘여 견인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화물구성의 특성에 맞게 대형화차와 특수화차를 더 많이 생산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련차의 견인중량과 운행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고 수송능력을 빨리 늘일수 있다.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철도에 대한 전 인민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주인은 전체 인민이며 철도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북무하고있는 귀중한 민천이다. 오늘 철도는 전국에 뻗어있으며 인민경제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철도운수를 리용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철도를 적극 지원하자는 것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되며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빨리 풀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철도를 지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자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철도전기화를 다그치며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협동생산물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집중화물역을 꾸리는데 필요한 철도기중기, 벨트콘베아, 구내운반차와 같은 상하차기계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로력적으로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기업소 진용선들에 화물저장시설을 꾸리고 집중수송편차가 들어와닿는죽죽 집을 빨리 신고부리기 위한 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이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신로를 비롯한 철도시설물들을 정비보장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오늘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철도를 더욱 발전시키며 수송의 긴장성을 풀자고 하면 모든 일꾼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전집》, 제5권, 제2판, 254페이지)

집중수송, 집합수송, 편대수송 방침을 관철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

로 푸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통운수정책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운수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주인다운 입장에서 온갖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여야만 수송조직에서 혁명적전변을 일으킬수 있으며 수송의 긴장성을 빨리 풀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집중수송, 집합수송, 편대수송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모든 지도일꾼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으로써 하나의 집중수송편차를 편성하고 운영하는데서도, 하나의 집합을 만들고 리용하는데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주인다운 책임성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높여 모두가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사회주의건설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수송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며 당면하여 집중화물역을 꾸리고 집합과 편결차를 만드는 등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수송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심 형 일

오늘 우리 사회에는 사회주의적법생활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이속에서 숭고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전진운동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은 나라에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생활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값된 모습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밀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여 온 자랑스런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법집수단들의 역할을 높이며 국가사회생활을 올바로 조직진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므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법건설의 참다운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인 법규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범위에서 법규생활체제를 더욱 완성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적법생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몸소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 사회에서 진행되는 특수한 생활분야이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은 모든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권력적성격을 띤 규범생활이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생활이라는 바로 여기에 도덕규범생활을 비롯한 일반적생활과 구별되는 본질적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분야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특수한 생활분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은 프롤레타리아독재실현의 한 형식과 방법으로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평도밀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썹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상, 기

술, 문화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속에서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이것은 자각적인 사회주의적법생활의 특수한 생활형식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법적규범의 준수집행과정으로서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전반을 법적 규범과 질서 속에서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온갖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상혁명을 다그쳐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5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인간개조, 사상개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끊임없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혁명적인 법생활을 강화할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바와 같이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이 근로인민대

중을 사상적으로 질식시키고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형리적이능으로 일관된 반동적부르조아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선진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거대한 인식교양적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법규범과 규정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고상한 공산주의도덕의 중요 요구들이 명확한 행동규범의 형태로 체현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우리의 혁명적법규범에는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기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사회주의법의 이러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은 그자체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커다란 인식교양적작용을 하며 법규범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때 법의 인식교양적 목적과 역할이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천활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의 가장 능동적인 계기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법규생활과정은 국가 규율과 질서 확립의 기초인 동시에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형성시키고 공고화하며 법의 인식교양적역할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기본령역으로 된다.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집행하는 실지행동을 통해서만 혁명적 질서와 규율이 확립될수 있으며 또 그 실천적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법에 반영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히 체득하게 되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법규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의 해독성을 실지로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며 공산주의적인 도덕을 구현하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하는데 습관되게 한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 행정은 사람들을 제인 집단규율과 강한 질서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힘있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은 사람들이 국가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집행하는 과정과 함께 법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에 대한 국가의 법치통제과정을 포괄한다. 이로부터 혁명적법규생활속에서 사람들은 국가의 법규범을 어긴 경우 커다란 정치도덕적비난과 규탄, 엄격한 국가적 추궁과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을 강화할 때 국가의 법규범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공동행동준칙의 요구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낡은 사상잔재의 반현이 억제되게 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적인 투쟁으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해나가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이 사상교양과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여세를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단련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와

문화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선집》, 제4권, 1969년판, 147페이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은 경제와 문화 생활영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축하는 온갖 낡은 유물을 가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거창한 사회개조사업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적법규생활은 경제와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경제문화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들에는 근로인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과 봉매화의 악랄한 도구인 반동적부르조아법과는 달리 생산과 건설, 분배와 유통,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과 교육, 보건 등 제반 문화건설사업에 필요한 활동원칙과 행동준칙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있다.

우리의 법규범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당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경제문화기관, 기업소들이 계획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의무적인 요구를 제시하며 경제업무,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모든 경제문화관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 및 통제적 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런데 우리의 법규들의 이러한 역할은 저절로 실현될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계획규율, 로동규율과 같은 국가규율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인 규률과 정연한 질서가 서있는 내서 훌륭한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생활의 강화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규률이 철저히 보장되게 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생산 및 관리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떠밀어준다.

오늘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문화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경제규모가 미할바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의 령계도 매우 복잡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들을 자각적으로 준수집행하며 모든 부문에서 국가규률을 강화하여야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만에 치차와 같이 맞물려 빨리 전진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양상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 점령을 힘있게 앞당길 수 있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온갖 적대적요소들을 철저히 짓부실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규률과 질서가 정연하고 사상체제가 확고히 서면 모든 부정적요소들을 제때에 적발폭로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00페이지)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전압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들어 뛰어나가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으로 시 그것은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사회

주의 경제, 문화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안팎의 계급적원썹들과 온갖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파썸악당놈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비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화국복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과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극소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준동도 의연히 남아있다.

계급적원썹들과 반혁명분자들은 제도와 질서가 문란된 틈을 노리고있으며 파괴암해책동을 음흉하게 시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집단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놈들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으며 계급적원썹들과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적발폭로분쇄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이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온 사회를 주체의 피단디 세차게 맥박치는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실로 사회주의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항구적으로 튼튼히 들어 뛰고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운영해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

*

심화발전되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적법규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혁명이 진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규범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계속 강화하고 그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만 계급투쟁과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더욱 심화시키고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적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4페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최고법전이며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주의헌법의 본보기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과 정책이 법적으로 구체화되고 집약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사회생활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념원과 요구를 자신이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생활규범, 행동준칙들을 집약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그속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더 잘 알수 있고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규범과 규정의 본질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지키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는 또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완성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행동 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426페이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정하고 끊임없이 완성하는것은 전사회적법위에서 정연한 법생활체계를 마련하고 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근로인민대중을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행동준칙으로서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람들의 활동의 기준이며 법생활을 하게 하는 기초이고 전제이다.

법생활의 성격과 구체적표현형태는 법규범과 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되며 법생활의 운영과 그 성과도 법규자체에 얼마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준칙으로 되는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 사업이 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규체제를 완성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법에 대한 선전사업, 준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일꾼들이 법규생활에 숭선 모범적으로 참가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

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간부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히 여기고 그 요구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4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5페이지)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고 준법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법생활은 근로자들이 법과 규정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천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인것만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과 준법정신은 그들이 법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하고 자각적열성을 내어 국가법규들을 성실히 준수집행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오와 준법정신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들은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실속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국가법규에 대한 높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법규해설선전사업을 깊이있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것이 몸에 꼭 배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법규들을 홀시하거나 차요시하는 현상과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통제사업을 용케 배합해나가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법규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실히 준수집행된다. 그러나 법규정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통제적작용이 힘있게 안발침될 때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된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의 준수집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각성만을 일면적으로 보고 그것으로 법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홀시하고 약화시키는것으로

된다. 법적 통제와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한 형식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법적 통제와 투쟁은 그자체가 낮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교양수단이며 위법적요소들의 반현을 미리 막는 커다란 예방적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정치사업사업, 준법교양의 효과를 튼튼히 안발침하고 사회성인들을 혁명적법생활에 더욱더 익숙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법규준수집행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국가의 법규정들을 존중히 대하며 그 준수집행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숭고한 의무이다.

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준수집행할 사회의 한 성원일뿐아니라 사회주의적법생활을 직접 조직운영할 책임적인 임무를 지니고있다. 따라서 일군들이 혁명적법규생활에서 모범이 되는것은 응당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며 대중을 혁명적법생활으로 이끌어어나가는 데서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준법에 대한 높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법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면서 대중의 법생활을 실속있게 조직운영해나감으로써 전사회적범위에서 혁명적법규생활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회주의적법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종국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남북협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 이며 현실적인 방도

김 수 천

오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
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장애를 제거하고 갈라
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
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은 전체 조선인민
에게 해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
다주고있으며 그것은 해가 바뀌고 세월
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민족의 영구
분렬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요구로부터 지난 1월
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
기 위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
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할데 대한 문제, 민족내부
의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대단결
의 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문제 그리
고 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
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
의를 소집할데 대한 4개 항목의 구국방
안을 내놓았다.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가 내놓은
4개 항목의 구국방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원칙
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공
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그것은 통일
문제해결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
신이 주체가 되여 자신의 민족문제를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
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4개 항목의 구국방
안은 또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
의 절절한 념원과 조선의 평화와 평화
적통일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
은 지향, 조성된 정세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은 민족이 한결같이 념원하는 조국통
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
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여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해쳐나가야 한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
력량은 조국통일의 주도적력량이다. 이
두 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함으로써만 나
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
갈수 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자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전쟁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항시
적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되어있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는 근원으로 되

고있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부터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내부의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온 민족이 단결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사이에 반목과 대결이 고위되고 오해와 불신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전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남북조선인민들사이에는 서로 반목하고 대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더우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을 앞에 놓고 불화와 반목이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민족분렬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 모든 문제들은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원래 북과 남이 협상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기본방도로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된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자들이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으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게 된 이상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의 길을 모색하는것은 조미의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기본방침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 그리고 조국통일 5대방침에 천명된 폭넓은 협상방안을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구체화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9페이지)

남북협상방안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담보하는 구국방안으로서 통일문제해결의 실제적담당자인 북과 남의 인민대중을 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밀쳐나서게 하여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거족적사업으로 되고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을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온 민족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이익과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다같이 분렬을 막고 통일을 념원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깊이 우려하고있는 애국력량이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애국자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고 사상과 정치적리념은 비록 다르지만 조국통일문제에서는 모순이 있을수 없다.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구국대책을 세운다면 조국을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얼마든지 통일할수 있다.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의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

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는 조국통일문제는 남북조선전체 인민들의 사활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의 리익에 관한 문제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오직 나라의 주인이며 그의 직접적당사자인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실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내부의 모든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의 근본요구가 구현되어있는 정당한 방안으로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거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 된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뚫고 반일투쟁에서 함께 싸웠으며 해방후 미제가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나라의 분렬을 획책하였을 때에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구국투쟁을 과감히 벌렸다.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애국력량은 능히 단결할수 있으며 협상의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사활적요구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헤치거나갈수 있다.

조선인민은 자주성과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자기 민족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인민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구국방안을 외면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공명정대한 구국방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들을 반대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9페이지)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대신 이미 남아빠진 그 무슨 <불가침조약>이라는것을 들고나오면서 도전해나서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이 떠돌고있는 이른바 <불가침조약>을 놓고 말하면 그것은 결국 조선에서 긴장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분렬을 고착시키며 그 막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감싸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박정희피뢰도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통일이 아니라 민족분렬의 길로 나가고있으며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로 출몰을치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미일상전들에게 매달려 대화와 협상의 길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렸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계속 추구하고있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파탄지경에 이른것도 전적으로 미제의 사책을 받는 남조선피뢰들의 배신행위때문이다.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대결과 분렬을 꾀하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기만적 구호밑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

박정희매국역적놈은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외면하고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을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으며 상진들에게 퇴물을 섞기바치면서 제놈의 장기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반악하고있다.

박정희피퇴악당놈은 남조선에서 전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파쇼테로통치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은 남녘땅을 특무정보망과 경찰망으로 뒤덮어놓고 《사회안전법》, 《긴급조치》 등 파쇼적인 악법들을 조작하여 남조선사회전반을 무시무시한 공포지대로 만든 박정희매국역적놈은 《반공》의 기만적구호밑에 매일과 같이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파쇼독재가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는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학원의 자유를 주장하는 청년학생들, 민주주의를 념원하는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들까지 체포투옥되고 무참히 살해되고있다.

얼마전 박정희피퇴악당은 남조선의 현 암흑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해나선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에게 이른바 《국가반역죄》를 들씌워 끝내 처형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피퇴악당은 또한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자석방,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시위에 밀쳐나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체포구금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운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 인사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턴 일 벌리고있다.

이것은 박정희피퇴악당의 파쇼폭압통치의 포악성과 야수성을 보여주는 류례 없는 살인행위이며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잔폭한 인권유린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행위이다.

날로 우삼해가고있는 박정희파쇼무리들의 폭압만행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초보적인 인권과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

히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폐허지대로 전락되었다.

박정희피퇴악당이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살인폭압행위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며 제놈의 더러운 목숨을 하루라도 더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발악이다. 역사적으로 파쇼독재자 치고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벌리지 않은 놈이 없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박정희피퇴악당놈이 제아무리 나라의 영구분열책동과 파쇼폭압에 매여달린다 하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제놈의 운명을 전지낼수 없다.

박정희피퇴악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4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더는 어리석은 책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면 석회회가 내놓은 4개 항목의 구국방안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성원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도 정계와 사회계,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은 거리의 통일열망과 지향을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열렬히 지지해나서고있다.

제정당, 사회단체면석회회가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은 또한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으며 그를 적극 지지찬동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신흥세력나라들, 국제민주단체들과 친선단체들, 련대성조직들과 각국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로부터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편지, 성명, 전문들을 보내오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이를 지지하는

현대성 집회들과 국제회의들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세계 70여개의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브뤼셀 국제대회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박정희피괴도당의 파쇼독재통치를 한결같이 규탄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 방침과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가 내놓은 4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한결같이 지지환영하였다.

이 모든것은 폭넓은 남북정치협상방안이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진 구국방안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으며 우리의 정의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이 더욱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그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로 더욱 늘어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북과 남사이에 정치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할수 있도록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정치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민주주의가 발양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쇼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수 없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74페이지)

파쇼폭압이 전정에 달하고 광란적인 전쟁책동과 《반공》소동이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없다. 나라안에 외래제국주의세력이 있고 그 앞잡

이들의 매국배족적책동이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유와 권리, 전민족적 화목과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박정희피괴도당의 파쇼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제반파쇼투쟁의 기치밑에 모든 대중적민주력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만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악랄한 집행자이며 군사특무테로집단인 박정희피괴도당의 파쇼독재를 끝장낼수 있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다.

박정희피괴도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남조선피괴들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정당한 구국방안의 실현을 끝까지 방해하고 온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나라와 민족앞에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대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연망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남북협상의 방법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반제 자주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

김

용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세계, 새사회 건설에 용감히 일떠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인류역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세계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고 세계혁명발전과 인류해방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명확한 투쟁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1~42페이지)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이미 쟁취한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완전한 경제적자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서 위력한 무기로 된다.

단결과 협조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위업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온갖 압박과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그들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제투쟁과 하나로 연결되어있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은 국제적인 반제투쟁속에서 진행되며 세계적범위에서 혁명투쟁이 강화될 때 매개나라의 혁명운동은 커다란 지지성원을 받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굳게 단결하여나가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는 이 나라들에 대한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자신이 줄기찬 투쟁으로 자기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다시 지배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반악해나서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곳에서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전복과파괴운동과 살인테로행위 등 극히 악랄한 방법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을 와해시키며 압살하려 하고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친선》의 이름을 쓰고 신흥세력나라들에 기여 들어가 그들의 내정에 광풍연히 간섭할뿐 아니라 《식량원조》, 《무기원조》 같은것을 휘두르면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투쟁대오에서 하나하나 떼내어 우경으로 돌리세우려고 꾀하고 있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리념과 제도, 신앙의 차이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그들사이에 뼈기물 박고 불화를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신흥세력의 내부를 혼란시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전선을 허물어보려고 미치날뛰고있다.

중근동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평화와 안전이 유린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것은 놈들의 반혁명적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그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내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는에서 찾으

려 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시키고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지켜나갈수 없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해방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분렬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고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가야만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단결과 협조는 신흥세력나라들의 손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면 승리할수 있고 분렬하면 각개격파될수 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새 력사 창조에 일떠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면 커다란 힘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58페이지)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망라하고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를 포괄하고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압제 밑에서 비통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이 나라 인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를 건결히 수호하기 위한 혁명적정열에 차넘쳐있다.

이러한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나가면 반제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혁명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비록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굳게 단결하여 강력한 반제통일전선을 이루고 반제전선의 모든곳에서 강한 투쟁을 벌린다면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서버릴수 있으며 농들을 해어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몰아넣을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 국제무대에서 낡은 국제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놓을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낼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관계질서를 일방적으로 저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세계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여왔으며 오늘도 의연히 이 낡은 질서에 의거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이 나라들에 대한 억압과 약탈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세계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오늘에 와서 더는 참을수 없는것이며 세계인민들의 이익에도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다.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끝장내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평등과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위업으로 된다. 이 정의로운 위업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당당한 민족적독립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세계의 대다수를 이루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합된 역량으로 진출하여 집단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국제무대에서 낡은 질서를 깨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끝장내고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벌린 공동투쟁, 제국주의의 온갖 약탈과 공간 정책을 짓부시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막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워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은 더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부원을 약탈할수 없게 될것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더 빨리 촉진될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 또한 이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사회적진보와 나라의 융성번영을 빨리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큰일을 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3페이지)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랜 기간 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뒤떨어진 경제를 넘겨받았으며 다같이 발전도상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이러한 후진성을 이용하여 이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경제적명맥을 틀어쥐

며 무제한한 착취와 약탈을 계속 감행하려 하고있다. 만일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민족국가들이 자립적경제를 건설하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제국주의자들에게 의거한다면 이미 쟁취한 정치적자주성을 지켜나갈수 없고 언제까지나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약후와 빈궁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경제적약탈의 기반을 허물어버리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신흥세력나라들앞에 나선 중요한 역사적과제로 되고있다. 이 과업은 단결과 협조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하면 이 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난관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 자리잡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원이 무진장하게 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한다면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또한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많이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처하고있는 자연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발전로정이 각이한데 따라 그들이 가지고있는 경험과 기술도 또한 다양하다. 나라마다 광산채굴과 원유가공, 물고기가공을 비롯한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농작물재배와 축산, 수리화 등 훌륭한 경험을 쌓고있으며 기술을 가지고있다.

100여개에 달하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이러한 좋은 경험과 기술을 서로 충분히 교류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제기술

적문제들도 능히 해결할수 있는 고귀한 밑천으로 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강력한 경제적누대를 이룩하여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나갈 때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약탈의 기반을 청산하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참으로 큰일을 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이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가혹하게 약탈하여 살찌운 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의 《원조》 없이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벌이고있으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원에 의거함이 없이는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이 긴밀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여 튼튼한 민족경제를 하루빨리 건설하고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에속과 가혹한 약탈을 허용하지 않게 될 때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은 끊어져나가게 되며 제국주의멸망은 더욱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참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예측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민족적번영과 전체 신흥세력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을 크게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길에서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오래동안 제국

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왔으며 오늘은 다같이 착취되고 압박받는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의 투쟁의 공통성과 독립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밀에 나아가는 오늘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굳게 련결되어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한 기초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남을 예측시키고 지배하려거나 남의 이익을 희생시켜 일방적리득을 취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으며 서로 반목하거나 배척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다. 따라서 그들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며 자기 나라의 이익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전반적이익을 위하여 힘을 합쳐나간다면 참으로 불패의 혁명대오를 이룩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는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의 위업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어있으며 공동의 타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협조를 꾀함으로써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정의의 공동투쟁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멸망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5호(무제 4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77년 5월 1일 판정·1977년 5월 5일

7-7599 주소·평양시 동대천구역 문신1동 값 3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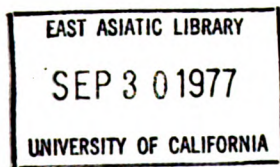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沈國書公司
LIU PUB

4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2)
-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강령을 빛나게 관철
하여 우리의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자.....(10)
-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오백룡(16)
-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정전희(22)
- 인민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리기술(28)
- 주체의 군사사상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군사사상.....리지연(35)
-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한인호(42)
-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자.....문정석(49)
- 도시경영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김형진(54)
-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김원희(59)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3대혁명의 힘찬 진군속에서 웅대한 6개년계획과제가 빛나며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한층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혁명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높이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속히 앞당겨야 한다.

1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질데 대하여 일관하게 가르치고계신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혁명적인 립장과 태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422페이지)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침략자와 억압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마련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힘이 있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이 되여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역사를 창조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주인다운 태도와 입장을 가질 때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입장을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혁명과 진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 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자각은 새생활창조를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모든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하에서 비로소 나라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창조자이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놈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밖에서 정치밖에서 자본의 착취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착취와 압박, 기아와 빈궁, 사기와 협잡 등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는 수천년래의 계급사회에 종지부를 찍고 수백만 피압박, 피착취 근로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펼쳐주는 위대한 혁명적사변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온갖 계급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기 운명의 주

인,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임무와 초소가 다룰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주인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밑에 살며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살며 일해나가자면 이 사회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자각적열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줄 아는 수백만 대중의 자각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3페이지)

혁명과 진실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적열성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회에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만 이 사회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

들이 주인된 자각을 망각하고 일을 되
는대로 하게 되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킬수 없으며 안팎의 원수들의 침
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게 될것이다. 경험은 인민대중이 나라
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서는 사회주의제
도의 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사회주
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질수
록 사람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적 모든 제부가 나라의 부강발전
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과 건설
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이 날
로 향상되고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아무
런 근심걱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
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여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속에서 생활이 풍족해
지는데 따라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적열
성이 마비되고 안일성과 해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을 끝까지 계속
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 그들이 모
든 일을 주인답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보다 유족하
고 문명한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성실하게 참가하게 되며 어떠한 조건에
서도 혁명하는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
게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
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일을 주인답게, 간지고 알뜰하게 조직
하고 집행해나갈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
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

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
다.》(《선전사》, 1977년 1월 1일, 12~13페이지)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
게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력
사적위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의 주
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어 일하지 않고서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 사
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자연
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
대한으로 발양시켜 모든 인민들에게 더
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창조적사업으로서 그것은 모든 당
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
도를 가지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창
발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창발성과 책임
성은 주인다운 태도의 발현이다. 당원
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있어야 고도의 창발성과 책임
성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
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
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
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
다운 태도를 가지고 아글타글 애쓰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
켜나갈수 없다.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
다. 혁명사업을 하자면 일군들과 당원
들이 일을 찾아하고 온갖 창발성과 자각
적열성을 내어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적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새로운 부문들과 생

산공정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경제내부의 생산적연계가 더욱 복잡해진 사정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모든 일을 알뜰하고 간지제 해나갈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요구되는것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창발성과 책임성이며 주인다운 일본새이다.

지도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초소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만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예비는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된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일부 경제부문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전반적인민경제의 전진속도를 높이게 하는 문제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인것이 인민생활에서 더 큰 온을 나타내게 하는 문제도 다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기풍으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가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를 쓰며 주인답게 일해나간다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더한층 향상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2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초소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

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결심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는 그 어떤 사리와 공명도 있을수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혁명의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이 있으며 숭고한 의무가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이지)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이 립장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혁명실천의 요구와 구체적환경에 맞게 풀어나가는 적극적립장이다. 이 립장을 견지해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와 같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시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

로, 창조적으로 성과있게 풀어나가게 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해야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라 혁명위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떠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 수행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0~261페이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투쟁이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혁명적본분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진사로 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하기 위하여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실질적인 사업성으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첫 책가는 의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는 고결한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역세제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는 오직 무한한 헌신성과 창발성만이 요구되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쉽고 어려운 일을 가리는 현상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우리에게 오직 그것을 한치도 어기지 말고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무조건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어김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과 불 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기어이 집행하고야마는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선혁명의 참다운 주인공들이며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진사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또한 당원들과 지휘성원들이 자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관장해 꾸려나가는 데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

대하는데서뿐만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주인답게 일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이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혁명임무는 서로 달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 전반적혁명위업의 전진을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며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혁명적본분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성실히 일하여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전반적조선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백번 넘어져도 백번다시 일어나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끝까지 해내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한시도 헛되이 보냄이 없이 언제나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일해야 하며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서는 잠시도 견디지 못해하는 혁명적기질을 높이 발휘하여 임무수행에 온갖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부문에 주신 교시와 현지교시를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하여 책임질 줄 모르고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것은 주인다운 태도와 인연이 없다.

우리는 누가 보진말진, 누가 알아주진말진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언제나 책임적으로 성실히 일해야 하며 일단 분공받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억세게 싸워 끝장을 보코야마는 기풍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의 경우에 있어서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일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주인답게 일하여야 전반적경제사업이 잘되어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는 끝없는 충성심과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어렵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면 나설수록 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짜고들어야 하며 새 과업 수행을 위하여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는 모두가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의 믿음직한 원천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에 창조된 물질적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여야 하며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주인답게 참가하는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때 살림살이전반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여러가지 문제에 머리를 쓰게 되고 당직, 국가적 립장에서 모든 일을 참신하게 해나가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된 모든 재부를 알뜰히 거두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에 이르기까지 나라살림살이전반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할 때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계획권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우리는 설비와 자재를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불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늘리려면 설비와 자재를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설비와 기계들에 대한 점검보수사업을 잘하여 그것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며 설비들을 더욱 능률적으로 개조하여 노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 석탄, 세멘트, 기름, 물을 비롯하여 모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알뜰히 관리하고 극력 절약하며 적은 자재와 원료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군증적운동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자기가 일하는 일터와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를 써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지법을 잘 지키고 있는 땅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 강하천정리, 산림건설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로지부실을 막고 국토와 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귀중한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리용함에 있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옹화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주인다운 태도의 중요한 발현이다.

정재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하자는 정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4페이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투쟁은 김쌍인 난판과 시련을 겪고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따라서 혁명투쟁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판이 있을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는 사람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난판과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결국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 혁명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온갖 애로와 난판을 용감하게 박차고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조선과 구실을 앞세우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는것도 하지 않고 일이 잘되지 않는대 대해서 가슴아파하지 않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은 혁명가의 품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자체로 훌륭한 조건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맨주먹으로 연길주관을 만들어내던 그러한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우리앞에 불리한 조건이란 있을수 없으며 전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있는것은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온갖 애로와 난판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정신, 이러한 기풍으로 싸워나가야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있는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해내며 아무것도 없는데서도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필요한것을 훌륭히 만들어냄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사업태도이고 일본새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며 우리 혁명의 목적과 전략전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근본립장을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원썬들과의 피어린 격전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학습에 피라는 정열을 기울이던 그러한 정신, 그러한 기풍을 본받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혁명적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

투쟁을 벌려야 한다.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없고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실속이 없이 걸치려만 하면서 발라맞추는 식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사업태도는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우리는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생산과 건설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일을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고 그 어느 분야에서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뿐 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것을 요구하고있다. 누구나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언제나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답게 일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며 분초를 아끼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당정책을 학습하며 자기 전공분야에 정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강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리의 국토 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지난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사회주의토지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토지법의 채택과 그 집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법에 대하여 하신 교시와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새 토지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 토지관리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체의 토지법전이며 토지건설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토지법을 마련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토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또하나의 탁월한 역사적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국토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제도에 맞는 토지법을 만드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농촌에서 이미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종국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농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었으며 농업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빨리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당면하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것만큼 법규범과 규정들도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7페이지)

토지분야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들과 토지건설사업에서 우리앞에 나르고있는 과업은 토지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법적으로 새롭게 규제할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후에는 토지개혁법령으로 땅을 다스려왔으나 농촌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어 협동농장이 나오고 국영농장이 많이 생긴 사회주의하에서는 여기에 맞는 토지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토지 건설과 보호, 관리 사업을 진행하여야 토지를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분야에서 나서는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새로운 토지법의 제정을 발기하시였으며 몸소 그것을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새 토지법은 토지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국토를 개변하고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법화한 또하나의 기념비적 법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회주의토지법에는 토지의 개념을 발달이하는 땅만이 아니라 도로, 하천, 산림, 간석지까지 포함시켜 폭넓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토지소유관계만이 아니라 토지관리와 토지건설, 토지보호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새 토지법은 우리 나라 토지의 역사적지위를 규정하고 사회주의적토지소유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우리의 토지를 오직 근로인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리용하며 토지소유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방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새 토지법에서는 또한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철저히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을 규정하고 국토건설총계획작성의 원칙과 내용들을 밝혀줌으로써 국토와 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방도를 명시하고있다.

새 토지법은 이와 함께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들을 새롭게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보호관리와 자연개조 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새 토지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사회주의토지법이다.

사회주의토지법은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고 숭고한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는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안팎의 원썬들의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위하는것을 국가와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고귀한 재부로,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으로 확고히 고수되도록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새 토지법에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로서 오직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제반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 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는것이 규정되어있다.

그리하여 토지의 소유와 리용에서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혁명을 전진시켜 토지건설분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들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토지법은 또한 가장 인민적인 토지법이다.

사회주의토지법에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으며 토지의 보호와 건설, 관리사업을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벌려나감으로써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전망이 담보되어있다.

새 토지법에는 또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보호하며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도시와 마을, 휴양지를 합리적으로 건설하며 연안과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

며 공해현상을 미리막기 위한 제반 대책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토지법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국토건설분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해나간데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월한 토지강령이다.

우리 인민이 오늘 이처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토지강령, 주체의 토지법전을 받아안게 된것은 토지문제해결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여오신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로고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선시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과 혁명투쟁에서 토지문제가 차지하는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언제나 토지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주체적인 토지강령을 작성하시고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토지문제해결의 혁명적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쌓아올리신 토지문제해결의 고귀한 업적과 빛나는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문제해결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튼튼한력사적뿌리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3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문제를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반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전당과 전체 인민을 토지혁명수행으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개혁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수천년을 두고 농민들을 짓누르며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청산되고 땅은 오직 발간이하는 농민들이 가지는 새로운 토지소유관계가 확립되었으며 농업생산력은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나 넓은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참으로 토지개혁의 실시는 우리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게 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이였으며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개혁에 뒤이어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국토와 자원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된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시면서 사회주의혁명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농촌에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그리하여 토지의 사적소유로 인하여 내려오던 낡은 유물인 개인경지의 경계가 없어지고 토지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촌건설을 나라의 통일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의 발전방향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정책의 휘황한 빛발아래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

와 관리가 끊임없이 개선된 결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면서 국토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강산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토지는 조상때부터 물려받아 오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천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천리강산 이외에 다른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관리하고 개량하여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땅을 잘 리용만 한다면 전체 조선인민이 얼마든지 잘살아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76페이지)

우리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토건설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몸소 전투에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몸소 첫삽을 뜨신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대자연개조사업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손수 나무를 심으신 그때로부터 전군중적목화운동의 발단이 열리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엄숙한 시기에도 승리한 조국땅에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전후시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국토건설사업에 돌리도록 하시고 몸소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국토건설의 크고작은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 북반의 백무고원으로부터 남으로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의 무연한 간석지로부터 동해안의 파

도사나운 포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쉬임없이 걷고 걸으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결과에서 메달랐던 땅에 생명수 흘러넘치고 버림받던 산이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으로 변하여 조국강산은 어디를 가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의 동산,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짧은 기간에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할수 없었던 것처럼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토지보호관리와 국토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과 같은 자랑스런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토지법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토지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야 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된것이다.

토지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국토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집대성한 사회주의토지법의 채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 조치로 된다.

사회주의토지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하며 국토건설사업을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벌려나감으로써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사회주의토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토건설과 국토개변의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 조국강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심에 넘쳐 진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

의토지법은 토동계급의 국가가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나가는 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귀중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토지혁명과 토지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집대성하시어 새로운 토지법을 마련하심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토지문제, 국토건설 문제 해결의 길을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 토지법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하고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락원으로 가꾸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 있는 영예로운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책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토지건설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 국가기관들,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토지건설을 힘있게 진행하며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과 협동단체들이 토지법에 제정된 원칙과 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철저히 집행할 때 우리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 국토개변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은 더욱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

의토지법을 정확히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건설총계획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토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만 국토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반복공사를 미러막을 수 있다.

사회주의 토지법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인민의 리익, 인민경제발전 계획과 그 전망, 모든 자연 조건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국토건설을 철저히 계획화하며 도로를 건설하고 저수지를 만들며 강하천을 건설하고 공장을 새로 배치하며 부락과 도시를 형성하는 등 모든 것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강산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 토지법을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토지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경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 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와 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땅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서

는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며 하천부지와 밭머리에 꽃버들을 심고 석축을 하는 한편 특히 비물에 흠모래가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강상류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하고 사방야계공사를 하여야 하며 탄광, 광산들에서 침전지와 버력 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은 농민들이나 이 부문 일꾼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토지를 보호관리하는 사업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다 관심을 돌리며 여러 부문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토건설,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건설을 비롯한 토지보호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토지건설사업을 잘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강령을 훌륭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토지건설을 잘하여야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높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민들이 보다 윤택하게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농업지도기관,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토지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 새땅을 많이 얻어냄으로써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고 작은 모전을 큰 규격모전으로 만들며 논두렁과 밭둑을 없애고 밭관개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달려붙어 밭관개를 마쳐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후 짧은 기간에 10만정보의 밭관개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 이후에는 불과 20여일 동안에 4만 2천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줄짅을 박아 10만 정보의 땅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매우는 위대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위력한 조직적력량 앞에는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 토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해야 할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도 영예로운 것이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토지법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 토지법을 철저히 집행해나감으로써 국토건설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국토관리기관,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토지건설강령을 깊이 해설침투시키며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토지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과 부문별 규정들을 만들고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모든 기관들과 공민들이 새 토지법의 요구대로 토지를 건설하고 보호관리하도록 국가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토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 강토를 인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의 낙원으로 가꾸시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오 백 룡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한 승리의 영예드높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보천보전투승리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승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떨친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또한 보천보전투승리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에 차넘치고있으며 수령님께 알선단심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

※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조국전군방침의 빛나는 구현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에로의 전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전국적범위에서 새로운 앙양에

로 이끌어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로부터 제기된 력사적인 과업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륙침략을 앞두고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박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조선은 말 그대로 암흑의 천지로 변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갇은 천대와 억압, 수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우리 인민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전군을 일일천추로 바라고있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깊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념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1937년 3월 29일 력사적인 서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전군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들로서 암운속에서 신음하는 부모형제들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대로써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아들딸들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위풍당당히 국내에 나타나기만 하여도 그것은 인민들에 대한 큰 고무로 될것이며 우리가 총을 몇방 쏘아도 인민들은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될것입니다.》(《대부대에 의한 국내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7~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전군의 전략

적방침은 대부대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그 멸망을 촉진시키며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일떠세움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상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웅대한 방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전군방침은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와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방침이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다.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 앞에 나선 영예로운 지상의 혁명과업이었다.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결성하고 형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다 겪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벌리는것도 바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것이었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 동지를 두고있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없으며 따라서 놈들을 조국땅에서 완전히 소멸할수도 없다. 오직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하여야만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조국땅에서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수 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숭고한 목적을 이룩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임무와 책임을 다할수 있다.

실로 조국전군방침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방침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전군방침은 또한 당시 조성된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우리 혁명발전

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방침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국내진출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의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우리에게서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난 수년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된 공산주의대오가 있으며 영웅무쌍한 혁명무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인민들은 강도 일제의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탄압과 압박 속에서 우리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으며 우리가 투쟁의 길로 인도해줄것을 고대하고있습니다.》(《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 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5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확대되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본뜬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성장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배두산근거지가 창설공고화되고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강화되어 국경인대와 국내전일까지 혁명조직들이 본뜬히 꾸러지게 되었다. 이 주체적인 혁명력량은 우리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올리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에로의 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심멸적타격을 주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상으로 끌어올리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침략자들의 파조적폭압과 강도적타만, 민족말살정책

으로 하여 원한의 피바다로, 암흑의 천지로 변하였다.

일제의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탄압과 압박을 받으며 빛을 잃고 사는 우리 인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광복의 구성으로 바라보면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북마르게 기다렸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진군방침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그 어떤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우리자신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한 가장 정당한 혁명적방침이었다.

조국진군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중적인 군정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조국진군을 위한 부대의 군사정치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시면서 원정대를 편성하시고 조국진군에 필요한 적정자료와 자연지리적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주도세밀한 전투계획을 짜시였으며 물질적준비도 충분히 갖추시였다.

이러한 빈틈없는 준비에 기초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역사적인 조국진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군사요충지였던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개시하시였다.

1937년 6월 4일 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단숨에 경찰관주재소를 점령하고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을 비롯한 일제통치기관들을 짓부시고 그에 불을 질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반일투쟁으로 호소하시는 포고문을 살포하고 격문과 선전배라들을 뿌리며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희망의 등대로 믿고 살아오던 우리 인민은 오매에도 흠모하여마지않던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광복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국땅에서 맞이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화광이 충천한 거리로 뿔어나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천지가 뒤흔들리게 부르고 또 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일제침략자들의 파조적탄압과 강도적략탈,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을 신랄하게 폭로하시고 우리 민족의 출로를 개척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워온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룩한 업적과 그 최후승리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에서 우리 민족의 송고한 기개를 유감없이 시위하였다고 지적하시고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조국을 광복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사활적요구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일제통치밑에서 한탄만 하지 말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쳐 침략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뿔어나서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과 투지를 안겨주고 우리 인민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으로 힘있게 일떠세우는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보천보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출귀몰한 평군술과 탁월한 군사예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내진공을 계획할 때에 우리

보다 비할바없이 많은 적을 병력수로 이기려 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과 전술로 이기려 하였다.

우리는 국경연안에 집중된 적이 재야 무리 최신식무기로 장비되고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동격서습한다면 반드시 무찌를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재적인 유격 전법과 전술을 구현하심으로써 최신식 무기로 장비되고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언제나 피동에 빠뜨리고 전투마다에서 물어놓히시었다.

참으로 조국전공작전과 보천보전투는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타승한 빛나는 모범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보천보전투는 수령님의 조국광복 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 의미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 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 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군>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297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과 조선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워 승리하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 불굴의 혁명적기상을 전세계에 떨치였다.

보천보전투승리는 일제의 갖은 억압과 천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었다.

일제침략자들은 대륙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우리 나라를 그들의 《병참기지》로,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과썬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한편 군대와 헌병, 경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우리 인민을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 속에 몰아넣고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이른바 《내선일제》, 《동조동군》을 떠벌이면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탄압과 학살만행에 겁을 먹은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 그리고 어중이떠중이들은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되였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희망조차 잃어버리고있었다.

실로 조선인민의 전도는 암담하였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파썸적폭압과 민족말살책동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조선인민의 전도가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천보전투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침략자들과 싸우고있으며 싸워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굳게 가지게 하였다.

보천보전투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일제침략자들의 취약성을 날같이 보여준 반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신출귀몰한 주체전법으로 무장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그 불패의 위력을 직접 보고 체험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반드시 해방되리라는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보천보전투승리는 특히 우리 인민에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싸워나간 때 언제나 승리하리라는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승리를 통하여 암흑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심으로써 그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시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올리시었다.

보천보전투승리를 통하여 조국의 광복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굳게 간직할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반일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세차게 벌리었다. 흥남제련소와 하천강발전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반일투쟁이 강화되고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일투쟁이 세차게 타올랐다.

참으로 보천보에 타오른 혁명의 횃불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양상으로 이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불멸의 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중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던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놈들의 국경경비진을 높고 국내깊이 진출하여 보천보에서 적들을 습격소탕하심으로써 놈들의 국경경비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시었다.

보천보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놈들은 국경을 지키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토벌》에 동원되었던 침략무력까지 국경경비에 끌어들이는 소동을 부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보천보전투승리로 하여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경일대의 놈들은 가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도망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보천보전투승리는 또한 조선사람은 《내선일체》, 《동조동군》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지켜싸우고 있다는것을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던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총 파산을 의미하였다.

일제놈들자신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보천사건”은 마치 《천날에 걸쳐 베어낸 새조물 한순간에 제더미로 만든 것과 같은것》이었다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참으로 보천보전투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는 끝없는 공포와 불안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는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준 혁명의 횃불이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제

국주의 침략자들의 철수에 얽매어 일대 시련을 겪고있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로 되었다.

당시 파시즘과 제국주의 열강들은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을 탄압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조성된 정세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전박하게 요구하였다.

보천보전투승리는 파시즘과 침략의 주되는 세력으로 등장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줌으로써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주었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당시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단결하여 진걸히 싸운다면 그 어떤 강대한 적도 치이길수 있으며 그 길만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보천보전투승리는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자주적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로 싸우면 최싣식무기로 장비되고 수적으로 우세한 그 어떤 적들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실로 보천보전투승리는 파시즘과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해주는 혁명의 해탈로,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보천보의 밤하늘에 지펴올리신 혁명의 해탈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 앞길은 아직 멀고 간고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혁명과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 길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는 충성의 길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구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위에 바치신 이루 헤아릴수 없는 심려와 로고 그 길우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

정 진 회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우리앞에 나르고있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더 빨리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복무하려는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오와 자각적열성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77페이지)

자연과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의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발현이며 다름아닌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규정된다.

사람들은 높은 사상의식, 공산주의적 사상의식을 가질 때 조국과 인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적극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경제문화건설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없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제기술적요인도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사상의식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적극 발동시킨다면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해결하여나갈수 있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발전을 떠밀어나가기 위하여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으며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3페이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일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빈곤의 위협, 몽둥이의 강압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이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노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있기때문에 생산발전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게 된다.

돈과 채적이 사람을 움직이고 가치법칙이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경제건설이 다그쳐지고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한다. 사람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무궁무진한 힘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기본추동력으로 된다.

만일 노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물질기술적요인만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면하여 완충의 해인 올해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입니다.》(《신년사》, 1977년 1월 1일, 7페이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한 우리 인민앞에는 빨리 달려오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새로운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완충의 해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중요하고도 방대한 임무가 나사고있다.

전투에서 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 이미 차지한 전지를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것처럼 올해에 우리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대전설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온갖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이미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 경제토대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여기에 올해 전투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이미 마련된 생산 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며 자각적일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의식을 높여주고 자각적일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그

들이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또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일꾼들이 경제조직사업과 함께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의의를 높이 반양시킨다면 오늘 우리앞에 나설고있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문제도, 알곡 850만 톤고지를 검령하는 문제도, 우리의 위력한 경제가 인민생활에서 더 큰 은을 나라매게 하는 문제도 다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올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요구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이다.

우리 나라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적극 발동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왔다.

더우기 혁명의 간고한 시기일수록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킴으로써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꿰뚫어 이기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왔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전후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이 당우에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수 있는것도, 자본주의나라들이 웅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끊임없이 이끌어준 결과에 이룩된 열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치적의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라는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증거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경탄시키는 혁신과 기적들이 떼이어서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킨다면 같은 설비, 같은 토력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생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더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지고있다.

이로부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참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떠밀어나가며 당면한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대중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의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꾼들이 어떤 일에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먼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군중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부단히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3페이지)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며 출발점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우선 일군들속에 정치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정치사업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간주하고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길에 나선 첫시기부터 대중령도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혁명적군중로선과 그를 구현한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항일유격대오안에 충실히 확립하시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사업방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중령도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당의 전통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어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반일지하혁명활동을 조직전개하시던 그때로부터 력사적인 청산리지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에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모든 문제들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이것은 대중령도의 모든 방법을 전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밝혀주는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로서 혁명과 건설의 어떤 문제도 다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무기이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그 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안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의 기본은 결국 사람들을 설복교양하고 군중을 동원하는것입니다. 군중을 모아놓고 만세나 부르고 선동강연이나 하는것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 그들을 모두 충실한 우리 사람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는것이 중요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410페이지)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도록 되게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본질적요구이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기본원칙이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야 그것이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도록 하게 하는데서 선자적인 문제는 정치사업을 실행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의 내용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되지 못하면 정치사업의 형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

람들을 혁명과업수행으로 적극 불리일으킬수 없다. 정치사업의 성과는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결과에 의하여 즉 사람들의 사상의식상태가 얼마나 개변되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현실에 착실히 반을 불이고 허공에 뜬 소리로서가 아니라 아담한 이야기로 하나를 배워주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는것이다.

정치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요충통을 찌르도록 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관철하자는데 있으며 정치사업의 결과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높이며 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경제건설을 훌륭히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법규범대로 생활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자면 또한 그것을 구체적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그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맡겨진 임무와 사업조건도 각이하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진실로 설득시키자면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사가 환자의 체질과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리듯이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같은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먹이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정치사업에 광범한 력량을 인입시키는것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은 당이고 모든 사업을 령도하고있는것만큼 유급당 일군이 있어야 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사업은 오직 당 일군만이 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당사업을 해야 하며 정치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7~168페이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빠짐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 침투시키는 정치사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인것만큼 결코 몇몇 선전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잘될수 없다. 이 사업은 당 및 근로단체 일군들뿐아니라 국가주권기관과 행정경제기관, 교육문화기관의 모든 일군들과 간부들이 적극 참가할 때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주권, 행정경제, 교육문화 기관의 모든 일군들을 정치사업에 인입하는 사업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에게 정치사업을 할 대상자들을 분담하며 매 시기 정치사업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함으로써 그들이 선전교양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게 하며 어느 한사람도 정치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정치사업에 대하

여 끝까지 책임지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정치사업은 그것이 실천활동에서 열매를 잘 맺었을 때 훌륭히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자기들이 진행하는 정치사업을 열매가 잘 맺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입장이며 태도이다.

정치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계하지 않고 회수나 채우려는 것은 정치사업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심히 그릇된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주체형의 일군들의 풍모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이다.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진행되는 정치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때 사람들은 문제의 목적과 의의를 뚜렷히 깨닫고 높은 의욕을 가지고 그 수행에 떨쳐나설 수 있다.

일군들은 사람들이 문제의 내용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열번이고 백번이고 거듭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특히 준비정도가 어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까지도 근기있게 배워주고 깨우쳐주어야 한다.

정치사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씨앗도 밭에 뿌려진 후 쉬임없이 가꾸어야 훌륭한 열매를 맺듯이 정치사업도 끊임없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 그에 만족하고 자만하면서 정치사업을 중도반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상생활정형과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수시로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문제가 풀릴 때까지 정치사업을 포치, 재포치하는 방법으로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문화적소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정치사업을 잘하자고 하여도 머리가 비어있으면 사람들에게 사상적량식을 안겨주는 교양자, 선진자로 될 수 없다.

일군들이 누구보다도 정치리론수준이 높고 넓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만 언제나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가르쳐줄 수 있으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대중의 교양자가 되기 위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꾸준히 정력적으로 학습하는 독학가, 정열가가 되어야 하며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정통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해나가는 일군들의 임무는 실로 책임적이고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의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 것이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리 기 술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에 일찌기 없는 일대 양양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세찬 불길속에서 자신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찬다운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계속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정권기관일꾼들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1페이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만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의 전기간 주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의 옳은 해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찌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정권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정권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그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

시해주시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인민정권은 청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으로정과 그 수행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담전술직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오늘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 그리고 그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공산주의사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6페이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자연과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위업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인간개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그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째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람들속에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사업과 낡은 사상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리 기 술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에 일찌기 없는 일대 양양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신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계속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마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1페이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만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의 전기간 주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의 옳은 해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찌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정권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정권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그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

시해주시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깊고도 역센 뿌리에서 자라난 인민정권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으로정과 그 수행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략전술적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오늘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 그리고 그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공산주의사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6페이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자연과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위업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인간개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그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째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람들속에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사업과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 법적 통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특히 나라가 분열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으며 농민의 파피암해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가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투쟁의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주의적 사상독소의 침습을 막을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높이지 않을 때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을수 없고 근로자들을 혁명화할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의 진취물을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그 가를어지고있는 교육, 과학, 문학, 출판보도 등 사상문화교양수단들을 옮겨 발동하여 사상문화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풍부한 문화기술지식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또한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자본주의적사상독소의 침습을 제때에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나갈수 있다.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과 함께 경제조직자적기능은 인민정권의 또하나의 기본기능이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도록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나라의 모든 물질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모든 물질적수단들을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면서 경제를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력과 자원, 설비와 자재 등 나라의 모든 물질적생산수단들과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결국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노동력과 자연부원 등 막대한 생산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높은 균형을 보장하면서 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끊임없이 심화되는 우리 혁명발전의 진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거대한 전변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도덕적풍모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약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의 인민경제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현대적인 기술설비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의 규모는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간의 연계도 매우 복잡해졌으며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방대한 규모로 장성장화된 우리의 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권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편향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할 때 6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전국적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우리 인민정권의 자결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으로서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강화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정권앞에는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면하게 인민정권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완충의 해 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할 책임적인 임무가 지워져있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교육, 보건, 도시경영 등 나라의 경제문화발전과 모든 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주권적지도를 강화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계속 큰 힘을 돌려 그들의 생활에서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추방공급사업을 비롯한 모든 생활상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인민정권이 자기앞에 나선 이 책임적인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주권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365페이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기관체제의 본질적요구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끊임없이 심화되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정권기관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정권기관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인민정권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인민정권이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임무와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정권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주권활동을 강화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정권의 주권적활동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행정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을 잘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권기관으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경제기관들과 산업기업소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주권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옹계 세우고 행정경제기관들과 산업기관들에 대한 분공을 똑바로 주며 그 집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나타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는 한편 지방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하도록 하는 등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 잘 하도록 주권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법집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주권활동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의한 로동계급의 정치적 지배이며 이것은 법집통제를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봉건적, 자본주의적 낡은 사상잔재를 없앨수 없으며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법집통제를 옹계 배합하여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법집통제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지상한 제인 규율과 질서 속에서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정규화할수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산업기관기

업소들의 기업활동을 계획적으로 벌여 나가게 할수 있다.

주권기관으로서의 인민정권이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심화발전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며 완성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 규정이 없는것은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규정들도 다 검토하여보고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것은 다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6페이지)

법규범과 규정은 행위의 기준으로서 법적통제의 기초이며 선결적조건이다.

법적통제는 법규범의 준수집행에 대한 통제인것만큼 행위의 기준인 법규범이 없이는 법적통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위원회는 주권기관으로서 립법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며 없는 규정들도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법규범들을 만드는것과 함께 사람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전사회적범위에서 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법생활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적법규범과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인것만큼 그들의 준법의식수준은 사회주의적법규범의 준수집행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들의 준법의식수준이 높아야 그들이 법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하고 그를 성실히 준수집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헌법의 심오한 사상과 내용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행정경제기관들의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적집행기관들인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만이 확고히 담보된다.

행정경제조직사업은 계획을 맞물려주고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만 잘 짜고들면 지금 있는 토력, 있는 설비를 가지고도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은 요령주의, 무책임성, 무규률적인 현상 등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경제조직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보다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국가계획과제수행을 위하여 아글타글 머리를 쓰고 창발성을 발휘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5페이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력량에 의거하여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광범한 대중을 옳

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간다. 그런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중요하게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하며 따뜻이 이끌어줄 때 인민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인민전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권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깊이 체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며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권기관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의 총복으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중도반단함이 없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철저하게 관철함으로써 인민생활에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며 경제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조건 하나이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어리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사업을 할수 없으며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도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변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정권기관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생활화, 습성

화하면서 자신을 정치실무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속에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6페이지)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령도자이다. 당적령도는 인민정권의 주권활동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정권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정권기관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안배침해주고 적극 도와줌으로써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높여 주권행사를 원만히 하도록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

주체형의 가장 혁명적인 정권인 우리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주체의 조국, 삼천리금수강산 이 땅위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의 새봄을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정권기관일군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사람을 기본 으로 하여 군사문제를 풀어나 가는 독창적인 군사사상

리 시 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 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시대 군사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그 내용의 혁명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심오성, 백파전서적인 풍부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군사리론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한 귀중한 재부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국방건설분야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군사분야에 제기한 모든 요구들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인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전쟁에서와 우리 나라를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투쟁행정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군사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로동계급의 완성된 군사사상이며 로동계급이 자기의 세계사적사명을 완수하는 전기간 군사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사상

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군사문제해결에서 무장력을 이루는 사람과 무기가운데서 무엇을 기본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군사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 군사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사람을 기본으로 보는가 아니면 투쟁수단을 기본으로 보는가 하는데 따라 군사사상이 무장투쟁의 리론실천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며 그것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군사사상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이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모든 군사문제들을 사람에게 복종시키며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복무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의 존재와 전반적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신성한 권리이며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예측되어사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은 자기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피어난 혁명투쟁을 전개하는것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무기로써 자기의 혁명적군사사상을 요구하게 된다.

사람을 기본으로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군사사상은 반드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사상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축하고 유린말살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군사사상으로 되자면 그것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반제적인 성격으

로 일관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보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구축하는 사회적으로인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을 구축하는 주되는 사회적으로인들은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이며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예측이다. 때문에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보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동적인 착취계급의 지배와 제국주의침략을 혁명적목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인민대중이 온갖 형태의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가장 혁명적이고 반제적인 군사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보위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군사사상이다.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은 반제적이며 혁명적인 성격과 함께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까지 밝혀주어야 사람중심의 군사사상으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대중이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각이한 형태로 벌리고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앞에 이 모든 형태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어야 할 절박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주체시대가 군사분야에 제기하고있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끝까지 옹호하고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전력사적기간에 있을수 있는 모든 유형의 혁명전쟁들과 군사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해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군사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이처럼 그 성격에 있어서 반제적이며 혁명적일뿐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백과전서적인 군사사상인것으로 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탁월한 군사사상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군인대중과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군사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행기, 대포, 군함과 같은 무기와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사람, 다시말하여 군인과 지휘관이 무장력을 이룹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이 기본적인 무장력이라는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2페이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인 사람은 무장력구성의 기본요소이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다루는 주인이며 군사활동의 실제적담당자이다.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는 사람이 자기를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물질기술적수단이며 그것은 군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비로소 자기의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

무장투쟁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 주체인 사람은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을 만들어내며 그에 따라 무장투쟁을 조직하고 수행하

며 그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무장투쟁의 객관적법칙도 오직 군인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군사행동을 통해서만 인식되고 발현되며 작용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로부터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혁명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투쟁수단을 비롯한 물질기술적인것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무장력을 이루는 두 구성요소인 무기와 사람가운데서 기본적인 무장력은 사람이다. 아무리 위력한 현대적무기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다루는것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큰 의의를 가질수 없으며 자기의 위력을 나타낼수 없다. 따라서 나라의 방위력, 군대의 전투력은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 군인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전쟁에서 사람과 무기, 정치사상적요인과 군사기술적요인이 노는 역할과 그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혁명전쟁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각오와 혁명정신을 가진 혁명군대가 결정적역할을 논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군사사상에 의하여 무장투쟁에서 사람의 지배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이 밝혀진으로써 무장투쟁에 참가하는 제요인들의 본질적특성이 명백히 규정되게 되였으며 그 어떤 위력한 현대적전략무기에 의하여 전쟁의 운명이 결정되고 사람의 모든 활동이 규제되는것처럼 고찰하던 그릇된 견해들이 극복되고 군사문제해

결을 위한 모든것이 다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사람의 의식적활동을 통하여 마련되며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적요인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세워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적인 군사사상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의 지도적지침을 밝혀준 천재적사상이며 혁명전쟁에서 군인대중,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을 소홀히 하고 투쟁수단, 군사기술의 역할만을 절대화하는 반동적인 무기만능론의 과산을 선고한 타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어디까지나 사람, 군인대중과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자위적국방건설리론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이 밝히주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는 현대전쟁, 혁명전쟁의 전인민적성격에 맞게 인민대중을 국방사업에 가장 광범히,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군사전략상 우월한 방위체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에 관한 군사사상은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요인인 사람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면서 다른 모든 요인들, 무기와 군사전지들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과 자위적군사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며 사람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무기와 군사행동지대를 하나로 결합시켜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하나의 군사적힘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군사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이처럼 전쟁문제와 방위력건설문제뿐아니라 군사전략전술과 령군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군사문제들을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나가는 사람중심의 군사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

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철두철미 사람의 역할에 기초하고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백방으로 높여 군사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의 전투력은 군인과 지휘관의 정신상태, 다시말하여 그 군대의 사기와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그들의 기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전투의식이 약하고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232페이지)

무장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무기가 아니라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힘있는 존재인 사람, 군인대중이다.

사람, 군인대중이 무장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그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며 의식에 의하여 선택된 수단과 방도에 의거하게 되고 의식에 의하여 예상된 결과를 낳게 된다.

혁명적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가질수 있게 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군인들의 사상의식은 전투행동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할뿐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장투쟁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리용할수 있게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적경험을 쌓으면서 투쟁 형식과 방법을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군사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는 반

드시 사람의 이와 같은 결정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출발점으로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 군사사상은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는 필승불패의 군사사상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지침으로 하고있는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은 손에 무장을 들고 적과 싸우는 군인대중과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들의 능동적활동을 더욱 높이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전략사상은 혁명전쟁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을 무장투쟁에 적극 인입하여 혁명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군대가 정치사상적우월성과 그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군사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내적요인, 주체적력량에 의거하는가, 또는 외적요인, 외부세력에 의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판전적문제로 된다.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이며 혁명전쟁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자기가 수행하는 전쟁의 정의적 성격과 목적을 바로 알고 의식적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전략전술은 혁명전쟁의 전인민적성격에 맞게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장투쟁에 인입하며 그들의 능동적, 창조적 역할을 높일수 있는 전략전술로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전략전술은 제국주의침략군대의 기술적, 수적 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전략전술적 우세로 때려부실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전쟁의 승패는 그 어떤 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주인인 혁명군대의 사상의식, 정치도덕적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군사전

략전술의 근본원칙은 제국주의침략군대에 비한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군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기초하여 군사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이와 같은 근본원칙은 민족해방전쟁과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을 비롯한 모든 혁명전쟁에 일관하게 판통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전략사상이 밝혀주고있는 유격전을 기본투쟁형식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로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 유격전과 전인민적항쟁의 결합 그리고 유격전의 원칙과 상비적혁명무력인 유격대의 활동원칙을 비롯한 민족해방전쟁의 군사전략전술적문제들은 각성된 인민대중과 혁명군대의 힘으로 받들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침략군대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군사적방도들을 제시하여주고있다.

사람의 결정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원칙적요구는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에서도 일관하게 견지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은 일련의 문제들에서 민족해방전쟁과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적과 싸우는 직접적담당자이며 당사자인 군인대중,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을 전쟁승리의 선결조건으로, 전제로 하여 군사전략전술이 작성되고있으며 군사행동에서도 일관하게 견지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며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모든 군사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하는 주체적인 군사사상이다.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주체적군

사사상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그 위대성과 과학성, 진리성과 혁명성이 있다.

*

*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빛나게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대를 사상전술적우세로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아무런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격멸소탕한 항일혁명전쟁의 역사적승리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결코 그 어떤 병력의 방대성과 군사장비의 우월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한 자랑찬 승리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짓부셔버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군사사상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조선인민의 슬기와 영웅적기개를 온 누리에 떨친 이 역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확신하

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선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군사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 강유력한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전후에도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켜낼수 있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이 진행한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군사사상이야말로 사람, 군인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전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군사사상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원수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현대적인 총이나 한자루씩 매우면 군대의 전투력이 강화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혁명군대인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는 그 어떤 무기나 기술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1~512페이지)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세한 침략군대를 혁명군대의 사상적우세와 그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세로 격파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준비, 이것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근본요구이며 모든 군사문제해결에서 성과를 달성하는 기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군대와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정치사상적준비에서 기본을 이룬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오직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군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로운 혁명적분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에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군대와 인민을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옳은 전쟁관점을 세우는것이다.

혁명하는 립장에 서있는 한 결코 전쟁 일반을 반대하거나 전쟁을 두려워할 수 없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혁명적전쟁관점을 가지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있을수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만약 원썬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결코 본때있게 싸워 단연 쳐물리쳐야 한다는 만만한 루지와 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군사사상의 요구에 맞게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당의 군사로선 관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는것이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만 전면적으로 발휘될수 있다.

우리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주체전법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로 무장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어떠한 원썬도 타승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질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필요한 물질적 및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백전백승의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더욱 믿음직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

한 인 호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진척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경제건설에서는 끊임 없는 양양이 이룩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혁명적 사업 태도와 사업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사상정신적품모와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비로소 제기되며 이 제도하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

자들속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정신도덕적품모와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나라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더 잘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성과적으로 세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의 한 고리로 된다.

근로자들속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품성을 확립하는것은 그들속에서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고상한 품모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품성은 무엇보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성적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2페이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성적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보람찬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혁명적 품성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다 많은 재부를 창조할뿐 아니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재부를 알뜰하게 관리하고 가장 효과있게 이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사업은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며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근로인민대중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기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낭비하며 허비해버리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생활양식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조금이라도 더 늘이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사업기풍을 가지고 역세계 싸워나가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

양시키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품성을 소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적의무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것은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사상정신적품모의 기본특징을 이룬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진실로 인민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는데서 표현된다.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잘, 더 많이 만들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려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있어야 절약의 예비도 찾아낼수 있으며 모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끝전을 아껴가며 간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경험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을 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뿐 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같은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도

물건을 알뜰하게 만들고 절약하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하려는 비상한 혁명적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꾸려나가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혁명하는 사람들의 어길수 없는 본분으로, 그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발양하여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사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또한 집단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리기주의사상을 버리고 집단주의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리기주의사상은 공산주의사상과는 절대로 같이 있을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도 집단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우와 같은 책, 447페이지)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가장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집단주의 정신은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잘살기 위하여 필요한 귀중한 밑천인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사회와 집단의 모든 재산은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토력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여기에는 매개 근로자들의 고귀한 피땀이 스며있다.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알뜰히 다루고 그것을 늘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자기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집단과 사회의 재산을 더 많이 늘이며 나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고상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대신에 그것을 되는데로 거두며 원료와 자재를 잘 관리하지 않고 나라살림살이와 공동경리에 무관심한 모든 현상들은 다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으로서 집단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집단의 살림살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혁명적기풍이 생활화, 습성화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이 사회와 집단의 모든 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로,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쫓시기부터 혁
명대오와 인민들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힘있
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불멸의 주
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모두가 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모
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아끼고 절약
하며 생활을 꾸미고 알뜰하게 꾸려나가
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범단위
를 꾸리시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유격
대원들과 근거리인민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기와 탄약, 피
복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투기재
들과 생활필수품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
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항일유격
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었고 재봉기바늘이 부러졌을 때에
는 돗바늘로 재봉기 바늘을 만들어 수
백벌의 군복을 지었으며 부대의 겨울나
이식량공작임무를 맡고는 죽음의 고비
를 넘나들며 짧은 기간에 800여섬의 식
량을 마련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업태도와
생활기풍은 하루밤 쉬고 갈 숙영지도 그
처럼 규모있고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소중히 다루고
분한있게 써서 부대식량에 보탬을 준데
서도 높이 발양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보살피심 속에서 항일유격
대오안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끈진 살림살이숨씨의
고귀한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원들을 불
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혁명대오내에서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
으로써 항일유격대는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운데서도 15성
상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일제침
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
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인민
이 대를 두고 이어받아야 할 혁명의 주
인다운 태도와 알뜰한 살림살이숨씨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살림
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짧은 기간
에 지난날의 락후와 가난의 흔적을 털
어버리고 이 땅위에 부강하고 튼튼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품성을 키
워나가는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
업태도, 사업기풍을 개선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
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절약투쟁을 강
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생
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
살이를 알뜰히 하는 품성을 키워나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
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꾸준히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

며 나라의 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뒤떨어진 사상과 낡은 관습을 건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83페이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혁명적 품성을 키우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적인 사상관전과 사업태도를 세워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는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두가 다 주인다운 입장에서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게 된다. 또한 당적, 국가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한조각의 강재, 한줌의 세멘트, 한오리의 실이라도 절약하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잔진 살림살이솜씨를 본받으며 모두가 다 귀중한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튼튼히 지켜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다.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애국심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은 혁명선열들과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이며 나라의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의 재부가운데는 자기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망탕 다루거나 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는것과 같은 낡은 사상잔재, 낡은 생활관습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더 많은 관심을 돌리며 모든 근로자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데 습관되도록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는것과 함께 세밀한 조직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84페이지)

세밀한 경제조직사업은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세밀한 경제조직사업은 사상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것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데 습관되도록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

명가로 자라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장비요소가 나타날수 있는 틈을 없애기 위한 행정경제적조치를 제때에 면밀히 취하여야 사상사업이 실질적으로 더 큰 은을 낼수 있으며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욱 단련하며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게 된다.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고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되어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 발전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세부적으로 맞물린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동의 장비를 없애고 나라의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계획적으로 높일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우리당이 내놓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부적으로 맞물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자재보장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생산에 대한 조직사업에서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자재공급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필요한곳에 필요한만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것이 계획에 예견한대로 옹게 쓰이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꾸려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독립채산제, 원가, 가

격과 같은 상품생산 및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을 옹게 리용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으로서 기업소들에서 경영활동을 합리화하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원칙과 그 관철방도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 확고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독립채산제기업소들로 하여금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며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제를 옹게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밑에 지방정권기관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매우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는 지방살림살이의 계획적운영방법이다.

지방예산제는 특히 지방정권기관들과 일군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시여 지방예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모든 지방들에서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지방 정권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에 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으로써 지방예산제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와 지방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

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경제사업에서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며 모두가 다 규정과 규범을 잘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사회를 옹건하게 운영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하며 그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규정이 있고 법질서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0페이지)

랑비를 없애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규정들을 잘 만들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그러므로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사업에서 국가가 제정한 제도와 질서, 행동규칙과 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법무생활에 대한 지도기능, 법적통제기능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법규범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같이 지키고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공동행동준칙인것만큼 법규생활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공동행동준칙,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 습관되게 되고 질서와 규율이 제이게 되므로 낯은 사상이 반물일 틈이 없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는 중요한 조건으로, 경제생활을 개선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경험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사상교양 하나만으로 안되며 거기에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법적통제를 옹건하게 배합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빈틈없이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가의 법적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감독통제기능을 높여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거나 귀중한 설비와 자재를 사장시키며 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의 법적통제기능과 법규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지도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국가법을 정확히 알고 법규생활을 잘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국가법을 지키며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애호질약하는데서 앞장선뿐 아니라 생활을 언제나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품성을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품성을 키우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면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키며 온갖 낡은 사상잔재, 낡은 생활관습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사업의 중요한 고리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와 힘을 합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초소,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기술혁명과 질약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질약하고 질약하고 또 질약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증산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자

문 정 석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이룩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 서고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수송전선, 채취공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충성의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로의 우리 인민의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 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80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근로자들의 사회적으로동을 잘 조직하고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

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로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리용하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성과적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앞당겨점령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일뿐아니라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소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자기의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성격에 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노동행정사업의 본질을 밝히시고 독창적인 노동행정리론을 창시하십시오으로써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노동행정리론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매 시기 제시하신 독창적인 노동행정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로력문제를 비롯한 노동행정부문의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오늘과 같은 위대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은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노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시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며 모두가 노동을 사랑하고 온갖 창조력과 재능을 다 바쳐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변모되는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일심사에 맞게 노동행정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는 반면에 로력원천이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노동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로력의 긴장성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완충의 해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노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야 자기 부문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미리막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에 850만톤알곡고지치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행정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휘시켜야 새로운 전망계획에 예견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출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을 부쩍 높이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역사적과업을 더 잘 수행해나갈수 있다.

*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노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그들 책임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13페이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인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조직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행정사업의 성과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집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대중의 기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앙양되고있

는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시고 로력사정이 긴장하다 하더라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근로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는 로동계급적관점과 한공수의 로력, 한시간의 로동시간이라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때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한사람당 생산액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얼마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세밀히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행정부문에 주신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동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정치실무수준을 계속 높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동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은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도 결국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연도의 충성심을 지니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창조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는것은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것을 비롯하여 로동행정부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그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뿐아니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두가 다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적인 규율과 엄격한 로력관리질서를 세워 누구나 다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자면 로동행정일군들은 물론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높여 자기의 전투원들을 잘 장악하고 옹계 지휘하는 체계를 세우며 로동시간리용정형을 검토하고 사소한 로력낭비현상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출퇴근으로부터 생산활동전반에서 제정된 규범의 요구대로 정확히 움직이며 성실하게 일할수 있도록 보장사업을 잘하는 한편 로동규율을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로력문제를 언제나 전당적, 전국가적 리익의 건지에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그러므로 로력문제해결에서 나타날수 있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현상의 사소한 표

현이라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며 로력 조절배치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적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푸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론에 대하여》, 제3권, 277페이지)

기술혁명은 긴장한 나라의 로력사정을 풀고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람들의 창조력은 무진장하지만 그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의 힘을 리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수 없다.

이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문제를 로동행정사업에서 책임적으로 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도 일꾼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옳은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기술발전계획을 비롯한 기술혁신과제를 정확히 세우며 그를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로동의 기계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발전계획을 집체적인 토의밑에 세우며 절약되는 로력을 로력계획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계획에 내한 분공을 옹게 조직하고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그를 어김없이 집행하며 창 의고안합리화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종업원가운데서 기계화, 자동화된 공정에서 일하는 로력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기술혁명실행에 따라

로동정량과 로동기준을 체계적으로 갱신하며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전문가, 숙련기능공 대렬을 늘이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기술기능학습반과 개별기능전습 체계를 통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매해 기능급수 판정시험을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 부문의 기능공은 예견성있게 자체로 양성하여 쓰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경제지도일꾼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는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한사람당 생산액은 기술혁명수행정도와 로동행정사업의 성과를 특징짓는 중요한 경제지표이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여야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부단히 높일수 있다.

우리의 경제지도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며 자그마한 기술혁신안이라도 적극 도입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계속 높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로력예비를 백방으로 탐구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창설됨에 따라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이

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정치적자각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며 경제관리사업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된다.

현시기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가장 큰 예비의 하나는 로동계획화, 로동조직 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계획의 세부화방침에 따라 로력을 잘 타산하는 한편 그것을 다른 생산요소들과 잘 맞물리며 옳은 로동정량과 로력기준에 근거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은 로동계획화, 로동조직 사업을 짜고드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정량은 로동계획작성과 로임조직에 대한 기초이며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여야 로동의 세부계획화를 옳게 실현할수 있으며 로동조직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된다.

로동정량을 정확히 제정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하여 그것을 구체적생산조건에 맞게 바로 적용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의를 높이는 한편 인민경제 부문별로 모범공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수준에서 표준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소들에서 그를 기준으로 하여 매해 기술혁명실행정도에 따라 로동정량을 교정정하여야 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로력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로력배치에서 중요한것은 생산부문의 종업원수를 우선적으로 늘이면서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옳게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옳은 로력균형을 보장하는것이다. 생산부문안에서는 간접부문의 비중을 낮추며 기본생산부문의 로력, 그가운데서도 직접부문의 로력비중을 높여야 한다.

여와 함께 로력배치에서는 성별, 계절, 기술기능소유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일할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로력배치원칙에 따라 매개 부서, 직장, 생산공정별로 로력배치정형을 검토한다면 더 많은 로력예비를 찾을수 있으며 녀성들이나 허약한 사람들이 능히 일할수 있는곳에 배치된 청장년로력과 비전공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부문에 돌릴수 있다.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하자면 로력조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도입되고 생산적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로력조직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력조직에서는 생산부문의 특성과 생산조직형태를 고려하여 작업반조직과 교대, 휴식 조직을 잘 짜고들며 매개 로동자들에게 작업분공을 똑똑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겸직과 다기대 작업을 조직하거나 작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등 로력조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뿐 아니라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후방사업이 하나의 정치사업이며 로동행정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방인민정권기관과의 령계를 강화하여 남새, 고기, 기름, 달걀, 물고기 등 부식물을 충분히 대주어야 하며 합숙, 락아소, 유치원을 잘 꾸리며 연료도 제때에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아무런 불만도 없이 온갖 자력과 정력을 다 바쳐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밀쳐나시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행정 부문에 주신 교시를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가자.

도시경영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

김 형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이 일어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도시경영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도시경영이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상하수도, 공원, 유원지, 시내교통시설과 같은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이다.

도시경영이 대상으로 하고있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문화후생시설들은 모두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 리용되는것이며 나라의 튼튼발전을 위하여 대대로 내려가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부들이다. 그러므로 도시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도시안의 모든 시설들을 잘 보호관리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흥겹게 할수 있으며 후대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웅장한 현대적인 도시와 행복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물려줄수 있다.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며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경영사업은 본질상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리를 돌봐주는 봉사사업이다.

도시안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고 그것이 극소수인 특권계층의 향락과 광범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도시안의 모든 시설물들이 다 근로자들의것이며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안의 살림집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문화주택까지 국가부담으로 건설되고있으며 모든 문화후생시설들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봉사하는것은 우리 나라 도시경영사업의 근본목적으로 되며 도시경영에서 튼

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으로 된다.

도시경영부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국가의 배려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더 빨리 가닿게 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할수 있다.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건설되어있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문화후생시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이루어놓은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다. 도시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할 때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더 잘 보호관리할수 있다.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이며 도시경영사업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더 잘 관리하고 거리와 마을들을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전반적문화수준을 높일수 있다.

이렇듯 도시경영사업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흥겹게 하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

기 사회주의도시경영사업의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도시경영사업의 본질과 내용,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안팎의 원썬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제와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주택을 비롯한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몰수하여 근로인민의 소유로 만드는 탁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황폐화된 도시와 농촌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해방된 조국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도록 우리 인민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모화속에서도 벌써 전쟁승리후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시고 도시와 농촌을 근로자들의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편취주시었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도시의 퇴폐적이며 기형적인 혼잡과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을 없애고 현대적인 도시와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도록 설계도도 검토하시고 몸소 현지에서 이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며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을 푸른 숲이 우거진 락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크고작은 도시들이 수많이 일떠섬에 따라 도시관리, 도시경영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

도시경영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온 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재더미속에서 새로 건설되고 도시마다 현대적인 거리들과 대기념비적건물들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도시로부터 두터산골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 편의봉사시설들이 건설되고 그 관리운영사업이 개선되어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세기적인 타후와 빈궁, 몽매의 모든 흔적들이 없어졌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은 더한층 좋아졌다.

도시마다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들이 수많은 건설되고 거리와 주택구획들을 목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모든 도시들이 말 그대로 공원속에 있는 사회주의문화도시로 전변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공업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모든 도시들이 사회주의문화도시로 전변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을 미리막을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농촌수도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도시와 농촌에서 수도관리사업이 개선됨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식량난에 물기근까지 겹쳐 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조건에서도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실로 사회주의도시경영사업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러한 세기적인 변혁들은 이 땅우에 인민의 탁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 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날로 튼튼변영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과 도시경영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도시관리,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귀한 전취물인 현대적인 도시들과 사회주의문화농촌마을들을 보다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척됨에 따라 도시경영사업의 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지고 있으며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만 도시와 농촌들에 새로 일떠선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을 알뜰하게 관리유지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도시경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이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으며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의 대렬도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도시경영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물을 보다 원만히 대출수 있는 물질적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시관리,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사람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매 사람이 자기 맡은 부분의 일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04페이지)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돌봐주는 영예로운 임무를 담당수행하고있다. 그러므로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자각성과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

도시경영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수많은 건물과 시설물들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한다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신다.

도시경영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시설물들을 더 잘 관리하려는 높은 책임성과 근로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여야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집, 나라의 시설, 나라의 재산을 더 잘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살림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써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애호관리하는데서 전체 근로자들의 훌륭한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도시와 마을들을 아름답게 목화하는것은 사회주의도시경영의 기본임무이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시설물들을 건설하여도 그것을 알뜰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수명을 보장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없다.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살림집을 비롯하여 학교, 유치원, 탁아소, 상점, 식당, 영화관, 병원과 같은 공

공건물들, 상하수도, 난방시설, 시내도로, 공원, 유원지를 늘 알뜰하게 관리하여 근로자들의 거주생활조건과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사업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들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한편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는것이 중요하다.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건물과 시설물들의 봉사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그 리용률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모든 도시들을 현대적인 문화도시로 더 잘 꾸릴수 있다. 또한 그래야 도시경영에서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절약할수 있으며 건물과 시설물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오래 보존할수 있다.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그의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보수하며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대주어야 한다.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은 살림집, 학교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세부적으로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보수설계를 시공에 앞세우고 계획화사업을 짜고들어 자재와 자금, 설비,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책임적으로 대주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류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며 보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와 마을들을 아름답게 목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도시들을 현대적인 사회주의문화도시로 더욱 알뜰히 꾸려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

의전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도시경영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도시경영사업체계를 정확히 세우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도시경영의 관리대상과 사업범위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도시경영사업체계를 정확히 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도시경영사업체계를 정확히 세울 때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보수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여 그 수명을 늘이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고 간지게 꾸려나갈수 있다.

지방정권기관들과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귀중한 재산인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경영기관들은 건설주로서 건물과 시설물의 시공에서 질을 높이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고 건설물의 인계인수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하며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에 관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 사업을 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가의 힘만 바랄것이 아니라 로력이 있는 사람은 로력을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211페이지)

도시경영사업을 진인민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해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도시관리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며 사회주의도시경영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도시관리의 기본방법이다.

사회주의도시경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은 온 나라의 넓은 지역에 널려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이 매일과 같이 리용하고있다. 그러므로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뿐아니라 전체 인민이 자기들이 리용하는 건물과 시설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힘을 때에만 도시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도시를 사랑하고 그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도시관리, 도시경영 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주민들을 도시관리에 인입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인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국가재산과 공동시설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키우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전재기지들과 전재상점들을 잘 꾸려 보수용 자재들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과 주민들은 자기의 도시와 마을, 자기의 일터와 자기가 쓰는 집을 더욱 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이신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사회주의전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도시경영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한걸같이 떨쳐나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거리와 마을들을 더욱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꾸리고 사회주의전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김 원 학

오늘 남조선의 각계총인민들은 파쇼 폭압이 살판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다 말살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농민의 파쇼적탄압과 폭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있습니다.》

포악한 식민지군사파쇼통치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 모진 굴욕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더이상 민족분열의 고통을 참으려 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들의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파쇼독재를 맞받아 투쟁의 마당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남조선민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파쇼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에 들어와 피뢰통치배들의 파쇼폭압을 박차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1월 각계총을 망라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가 결성되고 이 반파쇼민주련합조직의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벌어진데 뒤이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그들은 《유신

헌법의 철폐》와 《독재타도》를 웨치면서 체포구금된 애국자들과 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선언문》발표, 법정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로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반파쇼민주화투쟁이 적극화, 대중화되는 가운데 《민주구국선장》이 새롭게 발표되고 그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남조선도처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다.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으며 박정희피뢰도당의 파쇼독재와 인권탄압, 추잡한 대미, 대일 퇴물사건을 규탄하는 세계 사회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리하여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유신》파쇼독재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그와 직접 대결하는 격렬한 투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새로운 폭발점을 향하여 더욱 접근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만고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의 폭압책동과 민족분열책동, 전쟁책동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찬 남조선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피뢰도당은 지난 16년동안 온갖 매국배족적책행을 다 감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 더욱 높아가는데 당황망조한 박정희피뢰도당은 악명높은 《유신》체제를 꾸며놓고 남조선을 중세기적인 암흑지대로, 제국주의식민지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생존과 생활개선을 위한 극히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이 폭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극도의 정치적위기에 직면한 박정희 피퇴도당은 파쇼폭압과 외세의존에 더욱 매달리면서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놈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장기주둔을 애걸하는 한편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과 《민주구국헌장》반기인들과 서명자들, 서명수집에 나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자유를 요구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 민주인사, 종교인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처형하고있으며 제일조선인들에게도 《간첩죄》를 들씌워 극형에 처하고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억만 인민들이 인권의 존중과 평화유지, 자주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오늘 남조선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살행위가 마음대로 감행되는 가장 포악한 인권유린지대로 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인민들은 파쇼교형리의 악정과 진압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압박이 있는곳에서 반항은 불가피하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에 대한 대중의 항거는 더욱 완강하여지기 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파쇼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피퇴도당은 제놈의 1인영구집권을 위하여서는 《작은 자유의 희생은 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인간백정행위를 계속할것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유신》파쇼독재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조선인민과 세계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인 동시에 어떻게 하나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마지막발악

이다.

원래 파쇼폭압은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며 그들의 반항과 혁명적진출을 탄압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통치수단으로서 놈들은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권력과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을 때 더욱더 거기에 매달리는 법이다.

실로 오늘 박정희 피퇴도당의 파쇼적진행을 더이상 참느냐 아니면 그것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느냐, 놈들의 전쟁체등과 민족분열책동을 용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느냐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앞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 피퇴도당의 《유신》파쇼독재가 계속되는 한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사회적진보와 혁명운동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실현될수 없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군사테로집단인 박정희 피퇴도당의 파쇼독재를 뒤집어엎는것만이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

*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의의 구국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해방후 오늘까지 끊임없이 벌려온 용감한 투쟁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9페이지)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력량이 정치권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회정치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남조선의 현군사과
파쇼독재를 청산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현군사
과파쇼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는것
은 현군사과파쇼독재자체가 제국주의식민
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도구로, 남조선
사회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중
요한 장애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군사과파쇼정권이 조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대
발전은 현군사과파쇼독재를 그대로 두고
서는 아무것도 바랄수 없고 오직 그것
을 뒤집어엎는 조건에서만 사회적인보
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군사과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
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
쟁은 그들자신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
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또
는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
쟁이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
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도 구경은 남
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침략자와 독
재자의 예속과 압박을 벗어던지고 농들
에게 깃들인 자기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예속과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
호하여 싸우는것은 사람들의 본성적요
구이며 응당한 권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
적존재이다.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참
다운 삶의 가치를 가질수 없으며 사회
적으로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참다운 삶을 누리자면 마땅히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일뿐아니라 민
족의 생명으로도 된다. 자주성을 잃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민족은
망국노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

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누구나 남에게 예
속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며 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운
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는
사회정치생활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이
룩될수 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지배하고 파쇼적탄압이 행해지는 사회
에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더우기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강권
정치, 정보정치가 살판치고 테로와 학
살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성을 유린하는것
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자신이
들고일어나 매국과 파쇼를 반대하고 자
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남조
선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포악한 군사과파쇼통치를 끝장내고 사회
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만 인민들의 초
보적인 요구이며 권리인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
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곧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자주성을 옹
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애국투
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점에서 조선문제의 해결은 조
선사람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남
조선인민들이 각성하여 들고일어나 남
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
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무엇보
다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통일문제
를 자주적으로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
족적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령토의 원정과 민족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갈라진 조국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는것을 시종일관 기본방침으로 확고히 견지하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간섭과 매국배족행위를 배격하고 민족의 권리와 자주성을 높이 반영시키며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생활적이익과 관련된 사업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사업이다.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 민족의 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첫길임이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쇼통치가 실시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가 교환될수 없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통일운동에 마음놓고 참여할수 없다.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은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놈으로서 력사상 류례없는 야만적인 인간배정행위를 감행하면서 마치 제놈들의 파쇼적폭압소

동이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며 남조선에는 인권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철면피한 꾀별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인권과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통일운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북과 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이 엄중한 난국에 직면하게 된것도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피뢰도당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데 있다. 남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박정희피뢰도당의 파쇼독제를 그냥 두고서는 대화도 어떤 통일방안도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파쇼적이며 분렬주의적인 남조선의 현존폭압체제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데뭉쳐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있다. 파쇼와 민족적대단결은 결코 양립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포악한 군사파쇼독제가 타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북과 남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하고 서로 의사와 견해를 소통하며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반공》의 구호밑에 박정희피뢰도당이 악랄하게 감행하는 민족분렬책동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안팎으로 더욱 고립되어 궁지에 빠진 박정희피뢰도당은 전대미문의 파쇼폭압과 군사적모험 정책에서 살구멍을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반공》소동과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평화통일원칙을 짓밟고 《총력안보》나 《림전태세확립》이니 하면서 미일상전에게 구걸하여 군사장비와 작전물자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어 군사력을 늘이고 군사기지를 신선헌장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역에 《진시상대》를 선포하고 각종 전시악법들을 조작하며 《향토예비군》의 《전력화》를 다그치고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등 민간군사조직들을 꾸며내어 청년학생들과 주민들을 전쟁연습에 내몰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이러한 《반공》소동과 전쟁소동으로 지세를 격화시키고 내외여론을 기만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장기주둔의 구실을 마련하고 그의 비호밑에 나라의 분열을 고착시키며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억누르고 뒤흔들리는 통치지반을 더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안으로는 민주주의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말살하는 과소독제를 감행하고 밖으로는 미제와 일본반동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전락을 강화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넘기고있는 남조선피뢰악당의 극악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우리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청난 장애를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안락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남조선의 현군사과소독제를 뒤집어엎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놓을수 있다.

또한 반과소민주화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통일의 주체적력량도 더욱 강화할수 있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극적인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전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련이 늘어나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들고일어나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의 군사과소독제를 반대

하여 적극 투쟁할 때 그들은 더욱 강성단련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더불어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요인은 더욱 성숙될것이다.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군사과소독제를 매장하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획득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

*

반과소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이며 숭고한 애국적의무이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일침략세력에 의존하여 민족분열의 고정화와 영구집권을 꾀하는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의 전횡과 과소적탄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걸같이 밀쳐나시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모든 과소악법과 폭압만행을 반대하고 체포투옥된 애국자들과 청년학생, 민주인사 등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하며 선진사상의 연구와 보급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건결히 싸워야 한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는 과소독제를 뒤집어엎는것이다.

사회의 민주화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며 투쟁으로 진취한 진보적인 정권에 의하여서만 실현되고 그 성과가 공고화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과감한 투쟁으

로 박정희군사불한당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하며 농들의 파쇼독재를 쓸어버리고 각계각층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연합정부를 세우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92페이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사람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굳게 손잡고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광범한 혁명적군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걸걸히 싸울 때 어떠한 파쇼의 아성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의 《반공》책동에 속지 말고 농들의 매국배족적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결정적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모든 투쟁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

켜야 한다. 모든 애국력량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며 당면하여 우리의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박정희피뢰도당이 미일상전에 제 빌붙어 온갖 매국배족행위와 전횡을 다 부리고있으나 그것이 결코 농들의 연명책으로는 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하루빨리 철수하여야 하며 박정희매국도당을 탈락과 무기로 뒤받침해주는 부질없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본당국자들도 남조선피뢰들을 싸고 돌며 조선문제에 함부로 간참해나서는 파렴치하고 주체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폭압책동과 분열책동, 전쟁책동에 매달려 무엇을 얻어보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력사적경험으로 보아 폭군이 오래 가는 법이 없다. 폭군이 오래 간 때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구경은 다 인민대중의 반항에 의하여 멸망하고말았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함없이 승리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역세제 싸워나가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포악한 군사파쇼독재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6호(무제 42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 • 1977년 6월 1일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발행 • 1977년 6월 5일

7-7513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50전

한글서체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호

8102

4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OCT 21 1977
UNIVERSITY OF CALIFORNIA

7 호

평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 | |
|--|------------|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 | (2)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는 조선공산주의녀성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 (8) |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당적령도의 기본요구..... | 한용선 (14) |
| 우리의 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 | 김창주 (20) |
|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과업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 | 지재룡 (27) |
|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과업..... | 리진호 (34) |
|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 홍균표 (40) |
|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 조창덕 (47) |
|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자..... | 전금철 (53) |
| 세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 | 박영시 (59)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

간부들과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더욱 훌륭히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정치사상적품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충실성이다. 다시말하여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정신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서로 연결되어있으며 통일되어있다.

당성은 로동계급의 높은 계급적자각의 표현인것만큼 당성과 로동계급성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편 로동계급성은 인민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인민성에 의하여 훌륭히 표현된다. 그리고 인민성은 당성, 로동계급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에 철저히 의거할 때 훌륭히 발양되게 된다.

이처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

으며 혁명적품성과 공산주의적품모의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니는 고유한 품성으로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니고있는 역사적사명, 혁명적본분과 관련되어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더 큰 리익이란 없으며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워나가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혁명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니는 고유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바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근로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의 창조적로동과 지혜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이 수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결정적력량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이다.

이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것을 요구한다.

바로 여기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특히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게 발휘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가장 숭고한 정치사상적품도를 지닌 혁명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고있으며 그들이 자기당과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에 충실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며 최대의 배려와 사랑을 들릴것을 요구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야말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것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고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 될수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는것은 곧 우리 당과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하는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높이신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전투에 서시여 우리 당과 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우리 나라는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오늘의 통성변영하는 조국과 인민의 보람찬 생활은 물론 보다 위煌한 래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끝없는 전진과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번영과 통성을 이룩하며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참으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야말로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적공모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힘있는 무기로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입니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 되어나갈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때 대하여》, 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에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간부들에게 달려있다.

간부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있다. 또한 그들은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총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혁명초소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겨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맡겨주신 이 무거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때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답게 당과 혁명을 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인민의 총복답게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것은 또한 오늘 우리 당과 혁명 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임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우리의 사회경제제도는 비상히 공고화되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다. 오늘 우리의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생산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훌륭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인민의 참다운 총복답게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실천활동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모든 사업에서 로동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지키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대서 발현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신하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높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여기에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과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강요한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은 당의 정책을 건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할줄 알며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옳지 못한것과는 언제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해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48~14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집행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것을 당원으로서 당과 혁명에 대한 범죄로, 최대의 수치로 간주하며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어떻게 하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수행하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연구하고 머리를 쓰며 아글타글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부리거나 허풍을 치는것과 같은 일을 할줄 모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매사를 충성의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드팀없이 수행해나간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은 류폐없이 간고한 환경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기어이 수행하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이 숭고한 혁명적기풍을 거울삼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간직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대서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이악하고 끈지게 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훌륭히 집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진 일군들

과 당원들의 참다운 일본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한다면 생산과 건설에서 그 어떤 문제도 다 훌륭히 해결할수 있으며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나라의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또한 모든 사업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원칙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건설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계급적원썹들과의 날카로운 대립속에서 진행된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하여야 하며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군들이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품성이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낮은 착취제도와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농들의 책동을 제때에 때려부시기 위한 원칙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인민대중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가, 경제기관 정무원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이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당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되어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의 총복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들어 일을 밀고나가는가 하는 데 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지어주는 모든 조건들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든다면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높일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근중관심을 철저히 세우고 근로자들과 들어가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제나 알아보고 달라붙어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무

런 불편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더욱 높은 열성과 창조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나가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훌륭히 가닿고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그들의 생활에서 더욱 큰 빛을 나타낼 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충실성은 더욱 높아질것이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욱 세차게 불타오를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만드는것이며 수령님의 교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대로 따라배우며 수령님의 탁

월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혁명과건설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이와 함께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며 사상투쟁속에서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고상한 품성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늘 군중속에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현실속에서 배우고 이신작치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실무수준을 가져야 하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실발전에 지도를 따라세울수 있고 생산과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이와 같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는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서거 45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우리 나라 여성운동에 남기신 어머니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로정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된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는 모든것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치신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생애이다.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당국의 비운과 인민들의 참담한 처지를 직접 체험하시면서 강한 반일애국사상을 품게 되시었다.

뜨거운 애국심과 고결한 성품을 지니신 녀사께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생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모든것을 다하여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후에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시지 않으시였으며 일신의 위협이나 고통도 마다하지않으시었다.

녀사께서는 또한 직접 자신이 혁명가로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빛나는 혁명활동을 벌리시었다.

혁명의 큰 뜻을 안으시고 굴함없이 싸우시던 강반석녀사께서는 그렇게도 바라마지않던 조국광복을 보시지 못하고 1932년 7월 31일, 41세를 한생으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었다.

강반석녀사의 고귀한 혁명적생애와 혁명활동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맥맥히 고동치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을 새 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여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적인 부녀회를 조직하심으로써 녀성해방과 녀성운동 발전에서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녀성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신 때로부터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해방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사회혁명에서 녀성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의 녀성들의 처지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어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 관한 지도리론과 투쟁강령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었다.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 이것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세울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녀성들의 진정한 사회정치적해방을 가져오자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우리 조국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여성문제의 기본은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고 사회의 모든 생활에서 남자와 똑같은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당시 조선여성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인 착취와 예속을 당해왔으며 인신적으로도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일제의 조선강점은 조선여성들을 중세기적인 착취와 전대미문의 억압속에서 신음하게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조선여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온갖 불평등과 인신적예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킬수 없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 여성운동앞에 나선 이러한 요구들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우선 여성들에 대한 문화제몽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 밑에 1926년 무송에 계실 때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 조직지도하신 부녀회는 여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첫 여성정치조직이었다.

반일부녀회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여성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투쟁에 의식성과 조직성을 넣어준 힘있는 정치사상교양단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여성대중을 조직동원한 참다운 혁명조직이었다.

참으로 강반석녀사께서 조직하신 부녀회와 그 강화발전은 우리 나라 여성

운동과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었다.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운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지침으로 삼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전환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게 되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를 투쟁의 무기로 하여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일찌기 어렸을 때부터 일제침략자들과 착취자들을 증오하시였고 남고 석어빠진 봉건유습에 대하여 항거의 정신이 높으시였던 어머님께서 여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시여 그들로 하여금 빼앗긴 나라를 찾고 제국주의와 봉건적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에게 항상 우리 녀자들도 남편과 오빠들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남자들만 총을 쥐고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남편과 오빠들이 총을 들고 혁명의 원수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면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을 도와 원수들을 죽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강반석녀사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여성들이 해방되어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자면 봉건제도와 식민지통치제도를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자와 함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녀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사회적력량이다. 여성들이 높은 의

식성과 조직성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선 때에만 민족해방위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녀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오직 나라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한 일념을 안고 싸우신 어머니께서는 조선 녀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밤길이나 민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며 그들을 교양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불려일으키시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무송을 비롯하여 말리허, 대영, 지양론, 만량향, 삼도화원, 안도의 소사하, 대사하 등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일제를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활발하게 벌리게 되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반일부녀회 회장으로 녀성들속에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는 한편 친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었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사업을 적극 도우시었으며 《새날》신문을 배포하며 조직의 비밀군인을 전달하는 일, 무기운반과 적정탐지 등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지하혁명사업을 지도하시다가 반동경찰에게 체포되시었을 때 강반석어머니께서는 반일부녀회원들과 군중들 앞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폭로규탄하시고 모두다 그이를 석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었다. 녀사의 절절한 호소에 호응하여 부녀회조직과 광범한 녀성들이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군중의 기세에 질겁하여 수령님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강반석녀사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신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일신상의 위함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도우시었으며 수령님의 지도밑에 싸운 청년학생들의 혁명사업에 대하여서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돌보아주시었다.

어머니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억압, 봉건적예속에서 시달리던 우리 나라 녀성들이 무지와 봉매, 세기적인 잡에서 깨어나 부녀회에 봉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자신의 해방을 위한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이와 같이 녀성해방운동을 줄기차게 벌리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풍산주의녀성운동의 새기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조선녀성들의 자랑스런 투쟁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게 되었다.

*

*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조선녀성운동발전에서 더전으로 되는 귀중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우시었을뿐만아니라 몸소 조국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혁명투쟁을 벌리심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남기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 녀성운동발전에 남기신 귀중한 업적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인 녀성정치조직을 결성하시어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부녀회를 통하여 광범한 녀성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함으로써 녀성해방투쟁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놓으신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녀성운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빛나게 구

현하심으로써 녀성운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것을 녀성운동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부녀회활동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이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 어떠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것은 그 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선행시기 조선녀성운동이 아직 제국도에 오르지 못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많은 결합과 부족집들을 자체내에 가지지 않을수 없었던것도 바로 그 당시의 녀성운동이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조국의 광복과 우리 조선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선행시기 녀성운동이 겪었던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녀성운동의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부녀회활동의 강령적지침으로 삼으심으로써 녀성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녀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였다. 이 투쟁과정에서는 많은 애로와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녀성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이 심하고 또한 녀성들의 사상의식수준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강반석녀사께서는 이 모든 장애와 곤난을 물리치면서 녀성들속에서 조성된 정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시였다. 녀사께서 부녀회조직을 통하여 일주일에 한번

씩 조직진행하신 설득력있는 강연회와 토론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며 녀성운동에 관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해설선전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으며 밤마다 부녀회원들앞에서 진행하신 문화제몽사업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결부되지 않은것이 없었다.

이리하여 부녀회조직이 선행시기 녀성운동의 온갖 악폐와 이색적인 사상조류에 물젖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만을 따르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었으며 부녀회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녀성조직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이 이룩되고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녀성운동의 한길에서 역세제 싸워나갔다.

이렇듯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제가 확고히 수립될수 있게 된것은 바로 강반석녀사의 이와 같은 정력적인 투쟁의 직접적인 결실이였다.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녀성조직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쌓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 나라를 잃고 망국노의 쓰라림을 겪고있는 우리가 목숨을 아껴서 무얼 하겠니. 가는 나무가지도 한가치 한가치씩은 꺾을수 있지만 여러대를 합쳐놓으면 꺾지 못하는 법이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몇이 안되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합심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

강반석녀사의 이 가르치심은 녀성들

이 자기의 민족적 및 사회정치적 해방을 가져오자면 광범한 여성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

여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건설문제에 노동계급의 혁명투쟁, 민족해방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여성들의 정치적조직이 있어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 보다 광범한 여성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여성대렬의 사상의적통일과 투쟁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 광범한 여성들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모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광범한 여성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부단히 혁명화하여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만 조국의 광복도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도 촉진되게 된다.

지난 시기 도시의 일부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 여성들의 사회운동으로서 허공에 떠있던 우리 나라 여성운동은 강의한 여성해방투사인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를 조직하신 때로부터 광범한 근로여성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으며 넓은 지역에 빨리 확대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 여성운동발전의 튼튼한 터전으로 되는 여성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업적들을 쌓으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여성운동의 방침을 구현하시어 여성조직을 단순한 계몽단체가 아니라 혁명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정치조직으로 꾸리신 경험과 업적, 여성조직을 광범한 근로여성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여성들을 혁명화한 경험과 업적, 여성조직안에서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고 해심을 키워낸 경험 등 여성운동과 여성조직건설에서 끝없이 귀중한 재부들을

마련하시었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강의한 의지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지니신 품성과 고매한 덕성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구현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의 전형이며 귀감이다. 이것은 여성운동발전에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바치신 강반석어머님의 생애는 불면불휴의 혁명투쟁으로 수놓아진 가장 빛나는 생애였다. 이 영광에 찬 투쟁로정에는 중첩되는 시련도 많았고 어려운 고비도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어머님께서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 공산주의적덕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자신의 병환이 몹시 심한 때에도 가정이나 자신보다도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더 귀중히 여기시었고 혁명을 먼저 생각하시었다. 1932년 항일유격대를 갖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환에 누워계시는 어머님을 방문하시었을 때에도 어머님께서 혁명을 먼저 생각하시었기에 찾아오신것은 효성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집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원정의 길을 떠나시라고 그토록 간곡히 타이르시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지니신 부모님들에 대한 효성이나 이웃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 역시 단순한 현육의 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오직 숭고한 혁명위업에 바쳐진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강반석어머님의 효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그처럼 깊이 울려주게 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강반석어머님께서 항상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어 군중과 교락을 같이 하시면서 군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

와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를 막론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소박하시였으며 인자하시면서도 강의하시였고 깨끗하고 알뜰하게 생활하시고 사업하시였다.

이렇듯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녀성해방에 관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시는 행정에서 고귀한 업적들과 경험들을 쌓아올리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녀성운동 발전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마련하여주신 이와 같은 고귀하고 풍부한 혁명적재부와 튼튼한 터전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

*

불굴의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업적은 우리 혁명과 녀성운동 발전을 위하여 무한히 귀중하다.

강반석녀사께서 설한풍을 헤치시며 걸고 걸으신 험난한 투쟁의 행로는 일편단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신 전결한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투쟁로정이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앞길을 개척하신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이였다.

참으로 강반석녀사의 온 생애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산 귀감으로 된다.

강반석녀사께서 지니셨던 고귀한 혁명정신과 남기신 귀중한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를 무한히 존경하고 신뎌하면서 따라배우고있다.

전체 근로자들과 녀성들은 강반석어머님께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높이 발휘하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강반석어머님께서 것처럼 바라시고 그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싸우신 공산주의락원을 더 빨리 건설해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는 당적령도의 기본요구

한 용 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당적령도의 기본원칙,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로 되어야 한다는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였다.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행정경제사업을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지도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노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정치적지도로 되게 함으로써만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 당활동을 벌어나갈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시며 노동계급의 당의 역사적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철두철미 정치적지도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

*

노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이지)

노동계급이 자연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의 올바른 령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결속될수 없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다 발휘될수 없다.

당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간결히 옹호판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하나의 사상과 의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잘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 경제건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이며 유일한 령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그에 맞게 대중을 더욱 조직화하고 의식화할데 대한 문제가 나선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노동계급의 혁명적당만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하나의 사상의지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

계 대중을 조직화하고 의식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적령도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기간에 걸쳐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할 이 본질적요구는 당이 혁명과 건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정치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만 보장될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하는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과 당사업, 당활동의 근본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적령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년에 즈음하여》, 27페이지)

노동계급의 당이 행정대행을 없애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당적령도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 당의 본성과 당사업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혁명조직들을 령도할 사명을 지닌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행정경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직접 맡아보는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다시말하여, 당은 경제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행정경제기관과는 달리 그것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며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의 활동과 당사업의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이다. 이것은 결국 당내부사업이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나 한것없이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생기발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당이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향도적기능과 조직정치사업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기술실무사업에 빠지게 되면 정치적지도기관으로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당사업자체도 잘해나갈수 없게 된다.

당이 바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켜야만 노동계급의 정치적조직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수 있고 당사업의 본질적요구도 충족시킬수 있다.

이처럼 노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철저히 정치적지도로 옮겨 실현해나가는것은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의 본성과 당사업, 당활동의 근본요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령도방법으로 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가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이렇듯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지도와 대중,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옮겨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가 정치적지도로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완전히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명도하는 과정에 높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등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발패의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앞에 제기된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당이 당정책을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당조직들을 움직이며 행정경제기관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것을 말한다.

당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옳게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옹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이지)

당위원회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옳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사업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지도의 정치성과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또한 당원들과 군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동원하여 당정책의 성과적관철을 위한 가장 옳바른 투쟁방침을 세울수 있게 하며 당정책관철에로 모든 당조직들을 움직이게 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에서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당정책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고 그것들이 하나로 종합체계화되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에 옳게 구현될수 있으며 집체적지도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겠는가 하는것을 찾아내는 방향에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단체들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이 옳게 관철되도록 김일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렇

제 해야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으며 당위원회가 집체적령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당조직들의 하부지도에서뿐만 아니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에서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은 무엇보다도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할때 대한 당사업의 기본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행정경제사업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당의 령도밑에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을 통하여 그 집행이 구체적으로 조직되고 관철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을 늘 장악통제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정형을 제때에 료해하고 행정경제기관들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옹게 이끌어주고 밀어줄수 있으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도 실속있게 할수 있다.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은 또한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고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을 경제과입수행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은 당조직들이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각오정도 등 아래실태를 환히 꿰돌고 행정경제기관들을 지도해나가게 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가 대중의 힘과 지혜,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참다운 정치적지도로 되게 한다.

이처럼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

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당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도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에서 언제나 장악통제한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당이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자면 행정경제기관 당조직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이 부문 일군들의 당조직생활지도를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는 중요하게 행정경제기관안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행정경제기관안의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의 경제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정치적지도를 직접 실현해나가며 일군들의 당조직생활을 지도통제한다.

그러므로 당이 행정경제사업을 옹제 장악통제하고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자면 행정경제기관 당조직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일군들의 당조직생활지도를 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아래를 실속있게 장악통제할수 있으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사업을 철저히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그리고 행정경제일군들이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도 높히 발휘되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세우는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경향과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경제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21페이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일군은 당사업,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경제일군은 행정경제사업을 하여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잘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형식을 옳게 장악할수도 없고 그 판철에도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도 없으며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도 없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당사업도 잘 안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데까지 이룰수 있다.

당일군들은 모든 일을 도맡아해야 잘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가로타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대행하는 자그마한 표현도 다 없애고 당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경제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경제기술적사업들을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있다.

현대적인 거창한 대규모의 사회주의 생산은 몇몇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움직여나갈수 없다. 이것은 오직 여러 초소들에 서있는 행정경제기술일군들이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키고 자기 맡은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실속있게

벌어나갈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겠는가 하는데 응당한 당적주의를 돌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고 분공을 준 다음에는 뒤에서 그들이 맡은 일을 자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대중속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위신을 높여주고 날을 세워주며 행정적인 규율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소한 표현이라도 생기면 그와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행정을 대행하는 경향뿐아니라 이 사업에서 물러서는 경향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 당은 당내부사업에만 힘을 넣으면서 경제사업에서 물러서거나 행정경제사업의 뒤꼬리를 따르는것과 같은 현상을 철저히 없앨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사업은 당내부사업과 함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의 두 측면에서 진행된다.

경제건설을 떠난 당사업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도 구경은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당사업의 성과도 경제사업에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쓰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높은 기술기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투신하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

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당 및 행정경제 일꾼들은 서로 합심하여 당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잘하고 경제기술일꾼들은 경제기술사업을 잘해나가야 하며 바로 이렇게 될 때 혁명과 진실,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서 빛나는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는 일꾼들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실속있게 보장될 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정치실무적자질이 안반침되어야 한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수준이 높아야 위대한 수령님의 묘시와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차로 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능숙하게 해나갈 수 있다. 또한 당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야 행정경제사업의 모든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보장할 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꾼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이 당의 경제정책에 정통하고 풍부한 경제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행정경제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올게 지도하자면 또한 대중지도의 높은 방법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일꾼들의 정열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은 방법론을 소유하지 못하면 조성된 정황에 맞게 제기된 문제를 올게 풀어 나갈 수 없으며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갈 수도 없다.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방법론을 바로세우고 일을 해야 사업에서 낫은 틀을 마스고 아래에 내뿜가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산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갈 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이론과 방법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들 대중지도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 없는 양양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맡겨진 임무와 책임은 실로 무겁고 방대하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

김 창 주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전군길에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품모가 새로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나라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전하는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조직들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면서 국가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각급 정권기관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국가정권기관이 지니고있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우리의 주권기관이 명실공히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인민정권기관의 주권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민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6페이지)

당이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항도적력량이라면 인민정권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인민정권은 직업별, 계층별로 군중을 망라하는 근로단체들과는 달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통일적인 하나의 국가생활조직에 묶어세운다.

국가정권기관은 대중을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대중을 연결시킨다.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한다.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고 정확하여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직접 책임진 국가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인민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나갈수 없다.

각급 정권기관이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주권적행사를 옳게 하여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

될 수 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각급 정권기관들이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정권기관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우리 정권의 인민적성격과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권기관은 인민의 총복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43페이지)

부르조아독재정권은 지주, 자본가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물질적 및 문화적 부의 창조자로 되고있지만 그들은 바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한 탓으로 하여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으며 실업과 빈궁이 근로자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한다.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국가정권과 인민대중이 언제나 대립상태에 있으며 극소수의 착취계급들은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멸락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정권은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인민정권은 인민자신의 손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뿐 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까지도 보장한다.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주권기

관의 숭고한 의무이며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구경은 전체 인민이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정권기관이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은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국가정권기관들은 혁명반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다.

국가정권기관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국가가 근로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들어쥐고 계획적으로 생산을 조직전행하며 생산물을 분배한다. 근로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하고있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차례진다.

인민대중이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사회의 부가 늘어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원천이며 나라의 융성발전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인민들이 다같이 풍요로울 잘살게 하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여

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국가주권기관이 인민의 총복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벌려나갈 때 사회의 물질적부를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통성변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언제나 인민생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권기관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공화국정부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62~56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신 첫날부터 인민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우리 당과 정부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를 제통적으로 증진시키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들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하나의 로선을 세우시고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시는데서도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국가정권기관사업에서 그것이 빛나게 구현되도록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편하여주시였으며 인민정권기관들이 참말로 인민의 총복으로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정권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인민적시책이 인민생활에 더욱 빛나게 구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인민생활을 제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것이 훌륭히 구현되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의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 그리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으며 그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꾸려진 곡산공장, 육산공장, 닭공장, 도시와 농촌들에 준비하게 일떠선 문화적인 살림집들과 학교와 병원, 유치원과 탁아소,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에는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깃들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베푸신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제통적으로 향상되어왔으며 우리 인민은 오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지금 국가로부터 거의 무료로 다름없이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있으며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철따라 새옷과 학용품을 공급받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또한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보장받고있으며 전면적무상치료제와 무로교육제, 어린이보

육교양법의 혜택으로 주택문제와 병치료,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문제에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지금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깊이 간직하고 보다 위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이처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기도 우리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운택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훌륭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

*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것은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펼쳐진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

한것은 정권기관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옹계 풀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체도가 세워졌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되었다. 중공업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으며 대규모의 중앙공장들과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었다. 또한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빛나게 관찰된 결과 알곡생산과 남새생산 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에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사업할 때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것은 인민들의 의식주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언제나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질 때라야만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되며 인민생활을 한층 더 윤택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정권기관일꾼들속에서 당성, 로동제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정권기관일꾼들이 높은 당성, 로동제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인민대중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옳게 가지고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정권기관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주권적지도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위원회의 사업이 시계와 같이 딱딱 맞물고 돌아가야 합니다. 생산도 상업도 다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권, 394페이지)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고 모든 생산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것만큼 국가정권기관이 생산과 분배, 소비를 옳게 계획하고 조직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없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지역안의 공업과 농업, 교육, 문화, 보건, 상업, 도시경영 등 인민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부문을 직접 들어쥐고 그에 대한 주권적지도도를 강화하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나 다 짜고들지 않고 저절로 실현되는 법은 없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그것을 책임진 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짜고들어 집행하여야 근로자들에게 남새와 기름, 알과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을 넉넉히 공급할수 있으며 상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고 교육과 문

화, 보건 사업도 발전시킬수 있다.

인민정권기관일꾼들은 특히 오늘 인민생활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부식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우선 닭공장과 오리공장들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오리와 닭 기르기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곡산공장을 잘 정비하여 기름을 많이 생산하며 남새발관수체계를 완성하도록 하는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정권기관일꾼들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창작성과 자립성을 더욱 높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자체의 지방적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함으로써 질 좋고 다양한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을 옳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예산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으로 된다.

지방예산제는 지방에서 재정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게 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사회급양사업과 권익봉사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끊임없이 작용한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지방예산을 옳게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며 지방의 은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살림살이를 자체의 수입과 힘으로 보다 알뜰하고 간지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의 법적통제의 기능을 더욱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법은 노동계급의 국가적의사를 표현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고 당의 토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주의사회가 더욱 조직화되면 될수록 정권기관의 법적통제의 기능도 그에 안반침되어야 한다.

생산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나라살림살이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부문간의 련계가 비할바없이 복잡해진 조건에서 만일 인민경제의 어느 한 고리에서 계획규율과 제정된 경제관리질서를 어긴다면 그와 련관된 고리들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고 전반적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의 법적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적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경제계획과 재정예산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 문화건설사업이 엄격한 법적통제속에서 조직집행되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밑에 생산과 건설을 조직진행하며 국가앞에 지닌 법적과제를 집행하는데서 그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제국주의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온갖 낡은 유물을 없애며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통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정권기관의 법적통제는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전반을 법적규범과 질서 속에서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반혁명분자들이 준동할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민대중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 행복한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정권기관의 주권적지도와 법적통제는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경제와 문화 건설에 대한 정권기관의 지도와 법적통제는 공업과 농업, 상업과 도시경영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활동과 교육, 보건의 모든 사업에서 사회주의법생활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문화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며 따라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들속에서 법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법규생활을 자각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공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나라의 법 질서와 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개선하는것은 그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이지)

인민생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진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 달려있다. 인민생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옳게 세워지고 대책과 방도가 명백히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이 바로 서있지 않을 때에는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참말로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높은 자각밑에 인민대중을 위하여 사업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품을 소유하여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가 근로자들에게 더욱 또깝게 미치게 할수 있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빛나는 현실로 전환될수 있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명령과 지시, 회의와 문서로 사업을 대치하며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실속없이 발라맞추는 식으로 일하며 책임이 두려워 우에 밀고 아래에 미는 식으로 일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주체의 사업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답게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피야 하며 그들의 조그마한 애로와 요구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이와 같이 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육친적배려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고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며 우리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총복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 인민의 총복이 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과업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

지 재 룡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2월 사로청중앙위원회일군들 앞에서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강령적연설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과업을 휘황히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과업은 청소년들을 풍부한 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쓸모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며 모든 '사로청조직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인 사로청조직들이 언제나 튼튼히 들어 뛰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그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을 쓸모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내며 그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끝임없이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적연설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사로청조직들이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을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다시

금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잘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로청은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여기에서 우리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 자라납니다.》(《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21페이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는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를 완전히 없애고 인간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한세대에 끝낼수 없는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필연적으로 세대교체를 가져온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나감으로써만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청소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쓸모있는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인 사로청조직들의 기본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야 할 사명을 지닌 참다운 정치조직이다.

사로청조직은 청년들에게 정치적양식을 주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보호자이다. 사로청생활은 사로청원들의 정치적조직생활이며 그들을 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면적

으로 단련하는 참다운 혁명적학교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특히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현시기 사로청조직들이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의 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을 사로청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선차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현시기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 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페이지)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속에서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리 벌려야 하겠습니까.》(우와 같은 책, 1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건설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 청년세대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3대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그 어느때보다도 풍부한 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수많은 일떠선 현대적인 공장들이 발전된 현대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날아래 현대화, 공업화의 길에 확고히 들어선 우리 나라

농촌정리도 과학농사의 새시대를 맞이 하였다. 우리가 이미 건설해놓은 현대적공장들과 사회주의농촌정리를 제대로 관리운영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청소년학생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청년들의 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현실적요구는 모든 사로청조직들앞에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의 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공부하고있으며 소년단과 사로청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적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들이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그들의 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사로청조직들이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학생들속에서 일반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풍부한 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학생들의 기본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 주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읽기를 즐겨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데 있는것만큼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높은 열성을 가지고 학습을 생활화해나가도록 지도하는데 있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이는것은 그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첫째가는 요구이다.

청소년학생들이 높은 학습열의를 가져야 학습을 기본혁명임무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알려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후대교육을 위하여 그토록 배려를 돌려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모든 학생들이 높은 책임성과 정열을 가지고 언제나 공부열심히 해나갈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책읽는 운동을 널리 벌리는것은 그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주고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청소년시절 특히 중학교시절에 책읽기를 매우 좋아한다. 청소년시절에는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며 어떤 책이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다 보고싶어한다. 청소년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사로청조직들이 그들속에서 책을 많이 읽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다면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읽기를 즐겨하는 좋은 습성을 키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생들에게 글을 많이 씌우는것을 그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학생들에게 글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많이 씌워야 그들속에서 사고력도 발전

시키고 글쓰는 능력도 높일수 있으며 글을 쓰려는 커다란 욕망도 키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글을 많이 쓰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이 쓴 잘된 글을 출판물에 내주기 위한 조직사업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이 쓴 글을 출판물에 내주어야 그들이 글쓰는데서 신심을 가지게 되고 흥미를 붙이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심과 높은 정열을 가지고 여러가지 글을 많이 쓰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또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이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조직하는것은 그들의 지식을 공고히 하고 더욱 넓혀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청소년들속에서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널리 조직해야 학생들의 독서열의도 높이고 화술도 능하게 하며 배운 지식을 효과있게 써먹을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갈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이 소년단원들과 사로청원들 속에서 여러가지 소조활동과 시랑송모임, 독서발표회, 웅변대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학생들이 군중앞에서 시도 올고 소설도 읽으며 연설도 해보도록 하여야 그들을 열렬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학생들은 외국어배우는 운동도 적극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날로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련계가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점차 더 많이 요구되고있다. 날로 발전하는 국제관계에 필요한 외국어소

유자를 키우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들이 학생들속에서 고등중학교때부터 다른 나라 말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기간에 영어, 프랑스어, 로어, 독일어, 에스빠나어, 일본어, 중국어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정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의 지식수준뿐 아니라 그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로청조직들이 학생들속에서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이며 특히 물리, 화학,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과목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기초과학과목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물리, 화학,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과목에 대한 지식을 풍부히 가져야 발전된 현대과학기술을 훌륭히 소유할뿐 아니라 그것을 성과적으로 적용해나갈 수 있다. 기초과학과목에 대한 지식은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체계성있게 쌓아지는 조건에서 고등중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기간에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기초과학지식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급 학교 사로청조직들이 학생들속에서 기초과목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그들이 순차적으로 기초과학과목지식을 높여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과학기술지식을 훌륭히 소유하고 능숙하게 적용해나갈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속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널리 벌리는 것을 그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었다.

배우려는 욕망이 높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탐구심이 강한 청년들속에서 과학

기술보급사업을 옮겨 조직한다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그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훨씬 높여나갈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태력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청년회관, 로동자회관을 비롯한 청년들이 집체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사로청조직들이 이러한 장소를 널리 이용하여 실정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강연, 기술에 대한 강연 특히 농촌청년들속에서는 주체농법에 대한 기술 강연과 강습을 정상적으로 옮겨 조직진행한다면 청년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청소년학생들의 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일 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일반 지식과 현대적 과학기술지식을 전면적으로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적교시에서 또한 체육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전투적과업의 하나로 다시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하셨습니다.》
(우와 같은 책, 14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체육사업은 청소년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어도 몸이 약하여 자주 앓으면 소용이 없다. 청소년들의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도 적극 참가할 수 있으며 조국보위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사람들의 몸을 단련하는데서 청소년시기, 학교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체적준비를 튼튼히 갖

추어야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서 중요한것은 키크기운동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튼튼히 단련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키크기운동을 많이 하게 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키크기운동을 많이 해야 육체적발육이 빨라지고 균형적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들이 벌리는 체육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청소년들속에서 키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사로청조직들이 학교와 공장을 비롯한 모든곳에 키크기운동기재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학생들이 언제나 통구, 배구, 집단체조와 같은 키크기운동을 많이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그들의 체격을 성과적으로 개조하고 몸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더우기 녀학생들속에서는 예술체조와 체육무용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그들의 키를 후리후리하게 하고 몸매도 곱게 만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로청조직들의 체육활동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판철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르는곳마다에 체육시설과 운동기재들을 갖추어놓고 체육을 대중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청소년들은 물론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령적연설에서 밝히신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의 하나는 또한 청소년들속에서 나라에 리익을 주는 경제활동을 널리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나라에 리익을 주는 경제활동을 널리 벌

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이지)

나라에 리익을 주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의 발현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살림살이에 더 많은 보탬을 주는 창발적인 대중적애국운동이다.

청소년들은 나라에 리익을 주는 경제활동, 사회와 인민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로동의 참다운 건리를 깨달을수 있으며 나라의 재부들 늘이는 보람찬 투쟁에 참가하는 영예를 더 잘 느낄수 있다. 이 과정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뿐아니라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가지게 되며 앞날의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모든 품모들 더 할것추어나가게 된다. 청소년들속에서 이러한 고상한 사상과 아름다운 몸성을 키워나가야 나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의 재부들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속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의 만년대제를 이룩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이 나라에 리익을 주는 경제활동을 벌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판철하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기쁨나무림을 비롯한 경제림조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 형편에서 기쁨나무림조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쁨나무림조성사업은 후대들과 우리들자신을 위한 사업이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청소년들을 발동하여 집오래와 밭머리, 길옆에 여러가지 기쁨나무심는운동을 적극 벌리는 동시에 산과 들에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쁨문제를 푸는데 커다란 보탬을

줄뿐 아니라 조국의 모든 산천을 목음이 우거진 경치 좋고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십시오.》(우와 같은 책, 21페이지)

사로청은 청년들의 정치조직이며 교양단체인것만큼 사상교양사업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사로청앞에 나선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바로 사로청조직들이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로청조직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현실에 맞게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사로청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심과업은 모든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은 사로청조직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의 앞길을 명철하게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그 일꾼들, 전체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사로청을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릴 수 있으며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조선청년으로서의 높은 명예와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칠 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사상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들어

쥐고 청소년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며 그것을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영예로운 군위대, 결사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소년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청소년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어려서부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치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소년들이 위생문화사업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높이며 사로청간부양성사업과 대학생추천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사로청조직들앞에 제시하신 이 모든 전투적과업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역세게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사로청조직들앞에 내세우신 전투적과업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사회주의건설의 출모있는 인재로 키워내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를 튼튼히 준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경에하는 수령님께서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은 모든 사로청조직들로 하여금

아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청소년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로청의 전투적과업은 청소년교육교양의 내용과 그 방법을 가장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세계청년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나갈수 있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연설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과 그 일군들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신성한 임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그 수행으로 청소년학생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두터운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의 본질과 전반사상, 수행방도들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은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 때 성과있게 수행될수 있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은 청소년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널리

해설전전하는 동시에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정에 알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으로써 광범한 청소년들이 높은 책임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는데서 청소년지도일군들이 이신작직하는것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이다.

사로청지도일군들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어려운 일이 나서거나 난관에 부딪칠 때에는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청년지휘관답게 그들의 기수가 되어 돌과귀를 얻어나가야 한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우수한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며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교양육성하는 사업은 사로청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이 사업은 학교교육기관들과 과외교양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구하는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청소년들을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전체 인민을 발동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작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어김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청소년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시오며 모든 사로청조직들이 아버지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과업

리 진 호

은 나라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전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양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품모도 물라보게 새로와지고 있다.

전당과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어있으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에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혁명과 전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 특히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주의전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공산주의도덕교양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물질적부가 풍부한 사회일뿐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교상

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춘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바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누구나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함께 교상한 공산주의도덕을 소유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품모와 도덕적품모를 다같이 갖추어야 한다.

공산주의도덕은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한 인류도덕의 가장 높은 형태의 도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살며 싸우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이다.

따라서 사람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교상한 도덕적품모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은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역사적위업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기본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최고단계를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교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체현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과 함께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

여야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더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사람이 혼자서 생활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벌일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생활과 조직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여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6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혁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도덕적품성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은 모두가 집단과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다.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떠나서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적품성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혁명하는 사람들속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투쟁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투쟁할 때에는 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그때야 사람들사이에 행동통일을 보장할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다.

따라서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도덕적품모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혁명하는 사람은 오직 공동생활에 충실하며 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도덕적품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갈수 있다.

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집단주의를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기초로 하여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단결되어있을뿐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투쟁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가 고도로 조직화되어있으며 전사회적규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사업과 생활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킬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는 집단생활과 공동장소들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들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이고 발전시켜나가기에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고상한 도덕적의무로 되며 사회주의사회를 충실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

록 하는것은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 질서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를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집단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켜야만 사람들사이에 믿음을 두러이 하고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의 전반적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한다.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서있지 않는데서는 온갖 나쁜 사상이 발붙이고 자라나게 되며 계급적원썹들이 준동할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움으로써 어떠한 원썹도 감히 우리의 혁명대오를 건드릴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또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서와 제도가 없고 규율이 없는곳에서는 늘 사고가 나며 생산에서도 성과가 적은 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46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생산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제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매개 단위, 매개 초소에서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에 맞게 살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이러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양시켜야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더 기적적인 혁신과 성과들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은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켜나가고도 할 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지키려는 높은 자각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헌신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또한 이미 이룩해놓은 모든 공동재부들을 알뜰히 거두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나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의 발현이며 생산과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영웅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는 귀중한 공동재산이 마련되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이러한 공동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효과있게 동원리용할 때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새로운 양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귀중한 국가, 공동 재산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자면 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국가공동재산을 많이 만들어내어도 공동생활질서를 어기고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다룬다면 우리 인민이 피담으로 창조해놓은 귀중한 공동재산들이 생산과 전설을 빨리 다그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없다.

이와 같이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동재산을 아끼고 효과있게 동원리용함으로써 생산과 전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오늘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0페이지)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의 기본원칙이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 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집단과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적공동생활의 규범과 준칙에 맞게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집단규율과 조직규율을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규율, 조직규율을 잘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게 하며 집단안에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세워나갈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공동생활질서를 잘 알려주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교통질서를 비롯하여 극장, 영화관, 도서관,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제도를 잘 알아야 그에 맞게 행동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와 규범들을 잘 알려줌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전하는 우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도덕적으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갈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학교, 병원, 극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시설들과 공공시설물들은 다 인민의 재산으로 되어있다.

이 모든 재산들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위한 제부이며 오늘의 우리 세대들만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쓰일 귀중한 밑천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귀중한 재산과 공공시설물들이 참으로 인민을 위한것으로 대를 이어 훌륭히 복무하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하며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다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양심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상 생활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의 향락만 생각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생활을 무시하며 국가재산을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는 온갖 리기주의적사상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 다.》(《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49페이지)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며 일해나가는것은 부르조아사상의 표현으로서 그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만 잘살겠다는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는 그것은 집단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생겨난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와 인습과 관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전전한 생활기쁨을 죽여나간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켜나가게 하자면 그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 관습과 인습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습성이 수천년을 물려내려오고있는것인것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생활질서를 어기는 현상과의 투쟁을 전군중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비록 자그마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도덕적인 현상으로서 대중자신의 투쟁과 사회적여론의 힘에 의하여 철저히 극복되게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에 맞게 공동생활 규범과 준칙도 더욱 완성되어 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를 옹계 반영하지 못하고서는 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사회발전에 맞게 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을 더 잘 완성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공동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는 사업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적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을 더 잘 완성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공동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는 사업도 대중자신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참가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적공동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사회적인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장엄한 역사적인 대전군속에서 발현되는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긍정적인 새싹들을 적극 찾아내고 끊임없이 일반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공동생활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되었던 공동생활의 모범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데서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서 큰 감화력을 가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되었던 공동생활의 모범을 본받도록 할 때 그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따라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 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또한 일군들이 실지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업과 생활에서 지도일군들이 실지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사업과 생활이 그러한것처럼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세우고 지켜나가는데서도 일군들자신이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군중에게 강하게 요구할수도 없으며 산교양을 줄수도 없다.

일군들의 말과 행동은 거울과 같다. 일군들자신이 겸손하고 배절이 바르며 일상 생활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면 모든 근로자들이 그것을 본받아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실지 행동을 통하여 군중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더 잘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고 꾸준히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홍 군 표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막으며 알곡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농업생산토대는 그 어떤 기후변동의 영향도 이겨낼수 있게 더한층 튼튼히 다져지고있으며 국토는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일찌기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바른 승리에로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땅위에 대자연개조의 보람찬 투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

*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4~45페이지)

공산주의자들의 력사적사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시켜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킨 다음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연을 개조한다는것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며 자연부원을 보다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연환경을 목적의식적으로 변형해나가는것을 말한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기후변동이나 그 어떤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할수 있으며 자연환경을 사람들의 경제문화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일찌기 자연개조문제를 자연의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단순한 기술경제적문제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정책적 문제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전략적문제로 내세우시고 대자연개조에 관한 위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토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을 개조하여 새땅을 더 얻어내야 하며 있는 땅을 보호하고 개량하여 더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2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이미 있는 땅을 보호하고 개량하며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 어떤 우연적요인에도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산과 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온 나라의 산과 강하천들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재부의 원천으로 만들며 국토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연개조에 관한 이 웅대한 구상은 무엇보다도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보다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서는 생산과정이 곧 자연과의 투쟁과정으로 되며 자연개조사업은 자연을 정복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아직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고 새

땅을 더 얻어내어 경지면적을 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논밭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수 있는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은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자연개조사업은 나라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전망성있게 조성함으로써 자체의 힘, 자체의 자원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구상에 따라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산에 경제림과 용재림, 땔나무림과 보호림, 과수원을 조성하고 모든 산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 많은 공업원료와 목재를 얻어내고 과수업과 축산업, 잡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강하천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면 가물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수력발전과 강하천운수, 담수양어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관개용수와 공업용수,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전반적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부닥치는 난관들을 뚫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세대에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만년대계의 설계도이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국토와 자연의 거치른 흔적들을

말끔히 가시고 생활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웅대한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연개조사업은 한꺼번에 간단히 해치울수 없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야 하며 공사기한을 바로 정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9페이지)

자연개조사업은 대자연을 정복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이 땅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탁원을 건설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투쟁 원칙과 방도에 확고히 의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자연과의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소심하거나 통이 작은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일본새와는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대담하고 통이 커야 한다.

오직 판을 크게 벌리며 용감하게 달라붙어야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당면하게 해야 할 자연개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나라의 자연조건과 발전전망을 전면적으로 타산한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당면한 자연개조사업을 짜고들어야 국토와 자원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련관되어있는 조건에서

도 국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자연개조의 단계와 공사기한을 바로 정하고 반복공사를 없앨수 있으며 당면한 경제건설의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과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상과 애국주의사상이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후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피땀을 흘릴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1페이지)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며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삼천리금수강산은 우리 인민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온 사랑하는 조국땅이며 우리에게는 이외에 다른 땅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혁명을 하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우리의 후대들도 이 삼천리강산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마땅히 자기의 조국땅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해야 하며 그러자면 공산주의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 때 그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공다운 자각을 가지고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으며 국토를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자연개조에 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곧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증국적으로 해방하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이 당우에 대자연개조의 자랑스런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해방후 우리 인민앞에는 일체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황폐화된 국토와 자연을 새 조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우리 인민앞에 나선 이 절박한 과업을 제때에 통찰하시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무르익혀오신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선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대자연개조사업으로 규정하시고 관개수리공사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하시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5페이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다그치는것은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가물이 들고 큰물이 지는 우리 나라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해방직후에 벌써 수리화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더욱 다그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수리화를 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대규모관개공사를 힘있게 벌리는 한편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를 지방과 협동농장자체의 힘으로 적극 진행하며 관개공사를 밀고나가면서 강화천정리사업과 교이는물빠기공사를 다그쳐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나라를 가장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자연개조방침들도 뚜렷이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는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림과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방대한 농경지를 얻는것과 같은 의의물 가지는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커다란 재부를 넘겨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산을 잘 리용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전원회의에서 경제립을 대대적으로 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기쁨나무림과 섬유림 조성사업을 널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1961년 4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야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였으며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시였다.

대자연을 개조하여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며 국토를 더욱 웅장하고 쓸모있게 건설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첫째로 발판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입니다.》(《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1~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타산한것으로

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빨리 해방하고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치며 국토를 보다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발판개와 다락밭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치산치수와 간석지개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연개조 5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수리화가 완성되고 국토건설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명확한 투쟁 목표와 방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다그쳐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한맹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철저히 막으며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인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결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곧바른 길을 따라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전투에 서시여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조금만 비가 내려도 수많은 인민들이 보잘것 없는 살림집과 가장

집물마저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던 쓰라린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여가신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받기하시고 1946년 5월 그 첫삽을 뜨시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하천정리와 수리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흰빛은 조국의 산들을 하루빨리 록음우거진 푸른 숲으로 덮으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1947년 4월 문수봉에 오르시여 전체 인민을 치산치수와 산림목화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으며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도 자연개조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지수지의 위치와 관개공사의 설계, 다락발건설의 의의와 다락발을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연개조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질로 뜻깊게 맞이한 올해의 생신날에도 농촌을 찾으시고 지하수혁명을 일으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질실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의 전투에서시여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연을 정복하는 천지개벽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며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우리 인민은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자연의 온갖 변덕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농업생산도매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평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흑심한 식량위기, 농업위기에 허덕이고있는 최근년간

에도 알곡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늘일 수 있었다. 또한 경제림과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의 산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전변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오던 서해안의 간척지를 막아 대규모의 갈섬유원로기지와 해마다 만풍년이 드는 옥답을 만들 수 있었으며 대형벨트콘베아수송선을 바다 위에 건설하여 은물광산의 철광석생산을 부쩍 늘이면서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켜나가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자연개조구상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은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게 과시되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다섯달 남짓한 사이에만 하여도 한평전선으로 인한 류폐없는 강추위속에서 10만정보의 발판개건설을 완공하고 많은 면적의 다락발을 건설하였으며 1만 6,200정보의 논밭을 새로 정리하고 1만 4,200여정보의 새땅을 얻어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이후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만 2,000여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줄짗을 박아 10만정보의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대단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실로 우리 조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몸소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으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고귀한 발현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다그쳐 한랭전선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알곡생산을 늘이며 우리 나라를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며 어떠한 왕가물에도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하겠습니까.》(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때 대하여, 6페이지)

최근년간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이상기후현상을 가져오고있으며 이상기후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은 앞으로도 오래동안 계속될것이에견되고있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한랭전선으로 인한 왕가물과 무더기비의 피해를 철저히 막는것은 인민들이 안전하게 잘살도록 하기 위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야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알곡생산을 계속 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국토와 자원을 더 잘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따라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험은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전인민적운동으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며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면하계는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새로 건설된 발판개시설들과 다락밭들, 새로 쫓은 땅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있는 토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고 새땅을 많이 얻어내며 산과 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필요한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함으로써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한공수의 토력이라도 절약하여 대자원을 정복하는 보람찬 전투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은 수령님의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는 주체의 법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국토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토지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의 앞길은 실로 위창찬만하다.

모두다 당면한 영농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올해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진령하고 나아가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조 창 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하신 강령적교시들에서 채취공업의 현실태와 그 발전전망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었으며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선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채취공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방침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며 전반적인 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투쟁방침이다.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채취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그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

상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신년사》, 1977년 1월 1일, 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공정이며 공업 생산순환의 첫 단계이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앞세워 광물과 석탄 생산을 늘여야 원료와 열 및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최근년간 야금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어 여러가지 광물과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이 완전히 점령됨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규모와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졌다.

현대적인 대야금기지와 전제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들이 도처에 새로 일떠섰으며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되었다. 또한 평양과 북창, 청천강을 비롯한 여러곳에 현대적인 대규모화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고 그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커졌다. 이리하여 쇄돌, 유색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원료들과 석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것은 이미 건설된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은을 내는가 못 내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실로 채취공업에서 일대 진환을 일으켜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바로 여기에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경제발전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는 것은 또한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공업건설의 본질적요구이며 원료, 연료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는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민족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하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안전하고 공고한 토대우에서 나라의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원료위기, 연료위기를 겪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도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침체와 담보를 모르는 우리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할수 있다.

오늘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사업으로 된다.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완전히 점령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은 완충의 해인 올해에 우리앞에 나르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은 그 규모에 있어서 전례없이 웅

대한 설계도이며 다른 나라의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력경제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혁명적이며 진투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는 중요공업 제품생산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여 년간 강철생산량은 700만~800만톤, 석탄은 7,000만~8,000만톤, 전력은 600억 킬로와트시, 세멘트는 1,200만~1,3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새 전망계획의 이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빈틈없이 하여야 하며 바로 그 돌파구를 채취공업이 열어제쳐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잡도리를 크게 하고 용감하게 투쟁하여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새 전망계획 수행의 첫시기부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참으로 채취공업발전에서 혁명적진환을 일으키는것은 완충의 해인 올해의 중심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채취공업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켜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연료 및 원료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채취공업의 생산능력은 전례없이 늘어나고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졌다. 또한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을 빨리 늘이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계제작공업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채취공업을 일떠세

은 풍부한 경험과 자체의 유능한 기술
 역량이 있으며 지하자원도 무진장하다.

그러므로 문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이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킨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석탄과 광물 생
 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열쇠
 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
 공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는 무엇보다도 지질탐사사업을 앞세
 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려면 탐사사업
 을 앞세워야 하고 예비탐사뿐만아니라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다 앞세워야 합
 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59페이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
 업발전에서 하나의 원칙이다. 지질탐사
 사업을 앞세워 지하자원의 분포상태와
 매장량을 정확히 알아내야 굴진과 채
 광, 채탄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새로운 광산들과 탄광들을 전망
 성있게 개발하여 채취공업을 한계단 높
 이 발전시킬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유망한 대상들에 탐사력량과 탐사
 장비들을 집중하여 전망탐사와 현행탐
 사, 작업탐사를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당면하게 전망이
 크고 개발조건이 좋은 큰 규모 탄광들의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새로운 채굴후보
 지들을 계속 마련하는 한편 중소규모탄
 광들의 탐사를 실속있게 하고 도처에서
 지열탄탐사사업도 강화하여 석탄혁명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의의
 가 큰 쇄돌탐사에 힘을 넣어 무산광산,
 덕천광산, 온돌광산을 비롯한 대규모철

광산들을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철광산
 들을 적극 개발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검덕지구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은 유색금속광산들의 주변과 심부
 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여 유색 및 희
 유금속 광물의 확보광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질탐사사
 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탐
 사장비를 개선하고 신진적인 탐사방법
 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이 필요하
 다. 이것은 보다 적은 노력과 자금을
 가지고 탐사속도와 탐사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우리는 탐사설비를 더욱 현대화, 경
 량화, 고속도화하고 시추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물리탐사를 비롯한 여러가
 지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지질탐사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기 위하여서는 또한 굴진과 박토를 확
 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무조
 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굴진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
 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굴진
 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을 빨리 발
 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43페이지)

굴진과 박토는 석탄과 광물을 채기
 위한 선행공정이며 그 준비과정이다.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워야 채탄
 장과 채광장들을 넉넉히 마련하여 어떤
 정황속에서도 석탄과 광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탄광, 광
 산들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다.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긴박한 조건에서도
 당면한 생산과 함께 앞날의 전망을 내
 다보면서 굴진과 채탄, 굴진과 채광의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의 투하비율을

5대5로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드팀 없이 관철하는것이다.

탄광, 광산의 지도일군들은 한명의 토력을 배치하고 한가지의 기계설비나 자재를 주어도 굴진과 박토 부문에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또한 선진 기술공정과 기계설비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굴진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실전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고속도굴진, 고속도 박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굴진 및 박토 속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과학적인 탐사자료를 가지고 집체적인 협의밑에 굴진계획을 정확히 세움으로써 헛굴진과 오작굴진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기본굴진은 3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이상 앞세워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갱을 잘 꾸리고 그 관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석탄과 광물 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지도일군들은 갱을 잘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탄광, 광산들에 세멘트를 충분히 대주어 갱건설과 갱도연구화를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곳에는 탈수갱도 건설하여야 하며 갱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늘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여야 합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6페이지)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은 채취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며 다량채굴, 다량처리에도 넘어가야 할 우리 나라 채취공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자체의 기계생산 및 수리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고속도착암기와 대형착정기, 대형적재기와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능높은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며 부속품생산을 앞세워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함으로써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기계설비들을 창안도입하고 지금 있는 설비들을 개조하여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하며 무연탄광들에서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초과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채취공업부문의 실전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석탄과 광물 생산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그것이 하루빨리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채굴장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공정들의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탄광, 광산들에서 모든 기술지표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정상화와 노동생산능력의

장성은 노동자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는 생산조건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사업에 달려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5~236페이지)

채취공업부문에서의 생산과정은 많은 설비와 자재, 자금을 들여 대자연과 투쟁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끊임없이 부딪치는 새로운 정황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는 창조적과정이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만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부딪치는 정황들을 주동적으로 처리하고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채취공업부문의 경제조직사업에서는 지도일군들이 대렬, 설비, 장비를 비롯한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기술경제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채취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늘 막장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이신작치의 모범으로 생산전투를 직접 지휘하면서 아래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선후차를 옮겨 가리고 약한 고리를 보충해주면서 력량을 기동적으로 잘 편성하여야 한다.

설비와 장비, 자재의 보장사업은 계획실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사업이다.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필요한 설비와 장비, 자재를 충분히 대줄 때 탄부와 광부들은 마음껏 일할수 있게 되며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는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탄광,

광산들에 필요한 착암기, 전차, 압축기, 갱목과 같은 설비와 장비,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어야 하며 큰 장비뿐만아니라 튼, 썰찌, 도끼와 같은 작은 작업도구들을 대주는데도 다같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혁명임무에 대한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관점에 온전히 서야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다.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낡은 사고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투쟁하면 꼭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해야 하며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이며 진공적인 입장에서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책들을 혁명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있게 아래에 내려가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며 주동을 온전히 들어쥐고 대담하게 공격전을 들이대야 한다.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우는것은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채취공업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두가 국가의 법 질서와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규율, 협동생산규율, 노동규율을 비롯한 모든 규율을 온전히 세우고 그것을 어기는 사소한 현상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후방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가 난부들과 광부들에게 제때에 가당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다.

우리는 후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탄부들과 광부들에게 더 훌륭한 주택과 합숙, 문화추생시설들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탄광, 광산 지구마다에 남새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남새공급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잘 운영하고 농가에서의 닭기르는운동과 로동자가정들에서의 오리기르는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려 기름, 고기, 알 등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채취공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과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곧 자기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담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부문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석탄과 광물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금속공업, 건재공업, 화학공업,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에서는 탄광, 광산들에 강재와 전선, 세멘트, 폭약과 시약, 경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계획대로 어김없이 대주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자동차와 대형 불도셀, 대형굴착기와 대형직제기, 공

기압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해야 하며 협동생산품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하신 강령적교시들을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그의 철저한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어렵고 복잡할 때마다 대중의 앞장에 서서 망속의 보물을 캐내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와 합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채취공업부문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은 채취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채취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촉진시키자

전 금 철

우리 나라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났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된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였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주체적력량으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민족공동의 강령을 가지게 되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은 다섯해가 지난 오늘까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대화도 과탄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기어이 저지과탄시키고 민족공동의 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밑에 나라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1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오랫동안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

리 인민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과 새로운 신심을 안겨준 커다란 민족적경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협상이 마련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44페이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끊어졌던 민족적연계를 다시 회복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각방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마련되게 되었다.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북과 남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창한 민족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족공동의 원칙이 있어야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국경아닌 본계선을 사이에 두고 오래동안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재통합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폭넓게 참가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남조선통치배들이 방국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려 우리의 거둬드는 자주통일방안들을 덮어놓고 거부하고 반대해나서는데로부터 우리 조국의 통일이 한없이 지연되게 된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온 민족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쌍방이 공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공명정대하고 과학적인 원칙, 공동의 정치강령이 마련되어야만 하였다.

남북협상과 통일의 전도를 가름하는 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히시고 그 실현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조국이 분별된 첫날부터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변천된 국내외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연설에서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고 남북대화의 길을 주동적으로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폭넓은 협상방침을 지지하는 내외여론과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그때까지 남북사이의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할수없이 적십자회담의 형태로나마 우리와의 대화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록 제한성을 뱉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귀중히 여기

시고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추진시키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보다 높은 정치회담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마련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쌍방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합의를 보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발표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8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남북협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쌍방이 견지해야 할 기본정치강령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빛나게 구현한 것으로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또한 온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근본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원칙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측 대표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공동의 지침》으로 삼

아나가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두말없이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회담이 마련되게 되었던것이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은 그 공정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남북조선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초석인 민족공동의 강령을 가질수 있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보다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결과 북과 남사이의 격제된 감정은 풀리고 통일의 길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안겨준 고무적기치로 되었으며 민족의 지향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되었다.

참으로 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에 대한 남북조선인민들의 뜨거운 념원의 결정체이며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우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2

남북공동성명이 반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대화의 전과정은 단결과 대결, 애국과 매국,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사이의 투쟁과정이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공동의 리정표가 마련된 조건에서 쌍방앞에는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리행하는것이 실천적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공동성명에 밝혀진 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측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본 회의들에서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문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와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문제 등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의하였다.

이 모든 제안들은 온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만일 그것들이 실현되었다라면 북과 남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피뢰도당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방안들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키겠다고 온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는 돌아서자마자 그것을 배반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게 행동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29페이지)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피뢰도당은 무엇보다도 자주의 원칙을 만류하게 유린해나섰다.

원래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의원칙은 위세의 간섭과 의존을 배척할것

을 예견사건이며 남조선측도 앞으로는 남북성명의 원칙대로 제국주의자들의 《안락이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피괴도당은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애걸하고 미제와 일본반동들과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온갖 사대매국행위를 끼리끼리 감행하였다.

박정희피괴도당은 또한 평화통일원칙을 뒤집어엎고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 밑에 화약내전은 전쟁분위기를 고조하고 남조선전역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여왔다.

민주적대단결은 자주, 평화통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박정희피괴도당은 우리와의 《대결》을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반공》의 기만적구조 밑에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쇼적단행을 더욱 야만하게 감행해나섬으로써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도 근본적으로 배반하였다.

박정희피괴도당의 배신행위는 대화마당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놈들은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과 남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를 《시기상조》나 《여건조성》이니 하는 엉뚱한 구실을 내걸고 거부하였고 남북정치협상회의 방안은 그것이 대화에 《복잡성을 조성한다》는 당치않는 이유로 반대하여나섰다.

대화마당에서 놈들이 한것이란 결국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토의하자는 립장이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를 파탄시키자는 립장이었다.

미제의 비호 밑에 대화의 막뒤에서 분렬과 대결, 전쟁정책을 추구하여오던 박정희피괴도당은 1972년 10월에는 제놈의 장기집권을 위한 파쇼체제, 분렬체제인 《유신체제》라는것을 꾸며냈으며

그 이듬해 6월에는 이른바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정체》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나라를 영구분렬시키려는 로골적인 배신행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박정희피괴도당의 민족분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분렬을 막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인내성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남조선측의 웅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며 놈들은 사태를 더욱 엄중한 데로 끌어갔다.

최근년간에 이르러 박정희피괴도당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자 제놈의 명줄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반공법》, 《긴급조치》 등을 휘두르면서 기만적인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마구 치형하살하고있다. 이와 함께 놈들은 피괴군무력과 민간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미일상전들의 달라와 연과 무기를 끌어들이어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애걸해나서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도 대화도 안중에 없으며 놈들이야말로 분렬과 대결, 장기집권만을 추구하고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들이라는것을 뚜렷히 일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반공》을 저들의 《기본정책》으로 휘두르고 말로는 민족대단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는 파쑈통치를 실시하며 자주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미군의 철거를 반대하며 우리와 힘을 합쳐 통일하겠다고 서약하고는 우리를 반대하는 형편에서는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이렇다할 전진을 보지 못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상태로 되돌아가게 된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탄복하게 유린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배신행위때문이다.

남북대화의 전과정은 과연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자인가, 누가 진심으로 평화와 단결을 념원하고 누가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가, 누가 참말로 통일을 원하고 누가 분열을 피하는가, 결국 누가 조국통일 3대원칙에 충실하고 누가 그것을 배반하였는가 하는 것이 톤박할 여지없이 명백히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과정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만고의 역적이며 인간백성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부귀영화와 장기집권만을 추구하는 남조선괴뢰들과 마주앉아서는 아무것도 실현할수 없으며 남들의 매국배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남북대화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조선인민은 통일에 대한 굳은 신심과 밝은 희망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밀쳐나서게 되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더 깊이 흠모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통하여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정당성은 온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국제적환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게 되었다.

3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부담치는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건철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기본원칙을 떠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 민족앞에 선언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일강령으로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류동하든지간에 변함없이 통일문제해결에서 기본원칙으로 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북과 남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은 시종일관 명백하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반동들이 《반공법》과 《긴급조치》를 휘두르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조건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화가 성사될수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구호를 버리고 남조선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취소하며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그만두며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 불붙어두는 정책을 포기하며 남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평화당과도 대화를 할수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민족내부의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내놓았다.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4개항목의 구국방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그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민족내부문제를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 구국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에서 민족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미제와 박정희 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구국방안을 실현하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오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북정치협상회의가 시급히 소집되어야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한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 앞에 조성된 현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의 앞길을 성과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국통일위업을 3대원칙의 요구대로 실현하기 위한 담보이다.

원래 우리가 남북공동생명의 정신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시작한것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였다.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쇼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을수 없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단결이 이룩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며 남조선의 현 군사파쇼독재를 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안팎의 정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정의의 혁명위업,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세 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

박 영 시

오늘 조선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날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은 하루빨리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갈라진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더욱더 강력히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은 더욱 큰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 적극화되어가고있으며 세계 모든 대륙에서 국제적연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갈것이다.

*

*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중요

한 투쟁과업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통일된 강산에서 무궁한 번영을 누리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우에서 한가지 말과 문자를 가지고 같은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인 우리 인민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야만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과 참다운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대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것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는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안팎의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헤쳐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이, 어떤 령장과 방법을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시었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조선문제로 하여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킬수 있는 근원을 없애고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여차례에 걸쳐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과 그에 기초하여 정세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제시된 우리의 모든 통일방안들은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침으로서 조국통일의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바로 그 불기때문에 그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

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는 반제민족해방투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고찰하시고 그 승리의 주체적요인과 함께 국제적요인을 빨리 성숙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함입니다.》(《선년사》, 1977년 1월 1일, 14페이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며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주되는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로 되며 그와의 긴밀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조선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은 전세계적범위에서의 그들의 패망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더욱더 고립될수록 남조선에서 제국주의식민지 통치지반은 더욱 약화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될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그와의 전투적련대성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필수적요인으로 나선다.

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이다.

3대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통일의 민족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국제혁명력량

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가능성들을 다 리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전략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역량편성방침에 기초하시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는 한편 정세발전의 매 시기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활동방침을 제시하시교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3대륙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유엔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국가관계발전에 대한 문제, 대외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구체적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전개하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시오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세계인민들속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그들의 지지성원은 날로 커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남조선 반동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319페이지)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내놓으신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을 온 민족의 념원과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공명정대한 방침으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침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 우리 인민과 함께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다》, 《조선을 둘로 분열하려는 기도는 세계평화의 장래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중지해야 하며 유엔총회 제30차회의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모든 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이 고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반향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과 련대성이 얼마나 강화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새로운 구국방안이 발표되자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이 련대성 전문과 편지를 보내오고 성명, 호소문, 결의문, 담화를 련이어 발표하며 출판물들에 사론설과 논평을 광범히 실는 등 우리의 구국방안을 열광적으로 지지환영하여나섰다.

그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안팎의 분별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에서 해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침과 조치들이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그들이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과 련대성에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도 련대성운동이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대중화, 조직화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련이어 결성되고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들이 이미 신흥세력나라들과 일본, 프랑스, 벨지끄, 미국 등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대륙의 50여개 나라들에서 조직되었다. 친선 및 련대성 조직들은 상설적인 중앙조직과 함께 그 산하의 지방조직들까지 내오고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청년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회적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우리의 조국통일위업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와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의 활동은 개별적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 국제적규모로 조직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지난 2월 벨지끄의 수도 브뤼셀에서 세계 68개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구현인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4개항목의 구국방안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운동을 전세계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를 내왔다.

이에 앞서 도쿄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구라파, 북미주 등에서 온 대표들의 참가밑에 열린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서는 안팎의 분별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전쟁정책을 날날이 발가놓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회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원을 강화하며 국제적련대성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하여 한결같이 관동하고 그 상설기구들 내운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회의는 미국본토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미국 뉴욕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회》, 《미국의 대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메히꼬, 서독, 스위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에서 온 저명한 인사들과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 국제회의에서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와 미군의 즉시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북극노 박

정희 독재《정권》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는 나라들에 그를 당장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모든 사실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반대성운동이 당파와 제도를 초월하여 보편적성격을 띠고 광범한 국제적운동으로 더욱 조직화되고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조선문제가 세계관심의 초점으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상징하는 세계적문제》로 확고히 전환되고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문제를 자기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이 그 규모와 범위가 전례없이 커지고 조직화된 국제적운동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은 국제무대에서의 조선문제토의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년간 유엔총회들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공정한 결의들이 채택되고 유엔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게 된데 뒤이어 모든 국제회의들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5차불력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세계평화건설자대회, 구라파, 아랍청년대회 제5차회의, 국제기자동맹 제8차대회,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4차대회,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제2차대회, 제14차세계직련부로회의,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이딸리아민주세력들의 회의 등 지난해와 올해에 들어와 진행된 많은 국제회의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중요회의들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죄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반대성을 표시하는 결의와 선언들이 채택되었다.

실로 회의의 전과정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나고

조선문제가 반드시 조선인민의 이익에 맞게 해결될것을 요구하는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반대성의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매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적극화되고 심화되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된 반대성조직들의 결성으로부터 각종 토론회와 담화, 기자회견,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 서명운동, 조사보고와 선언문, 성명발표, 결의문, 호소문 채택, 신문, 통신, 방송, 잡지들의 사론설과 논평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종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더한층 심화되고 있다.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 반대성위원회들, 저명한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선에서 민족분열의 비운이 산생된 경위와 근원을 역사적으로 까밝히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할데 대한 자기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열을 고착시키려는 미일반동들과 박정희파괴도당의 책동을 신랄히 단죄해나서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오늘 하나의 강력한 국제적조류로,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으며 전세계는 우리 인민에 대한 반대성의 세찬 파도로 싹새이고 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국제적반대성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정세발전은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촉진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리면서 조선의 통일을 악랄하

제 방해하는 안락의 분렬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거들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다.

가장 악랄한 파쇼분자이며 극악한 매국노인 박정희피뢰도당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는 세계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으로 말미암아 국제교야의 처지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세계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을 《추악한 제국주의사환군》, 《파렴치한 분렬주의자》, 《악랄한 전제주의독군》으로 단죄하면서 당장 처형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놈들과 거래하는것을 더없는 수치로 여기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미 캄보쟈, 라오스, 또고, 베닌 등 여러 나라들은 남조선피뢰도당과 맺고있던 종래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렸으며 팔레스타인국가외교부장회의를 주최한 예루는 회의장에 기여들려던 남조선피뢰도들에게 출입금지령까지 내렸던것이다.

박정희피뢰도당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인 규탄과 배격은 놈들의 전쟁책동과 민족분렬책동, 살인폭압행위에 대한 격분으로 치를 떨고있는 세계인민들의 광심을 반영한것으로서 너무나 응당하며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력사적으로 파쇼와 전쟁, 분렬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던 매국노치고 대내

외적으로 고립배격당하지 않은놈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멸망하지 않은놈이 없다. 이에 있어서 박정희피뢰도당도 결코 예외로 될수 없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쟁쟁하고 규탄을 받고 더욱 궁지에 빠져들어난 박정희피뢰도당이 어떻게하나 제놈들의 대외적 고립을 모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세계여론을 기만할수 없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오늘의 주세를 돌려세울수 없다.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을 두둔하고있는 제국주의상전들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지금 세계인민들은 조선문제와 관련한 비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언행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끌어내야 하며 박정희피뢰도당을 말라와 무기로 뒤받침해주는 부질없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인민은 모두다 조국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있다.

우리는 조만간에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밑에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안락의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7호(부제 423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7년 7월 1일

발행 • 1977년 7월 5일

7-75170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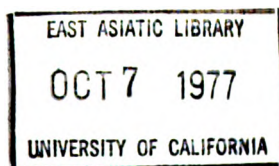
From:
交流圖書公司
CHIAO LIU PUB. SFC

102

4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호

평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김 일 성 (2)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김 일 성 (8)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원뒤편에 즈음하여—.....(14)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19)

위대한 력사, 불멸의 업적을 펼쳐보여주는 기념비적대작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에 대하여—.....리종순 (28)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한상규 (36)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주화종 (41)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더욱 늘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원석회의 지도

열다섯돛을 기념하여—.....김남준 (47)

민족문화유물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림인옥 (54)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손진팔 (59)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 화

김 일 성

(1977년 6월 20일)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 조건의 불비한 점은 있지만 우리 일군들은 당신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생의껏 노력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동으로부터 서로, 남으로부터 북으로 먼거리를 여행하느라고 피로를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당신이 제기한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먼저 말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최대의 숙망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전쟁의 방법으로부터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전민족적대단결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이미 세상에 공포되었으며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다같이 통일을 념원하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은 능히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가 서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민족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두번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기때문에 제도과 신앙,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을수 있고 한 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이라는 민족저상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제도의 차이,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 통일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고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들의 사회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기초우에서 제도와 신앙,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전민족적인 련방정부를 세울것을 주장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주장하는 련방제를 한때 독일에서 논의된적이 있는 련방제와 관련시켜 질문하였는데 우리가 내놓은 남북련방제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실시하려는 남북련방제는 조선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는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것이며 조선에 대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절절히 반대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있는것보다는 련방제라도 실시하여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련방제를 실시하면 북과 남사이의 호상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적대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실현하여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36년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속 갈라져있으면 또다시 외국의 침략을 받을수 있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할수 있습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외국군대인 미국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남침》을 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우리의 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군대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속 남조선에 주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남조선사회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면 우리 인민은 능히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도 많고 땅도 좋고 지하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통일만 실현되면 우리 인민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지상군 철거문제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카터의 이 공약을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장애로 되고있는 문제의 하나가 해결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권후 카터정권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4~5년동안에 계단식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카터가 선거때에 한 공약과는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임기가 4년인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4~5년동안에 계단식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4~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니다.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공군은 남겨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옳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입니다. 미공군을 남조선에 남겨두는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이것은 카터가 직접 말한것이 아니고 그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집권한지 오래되지 않았기때문에 아직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카터가 자기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것을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문제에서는 카터가 명백히 선거공약을 위반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카터정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위협공갈하고있지만 인권탄압이 제일 극심한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오히려 카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늘이고있으며 남조선 《정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한 선거공약과 위반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고공정찰을 계속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폭격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연습장이 이르는곳마다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카터행정부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겠다고 한 선거공약과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보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는 《남침위협》이 있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침략위협을 당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건설을 하고있는데 그들은 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에 있는 비행기까지 조선반도에 끌어다 폭격연습을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카터가 선거때 한 공약과 지금 카터행정부가 취하고있는 실

천행동사이에 좀 거리가 멍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터가 정권을 잡은지 오래되지 않고 앞으로 선거공약을 전개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의 정책을 계속 주시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워싱턴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것을 오래전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아직도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대신 그들은 남조선에서 군사연습과 폭격연습을 계속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는 남조선과소《정권》에 계속 《원조》를 주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전환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카터행정부가 선거공약대로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소하고 적대시정책을 개변한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소련과 중국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소련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이 말할 문제이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도 잘 아는바와 같이 소련도 우리의 림방이고 중국도 우리의 림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와 다같이 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문제는 소련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고 그 두 나라 인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구라과식공산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구라과식공산주의니, 아세아식공산주의니 또 어떤식 공산주의니 하는것을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것이 국제주의적의무를 실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구라과의 공산주의운동에서 많은 나라 공산당들이 자주성을 강조하고있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에서 이룩한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다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오늘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오래동안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되었기때문에 능히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혁명의 경험과 사회주의건설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자기 나라에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라과나라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광범한 계층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는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문화 관계의 발전을 바라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는 프랑스와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할것을 바

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과 프랑스사이에 문화교류, 기술교류, 무역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 리로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것을 바랍니다.

물론 조선과 프랑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더욱 활발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조선과 프랑스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로 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인민들을 적대국민으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구라파에서 자주적으로 나가는 나라이고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조선인민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며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역사적으로 그 누구를 침략해본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온 인민입니다. 지금 조선인민은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해줄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 프랑스 정부와 인민에게 제기하는 겸손한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우리 나라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있지 않는가고 물었는데 우리 무역부장이 당신과의 담화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나라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일시적인 곤란을 겪게 된것은 중요하게 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연료위기로 인하여 겪고있는 경제난판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연료위기를 겪기전에는 우리 나라 상품이 이 나라들에게 잘 팔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들이 경제적위기를 겪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상품을 사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에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다보니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일시적인 곤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서방나라들이 경제적난판을 겪고있는 조건에서도 그 나라들이 살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겪고있는 곤란은 일시적인 현상이기때문에 능히 최단기간안에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어떤것에 대하여 큰 공지를 가지고있으며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말할것입니다.

우리가 30여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가장 큰 공지를 가지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입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때문에 능히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자주독립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궁지를 가지는 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사대주의사상이 많았으며 인민들속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주성에 대한 궁지가 높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성에 대한 궁지가 높으며 전체 인민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밑천입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 힘으로 투쟁하고 노력하며 근면하게 생활한다면 능히 자력갱생하여 자립경제도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난관은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다 난관이 있지 난관이 없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발견하는 도상에는 난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것이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사회속에서 사는것만큼 세계적인영향을 받아 난관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난관은 객관적조건에 의해서 조성될수도 있고 내부적조건에 의해서 조성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도상에 있는 모든 난관을 능히 극복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선에서 건설하고있는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비하여 독창적인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른 나라와 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대비할 필요도 없으며 또 대비할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조할수 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조선과 아세아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조선의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물론 난관은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지금 전반적 아세아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다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그 어떤 외래간섭자들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세아의 전망도 매우 명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서 내가 노는 개인적역할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말하기 거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제기하였기때문에 말씀드리다면 나는 인민의 총복으로서 인민들과 함께 일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인민들에게 충실한 충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할 드립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과 같은 훌륭한 벗들을 알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다시한번 오기 바랍니다.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1977년 7월 3일)

나는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물음: 주석님께서서는 오늘 세계정세의 흐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금 세계정세가 겉으로 보기에선 매우 복잡한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은 바로되어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사의 흐름은 자주성의 시대로 특징지어지고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은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고 사회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도 역시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든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오늘 역사의 흐름이 제 궤도에서 자기의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하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아세아정세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고 물었는데 아세아정세도 매우 좋습니다.

아세아인민들도 역사발전의 추세에 맞게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세아나라들이 자주성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모두다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철폐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얼마전에 《세아토》가 해체되었습니다.

지금 아세아인민들은 아세아를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군사기지도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을 비롯하여 일본인민들과 타이인민들, 그밖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이러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아세아, 아세아인민들을 위한 아세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음: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에 커다란 주목이 쏠려지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조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의 카터정권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것을 선거때 공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서와 조선과 미국과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요미우리신문사 편집국장과의 담화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하겠다고 한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에 대해서는 미국인민들자체가 요구하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본인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하겠다는것을 공약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미국당국자들의 공약과 실천행동사이에는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당국자들은 선거때 한 공약과는 달리 남조선에 공군은 그냥 남겨두고 지상군만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인것만큼 그들이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공군도 지상군과 함께 철거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군대를 4~5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들의 선거공약과 어긋나는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군대를 4~5년동안에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 군대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철거하겠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두고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그것은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제거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의 행동에서 특히 선거때의 공약과 모순되는것은 과소독재를 강화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지지하고있는것입니다.

미국대통령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에는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와 다르게 행동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말도 많이 하고 이러저러한 조치도 취하고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이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있는것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이 장애를 제거하

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아세아의 평화도 더 잘 유지될수 있습니다.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어있으면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전히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 정세에서도 계속 불안이 초래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매일은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5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계속 주장할것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인민들도 역시 이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에 대한 과소적인 탄압을 중지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조선인민은 능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당국자들에게 대화를 하자는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당국자들이 원한다면 대화는 어느때든지 이루어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당국자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물음: 우리는 이번에 공화국을 방문하여 모든것을 다 보았는데 솔직히 말하여 공화국의 농업과 농업은 우리들이 상상하고있던것보다 훨씬 더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해동안 선진공업국도 그렇고 제3세계나라들도 그렇고 사회주의나라들도 그렇고 다 경제위기를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공화국의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답:] 당신들이 말한바와 같이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도 경제적인난관을 겪고있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도 경제적인난관을 겪고있으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도 경제적인난관을 겪고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난관은 제가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난관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생긴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겪고있는 난관가운데서 주되는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하여 생긴 식량난입니다.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농업에 치중하고있는데 이런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나라들은 능히 경제적인난관을 이겨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난관은 연료난, 원료난입니다.

연료난은 강대국이 연료독점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데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연료난은 강대국이 석유의 독점권을 장

악하고 행사하는데서 오는 불행입니다. 강대국은 선진공업국가들의 경제발전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있는데 이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연료난이 생긴것이라고 봅니다.

원료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선진공업국가들이 지난날과 같이 그 나라들에서 원료를 채 마음대로 끌어갈수 없게 되므로부터 생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선진공업국가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원료를 낮은 값으로 가져가려고 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선진공업국가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기술적으로 도와주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공정한 값을 치르고 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원료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적인난을 겪고있는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시장에 불경기가 생기면 그 원인의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난은 더 빨리 전진하는 과정에 생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나라들은 능히 자체로 경제적인난을 극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기때문에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려는 욕심에서 경제건설을 많이 하는데로부터 생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7개년계획을 주체적인 공업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자원과 자체의 기술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부닥치는 어떠한 경제적인난도 다 자체의 힘으로 타개하여나갈것입니다.

물음: 주석님께서 일본과의 무역문제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일본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 리로운 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에 있는것을 먼데 가서 사오는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가면 운반비도 적게 먹고 좋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먼 나라에 가서 사오는것보다 가까운 일본에서 사오는것이 낫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버리고 무역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

가 요구하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다 팔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해전에 구노 유지선생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할데 대한 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큰 제철공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기술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협의도 하고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서방통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이 우리 나라에 제철공장을 수출하면 우리 나라의 국력이 강화되어 남조선에 위협을 더 주게 된다는 구실밑에 그것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용광로를 팔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가 제철공장을 건설하지 못한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일본에 주문하였던것과 같이 그렇게 큰 용광로는 건설하지 못하였지만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없어진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물음: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마일경제수역문제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온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올해 8월 1일부터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마일수역안에서 서일본의 중소어업자들의 배 1,500척이 약 6만 5,000톤의 물고기를 잡고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는 어업협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한 200마일수역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일본어선들이 물고기잡이를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면 민간어업협정이라도 인정할수 있겠습니까?

[대답:] 200마일해양권문제는 국제회의에서 많이 논의되고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해전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먼저 들고나왔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큰 나라들이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결정이 채택되기도전에 먼저 200마일경제수역을 선포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200마일어로수역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소련이 선포하였으며 일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자주적원칙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한데 불과한것이며 객관적조건으로부터 부득이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우리 나라의 결정은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200마일어업수역결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마일경제수역권문제와 관련하여 조일 두 나라 사이에 호상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나라의 200만일경제수역안에서의 일본어민들의 어업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일본어민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들, 특히 일본령새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겠는가 하는것은 해당부문일군들과 협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물음: 주석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계십니까?

대답: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서 아무런 장애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모든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들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기때문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합니다.

오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증명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발양되고있습니다.

물음: 우리는 이번에 귀국을 방문하여 학교를 많이 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 어린이들이 음악에 소질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주석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줄 알도록 지도하고계신다는것을 듣고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보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석님의 권기를 잃어본데 의하면 강반석어머님께서 부르시던 <자장가>에 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석님께서 어린이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루도록 지도하고계시는것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때 그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우리가 모든 어린이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배우도록 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며 랑만에 넘쳐 투쟁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들은 후에 나로 하여금 낙천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도록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늘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의 행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시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매우 감명깊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앞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낙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다 노래를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과 같은 훌륭한 벗들을 알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들을 만나 친선적인 담화를 한것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유익한 일로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줄때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할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조선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원뿔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조직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자랑스런 전무적행로를 돌이켜본다.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비로소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스런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청년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0~61페이지)

청년운동의 참다운 시원은 모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시작되며 청년운동의 전통은 수령의 혁명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마련되게 된다.

종래의 우리 나라 청년들이 오래전부터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일어나 피도 많이 흘렸으나 사회혁명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었다. 1920년대 초기의 청년운동도 종래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모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하여 옳바른 투쟁강령

을 내세우지 못하고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한채 종파분자들에게 통락당하여 그 대렬이 분렬되고 투쟁에서 실패를 거듭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학생운동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풍부화되고 보다 역세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력사적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 소유하고있는 그 높은 혁명성과 영웅성을 백방으로 조작시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력량으로 되게 하는것이 당면하게 나선 긴절한 과업이다.

청년들이 혁명투쟁에서 위력한 력량으로 된다는 수령님의 사상은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과 훌륭한 자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청년들은 산악도 떠밀고나갈수 있는 무진장한 힘과 왕성한 투지, 용감하고 대담한 기질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일에서나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며 언제나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옳은것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기백으로 넘쳐있다.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높고 선진사상과 시대발전의 추세에 가장 민감한것도 역시 청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용감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식민지나라 청년들은 남달리 민족적각성이 빠르고 반제의식이 강하기때문에 민족해방혁명에서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에서 조선청년들이 놀아야 할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활동을 혈기왕성하고 기백에 넘치는 청년군중속에서부터 시작하시였으며 청년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우리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출발점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십시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을 열여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십시오 우리 나라 청년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청년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후 1927년 8월 28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물간으로 하고 여러 청년조직들에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준비된 성원들을 망라하여 비합법적혁명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조선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조직이였으며 모든 대중적인 청년조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혁명적인 전위조직이었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새세대의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한 공산주의적핵심으로,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물간으로 키우며

그 대렬을 확대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특히 일제의 파쇼적탄압과 교만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과괴책등으로 말미암아 청년운동이 통일단결되지 못하고있던 당시의 형편에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전투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를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청년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시면서 엄격한 조직적절차에 따라 투쟁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을 공산주의청년동맹에 받아들여주시었다. 그리하여 길림은 물론 돈화, 홍경,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등 광활한 지역에 공청조직망을 늘이시고 동맹원들속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종파분자들과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과의 심각한 사상리론투쟁을 벌리시며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규탄하시는 한편 주체적법장을 교수하시고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참다운 혁명력량으로 키우시며 청년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도록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시었다. 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광활한 지역에서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눈부신 활동을 벌리였으며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조선혁명군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적극 참군시켜 앞으로 조직될 항일무장대오의 조직적물간을 키워나갔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청년운동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자기 활동에 빛나게 구현함으로

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렇듯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어둠속에서 헤매이던 광범한 청년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건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경도하심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운동의 기본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은 재산도 허물어낼만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들의 힘을 더 키우고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변혁의 거대한 혁명적력량으로 되게 하는것—이것이 우리의 청년사업의 기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운동이란 단순히 청년들에 대한 문화계몽사업이나 하는 평범한 사회적운동이 아니라 광범한 청년대중을 조직에 결속하고 혁명화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동시에 혁명의 후비군을 튼튼히 편성하여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보충하기 위한 혁명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따라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청년운동은 광범한 청년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속에서 단련시켜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질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운동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로부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청년학생들의 계급적처지, 정치적준비정도에 맞게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새날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등 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청소년

조직들을 많이 무으시고 여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소년들을 결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귀중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청년운동을 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켜야만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는 사업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사업도 잘해나갈수 있고 나아가서 대를 이어 혁명을 줄기차게 계속해나갈수 있다고 보시고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와 유격근거지, 적통치구역안에 공청단체들을 체계정연하게 조직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해나가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년공작원들과 청년들 속에 들어가시여 청년사업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해주시고 사업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수많은 공청원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1페이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한 부분인 조선청년운동의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유일사상체계, 혁명적청년조직전설과 청소년교양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사업경험,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청년운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함으로써 모든 청년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운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모든 청년조직들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들이에 기초하여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청년조직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어떠한 붕괴와 역경에 처하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모범이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전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년운동을 조직령도하시여 혁명적청년조직의 전설과 활동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 업적과 경험들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청년동맹의 위치와 임무 및 과업들이 명백히 규정되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또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확대발전시키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과 업적들이 이룩되였다.

이밖에도 혁명적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청년들을 혁명화한 경험, 각계층의 청년

들을 각이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한 경험, 청년운동의 중요한 부분인 소년사업지도에서의 경험 등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는 경험과 업적들이 수많은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청년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히 구현되어있으며 결손성과 소박성, 원칙적단결과 혁명직동지애, 전투적기백과 왕성한 투지, 넓은 패기와 정열에 넘치는 훌륭한 공산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들이 다 포괄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은 그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하여 가장 위대한 전통이다. 조선청년운동의 혁명전통이 그렇듯 빛나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을 몸소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마련되였기때문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는 물론 사회혁명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된다.

*

*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자랑스런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

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의 그처럼 복잡하고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몸소 청년운동의 전통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업적에 토대하여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시였으며 심화발전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청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나라 청년들은 미제를 때려눕히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벽찬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떨치였다.

이 거창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사로창조직과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일원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청년조직들 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르고있다.

우리 청년들 앞에는 혁명을 계속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우리 조국의 장래를 굳건히 떠메고나가야 할 임무가 지워져있다.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인 우리 청년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우리 청년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좋아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높이 왕성한 투지와 패기, 정열에 넘쳐 일하고 투쟁하는데서 자기의 참된 보람을 느끼고있다. 그들의 심장은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꽃피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공장과 협동농장에서, 도시와 농촌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항일의 기치밑에 백두밀림에서 강도 일제와 싸우던 그날부터 언제나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는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의지로 삼고 싸워온 조선청년들의 굽힐수 없는 혁명적기상이다.

오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을 맞이하는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과 사로창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있는것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혁명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동무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며 근로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니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헤쳐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을 오늘과 같은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 수 있었다.

정힘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이 사람들의 심장속에 자기의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와 조국,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 심어주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거창하고 복잡한 투쟁에서 그들의 애국적전신성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고 당과 혁명,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열렬한 애국자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1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에 대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

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자기의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를 공고발전시키는 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진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이 가지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회제도와 인민대중의 리익의 완전한 통일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는 온갖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참다운 생활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로운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상감정을 가지며 그에 대한 높은 복무의 결심을 지닌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고유한 사상감정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

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9페이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노동계급의 철저한 계급의식에 기초한 애국주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과 활동의 기초에는 계급의식이 놓여있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기본을 이루며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낳게 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의식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노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인 계급의식을 가져야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높은 혁명정신을 소유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밀접히 결합된 민족적자주의식을 담고있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철저히 결합된 민족적자주의식, 이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며 발현형식이다.

민족적자주의식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자기 조국과 민족에 관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민족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민족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주체적인 의식이다.

민족적자주의식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민족적반영을 애국해나가는데서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무진장한 힘이 샘솟게 하는 중요한 정신적바탕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이러한 민족적자주의식과 철저히 결합시키고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훌륭게 반영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단순한 민족애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이다.

사회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역사를 창조하고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익은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적리익과 하나로 결합되어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조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있어야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조국으로 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은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어있으며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은 민족의 리익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투쟁이 자기 민족과 조국을 떠날수 없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합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입니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 감정과 품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돌바쳐싸울수 없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0페이지)

지금처럼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은 민족별로, 나라별로 진행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함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매개 나라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민족별로 융성번영하는 과정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것이며 그들의 애국주의에 있어서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은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착취계급의 《애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표현하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지향을 대표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사회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이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렇기때문에 절대다

수의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에게는 참다운 애국주의가 있을수 없다. 이른바 부르주아애국주의는 한줌도 못되는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의 이익을 위한것이며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조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한다는데 있다.

원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류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사상적무기로서 발생하였으며 그에 복무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온갖 형태의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압박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해방뿐 아니라 조국의 융성과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민족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며 조국을 융성발전시키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참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에게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진 사회주의조국과 근로하는 인민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애국적위훈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2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조국, 근로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으로서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동모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계급과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의 당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85페이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공산주의자들과 근로인민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역사적사명과 관련되어있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령도밑에 근로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번영을 이룩하며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들은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서 낳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나간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이익의 참다운 옹호자, 대표자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이루어지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민족적 자주권과 영예를 고수하며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자체가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민족적번영과 융성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조국과 민족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이룩될수 없으며 조국과 민족의 융성과 번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과 공산주의

자들은 높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닐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의 소유자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그 중추와 사상정신적특질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있으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가장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지니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혁명적신념으로, 세계관으로 삼고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품모로서 그 숭고성의 높이는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세계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4페이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철저한 혁명사상으로서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충실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귀중한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 해결에서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드눌지 않는 신념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당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끝없는 영예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품모와 공산주의적품성을 지니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가장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의 소유자로 되는것은 또한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데 있다.

자기 조국과 근로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복무의 정신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우리 조국, 전체 근로인민의 이익의 체현자이시며 근로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은 곧 우리 조국과 인민, 민족의 념원이요 의지이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혁명과 조국, 인민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깊이 반영되어있으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와 달도 빛을 잃었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력사에 찬

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체물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에게 배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근로대중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여 우리 인민에게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그속에서 끝없이 꽃피여나는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이 있으며 주체의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 이루어진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것, 그처럼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의 갈피갈피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심려 그리고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조국의 품은 바로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참다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근로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없고 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수령님께 진정으로 충실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뜨거운 심장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고결한 마음, 그것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높은 혁명적자각으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교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한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님에 의하여 그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해야될수 없이 간고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육성하시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은 선조들의 땀이 스며있고 백문이 묻혀있는 조국당과 일제의 압제밑에서 험벗고 굶주리는 부모형제들의 아픔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광복된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제를 죽이는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간고한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전통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전과정에서 전멸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었으며 우리 노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의 참다운 본보기로, 고귀한 밑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용감하게 헤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오늘과 같이 높이 끌어올리고 민족적번영과 룡성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우리의 노동계급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이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있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실현해나가고 있다.

3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와 발전하는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끌어낸치는 애국적열정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깡그리 바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조국의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영예와 존엄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만 연결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하나로 연결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떠나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바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

바쳐투쟁하는에서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며 조국의 튼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0페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는 행복의 요람이다.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이 굳건히 서있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마련 되어있으며 찬란한 민족문화가 꽃피어 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공고발전시켜나아가는데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하였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 인민이 고귀한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건결히 옹호보위하며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갈 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큰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부강발전할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실천행동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나라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일터와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이 모든것은 사회주

의적애국주의정신의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과 건설, 국가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그것을 직접 맡고있는 인민대중이 얼마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일하며 생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인다운 자각, 바로 여기로부터 어떤 어렵고 무거운 과업도 끝까지 해내는 높은 책임성이 나오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제힘으로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창의창발성이 나온다.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의 혁명초소에 튼튼히 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바로 열렬한 애국자이며 참다운 혁명가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말로 조선의 애국자,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더 훌륭히 수행해내야 한다.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며 애로와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나가지 못하고 우에서 물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현상은 다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없는 표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자체의 힘으로 조건을 만들면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내어 아글라글 애써 일하는 이것이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며

이러한 애국적인신성에 의해서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토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은 참다운 애국자,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진정한 애국자, 참다운 혁명가들은 그 어떤 영예와 보수를 바라지 않으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누가 보전말진, 누가 알아주진말진 자기 일터에서 묵묵히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수행해나가며 여기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설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여도 그것이 다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데 이바지하는 영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집단토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어려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돌리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커다란 성과로써 빛나게 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일터에서 애국적인신성을 높이 발휘하여나갈 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으며 이 땅위에 보다 행복하고 번영하는 공산주의낙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다 근로자들의 로동의 열매이며 전체 인민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인민의 공동의 재부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양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0페이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재

산은 인민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며 그것은 우리 세대들을 위하여서뿐만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소중히 거두지 않고 되는데로 다루거나 낭비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서 많이 건설하고 생산하여도 결코 잘 살수 없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의 부가운데는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 자신과 후대들도 잘 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나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들여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과 함께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야 한다.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야 있는 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보다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갈 때 우리는 지금의 밑천을 가지고도 더 잘 살수 있으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수 있다.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령장에서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재부를 극력 아껴쓰고 적은 자재와 자금, 노력으로 더 많은것을 만들며 하나를 만들어도 알뜰하게 만드는 사람이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살림꾼이며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고 실속있게 하는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

요한 예비기가 있다는것을 뚜렷히 알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한알의 쌀, 한조각의 쇠붙이,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쓰며 귀중한 설비와 자재, 원료를 자기의것처럼 소중히 다루고 값있게 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우리의 조국산천과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의 열매인 모든 건설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한대의 기계설비나 한 세대의 집, 한자루의 연필과 하나의 놀이감을 만들어도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담아 아담하고 윤품나게 만들어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적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설고있는 가장 숭고한 임무이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들이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억눌리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어느 애국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결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최대의 민족적의무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피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하며 국토방위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남녘의 거래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조선인민의 슬기와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결코 저질로 생길수 없다. 그것은 꾸준한 교양사업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입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기질 때 높이 발휘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며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수많은 영웅적투쟁업적들과 긍정적모범들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를 잘 알게 하며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조국의 부강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튼튼히 마련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력사, 불멸의 업적을 펼쳐보여주는 기념비적대작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에 대하여—

리 중 순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르고있다.

문학과 예술이 인민대중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려면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문예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며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오늘의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당적영화예술이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로 된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과업으로 된다.

최근에 영화예술부문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영상을 화폭에 정중히 모시고 견결한 공산주의투사들이신 강반석어머님과 김형권동지의 눈부신 혁명활동모습을 훌륭히 형상한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실로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서와 영화예술의 발전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는 특출한 성과작이며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문예작품창작에서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 문제를 옹계 풀데 대한 독창적인 주체적 문예사상을 훌륭히 구현한것이다.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옹계 푸는것은 모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반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지만 력사문헌적인 성격을 띤 작품,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우리 나라 혁명력사와 세계로동계급의 혁명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거대한 의의를 예술적으로 정확히 밝혀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이며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창조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력사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실재하였던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인류의 역사발전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우선 작품의 줄거리를 실재하였던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사실들에 기초하여 엮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작품의 기본줄거리는 역사적인 카톨릭회의에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파견하신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인솔하시고 김형권동지께서 국내에 진출하시여 파발리와 리원, 북청, 홍원 일대에서 진공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여 고난에 찬 옥중투쟁을 하시였던 실재한 역사적로정들과 사건들로 엮여지고있다.

영화는 당시에 실재하였던 인물들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적전환의 시기에 놓여있었던 1930년 여름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게 되는 시기까지의 조선의 혁명적인 현실과 시대상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한 역사문헌적인 작품으로 되었다.

이 영화가 가지는 거대한 감화력은 역사적사실에 충실히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역사적사실의 본질과 의의가 뚜렷이 안겨오도록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

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74~475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려면 사실자료를 많이 알아야 하며 그것을 사상예술적으로 잘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가 아무리 좋은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아서는 예술작품이 될수 없다. 의의있는 역사적사실들을 형상적으로 가공하여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낼 때에만 작품은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질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투쟁과 생활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수 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하나의 역사적사건과 사변을 가지고도 시대와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보여줄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일반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창작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이 영화는 역사적사전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라벨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활을 여러모에서 풍부하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역사적사건의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내고 그 의의를 매우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에서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의 완전한 일치를 보게 되는것이다.

백전대 황수원등판과 파발리일대에서 조선혁명군무장소조원들의 군사 및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장면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무장소조원들이 황수원등판과 파발리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린것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여기서는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진다. 무장소조원들은 압록강을 건느는 첫걸음부터 일제놈들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헐벗고 굶주리며 짓밟히는 불행한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게 된다. 그들은 악독한 원수 《오빠씨》놈의 행패로 야학방이 폐쇄되고 봉임이가 체포되어가며 나어틴 영남이가 칼에 맞아 숨지는 모

숨을 보다가 하면 《오바시》늬에 의하여 강문호의 안해가 갖은 구박과 모욕을 받으며 목재판로동자들이 통나무에 깔리고 사물치는 물동에 빠져죽는 모습을 본다.

영화는 이와 같이 조선혁명군무장소조원들의 시야를 통하여 살아서 살곳 없고 죽어서 묻힐곳 없는 조국, 매일 매 시각 일제놈들과 그 주구들로 하여 목숨을 잃고 부모처자들과 생리별하며 헐벗고 굶주리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이 장면들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된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로 되었다.

영화는 이러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항이 있기 마련이며 피압박인민대중이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혁명사상의 진리성과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할수 있었다.

영화는 또한 김형권동지의 국내군사정치활동과 옥중투쟁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그분의 전생애를 능히 알수 있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영화는 김형권동지의 지난날의 생활을 현실적인 화폭으로 보여주지 않고있지만 강반석녀사와 김형권동지, 김형권동지와 최경운, 강문호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통하여 김형권동지께서 전결한 공산주의자로 성장하기까지에 갖은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토고와 강의성, 숭고한 인간성을 표상할수 있게 생활을 그려내고있다.

조국진군을 앞둔날 밤, 안도의 추녀낫은 집에서 강반석녀사와 김형권동지께서 주교받으시는 지난날의 뜻깊은 사연을 남은 잊을수 없는 이야기라든가 황수원의 산정에서 조국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김형권동지께서 최경운과 더불어 더듬으시는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속에서 우리는 김형권동지의 지난날의 모습과 성장의 나날을 그려보게 되며 그 험난한 세월에 《지

원》의 높은 뜻을 품으시고 한몸을 오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쳐오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거목하신 영상을 우러러보게 된다. 그리고 조선혁명의 기쁨이 어떻게 마련되고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어떻게 계승발전되어왔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된다.

특히 영화가 김형권동지의 국내활동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활동 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한것은 참으로 예술적일반화의 특출한 성과로 된다.

천고의 밀림에 찬연한 해빛이 미치는 가운데 정렬하여선 항일유격대원들의 만세소리 하늘향을 뒤흔든다.

어머님께서 감격에 겨우시며 유격대원들을 바라보신다. 인민들도 목청껏 만세를 부른다.

만세의 환호성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민족의 태양이시며 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렬한 대오를 향하여 나오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폭풍같은 환호에 손을 높이 드시며 답례하시며 둔덕에 오르시며 항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다.

얼마나 기다리고기다리던 그날이 왔는가. 대원들도 인민들도 아니 수천리 떨어진 옥중에서 이 격동적인 소식에 겁한 김형권동지와 최경운, 강문호들도 감격에 목이 메여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른다.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신 어머님께서 대원들 한사람한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한몸에 뜨겁게 안으신다. 뜨거운 그 사랑에 목이 메여 대원들은 맑은 이슬로 두볼을 적신다.

어느덧 화면은 바뀌어 혁명의 생산

백두산이 숭엄하게 솟아오른다.

백마에 오르시여 깃잡힌 조국을 굽어 보시는듯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거연히 서계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영웅적조선인민혁명군의 대오들...

이 영웅사시적화폭이야말로 사람들을 커다란 걱정으로 불어일으키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서 영화의 주제사상을 밝혀주는 최고절정을 이루고있다.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영화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군대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기반을 튼튼히 꾸리신데 기초하시여 마침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시고 조선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와 같이 영화는 김형권동지의 국내혁명활동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여 나가시는데로 형상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셨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한다.

여기에 바로 이 영화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과 예술적진실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대한 역사문헌적인 대작으로 되게 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예술영화《누리에 불는 불》은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사건들의 본질과 그 거대한 사회적의의를 밝혀내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역사적사건들의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내며 그 의의를 폭넓게 일반화하는것은 역사문헌적인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의 하나로서 작품의 사상에 예술적질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애개의 역사적사건들이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들이였을뿐만아니라 그 사건들속에 항일혁명투쟁의 본질이 체현되어있기때문이다.

예술영화《누리에 불는 불》에서 파발리내중경찰관주재소 습격사건을 취급한 장면의 묘사는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있게 보여준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파발리내중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놈은 한갓 심심산골의 왜놈경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놈은 파발리일대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살인마로서《오빠시》라는 별명까지 붙은놈이다.

영화에서는 일제침략자의 전형으로서의《오빠시》놈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하여 파발리일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적인 참상을 그놈의 악랄한 만행과 결부시켜 침여하게 묘사하고있다.《오빠시》놈을 황수원과 파발리 일대 인민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극악무도한 살인마로 그림으로써야수성, 잔인성, 포악성, 교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일제순경의 성격을 그대로 체현한 침략자의 전형으로 형상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파발리의 하늘높이 울린 총소리는 단순히 일제의 경찰관 한놈을 처단한 총소리로 되는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조선혁명군의 선전포고로 힘있게 울리는것이다.

영화에서는《오빠시》놈을 처단하게 되는 극적정황을 조성하는데서도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원래《오빠시》놈은 황수원에서 강문

호의 총에 맞아 처단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놈을 처단할 정황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영화에서는 《오빠시》놈에 대한 원한이 황수원과 과반리 일대 인민들의 가슴속에 축적되는 과정을 집요하게 그려나가면서 마침내 목재판에서의 대참상이 벌어졌을 때 그놈을 처단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김형권동지께서 《오빠시》놈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총성으로, 인민대중을 무장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메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이 이룩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한 것이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은 작품에서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는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를 가지는 종자와 선배과 그것을 예술적으로 실현하는 인간성격의 생동한 일반화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사회생활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를 종자로 잡고 그것을 고상한 인간학의 견지에서 밝혀낼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에서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에 대한 문제는 오직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준 문예작품의 종자에 관한 사상과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 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이지)

영화는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나 원수들의 야만적인 고문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가지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는 건결한 공산주의투사 김형권동지의 슬기로운 형상을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이에 있어서 김형권동지와 일본경무국장놈과의 대화장면과 추악한 변절자 최진권놈과의 대결장면은 매우 중요한 국면을 이루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김형권동지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꺾어보려고 어리석게도 경무국장놈을 감옥에 보내여 옥중에 계시는 김형권동지를 심문하게 하였다.

영화의 서막에서 경무국장놈은 김형권동지께 만주당을 가지고 《대일본제국》을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고 물어본다.

이때 김형권동지께서는 이 흉악한 침략자를 증오와 멸시에 찬 눈길로 쓰아 보시면서 엄숙하게 말씀하신다.

《있소, 우리에게는 무장이 있소.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못가진 또하나의 무기,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혁명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있소. 이것은 당신내 《대일본제국》뿐아니라 온 세상의 침략자들과 약탈자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릴것이요.》

김형권동지의 이 엄숙한 말씀이야말로 영화전반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주제사상이다.

영화는 이와 같이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삶과 투쟁에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를 기본주제로 뚜렷이 내세우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에 대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어디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러한 혁명적 지조와 의지를 지닌 혁명가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며 정치적인생명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심오하게 밝혀내고 있다.

영화는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물 기본주제로 제시하고 그것을 밝히는 데로 모든 사건들을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스스로 밝혀지도록 인간성격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여기에서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적신념과 생활의 신조를 혁명의 추악한 변질자 최진팔놈의 《생활철학》과 날카로운 대미속에서 보여준것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진팔놈은 일제의 탄압이 우심해지고 혁명이 간고해지자 일제놈들의 더러운 개로 전락되어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밀고해바치는 대가로 너절한 목숨을 이어나가는놈이었다. 이런 추악한 혁명의 배신자가 현실이 어떻고 조국이 어떠며 인생이 어떻다고 지껄여댈 때 김형권동지께서는 개만도 못한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일제놈들에게 아부굴종하는 변질자 최진팔의 물물물 증오에 타는 눈길로 쏘아보시며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그놈의 죄행과 이른바 《생활철학》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신다.

《...네가 그래도 민족운동을 한다구 말투나마 조국을 떠들고다니던 때가 얼마나 사람답구 보람있었는지 너는 모른다. 그러나 너 이제 조국이라는 그 고귀하고 신성한 이름을 영원히 다시는 불러보지 못할것이다. 이놈아! 너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구 매국노의 이름을 샀는지 알기나 하느냐, 이 더러운놈!》

이 추상같은 단죄의 말씀에 최진팔놈은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떨듯 온몸을 떨며 비실비실 땀무늬를 빼고만다. 우리는 여기서 반역자로 전락된자들의 《생활철학》의 추악상과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깨닫게 되고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힐줄 모르는 진정한 애국자, 전결한 혁명가의 숭고한 모습을 보게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힘의 위대성과 인간의 참다운 삶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신조를 지니셨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원썩들의 별의별 악랄한 고문에도 끄떡없이 맞서 싸우시였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의지의 힘으로 《모다구관》우를 거연히 걸어가시며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는것이다.

김형권동지의 이 숭고한 형상은 일제의 총검의 숲을 헤쳐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승리적전진의 상징이며 육체적생명보다도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순결하게 빛내어나갈줄 아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불굴의 혁명적 신조와 의지에 대한 자랑찬 송가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이룩한 또하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리론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해를 이루는 탁월한 리론이다.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것이 문학이지만 인간과 생활을 그린다고 하여 모든 문학이 다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문학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려면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내세우고 공산주의적인간전형울 창조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위대한 주체철학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을 산 인간으로 그릴것을 요구한다. 문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의 고유한 본성도 살려내지 못한다.

혁명가를 그린다고 하면서 그의 정치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정신세계를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 인간형상은 메마르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혁명가의 강의한 의지와 정치적인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인 사상과 감정, 리상과 지향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산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제2판, 290페이지)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주체적 문예사상의 요구대로 김형권동지의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만 아니라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풍부한 사상감정과 고상한 인간성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리사문헌적인 예술작품에서 인물들을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인간형상으로 그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대한 혁명가의 위대한 생활을 형상할 때일수록 그의 높은 정치성만 아니라 고상하고 풍부한 인간성과 혁명적의리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우선 공산주의인간학의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인물들의 개성적특징들을 뚜렷이 살리내면서 혁명가들을 산 인간으로 보여주고있다.

먼저소설을 읽고 자기 또래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다가 형님에게 꾸지람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며 언젠가 한번은 끝없는 제비국사만을 이마로 받으시여 흠집까지 생겼다는 이야기 등을 통하여 영화는 김형권동지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독서를 즐기셨고 매우 활달하고 호탕한 성격을 지니셨다는것을 실감있게 그려내고있다.

당시는 또한 김형권동지와 무장소조원들인 최경운, 장문호와의 관계를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과의 관계고사만 묘사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사상의자로 굳게 결합된 뜨거운 동지적인 관계로 그려내고있다. 아름답고 고상

하며 뜨거운 혁명적의리로 굳게 똬친 혁명군무장소조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주체의 인생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성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닌 사람들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리별을 앞둔 달밝은 밤에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김형권동지께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제 날이 밝으면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떠나실 시동생분의 옷을 반길 도록 지으시며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시동생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시고 만경대와 칠불에 계시는 가족들과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오라버님을 못내 그리워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시는 시동생분의 앞길을 심려하시여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 김형권선생님께서 남기신 귀중한 말씀을 되새기시며 그 말씀을 명심하라고 김형권동지께서 따뜻이 이끄시는 어머님. 실로 사랑과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넘쳐흐르는 이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고매한 품모에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몸소 키워오신 혁명전사인 최경운이 '국내에로 떠나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못내 가슴아프게 생각하신것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진채 지금껏 소식조차 모르고 그 어디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최경운과 만날 행복의 그날을 기다리고있을 봉임이였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큰일을 맡고 조국으로 떠나가시는 김형권동지를 배려하시는 그 시각에도 봉임을 두고 심려하시며 최경운이가 꼭 봉임을 만나보도록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이렇듯 극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받고있기에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조선혁명군무장소조원들은 일제침략자들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 걸음마다 시련의 가시덤불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오직 혁명의 승리만을 믿고 수령님께서 안아올리신 광복의 해발을 삼천리조국강산에 비쳐나갔으며 불굴의 혁명적신조와 강 의한 의지로 가장 야만적인 고문을 이겨내며 옥중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던 것이다.

영화는 또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자는 불굴의 혁명적신조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성을 지니고있을뿐 아니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니고있는 혁명가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의 승리를 확고히 믿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사나운 격랑도 폭풍도 뚫고넘으며 억세게 싸워나가는 것이며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오히려 영원한 미소를 머금고 《혁명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다. 이러한 락관주의는 오직 주체형의 혁명가, 참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고유한 품성이다.

영화는 온하수비진 조국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뜻깊은 시 한수를 읊으시는 김형권동지의 모습과 원썩들의 모진 고문에 의식마저 몽롱해지시는 그 엄혹한 시각에도 북돋아들을 우려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어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리라 믿으시는 김형권동지의 모습을 통하여 혁명적락관주의를 한몸에 체현한 공산주의자로서의 그분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이와 같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불굴의 혁명적신조와 고상한 인간성,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생동한 개성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개척할 수 있었다.

실로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우리 나라 영화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예술적화폭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빛나게 형상한 특출한 성과작으로서 만대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대작으로 된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로동계급의 수령과 위대한 인간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제반 미학상 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준 독창적이고도 탁월한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에 기초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실로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과 같은 혁명적인 대작이 나오게 된것은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의 현명한 명도밑에 우리 영화예술인들이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보다 높은 경지에서 형상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그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 배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을 창작하는 과정에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 특히 창작원칙들과 형상방도들을 깊이 학습하고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한 상 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발전하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양양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지도일군들이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1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풍모이며 고유한 일본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저절로 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하는것이 혁명가들이 일하는 본새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론에 대하여》, 2권, 236페이지)

혁명가는 높은 제곱적 자각과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혁명가들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각적열의와 창발성에 기초하여 혁명을 하며 바로 여기에서 투쟁의 보람과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다.

혁명가들은 투쟁이 아무리 간고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고 그것을 헤쳐나가며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쳐나간다.

책임성과 창발성이 없이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는 여기에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할것을 결심한 혁명가들이며 주체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입장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무엇보다도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참가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업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투쟁으로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나간다. 따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어떻게 발양되는가 하는데 따라서 좌우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근본요인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은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해야 하며 바로 이것을 자신의 참다운 품모로, 고유한 사업태도로 되게 하여야 한다.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지도일군들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 사업은 구체적으로 옮겨 지도할 줄 알며 자기가 맡은 사업

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책임성과 열성을 다하는 새로운 형의 일군들이 요구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122페이지)

우리 간부들, 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이 조직집행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매개 단위, 모든 초소에서 자기 맡은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머리를 쓰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일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간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수 있다.

실천적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 곳에서는 빼외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옳게 관철되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임무는 매우 무겁고 책임적인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을 굳게 믿으시고 현대적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할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시였으며 일군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갈 것을 바라고계신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이 창발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여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따라서 당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당정책이 현실속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고 전반적경제사업이 잘되어나갈수 있다.

당면하여 우리 일군들앞에는 완충의 해인 올해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임무가 지워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올해에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일부 경제부문들간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새 전망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온갖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이미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 경제토대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여기에 올해 전투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이미 마련된 생산 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때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대전선전투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또한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야만 사회주의대전선전투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한다면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문제도, 85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는 문제도, 우리의 위력한 경제가 인민생활에서 더 큰 온을 나타내게 하는 문제도 다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올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요구되는것은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무거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2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것은 우리 지도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원칙이며 그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지도일군들의 커다란 영예와 삶의 보람이 있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우리 혁명의 훌륭한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의 책임성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

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내놓는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것이며 전당의 조직적의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당원의 의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7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원의 고상한 임무이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검열받는 첫째가는 징표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충성심은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악하게 끝까지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책임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의 지휘성원이 라고 말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 치도 어기지 말고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는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할 의무만이 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말고 어떠한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끝까지 책임적으로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우리 일군들의 책임성은 또한 모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면 지도일군들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변밀한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업을 진공적으로, 전투적으로 내밀며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야만 고리를 보충해나가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한번 하는데 그치지 말고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중도반단함이 없이 반복하여 심화시켜나가는 한다.

자기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제기된 모든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써 일하는것은 우리 지도일군들의 높은 책임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일이 안되는데 대하여 가습아파하지 않고 조건과 구실을 앞세우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전혀 인연이 없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질줄 아는 참다운 일군이 되여야 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습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남보다 아글타글 노력하는 혁명적기질을 가져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과 함께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통채로 삼키거나 형식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90페이지)

우리 일군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에 충실한 사람으로 하여 모든것을 세어보며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떠나서 우리 일군들의 창발성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언제나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며 올바른 방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어떤 혁명사업이든지 저절로 잘 수행되는 법은 없다. 혁명사업은 머리를 쓰고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여 그에 맞는 옳은 방도와 방법론을 찾게 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되어나가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자기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그에 맞게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언제나 일감을 찾고 일거리를 만들어 일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창·창발적인 사업태도의 중요한 발현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 지휘성원들의 중요한 일본새의 하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감을 찾아하고 일거리를 만들어 일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누가 보전말전 부단히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하며 자재의 힘으로 사업조건을 마련하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모든 일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잠시도 일하지 않고서는 건디지 못해하는 혁명적기질을 가지고 남보다 무슨 일이든지 더 많이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우리 일군들의 창발적인 사업태도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서도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항일혁명선열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그들처럼 싸워나가야만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자재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필요한것을 훌륭히 만들어 내며 있는것은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없는것은 찾아내면서 생산과 전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는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생산과 전설을 훌륭히 지도해나갈 수 있다.

요령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과 사업방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할뿐 아니라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주인답지 못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일군들은 당조직생활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지휘능력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끊임없이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주 화 중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와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과 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어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의 주체적인 공업과 농업은 높은 과학기술적로대우에 올라서게 되었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남부럽지 않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과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가 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건설된 조건에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없이는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의 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실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과 비약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생산력발전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현실은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종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80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

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술혁명의 기초이고 그 선결조건이며 생산력발전의 결정적담보이다.

기술혁명은 거대한 기술적 진보와 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를 반자동화로, 반자동화를 자동화로 전환시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다. 사람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 결정적수단은 기계이며 생산력의 발전도 다름아닌 기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 기계자체가 과학기술발전의 결과에 나왔으며 기술혁명은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또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은 직접적으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방도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방도로도 된다.

이처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려면 아직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놓고서도 자그마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토대에 상응하게 인민생활을 높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17~318페이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자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소비생활분야에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생활자료생산을 따라세워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수요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그것은 과학기술의 전면적발전에 기초할 때에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강력한 중공업에 토대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공업기지를 축성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강력한 중공업에 토대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여러가지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농업발전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제공하며 또 농업의 자체발전을 위하여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현대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보장할수 있으며 경공업에 대한 원료도 원만히 대줄수 있다.

수산과학을 발전시켜 인민생활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있는 수산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인민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의 성과가 도입된 생활보장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야 인민들이 현대적이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민 생활향상의 결정적담보로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향상시켜야 할 오늘의 현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수준이 높아야 사대주의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수준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면 사람들속에서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사대주의가 생겨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이 높고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가면 사대주의가 없어집니다.》(《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6~17페이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을 사대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사대주의를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만으로는 안되며 여기에 반드시 물질적기초가 안반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상의식개변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여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사상의식개변과정을 다그쳐 사대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울수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높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사대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체를 든든히 세울수 있다.

최신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기초한 자위적국방력은 정치적자주성의 군사적

담보이다. 자위적국방력에 의하여 마련된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주체도 철저히 세울수 있고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도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된 정치적자주성만이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주체화립의 결정적조건으로 될수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은 전면적인 발전기에 들어섰으며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려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와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당의 참된 과학전사로서의 영예로운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02페이지)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도 적극 개척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 생산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경제의 빠른 발전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빨리 해결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자기의 은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얼마나 국내자원에 의거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공업의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공업의 주체성이 보장되어야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적과동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국내원료를 가지고 공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부족한 원료는 찾아내고 없는것은 대용하며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

기술적대책을 원만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노동생활에서 그들에게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진과 생산력발전을 추진시키는 기본방도인 3대기술혁명은 수많은 새롭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힘든 작업과 고열노동, 유해노동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그들이 부업일과 가정일을 짧은 시간에 험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기 위한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수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옹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의 하나이다.

수송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련쇄된 생산의 모든 고리들이 다 풀릴수 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지역사이의 경제적련계가 강화되고 확대재생산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과 비약이 일어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그 우월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우리 당의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는것은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료품과 질 좋고 다양한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옹계 풀어나가는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단축하고 성숙기일을 앞당기는 것을 비롯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알곡을 비롯하여 과일과 남새, 고기와 알 생산을 더욱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을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게 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추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군탐색, 해양조건, 어구, 선박의 만능화, 양식에 대한 연구사업과 다른 나라의 수산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에 올려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전선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며 기초과학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며 중요한 기초과학부문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26페이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척이 없이는 사회주의경제전선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의 전망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며 원자

력을 동력으로 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새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분야들을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과 전선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예견성있게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며 어떤 방법에 의거하는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하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불가능한것은 가능한것으로 전환시키며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혁명적기백으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비록 경험이나 전례가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과학기술적요새라면 기어이 점령하고야마는 투쟁정신과 연구자세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과학자들과 과학연구기관 호상간의 련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실천적경험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적 논쟁과 토론을 정상적으로 활발히 벌리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발전과 거대한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우리는 과학적 논쟁과 연구토론을 정상적으로 활발히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그의 주체적력량이다.

과학과 기술로써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주체형의 과학전사로서의 정치사상적품모와 자질을 갖추는것은 과학연구와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고도의 창발성과 자각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혁명가로서의 정치사상적품모와 자질을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공산주의적혁명가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고 높은 창발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할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사상학습과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주체형의 과학전사로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리론적자질과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는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워 짊만 있으면 책을 읽고 창조적사색과 독창적탐구로 과학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고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밝으며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당의 참된 과학전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과학의 나라, 공업의 나라, 농업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전결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과학기술지도기관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

과학기술지도기관들과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본심사업을 잘하도록 물질기술적조건을 잘 보장하여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세밀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제때에 총화틀짓는 등 지도사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지체없이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키워진 100만의 인테리대군의 역할을 높이는데 과학기술발전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현대적과학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발동시킴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간부의 후비를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육성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는 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과학기술간부의 후비를 질적으로 키워냄으로써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 그 거대한 의의와 역할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하루빨리 현대과학기술의 요소를 집령하여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당의 과학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지도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김 남 윤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창성련석회의 열다섯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지방공업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과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받기하시고 지도하신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는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커다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에서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최후의 길을 밝혀주시었다.

창성련석회의후 우리의 지방공업발전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혁이 이룩되었다.

온 나라는 크고작은 공장들의 조밀한 그물로 뒤덮이고 우리의 지방공업은 나라의 전체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위력한 현대적공업으로 자라났다. 중앙공업상품과 함께 창성과 벽동, 회령, 양덕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에 10여개씩 꾸러진 현대화된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생활필수품과

식료가공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더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고있다.

실로 창성과 더불어 우리 나라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몸소 산간마을 은하리를 찾으신 때로부터 지방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울여오신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 교시들에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날로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이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

*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공업을 한계단 추켜세우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파업이 나시고있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해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만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72페이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옹계 결합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인민소비품은 그 원료원천의 분포와 수요상 구조, 생산조직과 생산기술공정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원래 경공업은 전국적범위에서 중앙적으로 공급되는 원료들과 함께 온 나라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원료들을 리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며 소비품에 대한 전국적 수요와 함께 전국각지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다.

경공업은 또한 제품의 품종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과 복잡한 기계설비가 요구되는것이 있는 반면에 비교적 간단한 시설과 기술로 생산을 보장할수 있는것도 적지 않다.

소비품생산의 이러한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말미암아 경공업발전에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대규모 공장들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방대하고 다종다양한 소비품의 생산을 옹계 조직할수 없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근본문제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이다.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의 원료, 자재와 유희로력 등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사회적으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큰 추가적인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국가투자를 중공업건설에 더 많이 돌려 공업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방에 숨어있는 원료와 자재로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생산지와 원료원천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접근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공업건설의 기본요구를 보다 훌륭히 실현하며 지방경제를 고르롭게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이 추켜세우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소비품은 인민생활의 필수적요소이며 여리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더욱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5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제1차적과업이며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피흘려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바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더우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더욱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국가적혜택이 돌리지고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다 행복한 생활조건이 마련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우리 당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끊임없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혁명의 급속한 발전은 보다 높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더우기 웅대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서게 되는 헌단체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자면 그들의 기호와 생활상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

적으로 늘여야만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더 빨리 촉진할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긍지와 보람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고 사회주의대전선에 힘차게 밀쳐나서게 될것이다.

참으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창발성,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나라의 온갖 자원과 모든 생산잠재력을 인민생활향상에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방도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이악하게 투쟁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두고도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옳게 지도할줄 알며 자기가 맡은 사업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책임성과 열성을 다하는 새로운 형의 일군들이 요구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22페이지)

지방공업부문일군들은 지방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여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책임을

저니로있다. 소비품생산에서의 성과 여부는 이 부문 일군들이 주인노릇을 어떻게 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려는 주인다운 힘장과 태도를 가져야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더 많은 일용품수품과 식료가공품을 생산하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해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진실로 인민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근로자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높은 당성, 토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한다. 부다치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몸바쳐싸워나가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은 하나의 예비라도 더 탐구하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하며 높은 자력쟁생의 혁명정신과 책임성, 자각성을 가지고 일을 꾸며야 하며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고 낮을 돌리지 않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데서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치밀한 조직사업이 없이는 잘될수 없다. 더욱이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되고 다양한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게 되는 지방공업의 경우에 일군들의 조직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험은 이 부문 일군들이 해당 지방의 인민생활을 책임지려는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창조적으로 해나갈 때 예비는 무진장하게 쏟아져나오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소비품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경공업의 생산토대는 굉장히 꾸러졌으며 그 위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인민소비품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원료와 자재, 설비그밖의 예비는 어디에나 다 있으며 대중의 열의도 드높다. 통마는 좋으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타는가 하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만 잘한다면 근로자들의 무진장한 힘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소비품생산을 얼마든지 늘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 빨리 높일수 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지방들에서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계획화사업을 철저히 일원화, 세부화 체계에 따라 진행하는것은 지방공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우리의 지방공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이 부문 계획화사업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일원화원칙에 따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지방마다 세부계획을 독바로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들의 세부계획작성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지표를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분하는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생산기술공정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계획규를, 협동생산규를, 물자공급규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품생산에 대한 계획화사업에서도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군들에서 지방에 산제를 옮겨 실시하여 자체로 예산을 맞추도록 하는것이다.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이제는 군들이 자체로 수입과 지출이나 맞추는것으로 만족할수 없다. 군들은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출뿐 아니라 수입금을 국가에 많이 들여놓아야 하며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군내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고 중앙예산의 적극공급을 전적으로 확대재생산에 돌려 전반적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지방의 책임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 지방예산제물 더 잘 실시하여 지방주민들의 생활을 훨씬 더 높이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며 자재로 설계를 하고 작전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원로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로기지가 튼튼하지 못하고는 생산을 정상화할수도 없으며 늘일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1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원로기지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자체의 자연원로기지와 공업원로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 부문 지도일꾼들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원로기지를 똑똑히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하며 원로기지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튼튼한 자체의 공업원로기지를 꾸리는것은 생산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현대적인 소비품생산기지로 전변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지방공업이 창설되던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여러가지 금속제품, 화학제품들까지 마음대로 만들수 있는 공업원로기지를 꾸리지 않고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금속 및 수지

소재생산기지과 가성소다, 탄산소다, 철강, 안료, 접착제, 시약 등을 생산하는 중소화학공업기지와 포장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필요한 공업원료와 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공업기업소들의 폐설물들과 농부산물들을 받아쓰기 위한 사업을 더 잘 짜고들어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원로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국가적인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매달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강재와 목재, 세멘트, 가성소다, 종이, 등 같은 원자재들가운데서 무조건 일정한 양을 떼어 지방산업공장들에 넣어주도록 할데 대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것은 자재공급사업을 중단없이 보장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더욱 발양시켜 소비품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조치로 된다.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지방공업에 주기로 한 자재를 어김없이 보내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 지방들에서는 중앙적으로 공급되는 자재에만 의탁하려는 편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공급된 자재를 류용량비함이 없이 자기의 용도와 사명에 맞게 정확히 쓰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크게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이미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꾸리며 생산공정들을 기술적으로 더욱 개조하고 완성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적개선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책, 391페이지)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적개선을 힘있게 벌리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은 현시기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성숙된 요구의 하나이다.

이제는 지방산업공장들이 그전날 수공업적기술에 의지하던 때와는 다르다. 지방공업의 규모와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이 확대강화되고 부문간 생산적련계가 더욱 밀접해진 조건에서 기술적개진을 다그쳐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같은 원료,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제품의 실수율과 질을 응당한 수준으로 높일수 없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자체의 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다그쳐야 하며 이미 자동화된 공장들에서는 기술관리를 잘하여 자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또한 각종 소비품생산에 요구되는 단능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기계설비들이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매개 도들에 건설된 곡산공장, 옥살공장들의 가동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농마, 옥살, 기름, 간장 등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화된 지방산업공장들을 능숙하게 운영할수 있는 기술력량을 자체로 키우는 사업을 계획화하며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공장들 호상간에 선진경험을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새 기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의 기술적개진을 비롯하여 이 부문 사업을 더욱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앞선 부문이 뒤떨어진 부문을 도와주며 이끌고나가는것은 하나의 생활원칙으로 되어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것은 어느 개별적인 부문이나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될수 없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과

중공업부문들에서는 지방공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물질기술적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하여 주기로 된 원료, 자재들을 꼭 때에 어김없이 보장하는것을 철저히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하며 지방공업부문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기판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기판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훌륭히 구현할수 없고 따라서 중공업이 경공업을, 발전된 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방공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수 없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높이고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 질은 서로 떼어놓을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인다고 하여 질을 낮춰서는 안되며 반대로 질을 높인다고 하여 량을 줄일수 없다. 량을 늘일수록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그때야 다종다양한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 인민대중과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 관점에 튼튼히 서서 하나의 제품이라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알뜰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일용잡화와 식료가공품들이 상점마다에 가득가득 쌓이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예비를 다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원가를 낮추고 낭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고 낭비를 없애는것은 같은 원료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 공동의 재부를 극력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인민생활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기업관리와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원료와 자재, 연료, 전력의 소비를 극력 줄이며 한사람당 생산량을 늘이기 위하여 온갖 창발성과 재능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기본교리'를 지방의 창발성을 발양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찾으시고 그 영예로운 임무를 지방정권기관 일군들에게 맡겨주시였으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방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죄다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지방정권기관들앞에는 인민소비품생산의 계획화와 경제기술적보장, 중앙공업의 지원조직 등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 통제하며 지방산업공장들의 실태를 늘 깊이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생활상 봉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독바로 세우고 지방산업공장들을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정연한 체계에 맞물려 옮겨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이 직접 지방공업을 틀어쥐고 지도하며 지방공업발전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것이다. 지방정권기관일

군들은 지방공업을 해당한 범위에서 구색에 맞게 발전시키므로써 지방주민들에 대한 소비품공급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의 위력한 수단이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당정책집행을 법적으로 잘 보장하며 지방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통제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도와 군의 창발성을 높이는것이다.

오늘 도의 비중과 살림살이는 비할바없이 커졌다. 도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마땅히 큰 규모의 소비품생산기지와 원료기지, 연료기지, 각종 기계설비와 운수수단들을 다 틀어쥐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도록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실현하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지방공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군들에서는 지방의 풍부한 자연산물과 농산원료, 우로부터 공급되는 원료, 자재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여러가지 식료품과 지방명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질좋은 천과 일용필수품생산을 옮겨 배합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가내작업반과 편의협동조합을 널리 조직하고 잘 운영하여 인민생활에 보다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온갖 정력과 창의창발성을 다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유물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

림 인 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는 조선민족력사의 여러 단계의 시대상과 문화발전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어 훌륭히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을 촉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과 문화유물보존관리부문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역사 유적과 유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함으로써 그것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그들의 비위에 맞게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할수 있습니다.》(《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79페이지)

역사 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력사의 유구성과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보여주는 위력한 물질적자료로서 사람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역사 유적과 유물은 오랜 역사적시기에 걸쳐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물질문화의 창조물로서 여기에는 선정한 여러 단계의 생산도구와 생활필수품, 과학기술, 건축, 미술, 조각, 공예품 등이 속한다.

이러한 역사 유적과 유물은 역사와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연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물질적자료로 된다.

인간의 생활과 함께 그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 유적과 유물을 떠나서 그 어느 시기를 물론하고 해당 시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알수 없다. 특히 역사 유적과 유물은 문자를 아직 알지 못하던 원시사회력사를 밝히는 데서 의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직접적자료로 된다. 물론 고동물의 뼈나 동식물의 화석, 지층편제자료 등 자연사적유물과 후세의 문헌기록도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자료이며 원시사회의 유적유물에 비하면 부차적의 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직접적로동의 결과로 창조된 생산도구를 비롯한 원시사회의 유적유물은 당시 역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가장 위력한 증거물으로써 그 시기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기본자료로 되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력사의 시원과 유구성을 뚜렷이 밝혀준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랜 구석기시대의 상원군 옥우리 검은모루유적과 거기에서 발굴된 석기의 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지금으로부터 60만년~40만년전에 이 땅에서 살았다는것

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력사의 유구성을 움직일수 없는 물질적자료로써 힘있게 증명해주고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력사의 유구성뿐아니라 우리 인민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인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오면서 독창적인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창조함으로써 세계문화사를 빛나게 장식한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력사 유적과 유물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과 함께 그들의 지향과 감정, 생활풍습과 기교와 기술이 반영되게 되며 그것은 해당시기의 면모와 문화발전상을 표현하면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장식하게 된다.

우리 선조들은 원시사회의 첫단계로부터 고대중세에 이르는 오랜 력사적시기를 포괄하는 훌륭한 문화유물들을 남겨놓아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생동한 물질적실체로 보여주고있다.

상원군의 검은모루유적과 용기군 굴포리 유적, 고조선의 강상무덤과 투상무덤, 고구려의 광개토왕릉비와 인민들의 애기와 충천한 기세를 보여주는 벽화무덤들, 세계의 최초의 금속활자, 《천하의 보물》로 세상에 명성을 떨친 고려의 자기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이 독자적으로 력사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세계문화사를 빛나게 장식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이와 같이 력사 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력사의 유구성과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보여주는 위대한 물질적자료로 되며 따라서 그것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사람물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며 그것을 옹계 리용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

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7 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선행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조건에서만이 창조되고 발전되게 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오늘 의 사회주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창조와 발전은 선행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기초로 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바탕으로 되는 민족문화의 이러한 전통은 정신문화와 함께 력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게 된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감정, 지향과 풍습, 재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물질적실체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구체적이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력사 유적과 유물은 민족문화전통의 보고로 되며 이것을 잘 보존관리하고 옹계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로 된다.

만일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며 옹계 리용하지 못한다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루어놓은 우리 인민의 슬기롭고 고상한 민족적특성과 아름답고 우아하고 집착은 감정, 높은 재능과 기교, 기술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수 없으며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성과적수행

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게 된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며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훌륭히 창조,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이처럼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며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는 것은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귀중한 민족문화유물들이 심히 파괴락탈당하였으며 오늘도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피뢰도당에 의하여 많은 문화유물들이 파괴류실되고있는 사정으로부터 보다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서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렸으며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88페이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일본침략자들은 36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있으면서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말살하고 제놈들의 조선강점을 합리화할 목적밑에 조선력사를 탄압하게 외곡날조하였으며 귀중한 유적유물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락탈하였다.

선조들에 의하여 창조된 귀중한 유적유물들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에 의해서도 심히 파괴락탈되었다.

남연군묘의 도굴과 《사만》호의 사건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을 감행해온 미제침략자들은 력사 유적과 유물을 야만적으로 파괴락탈하였다. 특히 놈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고적들을 파괴소각하였으며 우수한 문화재부를 락탈하여갔다.

참으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물들은 외래침략자들의 파괴와 락탈로 하여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수많은 유적유물들중에서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피뢰도당은 나라의 재보이며 민족의 자랑인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상전들에게 섬겨바치고있을뿐아니라 새 전쟁 도발준비를 미친듯이 벌리면서 수많은 유적유물들을 파괴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실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력사 유적과 유물을 더 잘 보존관리할것을 보다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 유적과 유물의 중요성과 미일침략자들의 락탈적 본성 그리고 력대피뢰들의 민족반역적 죄행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언제나 문화유물보존관리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여 몸소 이 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항일혁명투쟁의 그 준엄한 시기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평가처리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와 인민무력을 건설하시고 어렵고 복잡한 민주개혁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해방직후 《보물고적명승천열기념물보존령》을 공포하시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유적유물들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시는 한편 친히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조직하시여 일제놈들이 파괴한 유적들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여 시급히 복구정비하며 잘 보존관리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건설과 후방의 모든 사

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돌보셔야 했던 전화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나의 력사 유적과 유물이라도 적들의 만행으로 손상을 입을세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몸소 전시수송에 긴장한 군용차까지 동원하여 《리조실록》과 《팔만대장경》 등 귀중한 문화유물을 안전한곳에 보관하도록 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온 나라가 재더미로 되었던 전후복구시기에도 일제놈들의 약탈과 파괴로 얼마 남지 않았던 유적유물마저 미제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파괴된 유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더 많은 력사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어 잘 보존하도록 유적발굴대와 연구집단까지 크게 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만도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도록 전문기관들의 정연한 사업체제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복구와 보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수십만년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상원군 옥우리 검은모루유적, 안주군의 《백상루》를 비롯하여 강서군 수산리, 덕흥리 고구려 벽화무덤들과 고려자기 등 수많은 력사 유적과 유물들이 원상대로 복구되거나 새로 발굴되어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전해주고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창조물로서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우리모두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나라의 문화재해보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력사적과정애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을 다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처리에서 이러한 허무주의적태도는 우리의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사회주의문화예술론》, 525페이지)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이 부문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과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신 강령적지침이며 행동준칙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모든것을 재보면서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해나갈 때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문화유물의 보존관리와 리용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든든히 지켜나갈수 있다.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은 그것을 잘 보존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선조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며 우리 민족력사의 유구성과 우수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위력한 물질적사료로 된다.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그 보존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수 있으며 그 보존관리를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펼쳐나가야 한다.

전인민적운동으로 역사 유적과 유물을 애호하는것은 그 보존관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역사 유적과 유물은 일정한 장소에 집중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온 나라 도처에 널려져있는것만큼 그 어떤 제한된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잘 보존관리할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답게 참가할 때에만 그 보존관리를 잘해나갈수 있다.

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하여서는 유적유물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곧 애국심의 표현이라는것을 정확히 알려주며 문화유물의 발굴과 처리에 대한 실무적 문제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유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새롭게 보충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듯이 역사유적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사업도 구체적인 법규범과 규정이 있어야 옮겨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유적유물의 발굴과 처리, 그 복구와 관리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더욱 새롭게 보충완성하며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역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이 부문 일군들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직접 책임지고 담당수행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따라서 이 부문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보존관리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원래 역사 유적과 유물은 오랜 역사적시기를 거쳐 전해지고있는것만큼 세대에 수리보수하며 소중히 다루지 않고서는 원상대로 보존할수 없고 후대들에게 전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전문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성을 높여 하나의 유적유물을 다루어도 주인다운 립장에서 칸지고 알뜰히 다루며 복구, 보수, 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세대에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역사 유적과 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전문부문일군들은 민족문화유물을 잘 보존관리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유적유물을 더 많이 발굴하고 알뜰히 관리하며 옮겨 리용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손진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나라가 갈라져 30여년이 지났으나 우리 인민의 절절한 조국통일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민족분렬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이 이처럼 장기화되고 우리 인민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그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음흉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적책동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기어이 그물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악랄한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그러쥐고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페이지)

제2차대전후 패망한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곳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 대륙을 점령하기 위한 침략의 길에 나섰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남북조선인민의 민족적능대를 끊고 남조선에서 피외정부들 조작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의 침략야망은 결코 실현될수 없었으며 능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거듭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그후 아세아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능들은 아세아침략정책에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한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비상이 높아졌으며 미제가 조작한 남조선피외정권은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

특히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이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연대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미제의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미제의 아세아전략이 전면적파산에 직면한 조건에서 놈들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침략적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그리려고 있으려는 흉악한 야망밑에 이른바 《두개 조선》 정책에 더욱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다른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 내부에 대립과 알뜰을 조성하며 민족적단결을 가로막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쓰고있는 가장 악랄한 통치방법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에 생겨난 첫날부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는데서 류현적인 폭력과 함께 교활한 분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특히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놈들은 대외침략정책에서 민족분열과 리간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데로 나갔다.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도 결국은 《분열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고유한 식민지통치수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과 분열책동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과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인 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유린으로 된다.

민족적자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민족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떠나서 민족적자주권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민족의 참다운 자주권, 행복과 번영은 오직 명토의 완정과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진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갈라질 때 그 민족은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통일적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온갖 불행은 강요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열된 민족이 불행과 재난을 겪지 않은 예가 없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음흉한 책동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세계에는 단일민족국가도 있고 다민족국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민족적통일과 국가적독립이 이룩되는 조건에서만 인민들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나라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72페이지)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말과 글,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단란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성, 우리 민족의 단일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공고화된 것으로서 그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 수천년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탄압한 유턴일뿐 아니라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위업에 대한 토목적인 도전으로 된다.

오늘 조선인민이 류려없는 민족적 비운을 겪고있고 나라의 번영에 커다란 화를 입고있는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있기때문이다.

민족분별로 하여 우리는 한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며 북과 남사이의 차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커가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민족의 공통성마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민족의 분열은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낳고 남북사이의 긴장을 격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항시적인 근원으로 되고있다.

만일 우리 민족의 분열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수난의 역사는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조국통일,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요구이며 통일만이 살길이다.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할수 없게 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한없이 지연시키며 남조선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것을 노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침략적본질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저들의 분열주의적책동을 정당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것은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이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들고나와 조선의 분열을 합리화하려는데서 더욱로 골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는것으로 되며 조선의 분열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는것으로 됩니다.》(《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7페이지)

미제가 들고나온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은 조선인민의 사활적인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이 원하지도 않는 유엔동시가입안을 서둘러 들고나온것부터가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횡포한 간섭으로 되며 조선의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영구화하자는것이다.

지난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무대에 진출하는것을 것처럼 반대하여온 미제가 유엔동시가입안을 들고나온것은 조선의 분열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합리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방해하며 우리 인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한강토, 한민족안에 서로 적대되는 두개 국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며 결국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켜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두개 조선》으로 갈라진채 각각 유엔에 들어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성립될수도 없다.

원래 남조선《정권》이라는것은 미제가 조작해내고 미제침략군의 총칼의 비호밑에 유지되고있는 허수아비정권이며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남조선은 유엔에 들어갈 권리도 자격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유엔에 북과 남이 각각 따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교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며낸 이른바 《교차승인론》이라는것도 능들이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정치적모략책동이다.

미제는 피뢰정권을 형식상 내세우고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저들의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체적 지배자, 통치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이며 위장물인 남조선피뢰정권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논의의 대상으로도 될수 없다. 만일 남조선피뢰정권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곧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법화하는것이나 다름없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미제가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어있는 박정희피뢰도당을 위기에서 건져내며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해보려고 들고나온 이른바 《교차승인론》을 한결같이 배격하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제안을 반대하고 《불가침조약》을 들고나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현시기 조선문제해결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은 서로 대치하고있는 당사자들사이의 국제적협약문제로서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를 실제적으로 담보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이것은 응당 정전협정체결의 당사자들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 공명정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있을

뿐아니라 박정희피뢰도당을 부추겨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라는것을 들고나오게 하였다.

능들이 떠드는 《불가침조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남겨둔채 우리와 서로 침략하지 않을것을 약속하자는것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남겨둔채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맺자는것은 결국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 영구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책동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방대한 무력이 팽배하게 대치되어있다. 이것은 그자체가 오해와 불신을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 엄중한 사태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그 무슨 《조약》이나 맺는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해소될수 없으며 더우기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방도로는 될수 없다.

그러므로 분열주의자들의 《불가침조약》은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군사파쇼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현 분열상태를 고착시키고 또다시 새 전쟁도발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책동인것이다.

날로 악화해지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피뢰도당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능들이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불가침조약》을 주장하는 검은 속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는 대세의 압력에 못이겨 남조선에서 저들의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를 편속 취하고있다. 미제는 그 무슨 군사적《군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실밑에 박정희피뢰도당에게 더욱더 많은 군사원조와 신형무기를 대주고있으며 지어 미국본토와 태평양, 일본에 있는 저들의 전투폭격기와 함대들을 끌어들여 남조선피뢰들과 《합동군사연습》, 《공격훈

면》과 같은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리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미제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조성하고있으며 남조선피퇴도당을 부추겨 기어이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성사시켜보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피퇴도당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과 우리의 거둬드는 평화통일제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마저 정체상태에 빠뜨렸으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매국역적 박정희피퇴도당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은 이른바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기만적구호를 내걸고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제놈들의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라고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구실삼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과소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현 분열상태를 고착시키고 제놈의 영구집권야욕을 이루어보려 하고 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또한 《남침위협》을 구실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며 북과 남의 대결을 고취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 책동으로 내몰고 있다. 놈들은 《총력안보》니, 《림전태세의 확립》이니 하는 범죄적구호밑에 피퇴군병력을 계속 증강하고 대량살륙무기와 작전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무력도발을 전례없는 규모로 감행하고 있다. 한편 놈들은 남조선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군사화하고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

원을 언제든지 전쟁목적에 정발할수 있게 전시체제를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를 빌어 동족을 죽이려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한결같이 핵지대와 핵전쟁을 반대하고있으며 미국사람들까지도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침략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는 이때 박정희피퇴도당은 그것을 반대하여 상전에게 애걸복걸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원히 붙들어두려고 미일 지배층을 상대로 더러운 《국제죄물작전》까지 서슴없이 벌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박정희피퇴도당의 범죄적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주고 있다.

최근 박정희피퇴도당이 《대륙붕공동개발》이라는 구실밑에 바다밑자원까지 팔아넘기면서 그 대가로 일본반동들과 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도 놈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피퇴도당이야말로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매국노, 인간쓰레기이며 오직 영구분열책동으로써 제놈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피퇴도당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영원히 분열되는것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

지금 조선인민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모습대로 통일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분열은 매국의 길이며 통일만이 애국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야

하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장전 30돐에 즈음하여》, 29~30페이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인민들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민족공동의 원칙이며 통일강령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고수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우리 인민은 안팎의 원수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지난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민족앞에 다가온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협을 막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구국방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길을 밝혀주고 있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힘을 합쳐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외세의존과 매국배족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박정희피괴도당의

과소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피괴도당의 야수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분열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오늘 무엇으로 색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 있다.

미제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하며 전쟁소동과 인권탄압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피괴도당에게 말라와 무기를 대주면서 놈들을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에로 부추기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도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는데서 그 어떤 횡재를 하여보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힘도 자기자신의 손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8호(루게 424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77년 8월 1일

발행·1977년 8월 5일

7-7520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8102

451
248

Guangdong

流麗書公司
LO LIU PUB. SER'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JAN 5 1978
UNIVERSITY OF CALIFORNIA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근로자

제9호 (42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 | |
|--|------------|
|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 (2) |
|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자..... | (12) |
|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 김광제 (18) |
|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 강광근 (24) |
|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일군들의 지휘능력..... | 오형일 (30) |
|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현실 발전의 절박한 요구..... | 김일대 (36) |
| 긍정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군중교양방법..... | 리성민 (43) |
|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강농수 (49) |
| 원가를 낮추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과업..... | 리기창 (55) |
| 조선문제는 세계관심의 초점..... | 리승복 (60) |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하신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로작에서 새로운 고전적정식화들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물 한없이 풍부히 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의 근본원리를 더욱 심오히 밝히시고 로동제급의 혁명사상을 새물결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시대적요구,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는 백파전서적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을 온갖 예측에서 해방하고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세기에 빛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한없는 민족적금지과 혁

명적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위대한 사상

로동제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사업이다.

이 위대한 사업은 시대를 대표하며 혁명의 앞길을 열어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 올바른 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성과적으로 완수된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제급의 혁명투쟁은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며 끊임없이 전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력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적 변혁들과 사변들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측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7페이지)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역사의 새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확대되고 사회발전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구라과의 몇몇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준비하던 시대나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은 전세계적규모로 확대발전하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근로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일정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난날 자본주의문명을 위한 거름으로만 되여온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각성되어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수많은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 자립의 기치밑에 새생활창조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피압박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는 밀뿌리채 무너지고 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국주의가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약탈하며 세계 수억만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랜 세월 역사밖에서 역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온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세계의 일부 지역이나 몇몇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각성된 인민들의 투쟁은 오늘날은 세계를 포괄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모든 대륙에서 비쌍히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며 매개 나라의 역사적조건과 혁명발전수준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그들앞에 나선 혁명과업도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혁명은 민족해방의 과업과 제국해방의 과업, 인간해방의 과업을 다같이 제기하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심화발전되었다.

지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심화발전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주인된 자각과 창조적역할을 더욱 높이며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의 역사적현실을 반영하여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을 근로인민대중에게서 찾는 전혀 새로운 혁명의 근본원리를 세우며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올바른 입장과 방법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심화발전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일정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을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창조된 남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서는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주로는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220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실천적문제로 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더욱 완성하는것은 로동제급의 역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로동제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따라 자체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 시대가 해결을 기다리는 이 모든 문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전일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근본초석이며 진수를 이룬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주체사상을 파악함이 없이는 수령님의 심오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깊이 이해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진리성은 무엇보다도 그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기초원리가 새롭고 독창적이며 현실세계의 가장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진리를 전면적으로 깊이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

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책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새롭고 완성된 리해를 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설명하며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처럼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것을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새로운 혁명의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로동제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자기 발전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혁명적개조의 무기로서의 위력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또한 력사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은 로동제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지켜야 할 지도적원칙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가 기초하고있

는 심오한 철학적원리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기초우에서 발전풍부화하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심오한 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이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혁명의 본질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적관계에서 남에게 예측되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착취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의 착취

와 억압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살된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 그로 인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한다.

착취와 압박이 있고 자주성이 짓밟히는곳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따라서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짓밟히고 구속되는데로부터 사회혁명이 일어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이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혁명의 본질이 새롭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내용은 보다 포괄적인것으로 정식화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혁명으로 보는 보다 과학적인 견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폭넓고 전일적인 해명이 주어진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혁명적변혁과정의 본질이 새로운 과학리론적기초우에서 정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인류력사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대중은 여러가지 류형의 혁명투쟁을 벌려왔으나 그 모든 혁명투쟁의 본질과 목적은 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력사는 결국 그들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압력으로써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혁명의 근본원리가 새로운 사상리론적기초우에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리론으로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혁명의 전략과 전술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켜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년에 즈음하여》, 7페이지)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데로부터 바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측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을 전개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그들을 묶어세우고 발동시키는것을 기본방법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여기에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과 혁명의 전략과 전술의 근본특징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거쳐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법을

가르쳐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사회주의에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길을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으로정과 그 총적과업,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 이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완성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가장 폭넓고 심각하며 거창한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과학과 문화, 군사 등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렇듯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이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예측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 때까지의 전로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거치게 되는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되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줌으로써 그들

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업을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새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이지)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노릇을 독독히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길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자주적립장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으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인민대중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관한 사상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보는 가장 철저한 토동제급적관점이 확립되게 되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밝혀짐으로써 토동제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낡은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대중을 하나의 목표실현으로 정확히 이끌어가는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령도가 보장되어야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에 기초하여 대중으로 하

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령도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제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령도원칙,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제화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적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령도방법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위력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고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렇듯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며 인민대중이 그 어떤 권함과 우여곡절도 없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은 높은 혁명성과 전투성, 내용의 풍부성과 다방면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불멸의 혁명사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가장 준엄한 폭풍을 뚫고 이 땅위에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기록하여온 자랑스런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주체의 터전위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찬란한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을 실현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왔다.

조선혁명은 그 특수한 안팎의 환경으로 하여 처음부터 류레없이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도 험난하고 복잡하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매우 뒤떨어졌던 처지에서 그것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새생활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은 주권을 잡은지 불과 몇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그리고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긴장된 환경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라의 경제를 새로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인민은 이처럼 남달리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멀리 전진함에 따라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로동계급의 기성리론이나 경험에서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는 배습관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이 어려운 곤난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을 각방으로 반대하여나섰다.

실로 조선은 혁명적전환의 새 시기에 들어선 첫날부터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가장 착잡하게 뒤엉킨 혁명의 전초선이였으며 가장 날카로운 계급투쟁의 결전장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열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민족적자주의식을 좁히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사대와 교조의 망국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다운 사상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는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사상관점이 튼튼히 서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으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주체의 사상체제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비상

히 강화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의 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며 력사적승리이다. 바로 이 위대한 변화에 우리 사회의 공교성의 기초가 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사상생활에서 근본적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자각이 비상이 높아지고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것을 자기의 혁명적임무로 간주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 가져온 또하나의 위대한 변화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힘있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정치에서의 자주의 원칙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지난날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자기의 정치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었으며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은 가장 힘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신념과 의사에 따라 나라와 인민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자체의 힘으로 힘있게 관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절대적인 권위와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도 비상이 높아졌다.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오로써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로대도 비상히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지난날 타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은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경제는 현대적기술과 장비를 갖춘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제를 가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제발로 힘있게 일어나가는 자립적민족경제체제를 이루고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것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심각한 경제위기,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조건에서도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있으며 나라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로대에 기초하여 우리의 방위력은 그 어떤 간악한 제국주의의 침략도 일격에 쳐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불패의것으로 굳게 다져졌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적 번영과 통성의 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이리하여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고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것을 바라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은 빛나게 실현되었다.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힘있게 개조되어 모든것이 물라보게 변모된 사회주의조국의 장엄한 현실과 자신의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더욱 찬란한 래일의 승리를 혁명적신심에 넘쳐 내다보고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는 끝없는 민족적금지과 혁명적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

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보편적의의를 가진 지도사상》,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사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려는 지향과 열망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여러가지 명칭의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조직되고있으며 거기에는 혁명가들과 진보적인 사회활동가들, 학자들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널리 망라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보급하는 사업과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이 국제적규모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처럼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의 근본원천으로 되며 세계의 싸우는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고 나라의 번영을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불패의 혁명사상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과 오늘 우리앞에 펼

쳐진 자랑스런 현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조
국의 끝없는 통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
복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의 로동계급
과 모든 근로자들의 영광스럽고도 신성
한 의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73페이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주체사상
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
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
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할 영
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설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주체사상
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선 중요한 과업
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람
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측에서 종
국적으로 해방하며 인민대중에게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
한 담보이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투쟁
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선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을 구
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
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
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
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
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경제
와 문화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
룩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
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하루빨
리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
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
업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
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함이 없
이는 우리 인민이 결코 자유로울수 없
으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
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인민이 한시
도 지체할수 없는 첫째가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
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
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더욱
장성시켜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보
다 튼튼히 꾸려야 한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
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
결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
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자주적
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나라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신흥
세력나라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
함으로써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
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
러운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참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
쟁이야말로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 투
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크나큰
금지과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영광스
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사상
의 전면적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아홉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로동자, 농민의 참다운 정권을 세워주시고 이 땅위에 민족적 번영과 통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영원토록 빛내어나갈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공화국의 창건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오랜 세월 세계지도 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나라없는 설움속에 짓밟히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에게 나라의 주인된 끝없는 영예와 보람찬 새생활을 안겨주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높은 긍지와 자랑, 그 어

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진정한 우리의 인민정권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 일어난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인민의 참다운 삶의 보람,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모든것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의 진정한 인민정권이 있음으로써 생겨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페이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정권의 기능

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의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기초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착취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기본으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로 하여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준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사회제도로써 그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것도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된데 있다.

우리 인민들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이 제도를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이런 열렬한 사랑과 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근로대중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가장 공고한 사회제도로 되고있다.

그런데 사회제도의 공고성의 기초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순조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 혁명의 진취물을 침해하려는 온갖 계급적원썹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사상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인민정권은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이런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제때에 짓부셔버리고 각 계각층의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만일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자본주의적사상독소를 막을수 없고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할수 없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때 그가 틀어쥐고있는 사상교양수단들을 옮겨 동원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불패의것으로 공고화할수 있다.

이와 같이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기초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게 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나라의 튼튼한 경제적지반은 사회주

외제도의 공고성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며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는 나라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경제적지반을 가져야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물질적기초인 나라의 경제적태도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사회주의경제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도만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70페이지)

사회주의경제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나라 경제는 오직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며 이것은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통하여 실현된다.

경제조직자적기능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모든 물질적, 인적 자원들을 계획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높은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키나갈수 있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태도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만일 프로페타리아독재정권이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지 않는다면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 설비와 자재 등 모든 물질적자원들과 노동력을 통일적인 계획밑에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적화

대제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벌어나갈수 없고 나라의 경제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할수 없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나라의 모든 생산잠재력과 막대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현존하는 생산설비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지반을 보다 빠른 기간내에 튼튼히 다질수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위적국방력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게 하는 무력적담보이다.

자위적국방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그것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불패의 역량으로 강화할수 있다. 이로부터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전체 근로자들을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옹호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프로페타리아독재정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정권문제의 높은 해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한 함일혁

명무쟁을 개척해나가시던 그 준엄한 시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민혁명정부로선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유격근거지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참다운 인민정권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동자, 농민의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혁명과 전설의 때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구체적형편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혁명과 전설의 강력한 무기로 공고발전시켜주시였다.

혁명과 전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급성철벽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수 있었으며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주체시대의 새 력사들 개척해나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과 전설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보다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완수할 불같은 결의밑에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모든 근로자들과 인민정권기관일군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가장 우월한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5페이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과 전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인민정권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인민정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또한 언제 어디서나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혁명과 전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

가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며 무슨 일이든지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감을 찾아서 하며 당이 준 과업은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어이 해내야 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특히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생활향상에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배려가 근로자들에겐 제때에 더 잘 미치도록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간지제 일함으로써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의 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규범의 형식으로 구체화한것으로서 법의 준수집행을 통제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명은 계급적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는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정권기관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제때에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법규범에 기초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온 사회에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

할수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정규화할수 있고 생산기업소들로 하여금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도록 할수 있다.

인민정권기관의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고 완성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 규정이 없는것은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규정들도 다 검토하여보고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것은 다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6페이지)

법규범과 규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그것을 옳게 제정하는것은 법적통제의 선결조건이다.

법적통제는 법규범의 준수집행에 대한 통제인것만큼 법규범이 없이는 법적통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법규범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과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하고 그들 성실히 준수집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법규정들을 근로자들과 깊이있게 해설침투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주권적활동을 강화하며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주권적활동과 행정경제기관, 생산기업소들의 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행정경제기관들과 생산기업소들에 대한 분공을 옹계 주며 그 집행정형을 늘 알아보고 나타나는 부족점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바로 잡아주며 지방의 막대한 로력 자원과 자연부원 등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이룩하도록 주권적지도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위원회의 주권적지도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제기관을 비롯한 생산기업소 일군들은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물 가지고 국가계획과제를 야김없이 수행하며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경제조직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당정책의 집행자이며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서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요하게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일군들이 옹계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뜻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어야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혁명적군중관점을 옹계 세우는것이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옹계 가져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의도와 요구를 정확히 알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이와 함께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대중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현대과학기술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끊임없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적지도로 강화하는 것은 정권기관의 사업을 옹계 수행해나가게 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령도를 받아야 인민정권은 당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안받침해주며 일군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여 그들이 주권활동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숭고한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김 량 제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는 우리 혁명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는것은 혁명과 전선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혁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항일투쟁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의 산모범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

*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가장 고결하게 간직되였던 혁명에 대한 근본태도와 근본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지난날 산에서 혁명투쟁을

할 때에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누가 우리에게 혁명을 하라고 시킨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집에서 새 간살이나 하면 편안한줄을 알았고 죽을 념려가 없다는것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똥짐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밤에는 나무밑에서 자고 먹을것이 없어 곤난을 겪으면서도 총을 들고 매일같이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하여왔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똥맛간 나라를 도로 찾아서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잘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돈 한원 받지 않고 자진하여 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곤난을 이겨내면서 15년을 하루같이 산에서 싸워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9~20페이지)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그 어떤 보수나 명예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청춘도 다 바쳐 조국을 광복하는 그날까지 하루와 같이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곤난에 부딪치더라도 지어 적의 포위속에 있거나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남는 경우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도, 박달나무가 얼어터지는 강추위와 참기 어려운 굶주림도, 잔인하고 야수적인 적의 고문과 철창도 불사조와 같이 이겨내면서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했고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행인할수 없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혁명의 불은 기치를 끝까지 지켜싸 울수 있었던것은 바로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가졌기때문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엄혹한 나날 생사를 판가리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었던 조선혁명에 대한 근본태도와 근본립장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숭고한 혁명적 태도와 립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민족해방혁명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선 항일무장투쟁이 진행되던 당시의 혁명정세와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제기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선행시기와는 다른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에 식민지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전개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었다.

주체시대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사회발전의 각이한 단계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이 광범히 벌어졌으며 특히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섬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는 새로운 혁명과업, 혁명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리론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업들이 나서게 되었다.

혁명투쟁에서 남의것만 본따던 시기는 지나갔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료하고 판단하여 자체 힘으로 자기 나라 실행에 맞게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이것은 주체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와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는것이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며 따라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견행하여나갈수 없게 되었다는것을 보여 준다.

항일무장투쟁은 이와 같이 주체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조직전개된 무장투쟁으로서 처음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온 위대한 혁명투쟁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흥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8페이지)

항일무장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오랜 세월 싸워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기로부터 식량과 피복에 이르기까지 다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만을 받아오던 조선인민이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무장으로 제국주

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려는 세계 최초의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이었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당해본 일이 없었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군사적 과업들을 모두 새롭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제국해방의 길을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새로운 혁명전쟁이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혁명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고도로 발양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는 것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과 그들이 끼친 후파로 하여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렇듯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혁명의 근본문제로 제기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었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으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조선혁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워주시고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투쟁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인민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하며 또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3페이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혁명의 역사적경험을 천재적으로 깊이 통찰하시고 역사상 처

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서 투쟁하도록 교양하시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갈것을 가르쳐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성,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혁명적세계관을 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환경속에서도 대오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시고 친히 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습하는 목적이 조선혁명에 더욱 충실히 복무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 끈지고 알뜰하고 이악하게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발양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혁명앞에 지닌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도록 사회주의애국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과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심으로써 대원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을 책임적으로 끈지고 알뜰하게 해제끼는 참다운 혁명편을 지닌 혁명투사로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무장투쟁의 실천활동을 통해서 항일유

격대원들을 조선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고화되고 완성되어간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혁명관도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부단히 완성되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전투행동에서와 고난의 행군, 삼엄한 적후투쟁과 군중정치공작 등 어렵고 힘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들은 언제나 혁명초소를 가리지 말고 그 어디에서 혁명을 하든지 제기된 혁명임무를 무조건 제때에 어김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혁명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혁명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은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소한 편향이라도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고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태도와 립장을 확고히 전지하도록 주체의 혁명관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어주신 조선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

할수 있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이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적극 투쟁한데서 표현되었다.

조선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자각적인 태도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는 행정을 통해서 발양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들에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들,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전략전술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들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에 대해서도,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옹호 관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악하게 끝

까지 관찰하였다.

가혹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애로들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않고 심장으로 받아들이었으며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원수들의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적후에 들어가 수행해야 할 정치공작과 정찰임무를 받았을 때에도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의 한 지휘관은 중중첩첩한 적의 사면포위속에서 부대의 후방물자를 보장할 임무를 받고 무서운 열병과 굶주림속에서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혁명가는 혁명임무를 앞에 두고 물려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면서 초인간적인 힘으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처럼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가장 높은 책임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이악하게 끝까지 관찰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었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또 한 말겨진 혁명임무를 아글타글 애써 끝까지 해제끼는데서 표현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과업을 받으면 항상 첫자리에 놓고 그 수행방도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고 애를 썼다. 바로 이러한 투쟁속에서 자기들이 혁명하는 보람을 느꼈고 새로운 투쟁방도를 찾아냈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던 첫시기에 한자루의 무기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맨주먹으로 적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그것을 밀천으로 해서 점차 무장회득을 위한 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임으로써 결국 유격근거지인민들까지 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 한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체로 무기를 생산하였다. 그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없는 조건에서도 집제와 다치를 가지고 여러가지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냈으며 투쟁에 필요한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결과 밀림속에 재봉기를 차려놓고 군복을 만들었고 등사기로 수많은 책과 신문을 찍어냈으며 병원을 차려놓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등 별의별 일을 다하였다. 도구도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 천고의 밀림속에서 그것도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행군과 가렬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때로는 살 한줌, 소금 한되박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때의 조건에서 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다는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말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해내자고 마음먹고 아글타글 노력하면 비할데 없는 창발성이 나오고 방도가 나왔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조건을 갖추고 또 환경이 불리하던 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켜가지고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고야말았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한 후방부성원들은 부대에 급히 보낼 군복을 만들다가 하나밖에 없는 재봉바늘이 부러졌을 때 그들은 철사로 재봉바늘을 만들어 써보고 그것이 또 부러지자 못바늘로

만들어서라도 끝내 제시간내에 혁명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말겨진 혁명임무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하는 혁명임무에 대한 확고한 주인다운 태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상한 창조적정신을 찾아보게 된다.

이렇듯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오직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으로 무엇이든지 해내야 할겠다는 혁명적립장에서 사고하고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였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기를 비롯하여 군사정치활동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강도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었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혁명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원수와 싸워온 간고한 투쟁의 나날이었으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불요불굴의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투쟁로선과 투쟁방법, 혁명의 전략전술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였으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한 철두철미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

*

항일무장투쟁의 전력사적과정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육성하

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판철하기 위한 총성의 전투적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한히 충실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고귀한 정신과 기풍, 투쟁경험은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의 불은 기치높이 일대 진공권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은 우리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가 서있는 초소마다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이 세워준 혁명초소에서 주인답게 일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땅한 혁명적본분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열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해제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숭고한 품모를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더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강 광 근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몸소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와 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여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웅대한 강령이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설계도이다.

사회주의토지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도대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토지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집행하여나가는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조국강산을 유족하고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

*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하는것은 사

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정권은 반드시 일정한 주민과 령토를 기초로 하여서만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과 우리 국토에 기초하여 세워졌으며 그것은 우리 국토안에서 살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있습니다.》(《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349~350페이지)

사회주의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다. 이것은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국토와 자원을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한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한 요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국가의 통일적인 방향에 따라 국토와 자원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경지전설과 강하천전설, 산림조성, 철도전설과 도로전설, 도시와 농촌부락의 형성과 같은 국토전설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착취사회의 유물인 국토와 자연의 거치른 흔적을 빨리 없애고 조국강산을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다. 또한 그래야 자원의 개발과 시설물의 구축으로 인한 국토의 손상을 미리 막고 전반적 사회주의경제전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으며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사회주의전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국토전설을 전망성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전설은 대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동원하여 장기전을 벌려야 완성할 수 있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만 전체 근로자들의 행동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여 국토전설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그러자면 국토전설문제를 전면적으로 규제한 법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전설의 요구와 우리 국가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사회주의토지법을 마련하심으로써 국토를 개변하고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전

설을 전망성있게 다그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토지법이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제함으로써 국토와 자원을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다그치도록 법적으로 담보한다는 데 있다.

토지가 사적소유로 되어있는 착취사회에서는 토지자체가 착취의 수단으로 되며 국토와 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는 문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착취사회에서는 토지와 부동산들이 그 소유자물인 몇몇 착취자들의 치부를 위하여서만 리용되는 것만큼 그것을 전망적으로 가꾸고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토와 자원의 개발은 공해를 발생시켜 인민들에게 후심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나라의 면모를 불췌고 무질서하게 만든다.

국토와 자원의 개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질곡을 없애고 나라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국토를 합리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확립되고 토지를 국가만이 지배하게 될 때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로 인한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국토개발의 후과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개인경지의 폐쇄성을 없애고 나라와 인민의 항구적리익에 맞게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립된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규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전설을 전망성있게 하는 웅대한 강령으로,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이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토지건설, 토지보호, 토지판리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만든 토지법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토지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며 토지건설은 어떻게 하고 토지에 대한 보호,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념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토지법에 대하여》, 3페이지)

토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내용을 규제하는가 하는것은 토지법의 생활력과 의의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토지를 발같이하는 땅으로만 리해하고 토지소유관계만 규제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토와 부원의 개발리용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밝힐수 없게 되며 결국 국토건설의 무기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발같이하는 땅뿐만아니라 강하천, 산림, 도로, 간석지 같은것을 다 포괄하여 토지에 대한 개념을 새로 설정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 토지소유관계와 함께 토지를 보호, 관리하며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와 자원을 보호,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을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농경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규제에 머무르고있는 종래의 토지법전들과 다른 우리 나라 사회주의 토지법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토지법이 국토를 전망성있게 개발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그것이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할것을 법적으로 규정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도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페이지)

국토와 자원을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복잡하게 련관되어있으며 그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수요도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특히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강화되고 경제건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토와 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국토건설에 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망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에서 엄격한 법적질서를 세워야만 국토와 자원의 개발리용에서 반복공사를 미리 막고 자재와 자금의 낭비를 없앨수 있으며 국가의 전반적리익과 민족경제의 발전전망에 맞게 국토와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집대성하여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우며 그에 의거하여 국토와 자원을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것을 법화하고 국토건설총계획작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토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토지법에 밝혀져있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규제에 의하여 국토와 자원의 개발리용에서 지방분위주의, 기관분위주의로 인한 온갖 편향들을 미리 막고 국가의 통일적

인 계획적지도밑에 국토건설을 전망성 있게 다그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국토와 부원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들의 각이한 요구와 사회주의건설의 전망적요구를 다같이 충족시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국토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건설을 전망적으로 벌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국토와 자원을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주체의 토지법전이다.

사회주의토지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토지와 자연부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려졌으며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투쟁방도를 가지고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실로 국토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주체의 사회주의토지법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행복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토지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국토건설을 전망적으로, 보다 힘있게 벌려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토지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과 토지건설사업을 잘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살기 좋은 나라로 전

변시켜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수리화와 치산치수, 경제팀조성을 비롯한 대자연개조를 위한 국토건설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성과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국토건설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를 보다 아낌답게 정리미화해야 하며 무진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한랭전선으로 인한 그 어떤 이상기후현상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도 다그쳐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국토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건설총계획을 더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울 때 국토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목표를 정확히 세울수 있으며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과 당면한 경제건설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세워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울때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작성원칙과

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으며 사회주의 토지법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법문화하였다.

그러므로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토지법에 규제되어있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 토지법에 규제되어있는 대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각이한 지대의 기후풍토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원칙을 지켜야 국토의 거의 80%가 산으로 되어있고 농경지가 제한되어있으며 물까지마다 벌판마다 기후풍토적조건이 다른 우리 나라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적극 보호하고 국토와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할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며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을 충분히 타산할데 대한 원칙을 지켜야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적요구에 맞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국토개발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수 있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토지법에 규제되어있는 국토건설총계획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 토지법에 규제되어있는 국토건설총계획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야 국토건설총계획의 통일성과 종합성,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려진 혁명의 성지들인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더 잘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앞으로 부락은 어디에 앉히고 도시와 공장은 어디에 건설하며 운하는 어떻게 뚫고 철도와 도로는 어디로 지

나가게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하기 위한 모든 문제들을 다 타산해야 하며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국토와 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특히 주민구역을 설정하고 공장자리를 정하는데서 공해를 막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전체 인민이 계속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해를 모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부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는것은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워 국토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나라의 자연부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아는 기초위에서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국토건설총계획의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토와 자원을 더욱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조사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필요한 기술인재들도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사회주의 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 집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바로 집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9페이지)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것은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기 위한 첫공정에 불과하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잘 세울뿐아니라 그것을 바로 집행하여야 국토와 자원을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철저히 조직화하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를 건설하고 보호, 관리하는데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다.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건설사업을 철저히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하나의 진물을 세우고 하나의 도로를 닦으려 할 때에도 당면한 오늘뿐아니라 나라의 먼 훗날까지 생각해야 하며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입장에 터튼히 서서 국토건설총계획을 자각적으로 집행하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주권기관들과 국토관리기관들은 국토건설총계획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국토와 자원의 개발리용에서 엄격한 질서와 강한 규율을 세움으로써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대로 국토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국토건설의 대상은 온 나라에 널려져 있으며 그 사업량은 실로 방대하다. 따라서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나 일시적인 감싸니야로써는 도저히 국토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오직 전체 인민이 다 관심을 돌리고 전인민적운동을 벌려야 국토건설의 모든 대상들을 다같이 틀어쥐고 최대한으로 빨리 완공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토를 전망성있게 가꿀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국토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리화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온 나라의 야산들을 과일동산으로 꾸려놓았다. 특히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이후 녀달 남짓한 기간에만 하여도 전인민적운동으로 10만정보의 발판개건설을 완공하고 많은 면적의 다락밭을 건설하였으며 당중앙위원

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이후 불과 20여 일동안에는 4만 2,000여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졸장을 바아 10만정보의 땅에 물을 댈수 있는 대단한 밀천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실천적경험은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기만 한다면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자연개조를 위한 국토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을 발동시켜 그것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국토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시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의 혁명적 본질과 내용을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사회주의토지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다그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신 사회주의토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투쟁은 이 땅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타원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토지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토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나가야 할것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일군들의 지휘능력

오 형 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츠높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역사적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담한 투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할것을 지향하고있으며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의 융성과 번영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싸워나갈 불같은 충성의 열정과 투지로 들끓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과업과 대중의 앙양된 기세는 지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소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더욱 높임으로써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

*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이란 지도일군들의 사업조직능력이며 조직적수완이다. 그것은 또한 지도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품격이며 자질이다. 지도일군들은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될뿐 아니라 높은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소유하여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

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간부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소유하여야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옹계 실현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물론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운동에 참가하며 스스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사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당의 두리에 결속되지 못한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새 역사의 진정한 창조자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될 때라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힘을 내게 된다.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당의 령도밑에 간부들은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철동같이 묶어세운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게 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이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과정이 증명하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로부터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소유해야 하는것은 또한 혁명투쟁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이지)

혁명과 건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변혁과 창조를 요구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여러 혁명단계를 지치는 사회적변혁과정으로서 반혁명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간고한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간고한 사회적변혁과정일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물질기술적진보를 이룩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대중적운동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혁명운동에는 더욱더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은 바로 이러한 사업인것만큼 사회발전법칙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그 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지도일군들의 올바른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이 있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올바른 혁명의 지도사상이 있어도 지도일군들이 인민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지 못한다면 혁명은 승리할수 없다.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에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의 지도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심각하고 복잡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을 옳바로 진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령도예술을 높이는것은 또한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준비되고 전개력있는 지휘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6페이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3대혁명의 불은 기치밑에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으며 새로운 전망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최근년간 6개년계획의 높은 교지를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긴장성이 조성되었다. 생산의 빠른 장성에 수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재취공업이 가공공업을 확고히 앞서나가지 못하고있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에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

주의 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일부 경제부문들사이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들 빈틈없이 갖추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완충의 해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정도예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생산의 끊임없는 속도를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정도예술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옹계 발동하는데 있다.

오늘 우리는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밀에 우리 당과 인민이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의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경공업기지,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실로 거대한 생산적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생산과 건설을 능숙하게 지휘하기만 하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것이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군들의 끈진 일본새이며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정도예술이다.

참으로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정도예술을 소유하는것은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현실의 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확고

한 담보이다.

※

※

우리 지도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정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정도예술을 소유하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진실로 대중이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체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높은 지휘능력과 세련된 정도예술을 소유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정도예술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쳐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정도하시는 과정에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주체의 정도방법과 정도예술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방법과 정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으며 장기간에 걸치는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불패성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정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철저한 혁명적 관점과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정도예술이다. 그것은 또한 여러 단계의 각이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설계하고 착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깨우쳐주고 묶어세

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참다운 정도예술이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방법과 정도예술을 따라배움으로써만 자신을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 업수행으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정도방법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을 깊이 체득하여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정도방법을 따라배워 높은 지휘능력과 정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래를 철저히 장악하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업에서나 대상을 잘 알아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대상을 잘 알고있으면 그에 맞게 일을 잘 조직할수 있으며 실수없이 일해나갈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150페이지)

아래를 장악하고 실태를 똑똑히 아는 것은 사업을 옳게 지도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아래를 철저히 장악하여야만 현실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 지도를 옳바로 줄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아래를 잘 장악하는곳에서는 모든 일이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무슨 일이든지 장악하지 않고서 제대로 되는법이 없다.

지도일군들은 늘 아래를 장악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상태는 어떠하며 원료와 자재, 설비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옳은 처방을 내려야 하며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아래를 장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아래일군들로부터 매일 사업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고 드문드문 회의를

조직하여 이미 준 과업의 집행정형을 총화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래일군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다 보고를 받고 과업을 주는 방법도 있다. 지도일군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장악하는 사업을 강화하면 아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옳은 지도를 줄수 있을뿐아니라 아래일군들이 보다 주인답게 일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지휘능력과 정도예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다.

모든 사업은 조직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세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생산공정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진 조건에서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도일군들이 교도의 치밀성을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타산하고 잘 맞물려주어야만 생산이 제대로 추진되어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간진 일본새로 공장, 기업소들의 원료와 자재, 설비와 로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맞물려주어야 하며 농촌경영에서도 주체농법에 따라 매 시기마다 그 공정이 딱딱 맞물리게 함으로써 영농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되어나가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온갖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구동원하여 현실성있는 보장대책을 안받침하여야 하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아래에 내려다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어야 한다.

조직사업은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짜고들어야 하며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다. 그 길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의 길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길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은 난

관과 시련이 가로놓일 때마다 거기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하며 빈틈없이 짜고들어 걸린 문제들을 한 고리씩 풀어나가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돌과구를 열어제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몸소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직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난관을 맞받아나가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식량과 피복, 무기와 탄약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북돋아주시고 매 전투마다 승리를 보장하시였으며 마침내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난관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그것과는 비할바가 못된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조건은 유리하며 인민대중의 기세도 좋다. 우리 일군들이 어려움을 때일수록 난관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가 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패기있게 내밀면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어려움을 때일수록 조직사업을 대담하게 벌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면 파묻혀있던 예비도 솟아나고 없던 것도 생기게 되며 불리한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되고 끊임없는 승리가 이룩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말거진 혁명과업이 무겁고 방대할수록 더욱 높은 진공목표를 내세우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입장에서 조직사업을 벌리며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격전을 풀이대야 한

다. 이것이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기질이며 투쟁방식이다.

지도일군들은 아래일군들에게 무슨 과업을 줄 때에는 반드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사업을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하며 그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할 때에는 언제나 과업을 명백하게 주어야 하며 그 과업의 중요성과 의의는 무엇이며 그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역량을 집중할곳은 어디이고 설비와 자재,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구체적으로 줄뿐아니라 그 집행형식을 제때에 총화하며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내교야마는 철저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하면하고 말면마는 식으로 일하며 이것을 하라하면 저것을 쫓아내고 저것을 하라하면 이것을 쫓아버리는 식으로 하는것과 같은것은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며 이러한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강요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은 일은 끝장을 보교야마는 혁명가적사업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사업을 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껴야 한다.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심멸전의 방법으로 일해나가야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모가 나고 실속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벌려만 놓을것이 아니라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사업을 심멸전의 방법으로 모가 나게 해제검으로써 끊임없이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지휘능력과 명도예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

풍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높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2페이지)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아래를 옮겨 장악할수 있으며 조직사업도 바로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제일 위험한것은 관료주의, 주관주의이다.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혁명적인 주체의 사업방법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그것은 사업에서 백해무익하다.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쓰고 주관주의를 하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당정책을 바로 집행해나갈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대중이 한결같이 동원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발동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의 낮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보다 야량있고 능숙한 지도로써 대중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진실로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망이 높은 지휘관이 되자면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려야 하며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고 아래일군들을 따 뜻이 타일러주고 가르치주며 힘들어 할 때에는 고무도 해주어야 한다.

우리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말저

진 혁명임무와 사업분공이 서로 다름보다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길에서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는 혁명동지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에게는 어떤 정황속에서도 아래일군들과 군중에게 따지고 호령할 권리가 없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는데서 절대로 편협하거나 융졸하지 말며 겸손하고 배설있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몸을 투신하고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이신 작칙의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을 교양하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사업방법은 주체형의 지도일군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일본새이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설계하고 작전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사업을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일하며 사업을 옮겨 총화하여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그에 기초하여 재작전,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며 수확을 거두어들이자면 자기 부문사업에 정통하여야 하며 능수가 되어야 한다. 사업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거칠며 사업을 옮겨 설계하고 전개하지 못하는것은 정치실무수준이 낮은것과 관련되어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속에서 승리의 앞길을 똑똑히 밝혀주며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강유력한 혁명의 무기는 주체의 세계관이며 과학기술 지식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높은 지위능력과 령도예술을 소유한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운전대를 힘있게 돌려쥐고나가야 할것이다.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

김 일 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판철되어 오늘 우리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체도가 세워졌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민족간부로 키워냄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훌륭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민족간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옹계 키워내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교육사업은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적인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첫공정이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부단히 심화발전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세대들을 일반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기술을 가진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87페이지)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통성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람들을 지식있고 능력있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대를 이어 실현되는 역사적위업이라는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여러 단계의 혁명발전과정을 거쳐 이룩되는 역사적 위업이다. 장기적이고 간고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전로정에서 혁명의 세대교체는 필연적이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승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의 세대교체, 혁명위업의 계승문제의

관련하여 후대육성문제가 중요하게 나
선다.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담당
수행할수 있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 새
세대들로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보충하
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의 전도와 사회의 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이 결국
혁명의 대를 이을 계승자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
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
로 키우는것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
는 존재로 되자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
장하는것과 함께 반드시 현대적인 과학
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민대중
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질뿐아니라 이에 과학기술
적능력이 안반침되어야 그들의 자각
성과 창조력이 더욱 높이 발휘될수
있다.

현대적 생산과 기술 공정은 최신과학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부단히 반자동
화, 자동화되고있으며 그 수준은 사회
의 발전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
것은 일반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과학
기술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최신기술
로 장비된 생산공정을 관리운영할수도,
발전시킬수도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토대도 성과적으로 쌓을수 없
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
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세대들
을 현대적 생산과 기술을 관리운영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나갈수 있도록 일
반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과학기술로
무장한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
군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
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현실의 성숙된 요구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
하여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군사
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발전수준은 매
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
든 부문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
키려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
로 준비된 능력있는 간부들이 있어야 합
니다.》(《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평화
할데 대하여》, 5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발전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
의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실현되어 우
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
게 실현된 기초우에서 제시된 보다 높
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인 3대기술혁명
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공업은
기계화단계로부터 전면적인 반자동화,
자동화단계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민경제
의 모든 부문의 기술장비도 비상이 강
화되였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
자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반자동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반자동화,
자동화하여야만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
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그
들에게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해줄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
제와 기술의 새로운 발전도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룩한 자동화된 생산공정도 제대로 움직일수 없으며 현대적인 기술장비도 제대로 온을 내제 할 수 없다.

공업화단계의 요구에 상응한 기술인재를 키워내던 어제날의 그러한 수준의 교육으로써는 전면적인 자동화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인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에 적응한 기술인재를 제대로 키워낼수 없다.

바로 여기에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수행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중요한 요구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어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빨리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의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 역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

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과학기술수준을 훨씬 높여야 하며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간부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지식있고 능력있는 경제기술간부들을 수없이 요구하고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사회주의적인테리, 공산주의적인테리를 키워낼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참으로 오늘 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고 준비된 민족간부를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것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교육사업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현시기 우리 당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현시기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현대과학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양성해내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페이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공산주의적인테리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가장 중요한 임무

이다.

오늘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보다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교육분야에서의 심각한 혁명이며 청소년 세대대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내기 위한 책임적이고 중대한 사업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자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의 계승자들을 길러내는 영예로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면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혁명화하여야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교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교육사업에서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교육부문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교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적교육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교육의 사상성과 과학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학생들을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우는가 못키우는가 하는것은 결국 교원들의 정치사상적자질과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아무리 당의 교육정책이 올바로 서있고 교육내용이 훌륭히 편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교

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수교양사업을 전개해나갈 교원들 자신이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어있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적요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일수 없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교원들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우리당의 인텔리부대이며 과학기술지식보급의 선구자이다.

교원들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세워서 그들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진과학지식을 습득할수 있으며 학생들을 잘 가르칠수 있다. 더우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이 방대한 규모로 빨리 진척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는 오늘 교원들이 이미 배운 지식이나 지난날의 경험에 만족하여 학습을 잘하지 않는다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일수 없다.

교원들은 정치사상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교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태도를 가지고 교육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교원들, 특히 대학교원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교육사업에 민감하게 받아들여 현대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자연기술과학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적응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경제기술간부들을 출게 키워낼수 없다. 또한 대학교원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출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장래발전에 도움을 주는 과학연구사업도 잘할수 없다.

교원들은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열적으로 하여 과학리론

수준이 높고 실천적경험이 풍부하며 현대과학발전추세에 밝은 일군으로,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대과학의 최신성과들을 대학교육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교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잘 알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인식하고 세계과학발전추세에 민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며 과학기술 서적들과 통보자료들을 제때에 보내주는 등 교원들의 자질을 높일수 있는 온갖 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한다.

교육사업을 심화발전시켜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능력있는 기술인재를 질적으로 키워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수준을 높이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연과학교육을 잘하여야 합니다.》(《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7페이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새세대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자연기술과학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최신과학과 기술로 무장시키는것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기본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구조와 사회주의경제발

전에 적응한 경제기술간부들을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인재를 키우는것이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와 방향을 알려주는것과 함께 그들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내용과 방도까지 제시하여주어야만 학생들을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어렵고 복잡한 실천적과업들도 능숙하게 담당수행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창조력을 발휘하여 생산실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갈뿐 아니라 우리 혁명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그것을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킬수 있는 실천적능력을 소유할수 있다.

기계제작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학들에서는 자연기술과학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야 한다.

당이 제시한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생산실전의 요구와 최신기계제작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강판을 현대적방법으로 용접하여 대형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기계제작기술자들을 키워내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광업금속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유능한 기술인재를 옹제 키워내는것은 야금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늘어나는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필요한 금속소재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주체적인 광업금속공학발전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질적으로 더 잘 키

위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생산실천의 요구에 맞게 원자력을 비롯한 연료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경공업, 식료공업 발전에서 단단히 한몫할수 있는 경제기술간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생물학분야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농업과학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유전학과 육종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전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농업기술자들과 해양조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의 수산업을 높은 과학기술적도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필요한 수산기술자들을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기초기술과학교육을 강화하는것은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혁명인재육성의 필수적전제의 하나이다.

물리수학적기초가 없이는 전자,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킬수 없고 력학적기초가 없이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가 도입된 현대적기계를 생산하고 운영할수 없으며 생물학적기초가 없이는 농업과학을 빨리 발전시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생산실천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인재를 훌륭히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초기술과학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11년제의무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과학지식을 습득시키는 교육은 반드시 자기의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지켜야 체계적이며 순차적인 단계들 거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훌륭히 체득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교육강령집행에서 엄격한 규율과 강한 제도와 질서

를 새움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야 한다.

자연기술과학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강령을 바로 작성하고 교과서를 잘 쓰는것이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수준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혁명실천과 현대과학발전추세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하는것은 교육강령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교육강령에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요구가 옳게 반영되어야 하며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비롯한 자연기술과학과목교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 편성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자연기술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강령을 바로 작성하는것과 함께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일정에 맞게 교과서의 내용을 개편하고 그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설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 그리고 현대과학발전추세가 정확히 반영된 정치사상적 및 과학리론적 수준이 높은 교과서를 더 잘 새움으로써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도대를 튼튼히 꾸려주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학들에 물질적도대를 튼튼히 꾸려주어야 합니다.》(《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에 대하여》, 19페이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함께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어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고 생산실천에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맡아할수 있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경제기술간부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실험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험실습교육은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풍부화하며 실천적문제해결의 기능과 숙련을 소유시키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자연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 현대적인 기술공학적원리들을 단순한 리론학습만으로는 탐구할수 없으며 과학적인 실험과 실습을 거쳐서만 성과적으로 습득할수 있다.

더우기 최신과학기술성파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이 끊임없이 현대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된 설비에 의한 실험실습교육의 강화는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교육설비가 생산실천에서 적용되는 설비들보다 뒤떨어져가지고서는 사회발전, 경제발전의 담당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수 없으며 현실발전을 따라갈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실험실습설비를 비롯한 교육설비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파가 도입된 가장 발전된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적응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경제기술간부를 훌륭히 키울수 있는 실험실습설비를 비롯한 교육 설비와

조건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는 실제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치사상교육에 선차성을 부여할데 대한 당의 구체적인 교육방침을 시종일관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공과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일대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교육현실에 깊이 들어가 정치적방법, 당적방법으로 지도를 심화시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은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며 심화되는 혁명투쟁과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교육부문일군들은 조국의 통성번영과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도를 확고히 담보하는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육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긍정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군중교양방법

리 성 름

오늘 온 사회는 사람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수많은 영웅적위훈들과 공산주의적소행들로 수놓아지고 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쫓겨나고있는 긍정적모범으로 하여 온 사회는 언제나 생기있고 명랑하며 화목한 분위기로 차넘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신심으로 약동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이러한 긍정적모범을 높이 평가하시고 무한히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를 창조와 혁신이 나래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우리는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주의대전투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

*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대중교양방법을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은 인간개조를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옳은 방향과 내용이 설정될뿐아니라 그에 상응한 과학적인 방법이 안받침되

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람들을 개조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옳게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교양방법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자면 반드시 교양방법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개조에서 교양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크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에 맞는 대중교양방법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8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주신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위력한 군중교양방법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긍정교양이 긍정적이것이 지배적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을 옳게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긍정적인것이 꽃피여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진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것으로 됨으로써 부정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이 여지없이 깃잡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

서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데 따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체계적으로 높아진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들의 처지와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모두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텔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도 전사회적이익에 선착관심을 돌리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진정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긍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영웅전사들의 빛나는 위훈과 공산주의적미풍을 전형으로 하는 수많은 긍정적모범으로 차넘치고 있다.

우리 영웅들은 어제날의 이름없는 노동자, 농민들과 그들의 아들딸로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떨쳐나선 경애하는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들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영웅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숭고한 의리로 여기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

저히 관철해나간다. 또한 그들은 그 어떤 개인의 명예와 공명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주인답게 성실히 일한다.

이러한 영웅들의 숭고한 품모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모범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그들을 장엄한 사회주의대진설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영웅들처럼 살며 싸우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혁명임무수행에서 주인답고 사회주의대진설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며 값있는 애국로동을 조국에 바치고 혁명적동지애의 정신으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등 수많은 긍정적모범들로 온 사회를 자랑스럽게 수놓고있다.

실로 영웅적위훈이 영웅적위훈을 낳고 공산주의적소행이 공산주의적소행을 낳아 온 사회가 긍정적인 사실들로 차넘치고있는 사회,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체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반드시 영웅적이고 훌륭한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될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바로 이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군중교양방법이다.

긍정교양은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긍정적인 사실들을 찾아내여 그것으로써 근로자들을 일깨워주고 각성시킨다. 그뿐아니라 개별적사람들을 교양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있는 좋은 점을 적극 지지하고 자래워준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긍정적모범을 본보기로 하여 자기의 부족점과 결함을 스스로 고쳐나가며 보다 새로운 긍정적모범을 창조해나가게 하여준다.

긍정교양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간개조사업의 합법칙적요구에 전

적으로 부합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72페이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자신을 개조하는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압력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 자신이 낳은 사상을 스스로 뿌리째고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하게 하는 방법,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꾸준한 설복과 해설은 특히 우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예로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여온 우리 인민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다. 이렇게 도덕적관념이 강한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강압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실생활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적극적인 정치사업이며 해설과 설복의 가장 설득력있는 방법이다.

긍정적모범은 그 생동성과 구체성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처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겠는가를 명백히 파악할수 있게 하여준다. 동시에 그것이 체현하고있는 새롭고 영웅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깊은 감동과 흥분을 자아낸다. 그리하여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게 하며 실천투쟁행정에서 낡고 부정적인것을 극복하고 새것, 긍정적인것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게 하여준다.

긍정적모범은 또한 그것이 곧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힘있는 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모범을 거울로 삼고 따라배우며 그에 감화되어 자신의 사상개조를 다그쳐나가게 한다.

긍정교양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대중교양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인 방법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0페이지)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모든것이 좌우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포함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적극 발동시킬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더우기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잔재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인민대중을 새기적으로 물려받은 온갖 낡은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오직 매개인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될 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공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사회주의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방법으로서는 그것은 사탄들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공정적모범은 사회에서 전형적인 사실, 영웅적인 실례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동시에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 그리하여 공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게 하여 준다.

이와 같이 공정교양은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인간개조사업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옹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군중교양방법으로 된다.

공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교양방법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그 영광스러운 전통이 마련되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공정교양이 인간개조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모범적인 실례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는 방법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으며 한 대원을 교양함에 있어서도 그의 좋은 집을 찾아내시여 그것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건철한 공산주의투사로 자라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 공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통부화시키시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공정적모범에 의한 공정교양은 천리마운동의 발전행정에서 그 위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사람들과의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모든 사람들을 공정적모범으로 감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그것이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공정적모범이 수많은 창조되고 전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온 사회에 긍정적인것이 차넘치게 되었다.

공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방침의 우월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청산리지도물 제기로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형적인 한계단위인 청산리에서 몸소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여 도처에 새로운 청산리가 생겨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진,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되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구현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과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되게 되었고 그들의 사상도덕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공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모든 근로자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

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의 로동제급과 협동농민, 근로인
대리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따라 생
기발랄하고 청춘의 정열과 전투적기백
이 차넘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힘있게 다
그쳐나가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혁명방
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고귀한 결실이다.

*

*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영광스러
운 투쟁이 즐거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긍정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
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을
사회주의대전선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
으켜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긍정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데서 무
엇보다 중요한것은 긍정적모범으로 대
중을 교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
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공적
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
께서 긍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그
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긍정적모
범을 통한 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조직전
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모든 근
로자들을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직한 열
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참된 건설자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
이 긍정적모범을 통한 감화교양을 실속
있게 짜고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

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영웅적위훈,
혁신적봉화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지지
하며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대중속에서 창조되
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모범을 전국적
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제2판, 182페이지)

근로자들속에서 창조된 긍정적모범을
찾아내고 제때에 일반화하는것은 근로
자들을 교양개조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
업이다. 한 단위 또는 한 지역에서 일
어난 선진적이며 혁신적인 모범을 제때
에 포착하고 널리 일반화하여야 온 사
회를 혁명화하고 생산에서 계속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더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생
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속에서 창
조되고있는 긍정적인 사실들을 제때에
포착하며 그것이 비록 작은것이라 할지
라도 적극 지지하고 조장시켜주어야 한
다. 그리고 긍정적모범을 광범한 대중
속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것이 전사회적인것으로 보편화
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개별적사
람들을 교양함에 있어서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모범을 본받게 할뿐아
니라 반드시 그가 가지고있는 좋은 측
면을 찾아내고 지지하여주어 그들스스
로가 부정을 극복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실속
있게 하자면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
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
발전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본질에 있
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는 대중적인 기술,

문화 개조운동일뿐 아니라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람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 관철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위훈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충성의 미담들로 사람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며 또 자신들의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어어나간다. 그리하여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 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긍정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이 이신작척하는것은 긍정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군중속에 들어가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군중이 깨달을 때까지 철저하게 해설설복하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동지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의 곤난한 문제를 성심성의 해결해주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182페이지)

일군들의 실천행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게 군중을 감동시킨다. 그것은 일군들의 모범적행동이 대중에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투쟁할것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기때문이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모범을 보이고 이신작척하는곳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지만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대중의

기세도 높지 못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이 실지로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면 광범한 대중을 적극 동원할수 있으며 또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지난날 항일유격대 지휘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모든 일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는 기수가 되어야 하며 사업과 생활, 노동과 학습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중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미는것이 중요하다.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긍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물가진다.

출판보도물은 그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긍정적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일 때 광범한 대중을 사회적모범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진행하여 나갈수 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되고있는 로력적위훈들과 공산주의적소행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생동하게 보도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들의 위훈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긍정적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실효투쟁을 광범히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긍정이 긍정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낳아 온 사회가 긍정적인 모범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긍정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대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대전선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강 능 수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온 세상에 빛을 뿌리며 찬란히 꽃피여나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풍만한 화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문학예술을 군중적로대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문학예술창조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문학예술을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 우리 당 방침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문예작품창작사업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널리 참가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문예방침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벅찬 현실은 문예작품창작에 더 많은 군중을 참가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역사적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

*

문학예술을 누구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로동제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만 로동제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으며 그 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예작품창작에 군중을 널리 참가시킬데 대한 방침은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과학적인 방침으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고 문학예술건설의 담당자, 창조자에 관한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으로 된다.

문예작품창작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문학예술을 포함한 세상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제급의 당이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

침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참으로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학예술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2페이지)

사회주의제도는 주권과 생산수단뿐 아니라 문학예술도 인민대중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문학예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한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들을 먹고 입고 쓰고살 근심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주었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부하고 각종 문화기관과 문화시설을 통하여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문예작품창작에 참가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으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모든것이 소수착취계급의 소유물로 되고있는 계급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을 향유할수 있는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며 그 창조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만 해결될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방침의 확고한 사회적, 현실적 기초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들이 살게 될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문예작품창작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계선이 점차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와 지향에 따라 문학예술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방침이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문학예술의 창조자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사업에 동원되면 여러가지 특색있는것이 나올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것이 이 사업을 대중적으로

장려하는것으로도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9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광범한 군중을 문예작품창작에 널리 참가시켜야 현실을 민감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특색있는 작품물을 많이 창작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동원적 기능을 더욱 높일수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문예창작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여러모로 진실하게 반영한 참신하고 생동한 작품물을 만들어낼수 있게 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어나가는 오늘의 비찬 현실은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된다.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생동한 소재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진실하게 반영하면 할수록 다양한 주제와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물이 많이 창조되게 된다. 그러므로 문예작품창작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어 각이한 혁명초소에서 일하는 광범한 근로자들이 창작사업에 참가하면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생동한 사실들과 이야기들을 제때에 예술적으로 정당하게 일반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다양한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인식교양적역할과 동원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작가, 예술인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 확대하여나가는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작가, 예술인 대렬이 새롭게 자라나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그 대렬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문학예술발전의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에 대하여서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는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재능있는 새 사람들을 수많은 키워낼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창작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면 광범한 인

민대중속에 있는 재능있는 새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재능을 더욱 꽃피워 유능한 창작가로 키움으로써 전문창작가의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확대하고 문학예술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창작사업을 대중화하는것은 또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도 군중화하여야만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을 흥겨운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0페이지)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람들은 혁명적문예작품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작품창작과정을 통하여서도 많은 교양을 받게 된다.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체험하는 과정으로 되며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품성과 생활태도에서 배우고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람들은 부다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혁명적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에 기쁨도 슬픔도 그와 함께 체험하면서 한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자기 주인공의 사상과 행동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문예작품창작에 군중을 널리 참가시키는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실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방침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제급화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하시여 밝히신 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전선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로동제급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3대혁명의 가치밀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작품창작에 대한 신비성을 마스고 누구나 다 창작할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작품창작사업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여러분 말했지만 글쓰는것을 신비화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학과 예술이 신비한것이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것을 쓸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98페이지)

작품창작을 신비화하는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잔재이다. 착취사회에서 지배제급과 반동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창작에 신비성을 부여하면서 창작사업은 마치 타고난 특출한 재능을 가진 몇몇 사람뿐만이 할수 있는것처럼 떠든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정신적 부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을 부인하는 착취제급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관점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을 신비화하는 현상을 극복하는것은 곧 문학예술분야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창작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선결적인 문제로 된다.

작품창작이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표현할수 있는 지식과 일정한 문화적소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문화수준을 가지게 됨으로써 문예작품창작사업이 더욱 광범한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질수 있게 되었다. 실천적경험은 로동자, 농민들과 군인, 교원, 청년학생들이 창작한 문예작품가운데 생활을 아주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창작사업에 대한 신비성을 극복하고 자기도 능히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창작사업에 달라붙음으로써 문예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층에서 문학예술소조를 널리 조직하고 그 활동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켜 운영하며 추진, 경연, 작품현상모집등을 잘 조직진행하는것은 작품창작의 대중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군중문예활동을 자연발생성에 맡겨두어서는 옹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모든것이 조직화되고 계획화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군중문예활동도 조직화하고 계획화할수록 큰 성

과를 이룩할수 있다.

문예소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 문학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 흥겹게 해주며 근로자들 자신이 일하면서 창작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는 군중문예활동의 기본조직형식이다. 그러므로 특히 문예소조활동을 정상화할 때 광범한 근로자들의 예술적재능을 꽃피우고 재능있는 문학예술후비들을 많이 키워내어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로동시간밖에 운영되는 문예소조활동은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여주고 혁명적열정을 북돋우어줌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그러나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린다고 하여 이 사업을 전문화하여서는 안된다. 문예소조활동을 전문화하면 문학예술활동에 광범한 군중을 참가시킬수 없고 로동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동한 생활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특색있고 참신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없을뿐 아니라 기본혁명과업수행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문예활동은 생산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하며 청년들은 소조활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여야 한다.

군중문예활동이 생산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그것은 참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군중적토대우에서 문학예술을 힘있게 발전시키는 본래의 목적을 훌륭히 이룩할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자기 고유의 참신하고 생동하고 진실한 군중문예작품의 특성을 잘 살릴수 있게 된다.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릴뿐 아니라 군중문학예술 촉진, 경연, 작품현상모집 등을 정상적으로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을 문예작품창작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문학예술전반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글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것은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

한 담보의 하나이다.

학생시기는 그 연령심리적특성으로 하여 어느 시기보다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르며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는 열망이 높은 시기이다.

학생들에게 글을 많이 씌워 그들이 글쓰는데 습관되도록 하여야 사고력도 발전하고 글쓰는 능력도 자라며 글을 쓰려는 욕망도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일하는 경우에도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시도 짓고 기행문도 쓰고 감상문이나 일기 같은것도 많이 쓰도록 늘 관심을 돌려 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글을 많이 씌울뿐 아니라 그들이 쓴 글가운데서 잘된 문학작품이나 기행문, 감상문 같은것을 신문, 잡지에 내도록 적극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작적열성을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글쓰는 운동을 널리 벌리도록 하는데서 교원들의 문학적자질을 높이고 그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원들의 문학적 자질과 기량, 실속있는 지도는 학생들에게 글쓰는 기량을 높여주고 문학적소양을 쌓게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경험은 청년학생들속에서 나온 좋은 작품들이 거의 문학적자질이 높은 교원들의 실속있는 지도를 받으며 자라난 문학후비들에 의하여 창작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형식의 글을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쓴 글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도록 자신의 자질을 빨리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속에서 글쓰는운동을 널리 벌려 학생들모두가 글을 쓰는데 습관된다면 새로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11년제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보람찬 로동생활을 문예작품으로 훌륭하게 반영

할수 있게 될것이며 창작의 대중화를 더욱 빛나게 실현하게 될것이다.

작가, 예술인들과 전문창작기관들이 문예소조원들의 군중문예창작을 적극 도와주고 잘 지도하는것은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에서는 많은 중학교졸업생들과 대학졸업생들이 일하고있습니다. 좀 도와주면 그들도 역시 작품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85페이지)

생산현장에 들어가 자기가 맡은 창작과제를 잘 수행하면서 군중창작을 성심성의 도와주는것은 작가, 예술인들과 전문창작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산주의적창작물리이다.

군중창작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은 작가, 예술인들과 전문창작기관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문학예술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작가, 예술인들과 창작기관들의 창작목적도 결국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이바지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는데 있다.

생산현장에 들어가서 군중문예작품창작을 지도방조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과 전문창작기관들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들의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과 혁명성을 체득하며 현실생활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더 좋은 혁명적작품을 창작

할수 있는 계기로 된다.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당과 국가가 문학예술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군중문학예술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전문창작가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지어져있다.

오늘-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의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과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어있으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배워주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면서 다같이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환경속에서 작가, 예술인들과 창작기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창작을 잘 도와주고 실속있게 지도해준다면 비록 문학적소양과 창작경험이 어린 노동자, 농민들이라 하더라도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다.

작가, 예술인들과 전문창작기관들은 근로자들의 문예작품창작을 적극 지도방조함으로써 문예소조원들로 하여금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많이 내놓게 하고 그들이 믿음직한 창작후비들로 빨리 자라게 하여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군중창작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문예소조활동을 잘 지도하며 온 사회적관심속에서 군중창작이 벌어지도록 적극 장려함으로써 문예작품창작의 대중화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원가를 낮추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과업

리 기 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는것을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분야에서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원가저하의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
혀주시었다.

경제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살림살이
를 깎지게 하여 연료와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계획보다
2%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신년사》, 1977년 1월 1일, 1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
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을 가장 정
확히 반영하고있는 경제관리에서의 강
령적지침이다.

원가를 끊임없이 낮출 때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
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면서
인민생활을 제통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표시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계획보다
2%이상 낮춤으로써 완충의 해의 전투
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
지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원가는 상품화폐관계를 사
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
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
적공간의 하나이다.

생산물의 원가에는 소비된 생산수단
과 로력보수 등 생산을 위한 모든 지출
이 화폐형태로 표현되어있다. 원가를
낮춘다는것은 곧 원료와 자재, 연료
와 전력을 비롯한 물자원단위소비기준
을 낮추고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단위제품생산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한다는것을 의미
하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
으로 더 많이 생산해낸다는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원가는 경영활동의 결
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회주
의기업소사업전반의 질을 규정하는 기
본지표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의 원가는
자본주의적생산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
다. 자본주의적생산비가 리윤추구를 위
한 자본의 지출로서 자본주의적착취관계
를 반영한다면 사회주의하에서의 원가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생산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새
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반영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비가 낮아져도
극소수의 착취자들만이 치부하지만 사회
주의하에서는 생산물의 원가가 낮아질
수록 인민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나라
의 부강발전과 장래번영을 위한 경제토
대가 강화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물의 원가는 독
립채산제를 강화하여 경제관리를 합리
화하는데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

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상품화폐관계에 기초한 원가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경제계산의 도구로 옹계리용하여야 한다.

원가를 경제계산의 도구로 옹계리용하여야 타산을 바로 하고 생산에 대한 모든 지출과 일정한 기간의 이익금을 확정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줄데 대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가격을 바로 정하여 제품들의 가격균형을 옹계유지할수 있으며 국영기업소들사이의 경제거래에서 등가보상의 원칙과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의 원칙을 정확히 실현할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공간인 원가를 틀어쥐고 옹계리용하는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드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공업의 내부축적을 높이는 원천이며 상품가격을 낮추는 기초이며 인민들의 물질적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으로 됩니다.》(《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8페이지)

원가를 낮추는것은 사회주의적축적을 높이는 원천이며 축적을 높이는것은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축적은 사회순소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순소득은 총생산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어야 사회순소득을 많이 창조하여 국가축적을 계속 늘어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또한 원가를 낮추어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가를 더욱 낮출 때 국가축적을 늘이면서도 소비에 많은 몫을 돌려 근로자들의 화폐수입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낮출수 있으며 사회문화시책을 널리 실시하여 전반적인 인민생활을 고르게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실로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는것은 낮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종국적으로 폐지되어 국가의 수입이 전적으로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 그가운데서도 주로는 주체공업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력경제의 혁명적방장의 구현이며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를 완충의 해로 규정하시고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르고있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송전선과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며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이는데도 보다 많은 자금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살림살이를 더욱 간지게 하여야 하며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보다 원가를 2%이상 낮출데 대

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되어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가를 2%만 낮추어도 그것은 실로 수억원에 달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원가를 낮춤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원가를 더욱 낮출수 있는 예비도 무진장하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원가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것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드는데 있다.

*

*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는 데서 기본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이 창발성을 발휘하고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있는 예비를 다 동원하여야만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82페이지)

원가저하의 예비는 생산현장에 있으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증산, 절약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원가를 끊임없이 낮출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 방법,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원가저하의 의의와 방도에 대하여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강재와 세멘트, 석탄과 연유를 비롯한 모든 물자들을 극력 아껴쓰며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문제를 홀시하거나 국가사회재산을 낭비하는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이 올라가면 원가는 낮아지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원가저하에 낮을 돌리지 않거나 경제관리와 나라살림살이를 주연답게 잔지게 하지 않는 현상들은 다 같이 당정책을 진심으로 반등어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한 낮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림으로써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올바르게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소들에서 계획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고 모든 비생산적지출을 줄이며 생산의 내부예비들을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기업소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6~147페이지)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자극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의 요구에 맞게 직장, 작업반들에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의 원단위소비기준과 같은 우대제기준을 바로 세워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그 수행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통제를 바로 실시하면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고 생산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하여 원가를 끊임없이 낮출 수 있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하여 원가계획수행에 대한 자극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비생산적지출을 줄이고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끊임없이 낮추어야 한다.

특히 직장, 작업반들에서 생산총화와 맞물려 일제정총화를 짓는 것을 정규화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이 대중의 높은 혁명적자각에 기초한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일상적인 생활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생산장성과 원가저하의 가장 중요한 예비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의 로동이 더 험하고 능률적인 것으로 되며 사람들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기술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능률적인 로동,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고 기술경제적지표들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데서 표현된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한다는 것은 현존기술설비들을 개

조하고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작업방법과 기술공정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일은 험하게 하면서도 설비비용을, 한사람당 생산액과 같은 지표들을 보다 선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할 때 있는 로력, 있는 자재를 가지고도 생산을 훨씬 늘일 수 있으며 단위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로력, 설비, 자재의 몫을 줄여 생산물의 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는 것이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술을 혁신하는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기술지도와 기술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증산, 절약을 위한 예비동원에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제의 내용과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며 제기된 기술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생산에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의 소비기준을 더욱 낮추고 기계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을 빨리 늘이고 제품단위당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기 위하여서는 일꾼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4페이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

이 싸고들어야 경제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할수 있으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훨씬 높이면서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출수 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생산계획을 비롯한 인민경제계획들과 잘 맞물려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가계획을 세우며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원가실태를 늘 장악하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며 원가계획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온갖 예비가 남김없이 반영된 원가계획을 세워 제때에 집행단위들에 내려보내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직장, 작업반들에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절약과제를 줌으로써 매 직장, 작업반들과 매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와 직장, 작업반의 원가실태와 절약과제의 수행정형을 장악하고 따져보는것을 제도화하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랑비현상, 원가를 초과하는 현상을 빨리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싸고들어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와 보장사업을 잘하여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최단기간에 생산물을 질적으로 만들어낼수록 생산비가 절약되고 원가는 낮아진다. 이와 반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내지나 반복시공을 하여 조업기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로력과 물자가 많이 랑비되게 되며 따라서 원가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최단기간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싸고들으로써 높은 속도와 높은 질을 보장하면서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틀이 생길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막기 위한 재정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경험은 재정 검열과 통제를 강화할 때 사회주의적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 모두가 다 나라의 재산과 재정을 소중히 다루고 더욱 아껴쓰게 할수 있으며 증산, 절약 투쟁의 불길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재정검열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정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기에 책임일군들이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법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국가 재산 및 재정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이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에 기초한 균중적인 운동으로 되게 하는 한편 그것이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과 빈틈없는 국가적통제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집행되게 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싸고들어 원가를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이 높아야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경제실무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계획작성, 생산조직으로부터 부기재산, 재정총화에 이르기까지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정통하여야 하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생산에서나 건설에서나 원가를 낮출수 있는 예비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 나오기 마련이다.

모두다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증산, 절약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생산물과 건설물의 원가를 끊임없이 낮추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조선문제는 세계관심의 초점

리 승 혁

오늘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아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외연히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요구일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문제를 하루속히 옹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적관심을 높이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

*

조선문제는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문제인 동시에 평화와 민족적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조선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담화》, 1976년판, 18페이지)

조선문제는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전조선반도에서 우리 인민의 완전한 민족적자주

권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로서 그것을 옹계 해결하는것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과탄시키고 조선에서의 평화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문제의 이러한 성격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우리 인민이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만 조국통일위업의 주객관적요인을 다같이 빨리 성숙시킬수 있으며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원래 우리 인민의 민족통일문제, 조선문제는 그 발생경위와 그후 사태발전으로 보아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패망한 일본군대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적공약을 배반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함으로써 조선을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았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전례없이 포악무도한 식민지과소테로통치를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화하였을뿐아니라 그곳을 제놈들의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 군사적요충으로 삼고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 세계평화에호력량을 반대하는 로물적인 침략전쟁정책을 감행하는 길에 나섰

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유엔헌장을 짓밟고 유엔총회 제2차회의때부터 해마다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켜놓고 저수기를 발동하여 저들의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조선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제화하는대로 나갔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세계인민의 염원을 반대하고 조선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며 거기에 국제반동의 연합세력까지 끌어들이었다.

오늘 조선문제가 이처럼 복잡성을 띠고 세계정세발전의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과립치하고 횡포한 침략과 간섭 책동때문이다.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며 국제적인 반제반미투쟁과 하나로 굳게 련결되어있다.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자기 위치에서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여 건결히 투쟁하는것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되며 세계적 규모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그것은 곧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한 커다란 지지성원으로 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교살하려고 횡포하게 날뛰고있으며 세계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권지원썬일뿐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할수 있다.

조선문제가 세계관심의 초점으로 되는것은 미제가 아세아 특히 조선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것과 판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국을 실현해보려고 합니다.》(우와 같은 책, 5페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이 걸으로는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떠돌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세계제국의 흉악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으며 그 거점을 남조선에 두고 있다.

미제는 바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전략적거점으로 들어쥐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한사코 반대해나서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민족분열책동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땅은 새 전쟁 도발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전투기지로,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화약고로 전변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는 미제가 끌어들이 수많은 핵무기가 전개되어있으며 미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해나섬으로써 조선은 의연히 핵전쟁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있다.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모험책동을 제때에 저지과탄시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을수 없을것이며 그것은 조선의 태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아세아전역에 퍼질것이며 섭사리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리라하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므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내는가 못내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조선은 피압박민족과 제국주의사이의 모순이 첨예되고 혁명과 반혁명,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있는 대결점으로 되고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침략의 대상으로 되어온 아세아는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는 세계인민들의 치열한 투쟁전선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조선문제는 그 첨단에 놓여있다.

조선문제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세계인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되어야만 국제진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근원을 없애고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

조선문제가 세계관심의 초점으로 되어야 하는 중요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문제를 옹제 해결해나가는것은 모든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역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성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다. 세기적인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멍에를 벗어던진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침략과 예측, 착취와 압박에 기초한 낡은 제도, 낡은 질서를 짓부셔버리고 민족적평등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의 시대적주제는 모든 인민들이 자주성을 건결히 수호하며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인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싸워나가는

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앞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고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저들의 식민주의적지배를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몰락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전선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수법을 조선에서 그대로 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영구히 분열시키고 남조선을 계속 들어침으로써 그곳을 지탱점으로 하여 아세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고 이 지역에서 급속히 무너져가는 식민주의적지배를 수습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조선문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선문제를 옹제 해결하여야만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지탱점을 빼앗고 놈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안길수 있다.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과탄시키는것은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의 승리와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그것은 곧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전반적멸망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지향과 세계인민들의 의사에 맞게 조선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때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엄중한 장애는 제거될것이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힘있게 촉진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편에 기초하시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여론을 더욱 활발히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선문제가 아사아문제에서나 세계문제에서나 초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이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고리이며 그와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

언제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충실한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이 분렬된 첫날부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모든 조국통일방안은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민족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피괴도당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통일방안과 제의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북과 남사이 에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자 미제는 앞에서는 지지하는척하고 뒤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흉악한 범죄적책동을 벌리고있으며 여기에 국제반동세력을 끌어들이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원하고있으며 누가 분렬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더욱더 명백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진보적인면들은 미제와 박정희피괴도당의 전쟁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건걸히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하여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의 50여개 나라들에서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등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수많은 결성되어 적극 활동하고있다.

또한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근로자들및인민과의 련대성국제집행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 등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큰 규모의 국제회의들이 련이어 진행되고있다.

특히 이번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진행한 각종 련대성행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세계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계인민들속에서 날로 커가는 조선인민에 대한 련대성운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되며 조선의 영구분렬책동을 일삼고있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세계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정당성을 더 잘 리해하고 지지성원을 강화해나갈 때 조선문제해결에는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조선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며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또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인 책동을 온 세계에 철저히 폭로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0년이상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과쑤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서 신음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에 의하여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출판기관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 민족적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매국배족적책동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각종 신행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피뢰군을 대폭증강하고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악한 전쟁목적에 동원리용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일본《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이려는 범죄적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대세의 압력에 못이겨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자기의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무슨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구실밑에 박정희피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제없이 증강하면서 놈들을 부추겨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게 하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이른바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 결과는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민족분열영구화 책동을 저지과탄시키지 않고

서는 우리 나라의 평화와 안전, 민족문제의 평화적해결이란 결코 바랄수 없다.

평화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은 미국의 현행정부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철수에 관한 선거 《공약》을 어떻게 전개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매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의 극악한 군사과쑤통치를 끝장내도록 하는데 더욱더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새 전쟁도발 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여론을 더욱 높일 때 우리인민의 정의의 위업에는 더욱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고 조국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된것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나가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신흥세력나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의 강력한 연대성속에서 안남의 분렬주의자들의 침략과 민족분렬 책동을 저지과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9호 (무게 425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동참인쇄공장

인쇄 · 1977년 9월 1일

발행 · 1977년 9월 5일

7-7522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8102

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文 流 廣 告
HAP [unintelligible]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FEB 22 1978
UNIVERSITY OF CALIFORNIA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77

근로자

제10호 (42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김 일 성(2)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30)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38)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적력량이다(49)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제형순(55)

경제수역설정은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고성순(60)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제

김 일 성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남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적라후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교육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게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것년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체도가 수립되었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세세대들이 국가의

해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공으로 참가하고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당우에 사회주의적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1.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공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은 사상잔재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아낼수 없다. 혁명화, 로동제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제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제급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를 갖추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써먹을수 있다. 로동제급의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제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제급화하기 위한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 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시키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진장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진장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쳐준다. 사회주의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교육사업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당의 지도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규율을 세워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교육분야에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적선을 세워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운다는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만일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은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벅사회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문제들을 로동계급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과 퇴폐적인 생활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특히 부르조아교육리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인하고 교육의 무사상성과 《자유화》를 설교하는 수정주의교육리론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고수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사업이다. 모든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다 들어맞는 교육 리론이나 경험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선혁명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용케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도리어 나쁜 후과를 끼칠수 있다. 다른 나라의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것을 더 잘 알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허용되면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이론과 사상조류가 들어올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이론발전의 추동력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 사람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세익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이론을 위한 이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이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이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

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여 다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는 원칙에서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모두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사람들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 인텔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할수 있도록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제를 세우고 후대교육사업과 성인교육사업,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어있고 교육기관을 국가가 지도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책임적인 보장에 의해서만 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며 교육시설을 꾸리고 교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짓는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품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부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전철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품모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앞날의 위대한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전철히 싸울수 없으

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원썹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전격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적준법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낮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적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교양은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유치원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싹틔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2)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일반지식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지식이다. 학교에서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체제를 통하여 실시된다.

일반지식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일반기초지식을 가르치는것이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화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생산과 결부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고 일반기초지식을 주는데만 치우침으로써 학생들을 생산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도 안되며 일반기초지식교육을 소홀히 하고 기술교육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중등일반교육을 직업교육화하여도 안된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반드시 일반기초지식을 충분히 주면서 거기에 기초기술교육을 옹계 배합하여야 한다.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들에서 예능과목들의 교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수 있는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미학적정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은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준 기초우에서 고등교육단계에서 주어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와 이론,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최신성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옹계 해명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에서는 현대적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현대 생산과 기술의 공학적원리를 깊이있게 가르치며 일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전에 능숙하게 세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 육 교 육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이다.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용감성과 대담성, 강毅한 투지와 인내성을 키우며 체육기교와 문화적소양을 높인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체육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민족적체질의 특성, 청소년학생들의 성별, 나이, 인체생리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골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며 국방체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과외체육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하고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교육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킨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추동하여 그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한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모든 과목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며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에서 중요한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문답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사고를 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은 강압적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합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함과 부족점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복은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고 참을성있게 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긍정적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부정울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청소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본따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긍정적모범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널리 일반화될수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참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구감이다. 학교들에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모범은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잇닿아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재때에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부정적측면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어야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옹계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노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문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하여서는 편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편습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옹계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적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생산노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품모를 개조한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교양을 받고 혁명적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수 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산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보호자이며 그들의 친근한 교양자이다. 학교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들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준비정도, 심리적특성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분공실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전선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할 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학생들로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를 무어 대중속에서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문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팀,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전설지원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다. 대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영향을 주는 모든곳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후대교육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옹계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교육을 잘하여 학교교육을 안받침하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시사강연, 과학토론회, 발표포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꾼들이 학생교육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꾼들은 학생교육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교육적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형들은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마디한마디의 말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듣는 모든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일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화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옹계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련속적과정이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첫공정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것만큼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이 중요하다.

학교전 교육의 중심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

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능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빨리 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 결정적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세대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청소년들을 중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며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성인교육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교육하지 않으면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현실발전을 따라갈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성인교육은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성인교육의 대상에는 지난날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교육체계를 통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 정규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계를 내오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체계에 당라되어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들을 여러가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토요학습, 수요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매일 2시간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역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파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었다.

우리는 해방후 반재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모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였다. 민주주의교육제도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점차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었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1) 전반적의무교육제도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있다. 교육체제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 무료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시책들은 모두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제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 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새세대들에게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제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새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제에 망라되어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당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내오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운영하여 학령기의 세대대물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지난 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누구나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기술수준과 정치리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화하고있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제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완성된다.

당면하게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점차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옹계 배치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전반적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며 각 도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의 과학부문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매 시기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부문별로 대학들과 대학의 학부, 학과들을 옹계 편성하고 학생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자연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문학계통에 비한 자연과학기술계통의 비중을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2)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른바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고 전문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학교교육뿐만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로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3)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제에 망라되어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들뿐만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내왔으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

이 발전시켜왔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제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있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어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만으로는 전민교육을 실현할수 없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전체 인민을 끊임없이 교육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뿐아니라 교육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들 많이 키워낼수 있게 하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들은 혁명적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실천활동은 서로 떼어낼수 없는 통일적과정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통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으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들은 거의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과 생산기업소들에 병설되어있으므로 교육일군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을 손쉽게 해결할수 있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본직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근로자고등중학교체제는 필요없게 될것이며 앞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에서는 고등교육체제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제가 기본형태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대학을 더 늘이고 그 교수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역들에는 농장대학들을 내오고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는 해방후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많은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내오고 전제고아들을 받아서 키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로대가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의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운동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꾸려졌으며 그 운영사업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하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

우리 나라의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양육에서 공산주의적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이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근본형식이다.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적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것도 공산주의적원칙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노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어린이들을 더 잘 보육교양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주 및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식료품, 놀이감, 교구비품, 의약품, 양육설비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사명과 임무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간부를 키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민족간부가 없이는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학교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것이다.

교육학적과정에서 첫공정은 교육강령을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행정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과 과학기술습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강령을 잘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을 잘 만드는것이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집체토론을 거쳐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

드시 방식상학이나 시범상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는 교수의 정치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수를 당정책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교수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방법을 개선하며 강의, 학파토론, 실험실습, 학파토론작성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다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소화정도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그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한다는것은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맞물려진 교육학적과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학교안에 과학적인 교육행정지도체제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학적과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교육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행정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안에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학교에 맡겨진 법적과제이며 첫째가는 교육규률이다. 학교들에서는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과정안, 교수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 정치조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육교양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수사업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과외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뿐만아니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도 옹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는것은 사상교양기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옹계 수행하며 학생들을 지식있고 문명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사상혁명의 기관답게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모든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또한 학교를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려야 한다.

학교를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교실과 연구실, 실험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군중적인 관리체제를 세우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학교를 알뜰하게 거두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결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기본방도는 그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교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중요한 실천활동은 교수교양사업이다. 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사회정치활동과 과학기술 보급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교원들은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려면 정치사상적으로 전실할뿐아니라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공과학분야에 정통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또한 기초과학지식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하며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교육 리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대학교원들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학위학위를 가져야 하며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은 다 자격교원이 되어야 한다.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학습을 생활화하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방식상하, 시범상하,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검열평정하는 국가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사로청조직생활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지도하는 과외교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의 사회적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하며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범교육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직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제를 세우고 현직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심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교들에서의 교육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기본거점은 학교이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당의 교육정책은 교육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집행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교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은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교원대렬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조직들은 교원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학습을 잘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하며 대학기간에 민족간부의 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 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잘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돌리며 학교 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대학생모집사업을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에서 옳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로동생활과 군대생활에서 단련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으며 학습성적이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에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당원들이 집결되어있으며 학부와 강좌 그리고 학생들속에 당조직들이 있다. 대학에서는 교육장령을 만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자립적으로 조직진행한다. 그러므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 사업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고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안의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교직원,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4)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의 물질적수요는 매우 방대하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를 제동적으로 늘이며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늘어나는 학생수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사전설을 앞세우며 학교물에 실험실과 실습기지를 잘 꾸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와 학용품, 여러가지 교구비품을 충분히 보장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교육기자재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교양시설들을 잘 꾸려야 한다.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사회교양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야 하며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단체가 되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토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출판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 출판하는 도서들과 새로 생산하는 기계설비들 가운데서 교육사업에 필요한것이 라면 학교들에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

*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교육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번영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후대교육사업을 잘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움으로써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간부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온 나라에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은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우리는 당의 교육정책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데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여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우리 당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강령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는 주체의 교육강령을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높이 우리러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교육문제해결의 방향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대전서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소를 점령하며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실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 경험과 업적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로작으로 빛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독창적인 사상과 막대한 리론, 혁명적인 방침

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테제는 그 전체계와 내용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판공되어있는 주체의 교육사상과 주체의 교육리론, 주체의 교육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의 위치와 사명,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를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교육사업을 잘하여 후대들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워내야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자기 제도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옳게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학의 원리를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하며 그러자면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반동사상과 퇴폐적인 문화의 침습을 막아낼수 있으며 내부로부터도 봉건사상과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수 없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이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4페이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

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공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그리고 전전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테제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의 련관관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할수 있다는것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인 교육원리로서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전면적인 교육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사회주의사회의 요구,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나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이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

하여서는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고 주체를 세우며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 네가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밝히시면서 당성, 로동계급성은 교육의 제일 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을 규정하시였으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교육과 실천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 교육이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으로부터 국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조직진행하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원칙들은 사회주의 교육이 언제나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고 범백교육과 완전히 계선을 갈라놓게 하는 역사적선언이며 사대와 교조를 반대하고 교육사업을 혁명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이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교육사업에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그를 구현하는에서 나서는 혁명적원칙들을 역사상 처음

으로 심오히 밝히심으로써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전반적교육문제해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수 있는 과학리론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을 정연한 체계로 폭넓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구성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15페이지)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과와 질을 특징짓는다. 교육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여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는것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은 또한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사람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무

장하고 건전한 체력을 가져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며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만을 강조하고 문화기술교육, 체육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문화기술교육, 체육교육만을 내세우고 사상교양을 무시한다면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교육은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자기의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대한 정식화는 교육을 자본의 도구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부르조아 교육학과 교육을 일시적인 생산기술적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목적에 복종시키고있는 기회주의리론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사람들을 참말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24페이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을 교수의 기본방법으

로 규정하시였으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고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는것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방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시키며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방법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교육방법이며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혁명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그들을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는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방법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방법이다.

테제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방법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력사적으로 굳어진 기성교육방법의 완고하고 낡은 틀을 마스고 교육학적과정이 완전히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것으로 전환되어 교육방법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완성하기 위한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우와 같은 책, 38페이지)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혁명인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며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라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려면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면적고등의무교육제도, 이것은 인류문화사에서 전례를 모르는 새로운 높은 수준의 완성된 사회주의의무교육제도이다.

전면적고등의무교육제도에 관한 사상이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높은 사상리론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체득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생스러운 위업이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것으로 되게 되였다.

테제에서 밝혀진 전면적고등의무교육제도야말로 제한된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국가가 맡아서 무료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최대의 폭과 최상의 높이를 가진 가장 발전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이며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교육제도라는것을 밝히시였다.

테제에서 밝혀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全民교육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혁명적세계

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어린이양육에서 공산주의적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혀신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한 해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교육제도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으로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이다.》(우와 같은 책, 48~4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교육행정사업을 훌륭게 조직진행하는것을 비롯하여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과업과 교원들이 교수사업을 잘하고 학생들의 과외생활지도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고 거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

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데제에서 교육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을 밝혀주시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가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더 잘 이바지하고 교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과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교육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全民교육의 숭고한 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배움에 대한 인민의 새기적원원을 실질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참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데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위대한 길을 밝혀준 주체의 교육대강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사회주의교육헌장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교육사업을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된 교과서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데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주체의 교육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우와 같은 책, 2페이지)

정예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사회발전과 인간개조에서 교육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어떤 기존 이론이나 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시었으며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카툰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 오가자의 삼성소학교 그리고 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교를 세우시고 독창적인 교육사상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시므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교육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반계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변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시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때 따라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시었으며 점차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배움의 길을 잃었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태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오시고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시므로써 학령기의 세대들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워주시었을뿐만아니라 모든 세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인재로 키우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시하시고 당이 교육사업에서 시종일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침을 제시하시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이 참말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혁명적인 교육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교육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지난날의 식민

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 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타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오늘은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찬란히 빛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문명은 활짝 꽃피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사업과 노동제급의 전반적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신것은 공산주의적 교육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를 가장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교육이 시작된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지만 사회주의교육이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사업은 오래동안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낡은 전통과 관습이 많이 남아있고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틀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주권을 전 노동제급과 당 앞에는 사회주의교육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잔재를 극복하고 참다운 공산주의적교육의 길을 개척하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교육의 길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테제

가 나오음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정연한 지도리론이 확립되었으며 사회주의교육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울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혁명사상과 리론적재부를 풍부히 하는데서도 새로운 역사적기여로 된다.

주권을 잡은 노동제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때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교육테제는 혁명의 후계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 사업과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이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노동제급의 당과 국가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뿐 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완성된 공산주의적 교육강령을 가지게 됨으로써 후대교육

과 민족간부양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태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다그쳐지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빨리 극복되어나갈 것이며 우리 나라는 빠른 기간 안에 과학과 기술, 공업과 농업 발전에서 세계의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회파괴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킬 것이며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와 신심을 안겨줄 것이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교육대강과 날로 급속히 개화발전하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교육현실에서 자기들의 래일을 내다보면서 미제와 박정회파괴도당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배움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게 될 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인간교육,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교육대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적위훈으로 부르는 투쟁과 승리의 기치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완벽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가지게 된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자랑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공산주의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가지게 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테제를 깊이 학습하여 그속에 담겨져있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완전히 체득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테제에서 제시된 제반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고 부르조아반동 교육리론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냄으로써 주체의 교육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우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임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전철히 옹호하고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다그쳐나간다.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

수천수만년을 헤아리는 인류력사에서
오늘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
향이 강렬하고 민족적 자주권과 번영을
위한 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진 때
는 일찌기 없었다.

새로운 격동적인 시대적환경은 혁명
투쟁의 진리를 뚜렷이 밝히며 제국해방,
민족해방에 관한 이론을 더욱 심화발전
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 력사밖에서 예속과 굴욕만
을 강요당하여온 인민들이 자기의 민족문
제를 해결하며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는
데서 올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
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
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
다. 망망한 바다에서 라침판이 있어
야 사나운 풍랑속에서도 항로를 곧바로
잡을수 있는것처럼 사회혁명의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념이 있어야 민족문
제해결에서 옳은 립장과 태도, 과학적
인 전략로선과 전술적방침을 가지고
편향없이 승리의 길로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
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
들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불멸
의 시대적사조로서 혁명실천이 제기하
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석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과 착취, 사회
적불평등을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자주
성,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할데
대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민족적예속과 사회직질폭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
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그들
을 필승의 신념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
고있다.

한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리론적

내용을 담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민
족적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이
미 그 정당성이 검증되었으며 날과 더
불어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민족은 자주적이다

사람들을 제국적예속과 함께 민족적예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은 우리 시대가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력사적과제이다.

인류력사에서 수천년동안 지배하여온
억압과 예속을 끝장내고 이미 많은 나
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나 지
구상에는 아직도 수억만 인민들이 제국
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억압과 착탈에 시
달리고있거나 그 위협속에 놓여있다.

피착취인민, 피압박민족들의 운명과
세계혁명의 전도는 민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민족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오
늘도 의연히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나서고있다.

민족문제는 력사발전의 매 시기 복잡
한 로정을 거치였으며 광명한 출로를
찾아 모대기였다.

제국주의단계에 이르러 민족운동은
식민지문제와 밀접히 결부되게 되었다.
제국주의는 인류에게 식민지노예라는
새로운 멍에를 들씌웠다. 제국주의와 피
압박인민들사이의 민족적모순은 격화되
고 식민지리권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과 독점들 호상간의 리
해는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었다. 그리
하여 이 모든 모순들을 내포한 민족문
제는 한줌도 못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식민지적억압을 쓸어버리기 위한 민족

해방의 문제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아직 제국주의식민지체제를 청산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다만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후비군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그 지위와 역할은 비할바없이 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력사의 흐름은 자주성의 시대로 특징지어지고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은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시대입니다.》(《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페이지)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은 지난 시기의 민족운동과 같이 국제프로테타리아혁명운동의 단순한 후비군도 아니며 소부르쵸아운동이나 농민운동도 아니다.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는 력사상 일찌기 볼수 없었던 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피압박인민들은 수세기동안 억압하고 착탈하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쇄사술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독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은 식민지인민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민족해방의 길을 개척할수 없다던 기성리론의 태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를 밝혀줄 사상과 리론을 요구하였다.

이 새로운 력사적과제는 사회혁명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과 민족적지향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바로 주체사상, 자주사상에 의하여 민족문제의 혁명적본질과 그 종국적해결을 위한 전로정이 뚜렷이 밝혀지고 민족해방위업의 자주적발전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이 열려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자주성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민족은 자주적이며 매개 민족에게는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할 권리가 있고 힘이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민족문제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이룩하는 문제라는것을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주었다.

민족문제는 제국주의예속밑에서 억압받던 민족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유로운 민족으로 되기 위한 문제이다. 오늘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해 싸우는것도 구경은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에 의하여 산생된 모든 민족문제는 본질상 민족적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적자주권을 떠나서 민족문제의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자주성에 관한 심오한 사상을 밝혀줌으로써 매개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으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길을 밝혀준다.

강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5페이지)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기초로 하여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이며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생명으로 된다. 자주성을 잃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참다운 가치를 가질수 없는것처럼 민족도 역시 자주성이 없이는 자기의 영예와 존엄과 권리를 지킬수 없다.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자면 마땅히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민족에는 우월한 민족이 따로 있고 멸등한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있다.

민족의 자주권, 민족자결의 권리는 자주성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신성한 권리이다. 장구한 기간 언어와 명토, 경제문화생활과 풍습, 심리상 공통성을 이루며 하나의 집단으로 역사적으로 형성공고화된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권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생명을 보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민족이 자주권,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생명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들어쥐고 행사하여야만 자유와 독립,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투쟁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정확한 이해를 줌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인민대중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민족의 자주권확립문제와 인민대중의 사회제급적해방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 같이 끌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민족의 압도적다수들 차지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을 떠나서 민족도 국가도 있을수 없다.

인류사회가 민족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민족을 단위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은 조국과 민족이라는 뉴대속에서만 존재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난 추상화된 혁명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민족의 리익, 민족적번영을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리익은 근로대중의 계급적리익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곧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민족이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민족과 인민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갈 때만이 참다운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보편적진리이다.

민족이 사대주의에 빠져 남만 쳐다보게 되면 자주권도 지킬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더럽히고 망국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자기 운명을 그 누구에게도 의탁할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족은 자기의 전도를 반드시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어떤 난관이 가로놓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그 길에서 물러서서는 안되는것이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신구 두식민주의수법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고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는 조건에서 만일 그들의 감언리설과 《선심》에 속아 주체를 잃게 된다면 이미 이룩한 독립마저 상실하고 민족은 예속과 망국의 비통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지난날의 민족운동과 우리 시대 세계 혁명운동의 역사적경험은 이런 쓰라린 교훈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한때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자결》의 구호를 걸고 그것이 마치 피압박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하는 《새시대》를 열어놓는것처럼 표방해나섰다. 그러나 역사는 부르조아《민족자결론》이 식민지 약소민족들의 해방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재분할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간판이었다는것을 엄연한 현실로 보여주었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사대망상증에 의해 빚어졌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뼈저린 실패가 또한 사대주의해독과 관련되어 있다.

침략과 전쟁, 약탈과 예속을 본업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독립》이란 곧 예속을 의미한다. 《강자》가 《진리》를 강요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의지》에 굴종해야 한다는것이 제국주의강도의 《철학》이다.

역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족의 운명은 민족자신이 주체가 되어 개척해야지 그 누구도 대신하여줄수 없다.

사대주의는 민족허무주의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민족허무주의는 사대주의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동반자이며 노예적굴종과 비굴성의 온상이다.

자기 인민, 자기 민족의 모든 우수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것을 불줄 모르는 민족허무주의의 망령이 활개치는곳에는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주의식이 있을수 없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빛내이려는 투지와 신심이 나올수 없다.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주의식은 혁명하는 민족으로서의 긍지감이며 혁명의 민족적임무를 자신의 힘으로 완수하려는 높은 책임성과 투지이다.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주의식을 가져야 혁명을 잘하고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 자주사상을 구현하는 길만이 민족의 자주권과 번영을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자기 힘으로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의 길은 간고하고 복잡하다.

오랜 세기에 걸쳐 강요된 자본과 봉건의 압제를 깃부시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한다는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성취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 세계에는 이미 수많은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에 의연히 식민주의형틀에 얽매여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과 수탈에 시달리고있는 민족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앞에 나선 과업자체도 매우 다양하다.

모든 사회혁명이 그러한것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민족해방투쟁이 자기의 길을 옳게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리론과 함께 반드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에 의거해야 한다. 정확한 전략전술이 있어야 투쟁의 기본방향과 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정할수 있고 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지켜야 할 근본법상과 태도, 전략전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이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어디까지나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 민족해방과 사회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민족해방투쟁의 전행정에서 아무런 편향없이 옳바른 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기초이다.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

전술을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것은 모든 민족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자주적립장이다.

원래 민족해방투쟁은 그 본질과 사명의 견지에서 보나 그 발생발전의 합법최성의 견지에서 보나 어떤 외부적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압박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힘과 투쟁으로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에게 있다. 남의 힘에 의존해가지고서는 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독립도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남의 덕에 잘살아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불사조의 힘으로 싸워나감으로써만 민족해방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으로부터 민족해방투쟁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족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요구가 나서게 된다.

혁명력량편성문제는 혁명전략에서 기본을 이룬다.

민족적 해방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기본담보는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야 반혁명세력에 대한 그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민족해방투쟁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없고 투쟁에서 주동을 틀어쥘수 없다.

민족해방투쟁에서는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이 다 민족주체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피압박인민들은 혁명의 주력부대를 강화하고 제국

주의와 봉전을 반대하는 온 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에 굳게 묶어 세워야 한다. 소박한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면 몇배, 몇십배 강한 힘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맞설수 있으며 참다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민족해방투쟁의 투쟁전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투쟁의 과녁을 옳게 정하는것은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전술에서 기본문제로 나선다.

피압박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독립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따라서 민족해방투쟁의 과녁은 응당 제국주의의 연속과 억압을 끝장내는데 두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연속을 강요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유린하며 희생시키는것을 자기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과 약탈이 없는 제국주의는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는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침략과 약탈로 살해왔으며 그들이 지구상의 대다수 나라 인민들에게 베푼 《자비심》이란 식민지노예의 운명뿐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는 안팎으로 강한 타격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있으나 아직도 의연히 악랄한 침략세력으로 남아있다. 오늘 지구상에는 제국주의침략의 촉수가 뻗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침략의 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피압박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

물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함께 그와 결탁하여 민족적독립을 말살하려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족의 이 모든 원썬물가운데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가장 흉악한 원썬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이로부터 민족해방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주타격방향을 돌리며 그와 함께 국내반동세력을 철저히 짓부시는것이 중요한 전략적요구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피압박민족들이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혁명과 건설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정치적독립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길에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정치적독립이 달성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투쟁도 없이 민족적번영과 사회적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이후에도 제국주의식민주의제도는 단번에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의연히 침략과 간섭을 일삼고있으며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현시기 제국주의는 결으로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피외몰을 내세워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식민지제도를 《독립국》의 의상으로 걸치며하려는 교활한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우경화하고 반혁명의 길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위협공갈과 매수, 회유기만과 과피전복활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은 쟁탈전을 벌리면서 신흥세력나라들을 서로 껴당겨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넣으려 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민족이 자주적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문제로 된다. 제국주의의 압력에 못이겨 주저앉게 된다면 그러한 민족은 정치적독립을 굳건히 유지해나갈수 없다.

모든 민족은 마땅히 자주적인정권을 가져야 하며 자기의 결심에 따라 자기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선과 정책을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와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명실공히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사회적진보의 길로 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온갖예속적인 조약과 협정, 군사동맹을 깨뜨려버리고 완전한 자주성과 평등의 기초우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오늘 역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경험은 비록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자주성을 옹호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전격히 투쟁한다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계속 자주, 자립의 길로 확고히 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에서 자립은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4페이지)

경제에서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은 사람물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원칙이며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추종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남에게 얽매인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민족이라야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일뿐아니라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번영의 기본담보이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령역에

세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고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면 민족적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고있는 경제적착취후성의 근원을 영원히 없애버릴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식의 《원조》를 던져 그들을 현혹시키려 하고있으며 그 지역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착탈을 강화하고있다.

만일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선심》에 도취되거나 그들의 《원조》에 유혹된다면 나라의 경제를 어느때 가서도 자립적로대우에 올려세울수 없으며 전진하게 발전시킬수 없다.

모든 민족국가인민들이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감으로써만 정치적독립을 명목상의 독립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행복과 번영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참다운 독립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지난날에 겪은 쓰라린 재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수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나아갈 길은 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다. 자본주의는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이다. 사회주의만이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 민족자주사상이야말로 과학적인 토선과 전략전술로 민족해방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기치이다.

자주사상의 빛나는 결실

사회의 선진사상은 인민대중의 심장에 과약되자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사상은 반제자주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빛나게 승리

하고있다.

주체사상, 자주사상은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과급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1페이지)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착탈로 문명과 암흑만이 뒤덮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피압박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이 대륙들의 면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나섰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난 20여년동안에 약 70개 나라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의 길에 들어섰다. 제2차대전이전까지만 하여도 2개의 독립국가밖에 없었던 아프리카대륙에 오늘날은 근 50개의 독립국가기발이 휘날리고 있다.

실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의 불길은 아세아지역으로부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로 거세차게 번져갔다.

그리하여 지난날 자본주의문명을 위한 거름으로만 되었고 제국주의자들의 치부의 원천으로, 생명선으로 되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오늘날은 제국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자주, 자립의 새생산을 창조하는 혁명의 대륙으로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다음때로 세계인민들

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운명을 통괄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역사무대에서의 주역은 바뀌어졌으며 이제 발언권이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민족해방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행정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신흥세력나라들, 신흥불가담나라들이 역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발전의 근본적전환을 특징짓는 세계사적사변으로 된다.

넓은 아세아대륙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제는 월남땅에서 드디어 쫓겨났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서도 수척스러운 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지금 캄보쟈와 라오스 인민들은 제국주의압박자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중근동에서는 미제의 사측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으며 민족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미제와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고 이 대륙의 완전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다. 많은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가운데 저주로운 식민주의, 인종주의는 마지막죽음의 고비에 다달고있다.

미제의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되어 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약탈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 나라의 자연부원과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실로 자주의 물결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으며 이 거대한 흐름에 부딪쳐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성벽들이 무너져가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신흥세력나라, 신흥

불가담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국제관계분야와 국제무대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있다.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국제무대에 진출한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제관계와 국제문제해결에서 지난날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독점과 약탈,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복무하여온 낡은 질서를 마사버리고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념원과 이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줄기찬 공동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위기를 더한층 격화시키고있으며 세계혁명과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더욱더 상실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휘봉은 마비되고있다. 지어 지난날 저들이 좌지우지하던 유엔에서조차 제국주의자들은 피고석에 몰리어 규탄을 받고 수세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오늘 모든 대륙과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세기적인 변혁과 사변들은 주체사상, 자주사상이 만사람들의 심장을 울어잡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민족해방투쟁의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시대적인 사조로 공인되었으며 더욱더 커다란 전인력을 가지고 널리 파급되고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종말을 선고한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은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준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를 투쟁의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비롯한 수많은 조직들과 모임들을 가지고 모두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있으며 그 사업은

국제적규모로 더욱 확대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면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길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은 불멸의 주체사상, 자주사상이야말로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민족해방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오랜 역사적기간 구미열강들의 탄압장으로 되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주, 자립의 새생활이 약동하게 된것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가 낳은 커다란 세기적변혁이다.

그러나 아직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들앞에는 할 일이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에 대처하여 뿔럭불가담나라들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분열, 와해, 정찰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앞에는 이미 이룩한 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제국주의식민주의제도와 그 후과를 털어버리고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해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 뿔럭불가담나라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하며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분별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에게는 해로운 뿐이다.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 할것없이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한다면 그 어떤 침략세력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끝없는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의 기초는 자주성이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만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전략》과 《인권외교》의 화려한 간판밑에 량면술책을 쓰면서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별리간시켜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게 하여 놓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교활한 리간, 분별 책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3대륙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반제투쟁과 반제전선을 허물어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깨뜨려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기술경제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광활한 령토에 풍요한 자연부원이 있고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경제적인난관도 이겨낼수 있으며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매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은 민족적범위에서뿐만아니라 지역적 또는 세계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리로 된다.

그것은 호상 지지하며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지금 아세아는 치열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으며 조선문제는 세계관심의 초점을 이루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은 아직도 민족분별의 비극을 겪고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은 오직 나라의 북반부에서만 확립되고 전국적범위에서 이룩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하루말리 민족의 재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설고있는 가장 큰 민족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5페이지)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일찌기 온 민족의 갈망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광스러운 항일성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경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민족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광복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이라는 새로운 재난을 겪게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대전후 패망한 일제의 무장해제라는 구실을 내걸고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교두보로 만들 목적밑에 자주독립을 약속한 국제공약불도 헌신짝처럼 쥔버리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의 절반땅은 또다시 예측의 길에 떨어지고 민족적자주권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같은 령토에서 같은 말과 풍습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어온 우리 민족이 20세기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다. 과연 얼마나 힘들게 찾은 우리 조국인가. 혁명선열들의 피로 바꾸고 애국자들의 더운 피가 스며있는 이 땅,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이 있고 창창한 미래가 있는 우리 조국은 절대로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민족분렬의 비정

상적인 사태를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분렬의 이러한 역사적근원과 그리고 전반적조선혁명과 통일문제의 불가분의 련관성은 바로 조국통일위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이 장기간 벌려온 민족해방투쟁의 련속적과정으로 되며 그를 완성하는에서 나서는 최대의 당면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의 길우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도 오직 자주성을 근본사상으로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을 때만이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문제는 오직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때에 사무치게 체험한 교훈이며 오늘 남조선현실이 또한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굽신거리면서 《한일합병》을 자청해나선 《울사오적》의 무리들이나 《진정서》, 《청원서》 따위를 들고 북미주와 구라파로 동분서주하던 사대주의자들, 지어 일제의 품속에 기여들어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매국노들과 시정배들의 책동에 의하여 근 반세기나 되는 오랜 기간 망국의 치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는것도 외래제국주의침략과 함께 남조선의 턱대피뢰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매국배족행위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털끝만치도 안중에 없고 외세에 의존하여 개인의 부귀와 권세만을 추구하는 친미친일매국노이며 파쇼교형리인 박정희피뢰도당은 조국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등지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해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민족의 자주권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떠맡기고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팔아먹는데서 남조선의 모든 턱대피뢰물을 무색케 하고있다. 사실상 남조선의 피뢰정권이란 제국주의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이며 《외세가 빚어놓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되는 외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전략의 요구로부터 남조선을 한사코 들어쥐려고 《두개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한세기도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선침략정책을 추구해온 미제가 오늘 들고나오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조선의 현 군사분계선을 영원한 국경선으로 전환시키고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마지막 지렛점으로 끝까지 틀어쥐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기약없이 뒤로 미루자는것이다.

이러한 흉악한 침략야망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지정학》의 견지에서 미국은 《대평양국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니 남조선을 《방위지역》으로 하는것은 저들의 《국가적리익》으로부터 필요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한때 전세계를 《미국의 방어선》으로 선포하고 세계도처에서 반혁명을 부추시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교살할것을 공공연히 주장해나서던 자기의 본색을 조금도 달리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저들의 침략군의 실질적인 철수는 어떻게 하나 회피하고 《단계적철수》니 《부분적철수》니 하면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

들을 기만하며 우롱하고있다. 그리하여 《철수》란 간판밑에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남조선피뢰도당에게 더 많은 팔라와 무기를 쥐여주고있다. 1978회계년도 미국의 《대외원조법안》은 남조선피뢰도당에게 2억 8천만팔라의 군사원조와 2억 7천만팔라의 전쟁예비물자용 자금을 던져주는 외에 1억팔라분의 무기를 팔아줄것을 예결하고있다. 이것은 미군《철수론》이 대두하기 이전인 1976년에 비해 3.2배나 증가한것으로 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의 《철수》계획이란 결국 침략무력의 배비 변경계획이며 증강계획이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하는 모든 처사는 침략자, 분열주의자의 진면모를 더욱더 드러내놓고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생리이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죽는 그날까지 달라질 수도 없다.

미제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환상도 있을수 없다. 만일 민족내부문제에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는것으로 된다.

남북조선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전결히 싸워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전면적으로 시급히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력사의 흐름은 세계도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적추세속에서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신흥세력나라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민족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적력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서른두해가 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과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을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우리 당은 자기의 세련된 령도로 거창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왔으며 심각한 실낱투쟁의 불길속에서 필승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가진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장성장화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세련된 령도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혁명의 참모부로, 인민의 강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신의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 신념과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

*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정치적참모부이며 인민의 참다운 향도적력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가진 가장 세련된 혁명의 전위부대로 장성장화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적, 선봉적 부대이며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향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 역사적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이며 로동계급의 전위적조직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적조직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지도적, 향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목적지향성 있게 해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그런데 당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당이 프로레타리아독제의 정치적참모부이라면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고귀한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의하여 우리 당의 뿌리가 마련되었고 우리 당의 창건도 수령님께 의하여 실현되었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전투력과 가장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의 전위적이며 선봉적인 조직으로, 인민들을 승리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당이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적인 당건설로선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의 사상체제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제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었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제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당의 조직사상리론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 인민의 항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은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되었으며 조선혁명의 참모부,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체제와 령도방법을 확립하여주시였다.

당의 령도체제와 령도방법을 바로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 혁명과 건설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각급 당위원회들이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통제하는 당적령도체제를 세워주심으로써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당의 통일적지도가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전일적인 령도체제가 전면적으로 튼튼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적 령도체제와 령도방법을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곧 정치적지도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고 각급 당위원회들의 지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안의 사업체제를 창조하시고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령도체제를 내오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당의 조직자적 및 항도자적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훌륭히 실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 잘 관철할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어 혁명적군중로선을 기초한 사업방법,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올바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전당에 확립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어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십시오으로써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지오게 하시였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므로써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확신성있게 령도해나가는 가장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적력량으로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령도예술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 그것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주체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방법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으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령도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에서 자기의 신념과 의사에 따라 모든 로선과 정책을 내세웠으며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힘있게 관철해나갔다.

우리 당이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소한 편향이 없이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다그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신념과 의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갔기때문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할뿐아니라 탁월한 령도예술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내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하여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전략전술을 명활하게 구사하며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탁월한 령도예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광범한 대중적운동을 통하여 힘있게 풀어나가는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
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일성작전집》, 제4권, 제2판, 225페이지)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대중적
운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을 끝
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이 일관하
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
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인 인민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만 간고한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
에서 나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각오정도
에 맞게 제기하시고 전사회적, 전인민
적 운동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훌륭
히 풀어나가시였다. 이 위대한 대중운
동의 힘에 의하여 우리 당은 로동당시
대의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인 웅대한 시
설물들을 일떠세우고 자연을 길들이
는 거창한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와 농
촌을 건설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
조하는 사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이 발생발전하여온 자랑스런 력사도
바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탁월한 령도예술, 인민대중의 힘을 불
러일으켜 전인민적운동으로 혁명과 건
설을 밀고나가는 탁월한 령도방법, 령
도예술의 빛나는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
리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천리마운동
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대중
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일시적
으로 조성되였던 난국을 주동적으로 풀
고 혁명과 건설을 일대 앙양으로 이끌
어나갔으며 안팎의 원수들의 준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렸다.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천리
마의 대진군으로 달려온 우리 인민을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
수행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언제나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대중의 념원과
지향,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꿰뚫어보시
고 적중한 구호를 내놓으심으로써 혁명
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시였다.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반
영하여 대중앞에 정확한 투쟁구호를
내세우는것은 혁명에 대한 령도의 출발
점으로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
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
선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에서 혁
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올바른 투쟁구호를
제때에 내놓음으로써 혁명앞에 가로
놓인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하고 혁명
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
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 그것
은 대중에게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
과 뚜렷한 목표를 안겨주며 대중의 질
박한 념원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하
고있음으로 하여 대중의 심장을 힘있게
들여잡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
적적극성을 세차게 불러일으킨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어 폐허로
되였던 전후시기 우리 당이 모든것을 전
후복구건설에로 부른 혁명적구호는 우
리 인민에게 지칠줄 모르는 용기와 신
심을 안겨주고 무궁무진한 힘을 남기
는 원천이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
명의 구호를 제때에 내놓고 협동화의
붉은 원칙과 방도를 밝힘으로써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개
조를 완성하고 이 땅위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사
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사
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어 혁명과 건설

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던 시기에 3대 기술혁명토선을 내놓음으로써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이 일어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모착하고 그에 역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제기된 모든것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지하고계시는 령도방법,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투쟁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나 역량관계를 옳게 따져보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어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움직일수 없는 투쟁방법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2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제기된 혁명과업이 복잡할수록 제때에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 앞에 나선 전반적인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풀어나가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힘있게 이끌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와 함께 몸소 한 단위에서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 혁명적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으로써 하나의 모범이 수천수만의 모범을 낳게 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토선과 정책이 가장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관철될 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강철의 의지와 높은 혁명적원칙성과 혁명

적진개력을 지니시고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 어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난관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아가시여 힘있게 타개하시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세련된 령도력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고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끌으셨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불패의 령도력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지난날 착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오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방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전변의 력사, 그것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령도의 력사이다.

오늘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은 혁명의 전위적부대이며 향도적력량인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이지)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전위적 및 선봉적 역할을 높이며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당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실현해나가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혁명의 선봉부대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형의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국가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자립성과 창발성을 백방으로 높이며 그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는것이다. 그리하여 정권기관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 주권적지도와 법적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제건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인다운 입장을 가지고 행정경제사업이 잘되도록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관철을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분공을 조직하며 그 수행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참답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항할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한편 행정대행을 반대한다고 하여 경제사업에 대하여 낯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혁명의 전위적조직이며 인민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아득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 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자

계 형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 기계공업부문연성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최근시기의 여러 교시들에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음으로써 우리는 3대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찰하여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일

을 잘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고 모든 공업을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초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공업생산의 구조를 완비하고 기술적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반양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기계설비는 사람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 결정적수단이며 기계를 들여대야 기술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수 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웅대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의 규모와 생산잠재력이 비할바 없이 커진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자

력경쟁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는것은 곧 우리나라의 자원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친다는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경제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대전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관전적고리는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 대형공장기계와 일반공장기계, 특수공장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고 여러가지 트랙트와 자동차,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발전기계, 대형굴착기와 대형볼도저를 비롯한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사회주의대전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수송사업과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타빈과 대형발전기, 대형용광로설비와 압연설비, 대형압축기를 비롯한 화학설비 등 일식으로 된 질이 높은 대상설비들과 건설기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발전소들과 금속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들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실로 사회주의대전설과 관련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전례없이 방대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생산과 건설의 속도가 좌우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대전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어있다.

지금 우리의 기계공업은 해마다 수만대의 각종 공장기계, 수만대의 자동차와 트랙트들을 생산해내고있으며 전기기관차로부터 크고작은 여러가지 채취설비들과 대형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현대적기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있다. 또한 제련생산하는 기계들만 아니라 용광로, 해탄로, 회전로, 전기로, 압연기, 발전설비도 만들고있으며 전채공업,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수산부문 등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과 대상설비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지난날 공장기계라는 이름도 모르던 우리 인민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대형기계와 정밀기계도 척척 만들어내고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들 종합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천리마정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힘차게 전진하는 과정에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이다.

우리에게는 위력한 기계공업의 토대가 있을뿐아니라 기계공업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강재와 협동생산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므로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이악하게 투쟁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오늘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조직을 개선하고 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의 전문화와 집중화, 현대화를 널리 실현함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 있는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해야 한다. 이것은 내부예비를 동원할것을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대전설의 중요한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기계공업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시기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

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현실이 제기하는 이 근본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에서 중요한것은 프레스화와 형단조화를 널리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를 널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프레스방법을 받아들이면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고 가공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으며 많은 강재와 공작기계를 절약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이지)

프레스화를 널리 실현하는것은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원래 절삭가공에 의한 기계제품생산은 절대적으로 많은 설비, 많은 로력, 많은 생산면적을 요구한다. 또한 소재의 덧살을 깎아버리는데 가공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게 되므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없고 자재도 많이 낭비한다. 따라서 기계공업에서 로력과 자재,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적게 쓰면서 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절삭가공을 될수록 적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프레스화와 형단조화는 절삭가공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할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면 가공덧살이 거의 없는 소재를 만들수 있고 나아가서 절삭가공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형태와 치수를 가진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이공시간을 결정적으로 줄이고 같은 시간에 몇배, 몇

십배나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폐설물을 적게 내고 제품을 보다 가볍게 만들어 많은 강재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기계제품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삭가공의 부하를 덜어주고 많은 공작기계를 절약함으로써 로력과 설비, 생산면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며 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이와 함께 프레스방법과 형단조는 금속의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제품의 강도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표면을 더 곱게 하고 정밀도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프레스화와 형단조화는 기계설비를 계열생산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열생산을 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면 형태를 자주 갈아낼 필요가 없게 되며 따라서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프레스방법의 우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이번에 또다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널리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밝히시고 구체적인 대책들까지 세워주시였다.

지금 우리의 기계공장들에는 크랭크 프레스, 유압프레스, 수평단조기를 비롯한 크고작은 여러가지 프레스설비와 단조설비들이 적지 않으며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지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또한 프레스화, 단조화를 널리 실현할수 있는 기술력량도 있으며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일군들이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프레스화와 형단조화를 널리 실현하는데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보수주의와 투쟁하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프레스설비와 단조설비들을 잘 보수정비하고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프레스와 단조기, 필요한 부대시설들을 더 많이 만들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특히 계열생산을 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기계설비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전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주물, 주강, 도금 생산을 전문화, 집중화, 현대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주물생산을 여러곳에 벌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물생산을 전문화하여야 주물품의 질을 높일수 있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힘든 작업을 기계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물생산을 전문화하여야 로동자들의 기능도 높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이지)

전문화, 집중화, 현대화는 생산조직을 개선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주물, 주강, 도금 작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주물, 주강, 도금 작업을 전문화, 집중화하여 한곳에서 같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면 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적은 로력과 자재로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또한 제품을 흐름식으로, 계열식으로 생산하게 되므로 모든 생산공정을 보다 쉽게 기계화, 자동화, 현대화할수 있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빨리 없앨수 있으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더욱 높일수 있다.

주물, 주강, 도금 작업을 전문화, 집중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구단위로

그 생산기지를 잘 꾸리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지구단위로 주물, 주강, 도금 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협동생산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주물품과 주강품, 도금제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공정과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주물, 주강, 도금 생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설계를 전문화, 현대화하는것은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기계설계를 전문화하여 설계력량을 집중시켜야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훌륭한 설계를 해낼수 있으며 설계일군들의 수준을 빨리 높여 설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전문설계기관들을 내오고 설계력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그들에게 사업조건도 원만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기계생산의 컷공정인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며 현대화된 설계에 기초하여 기계설비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용접기술을 높이며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도들은 이미 마련된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더 많은 기계제품을 질적으로 만들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는 용접기술자들을 더 많이 양성

하고 용접기와 용접봉, 용접의 질을 검열하는 기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제련식으로, 질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용접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장들에서 자기 공장의 기본생산제품보다 협동생산품을 먼저 만들어주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은 오늘 기계공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하자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며 모르는 문제는 배우고 연구하여 알도록 하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아가는 굴할줄 모르는 혁명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4페이지)

자력갱생의 정신은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주동적으로 뚫고나아가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애로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기계공업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이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성과가 자기들의 토력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 기계공업을 일

떠세우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계설비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재들을 만드는 기지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특히 자체의 힘으로 프로그램자동선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능률적인 자동기계들과 자동흐름선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계공업의 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주물작업을 비롯한 소재생산으로부터 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기계설비생산의 전공정을 자동화, 현대화해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늘이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도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달려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계획화사업과 분공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하여 모두가 한결같이 기계설비를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고 공구, 지구를 비롯한 생산요소들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부리나케 해제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능공양성체제를 바로세우고 전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아래에 내려가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설계사업, 소재생산으로부터 제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임무는 실로 영예롭고도 보람차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천리마정신을 가지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나가자.

경제수역설정은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

고 성 순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전에 경제수역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8월 1일부터 실시하고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법은 민족적재부인 바다자원을 튼튼히 지키고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옹계 개발리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이다.

경제수역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바다자원을 튼튼히 지키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자기 나라의 령토와 함께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지키는것은 모든 연안국가들의 민족적권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한데 불과한것이며 객관적조건으로부터 부득이하야 취한 조치입니다.》(《일본방송협회 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3페이지)

령토와 함께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신성한 권리이며 모든 민족국가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경제수역의 자원은 전적으로 연안국가들에 속하며 그 나라인민만이 처리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민족이 자기의 자연부원에 대한 자주권을 가지고있어야 자주적으로 자기 민족의 리익을 개척하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자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애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모

든 민족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만일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전횡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자기 나라의 리익에 맞게 귀중한 자연부원을 지켜낼수 없을뿐 아니라 그것을 개발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기의 자연부원을 남에게 내맡기는 그러한 나라는 결국 남에게 예속되며 주권국가로서의 응당한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직 령토와 바다자원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민족국가라야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튼튼히 지켜낼수 있다.

때문에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는것은 모든 연안국가들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바다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령토와 령공,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주권을 실현하는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발전 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가 경제수역을 설정한것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적추세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은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3페이지)

오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는것은 이미 정치

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이며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이 투쟁은 바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에 기초하여 사회경제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든든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구 총면적의 71%를 차지하며 육지면적의 약 2.5배나 되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리용 및 개발에 관한 문제는 오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에는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있을뿐아니라 그 종류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바다물에는 마그네슘, 류황, 칼슘, 질소, 철, 망간, 동, 아연, 은, 니켈, 금 등 많은 원소들이 있으며 바다밑에는 원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원이 무진장하다.

바다에는 또한 물고기와 해초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물자원이 풍부하며 동력자원도 풍부하다.

이 풍부한 해양자원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약탈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영토자원뿐아니라 해양자원을 제멋대로 약탈하면서 살찌웠으며 오늘도 의연히 교활한 신식민주의수법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의 해양자원을 약탈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약탈행위는 우리 시대에 와서 더는 용납될수 없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지난날 압박받고 착취받던 인민들이 역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지배해나가고 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며 자주적발전을 지향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발전추세는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양질서를 세움에 있어서도 마땅히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양연안국가들의 바다자원에 대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자주권을 행사할것을 요구한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해양질서만이 지난날과 같이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바다자원을 제멋대로 침해하는 현상을 없애고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적독립국가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바다자원을 자기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위업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처리해나갈수 있게 한다.

오늘 200마일 영해권을 주장하고있는 모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약탈을 허용하는 낡은 해양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해양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오래전부터 국제해양법분야에서는 바다에서 연안국의 관할권문제를 둘러싸고 신흥세력나라들과 제국주의령강들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왔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1차 및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공해의 자유》라는 간판밑에 온갖 악랄한 방해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영해의 너비와 어로수역범위에 관한 문제토의에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나라의 해양자원에 대한 신흥세력인민들의 투쟁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단계회의가 진행된 이후부터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발전도상에 있는 연안국들은 200마일수역안에 있는 모든 자연부원에 대한 연안국의 자주권과 기타 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존 및 관리, 인공섬과 인공시설물의 설치, 이 수역안에서의 에너기의 생산 등 연안국의 전속적권리, 전속관할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전속경제수역을 요구하여나섰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이 요구는 자기 나라 바다에 대한 자주권의 응당한

행사이며 자주적발전을 지향해나서는 우리 시대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수역이 연안국의 전속수역으로 될수 없다는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제놈들의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려고 여러모로 음흉하게 책동하여왔다.

미제가 국제항행에 리용되는 해협들에서 제놈들의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행을 신흥세력나라들에 강요한 사실, 일본반동들이 경제수역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를 반대한 사실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낳은 해양질서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으나 200마일까지의 수역을 해당 연안국의 관할권으로 하려는 신흥세력인민들의 요구는 막을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되었다. 신흥세력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200마일경제수역은 오늘에 와서 새로운 국제해양법의 확고한 개념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몇해전부터 신흥세력나라들이 벌려온 200마일령해권수호를 위한 투쟁은 지금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었으며 이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수십개로부터 100여개로 늘어났다. 이미 세계의 근 50개 나라가 200마일령해, 경제수역 또는 어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해양자원을 계속 약탈하며 《해상독점정책》을 강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오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지난날 새로운 해양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아나서며 온갖 악랄한 방해책동을 다하여온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200마일경제수역실정이 막을수 없는 확고한 국제적추세로 된 오늘 하는수없이 국제적결정이 채택되기도전에 제놈들이

먼저 200마일 어업 및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였다.

특히 우리의 주변나라들도 련이어 200마일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객관적조건으로부터 자주적인 원칙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마일경제수역설정에는 해양연안국으로서 나라의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과 이 수역에서의 관할권을 실현한것이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현시대의 추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조치로 된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경제수역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공정한 경제수역법을 가지고 많은 대소연안국들과 평등과 호상성의 원칙에서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바다자원을 보호증식하고 개발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는 무진장한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이 있다.

우리 나라 바다에는 50여종의 고급산업어족들을 포함하여 600여종의 물고기들이 있으며 20여종의 새우류와 조개류, 수십종의 해초류 등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뿐만아니라 수십종의 유용광물도 매장되어있다.

이 방대한 바다자원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며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효과적으로 리용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수역법은 모든 문제를 민족적자주권을 수호

하는 원칙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이익에 맞게 규제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개발이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을 공정하게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경제수역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군사경제선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와 대국역적 박정희피뢰도당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지켜낼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정부가 경제수역법을 제정실시함으로써 또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귀중한 재부인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의 극악무도한 군사과소통치와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고있을뿐아니라 풍부한 바다자원까지 미일반동들에게 모조리 빼앗기고있다.

경제수역법을 제정하고 바다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공동재부인 남해의 황금어장과 대륙붕자원을 미일반동들에게 팔아먹고있는 박정희피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수역설정은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의 경제수역법은 나라들사이의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나라는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수 없는 수역에서는 반분선을 경제수역의 바깥선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다의 경제선설정에서 철저히 공정성을 보장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바다에서 주권국가의 관할권내용을 자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였으며 다른 나라 선박들과 비행기들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자원을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 경제수역을 항행 및 비행할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나라의 전통적인 어장과 풍부한 바다자원을 보호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적대행위들을 미리 막고 나라의 안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응당한 조치이며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권의 행사이다.

모든 사실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경제수역설정은 명토뿐아니라 바다에서까지 민족적존엄을 고수하고 민족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고 바다의 자주권을 지향하여나아가는 발전도상에 있는 연안국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피뢰도당은 우리 나라의 경제수역설정이 그 무슨 《분규를 야기시킬것》이라느니 그것을 《인정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있다.

우리 나라가 경제수역을 설정한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과 특히 우리 주변나라들이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한 조건에서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오늘 박정희피뢰도당이 경제수역을

설정한 우리의 응당한 조치를 결코 드는 것은 민족도 자주권도 모르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데 이골이 난 제놈들의 매국배족적본성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우리 나라가 경제수역을 설정한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그 누가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로 될수 없다.

미제와 박정희피퇴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분열이 지속되고 공화국복반부를 반대하는 놈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당하고있다.

공화국이 경제수역과 그안에서 군사경제선을 설정한것은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며 바다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한 정당한 조치이다.

바다자원을 지키는 일은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으며 그것은 주권국가의 주인인 바로 우리 인민자신이 해야 할 의무이며 국제법상으로 공인된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나라가 경제수역을 설정한때 대한 박정희피퇴도당의 도전행위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격분과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여달리면서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내맡기고 민족의 자주권은 물론 자연부원을 쟁그리 팔아넘기고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일본반동들과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서남해의 어장들과 남조선어민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다 못해 《한일대륙붕협정》과 같은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의 바다밀자원까지 송두리채 팔아넘기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참말로 박정희피퇴도당이야말로 털끝만한 민족적량심도 없는 매국역적이며 인간쓰레기이다.

박정희피퇴도당이 우리 나라 경제수역제도를 헐뜯어보려고 제야무리 발악하여도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며 오히려 제놈들의 추악한 범죄적목적을 폭로할뿐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미제와 박정희피퇴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령토와 령공, 바다에 대한 자주권을 철벽으로 지켜나아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경제수역법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바다자원을 보호증식하고 개발이용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갈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10호(두개 426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7년 10월 1일 발행 • 1977년 10월 5일

7-75257 주소 • 평양시 중대원구역 군신1동 畵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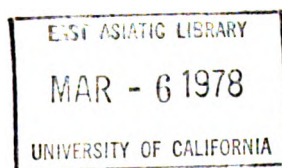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8102

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평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정치적생명은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이다.....(2)

주체의 기치밑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돐에 즈음하여—.....안영생(10)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심오히 학습하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황장엽(17)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길을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내용.....송정우(24)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리회정(30)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정준기(36)

교육기관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

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중요담보.....최종삼(42)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올게 결합시키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리동근(49)

기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고승환(55)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선차적문제.....조명일(60)

정치적생명은 혁명기의 영원한 생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에 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에 관한 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보람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굳건히 지키며 불타는 혁명적정열을 안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나라의 참다운 주인,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을 즐기치게 별려나가고있다.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혁명적 자부심이 높은 영웅적인민으로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상 그 어느 세대도,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살며 싸워나가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1

정치적 생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바쳐나서게 하며 육체적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은 사회관계의 산물로서 보통의 생물체와는 달리 육체적 생명과 함께 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육체적 생명이 사람의 유기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개인적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인민대중의 사회생활에 기초하고있는 집단적 생명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물질대사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지만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사회와의 일정한 연관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정치적 생명은 조직과 집단, 사회와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고유한 생명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혁명가들의 정치적 생명에는 끝이 없다.

혁명가들은 정치적 생명을 지닌것으로 하여 일생을 근로인민대중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그리하여 혁명가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더불어 영생하는 고귀한 업적과 투쟁정신을 남긴다.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났으나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성다한 그들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속에 살아있으면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정치적생명의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가들로 하여금 일생을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싸워나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관, 18페이지)

인류력사에서 사람의 한생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얼마나 값있고 보람있게 사는가에 따라 자기의 생애를 빛나게 마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사람은 길지 않은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대를 두고 영원히 빛나는 투쟁업적과 혁명정신을 남길수 있다.

더우기 혁명하는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참된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하여야 사는 보람과 가치가 있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을 혁명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준다.

혁명투쟁은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깃잡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자주성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들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투쟁, 바로 이것이 혁명가들의 사회정치생활이며 혁명투쟁이다.

혁명가들의 이 투쟁은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보람찬 투쟁이다.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는것은 가장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이 위업에 몸바쳐나서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예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혁명을 하는것이 성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은 사람의 정치적생명이 혁명활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인간의 참된 삶,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그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다. 그것도 오직 인민대중이 자신의 정력적인 투쟁으로써 쟁취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다. 자주성을 떠난 사회적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듯이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떠나서 사회적인간의 참된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벅찬 혁명사업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일로 되며 신성한 의무로 된다.

만일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정치활동, 혁명투쟁을 하지 않고 그저 밥이나 먹고 허송세월을 한다면 그는 사람값에 가지 못하며 이러한 사람의 생활은 사실상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사람은 순간을 살아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해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보람있고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은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속에서 자주성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한다.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들은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느낀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은 누가 시켜서 혁명을 한것도 아니며 그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한것도 아니다. 그들은 혁명투쟁에 참가하는것을 참다운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자진하여 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곤난을 이겨내면서 오랜 기간 원수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영생하는 혁명업적과 투쟁정신을 남길수 있었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긴다.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하는것은 참된 혁명가를 식별하는 중요한 척도로 될뿐아니라 일생을 보람있게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혁명은 영광스럽고 보람찬 사업이지만 그 길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여기에는 험한 가시덤불길도 있으며 때로는 일시적인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도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위업은 안팎의 제급적원수들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자본주의적요소를 중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람들이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육체적생명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적생명만은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정치적생명보다도 육체적생명에 더 애착을 가지는 사람은 혁명의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지 못할뿐아니라 결국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고만다.

육체적생명이 끊어지는것이 두려워 정치적생명을 더럽히고 개인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는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행동이다.

오직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강毅한 의지와 혁명적신념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의 길에서 주저와 동요도 없이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곳곳이 싸워나갈수 있으며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

혁명가들은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발휘하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이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하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곳곳이 지킨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청춘을 조국에 바친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으며 우리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발휘하며 필요하다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면서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공산주의적소행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으며 만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이 모든것은 정치적생명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이 바로 일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영광스러운 길이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치적생명이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후대들의 심장속에 살아있으면서 그들의 혁명투쟁을 끝없이 고무한다는데 있다.

정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

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3페이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새세대들이 혁명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그 중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새세대들로 하여금 혁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혁명선렬들이 정치적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과정에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정신은 새세대들에게 혁명가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모범으로 되며 그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새세대들은 혁명선렬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인 숭고한 혁명정신과 모범을 따라배울 때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절개와 지조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혁명승리를 위해 몸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새세대들이 수령이 준 정치적생명을 훌륭히 빛내이며 성스러운 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전철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바친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그들이 빛내인 정치적생명은 새세대들의 심장속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선렬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인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새세대들은 그들처럼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보람찬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수많이 쌓아올리고있다.

이것은 새세대들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인 모범을 본받아나갈 때 혁명위업은 끝까지 고수되고 완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정치적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고 혁명가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게 하는 생명이며 죽어서도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는 영생불멸하는 고귀한 생명이다.

2

혁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준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으로 대중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의 계급의식과 자주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수령은 혁명조직을 내오고 여기에 혁명군중을 묶어세우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조직령도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조직의 한 성원이 되여 그의령도를 따라 나감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로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실로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수령은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람찬 삶의 길, 혁명의 길을 개척해주는 온인으로,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꽃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이로 된다. 부모가 없이 사람의 육체적생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의 품을 떠나서 혁명가들의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사회적 예측과 무권리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가장 값높은 정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세심히 보살펴 주시는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생명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전열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생명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정치적생명이 이처럼 존엄있고 고귀한것으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양분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정치적생명의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사상정신적양식으로 삼고 생활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의 가치가 규정된다. 사람은 풍만한 사상정신적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고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리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주성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존엄있게 간직하며 훌륭히 키워나갈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2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람찬 투쟁과 참된 삶

을 주는 사상정신적양식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양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모든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며 혁명가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 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우리모두의 심장마다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심어주시였으며 육체적생명보다 더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야 한다는 고귀한 혁명적진리를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오랜 력사적기간 자주성을 유린하던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말끔히 가셔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은 그 어떤 잡군에도 오염되지 않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생명이다.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키워지고 강철로 단련되며 찬란히 빛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생명이라야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는 생명으로 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그리고 안팎의 원썬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지름길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실천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을 키워주시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를 세워주시고 여러 혁명조직들을 무어주심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튼튼히 보호하고 키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의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지난날 예측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근로자들이 오늘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존엄있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튼튼히 보호하고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9페이지)

사람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혁명대오의 한 성원으로, 조직의 성원으로 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근로단체들을 창건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모두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이처럼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뜨거운 어버이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여 사회정치활동과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면서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견결한 공산주의혁명이

로 끊임없이 단련되여가고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충성심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하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시되면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다. 그들은 자나깨나 오직 하나의 생각,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일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튼튼히 키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도 남김없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혁명적의지와 혁명적신념은 우리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영원한 충성의 대오로 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강철의 의지로 하여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진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수될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적의무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한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투쟁이 간고하고 복잡할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끊임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어나가야만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사상수양을 강화하여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다지도록 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신념은 하루이틀에 그리고 저절로 선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부단한 혁명적수양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사상수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그들 자신이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육체적생명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지게 된다.

혁명가의 이러한 혁명적신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이지)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적 관점과 입장,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며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만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지닌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원썬들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던 그러한 기풍을 본받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지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5페이지)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적조직생활은 혁명가의 생명,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만 혁명의 길에서 일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마칠수 있다.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의 높은 칭호와 영예, 바로 이것은 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더욱 빛난다.

그러므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생활의 선차적요구로 여기고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꽃피여간다.

온실에서 가꾼 꽃보다 들에서 핀 꽃이 더욱 굳세고 아름다운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도 혁명적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어야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생명체로

더욱 굳세어지며 아름답게 빛을 뿌릴수 있다.

백찬 혁명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켜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건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만 광휘로운 빛을 뿌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다지고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풍모를 더욱 세련시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전사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칙,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신조만이 있을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쏟아붓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혁명전사의 높은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기치밑에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돐에 즈음하여—

안 영 생

오늘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붉은기
치 높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
화하기 위한 일대 전격전을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
의 임무> 발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
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간고
한 부장투쟁의 불길속에서 1937년 11월
1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
자들의 임무>를 조선인민혁명군 대대기
판지 <서광>에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불후의 로작
에서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안팎의
정세와 식민지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민족해
방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
과 이론,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
시고 조국광복의 숭고한 역사적혁명위
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혁명
과 세계혁명, 식민지민족해방운동 발전
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문헌
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준 혁명적
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

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우리 나라 혁명앞에 커다란 난관이 가
로놓이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
방운동이 일대 시련을 겪고있던 준엄
한 역사적시기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
화로 이름높은 우리 인민은 지금 생사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조국
땅은 민족비운의 암운으로 뒤덮여있
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책지)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한후
우리 나라를 저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공고하고 안전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였다.
간악한 일제는 군대와 경찰, 감옥과 교
수대 등 온갖 파쇼적식민지통치기구들
수없이 늘이고 살인적인 악법들을 만들
어 우리 나라를 무시무시한 하나의 생
지옥으로 전변시켰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항일무장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운동이 양양되자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
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인
민혁명군에 대한 광란적인 <토벌>공세
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제침략자들
은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 조국광
복회 하부조직을 파괴하고 수많은 지하
조직원들과 조국광복회원들을 다치게

로 검거투옥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에 대한 류폐없는 과소적탄압과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대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시기 조선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자 일시적으로 혁명대오에 기여들었던 배신자들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일제침략자들과 결탁하는 길로 나갔다. 민족개량주의자들, 좌우경기회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한때 《조선독립》이요, 《세계혁명》이요 하면서 떠돌다가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일시 우세하고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이에 질겁하여 반역의 길로 굴러떨어졌다.

1930년대 후반기 세계적범위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은 수난을 겪고있었다.

세계제패와 식민지재분할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자들은 전면적인 과소화의 길에 들어섰으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반동적연합을 형성하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었다.

특히 과시스트도당들은 반과소인민전선운동과 세계혁명운동에 새롭게 등장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전례없는 탄압을 가하였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시기에 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고나갈수 있는 정확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좌왕우왕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있었다. 그리하여 혁명운동은 엄혹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조성된 정세는 연합된 과소세력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국제민주력량의 승리를 촉진하며 죽음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촉진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

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몸소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시므로써 과소화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집대성하시였으며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제기한 근본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기본임무, 혁명의 대상과 동력, 그 수행방도들에 대해서 밝히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선 조선혁명의 임무와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므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을 수행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5페이지)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혁명투쟁을 옳게 조직령도하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할 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혁명의 성격은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제급적 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고 조선혁명의 성격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혁명의 성격규정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밝힌 강령적지침이었으며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놓은 고전적정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혁명의 성격에 관한 사상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시대에 있어서 피압박인민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주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은 자본주의나라에서의 사회혁명과 구별되는 식민지나라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밝힌 사상으로식민지반봉건사회에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을 서로 밀접히 련관시켜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하자면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투쟁대상과 동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조

선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며 다음으로 그 대상은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고있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이라고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혁명의 주되는 대상으로 규정하신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주공방향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서 모든력량을 집결하여 주되는 적에 투쟁의예봉을 집중하며 반혁명세력을 승리적으로 분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빠짐없이 동원하는것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라고 가르치시면서 혁명의 동력에 대하여 과학적인 정식화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의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도 반제투쟁에 참가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적극 전취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농민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대하여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으므로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와 량심적인 종교인들까지도 혁명의 편에 인입하여 광범한력량을 투쟁에 동원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시고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

인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혁명성과 혁명운동에서 노는 선각자적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와 혁명에 참가하는 매개 제급과 계층들의 혁명성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므로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역량편성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수행하여야 할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과업은 물론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지주,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을 다도하는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될수 없으며 오직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의거하고있는 사회경제적관계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새로운 민주주의제도를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낡은 제도가 영원히 소생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혁명의 근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혁명적민주주의정권에 의거하여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사회경제개혁과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하며 일제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이룩하며 새 사회 건설의 경제적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로부터 시작하여 정권형태와 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을 천명하시므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이領導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들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후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면임무를 제시하시므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수행방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며 그들 중심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국제적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달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무장투쟁의 합법칙성과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원칙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건결히 전개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19페이지)

제국주의는 반혁명무력에 의거하여 계급적지배를 확립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며 자기의 반혁명무력이 완전히 격파되기전에는 결코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무력으로 반혁명무력을 타승해야 한다.

무장투쟁을 건결히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은 제국주의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유일하게 정확한 투쟁형태를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식민지에속국가인민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무장력량을 꾸리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만 민족해방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

준것으로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무장투쟁을 국내깊이 확대하며 여기에 전인민적항쟁을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인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하고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반일의 기치밑에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조직진행하여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이 참다운 혁명적인 전위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조직적공간을 꾸려야 하며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 당조직을 확대하며 공산주의자들을 통일적인 조직체계에 결속하여 당조직생활을 통해서 단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관철함으로써 당시 비록 당중앙은 선포하지 않았지만 당조직을 내오고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

혁명에 대한 당적행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린점국가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무장투쟁과 통일전선운동, 당건설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을 새롭게 명시하고 집대성한 역사적문헌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는 어려운 과업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으며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거족적인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국제적범위에서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할수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자주적립장에서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한 역사적문헌이다.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당시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 혁명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그 주인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임

무를 천재적으로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다.》(우와 같은 책, 41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제국주의와 연합된 군사봉건적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자체의 실정에 맞는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임무와 그에 따르는 혁명과업과 당면임무는 무엇이며 어떤 립장에서 투쟁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였다.

자주성과 독창성으로 일관된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투쟁할 때 그 어떠한 난관과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탄력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또한 조선혁명이 나아가는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끄는 불멸의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전례없

는 발악적인 반동공세에 의하여 조선혁명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에 처하여있을 때 이 역사적인 로작을 집필하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 혁명적락관주의와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 로작에 구현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것처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종점의 숲을 헤치고 또다시 조국으로 진군한 역사적인 무산지구전투와 백두산동북부에서 일제의 수십만 대군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는 어려운 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시켜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적들이 《쏘일불가침조약》체결을 기회로 항일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하여 발악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조국해방의 그날까지 필승의 신념을 안고 견결히 싸워 마침내 일제식민지통치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영웅적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승리를 가져오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투쟁의 화불이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끈 혁명의 기치였을뿐만 아니라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한 다음 우리 인민이 나아가야 할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혁명의 등대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이 로작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해서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한 다음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계속 빛나는 승리로 이끌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밑에 우리 인민은 로작에서 밝혀준 혁명의 길을 따라 해방직후 내외원썹들의 악랄한 책동과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면서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할수 있었으며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빠른 시일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었다. 그리고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역사적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계속혁명의 사상을 받들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후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전설을 다그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놓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오늘도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국제파시즘의 반동공세가 전면적으로 강화되던 시기에 반제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식민지 민족해방투쟁과 세계혁명운동의 강화발

전을 비상히 촉진시키게 한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은 당시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오늘도 세계혁명적인민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히 큰 용기와 투지를 북돋아주고있다. 로작에 천명된 철저한 반제자주사상과 주체적인 전략전술은 나라의 독립도, 노동계급의 해방도 자기 나라 인민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줌으로써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있다.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이 로작은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적문헌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혁명적로작을 친히 집필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경애하는 수령님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돐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고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 본 원 리

황 장 업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교육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불후의 교전적로작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어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 이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천명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위대한 성전이며 사회주의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공산주의적인 교육전설의 대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테제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사업의 모든 원칙들은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데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힘있는 사상리론적 무기이며 사회주의교육의 당성과 로동계급성, 현실성과 과학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전투적강령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원칙에 맞게 모든 교육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두

창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 그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원칙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교육학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근본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페이지)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본질을 천재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다.

착취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비로소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주인으로서의 자질, 다시말하여 주인의 지위를 지킬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주인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주적인 사상과 사회적으로 축적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사업,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본질로부터 사회주의 교육의 위치와 목적이 규정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생산활동이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이는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 제기될 수도 없고 시작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우는 사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교육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규정하시였으며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 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내세우시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착취사회의 교육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3페이지)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지배를 제도화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을 극력 방해하고 저들이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것을 정당화하는 반동사상을 근로자들에게 넣어주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력대로

반동적지배계급들은 근로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마소와 같이 자기의 힘만을 지배계급을 위하여 공손히 바치는 온순한 노예로 만드는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던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위하여 주인답게 창조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것을 교육의 기본목적으로 삼는다.

사회주의교육학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교육의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길을 밝히는 학문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3~4페이지)

종래의 교육학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수법에 대하여서는 적지 않게 논의하였으나 참다운 의미에서의 사람중심의 교육학으로 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라는 관점이 서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람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결부시켜 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에 관한 학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학설을 창시하시였으며 바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과 결부하여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천명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본질상 그 주인인 로동계급이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주체적관점으로부

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원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는 사업도 마땅히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을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원리인 동시에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기본원리인것이다. 왜냐 하면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한다는 정식화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자주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과 공산주의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우는 두 측면이 포괄되어 있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킬수 있으며 주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다같이 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공산주의적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져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창조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물론 사상이 건설

하여도 창조적능력이 없으면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되려면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다같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가운데서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것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무장하는것이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과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우와 같은 책, 4페이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사상의식은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은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면서 살아나가는 착취계급들의 반인민적인 계급적리익을 반영하고있다.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혁명적으로 행동하며 반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반동적으로 행동한다. 사상의식이 사람의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한다. 창조적능력은 사람의 사상의식의 조절통제밑에 작용하면서 그 행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 첫째가는 징표는 그의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는것이다.

부르조아교육사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교육에서 무사상성을 주장하면서 지식본위주의로 나가는것이다. 부르조아들은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순수 지식만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지지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을 원하

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억제한다. 지식본위주의적인 교육사상은 결국 사람들의 노동능력만을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부르조아적관점을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노동계급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전결히 투쟁할수 있는 혁명적인 사상의식이다. 물론 노동계급에게도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노동계급에게는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결히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정신이 더 귀중한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있을 때에는 그 지식을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쓰는것이 아니라 반동적인 지배계급을 위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쓰게 된다.

물론 완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적혁명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장한 체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을 연구하여야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산 지식을 가질수 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을 가지고 체력을 단련하여야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의 혁명적본질은 바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표징들과 그것들사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한 기초우에서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끝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준 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정식화하여주시었을뿐 아니라 이 원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을 해나가는데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신 첫째 원칙은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 노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우와 같은 책, 7페이지)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제급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는 열렬한 혁명가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에게 당과 노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전결히 투쟁할수 있는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가지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과 노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전결히 투쟁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교수를 당정책화하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국가의 창건자이시며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과 국가를 령도하고 계시며 우리 당과 국가의 리익, 우리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려면

그들속에서 무엇보다도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 모시고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회주의교육이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되게 하려면 당의 유일적지도 밑에 당의 방침대로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해나가는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복무할수 있도록 교수내용을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교육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을 똑똑히 그을수 있으며 자본주의교육도 아니고 사회주의교육도 아닌 범백교육을 하는 폐단을 없애고 사회주의교육의 계급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있다.

교육에서 양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할데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교육분야에서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과 범백교육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교육사업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창조적사상으로서 사회주의교육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둘째원칙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9~10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른 현 력사발전단계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난 교육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어디까지나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을 조선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혁명사상과 조선혁명에 필요한 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교육에서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딴 때에는 사람들을 제 정신을 못가진 머저리로 만들게 되며 자기 나라 실정은 하나도 모르고 필요없는것만 잔뜩 외워가지고 다니는 글뿔주로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내부에 온갖 기회주의적인 교육리론과 반동적인 사상조류가 들어오는것을 철저히 막으며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셋째 원칙은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결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우와 같은 책, 12페이지)

사회주의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잡다한 지식을 가진 이른바 유식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인 실천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

우리의 교육기관이 사람들을 얼마나 훌륭한 인재로 키웠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게 하였으며 그 지식을 실천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키워주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는것이다. 쓸모없는 잡다한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있어도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도리어 식자우환격으로 생활에 방해로 될때름이다. 또 필요한 지식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서 활용할줄 모른다면 그 지식을 외웠을뿐이지 사실상 자기의것으로 소화하여 체득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는것은 사람들에게 혁명실천에 필요한 산 지식을 줄뿐아니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교육을 혁명실천이 벌어지는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키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완성하는 동시에 지식을 넣어주는 교수형태에 치우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형태를 소홀히 하는 그릇된 편향을 극복하고 배운 지식을 체득하여 실천에서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 형태와 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리론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

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키워내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겸지하여야 할 넷째 원칙은 사회주의국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우와 같은 책, 13페이지)

교육사업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의 중요성과 관련되어있다.

사회주의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사회주의국가가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여야만 계급투쟁의 과업과 경제문화건설의 과업을 다같이 잘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국가를 튼튼히 지키고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여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확대될 때에는 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계급적원썹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체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목적에 맞을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힘있는 방법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잘 진행해나가는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사회주의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적원칙으로 내세우시

였던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 사회주의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므로 그것을 그 어떤 개인이나 자연발생성에 맡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가적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함이 안된다.

교육사업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것은 또한 교육사업이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뿐아니라 나아가서 그들모두를 인테리화하여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을 정도로 사람개조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접령할때 대한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해나가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그들들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문제와 인테리화하는 문제를 다같이 풀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교육의 보편성으로부터 사회주의국가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교육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하는것이다.

교육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교육시설들을 국가가 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교육의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국가이고 교육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할 권한을 가지고있는것도 국가이다. 사회주의국가가 통일적으로 교육사업을 지도하지 않고 교육의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교육자체가 진행될수 없는것이다. 그러

므로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을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지도할뿐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의 방법론을 교육학에 구현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서만 사회주의교육학이 참다운 과학으로서 성립될수 있고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이 원리에 의거하여서만 사회주의교육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밝혀주신것은 참으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신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접령하는데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역사적기여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혁명적교육리론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당의 교육전사로 일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교육일군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높은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육성의 길을 밝힌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내용

송 정 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분야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업적과 실천적경험을 진대성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사회주의교육의 대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심오하게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교육사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대한 완성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었다.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내용이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그 교육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어떤 류형의 사람들을 어떤 수준에서 키워내는가 하는 문제가 규

정된다.

교육의 성격과 질이 교육내용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기때문에 교육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혁명적 본질과 성격에 상응하게 사람들을 키워낼수 없으며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사업전반에서 교육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헤아리시고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총적인 방향과 기준, 교육내용에 일관시켜야 할 원칙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해주시었으며 사회주의교육내용을 이루는 기본구성부분과 그것들이 담아야 할 구체적내용, 교육내용편성에서의 순차와 단계들을 체계정연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혀주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성과 과학성, 현실성을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관한 리론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밀고나가는 원칙에서 교육내용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하는것을 교육내용구성에서의 총적인 방향, 기준으로 제기하시고 그에 맞게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시였다.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서 테제가 밝혀주고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요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치사상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주로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치사상교양이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해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품성을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이다.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울수 없으며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할수 없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말아키우는 학교들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고 활동이 조절되기때문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 사업에서 기본으로 된다.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사상관점을 세워주고 그들의 혁명적인 각오와 열의를 높임으로써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잘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교육의 전과정이 공산주의적인 사상개조과정, 사상혁명과정이 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의 사상정신적특질과 그것이 형성되는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정치사상교양의 구체적내용들을 체계정연하게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15페이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 공산주의자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하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은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될수 있다.

테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의 표현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할 때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자주적인 존재로 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궁극적인 목적, 주체교육의 기본사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사상교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혁명인재를 키워내는 사회주의교육에서 기본으로 들어줘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로 된다.

태제는 사회주의교육이 주체사상교양에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한다.

태제는 정치사상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적인간의 혁명의식과 도덕적면모에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건결히 투쟁하려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룬다.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인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집단적인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공산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과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인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대로 행동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도덕적품모를 전면적으로 갖춘 혁명인재로 자라나게 한다.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서 태제가 밝혀주고있는 중요한 원칙적요구는 또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다 갖추수 있도록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우와 같은 책, 19페이지)

현대적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인인,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으로 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며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창조적인 투쟁과정이며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는 인류가 이룩한 최선과 학과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서만 건설할수 있는 가장 높이 발전된 사회이다.

사람은 주관적인 희망과 욕망만으로써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주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함께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이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상과 함께 풍부한 과학지식을 가질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이 땅위에 공산주의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더 잘,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

과학기술교육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테제는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다같이 가르쳐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과학기술교육의 순차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의 일반지식교육과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전문지식교육이다.

일반지식교육은 사물현상들의 일반적 개념과 그 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며 생산과 기술에 대한 기초원리,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기초를 닦을수 있게 한다.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준 기초우에서 전문지식을 주는 고등교육단계는 객관세계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여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체득할수 있게 한다.

테제는 자연 및 사회 과학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특히는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연과 사회의 각이한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을 깊이 습득할수 있게 하며 현대 생산과 기술의 공학적원리를 체득하고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질수 있게 한다.

테제는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초등 및 중등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할때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과학기술적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학예술적측면에서도 높일수 있게 한다.

테제는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체육교육을 강화할것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2페이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다 할지라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테제에서 밝혀진 체육교육의 내용과

방도들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하도록 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정신적풍모와 풍부한 과학기술지식, 건강한 체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내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관한 리론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혁명성을 철저히 견지할수 있게 하며 과학성, 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우와 같은 책, 15페이지)

사회주의교육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의 내용이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테제에서 밝혀진 교육내용의 혁명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며 정치사상교양의 내용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교육내용의 혁명성은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의 내용에서도 일관되어있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은 당정책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기술교육의 계급적성격은 그것이 어느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테제는 과학기술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이 될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하는 과학기술지식을 주는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에서 혁명적원칙성을 견지할수 있게 한다. 테제는 체육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체육이 단순한 오락이나 체력 단련을 위한 수단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기 위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강毅한 의지와 인내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테제는 교육의 전체 내용이 혁명성으로 일관되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적선이 모호한 교육을 하여 사람들을 범백사람으로 만들고 사회를 범백사회로 만드는 것과 같은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교육내용에서 과학성, 현실성을 보장하는것은 후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사업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의 과학성과 현실성은 자라나는 세대대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게 교육내용이 편성되도록 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교육내용의 과학성, 현실성은 또한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고 과학지식이 습득되는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내용의 순차성과 단계가 규정되어있는것으로서 담보되고있다.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사상정신적풍모가 완성되어가며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인식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이러한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테제는 유치원교

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싹틔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수준을 높일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또한 과학기술교육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의 일반지식교육과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전문지식교육의 순차성과 계승성을 옹계 보장하고 일반지식교육단계에서 일반기초지식에 대한 교육과 기초기술지식에 대한 교육을 옹계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깊고도 다방면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제한된 기간내에 습득시키는 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여준다.

교육이 생활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주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것으로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자기 나라 혁명의 실천적요구와 밀접히 결부시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테제는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과목의 교육내용을 당정책화하여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자기 나라 혁명에 질실히 필요한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사업의 현실성, 과학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이 과학성, 현실성을 보장하고있는것은 《정치성》일면만을 내세우면서 교육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릇된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교육의 과학리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교육내용을 혁명성으로 일관시키고 그의 과학성, 현실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교양사업이 가장 혁명적인 원칙과 방향에서 진행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교육이 가장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될수 있게 한다는데 테제가 밝혀준 교육내용에 관한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관한 리론을 전일

적으로 체계화하여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세계사적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력사의 주체인 사람들을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발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인간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 관한 리론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자면 어떤 사상과 품성,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주어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관한 완성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인간개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려는 인류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인간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참다운 길을 명시한 주체의 대교육전서이며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받아안은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는 후대교육사업을 직접 맡은 교육전사들의 영예롭고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는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교육의 정치사상적 및 과학리론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테제를 받들고나가는 교육전사들의 영예를 빛내일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

리 희 정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작으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참다운 길을 명시한 완성된 주체의 교육학설이며 인류 사상사와 교육력사에 영원히 금문자로 빛날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수천년에 걸쳐 내려오던 교육에서의 낡은 틀과 낡은 방법을 완전히 극복하고 교육학의 원리로부터 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제에 이르기까지 교육리론과 교육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테제는 특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리론체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방법문제를 응당한 위치에 놓고 여기에 과학적해답을 주고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의 고유한 방법들을 심오하고도 체계정연한 논리로 정식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주체의 교육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서 확고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교육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의 계급적순결성을 고수하고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과학

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4페이지)

교육방법문제는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교육사업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내용을 옳게 규정하는 동시에 여기에 맞는 교육방법을 세워야 한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밀접히 결합되어있으며 서로 떼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교육내용은 교육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체득된다. 아무리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옳바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키우고 가르치겠는가 하는 방법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사업이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원만히 조직진행될수 없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사업과는 달리 교육사업은 사람이 사람자체를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들의 심리상태, 사상의식수준과 지식수준은 성장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며 구체적인 생활경위와 사회적지위, 성격 등에서 개인적특성을 가진다. 또한 사람들의 정신육체적발전을 제약하고 규제하는 객관적요인들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육사업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정신 육체적발단단계에 놓여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개인적특징을 가진 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하나의 틀에 얽매이거나千篇일률적이며 도식적인 방법으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교육방법을 옳게 세우는것은 낡은 교육과는 다른 본질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가장 높은 형태의 교육이다.

사람들에게 자주적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품격 형성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심각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진행된 때 비로소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교육방법에 관한 체계정연하고 심오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무엇보다먼저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4페이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학교교육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교수를 통하여 실현된다. 교수를 떠난 학교교육은 실제적으로 존재할수 없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게 하며 따라서 교육의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고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교육방법의 하나로 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낡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들이먹이는 방법이나 강압적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사회주의교육에 고유한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조장시키고 추동하여 교수내용을 보다 쉽게 깨달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야기와 담화 형식의 설명, 토론과 논쟁, 문답식방법 그리고 직관교육과 실물교육 등 깨우쳐주는 교수수법들은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옳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해설과 설복,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적 사상의식과 도덕품성의 본질과 내용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사실과 생동한 모범을 통하여 일깨워줌으로써 학생들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는 힘있는 교육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람들을 자립성과 창발성을 소유한 더욱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테제에서 또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우와 같은 책, 27페이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은 교수의 내용과 형태, 방법상 특징에 의하여 구분되는 학교교육의 두 측면이다. 리론교육이 인류가 이룩한 인식과 실천활동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된 리론과 지식으로 습득시키는 교육형태라면 실천교육은 그것을 현실생활과 실천활동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일정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교육형태이다. 리론교육이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위주로 한다면 실천교육은 학생들의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여 진행된다.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하는 교육은 마땅히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실험실습과 연습, 답사와 견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리론교육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을 공고히 습득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교육과 생산로동을 옮겨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규정하시고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학생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되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확고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테제에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교육방법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2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할데 관한 리론은 학교교육과 혁명적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 교육을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으로 만들며 그들을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는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학교에서 교수는 주로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혁명사상과 지식, 건장한 체력을 소유시키는것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수를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이 소유하여야 할 풍부한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수활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육성의 필수적과정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교수방법만으로는 학생들을 진정한 사회적인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다. 학생들을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켜야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 산정치활동가로 키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생들을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며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교육의 고유한 혁명적교육방법론을 체계화한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에서 확고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또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곳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리론은 청소년교육사업을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학생들의 사회생활과정의 끝 혁명적교육교양과정으로 되게 하는 정확한 방도를 밝혀준 독창적인 리론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학생들의 생활영역은 학교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생활의 넓은 분야와 깊은 령판을 가진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교원밖의 사회성원들, 여러가지 사회기관들과 늘 접촉하며 사회의 세로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사회적환경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보다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잘하는것과 함께 교육적작용을 하는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보조를 맞추어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후대교육에 대한 학교와 사회사이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제급적대립과 적대적모순 관계가 지배하며 개인리기주의가 지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마련될수 없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과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는데로부터 후대교육에 대하

여 학교와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진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교육은 전당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된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 후대교육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통일적으로 후대교육의 주인이 되며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그 어떤 나쁜 영향과 풍조에도 물들지 않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낼수 있게 하는 위력한 교육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다음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시키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옹계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3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시킬데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교육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방도문제를 새롭게 해명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력사는 일정한 연령기에 진행되는 학교교육만을 교육의 형태로 여겨왔고 착교에 다니는 학생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제의 교

육방법은 학교교육일면에만 국한시키고 학생들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전의 교육방법과는 달리 학령전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교육대상으로 삼고 사람들의 생애의 전기간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참다운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끊임없이 개조하고 완성해나가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교육방법이다.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부단히 변하는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과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사람들이 일생동안 공부하며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그 체제의 완벽성과 내적정연성, 내용의 심오성과 논리의 과학성으로 하여 인류 사상사와 교육력사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완성된 교육방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준 지도적지침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교전적로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천명하신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에 관한 이론은 비길데없는 위대성과 독창성,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월성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정식화하시고 체계화하신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주체의 인간교육, 인간개조 방법이라는 데 있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은 과학적인 교육방법론을 세우는 데서 근본 출발점으로, 전제로 된

다. 사람에게 대한 올바른 립장과 관점은 사람의 본성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기본열쇠를 안겨주며 사람의 정신육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는 중심고리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한다.

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 사람에게 대한 정확한 립장과 관점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론이 그 이전시기의 온갖 교육방법에 대한 견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6페이지)

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그 어떤 교육시설이나 교육수단보다도 교육사업의 주체인 교원, 학생들을 먼저 보고 그들의 주동적인 역할을 높이는 관점에서 모든 교육방법들을 전개하고 체계화하고있다. 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 교육의 모든 방법들은 사람이 인식과 실천의 주체로 된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교양적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열쇠를 사람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그들자신의 능동적활동을 높이는 데서 찾고있으며 교육 시설과 수단들의 리용도 거기에 복종시킬것을 가르치고있다.

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은 또한 철두철미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키워려는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어있다. 테제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방법의

구성체제와 거기에 담겨져있는 교육학적내용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조장발전시키는데로 지향하고있으며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형태들과 인간교육, 인간개조에 작용하는 제 요인들을 사람들의 자주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방법론의 체계로 정연하게 종합일반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테제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또한 교육방법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해명하고 완성된 구성체제에 심오한 교육학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담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테제는 교육방법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를 밝혀주고있다. 종전까지 교육방법문제는 주로 학교교육의 테두리안에서 그것도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재내용을 전달하는 수법, 교수교양사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방법상 문제로 고찰되고 논의되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테제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종전의 협소한 관점과 견해의 틀을 마스고 그것을 학교교육의 방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끊임없이 전면적으로 교육교양하는 방도문제로 보시였으며 인간교육의 모든 형태와 내용을 포괄하는 근본방도문제로 내세우시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학교교육의 기본방법, 학교교육과 혁명실천 및 사회생활 그리고 교육의 순차적과정들 사이의 호상연관의 방도를 밝혀주는 전일적인 구성체제를 가진 방법론으로 완성하였다.

테제는 이와 함께 교육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그 교육학적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정치사상적자질과 문화기

술수준, 자주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전면적으로 형성발전시키는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완벽한 구성체제와 심오한 교육학적 내용으로 정식화된 사회주의교육의 방법들은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우월성,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교육,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교육의 특성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인간교육, 인간개조의 합법직성에 맞는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교육성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여 인간해방의 역사적과업을 앞당겨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본성에 맞는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주체의 교육학설은 그의 과학적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완성품부화되었으며 인류교육사상사는 과학적교육방법론을 탐구하기 위한 오랜 로정에서 처음으로 것처럼 모색하고 바라던 완성된 교육방법론을 창시하는 역사적사변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완전무결한 과학적교육방법론의 무한히 귀중한 재부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완성하신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청소년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정 준 기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문헌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접한 커다란 감격과 환호로 들끓고있으며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갈 충성의 열정으로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불멸의 과학적인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시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사회주의교육의 원리와 내용, 방법,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고 교육혁명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교육 사상과 이론, 그것을 구현한 모든 시책들을 집대성하고있는 주체의 교육 대강이며 백과전서이다.

공산주의적혁명인제육성의 참된 길을 명시한 테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또하나의 불멸의 사상이론적재부로, 혁명과 건설의 필승의 무기로 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적변혁을 일으키며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특성, 그 우월성을 천명하시오 오랜 세월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의 전모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고 혁명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로동계급과 그의 당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방대한 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서고 참다운 사회주의교육사업이 실현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도 잘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로 효과있게 리용관리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착취받고 억압받던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는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장기성을 띤 우리의 혁명투쟁에서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진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으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가 하는것은 교육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다. 사회주의교육의 원리와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 교육제도문제에서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삼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교육체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상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제도라는것을 천명하시교 그 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11년제

의무교육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체제, 정규적인 학습체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체제에 천명된 사회주의교육제도가말로 기성리론과 낡은 관념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독창적인 교육제도이며 낡은 교육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육제도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다그치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체제에 밝혀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배울 권리를 가지고있고 배울 의무를 지니고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교육제도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우와 같은 책, 38페이지)

체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의무를 지니고있다는것을 선언하고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온갖 불평등을 없애는 기본조건으로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먼저 근로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는때서 나타난다. 체제가 밝힌 전민교육은 이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한평생 쉬임없이 학습하며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준비될수 있게 하는 담보를 지어주고있다.

전민교육은 소수의 착취계급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며 교육을 자본의 도구를 생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고 그것은 오직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취하는 모든 교육정책들도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가장 선진적인 의무교육제도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교육에 관한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전반적의무교육제가 단계별로 실시된 결과 우리 나라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공부하는 말 그대로 《전민교육의 나라》로 되었으며 지난날 정치적무권리와 물매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의 근로자들이 오늘은 모두가 다 배움의 주인으로 되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교육제도로서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마련하여주시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세대대들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세대대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기초지식을 주며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지어주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중요한 요구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목적과 사명, 내용과 방법, 형식 등 학교교육의 모든것이 자라나는 세대대들에게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로 육성하는데로 돌려지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기형적인 《수재교육》이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부르조아교육과는 달리 학교전 교육으로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교육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계승성과 체계성을 옹계 보장하는 과학적인 교육체계에 기초하고있으며 교육내용에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있다. 바로 여기에 11년제의무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의 물격이 튼튼히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혁명의 미더운 교대자로, 어떤 초소에서든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주는 가장 선진적인 의무교육제도로서의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테제에서 또한 완성된 사회주의의무교육제도로서의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40페이지)

고등의무교육, 이것은 인류교육력사에서 전례를 볼수 없는 새로운 높은 수준의 완성된 사회주의의무교육제도이다.

이 방침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고 전체 인민을 공산주의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도 없앨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민인테리화는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으로 된다. 이 중대한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정한 고등교육체제에 망라시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사회주의 교육체제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테제에서 밝혀진 고등의무교육이야말로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국가의 혜택에 의해 무료로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최대의 폭과 최상의 높이를 가진 가장 발전된 의무교육이다.

고등의무교육에 대한 이 위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민인테리화를 하나의 구호나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의무교육, 고등의무교육은 결코 먼 장래의 일로 될 수 없다. 우리앞에는 당면하여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현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가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려 점차 고등의무교육제로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테제에서 밝혀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전민의무교육제에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안받침하는 완벽하고 생활력있는 교육제도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4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의무교육은 철저한 무료교육과 결합됨으로써만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선포한다 하여도 그것이 무료교육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의무교육은 사실상 실현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전반적무료교육에 관한 사상은 어린이들을 사회적부담으로 키울데 대한 기성리론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교육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형태의 교육을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다. 어린이들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책임지며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무료교육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후대교육에 대한 크나큰 배려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의 주인으로 되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

로 교육, 이것은 사실상 교육분야에서의 공산주의적시책의 실시를 의미하며 날로 공고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적자립경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시위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가장 선진적인 교육체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세우는 것은全民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면 그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진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뿐아니라 교육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우와 같은 책, 44~45페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점차 기사, 기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는 그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어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고

全民교육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들이 수많이 육성되고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이 밀접히 결합되어가고 있다.

태제는 앞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체계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가 기본형태로 남게 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장대학, 농장대학 등에 망라되어 고등교육을 받게 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과 성인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려져있을뿐아니라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 있다.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간다. 나무도 어려서부터 잘 가꾸어야 곧게 자라게 할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어릴 때부터 사회적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으며 어린이보육교양에서 공산주의적시책들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의무교육제도로부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 이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주체의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교육제도는 깊고 역센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마련하신 혁명적 교육전통을 확고부동한 초석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을 떠나서 혁명적실천을 말할수 없고 혁명적실천을 떠난 혁명리론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불멸의 주체사상과 교육분야에 그를 구현하여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떠나서는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주체의 사회주의교육강령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근본문제로 보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교육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시고 주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카불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 오가자의 삼성소학교 그리고 유격근거지내의 아동단학교와 야학들을 비롯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의 20성상 가시는곳마다에 세워주신 수많은 학교들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려전이었으며 거기에서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의 위대한 강령에서 천명하신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관한 사상과 몸소 쌓으신 고귀하고 풍부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교육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주체교육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시고 후대교양과 민족간부육성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혁명과 전설이 전진

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 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는 행정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의 총화이다.

사회주의교육체제의 정당성과 진리성도 또한 력사의 시련속에서 생활력이 검증된 이러한 실천적경험과 업적을 집대성하고 일반화하고있다는데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체제를 우리 나라의 산 현실,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더불어 심장으로 받아안게 된것이며 그를 빛나게 구현할 확고한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며 살며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영예와 행복은 끝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령제》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과 인간개조의 참다운 교과서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교육체제에 담겨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령제가 밝혀준 과업과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의 목적과 사명,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학교교육, 학교전 교육, 성인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를 더욱 줄기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교육체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더 빨리 앞당겨나가자.

교육기관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중요담보

최 중 삼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교육사업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이 나아갈 휘황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주체의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사람들을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의 학설로서의 주체적교육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빛나게 완성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으로 되는 공산주의 적혁명인재를 키우는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체계정연하고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확고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테제에서 밝히신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에 관한 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맞는 교육사업체제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과학적으로 정연하게 밝힘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높이며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성과적발전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들의 사명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학교의 기능과 교원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테제가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린 또하나의 귀중한 과학리론적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48페이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직접 수행되는것만큼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사회주의교육사업은 범백교육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체계정연하게 진행될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들의 사명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기관의 위치, 사명과 임무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완벽하게 체계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4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를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상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화의 본거지로,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인류교육사상발전에서 하나의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위치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교육사업을 거대한 인간개조사업으로 보고 인간개조사업의 본질을 사상의식의 개조로 보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심오하게 구현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새세대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며 민족간부를 키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학교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임무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학교의 임무에 관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교가 교육행정사업을 훌륭히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며 특히 모든 교육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할데 대한 독창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50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것이다.

교육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한다는것은 교육학적과정의 첫공정인 교육강령을 만드는 사업을 잘하며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며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

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하며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소화정도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이 기술공정을 필요로 하는것처럼 교육도 반드시 교수준비과정, 교수과정, 교수내용의 소화과정과 소화정도에 대한 검열과정 등의 교육학적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장에서 기술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오작품이 나오는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교육학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훌륭한 혁명인재를 키울수 없다.

교육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할데 대한 위대한 테제의 사상은 지난날 교육학을 무시하고 낡은 관습과 경험에 의하여 주먹치기로 진행하던 범백교육의 잔재를 완전히 가시고 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엄밀한 과학적체제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하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테제는 또한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엄격한 교육규율을 세우는 문제를 비롯한 교육행정사업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테제는 학교가 교육행정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한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그들의 과외생활과 정치적조직생활까지 책임적으로 지도하며 사상혁명의 기관,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학교의 임무에 관한 사상은 교육행정사업으로부터 학교관리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의 본보기로서의 사회주의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면모를 뚜렷이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임무뿐 아니라 또

한 교원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결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우와 같은 책, 53페이지)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육사업의 주인은 교원이다.

교육사업의 주인인 교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때에만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테제에서 교원들의 임무와 과업을 명시하시었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첫책자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이와 함께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테제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후대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교원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교육테제는 교원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교원들을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혁명화의 기본방도들을 밝혀주었다.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교원

물앞에 나서는 과업은 또한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빛내이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교육체제가 밝힌 원대한 과업을 실현하는 『근본교리는 결국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기의 전공과학분야의 지식을 깊이 체득하며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교육 이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테제는 또한 학생교양에서 학교사로청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의 역할을 높이며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교원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사상은 교원들에게 직업적인 혁명가의 높은 영예를 안겨줌으로써 한갓 밥벌이를 위하여 자기의 지식을 팔지 않을수 없었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고용자적처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할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 지

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우와 같은 책, 56페이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당의 지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교육사업이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이 당의 령도를 떠난다면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을뿐아니라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조성되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를 철저히 극복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은 마땅히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사회주의교육을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그 중심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심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56페이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그 중심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당이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며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그 중심이 똑똑히 밝혀져야 당이 교육사업을 아무런 편향없이 옳게 지도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식화하신바와 같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전적정식화에는 무엇보다도 당이 교육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당조직들을 움직이며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로 옳게 이끌어야 한다는 사상이 밝혀져있다.

이로부터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적지도의 중심을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데 두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그 중심에 관한 사상은 당이 교육사업을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아무런 편향없이 잘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고 사회주의교육이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더욱 힘있게 발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당조직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들이 학교들과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며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교원들과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학교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며 대학생모집사업을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에서 옳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당조직들이 교육사업을 지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은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 사업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우와 같은 책, 59페이지)

대학에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당원들이 집결되어있으며 학부와 강좌 그리고 학생들속에 당조직들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만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자립적으로 조직집행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 사업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기본임무에 따라 자기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학이 민족간부양성기지로써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을 자그마한 좌우경적편향도 없어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체제에서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에 관한 사상과 여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59페이지)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판연되는 사회주의국가의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국가적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전인민적교육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따르는 방대한 물질적보장조건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교육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들에 기초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을 위한 물질적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교육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요구가 더욱더 높아간다.

교육을 위한 이 모든 수요는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국가만이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도 장악지도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의 책임적인 보장에 의해서만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풀릴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육

사업을 책임지고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의거하여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국가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 사회교양시설을 잘 꾸리는 문제 등 국가앞에 나선 과업들을 밝히심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체제에서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에 관한 사상을 밝히시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60페이지)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교육사업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후대교육사업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서 모든 사회성원들이 책임적으로 돌봐야 할 영예로운 사업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지원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더 잘 키워낼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고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될 때 사회주의교육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할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위대한 교육체제의 요구대로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회

적지원운동을 널리 벌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 단체가 되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출판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 출판되는 도서들과 새로 생산되는 기계설비들 가운데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에 먼저 보내 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은 튼튼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 관한 사상과 함께 사회주의교육학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은 완전한 과학적토대 위에서 진행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교육으로서의 더욱 완성된 자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 내용과 방법이 정확히 밝혀서도 정연한 교육체계와 교육지도체계가 서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자기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할수 없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사상을 완벽하게 밝히심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또한 교육사업이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과 교육기관들뿐아니라 당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다 공부시키는 《배움의 나라》로, 전체 인민이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주인공답게 참가하는 참다운 《교육의 나라》로 전변될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교육테제에서 밝히신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교육실전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키는 주체의 경제관리체제

리 동 근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대안의 사업체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대안의 사업체제를 내오신 때로부터 한때동안에 이룩된 커다란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시어 새로운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인 대안체제의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 관리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지난날의 낡은 기업관리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의 사업체제의 본질적특징이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대규모사회주의생산의 특성에 맞게 기업관리에서 집체성을 보장하고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 종합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보장부서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킨 우월한 사업체제라는것을 가르쳐주시었으며 대안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도 주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몸소 대안의 사업체제를 창조하시고 그 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문제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여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었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제야말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제이며 대안체제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켜나갈 때 생산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

*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조직사업을 옹제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옹제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옹제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균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
 (《김일성저작집》 제4권, 제2판, 227페이지)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은 사회주의 경제판리의 유기적인 두 측면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별적자본가들의 리윤추구와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이지만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판리가 실현되며 경제가 목적의식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판리에서 정치사업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 생산과 경제판리에서 온갖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며 경제조직사업은 근로대중이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양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나타내게 하는 경제기술적인 사업이다.

정치사업은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으며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이 선행되어야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는 치밀

하고 실속있는 사업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은 다같이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밀접히 련관된 사회주의경제판리의 두 측면으로 된다.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자각적열성과 창조성을 내어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며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힘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정치사업은 사회주의경제판리에서 선차적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경제조직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경제조직사업을 떠나서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옹제 결합시키는것을 우리 당이 견지해야 할 일관한 방침으로,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조직사업을 옹제 결합시키는것

을 기본요구로 하고있는 경제관리체제이며 그것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경제관리체제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이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대안체제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제라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제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15페이지)

대안의 사업체제에 일관되어있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이며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중령도의 원칙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게 된다.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정치사업을 하여 그들의 혁명적자각을 높

이는것과 함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을 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계획과 실행방도, 방법론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게 할수 있으며 사업조건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오직 생산에 집중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하는것은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로, 대안체제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로 된다.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이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대안체제가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라는것과 관련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어있으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전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나라와 인민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사상,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을 키워주는 정치사업과 전사회적범위에서 근로자들의 공동로동을 고도로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자면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키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제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키는것을 요구할뿐아니라 그것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제에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하여 밀접히 결합된다.

대안의 사업체제에서 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의 집체적지도기관이며 정치적지도기관이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매 시기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세우며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맞게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하고 행정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당조직들은 당원들을 움직이고 당원들은 근로자들을 발동시켜 모두가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달라붙게 하며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는 또한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모여앉아 자기가 맡은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통일적으로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장한다.

대안의 사업체제에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옹은 결합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제에 의해서도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제는 생산자들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 사업체제이며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는 지도체제이다. 이것은 간부들이 생산자물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정치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제때에 하여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한다.

간부들이 생산자물속에 들어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와줄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는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킬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제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킴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게 결합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풀기함으로써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적지도가 본질상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도맡아하거나 행정식, 명령식으로 사업하는 편향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시였으며 당조직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생산자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당면한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킨데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해나가는 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생활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있으며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이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유기적결합을 보장함으로써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행정경제일군들도 정치사업을 널리 벌일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간부들은 정치일군이건 경제지도일군이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사업방법으로 일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59페이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정치사업은 정치일군들뿐아니라 경제지도일군들도 적극 참가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방대한 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뿐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도 적극 동원되어야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또한 행정경제일군들을 정치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

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포치하든지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한 다음 경제조직사업을 하는것이 제도화됨에 따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는 보다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양양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경제조직사업의 내용과 그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여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전개하여 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을 기본요구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곧바른 길을 따라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대안체계의 본질과 기본요구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조직전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투쟁정신입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여러가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서고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 문제는 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안체계의 본질과 기본요구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해야 하며 정치사업과 경제실무사업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자기 맡은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지 않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기된 경제과업의 수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립창에 튼튼히 서야 하며 어력을 때일수록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더욱 끈지게, 기동적으로 함으로써 난판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있다.

일군들이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대로 사업하여야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기술적조건의 보장정형, 후방사업정형을 비롯한 아래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장악할수 있으며 그에 맞게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특전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며 생산자대중의 심장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는 정치사업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은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없으며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우리 나라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의 사상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조직전개하여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융게 결합시키는데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경험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당일군은 당사업을 잘하고 행정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잘하며 당비서를 비롯한 당일군들과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이 굳게 합심할 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이 밀접히 결합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들은 당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과 행정식사업방법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당조직사상생활을 잘 지도하여 행정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맡어주도록 융게 이끌어주어야 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이 자기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치적으로 잘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경제일군들은 당위원회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적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며 당사업방법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끈지게 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감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기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고 승 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주신 일련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실태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생활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기름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그들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름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현대적인 옥살공장과 침출식기름공장, 배합먹이공장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웠던 때에는 기름이 적어도 참았지만 지금은 기름도 더 먹어야 하고 고기와 소젖도 먹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45페이지)

기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무엇보다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남새와 물고기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린 조건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매해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식량에 대한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많은 예비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식물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남새와 물고기 문제도 기본적으로 풀렸다.

주식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중요한 부식물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오늘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것은 먹는기름이다. 우리

인민들이 쌀과 물고기, 남새를 많이 먹는 조건에서 기름을 더 많이 생산공급한다면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늘어나는 영양물질에 대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나갈수 있게 된다.

기름생산을 늘이는것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전선을 다그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먹는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공업용 기름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우리는 여러가지 일용필수품과 철강, 유화제 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하며 공업제품과 전설물의 질을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기름생산을 늘여야 할 중요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강령이를 가공하여 먹는기름을 생산하며 쌀겨로 공업용 기름문제를 풀데 대한 기름생산방침을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강령이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가공하는 문제가 긴절하게 나르고있습니다. ... 강령이를 가공하여 전분, 당분, 기름 등을 골고루 빼먹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65~56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원료와 우리의 기술, 자체의 튼튼한 기름생산기지에 의거하여 기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이와 쌀겨에서 기름을 얻을데 대한 방침은 무엇보다 벼와 강냉이 농사를 완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기름을 도처에서 생산하여 거

름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기름원료에는 콩, 들깨, 참깨, 유채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기름나무림을 조성하여 기름을 얻을수도 있다.

그러나 강냉이와 쌀겨에서 기름을 얻는것은 콩, 들깨, 참깨, 유채와 같은 수확고가 낮은 기름작물을 심거나 기름나무림을 조성하여 기름을 얻는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짧은 기간에 기름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강냉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눈에는 48~52% 또는 그이상 기름이 들어있다. 강냉이기름기름들만 높인다면 한해에 수백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하는 우리 나라에서 많은 기름을 얻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곡산공장들이 꾸려져있으며 이제 옥살공장과 침출식기름공장, 배합면이공장까지 더 완비해놓는다면 강냉이를 가공하여 기름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특히 강냉이와 쌀겨에서 기름을 얻는 공정이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에서 공업화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많은 기름을 생산해낼수 있다.

강냉이와 쌀겨를 가공하여 기름을 생산할때 대한 방침은 또한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도 알곡생산을 계속 늘이면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름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과 기름 생산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한다. 알곡생산을 늘인다 하여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름생산을 꺾어버릴수 없으며 기름문제를 푼다 하여 알곡생산을 줄일수도 없다.

알곡과 기름 생산을 다같이 늘이자면 알곡생산을 계속 장성시키는것과 함께 기름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

다. 그래야 기름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으며 기름생산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식료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냉이와 쌀겨에서 기름을 얻을데 대한 방침은 알곡생산을 계속 늘이면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먹는기름과 공업용 기름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강냉이눈과 쌀겨를 원료로 하여 기름을 생산하면 기름작물을 따로 심거나 많은 외화를 주고 기름원료를 사오지 않아도 된다. 강냉이와 벼 재배과정이 곧 기름원료생산과정으로 되므로 주작물인 강냉이와 벼 생산을 계속 늘여나간다면 많은 부침땅과 영농자재, 로력을 들이지 않고도 기름원료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강냉이와 벼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조건에 맞으며 농업생산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파악된 다수확작물이다. 입쌀과 강냉이는 우리 인민의 주식물로 앞으로 계속 생산을 늘여나가게 된다.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강냉이에서 눈을 분리하고 쌀겨를 거두면 기름원료는 넉넉히 보장될수 있다.

강냉이를 가공하여 기름을 생산할때 대한 방침은 또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에 대한 근로자들의 식생활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오늘 근로자들의 생활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질 좋은 소비품과 영양가 높은 식료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강냉이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바로 근로자들의 식생활의 늘어나는 요구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강냉이기름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으며 식료가공에서 고유한 향미도 보존한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근육, 심

장, 혈액순환계통을 튼튼히 하는데 좋으며 동맥경화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흡수율도 매우 높다.

강냉이기름은 직접 먹는외에 통조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을 만드는데도 많이 쓰이며 기름을 잔 깨묵은 과자, 된장을 만드는데도 리용된다.

그러므로 강냉이기름을 많이 생산하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식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으며 그들의 식생활을 한층 더 개선해나갈수 있게 된다.

참으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기름을 생산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기름생산방침이다.

강냉이와 쌀겨를 가공하여 기름을 짤데 대한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은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여러가지 기름작물재배와 기름나무림조성이 가지는 경제효과성과 생산기술적특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늘어나는 기름수요를 빨리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냉이를 가공하여 기름을 얻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으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새 조국 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곡산공장 기름지장을 찾으시고 강냉이기름은 좋은 기름이며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우리 인민들에게 이런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자고 하시면서 기름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도마다 곡산공장, 옥살공장을 건설하여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의 기

술경제적특성과 인민들의 식량과 공업원료 해결에서 강냉이생산을 늘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강냉이는 발곡식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강냉이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냉이와 쌀겨로 기름을 생산할데 대한 방침에는 국가건설로부터 인민생활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풀어나갈데 대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히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강냉이를 가공하여 먹는기름을 생산하며 쌀겨에서 공업용 기름을 얻을데 대한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는 기름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 식료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할수 있으며 일용필수품생산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게 된다.

*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생산공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관철하여 짧은 기간에 기름생산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어있다.

우리에게는 강냉이기름과 쌀겨기름생산을 위한 본보기단위를 꾸려주시고 몸소 방식상학까지 조직하시면서 기름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식료혁명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 위력한 기계공업과 도마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큰 규모의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주체농법이 관철되어 해마다 대풍이 이룩됨으로써 기름생산원료인 강냉이와 쌀거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기름생산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우리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각 도 곡산공장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많은 강냉이를 가공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곡산공장들이 거의 모든 도들에 꾸려져있다. 이 공장들만 잘 운영하여도 많은 기름을 생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곡산공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빨리 높이는 한편 강냉이와 연료,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믿음직한 식료혁명기지로서의 곡산공장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옥쌀공장들에서는 그 중심공정인 강냉이눈가름공정을 현대화하여 강냉이눈을 모조리 거두며 기름거름물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간지제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옥쌀공장들과 배합먹이공장들의 정비보장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며 침출식기름공장건설공사도 빨리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강냉이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큰 공장들은 물론 협동농장정미소들에서도 강냉이눈거름공정을 잘 갖추고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모조리 거두어 기름생산공장에 책임적으로 보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냉이눈을 떼내어 기름을 짚수 있는 공장들을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다.》(우와 같은 책, 566페이지)

지금 있는 곡산공장들을 잘 관리운영하는 한편 인민들의 기름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옥쌀공장, 침출식기름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름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꾸리고 빨리 은을 내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설계를 시공에 앞세워 질적으로 보장하며 설비생산을 맡은 기계공장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그것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옥쌀공장, 침출식기름공장 설계를 맡은 설계부문일꾼들이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표준설계를 만들어 보내준다면 여러 건설장들에서 적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가지고 공장건설을 빨리 다 그칠수 있다.

기름생산 공장과 설비를 설계하는 이 부문일꾼들은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모든 공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발적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설계를 시공에 앞세워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설비생산을 맡은 중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강냉이눈가름설비, 착유기, 침출기를 비롯한 기름짜는 설비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기름혁명을 위한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수행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충성의 지원전투에 적극 참가하여 계획에 맞물린 기름짜는 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놓고있는 설비와 쓰지 않고있는 자재를 동원하여 기름공장을 꾸리는데 보내주어야 한다.

옥쌀공장을 비롯한 기름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 국가

예비물자까지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자재공급부문, 금속공업부문, 전제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려하여주신 자재들을 기름공장건설장과 설비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 빨리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들에서는 기름생산공장들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정확히 타산하고 생산에 빈틈없이 맞물리며 자재공급부문 일꾼들은 공사진행 단계와 순위에 맞게 자재들을 제때에 현장에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강냉이생산을 늘여 기름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료기지가 튼튼하지 못하고는 생산을 정상화할 수도 없으며 늘일 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48페이지)

강냉이를 발곡식의 왕으로 계속 내세우고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큰 힘을 넣는 것은 알곡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름원료를 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냉이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강냉이종자를 끊임없이 개량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찍 여물고 이삭이 크게 달리며 바람에 잘 견디는 좋은 강냉이종자를 만들어냄으로써 강냉이생산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선 올해 풍작을 이룬 강냉이를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빨리 거두어들여 각 도 곡산공장들을 비롯한 이미 꾸려진 기름생산공장들에 책임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공업용 기름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공업용 기름문제를 풀어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기름을 넉넉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먹는기름을 공업용으로 쓰는 일이 없게 된다.

공업용 기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대로 시, 군마다 기름공장을 잘 꾸리고 지방의 기름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생산을 늘여야 한다. 매개 정미소들에서는 쌀겨를 기름원료로 쓸 수 있게 잘 골라내어 침출식기름공장들에 책임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기름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당의 기름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기름생산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름생산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기름생산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훈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선 차 적 문 제

조 명 일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당면과업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앞서 제1차적으로 민족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의 통일에 관한 사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거족적으로 동원하여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며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정확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리정표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민족적통일에 관한 사상과 방침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

*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가 서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민족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두번째문제라고 생각합니다.》(《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2페이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한다는것은 하나의 민족안에 존재하고있는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 신앙을 당장 하나로 합칠수 없는 조건에서 제도와 신앙,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고 민족적공통성을 찾음으로써 끌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이룩하기전에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뉴태를 회복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민족의 통일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관련된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가 서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북과 남은 30년이 넘도록 국경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분열된채 서로 대치되어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제도문제, 사상과 신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군사분계선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일정한 난관이 있을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릴수 있다.

지금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먼저 북과 남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호상 편제와 합작을 실현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수 있으며 통일운동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수 있다.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사상과 리념, 제도상의 문제가 정면에 나서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대련합을 실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는 문제가 기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제도와 사상, 신앙을 초월하여 먼저 민족적통일부터 실현하여야 한다.

비록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가 서있고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지만 그것은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결코 문제로 될수 없다.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을수 있고 한 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 나라의 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파업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만 견지한다면 우리는 제도상의 차이, 사상과 리념의 차이가

있다 해도 얼마든지 민족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같은 말과 같은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며 같은 혈육이다. 하나의 언어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이란 없다.

특히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 로물화되고있는 사정은 민족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분열을 고착시키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민족영구분열의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영원히 둘로 갈라지느냐 아니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 엄중한 시각에 나라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세우는것은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기본로정으로서 민족통일문제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우와 같은 책, 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련방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고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들의 사회제도를 우리에게 강

요하지 않는 기초우에서 제도와 신앙,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전민족적인 련방정부를 세우자는것이다. 남북련방제는 현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광범한 분야에 걸쳐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협의조정해나가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는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한다.

남북련방제는 본질상 북과 남사이의 높은 형태의 정치적합작으로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그것은 또한 민족이 일시적으로 갈라져있고 북과 남사이의 사상, 리념, 제도상의 차이가 현저해진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간절음으로서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영구한 민족적 및 국가적 련합형식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련방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우리 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할 련방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는것을 막고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는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민족대련합안것이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있는것보다는 련방제라도 실시하여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익합니다.»(우와 같은 책, 44페이지)

남북련방제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고통은 단일민족이면서도 인공적인 분열로 인하여 나라의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북과 남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민족의 영구분열을 피하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게만 리로울뿐이며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가시고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에로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련방제가 이루어지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비롯한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기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단일국호를 가지고 공동으로 진출할수 있다.

남북련방제의 실시는 또한 북과 남사이의 호상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전면적인 합작과 민족적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진제는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반목, 대결이 지속되고 장벽이 막혀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적단합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게 되면 북과 남사이에 오랫동안 쌓이고쌓인 불신과 맹랑한 감정은 가셔지고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가 부분적으

로나 또는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련방기구의 통일적인 협의조정밑에 폭넓게 전면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될것이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또한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뿐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갈수 있게 할것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팽배하게 맞서있는 군사적대치상태는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을 유발시킬수 있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된다. 북과 남사이에 전면적인 합작이 실현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게 되면 군비경쟁과 무력증강도 필요없게 되며 전쟁의 근원자체가 없어지게 될것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할것이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더우기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나라의 위력은 강해질것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공동으로 지켜낼수 있을것이다.

이처럼 남북련방제는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도 민족적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다.

완전한 통일으로 가는 파도적조치로서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수 있게 될것이다.

남북련방제는 민족자주세력과 사대매국세력사이, 민주세력과 파쇼세력사이, 련공세력과 《반공》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남북련방제를 거쳐 민족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남북련방제는 우리 인민자신의 주체

적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며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로 된다.

남북련방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0년이 넘도록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해왔으며 오늘도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지향을 가로막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이 중지되어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남북련방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남북련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분열된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74페이지)

남북련방제는 민족적단합에 기초한것으로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될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원래 련방제에는 어느 특정한 세력들만 망라되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각 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쇼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을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협의조정할수도 없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련방기구내에서 협상도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고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태왕도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민족적단합에 기초하여 남북련방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북련방제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두 정권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합작형태로서 여기에서 기본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에 련합을 실현하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공화국 북반부에서 공산주의사상은 전체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찬란한 미래를 비쳐주는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민족적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은 한갓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려면 《반공》을 그만두고 련공하는 길밖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과 제도상 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북과 남사이의 련합은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민족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로서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려면

남조선에서 련공정부가 나오든지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이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든지 하여야 한다.

련공하는 조건에서 련방기구가 나오고 남북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족적단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의 방법으로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게 될것이다.

*

*

남북련방제를 거쳐 민족적통일을 실현하고 나라의 완전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위업은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한층 더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민족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7년 제11호(무제 42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세 • 1977년 11월 1일 발 행 • 1977년 11월 5일

7-75284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50편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2101

6-11310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1977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2)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자.....(9)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대법전.....리기섭(19)

고등의무교육제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
하기 위한 근본방도.....남진우(26)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박성엽(32)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다.....조동월(38)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김정련(44)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그린 빛나는 예술적화폭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 대하여—.....허백산(50)

온갖 향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
하는것은 뿔뿔불가담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리화선(56)

1977년도 《근로자》 차례묶음.....(6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번 주권기관선거는 우리 공화국정권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하나의 커다란 리적표로 된다.

특히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고 전체 유권자들이 선거에 100% 참가하여 모든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100% 찬성투표한것은 어버이수령님을 해와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충고한 충성의 표시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한결같은 혁명적의지의 발현이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전과정은 실로 영생불멸의 주체의 해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숭고하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얼마나 순결하고 공고한가 하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반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필승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그것은 어떤 사나운 광풍에도 드눌지 않고 오직 수령님만을 하늘땅이 다하도록 끝까지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념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굳게 뭉쳐 전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참다운 면모이며 여기에 우리 혁명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할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강철의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된 힘을 가지지 못함으로 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피눈물나는 설움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망국노의 슬픔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쳤던 그전날 인민들은 항거의 기치를 들고 반일애국투쟁을 즐기차게 벌리였으나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 하여 가슴아픈 희생만을 남기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수난의 시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할 대신 대중과 리탈하여 개인의 공명과 권력다툼에만 몰두하였다.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모태기던 조선혁명과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목마르게 기다렸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력량의 참다운 통일단결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선혁명의 이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절한 숙망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심으로써 망국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조국강토위에 민족재생의 빛날이 밝게 비치었으며 우리 인민은 수천년의 민족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었고 목절망던 조선혁명은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것처럼 기다리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을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참다운 정치사상적통일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혁명투사들과 해방후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을 곳곳이 걸어온 오랜 당원들,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인민들은 나서 자란곳이 서로 다르고 서있는 혁명조소도 같지 않지만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지향으로 굳게 결합된 사상의지적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이처럼 순결하고 공고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일원단심 수령님만을 믿고 충성으로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혈연적뉴대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1페이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서만 빛나게 실현되며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완성된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간다.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낡은 사회의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수령의 정도를 떠나서는 혁명대오의 참다운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인민대중과 혁명투쟁자체의 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쳐 충성의 한길을 걸어가는 끝없는 궁지와 영예를 지닌 인민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인민들은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끝없이 따르는, 아버지수령님과 인민의 가장 순결한 혈연적인 뉴대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것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필승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의 기초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땀과 열수 없는 혈연적인 통일단결의 바탕에는 조국과 인민, 인류해방위업 앞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아버지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크나큰 온정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인민, 조선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였으며 조국청사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반세기의 영광찬란한 혁명로정은 현대력사의 가장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위업을 성취하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영광의 력사이며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덕성

의 력사이다.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반영하시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올바른 지도사상을 밝혀주시였으며 시대와 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었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단행본, 8페이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올바른 지도사상, 항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새로운 높이으로 비약하고 멀리 전진하게 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짓누르던 온갖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은 현

실로 전환되게 되었고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혁명적열의가 높이 나래치게 되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변혁과 혁신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힘있는 사상적무기가 마련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력사의 생소한 길을 헤치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갔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만 곧바로 이끌어 나갈수 있었다.

이처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거창한 혁명실천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

그러기에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해불》이라고 부르면서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생활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거창한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끊임없는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열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부강하고 통성변영하는 그 누구도 숙불수 없고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실로 이 땅위에 빛을 뿌리는 모든것, 가장 권위있는 주체형의 당과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혁명주권도, 우리의 온혜로운 사회주의제도도, 힘있는 자립경제와 찬란히 꽃피는 민족문화도,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도 그 어느것이나 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에서 나서는 수많은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에 가장 명석한 해답을 주시고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자주, 자립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자주의 시대적추세속에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투쟁으로 그것을 개척해나가야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고귀한 진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세계, 변영하는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싸우는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연렬히 흠모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 속에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는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고결한 인민적수령의 품모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버림받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와 국가의 어엿한 주인으로 키워주시었으며 그들에게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없이 꽃피워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그 어느 세대도 지너본적 없는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고귀한 생명이다.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시며 크나 큰 온정과 배려를 베풀어주오계신다.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그 모든 위대한 변화,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우리 근로자들이 누리고있는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아버지 수령님의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뜨거운 사랑과 헤아릴수 없는 로고가 깃들어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어두운 남녘땅과 이국만리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으며 해외동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민족적권리와 존엄, 사회주의조국을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혜로운 품을 떠나서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그 높은 영예와 존엄, 삶의 참다운 보람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세상에 부럼없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류력사는 수천수만년을 헤아리지만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위훈을 높이 쌓아올린 그러한 위대한 수령의 전기를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을 이처럼 귀중히 여기며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애로운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알지 못한다.

진정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이루어진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만 결부시키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다해나가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영예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은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역사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다함없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있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영원히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이며 드물지 않는 혁명적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고 충성다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자기들의 혁명적본분으로,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드높은 충실성은 수령님을 영원무궁토록 따르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의 높은 자각에 기초한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주신 은혜

로운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의 발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뜨거운 충실성이야말로 이처럼 순결하고 진실하며 영원불변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여기에 은혜로운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융성과 번영을 이룩하며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끝없이 꽃피워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이러한 충성의 신념에 기초하고있으며 아버지수령님과 인민대중이 한몸이 되어 전진하는 혈연적인 통일인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 있다.

력사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혈연적으로 결합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 사회보다 더 통일단결된 그러한 사회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전당, 전민, 전군이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뜨거운 충성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며 필승의 힘을 가지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굳게 뭉쳐 위대한 통일단결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혁명의 험난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굳세어진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가장 공고한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전백승의 힘을 지닌 불멸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실현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전당과 전

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불패의 통일단결이 실현된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 주체조선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위대한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여러 단체의 혁명과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고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융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웠기에 우리 인민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키려고 덤벼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할수 있었으며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산악같이 일떠서 나라를 더 훌륭히 건설하고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바람을 일으켜 남들이 백년! 또는 수백년 걸려서야 해낸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이씨-121>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을 때에도 끄떡하지 않고 맞서 놈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길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만년

대체의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업 생산의 새로운 비약을 이룩한데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한손에는 경제를, 다른 한손에는 군사를 튼튼히 들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 산도 가르고 바다도 메우는 무적의 힘, 만능의 힘을 지닌 이 위대한 통일단결된 힘이 있는 이상 우리앞에는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는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혁명대오의 강력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으며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힘있게 벌임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

까지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본받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며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실속있게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설계도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통일단결된 힘을 남김없이 시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 만세!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있으며 널리 파급되고있다.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자주의 기발이 힘차게 나뭇기고있으며 자주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세계의 역량관계는 물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이처럼 거세찬 힘으로 장성발전하고있는것은 자주사상이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보편적진리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실로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로 부르는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자주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이미 조선혁명과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끝없는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으로 불러일으키고 그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가르쳐줌으로써 인민대중을 자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이지)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으며 자주성이 깃뻛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간다.

사람이 정치적자주성을 잃으면 남의 노예로밖에 될수 없으며 민족이 자주성을 빼앗기면 식민지적예속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깃뻛고 억누르는 모든것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착취사회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과 예측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깃뻛히고 말살된다. 착취와 압박 그로 인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착취제도와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한다.

착취와 압박이 있고 자주성이 깃뻛히는곳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사람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과 같은것이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측되거나 민족적존엄이 깃뻛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이 없으면 모든것이 다 소용이 없다. 독립도 좋고 평화도 중요하지만 자주성이 없는 <독립>이나 <평화>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견지하면 오늘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어도 래일은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보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이 더 영예로운것으로 된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매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조선사람이 주인이며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이 주인이지 결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주인으로 될수 없다. 아프리카의 주인도 아프리카사람들자신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주인은 그곳 인민들이다.

자주성이 보장되고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 노릇을 똑똑히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의 힘을 빌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며 남의 덕에 잘살아보자고 바라서는 언제가도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없으며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할수 없다.

물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러나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자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며 결코 다른 나라의 <보호>와 <지도>에 의거할수는 없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는 다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자주성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서로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건전한 국제관계를 유지할수 있으며 진실로 동지적이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뿐 아니라 세계혁명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그 나라 당과 인민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국제적임무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면 그만큼 세계혁명의 승리도 앞당겨진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지향으로만 되어온 자주의 리념은 우리 시대에 와서 빛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측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단행본, 33페이지)

오늘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억압당하고 멸시를 받아오던 아

2

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이미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자주의 시대적추세속에서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있으며 세계의 변모는 근본적으로 전변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켈력불가담운동이 확대강화됨으로써 세계혁명력량은 더욱더 유리하게 재편성되었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었다.

자주의 길로 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그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사회주의나 라인민들과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인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에게 오만하게 지시하고 호령하던 때는 영영 지나갔다.

국제무대에서 이제는 발언권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넘어왔다. 오늘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명맥을 틀어쥐고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이고있으며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해나가고 있다.

최근의 사태발전은 중요한 국제문제 해결이 제국주의자들이 야망하는대로가 아니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자주성을 전지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확고한 지도리념으로 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보편적진리로 되고 있다.

오늘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은 자주성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온갖 낡은 사상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상정신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단행본, 3페이지)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 그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근본속성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추동한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질수록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들을 노예적굴종사상과 교조적 사고방식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아질수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며 오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자기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은 자주의 리념을 구현하는데서 선결적인 문제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못가지면 확고

한 신념이 없이 남의 주장에 흔들리게 되며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마비되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바람부는대로 흔들리면 아무런 창발성과 적극성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되며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불구자로 되고 만다.

사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때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공적 참여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다.

사람들이 사상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6페이지)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이 자라나면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고 혁명성이 마비되어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고 남에게 잘보이기 위한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대주의사상은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들어 제국주의자들에게 통괄당하게 하며 결국 그들의 희생물로 굴러떨어지게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작은 나라 인민들속에 사대의존사상을 부식시켜 그들의 민족자주정신과 혁명의식을 말살함으로써 침략을 위한 사상적지반을 닦으며 결국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아버린다.

제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걸탁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매국의 흥정이 벌어지고 망국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억눌려도 자주정신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자주정신을 꺾듯이 가지고 일떠서 싸워나간다면 일시적인 난관은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을 뿌리뽑고 자주정신을 높이는 문제는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 밑에 있던 나라들과 작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 인민들이 제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듯이 떠벌이면서 사대의존사상을 류포시키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신식민주의의 울가미에 얹어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꾀변과 미사려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농들의 침략적흉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대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일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지반이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상정신적으로 자유로울수 없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서로 련관되어있다.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사대주의가 나오기 마련이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에 주인공적 참여할수 없다. 따라서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정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가시기 위해서는 자기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자기 나라의것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나라마다 민족적특성과 구체적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정책이 모든 나라에 다 맞는 만능의 처방으로 될수는 없다.

매개 나라의 당정책은 그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적

지침이다. 자기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외부로부터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에 오염되지 않으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 수 있다.

또한 남의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하며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훌륭한 업적과 귀중한 성과들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오직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정신을 가질 때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자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다.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사대주의가 오래동안 배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나라들이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보다 과학과 기술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자체의 힘으로 꾀꿉이 걸어 나가는 나라들에서는 사대주의가 배겨낼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림으로써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다.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고있던 사대주의사상의 멍에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적정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자로 하여 사고하며 행동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체제에 기초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정열과 락판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눈부신 비약이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하고있는 끊임없는 혁신과 위대한 비약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일떠설 때 얼마나 큰 힘을 나라내는가 하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오직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정신적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민족자주의식을 높일 때만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독립과 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3

자주성은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천행정에서 구현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인민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

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확고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이지)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민족이 반드시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정치에서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절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들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고수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과 로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 정신을 가지고 풀어나갈수 있으며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아무런 편향없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실사 주관적으로는 옳은 정치를 실시하려고 하여도 자기의 독자적인 지도사상이 없으면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갈수 없다.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한다.

정치적자주성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남을 예속시키는 민족은 결코 자신도 자유로울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누가 다른 나라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지킬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힘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7페이지)

정치적독립은 경제적자립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되며 경제적자립이 없는 정치적독립이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경제를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일수 없으면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수 없다.

경제적의존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존을 가져오며 경제적예속은 필연코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하는것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을 낳는 실제적기초를 없애고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이다.

나라의 경제적기초를 튼튼히 하고 인

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 해주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그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라의 통성변영을 빨리 이룩할 수 있다.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오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로부터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허울 좋은 《원조》를 통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꾀당기며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다시금 틀어쥐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자체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를 막아내고 그들의 신식민주의적 음모를 끊어버리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내걸고 인민들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세계가 민족국가단위로 갈라져있고 더우기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보위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 요구이다. 안팎의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옹호보위할 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은 자체의 튼튼한 국방력을 마련하여야만 제국

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깊은 상처를 빨리 가시고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체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주체적인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혁명적인 민족예술을 창조하여야 한다.

오직 제국주의자들이 오래동안 부식해놓은 썩어빠진 반동문화의 유물을 깨끗이 없애고 그들의 끊임없는 사상문화적공세를 철저히 막아낼 때 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 위에서 꽃피워나갈 수 있으며 인민의 슬기와 지혜를 높이 발휘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다.

이렇듯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떼땀이 지키며 자체의 힘으로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는 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과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진 자랑스런 현실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새기적락후를 없애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0~171페이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첫걸음부터 매우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남은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다. 파괴된 공장과 황폐화된 농촌, 혼란된 운수기관과 령

빈 굶고, 바로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물려준 《밀천》이었다. 우리에게서는 나라를 관리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그것을 맡아수행할만한 민족간부의 부대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해불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고 해방후 지체없이 우리 당과 함께 새형의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갇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이 파괴되어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전후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시여 우리앞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이 땅위에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릴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나라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의 모든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

으며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해방후 그토록 모자랐던 민족간부문제도 빛나게 해결되어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 기술을 가지고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빛나게 관철되어 우리의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무장대오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튼튼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명한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안팎으로부터 배격당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경제에서 자립을 이룩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는것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해준다.

4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국제문제에서도 철저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시대의 저세찬 흐름을 돌려세우며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더 요란하게 내세우고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침투와 정치적압력 그리고 공공연한 무력간섭으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을 위협하

고 있다.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은 세계의 곳곳에서 쟁탈전을 벌리면서 신흥세력나라들을 서로 꺼당겨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두려고 하며 팔력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을 분열화해시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흉악한 책동에 속지 말아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과피모략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단행본, 41페이지)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서로 단결하며 협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오늘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굳게 련결되어 있다.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그 어떤 리간책동도 그리고 이 나라들사이의 제도와 사상, 리념과 신앙의 차이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할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남을 희생시키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으며 그들은 오직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며 단결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련결되어 있다. 자주성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며 통일전선을 확고히 실현해나갈 때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간섭과 파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

리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또한 풍부한 자연부원과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를 한다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일시적난관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같이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자주의 리념은 국제무대에서도 전면적으로 구현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낡은 국제질서들을 없애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낡은 국제질서는 몇몇 제국주의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대다수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희롱하며 그들의 리익을 짓밟던 때에 세워진것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 제국주의자들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리용되어왔다.

이 저주로운 낡은 국제질서는 제국주의열강들에게는 온갖 전횡과 독단을 허용하였으나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에게는 아무런 발언권과 결정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질서에 의하여 오랜 기간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아왔으며 지금도 의연히 그것을 고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지배와 예측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낡은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진정한 자주권이 보장될수 없으며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수 없다.

세계의 매개 나라들과 민족들의 운명, 그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국제문제들은 절대로 제국주의와 신식민

주의, 지배주의 세력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자주성과 평등권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정치적자주권이 더욱 공고화되고 경제적자립성이 강화되며 이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마침내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이루어진 낡은 국제질서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면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대외활동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은 비상이 강화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함으로써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같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숭고한 위업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종일관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왔으며 자주의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투쟁을 벌려왔다.

조선혁명의 오늘의 승리는 바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의 승리이며 그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역사적투쟁과정과 오늘 우리 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움직일수 없는 보편적진리로 되며 오직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할 때만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시대와 역사의 흐름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뿐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는 자주성의 가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더 큰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더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자주의 리념을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대법전

리 기 섭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세차게 다그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발표 다섯돛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물을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확고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념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전반 체제와 내용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헌법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정당성과 우월성, 그 불패의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으며 이

위력한 법적무기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의 헌법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요구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국가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독창적인 헌법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법건설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으며 그 실천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방법론적지침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일관하게 관통되어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의 구성체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공화국헌법은 종래의 헌법들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창조한 독창적인 구성체제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0페이지)

헌법의 규제내용과 그 구성체제에 관한 문제는 헌법작성의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 가운데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문제를 옹계 해결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헌법의 사명과 창조적 역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종래의 헌법과는 달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그 구성체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을 기본으로 새롭게 설정하고있다. 이것은 낡은 립법방식을 철저히 극복한 독창적인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위력한 법적무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자주적존재로서의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담보될 때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안받침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그 폭과 범위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도록 넓혀야 한다. 그때야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활동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이끌어 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헌법구성체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제원칙을 위주로 하는것은 헌법작성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규제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는 사회주의 국가활동의 기본분야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 헌법규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을 기본으로 하는것은 립법실천에서 필수적요구로 되며 그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이러한 헌법규제의 근본요구를 옹계 구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을 위주로 하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체제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가장 우월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체제와 전반내용에 있어서도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새롭게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성격과 임무, 활동원칙들을 규정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350~351페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국가활동

과 근로자들의 생활준칙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이처럼 공화국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와 요구에 기초하여 매개조항들을 규제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하나하나의 조항들은 다 새롭고도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최고형태의 사회주의헌법의 본보기로 된다.

그것은 공화국헌법의 인민적성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복무자적역할에서 실천적으로 뚜렷이 실증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인 헌법입니다.』

(우와 같은 책, 356페이지)

노동계급의 헌법이 참말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자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그들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담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지향을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규제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명확히 규제하고있다.

주체의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새롭게 규제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더 확대되

여간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이 헌법적규제는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계급적성격과 그 본질을 명확히 밝혀주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더욱 폭넓게 실현시킬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특히 공화국헌법은 근로인민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도와 조건을 규제하고 국가가 책임적으로 그것을 보장할때 대한 엄격한 요구를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정치분야의 제원칙들을 폭넓게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건설에서 정치분야의 제원칙을 옳게 규제하는것은 헌법의 복무자적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법은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정치분야의 제원칙을 옳게 규제하여야 국가가 자기의 활동을 정확히 진행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노동계급의 법건설의 근본요구를 옳게 반영하여 국가의 성격과 임무, 국가활동의 기

본원칙과 지도사상 등 정치분야의 제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따라서 공화국정권으로 하여금 모든 로선과 정책을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준다. 이러한 헌법적규제는 또한 국가로 하여금 독재와 민주주의를 옹제 결합하고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과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뿐 아니라 국가기관사업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한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경제분야의 제원칙을 규제하고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며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국가정권과 함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져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때문에 경제생활의 제원칙을 법적으로 고착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복무할 사명을 지닌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이 문제를 옹제 해결하고있으며 사회경제생활의 제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주체의 헌법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그 호상관계, 발전방향,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방향 그리고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원칙과 국가의 경제관리형태와 지도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공화국헌법은 이와 같이 경제분야의 제원칙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틀 개선완성하며 생산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법적수단으로 적극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제원칙

들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문화생활은 사회생활의 기본분야의 하나를 이루며 그것은 정치, 경제 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상 중요한 요구이다. 문화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 영역의 필수적구성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문화생활을 떠난 사회적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인민대중을 낳은 사상과 힘든 로동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헌법을 작성하는데서 문화생활분야의 제원칙을 규제하는것은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 체육 등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쓸어버리고 근로자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문화분야의 제원칙을 새롭게 규제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을 뿌리뽑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제하고있으며 문화혁명수행의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국가기관체제를 새롭게 규정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석제를 새로 내용으로써 국가기관총체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키고있으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을 새롭게 창설하여 중앙국가기관체제를 가장 혁명적이며 우월한 국가정치지도체제로 꾸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복무자적역할을 더 잘 수행할수 있게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국가기관체제뿐만 아니라 지방정권기관체제도 새롭게

규제하고있다.

새로 규제된 국가기관체제에서는 종전의 행정주권기관이었던 지방인민위원회를 주권기관으로서의 인민위원회와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로 분리하여 인민회의와 그 휴회기간에 주권행사를 실현하는 인민위원회가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늘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정연한 유기체를 이루도록 그 체제를 새롭게 규제함으로써 공화국정권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숭고한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철저히 담보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대정치헌장으로,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의 본보기로 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사회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된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혁명투쟁

과 건설사업에서는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 당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사회주의헌법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끝없는 번영과 행복에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봉착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동일은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견고한것으로 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필승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체제에 따라 국가기관들이 새롭게 꾸려짐으로써 국가활동총체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게 되었으며 공화국정권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었다.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경제생활원칙과 문화생활원칙이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민족문화건설에서 거대한 혁명적양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방대한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훌륭히 점령하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졌으며 찬란한 민족문화꽃을 활짝 꽃피

우게 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사회주의헌법이 실천활동에 빛나게 구현되어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사회주의헌법이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법무생활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혁명적법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다.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기초하여 립법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법과 국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토지법과 같은 대기념비적인 부문법들이 제정되고 그밖의 국가법규들이 전면적으로 완성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근로자층에서 준법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국가 법규범과 규정들이 보충완비되고있으며 따라서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법생활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가 보다 튼튼히 확립되고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온 나라에 확고히 차넘치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자기의 복무자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이처럼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사업과 생활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법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실생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8페이지)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은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헌법의 주인이며 그 구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준법활동을 떠나서 헌법의 철저한 구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성실히 준수될 때 비로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될수 있다.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층에서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사상의식의 한 형태인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자각적인 준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자들의 목적의식적인 실천활동으로서 그것은 높은 준법의식을 전제로 한다.

헌법구현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준법의식을 가져야 헌법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려는 자각적인 태도와 혁명적 준법기풍을 옹고 세울수 있으며 헌법규범들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통제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목적의식적으로 철저히 구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법무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연, 해설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사상을 깊이 세득하며 그것에 정통하는것은 헌법을 준수집행하기 위한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과 함께 헌법에 담겨진 기본사상과 요구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졌다 해도 사회주의헌법에 담겨진 기본사상과 요구들을 알지 못하고는 그것을 정확히 준수집행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헌법에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그에 반영된 제반요구와 기본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며 그에 규제된 모든 조항들을 환히 통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준법의식을 좀먹는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이 아직 남아있는 사회이며 사회주의적준법의식이 확고히 서있지 못하고있는 사회이다. 이런 조건에서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법적통제를 안반침하여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헌법규범들을 성실히 준수하게 할수 있다.

헌법준수를 위한 법적통제는 또한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을 제때에 벌릴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을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그 공간적수단을 통한 헌법위반현상의 발

생을 적극 방지하는것과 함께 사소한 위법현상에 대해서도 제때에 타격을 주어 헌법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롭게 제정완성하는것은 주체의 헌법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헌법에 제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범과 행동준칙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427페이지)

부문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개별적인 부문법규범, 규정들과는 달리 국가사회생활의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만을 규정하며 따라서 헌법의 철저한 구현은 그것을 구체화한 부문법규범들과 규정들의 존재를 필수적요구로 한다.

부문법규범들과 규정들은 헌법에 규제된 기본행동준칙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것만큼 부문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완성하는 사업을 떠나서 사회주의헌법의 '철저한 구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경제문화기관들에서 헌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며 지금 있는 규범과 규정들도 새 헌법의 요구에 맞게 제정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고등의무교육제는 전반적인무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

남 진 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당, 전국, 전민은 보다 위煌한 레일을 그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고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전반적인무교육제도를 완성할데 대한 창조적사상을 내놓으시고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필수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고등의무교육제의 혁명적본질과 그 실시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깨닫고 테제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교육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1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공고완성하기 위한 과학적방도를 명확히 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실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실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인무교육제도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단행본, 38페이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인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전반적인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있는 전반적 11년제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40페이지)

사회주의교육은 과거사회에서 물려받은 교육에서의 모든 차이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면교육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직

접적담당자인 사람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그들을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하며 문화기술수준도 다같이 높여나가자면 전체 인민이 공부할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여야 한다.

소수특권계급이 모든 교육 시설들과 수단들을 독차지하고있는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초보적인 문화기술수준도 가질수 없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모두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은 오직 인민적교육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만 비로소 실현될수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완성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을 반영한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로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게 한다.

따라서 전반적의무교육의 실시는 사회주의교육제도확립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전반적의무교육제도가 세워지는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하고 진정한 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그들모두가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를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게 되여야 한다.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을 거쳐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학교교육의 마지막단계인 고등교육까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여야 전민교육의 혜택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받게 되고 전체 인민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전반적의무교육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반적고등의무교육제도에 관한 사상은 이렇듯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은 또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우와 같은 책, 40페이지)

착취사회의 유물인 정신로동과 육체

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고르게 발전시키는것은 공산주의사회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가 종국적으로 극복되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여 사람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나가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역사적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할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의 사상, 정신, 도덕적 품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전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된 인테리로 만들수 있으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앨수 있다. 이 령계 될 때 문화혁명의 과업은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다.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오직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정한 고등교육체제에 망라시켜, 그들이 고등교육까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고등교육을 의무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아야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기사, 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

이를 없앨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고등의무교육의 실시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담보되며 고등의무교육제의 실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고등의무교육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인테리로 자라나게 되고 인민경제 모든 분야의 로력자들은 기사, 전문가 대렬로 보충되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도 종국적으로 청산되게 된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테제에서 새롭게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앴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을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면서 그를 준비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담면하게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점차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우와 같은 책, 40~41페이지)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점차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는 것은 고등의무교육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며 나라의 경제로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단계별로 발전공고화된다. 고등의무교육도 이미 실시된 의무교육제의 성과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의무교육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이 성과에 토대하여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의무교육제도이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새세대들에게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원만히 줄수 있게 준비시키는 선행공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중등일반교육을 잘 주어야 대학에서의 전문교육도 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학건설과 교원양성, 실험실습토대의 구축 등 준비사업을 선행시킨데 토대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기본을 두면서 고등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전체 인민에게

고등교육을 주어야 할 사정과 관련된 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全民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또한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민족간부를 더 많이 키워낼수 있게 하며 학습과 실천활동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는 그것이 모두 현존대학이나 공장, 기업소들에 병설되고있는 조건에서 이미 있는 교원원천과 교육시설, 실험실습토대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인재양성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공장대학들을 큰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이 설치하고 그 규모를 늘이며 농촌지역에 농장대학을 새로 내오는것은 공업과 농업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고등의무교육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것을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전반적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

적수요를 보장하며 각 도에 종합적간부 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41페이지)

대학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본거지이며 민족기술간부육성의 믿음직한 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고등교육기관을 배치하는데서는 나라의 전반적균형과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의 합리적균형을 보장하여야 하며 각 도마다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배치하는데서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의 합리적균형을 보장하고 도마다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것은 간부들에 대한 지방적 및 부문별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의 종합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이미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는 훌륭한 민족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있다. 매 군에는 한개 이상의 고등전문학교, 중요한 공업지구들에는 공장고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이 있으며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지방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도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방적특성에 맞게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의 과학부문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것을 고등의무교육을 준비하는 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시기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부문별로 대학들과 대학의 학부, 학과들을 옹게 편성하고 학생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41페이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개척하거나 해결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며 그에 맞게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담당한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학부와 학과들을 전망적수요에 맞게 옹게 편성하고 양성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하고 여기에 맞게 대학의 학부와 학과를 편성하여야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따라세울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사, 전문가들을 길러낼수 있다.

대학의 학부와 학과 편성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자연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고 기술인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문학계통에 비한 자연과학기술계통의 비중을 훨씬 높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고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 방도와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튼튼한 리론실천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 방도와 과업은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실현하며 사

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다그쳐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앞당기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교육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제시된 독창적인 교육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고등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제시된 탁월한 교육사상이다.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사변으로 될 고등의무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방침이 제시되려면 이미 전반적인 고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사업에서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고 나라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태도가 축성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교육방침과 민족간부양성방침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의 혜택으로 모든 새세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100만의 인텔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공업화가 완성되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고등의무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체제에서 내놓으신 고등의무교육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교육건설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으로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의 인텔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실제적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끊임없이 앞당기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고등의무교육제에 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세계 교육사에는 처음으로 고등의무교육제라는 술어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인류는 이것을 새로운 비상으로 그리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제에서 새롭게 밝히신 고등의무교육제가 빛나게 실현될 때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모두 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로교육을 받게 될것이며 《교육의 나라》로 불리우는 우리 나라는 전민이 대학생으로, 모두가 기사, 전문가로 되는 나라로 그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교육강령이며 혁명인재육성의 총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키워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

박 성 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토지법에 대하여》에서와 몸소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토지소유관계와 토지건설, 토지이용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구체적인 방도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므로써 우리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인 토지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알뜰히 관리이용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고 나라의 물질적부를 끊임없이 늘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

*

토지를 잘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원칙적요구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토지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토지보호, 토지관리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토지법에 대하여》, 단행본, 10페이지)

토지는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재부이다.

토지는 농업에서의 기본생산수단이며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터전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떠나서는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토지를 잘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알곡, 공예작물, 남새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와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토지를 잘 보호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거의 80%가 산으로 되어있고 농경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를 잘 보호하지 않고서는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없다. 토지건설을 다그치고 한치의 땅도 류실되지 않게 철저히 보호하며 알뜰히 관리이용하여야 농경지가 적은 조건에서도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다.

토지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한행전선

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도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을 일으키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무더기비가 쏟아지고 왕가물이 들며 태풍이 부는 등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여러 나라들에서 토지를 비롯한 많은 재부들이 류실되고있으며 농사가 잘 안되어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미치고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오랜 기간 계속될것이 예견되고있다.

그러므로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랭전선으로 인한 그 어떤 무더기비의 피해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있으며 나라의 재부들을 튼튼히 보호할수 있다.

이처럼 토지를 잘 보호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있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토지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여기에 큰 힘을 넣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관개공사와 강하천정리사업, 산림조성사업과 사방야계공사, 고인물배기공사 등 자연개조를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몸소 전투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토지관리사업, 토지건설사업과 함께 토지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국토의 파괴와 류실을 막고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를 보호관리하는데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집대성하고있으며 국토건설과 토지보호관리에

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토지보호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여기에는 토지보호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보호관리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토지보호사업의 목적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토지는 어느때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생활의 필수적수단으로 되지만 토지보호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착취사회에서는 토지자체가 사적소유로 되어있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따라서 착취사회에서는 자연의 피해로부터 토지를 보호하며 류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 취해진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치부를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보호사업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사회주의하에서만 나라와 인민을 위한 참다운 사업으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토지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토지보호사업의 목적이 토지의 류실을 막음으로써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규제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어있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 하에서 토지보호사업은 곧 국가와 인민을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토지보호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을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또한 토지보호사업의 내용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의 온갖 피해를 막고 토지를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인민의 귀중한 생화학원이며 나라의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인 토지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토지보호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토지보호사업은 토지를 류실시키거나 못쓰게 만드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토지보호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토지를 파괴하는 모든 요인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지를 다같이 철저히 보호할수 있다.

사회주의토지법은 강하천정리와 산림조성사업을 토지보호사업의 주되는 내용으로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지를 보호하는 사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습니다. 농경지를 보호하려면 산림을 잘 조성하며 강하천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산림을 조성하는것은 강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토지법에 대하여》, 단행본, 10페이지)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 등 여러가지 토지를 보호하는 사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토지와 귀중한 재산들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토지법에 규제된대로 강바닥 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사방양제공사를 질적으로 하고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는것과 같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잘하여야 큰물피해를 철저히 막을수 있으며 토지의 류실을 미리 막을수 있다.

오늘 탄광, 광산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버력과 미광이 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것은 농경지와 강하천을 보호하며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옆에 있는 골짜기들에 독을 쏟고 거기에 버력을 쌓아두게 하며 광산마다 미광침전지를 잘 만들도록 하여야 미광이나 버력이 비물에 밀려 강으로 들어가는것을 막을수 있으며 농경지의 침수와 파괴, 류실을 방지할수 있다.

토지보호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로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더우기 미제가 강요한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산과 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군중적운동으로 산림조성사업을 꾸준히 벌려온 결과 도시주변으로부터 깊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그러나 원래 강우량이 많고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비물에 농경지가 류실되거나 땅이 씻겨내려 강바닥이 메워질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보호사업에서는 산림조성사업이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토지법은 산림설계를 잘 만들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며 나무를 많이 심고 그것을 산불,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며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과 같은 여러가지 보호림을 조성하는 등 산림조성사업의 구체적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토지를 보호하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토지보호사업은 토지관리, 토지건설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전반적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독창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토지보호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게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옹계 결합시켜 풀어나가는 것이다.

토지보호사업에서 당면한 과업수행에만 관심을 돌리고 전망적인 과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토지류실을 일시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없앨 수 없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반대로 토지보호를 위한 전망목표를 훌륭히 세웠다 하더라도 당면한 과업수행에 힘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현실적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서 토지보호를 위한 전망과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강하권정리사업을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

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하며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리용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이리하여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토지보호를 위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옹계 결합시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밝혀졌으며 국토의 면모를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개변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토지보호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토지법에 규제되어있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를 보호하는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하여야 할 공동의 과업입니다.》
(우와 같은 책, 12페이지)

토지보호사업은 어느 한 지역의 토지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며 수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토지에 피해를 주는 온갖 요인들을 철저히 극복하여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농민들이나 전문기관의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며 오직 전인민적운동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토지법은 강하권정리와 그 시설물에 대한 보호사업,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된 행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도까지 뚜렷이 명시하였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토지보호사업을 다그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또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원칙을 규제하고 있다.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자면 토지를 류실시키는 원인들을 똑똑히 밝히고 자연의 법칙들을 옹계 리용하여 그것을 극복하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토지법은 강하천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고 강하천시설의 유지보수사업과 산림의 보호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류실을 막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의 목적과 내용,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비롯하여 토지보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는 주체의 토지법전이다.

사회주의토지법에 명시되어있는 토지보호사업에 관한 법적규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토지의 류실을 철저히 막을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뚜렷한 목표와 투쟁방도를 가지고 토지보호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토지법이 제정됨으로써 토지보호를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토지보호강령이 마련되었으며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여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려졌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토지법전이며 토지보호사업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상과 애국주의사상이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후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고향을 흠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1면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참가 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토지보호방침과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들을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구상대로 토지보호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토지보호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으며 나라와 인민의 재부를 철저히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인 토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재해로부터 토지의 류실을 미리 막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리는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것이다.

토지보호사업은 국가기관, 기업소들과 사회협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한결같이 달라붙어련 대적투쟁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토지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철저히 조직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산림자원과 나무모생 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전망성있게 세워야 하며 중요한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모가 나게 해제결수 있도록 사업을 간지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토지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보호사업을 고정분담시키는것은 사회주의토지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광범한 근로대중의 힘을 발동시켜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성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토관리기관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학교들에 담당구역을 설정하여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구역의 토지보호사업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실속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토지의 류실을 막기 위하여서는 또한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토지를 리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공민들이 토지보호사업을 잘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토지보호사업에 대한 통제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실현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토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

화하여야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의 류실을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부문별 규정들을 만들고 토지를 리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들과 국토관리기관들은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토지를 리용하는 모든 기관들과 공민들이 강바닥파기와 사방야제공사를 비롯하여 큰물피해로부터 토지의 류실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공사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도록 옹게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 및 공민들이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 나무를 베지 말며 여러가지 보호림과 경제림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관리기관들은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하여 강하천, 호소, 저수지들에 여러가지 유독물질을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리는 현상이 없도록 감독통제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토지보호사업에서 지방본위주의,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근로자들과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당의 토지보호방침과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두다 사회주의토지법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한치의 땅도 류실시키지 않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여나가지.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다

조 동 월

오늘은 나라 인민들과 함께 급진군
안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한 작황을 이룩한 올해
영농사업을 잘 결속하고 명년도에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
행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우리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으며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
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가고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
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혁명과
업수행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열매
이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
시하신 혁명과업수행과정을 곧 혁명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적극적이며 진공적인
혁명화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
고있다.

우리는 이미 생활을 통하여 그 정
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
된 혁명과업수행과정을 곧 혁명화과정
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
르치심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자신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
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준
비하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있게 밀
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혁명실
천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혁명실
천과 하나의 통일적과정속에서 밀접히
결합될 때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어나
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
실천의 커다란 교양적역할에 관한 과학
적해명에 기초하시여 혁명과업수행과정
을 곧 혁명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의 모
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더 빨리 키워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
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
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
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
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8페이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곧 자신
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다.

공산주의를 리론적으로 파악하고 혁
명화가 무엇인지 말로 안다고 하여 저
절로 혁명화가 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높
은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가하는 실천투쟁속에서만 사

상의지가 단련되고 숭고한 혁명가적품성이 배양되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로 단련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활동과정이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오늘 우리의 매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는 혁명초소와 위치, 그들의 구체적임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사업과 생활, 모든 활동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路線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꽃피워나가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 이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서 자신들의 혁명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과업수행과정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며 척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온 사회의 혁명화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순결한 피가 차넘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진정으로 혁명화되려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이 원칙적요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

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되어나갈수 있다.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그자체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벽란 투쟁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을 더욱 튼튼히 지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으로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말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뼈와 살로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없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림장에서 빛나게 관철하는 과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물과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기어이 관철해내는 혁명가적기풍을 세우게 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굳은 각오를 가지게 된다.

실천적경험은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활동이야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수행과정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전투적기질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화한다는것은 개인의 리의를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16페이지)

사람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강의한 의지와 전투적기질을 배양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은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와 전투적기질을 가져야만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공산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적품모가 확고히 지배하는 사회인것만큼 모든 사람들을 이 사회에 상응한 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혁명가적품모를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속에서 공산주의적품모를 키우고 완성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서 그것은 집단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의 공고한 단합과 협조 밑에서 그 성과가 담보된다.

그러므로 혁명과업수행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심성의 일하는것이 곧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한것이며 집단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생동한 현실체험을 통하여 깊이 느낄수 있게 하여준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집단과 조직을 무한히 사랑하며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키우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그 과정을 다그치는데 실로 큰 작용을 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강의한 의지와 전투적기질을 키워주는 혁명적단련의 학교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난관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다. 그리고 온갖 반동적이며 낡은것과의 투쟁도 벌리게 된다.

바로 이 길을 걸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행진에 근로자들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백철불굴의 혁명정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등 혁명가의 품성과 기질을 지닐수 있게 된다.

혁명적실천속에 뛰어들지 않고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품성을 갖춘다는것은 물을 떠나 지상에서 수영동작을 다 배울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오늘 금천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그 어떤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무조건 수행해내는 혁명가적품성을 지닐수 있는것은 바로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배려를 받으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들을 구현해나가는 투쟁의 한길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고 성장되었기때문이다.

참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며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고 단련하기 위한 가장 보람찬 투쟁과정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전선전투강령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특히 우리 군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와 제13차전원회의, 농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지은데 이어 명년도 농업생산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르고있다.

우리앞에 나르고있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이미 뚜렷이 확증된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혁명화하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혁명과업수행과정이 곧 혁명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에 적극 투신하며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권, 260~26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 적극 투신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가답게 살며 일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의 몸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자랑과 행복이란 없다.

우리모두의 일생이 얼마나 값있고 보람찬가 하는것은 육체적생명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혁명초소의 경중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당이 준 혁명임무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수행하는 원칙만이 있을뿐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화되는 과정은 다름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숭선 말아나서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제기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은 아끼지 않고 다 바쳐 싸워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벽이슬을 먼저 차게 마련이고 남보다 곤난과 시련을 더 겪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 힘든 일을 피하고 일을 쉽게 해나가려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도대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다.

우리는 모두다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헌신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라든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업이라도 물불을 해아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자기가 맡은 혁명과

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한시도 참지 못하는 전투적기질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혁명과업수행과정이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자면 또한 자기 맡은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는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만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게 지키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혁명투사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제힘으로 수행해나가는 견결한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은 주인다운 태도에서 흘러나온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그 어떤 사나운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뚫고나가는 용맹과 투지가 세차게 융솟음치게 되며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가 끝없이 샘솟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그 어떤 조건도 문제로 되지 않으며 오직 당이 주는 혁명과업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무조건성의 정신, 절대성의 정신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되는데로 하는 요령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낮은 사업태도가 허용될 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맡은 일을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그 길에서 자신의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혁명과업수행과정을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11페이지)

불타는 정력은 혁명가에게서 뉘 수 없는 고결한 품모이며 사람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전심전력하게 하는 사상적원동력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정력을 가지고 일해나가야만 그 어떤 폭풍에도 드물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 승리를 향하여 과감하게 돌진해나가는 전투적인 혁명가, 불요불굴의 투사로 될 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각오밑에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일한다면 소극과 보수, 안일과 해이,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하루를 열흘, 스무날 맛잡이로 내달려 산더미와 같은 일감도 단숨에 해제결수 있다. 한번 쓰러지면 열번, 백번 다시 일어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함이라면 몸과 마음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높은 희생성과 완강성은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치는 행정에서 생기고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굳어지게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것보다 더 보람찬 삶은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열가지, 백가지 임무도 마다하지않고 도맡아 철저히 수행하려는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혁명의 하루하루를 충성의 나날로 수놓아가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쇠하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자기 맡은 일을 패기있고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과업수행을 조직생활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혁명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임무를 언제나 높은 정치적자각과 의식성을 가지고 수행해나가도록 끊임없이 활력을 부여주는 혁명의 품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으며 더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조직생활은 순간도 떨어져 진행될수 없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생활과정이다. 그러므로 혁명과업수행과정이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려면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혁명과업을 조직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배외없이 언제나 조직생활을 순간도 늦추지 말고 그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정형을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사상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일생을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 고결한 사상적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은 혁명과업수행과정을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개조사업을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도 잘 수행하고 그 행정에서 자신의 사상외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생을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나가야 하며 따라서 죽는 순간까지 혁명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일생동안을 쉬임없이 혁명화하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혁명적의무이며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에서 계속적인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군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워나갈것이다.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김 경 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에 주신 일련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새로
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하신클데 기초하시여 현시기 생산과 건설
의 끊임없는 양양을 위한 중요한 예비
가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는데 있
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
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내부원천을 적극 동
원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
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
고 그 성과적실현으로 우리 당과 인민
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이 땅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의 실천투
쟁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이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
고 나갈 때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경제
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
민자신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
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
어나가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12페이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
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
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
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
력쟁생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
하는 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쌓게 되는
것만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
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구체
적실정에 맞게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
우고 자립적민족경제를 힘있게 건설하
여야 한다.

자기의 기술과 자원, 자기의 민족간
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
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에서
자립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
이다.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실현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주로는 자력쟁생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
과 기술,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야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
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

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또한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으며 튼튼한 경제로 대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특히 이미 마련된 경제로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자기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경제건설의 성과여부도 자체의 내부력량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필장,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어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축적을 증대시키면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또한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언제나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현으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벗어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으며 국가사회재산, 인민의 재산을 극력 절약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남을 쳐다보면서 외부의 원조에만 의존하려 할 때에는 경제적자립을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주체적립장에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게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 나라의 내부력량, 주체적력량이다.

그 누구도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하

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으며 더우기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남의 힘을 믿고 경제건설을 할수는 없는것이다. 특히 제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매달리려 할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자주의식을 잃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기 위해 투쟁하는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게 할뿐아니라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다음 해부터 수행하게 되는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깊이 헤아리시고 올해에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게 기초하여 다음해부터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며 강철공업, 세멘트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려고 합니다.》(《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월프레드 버제트와 한 담화》, 단행본, 6페이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이미 마련된 경제로대에 살을 붙이고 보강하며 새로운 생산건설을 다그쳐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대한 내부예비와 풍부한 자원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끈전을 아껴가면서 건설해놓은 정

제토대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크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개조한다면 지금 있는 밀천을 가지고도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이미 건설해놓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다 내도록 하면 여기에서만도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나온다.

나라의 공작기계대수만 하여도 수십만대를 해아리는 조건에서 지금 있는 공작기계생산능력을 높이며 기술개선을 하고 자동화, 프레스화를 하며 설비 관리와 보수 사업을 잘하고 기계설비의 가동률과 가공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특히 프레스화와 형단조화를 널리 받아들이면 강재를 지금보다 배나 절약하고 기계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가공시간을 단축하고 공작기계들의 능력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착암기와 적재기, 전차, 체인콘베아, 대형불도젠, 굴착기, 대형자동차 등을 많이 생산하여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때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다.

건설부문에서 설계를 개선하고 설계에서 허식과 낭비를 없애면 많은 예비물을 찾아낼수 있으며 세멘트, 목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 있는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공장과 살림집, 문화후생시설들을 일떠세울수 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단위당 수확고와 토지리용률이 매우 높지만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예비는 대단히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연개조 5대방침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더 잘 실현해나간다면 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

들과 과일, 남새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의 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실로 동원할수 있는 예비는 무진장하며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것이 나오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경험은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할 때 부닥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보장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인민대중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던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부닥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최대한의 종산과 절약>의 전투적인 구호밑에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였기때문이었다.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함으로써 1974년 <70일전투>기간에 그전에 비하여 생산을 평균 1.7배로 높였으며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할 때 우리는 새 전망계획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다.

*

*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하자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며 모르는 문제는 배우고 연구하여 알도록 하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아가는 굴할줄 모르는 혁명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4페이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일이 저절로 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남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자체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 진공적정신이다. 그것은 또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적정신이며 곤난앞에서 주저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받아나가 극복하고야마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은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전투적정신이며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고상한 정신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어도 추호의 동요도 모르며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는 문제도 구경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려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하여 그것이 결코 저절로 동원리용되는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의 낮은 단계나 복구기에는 비교적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유희자재나 유희로력과 같은 예비, 생산잠재력이 많을수 있다. 그러

나 오늘에 와서 동원할수 있는 중요한 예비는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관련된 항구적인 예비이다.

이러한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자면 로동제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질적특성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일떠서야 한다. 온갖 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거나 팔짱을 끼고앉아서 모든 수단들이 다 마련되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아무리 옳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혁명을 할수도 없고 제힘으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건과 수단들을 자체의 투쟁으로 마련해나가며 빈터우에서 락원을 일떠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는것은 내부원천을 옹계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떠밀고나가려는 그들의 비상한 열정에 지도일군들의 옳은 지도와 조직사업이 안반침될 때 내부원천의 동원리용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다.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낭비를 막고 더 많이 절약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분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토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맞물려야 하며 계획작성에서부터 최대한으로 절약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잘 세우는것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조건을 잘 보장하여주는 것은 경제조직사업의 중심내용의 하나이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기관들과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생산현장에까지 계획적으로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를 절약하며 숨은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있는것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자재가 계획된대로 정확히 쓰이도록 통제를 강화하여 그것을 낭비하거나 류용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혁명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초라고 하시면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낼 때 우리는 채굴공업, 수산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생산적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설비를 개조완성하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하여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완전히 리용하는것은 기술혁

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설비들을 현대적기술로 개조하며 현존생산토대를 완전히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기 위한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것은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운 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나갔다. 지난 기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해온 공장, 기업소들을 오늘 새로운 현대적기술로 개조한다면 우리는 투자를 적게 들이고도 더 많은 생산능력을 조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존 기술수준과 기술상태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개조를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원자재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내부예비를 더 많이 탐구동원함으로써 있는 설비와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해야 한다.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우는것, 이것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7페이지)

절약제도는 토력과 자재, 설비와 자금을 적게 들이고 가장 높은 경제적결과를 이룩하는 경리운영의 원칙이다.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 토력을 절약할수 있는 예비야 얼마든지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물자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어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춘다면 많은 물자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물자의 보관관리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도 많은 예비야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은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약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물자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원료, 자재별로 국가에서 제정한 물자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이미 제정된 소비기준을 선진적인 기준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연유, 석탄, 전력을 비롯한 원료, 연료, 동력을 더 많이 절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 원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자기 부문의 물자재산을 정확히 등록한 다음 그것을 생산에 최대한 리용하며 놓고있거나 필요치 않은것들은 다른 부문에 넘겨줌으로써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물자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규율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계획을 잘 세우며 생산총화를 재정총화와 동시에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이상의 자재와 설비를 사들여 사장시키거나 제품을 체화시키는 현상이 없도록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

살이를 더욱 간지고 알뜰히 하여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야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라면 크고작은것을 가리지 말고 한알의 쌀, 한치의 천, 한장의 벽돌이라도 아껴쓰며 더 많이 절약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모든 지도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데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자체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의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모두가 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며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 사업기풍, 사업태도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그린 빛나는 예술적화폭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 대하여—

허 백 산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 어버이수령님과 인민대중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과 실효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과정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화의 주인공 어머니를 따라배우며 어머니처럼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일하려는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결의는 그대로 사업과 생활에 옮겨지고있으며 날에날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낳고있다.

참으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 무기로 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

*

우리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보람찬 투쟁에 복무하여야 한다.

정예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5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영화예술도 마땅히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의 모든 부분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영화예술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로 된다.

이 영화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서해지구의 어느 한 농촌 마을에 살고있는 유가족어머니의 생활에서 있는 실지사실에 기초하여 만든것으로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영화는 주인공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

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도리이며 본분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어머니는 가정과 마을의 모범이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귀감이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확고부동한 신념이었고 생활의 목적이였다. 하기에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두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온 가정을 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성다하도록 이끌어나가며 원썬들의 박해와 모략을 짓부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축산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해 나가는것이다.

어머니가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 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은 선저날 남포로 나가시는 길에 마을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수령님께 드린 그의 말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수령님! 얼굴이 많이 축가신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넘려마십시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매우 어려웠던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어머니의 이 말씀은 비록 한 농촌녀인의 소박한 심정이였으나 그것은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였으며 거기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 한분만을 생각하며 수령님께서 전강하시고 만년장수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담겨있다. 또한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변할줄 모르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영화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대변하고있는 어머니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영화는 주인공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것이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어머니는 나이로 보아 쉰 때도 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진하여 돼지기르는 일에 발벗고나섰다. 그는 농촌녀성이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돼지기르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것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축산물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이 담겨있으며 축산을 많이 하여 비료를 많이 내고 그것으로 농사를 더 잘 짓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하기에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돼지기르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반당종파분자들이 인민생활을 핑계대고 당의 축산정책을 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갖은 박해를 가할때에도 어머니는 굴함없이 그자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당의 축산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의 숭엄한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자신의 한목숨 마쳐서라도

기어이 관철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게 된다.

영화는 주인공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접수하며 무한한 희생성을 발휘하여 자그마한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그와 어긋나는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 어머니의 충성심을 그리면서 수령님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과 그 불패의 힘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에 대한 사상은 영화전반에 일관되고 있다.

영화는 이 뜻깊은 사상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되게 하는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심오하게 밝혀내고 있다.

영화는 강선의 로동계급과 어머니일가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사실 그대로 그려내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이야말로 수령님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강선의 로동계급과 어머니일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통하여 영화는 수령님께서 걸어 오시는 장구한 혁명로정은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수놓아진 빛나는 력사이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어제오늘에 싹튼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력사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일반화하였다.

영화는 지난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피눈물을 뿌리며 죽지 못해 살아오던 어머니와 그의 일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다시 태어나 참다운 생활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생각하고 따르며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감정이며 생활신조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끝없는 충성심은 그대로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충성심이며 그것은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인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 어머니일가를 통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무한한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있게 그려냄으로써 사랑과 충성으로 이어진 수령님과 인민의 깨뜨릴래야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생활적으로 힘있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투쟁에서 산 본보기로 되며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주인공 어머니가 자신만 아니라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도록 가족들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사회의 세모인 가정을 혁명화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주인공 일가의 생활을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열정이 넘쳐나도록 늘 가족들을

교양하는 뜻깊은 나날로 그리면서 가정 혁명화의 기본요구를 형상적으로 밝혀 주고있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의 혁명적가정은 단순한 혈육의 정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에 의해서 단합될 때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로 변함없이 여세계 나아갈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자기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영화는 주인공일가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치를 재는 기본척도이며 가정의 화목과 온 사회의 통일과 단결의 기초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동력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영화는 가정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데 본보기로 된다.

*

*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56페이지)

사실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본질적인 특징과 그 기본면모를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보여주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

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문제,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에술적가치와 사회적의의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회적문제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것은 작품의 종자가 안고있는 기본문제에 의하여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제약되며 그 인식교양적역할이 좌우되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런데로부터 공산주의인간학은 사회적문제를가운데서 예술적으로 밝힐수 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의 교양에 절실히 필요한 의의있는 인간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바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충실성문제를 기본문제로 내세움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이러한 근본요구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영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충실성문제에 기초하여 이야기대를 세우고 모든 형상요소들을 그에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영화에서 제기되고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도 이 기본문제로 관통되고있다. 축산문제도 단순히 생산문제로 취급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형상되고있으며 주인공어머니일가의 혁명화문제도 단순히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어 옥성이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는 물리도덕적문제도 정치적성격을 띠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영화는 옥성이의 결혼문제를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

타시는데로 참다운 삶을 누리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느냐 아니면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봉건적틀리관의 희생물로 되느냐 하는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로 그리고있다. 나아가서 영화는 이 문제를 한 인간의 운명문제로부터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에서 혁명력량이 승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회정치적문제로 확대시키고있다.

이 모든것은 영화가 정치적생명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인간문제를 제기할데 대한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요구를 옹계 구현하고있으며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내세우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여기에 이 영화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형상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 있으며 영화가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이처럼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추상적개념으로 선언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산 인간형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밝혀내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아무리 사회적의의가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 인간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혀지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가치를 잃게 되므로 인간성격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전형화되고 개성화된 산 인간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제기된 기본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생동하게 밝혀내고있을뿐아니라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어머니는 우리 나라 농촌이면 그 어네서나 흔히 만날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

으로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영화는 어머니의 평범한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감명깊게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심정은 그대로 어머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존엄을 찾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는것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시대의 지향을 체현한 시대의 전형으로 되었으며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참다운 귀감으로 되었다.

주인공 어머니의 모습을 평범하게 그리면서도 그의 형상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주고있는데에 어머니의 형상이 가지고있는 참다운 매력이 있고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거대한 감화력이 있으며 그들을 어머니처럼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견인력이 있는 것이다.

영화는 어머니의 성격의 핵을 이루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일반적인 연설이나 선동적인 호소로써 표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행동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새벽길을 쓰는 장면의 형상은 참으로 뜻깊고 인상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한밤을 뜬눈으로 새운 어머니는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념원을 안고 이른 새벽 안개속을 헤치며 수령님께서 다녀가실 길을 정성껏 쓸며 그 길위에 자신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수놓아가는것이다. 말 한마디 없는 어머니의 이 행동속에는 몇천마디의 말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에 넘치는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주인공 어머니의 충성심을 그가 살며 일하는 모든곳에서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성격의 본질적인 특징이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표현되고 그의 형상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산 형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영화에서 어머니의 형상을 산 인간형상으로 그려낼수 있는것은 생활을 세부화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생동하고 섬세하게 그릴데 대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옹계 구현한 결과이다.

인간성격은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생활을 통하여 밝혀지는것만큼 문학에 술작품에서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데 따라 인물형상이 살아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은 구체성과 생동성을 가지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릴 때에만 진실한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제기된 기본문제도 자연스럽게 밝혀낼수 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역사적 사변들로 충만된 거창한 생활을 취급하지 않고 농촌마을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평범한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그 생활을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있기때문에 뜻깊게 안겨오는것이다.

물때질을 하고 무명낭이를 하며 장보러 가는 어머니의 생활도 그 시절에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일상생활이었다. 그러나 밤을 새워가며 정성들여 짠 무명을 팔아 라지오했다. 아들에게 줄 때 그 평범한 생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뜻깊게 부각되는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들이 라지오했을 통하여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듣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이다.

영화에서는 이처럼 평범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림으로써 인물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었다.

*

*

참으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감동적으로 노래할수 있었다.

이 영화는 한평생을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격조높이 구가한 송가이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은 충성의 노래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으로 이어진 수령님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과 그 불패의 위력을 노래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주인공어머니를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할것이다.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 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불력불가담운동 발전의 절박한 요구

리 화 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치열한 투쟁형편을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시고 반제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탁월한 전략적원칙들을 오늘의 정세에 맞게 적용하시여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불력불가담나라들의 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역사적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최후 발악적인 양면전술, 분열리간책동을 저지과탄시키고 불력불가담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의 시대발전과 세계의 혁명적전환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의 반지배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오늘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불력불가담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불력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이다.

불력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세계력량관계는 평화와 진보, 자주의 편에 더

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최근년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의 역사적승리에 의하여 불력불가담운동의 위력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제국주의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불력불가담정책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망라시키고있다.

오늘 불력불가담나라들은 이미 쟁취한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원래독립체들을 반대하고 자기의 민족적자원을 통제하며 그것을 자기 나라의 리익에 맞게 개발하고 리용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불력불가담운동은 현시기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불력불가담운동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 번영을 위한 전반적 피압박인민들과 신흥세력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이 벌리는 투쟁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으로서 침략을 일삼고있는 서방렬강들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쇠퇴몰락과정을 촉진시키고있다. 이 투쟁에 의하여 지구상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면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

제국주의자물, 지배주의자물은 불력

불가담운동은 재자체를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 위력과 영향력이 장성장화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을 반대하는데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말살 또는 약화시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잃어버린 옛진지를 되찾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여보려고 계속 책동하고있다.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가 심각화됨에 따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흥세력을 반대하는 갖가지 음모책동들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승리의 기능과 교형리의 기능을 배합한 양면전술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실현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며 제국주의국가의 외교정책을 특징짓는 주요내용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에 신식민주의수법을 배합하여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피의들을 통한 대리전쟁, 위협공갈과 매수, 희유기만과 파괴전복활동, 경제문화침투와 같은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다하여 불력불가담나라들에 다시 정치적예속과 경제적불평등을 강요하려 하고있다.

피로 얼룩진 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서 양면성, 교활성이 지금처럼 절정에 이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마련한 <평화>의 면사포속에서 전쟁의 화약배가 쏘이고 자선가, 구세주로 자처하는 그들의 감언리설에 침략의 독기가 서려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서 특별히 경계하여야 할것은 분할하여 통치하며 리간시켜 어부지리를 얻고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는 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세력이 세계의 곳곳에서 쟁탈전을 벌리면서 불력불가담나라들을 서로

꺼당겨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두려고 하며 불력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을 분열화해시키려 하고있는것입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는 데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명토문제를 비롯한 분쟁문제와 종교적, 종족적 차이 등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썩기를 치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난판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돈, 식량, 무기 등으로 병주고 약주는 식의 <원조>를 가지고 그들을 끌어당기고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겨 싸우게 하려 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에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고 분쟁을 일으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자본의 반혁명적련합전선을 꿈꾸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공산주의에 대한 이른바 <신성한> 토벌을 위하여 전구라파의 반동세력이 련합하였던것처럼 오늘날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등장한 불력불가담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성아메리카동맹을 결성하려는 교활한 책동이다.

세계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반혁명적세계전략에 의하여 오늘 불력불가담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세계의 낡은 구조는 뒤흔돌리고있으나 아직도 신흥세력인민들이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침략위협을 당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지배주의는 강권정치와 강압적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통제, 예

속과 간섭을 일삼으며 국제관계에서 특권적지위를 요구하고 오만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적, 반동적인 세력이다.

온갖 지배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불력불가담운동은 사분오열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 위업은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볼수 있다.

현정세는 모든 불력불가담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예측화정책과 반혁명적량면전술을 단호히 짓부서버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에 대처하여 불력불가담나라들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분열, 와해, 쟁탈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불력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불력불가담운동의 위력은 그 대렬의 통일에 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의 단합된 역량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나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신흥세력의 전반적범위에서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보장한다. 오직 강력한 반제국주의, 반지배주의 공동전선을 펴고 단결의 힘에 의거함으로써만 불력불가담나라들은 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연합된 지배주의세력을 압도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단결은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인민대중은 역사무대에 등장한 첫시각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완고한 낡은 세력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통일된 대오로 나아감으로써만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해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

불력불가담운동의 단결의 위력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을 저지시키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적리익과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반대하는 통일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미 뚜렷이 증명되였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있으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침략, 예측을 반대하고 독립과 평등, 평화와 사회경제적진보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불력불가담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제우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에 존재하는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는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분열을 저지시키고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열리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불력불가담나라들사이에 생긴 의견상이와 분쟁 문제는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민족적리익과 불력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협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견상이를 확대하고 분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침략정책에 리익을 가져다주게

필것이다.

플럭불가담나라들은 자력경쟁하며 일시적인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외래 지배 세력의 《원조》에 유혹되지 말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원래 제국주의 《원조》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의 도구이며 오늘 그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에 이용됨으로써 그 해독성은 더욱 커가고 있다.

플럭불가담운동이 전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플럭불가담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반제투쟁을 떠난 진보적운동이란 있을수 없다. 통일전선의 목적은 단결에 있으며 진정한 단결은 오직 원칙적인 투쟁에 의해서 이룩된다. 반제투쟁을 포기하는것은 타협을 의미하며 결국 통일전선을 제국주의자들의 통략물로 전락시키고 반제력량의 분열을 가져온다. 반제투쟁의 기치밑에서만 모든 플럭불가담나라들이 하나로 굳게 뭉칠수 있으며 플럭불가담운동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플럭불가담운동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신흥세력나라들의 대렬에 제국주의 앞잡이들을 끌어들이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국내외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극도로 고립되어 곤경에 빠지게 되자 제국주의 하수인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플럭불가담운동에 끼여들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그들이 《제3세계의 벗》으로 가장하고 플럭불가담나라들의 대렬에 잠입하려고 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의 길잡이로서 플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파괴시키려는 책동이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플럭불가담운동은 혁명적단결을 이룩하고

반제투쟁의 기치를 고수할수 있다.

플럭불가담나라들이 친선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행동통일의 기준으로 된다.

플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주독립국가들이며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쥐어쥐고 자체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이다.

따라서 플럭불가담 나라들과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이며 그것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플럭불가담 나라들과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오늘 플럭불가담나라들앞에는 반제 민족해방위업을 철저히 완성하고 사회주의에로 계속 나아가며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끝장내고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여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임무를 옹기 수행하자면 플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굳게 단결하여 국제적인 반지배주의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플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정치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플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적 및 당적 관계를 밀접히 한 기초우에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매개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서로 적극 지지하며 고무하는것이 필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내세우고있는 정치로선과 정책들은 민족적 존엄과 이익과

관련되는 첨예하고 중대한 문제들이며 이 나라들의 주되는 힘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돌려지고있다.

호상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은 불력불가담나라들을 강력한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튼튼히 련결시키고 매개 민족국가들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신흥세력인민들의 반제자주의 공동위업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특히 불력불가담나라들은 무력사용의 위협, 간섭, 침략 그리고 불력불가담나라들의 자주성, 령토완정, 독립 및 안전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강압조치들을 반대하는 공동행동과 집단조치를 취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어느 한 불력불가담나라라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의 희생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어느 지역에도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침략의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한 불력불가담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모든 불력불가담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절결히 반대하며 침해당한 나라에 온갖 지원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만약 그 어떤 나라가 불력불가담나라에 대하여 침략과 간섭 행위를 감행한다면 불력불가담나라들이 집단적으로 침략을 감행한 나라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단절하며 그밖의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고 조직된 력량으로 나갈 때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짓부시고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합리한 국제기구들도 능히 세계진보적인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구들로 전변시킬수 있을것이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 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간고한 투쟁과 커다란 희생을 대가로 하여 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은 지

금 민족재건의 힘겨운 과업과 복잡한 사회경제적문제들에 직면하고있다.

그러나 불력불가담나라들이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호상 유무상통한다면 외부의 침략에 성과적으로 대항할수 있고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경제를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자주, 자립을 이룩하는 길에서 이미 적지 않은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의 <원조> 없이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살아갈수 없는듯이 말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발전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자본주의공업국들의 석유수요의 60%와 비금속, 희유금속 수요의 80~90%를 할것으로 략탈당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방세계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생산잠재력을 옹계 동원한다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잘 도와나갈수 있다.

불력불가담나라들사이의 협조는 공업화를 촉진시키며 식량과 기본적인 공업제품을 자급자족하며 무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전된 제국주의나라들을 제어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현시기 불력불가담나라들이 자립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제국주의나라들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중요한 공간인 넓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코 주권평등, 민족자결, 령토불가침, 령토완정, 내정불간섭, 호상협조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불력불가담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년간 일련의 국제회의들에서는 이미 넓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움에 대한 많은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여러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낡은 경제질서가 청산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오늘까지도 의연히 불평등한 분업체제와 부등가교환, 약탈적인 통화제도와 차별적인 용자제도, 특허제도에 의한 기술의 독점 등을 통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근면한 노동의 열매와 풍요한 자원을 계속 약탈해가고있다.

뽐력불가담나라들은 국제착취의 근원을 없애고 새로운 공정한 소득분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함으로써 국제경제관계에서 특권적인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침범하며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더는 없게 하여야 한다.

뽐력불가담나라들은 특히에 기초한 통상관계의 발전과 1차산품가격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 재정금융상의 협조, 다국적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집단적통제 등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뽐력불가담나라들이 통일전선운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뽐력불가담운동의 진정한 발전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매개 뽐력불가담나라들은 통일전선운동에 대하여 옳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뽐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뽐력불가담정책의 원칙들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의 원칙들과 일치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확고히 전지하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의 자주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뽐력불가담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을 자기자신의 위업으로 인정하여왔다.

우리는 뽐력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여기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와 뽐력불가담나라들 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뽐력불가담나라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뽐력불가담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뽐력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단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뽐력불가담나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뽐력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할것이며 뽐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뽐력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뽐력불가담운동의 승고한 목적과 리념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해방 위업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침략과 약탈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7년 제12호 (무게 428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 • 1977년 12월 1일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발행 • 1977년 12월 5일

7-7528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50전

1977년도 《근로자》 차례목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총 목 지

| | |
|----------------------------------|----------|
| 신년사..... | 1.....2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삼무취체역인 | |
| 편집국장 일행과 하신 담화..... | 5.....2 |
|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 8.....2 |
|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8.....8 |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레제 | 10.....2 |

편집국론설

| | |
|---|----------|
| 영광의 재해를 더욱 큰 승리로 빛내이자..... | 1.....9 |
|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 |
|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 | 1... 15 |
| 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 1... 35 |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 |
| 의지이며 혁명적신조이다..... | 2.....2 |
|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 | 3.....2 |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돈독히 무장시키자..... | 3.....9 |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철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 | |
|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요구..... | 3 ...15 |
|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 4.....2 |
|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모선..... | 5.....9 |
|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5 ...17 |
|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6.....2 |
|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강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리의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자..... | 6 ...18 |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이가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 | 7.....2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는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 7.....8 |
|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 | 8 ...19 |
|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 9.....2 |
|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자..... | 9 ...12 |
|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 | 10 ...30 |
|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 | 10 ...38 |
|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적력량이다..... | 10 ...49 |
| 정치적생명은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이다..... | 11.....2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 | 12.....2 |
| 자주의 태도를 철저히 구현하자..... | 12.....9 |

혁명전통론설

| | |
|---|-----------|
| 항일무장투쟁시기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합기풍..... | 1.....23 |
|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 | 2.....10 |
|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국민회..... | 3.....29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 |
|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철적영웅이시다..... | 4.....41 |
|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 | 5.....26 |
| 조국광복의 서판을 비쳐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 6.....16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 | 8.....14 |
|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 9.....18 |
| 주체의 기치밑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 11.....10 |

당 건 설 른 설

| | |
|--|--|
|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1.....41 | |
|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2.....26 | |
| 우리 당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빛나는 구현.....2.....34 | |
|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2.....40 | |
|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2.....56 | |
| 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3.....53 | |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46 | |
|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파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5.....82 | |
|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6.....28 | |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는 당적행도의 기본요구.....7..... 14 | |
| 우리의 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7.....20 | |
|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파업을 위함하 밝혀준 강령적지침.....7.....27 | |
| 당정책판결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6..... 36 | |
|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군들의 지휘능력.....9.....80 | |
| 교육기관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중요담보.....11.....42 | |
|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대법전.....12.....19 | |

정 치 사 상 른 설

| | |
|---|--|
|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토건 판결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1.....29 | |
| 전면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담보.....1.....47 | |
|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위업.....2.....18 | |
|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2.....48 | |
|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송고한 혁명적의리.....3.....22 | |
|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3.....34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투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4.....31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다.....4.....51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명도의 예술가이시다.....4.....64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4.....76 | |
|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5.....49 | |
|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6.....22 | |
| 주체의 군사사상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군사사상.....6.....35 | |
| 사회주의적공동생활결사를 잘 지키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과업.....7.....34 | |
| 위대한 력사, 불멸의 업적을 펼쳐보여주는 기념비적대작.....8.....28 | |
| 민족문화유물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8.....54 | |
|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9.....36 | |
| 궁정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궁중교양방법.....9.....43 | |
|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9.....49 |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11.....17 | |
|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길을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내용.....11.....24 | |
|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11.....30 | |
|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11.....36 | |
| 고등의무교육제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12.....26 | |

| | |
|--|-----------|
|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다..... | 12.....38 |
|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그런 빛나는 예술적화록..... | 12.....50 |

경제건설론설

| | |
|---|-----------|
|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선..... | 1.....53 |
|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요구..... | 3.....40 |
|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 | 3.....47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 4.....19 |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편철하는것은 농업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 5.....38 |
| 수송전선을 추켜세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5.....44 |
|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 | 5.....42 |
|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자..... | 6.....49 |
| 도시경영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 시키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 | 6.....54 |
|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 7.....40 |
|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 7.....47 |
|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 8.....41 |
|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자..... | 8.....47 |
|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를 전방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 9.....24 |
| 원가를 낮추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과업..... | 9.....55 |
|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 10.....55 |
|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지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옮겨 결합시키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 11.....43 |
| 기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 11.....55 |
|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 | 12.....52 |
|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 12.....44 |

남조선 및 국제론설

| | |
|--|-----------|
|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분열을 막고 투쟁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 1.....59 |
|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 | 3.....59 |
| 남조선에 있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위함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다..... | 4.....87 |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 4.....100 |
| 신용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 | 5.....60 |
| 남북협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 | 5.....55 |
|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 6.....59 |
|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자..... | 7.....53 |
| 세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 | 7.....59 |
|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 8.....59 |
| 조선문제는 세계관심의 초점..... | 9.....60 |
| 경제수익실정은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 | 10.....60 |
|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선차적문제..... | 11.....60 |
|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불리불가담 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 | 12.....56 |

(정기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RETURN EAST ASIATIC LIBRARY
TO → 208 Durant Hall 642-2556

| | | |
|---------------------------------|---|---|
| LOAN PERIOD 1 1 MONTH | 2 | 3 |
| 4 | 5 | 6 |

ALL BOOKS MAY BE RECALLED AFTER 7 DAYS

DUE AS STAMPED BELOW

| | | |
|------------------------|--|--|
| MAR 21 1981 | | |
| REC. EAL JUN 22 '81 | | |
| DEC 04 1982 | | |
| INTERLIBRARY LOAN | | |
| NOV 22 1982 | | |
| UNIV. OF CALIF., BERK. | | |
| REC. EAL JAN 12 '82 | | |
| AUG 20 '89 | | |
| DEC 14 1996 | | |
| REC'D | | |
| DEC 23 1996 | | |
| EAL | | |

FORM NO. DD9, 38m, 4'7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RKELEY, CA 94720

®s

